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926-01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성곽 및 고고일반

I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성곽 및 고고일반

발 간 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역사문화 관련 유적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 · 중 철기자료집 Ⅰ~Ⅵ』(2013), 『북방지역 고구려 · 발해 유적 지도집』(2014), 『고구려의 토기』(2016), 『고구려의 철기』(2017), 『고대국가 부여』(2018), 『중국 동북지역 고고조사현황-길림성 · 요녕성 · 흑룡강성 · 내몽고자치구편-1985~2015-(2012 · 2013 · 2017 · 2019)』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발간』 사업은 국내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중국의 우리 역사문화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중국의 고구려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가운데,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간행물은 총 11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일부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보 등에도 소량의 고구려 고고학 관련 연구논문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정기간행물에 보고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 총 248편을 수록하였으며, 도서의 구성은 Ⅰ. 성곽 및 고고일반, Ⅱ. 고분, Ⅲ. 유물로 나누어집니다. Ⅰ권에서는 고구려의 도성 및 산성 그리고 고고일반에

대한 논문 총 87편을 해제하여 수록하였으며, 대체로 고구려 도성의 위치비정 문제, 산성의 축성시기 및 유형 그리고 구조와 관련한 내용이 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Ⅱ권에는 고구려 고분 및 고분벽화와 관련한 논문 총 82편이 수록되었으며, 고분의 구조 및 형식, 고구려 고분벽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내용이 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Ⅲ권에는 고구려 유물에 대한 논문 79편을 담았으며, 특히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연구현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은 현재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현황 및 연구경향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책자를 통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 관련 발굴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구려 연구경향을 심도 깊게 파악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수집과 논문번역을 담당한 직원분들과 이를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9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 종 덕

일러두기

1. 이 책은 중국 주요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학술논문 총 248편을 주제별로 해제하여 수록한 도서입니다.

2. 논문의 제목, 간행물명, 소속은 중국어 간체자를 따랐으며, 필자의 소속은 논문이 게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간행물의 해제는 논문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책의 객관성 및 서술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용어 등은 수정하였습니다.

4. 책에 수록된 모든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하였습니다.

5. 본고에 실린 논고의 용어 등은 저자의 의견이므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발간사 ····· 002

일러두기 ····· 004

Ⅰ. 머리말 ····· 007

Ⅱ. 성곽 및 고고일반 ····· 011

1) 도성 ····· 012

2) 산성 ····· 056

3) 고고일반 ····· 158

Ⅲ. 부록 ····· 227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머리말 I

머 리 말

이번『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발간사업은 중국 내 고구려 고고학에 대한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방지역 우리 역사문화 관련 유적에 대한 고대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고고학 관련 정기간행물은 약 37종이 있으며, 이 중 고구려 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간행물은 중앙의『고고考古』,『고고학보考古學報』,『문물文物』등 3종과 동북 지역의『고고여문물考古與文物』,『박물관연구博物館研究』,『변강고고연구邊疆考古研究』,『북방문물北方文物』,『요해문물학간遼海文物學刊』등 총 8종이다. 또한 고고학 관련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다수 수록된 정기간행물로 길림성에서 발간하는『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戰線』,『학문學問』(『동북사지東北史地』)과 통화사범학원에서 발간하는『통화사범학원학보通化師範學院學報』가 있다.

이번 책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정기간행물에 보고된 고구려 관련 논문 총 248편을 수록하였으며, 오른쪽의 표는 중국 주요 정기간행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본 도서의 구성은 Ⅰ. 성곽 및 고고일반, Ⅱ. 고분, Ⅲ. 유물로 나누어지며, Ⅰ권은 다시 도성, 산성, 고고일반으로 구분된다. 도성과 관련한 논문은 18편으로 주로 오녀산성과 국내성 등의 위치 비정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산성과 관련한 논문은 42편으로 성곽의 축성 시기 및 유형 그리고 구조와 관련한 해제이다. 고고일반은 27편으로 고구려 문화 및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Ⅱ권에서는 고구려 고분과 고분벽화에 대한 논문 82편을 담았다. 고분과 관련한 논문은 40편으로 주로 고분의 구조 및 형식, 그리고 변화 과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실렸다. 고분벽화에 관련한 논문은 42편으로 고분벽화 제제의 표현 내용 및 변천과정에 대한 해제가 대체로 수록되었다. Ⅲ권에서는 고구려 유물에 대한 논문 79편을 실었으며, 각각 금석류 41편, 금속류 11편, 기와류 8편, 토기류 8편, 기타 11편이다. 특히 금석류에서는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연구현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해제되어 있다.

이번 도서는 지리적 · 언어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중국의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해제함으로써 고구려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고구려 및 발해 관련 연구도서를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아갈 예정이다.

본 책자에 소개된 주요 정기 간행물 2018년 12월 기준

연번	간행물명	발간기관	유형	발간 권수	수록 편수*	개 요	비 고
1	고 고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월간	621	8	· 1955년 : 창간(매년 6집씩 출판) · 1958년 : 월간으로 발행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매년 6집씩 출판) · 1983년 : 월간으로 변경	
2	고고학보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계간	212	2	· 1936년 : 『전야고고보고田野考古報告』로 출판 · 1947년 : 『중국고고학보』로 개칭 · 1953년 : 현재 명칭으로 개칭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	
3	문 물	국가문물국	월간	741	8	· 1950년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문물국 자료실 내부자료로 발간 · 1951년 : 부정기 간행물로 공개 발행 · 1953년 : 월간으로 발행 · 1959년 : 『문물』로 개칭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	
4	고고여문물	섬서성문물국 섬서성고고연구원	격월간	228	9	· 1980년 : 창간(4집만 출판) · 1985년 : 5집만 출판 ※ 1980년 1985년 이외에는 격월간으로 출판	동북 지역 관련 논문과 보고서 다수 수록
5	박물관연구	길림성박물원	계간	144	75	· 1982년 : 창간	
6	변강고고연구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간	23	21	· 2002년 : 창간(매년 1~2집씩 출판)	
7	북방문물	북방문물잡지사	계간	149	37	· 1981년 : 『흑룡강문물총간黑龍江文物叢刊』으로 창간 (2집만 출판) · 1982년 : 3집만 출판 · 1985년 : 현재 명칭으로 개칭	
8	요해문물학간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반년	21	21	· 1986년 : 창간(1집만 출판) · 1987년 : 매년 2집씩 출판 · 1998년 : 정간	
9	사회과학전선	길림성 사회과학원	월간	283	20	· 1978년 : 창간(초기에는 계간으로 출발) · 2003년 : 월간으로 발행	철학, 경제학, 역사학 등 인문사회과학의 각 학문 분야를 모두 망라한 정기간행물
10	통화사범 학원학보	통화사범학원	월간	223	25	· 1980년 : 창간(부정기 출판으로 출발) · 1988년 : 계간으로 변경 · 1999년 : 격월간으로 발행 · 2007년 : 월간으로 발행	
11	학 문	길림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고구려연구중심	격월간	79	21	· 1982년 : 창간(『동북사지東北史地』로 출발) · 2016년 : 『학문』으로 개칭 · 2017년 : 정간	

* 11종 정기간행물 이외에 『내몽고문물고고內蒙古文物考古』(1편), 『농업고고農業考古』(1편), 『돈황연구敦煌研究』(1편), 『동남문화東南文化』(3편), 『요령대학학보遼寧大學學報』(1편), 『문물춘추文物春秋』(1편), 『사지학간史志學刊』(1편), 『사학집간史學集刊』(1편), 『사회과학집간社會科學集刊』(1편), 『연변대학학보延邊大學學報』(1편), 『장춘사범학원학보長春師範學院學報』(2편), 『중국역사지리논총中國歷史地理論叢』(1편), 『중국사연구中國史研究』(1편), 『화하고고華夏考古』(2편), 『흑하학간黑河學刊』(1편) 등에 게재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도 본 책자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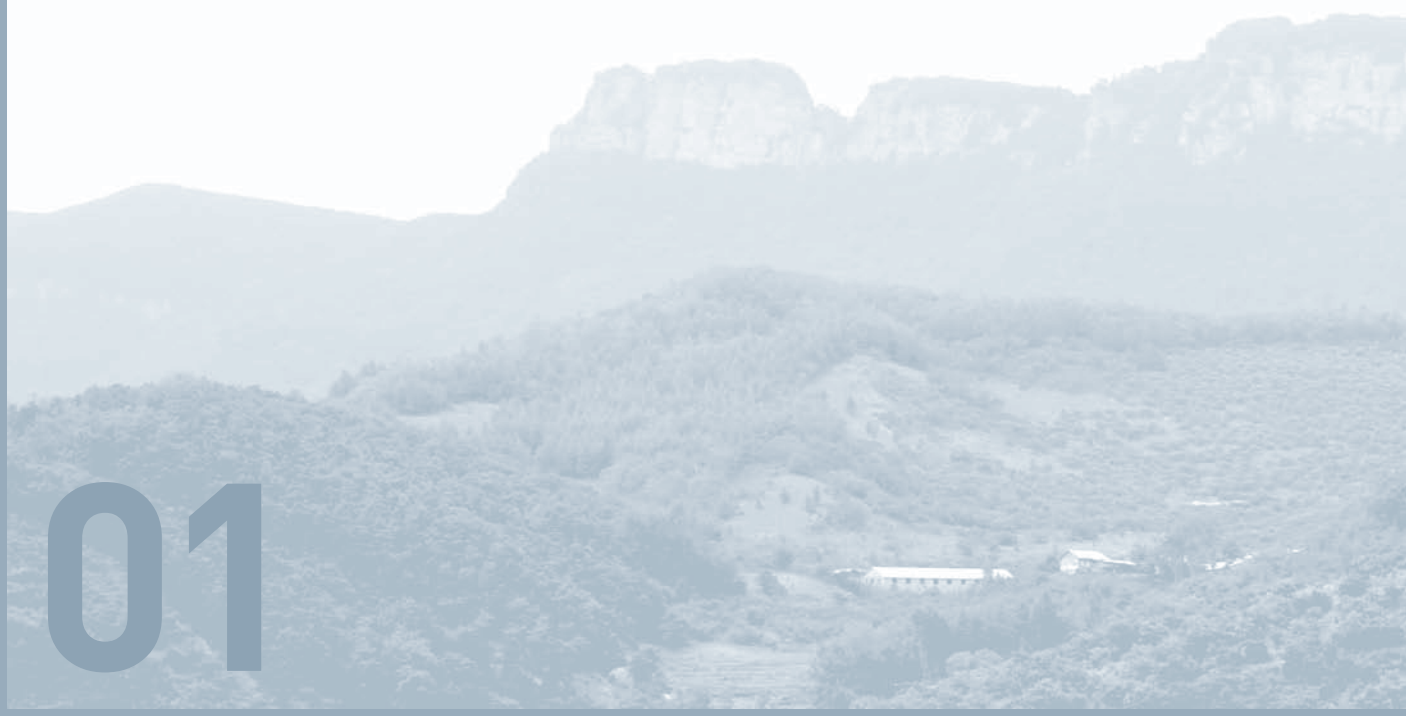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성곽 및 고고일반 II

1) 도성

2) 산성

3) 고고일반



01

량즈룽	가물哥勿 고찰	014-015
리뎬푸 · 쑨위량	고구려의 도성	016-017
리수잉	오녀산성五女山城은 흘승골성紇升骨城이 아니다	018-021
리수잉	국내성國內城 및 그 위치 고찰	022-024
쑨웨이란	고구려 '위나암성尉那巖城' 고찰	025-026
쑹쥐안	고구려 도성 환경 첫 검토	027-028
쑹쥐안	고구려 도성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029-030
왕멘허우	고구려 성읍城邑 제도와 도성	031-032
왕충안 · 지페이	졸본성卒本城에 대한 새로운 고찰	033-034

도성

오녀산성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왕페이펑 환도산성丸都山城 궁전지 연구 035-036

왕페이펑 국내성國內城 체육장體育場 지점 고구려 유적 연구 037-038

왕페이펑 길림吉林 집안集安 동대자東臺子 유적 연구 039-041

웨이춘청 고구려 초, 중기 도성 042-043

웨이춘청 고구려 국내성國內城 서벽 외측 배수함동排水涵洞 및 관련 유적 고찰 044-045

웨이춘청 위진수당魏晉隋唐 시기 중원 지역 도성 구조의 발전 변화 및 고구려, 발해에 대한 영향 046-049

자오사오쥔 국내성國內城 성벽 수축 문제 연구 050-052

자오쥔제 고구려 후기 도성 '평양성平壤城' 재 고찰 053-053

주리예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왕도王都 문화 몇 가지 054-055

저 자 량즈룽梁志龙
본계시 박물관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가물哥勿 고찰

哥勿考辨

가물哥勿은 고구려의 성으로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모두 기록이 있으며 당대唐代에 처음 등장한다. 가물성哥勿城이 현재의 어느 성인지에 대해서는 통화현通化縣의 삼합보산성三合堡山城, 신빈현新賓縣의 전산호산성轉山湖山城, 흑구산성黑溝山城이라는 세 가지 견해가 제기되어 있고, 일찍이 진위푸金毓黻는 가물과 국내國內의 발음이 가까워 양자를 동일하게 보기도 했다. 필자는 가물성이 고구려 첫 번째 도성 흘승골성紇升骨城 즉 요령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오녀산산성五女山山城이라고 생각한다. 조기 사서는 흘승골성으로 썼고, 만기에는 가물성이라 쓴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가물이 다물多勿에서 변화된 것이라고 보고,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삼국사기』에는 주몽朱蒙이 비류국沸流國을 굴복시켜 그 땅을 다물도多勿都로 삼고 국왕 송양松壤이 계속 다스리게 했는데, 고구려어로 구토 회복을 다물이라 말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리왕琉璃王 2년(기원전 8)에는 다물후多勿侯 송양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다. 송양의 작위명인 다물후의 다물은 지명으로 비류국의 국도였을 것이다. 역대로 신하에게 작위를 하사할 때는 대부분 지명으로 이름을 붙였다. 전국戰國시대 상앙商鞅은 상商의 땅에 봉해져 상군商君이라 불렸고, 한漢의 한신韓信 역시 제齊의 땅에 봉해져 제왕齊王이라 불렸다. 즉 주몽이 다물을 얻은 후 그 땅을 송양에게 다시 관리하게 하면서 다물후로 봉했던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송양에게 옛 영토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준 것이므로 고구려어로 구토 회복을 다물이라 한다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다물이 가물이고, 동시에 흘승골성이다. 그런데 흘승골성은 본래 주몽이 건국한 국도인데, 어떻게 송양의 국도가 되는 것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건국 초기의 역사 사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보면, 주몽이 처음 정착하여 고구려를 건국

한 곳은 흘승골성이 아니라 졸본卒本이었다. 또한 고구려 시조묘도 흘승골성이 아닌 졸본에 위치하고 있어 주몽이 창업한 땅이 흘승골성이 아니라 졸본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환인현 하고성자성지下古城子城址가 졸본성卒本城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정복은 그 나라의 도성 점령에 방점이 있다. 주몽이 원래 졸본에 정착했을 때는 조건이 미비했으나 비류를 얻은 후에는 분명 기세등등하게 비류국 국도를 점령했을 것이다. 주몽 4년에 골령鶻嶺에 성곽과 궁실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 비류국 국도 다물을 대규모로 보수 정비한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고구려 국도가 첫 번째 이동 즉 졸본에서 다물(흘승골성)로 옮겨가는 변화가 생겼던 것이다. 천도 시기는 분명 성곽과 궁실을 지은 후의 몇 년 이내였을 것이다. 주몽 6년(기원전 32) 가을 8월에 신작神雀이 궁정에 모였다는 기록은 바로 궁정 건축이 모두 완공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천도한 사실까지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구려는 새를 토템으로 하는 동이東夷 민족으로, 신작이 궁정에 모였다는 것은 주몽 집단이 골성骨城으로 천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흘승골성이 비류국의 국도라고 보는 것이 절대 억측이 아님은 다음의 사료에서 증명된다.

『위서魏書』「고구려열전」에는 주몽이 부여를 떠난 후 보술수普述水에서 3인을 만나 주몽과 함께 흘승골성에 도달하여 정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주몽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흘승골성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 성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대대로 왕이 되어 왔던 비류국 국왕 송양이었던 것이다. 『주서周書』에는 주몽이 "토우흘승골성土于紇升骨城"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문장에서 만약 '토土'를 '왕王'의 오기로 본다면 '흘승골성에서 왕이 되었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흘승골성이 주몽 건국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다.

오녀산산성과 하고성자성지는 모두 혼강渾江 우안에 위치하고 거리는 10여 리로 전자가 상류, 후자가 하류에 자리 잡고 있다. 두 성을 각각 다물과 졸본으로 고증하면, 두 성의 지리 위치도 사료와 부합한다. 주몽이 졸본천卒本川에 와서 비류수에 초가를 짓고 살았다는 기록은 졸본이 비류수 옆에 위치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송양이 주몽을 만나, 대대로 왕이 되어왔고 땅이 작아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다고 한 기록은 졸본이 비류국 영토 내에 위치하며 국도 다물과 가깝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리고 비류수에 떠내려 오는 채소 잎을 보았다는 것은 졸본천과 비류국 국도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을 증명한다. 실제 오녀산산성과 하고성자성지 사이 거리는 10여 리에 불과하여, 채소 잎으로 비류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면, 다물은 바로 흘승골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훗날의 가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梁志龙, 1994, 「哥勿考辨」, 『辽海文物学刊』2, 67–73.

저 자 리뎬푸李殿福
쑨위량孙玉良
연 도 1990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고구려의 도성

高句丽的都城

고구려의 도성은 흘승골성紇升骨城, 국내성國內城, 환도성丸都城, 평양성平壤城, 장안성長安城 등 모두 5곳이다.

흘승골성은 환인현桓仁縣 혼강渾江저수지 부근에 위치한 오녀산성五女山城이다. 흘승골성 내에는 제1대 추모왕鄒牟王이 세운 궁전, 신묘 건축이 있다. 오녀산성이 흘승골성이라는 주장은 문헌기록에 나오는 자연환경 조건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아래의 세 가지 고고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최근의 조사를 통해 남성벽 절개구간에서 협사회갈도夾砂灰褐陶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일대에 거주했던 계루부桂婁部 사람들의 생활용구였을 것으로, 추모왕이 처음 계루부를 이끌고 이 성을 쌓을 때 끼어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토기편이 바로 이 산성 시축 연대의 방증이다. 둘째, 1950년대 말 요령성遼寧省 박물관 조사단이 환인저수지 수몰 지역을 조사하면서 무덤을 발견하였는데, 대부분이 고구려 초기 적석묘였다. 이 역시 흘승골성이 바로 초기의 산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오녀산성 내 TV 전송탑 건설 현장에서 다수의 금대金代 유물과 더불어 고구려 초기의 홍갈색 토기편도 발견되었다. 이는 역시 이 성이 고구려 초기 산성이었고, 후에 금나라도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성은 집안集安 시내 석성터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성내에서 한대漢代의 대형 암키와가 발견되었고, 창고 유적에서는 한대의 백옥이배白玉耳杯도 확인되었다. 이 이배는 신강新疆 지역의 화전옥和田玉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집안 일대에서 출토된 한대 철화鐵鏵, 철삽鐵鍤, 철겸도鐵鎌刀 등 농기구와 전국戰國 및 양한兩漢 시기 화폐 등이 모두 2세기 이전의 유적과 유물이다. 석축 성벽의 국내성은 대표적인 고구려 평지성 건축물이다.

환도성은 국내성 북쪽에 위치한 산성으로 유리왕琉璃王이 국내성으로 천도한 후 축성한 위나암성尉那巖城이다. 이는 국내성의 방어를 위한 위성이다. 환도성

내에는 상당한 규모의 궁전 건축지, 장대, 저수 시설, 병영 등이 남아있다. 성내에는 적석묘, 방단계제식적석묘方壇階梯式積石墓, 봉토묘 등 무덤도 있다.

평양성은 장수왕長壽王 55년(427)에 천도한 도성이다. 평양성과 장안성이 동일한 성인지 다른 성인지, 다른 성이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1960년대 북한에서 고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양성은 대성산성大聖(成)山城과 그 아래 안학궁성安鶴宮城이고 장안성은 현재의 평양 시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성산성과 안학궁성의 건축, 시설 등은 초기 환도성, 국내성과 유사하다. 평상시 왕은 평지성에서 생활하다가 전시에는 산성에 들어가 적에 대항했다.

장안성은 고구려의 다섯 번째 도성이자 마지막 도성이다. 이는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그 자연조건을 합리적으로 활용한 평산성平山城이고, 고구려에서 가장 큰 도성이다. 장안성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성읍 건축으로 산과 평지에 함께 축성하여 평산성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성은 산성과 평지성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성내 방리坊里의 설계에서는 아직 명확한 전田자형의 정연한 모습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이는 아마도 자연 조건의 제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구려의 성지 건축은 그 자체의 독특한 특징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도성은 최초 흘승골성에서 국내성까지 산과 계곡이 험하나 땅이 비옥한 곳을 선택하여 생산과 대외 방어를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개토경호태왕廣開土境好太王이 요동遼東을 점령한 이후 도성을 요동성遼東城으로 옮기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의 평양성을 선택한 주요한 원인은 역시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구려는 중원 왕조와 마찰이 꾸준히 있었다. 중원의 부단한 침략으로 고구려는 부득이 남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장안성으로 천도한 것 역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 촉진제였기에 소홀히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李殿福 · 孙玉良, 1990, 「高句丽的都城」, 『博物馆研究』1, 36–44, 27.

저 자 리수잉李淑英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연 도 2001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1
『通化师范学院学报』1

오녀산성五女山城은 흘승골성紇升骨城이 아니다

五女山城不是纥升骨城

주 제 어 도성
오녀산성
흘승골성

흘승골성紇升骨城에 관한 기록 가운데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 호태왕비好太王碑이다. 비문에 따르면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고 한다. 『위서魏書』「고구려전」에는 주몽朱蒙이 부여에서 나와 흘승골성에 도착하여 정착했다고 기록했고, 『북사北史』「고구려전」, 『수서隋書』「고구려전」에도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상 문헌기록에 근거하면 고구려는 한漢 원제元帝 건소建昭 2년(기원전 37)에 건국했고, 제1대 왕 추모鄒牟는 주몽, 중해衆解라고도 불리며, 북부여의 왕족이다. 도읍한 곳은 비류수沸流水라고도 하고 비류곡, 홀본, 졸본卒本, 흘승골성이라고도 한다. 흘승골성은 도성의 이름이고, 위치는 비류수 천변의 계곡으로 비류곡이라고 부를 수 있다. 홀본은 졸본과 통하고, '비류'의 음이 변한 것이다. 혹은 비류가 하천의 명칭이고 홀본과 졸본은 비류수 천변 계곡의 이름일 수도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지리지」에는 '주몽이 건소 2년에 북부여에서 동남쪽으로 가 보술수普述水를 건너 흘승골성에 정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기古記』에는 '주몽이 부여에서 졸본으로 도망갔는데 흘승골성은 졸본과 같은 곳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고구려 제1도성 흘승골성이 졸본 혹은 홀본, 비류수 부근의 계곡지대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류수가 현재의 어느 강인지를 확인하면 고구려 흘승골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추모는 북부여에서 남하하여 엄리대수奄利大水를 따라 내려오다가 강을 건넜고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이는 엄리대수가 비류곡, 비류수와 멀리 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추모가 남하하던 경로와 고구려 유적을 함께 고려하면, 엄리대수는 즉 『한서漢書』「지리지」에 기록된 '염수鹽水'로 볼 수 있다. 염수는 혼강渾江을 지칭한다. 혼강 중류의 한 지류인 부이강富爾江은 옛 비류수로 보아야 한다. 두 강은 요령성遼寧省 환인현

성桓仁縣城에서 합류하고, 부근에 비교적 큰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사면이 산에 둘러 쌓여있어 졸본의 지형지세에 부합한다.

다음의 몇 가지 보충 자료도 이곳이 고구려 도성 흘승골성의 위치임을 증명하고 있다.

첫째는 환인현 부근에 남아있는 대규모의 고구려 무덤이다. 모두 750여 기에, 유적은 24곳에 달한다. 대부분 무덤이 고구려 조기 무덤이고, 이는 환인현성 부근이 고구려 건국 초기의 중심 지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로 『삼국사기』에는 추모왕 3년(기원전 35) 3월에 황룡이 골령鶻嶺에 나타났고, 7월에 경운慶雲이 골령 남쪽에 보였다고 한다. 또 유리명왕琉璃明王은 3년(기원전 17) 7월에 골천鶻川에 이궁離宮을 지었다고 한다. 골령은 환인현 동북쪽 오녀산五女山으로 비정되고, 골천은 졸본천 혹은 홀본천이다. 이는 역시 환인현성 부근이 바로 고구려 흘승골성 소재지인 졸본 혹은 홀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로 고구려 벽화묘는 모두 도성 부근에서만 발견되었다. 집안集安 국내성國內城 일대에서 32기, 북한 평양平壤 부근에서 23기가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1991년 환인현성 부근의 미창구米倉溝 장군묘將軍墓에서도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는 환인이 고구려 도성이었음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1905년 일본의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집안, 환인 지역을 고찰한 후 오녀산성五女山城이 흘승골성이고 환인이 졸본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후에 이는 일본 및 타국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에서는 1981년 류융즈劉永智가 오녀산성을 조사한 후 오녀산성이 흘승골성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뒤 1984년부터 왕청리王承禮, 리뎬푸李殿福, 쑨위량孫玉良, 웨이춘청魏存成 등도 모두 이를 흘승골성으로 보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웨이춘청은 '오녀산성이 오르내리기 힘들고, 초기 40년 동안의 정치, 경제 발전 및 일상생활 등에도 모두 불편이 따르는 곳이었으며, 정상의 면적이 제한되어 전체 정치 기구 및 필요한 인구를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1986년 요령성 박물관은 오녀산성을 발굴하였는데, 출토유물 대부분은 고구려 조기 유물이었으나 일부 금대金代 유물도 있었다. 이는 오녀산성이 고구려 조기 산성임과 동시에 요금遼金 시기에도 계속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오녀산성이 흘승골성이라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들의 근거는 오녀산성의 지리 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남성벽 절개부위에서 발견된 조기 토기편이 이 성의 건축 연한을 조기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환인현성 부근에서 고구려 조기 무덤이 발굴되었다는 점이며, 마지막은 산성 내에서 금대 유물도 발견되었지만 고구려 조기 홍갈색 토기편도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증거는 오녀산성이 고구려 조기 산성임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이 성이 흘승골성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오녀산성이 흘승골성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녀산성은 지세가 험준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도성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흘승골성을 도성으로 삼은 추모왕과 유리명왕은 부근의 작은 나라를 정복해야 했고, 국가 정책을 논의해야 했으며 수렵 등 각종 활동을 벌어야 했으나, 그러한 활동을 오녀산 정상에서 벌이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또한 유리명왕은 골천에 이궁을 세웠다. 같은 해 유리명왕은 또 양곡涼谷에 동서 2궁을 세워 두 비妃를 거처하게 했다. 양곡은 분명 산간 계곡의 평지일 것이다. 유리명왕의 왕비 송씨가 사망한 후에는 이 두 비만 동서 2궁에 있었을 것인데, 후궁의 생활 모습을 고려하면 유리명왕은 절대 동서의 2궁에서 멀리 떨어진 오녀산성을 도성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오녀산성은 높은 산 정상에 고립되어 있어 생필품 공급이 곤란하고 전략적 측면에서도 도성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오녀산 정상은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 조건이 열악하여 도성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가 심해서 아침과 저녁의 온도 차이가 크다. 고구려 왕족과 귀족들이 이처럼 험난한 지형에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산성을 왕도로 선택했을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문헌 속 어디에도 흘승골성이 산성이라고 언급한 곳이 없다. 주몽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흘승골성은 이미 존재했다. 따라서 이 성은 한대 현도군玄菟郡 고구려현高句麗縣 경내의 한 고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녀산성은 주몽이 후에 건설한 것으로, 분명 흘승골성과는 관계가 없는 성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오녀산성을 흘승골성으로 판단한 것은 대체적으로 호태왕비 한 단락의 오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주몽이 비류곡 홀본 서쪽에서 산 위에 성을 쌓았고, 국도를 세웠다'라는 문장인데, 그렇다면 산 위에 쌓은 성이 반드시 국도인 것인가? 고구려 도성 역사를 이해한다면 분명 이를 쉽게 긍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삼국사기』「지리지」에 따르면 유리명왕 22년(서기 3) 국내성으로 이주했다고 하고,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서는 유리명왕 22년 10월에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암성尉那巖城을 축성했다고 하였다. 고구려가 천도한 국내성은 현 길림성吉林省 집안시 서쪽에 위치한 방형의 석축성이다. 천도 이전에 이미 이곳에는 국내성 토성벽이 존재했다. 군사 방어 측면의 고려로 고구려는 이곳에 천도하는 동시에 위나암성, 후에 환도성丸都城이라 불리는 산성을 평지성인 국내성 근처 산 속에 축성했다. 위나암성은 수원이 풍족하고 경지면적이나 생활공간이 넓으면서 동시에 지세가 험난하여 방어에 유리하며 교통까지 편리한 산성이다. 이러한 조건의 산성이었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받았던 한 때 이곳이 도성의 역할을 했다.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쌓은 것은 분명 40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한대 고성을 도성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산성을 쌓아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인이 처음 홀본에 도착하여 도읍으로 삼은 흘승골성은 분명 평지성이었을 것이다. '성산상이건도언城山上而建都焉(산 위에 성을 쌓고 국도를 세웠다)'은 산 위에 방어력 강화를 위해 축성한 산성을 말하는 것으로 흘승골성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였다.

지리적 위치, 자연 환경, 교통 상황, 역사문헌, 그리고 고고 발굴 유적 등 모든 면에서 오녀산성은 고구려 조기 도성으로 적합하지 않고 당연히 흘승골성도 아니다. 오녀산성은 방어적 성격 혹은 적정을 감시하는 성격의 산성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李淑英, 2001, 「五女山城不是纥升骨城」, 『通化师范学院学报』1, 6–10.

저 자 리수잉李淑英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연 도 2007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7
『通化师范学院学报』7

국내성國內城 및 그 위치 고찰

国内城及其位置考论

주 제 어 국내
국내성
위치

1940년 진위푸金毓黻가 『동북통사東北通史』상편에서 집안현성輯安縣城에 환도성丸都城, 국내성國內城이 위치한다는 견해를 제기했고, 이는 그 뒤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1984년 집안集安 박물관에서 편찬한 『문물지文物志』에서는 '국내성지가 현 집안현성集安縣城이고 고구려 왕조 건립 후 두 번째이자 시간상으로도 가장 긴 도성 유적'이라고 밝혔다. 즉 서기 3년, 고구려 유리명왕琉璃明王이 국내성으로 천도했고 유적은 집안시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펑융첸馮永謙, 쑨진지孫進己는 고구려 제2도성이 국내성이 아니라 위나암성尉那巖城이고, 위치는 현 집안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이라는 견해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글에는 지명에 대한 곡해와 고고학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두 연구자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유리명왕이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쌓았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국내에 도읍했다는 것은 단일한 지명으로서의 국내성이 아니라 '국내 지역'으로 천도한 것이라고 보았다. 두 연구자는 서기 3년 위나암성으로 옮기고부터 환도丸都, 평양平壤, 환도, 다시 황성黃城까지 이 몇몇 도성이 모두 고구려가 흥기한 후의 국내 지역에 위치하여 이를 국내로 총칭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고구려 역사서 속 '국내'는 하나의 특정한 명사로 고구려인이 하나의 성城에 붙인 이름 혹은 독음이었다. 『한원翰苑』에 인용된 『고려기高麗記』에는 '불내성不耐城의 현재 이름이 국내성이고, 나라 동북쪽 670리에 위치하며 본래 한漢의 불이현不而縣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즉 국내는 불내, 불이의 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고구려 문헌 속 국내는 모두 국내성 및 그 부근을 가리킨다. 중국 고대에 국가는 성을 중심으로 등장했고 성 내부에는 왕족과 귀족이 거주했으며 성 밖은 백성이 거주했다. 상대商代에는 국인國人, 야인野人의 구분이 있었고 지역의 개념은 거의 없었으며, 고구려 역시 이와 같았다. 그래서 사서에 어느 지역으로 천도했다고 기록

할 때는, ○○ 혹은 ○○성으로 천도했다고 기록했고, 보통 '성'을 안 써도 '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사기史記』에는 한고조漢高祖가 통일 후에 '낙양洛陽'에 도읍했다고 했고, 한신韓信은 하비下邳에 도읍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는 국내성 및 그 부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先秦 시기부터 지금까지 '진성晉城, 완성宛城, 번성樊城, 요성聊城' 등과 같이 특별히 도시 이름에 '성'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기록이든 일반 구어체에서든 모두 '성'자를 생략하여 써왔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지리지」 등 역사 문헌에도 '국내성'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 뒤에 물론 '국내에 도읍했다, 평양에 도읍했다'라는 문장에서는 비록 '성'자를 생략했지만, 역사 상식에 따르면 이를 국내 지역에 도읍했고 평양 지역에 도읍했다라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류왕孺留王 22년 10월 왕이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에 대해, 웨이춘청魏存成은 국내에 원래 성이 있었고 그 성이 현 집안시의 고성 즉 국내성지이며, 위나암성은 산성으로 국내성에서 멀지 않고, 후에 보수가 되어 산상왕山上王 시기에 이곳으로 천도하여 환도성이라고 불렀다고 정리했다. 이는 역사기록에도 부합하고 집안 부근의 지형과도 부합하며, 훗날의 고고 발굴을 통해서도 정확한 결론으로 증명되었다. 펑융첸, 쑨진지는 패왕조산성이 위나암성이고 이곳은 국내 지역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패왕조산성은 환인桓仁에서 30㎞ 거리에 있고, 국내성과는 50㎞나 떨어져 있다. 만약 이곳이 위나암성이라면 이곳은 당시의 졸본卒本 지역에 속하게 되지 국내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서기 3년 유류왕이 천도한 곳은 국내성이 분명하고, 국내성지는 현 집안 시내임이 확실하다.

펑융첸, 쑨진지의 견해가 오류라는 점은 고고 발굴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1960년대 팡치둥方起東 등이 패왕조산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길림성吉林省과 집안시의 다수 연구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조사, 연구를 진행했으나 산성 내에서는 일부 작은 규모의 건물지만 발견되었고, 고구려 도성이 반드시 갖춰야할 고고학적 증거인 평지성 혹은 일정 수량 이상의 고분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구려 도성은 평지성과 산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평지성으로 명명된다. 환인현성 부근에는 하고성자下古城子라는 평지성이 있다. 필자는 이 성이 흘승골성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동북쪽에 위치한 오녀산성五女山城은 군사적 성격의 위성이다. 두 성 중간의 환인저수지 수몰 구역에는 1천여 기가 넘는 고구려 고분이 있었으며, 하고성자 부근에도 일부 고구려 고분이 남아있다. 게다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창구米倉溝 장군묘將軍墓에서는 벽화까지 발견되었다. 고구려의 세 번째 도성인 평양성 역시 평지성이고 부근에 군사 위성 성격의 대성산성大城山城이 있다. 두 성 사이에는 다수의 고구려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고, 벽화묘도 있다. 그러나

패왕조산성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문헌기록의 측면에서나 고고학의 측면에서나 모두 증거가 결여된 견해라 할 수 있다.

1977년 5월부터 1978년 5월까지 진행된 국내성지의 시굴 조사를 통해 성벽 구조가 확인되었고, 석벽 내 토벽의 축조 연대가 고구려 건국 이전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년간에 걸친 성내 조사를 통해 궁전지, 사묘지, 공방지 등 건축물 유구가 확인되었고 다량의 철기, 토기, 금동기 및 각종 문양의 와당도 출토되었다.

국내성 북쪽 2.5㎞ 지점의 산성 내에서도 궁전지, 수졸 병영, 망대, 저수지 등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성이 서기 3년에 축성된 위나암성이고, 산상왕 시기에 환도성으로 개칭되었다는 사실을 고증했다. 이곳은 즉 국내성의 군사 위성이자 한 때 도성이기도 했던 곳이다. 국내성과 환도성이 위치한 통구평원通溝平原에는 고구려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집안의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 건국 전후의 적석묘부터 고구려 멸망 전후의 봉토묘까지 모두 존재하여 국내성의 사용 연대가 고구려 정권의 존속 기간에 상응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석성 유적에는 안팎으로 다수의 대형 건물지가 있고 주위로 만여 기에 달하는 고분이 있으며, 왕릉과 귀족 무덤에 호태왕비好太王碑가 있는 국내성의 고구려 왕성지위를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李淑英, 2007, 「国内城及其位置考论」, 『通化师范学院学报』7, 1–4.

저 자 쑨웨이란孙炜冉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17
간행물명 『북방문물』1
『北方文物』1

고구려 '위나암성尉那巖城' 고찰

高句丽 "尉那岩城" 考辨

주 제 어 위나암성
환도산성
국내성
고구려

지원사업 길림성 사회과학기금 항목 '고구려 제왕 문제 연구高句麗諸王問題研究'(2016JD68)
길림성 고구려연구중심 위탁 항목 '고구려 왕계 연구高句麗王系研究'(JG2014W006)

위나암성尉那巖城이 환도산성丸都山城의 전신인지, 국내성國內城인지, 혹은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의 전신인지는 여전히 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위나암과 위나암성은 조기 고구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명과 성지 명칭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 세 글자를 모두 합쳐서 이해했을 뿐, '위나' 2자만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고려한 일이 없다. 고구려는 건국과 확장의 과정에서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나부那部'를 겸병했다. 이는 훗날 고구려 5부의 중요 구성원 혹은 전신이 되었다.

'위나'와 '암'을 분리해서 이해했을 때, '암'에 대한 이해는 '위나암(성)'의 성격 규정과 이해에 더 크게 관련되어 진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암'을 암석으로 이해했고, 나아가 유리명왕琉璃明王이 천도한 후 세운 '위나암성'을 암석으로 쌓은 성, 즉 훗날의 '환도산성'이라 추정했다. 필자는 '암'을 '위나'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어의 음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암巖'으로도 쓸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엄嚴', '연延' 등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다.

한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해도, '암'이 반드시 산의 형태, 산성만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암'에는 원래 암석, 산봉우리의 본뜻이 있지만, 품사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즉 '암'자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높고 험준하다는 뜻이 되어, 암읍巖邑(험준한 성읍), 암장巖墻(높고 위험한 벽)으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암'은 특정 산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성지를 지칭하는 대명사일 수도 있다. 오녀산성五女山城, 국내성, 환도산성은 모두 고구려 초기의 기술로 축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성해지고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후, 특히 높은 수준의 건축 공예와 수공업 기술을 갖춘 장인들이 모인 후에 축조되거나 보수된 것이다. 고구려 건국 초기에는 이런 성을 쌓을 능력이 없었다. 이는 당시의 기술 능력과 공예 수준에 한계가 있었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국'은 사실 고구려 도성을 의미하고 '내'는 '나那', '노奴'와 같은 음을 다르게 쓴 것으로 원래 땅 혹은 강안 평야를 의미하며 훗날 강안과 산곡에 위치한 지역 집단을 지칭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국내'는 '도성이 위치한 평야 지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한자의 측면에서 '국내'를 이해할 수도 있다. 성곽이 없는 고구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에 천도하고자 하는 곳은 당연히 성곽 안의 땅이었고, 그래서 '국(곽郭)내로 천도'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며, 더 이상 책성 내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나암성과 관련한 기록 중에는 동한東漢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연간(대무신왕大武神王 11년[서기 28])에 요동遼東태수의 공격을 받은 고구려가 위나암성에서 이를 방어했다는 내용도 있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패왕조산성이라 보고 있는데, 이는 유리명왕의 첫 번째 천도 지역이 국내성이 아니라 패왕조산성이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패왕조산성에 대한 고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성은 군사적 기능에 충실한 위성이었을 뿐이고, 출토유물과 성벽 축조 방식을 고려해도 그 수축 연대는 환도산성보다 늦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견해는 위나암성이 바로 환도산성이라는 것으로 학계에서 모두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나암성이 환도산성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소위 위나암성이 사실은 국내성의 전신이라고 생각한다. 위나는 조기 여러 나(부) 중 하나였고, 국내를 처음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며 후에 유리명왕이 이곳으로 천도하면서 '위나' 지역을 '국내' 지역으로 개칭한 것이다. '위나암'은 고구려어의 '위나 지역 성'이라는 뜻으로, 위나암성은 사실 '위나암' 그 자체가 맞다. 위나암성의 '성'은 한자어에서 강조되어 파생된 말이다. 즉 위나암성은 위나 지역에 위치한 성지이고, 그 지역이 고구려의 도성이 된 후 국내성, 즉 국내 지역의 성지로 바뀐 것이다.

孙炜冉, 2017, 「高句丽"尉那岩城"考辨」, 『北方文物』1, 77–81.

저 자 쑹쥐안宋娟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연 도 2010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7
『通化师范学院学报』7

고구려 도성 환경 첫 검토

高句丽都城环境初探

주 제 어 고구려
도성
환경

지원사업 2010년 통화사범학원
과학연구 항목

고구려 도성은 전형적인 민족적,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들은 고구려 도성이 평지성과 산성으로 구성되고 평지성의 명칭으로 명명되었다고 정리했다. 왕은 평상시에는 평지성에 거주하다가 전시에는 산성으로 퇴각하여 방어전을 폈다. 고구려 역사에는 3기의 도성이 존재했다. 조기 도성은 흘승골성紇升骨城과 오녀산성五女山城, 중기 도성은 국내성國內城과 환도산성丸都山城, 만기 도성은 평양성平壤城과 대성산성大城山城이다.

고구려인은 조기 도성인 흘승골성의 위치를 자연환경과 군사 방어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선정했다. 토지가 비옥해야 식량 생산이 보장되고 산에는 야생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며, 하천은 수원 및 어류 자원을 보장한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조기 고구려인의 생존을 위한 기초 조건이었다. 험준한 산천은 군사 방어의 측면에서 고려한 조건이었다.

중기 도성인 국내성 역시 산천이 험준하고 토양이 오곡의 생산에 유리했으며 사슴과 어류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천이 험준한 것은 역시 군사 방어에 유리한 조건이었고, 사슴, 어류 등의 기록은 풍부한 야생 동식물 자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오곡 생산을 언급한 점은 당시 고구려 농작물의 종류가 이미 매우 풍부했으며 그 생산기술까지 장악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기 도성인 평양성과 대성산성은 한반도 평양시平壤市 및 그 부근에 위치한다. 이곳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성숙된 도성이었으며, 고구려 도성 건축의 전형이자 축성 기술의 종합체이다. 평양성은 현 평양시에서 발견된 상당한 규모의 고성으로 비정된다. 문헌에는 대성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드문데 이는 평양성이 평지성과 산성의 장점을 융합했고, 기능도 이미 상당히 완비되어 사용 빈도와 시간이 모두 길었던 까닭일 수도 있다. 대성산성은 다만 식량과 무기를 보관하다가 전시에만 방어전을 펴는데 이용되었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던 것이다.

고구려는 산지에서 주로 활동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 적의 방어에 유리한 산성은 고구려 도성 건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고구려 도성은 건설 과정에 많은 부분에서 중원 도성 건설의 구조적 특징을 흡수했고, 내부 구역의 배치도 정연하게 했다. 이는 성내 각 구역별 기능이 잘 구분되어 있는 평양성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각 시기별 도성 환경에 대한 고찰 및 도성의 고고 발굴 결과를 종합하면 고구려 도성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정리된다.

첫째, 각 시기별 도성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 환경에는 많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지리적으로 세 도성이 위치한 곳의 경도와 위도에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세 도성이 처한 자연 환경이 모두 유사하여 백두산 남록에 위치하고 연평균 강수량 역시 매우 풍부하다. 산이 많아 야생 동식물도 풍부하며, 하천이 많아 수자원 및 어류도 풍부하다. 그리고 평지가 부족하여 경지 면적이 제한된 점은 고구려 농업 생산의 발전을 제한했다. 이러한 자연 조건과 환경은 고구려가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 어업과 수렵을 겸비한 종합 경제 유형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도성 입지에도 유사한 점이 있다. 즉 도성 부근에 모두 하천이 있고 산이 장벽을 만들고 있다.

둘째, 점점 더 환경 조건이 유리한 곳을 찾아 천도한다. 사회 생산이 발전하면서 생산품이 풍부해지자 인구는 점점 증가했고, 통치 범위도 확대되면서 도성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도 점차 많아졌으며, 도성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점차 성숙되어 갔다.

고구려 도성의 군사 위성衛城에서도 이상과 같은 입지 선정의 특징이 구현되고 있다. 오녀산성은 비교적 특수한 산정형山頂型 산성으로 성벽과 성이 대부분 산 정상에 축조되었고 사방이 절벽이며 면적이 크지 않아 더 넓게 확장시킬 공간이 없다. 환도산성은 파기형簸箕型 산성으로 환경이 더 우월하다. 보통 3면은 높고 비교적 낮은 1면에 성문을 쌓는다. 성벽은 주변 산허리를 따라 축조하고 절벽은 별도의 성벽 축조 없이 그대로 장벽으로 이용한다. 성내에는 얕은 경사지가 넓게 분포하여 병영, 창고, 저수지, 망대 등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대성산성 역시 파기형 산성으로 규모가 앞의 두 산성보다 훨씬 크다. 이상과 같은 도성 구성은 또한 변방 정권인 고구려가 중원 왕조와의 대치 속에서 어떻게 긴 시간 존속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宋娟, 2010, 「高句丽都城环境初探」, 『通化师范学院学报』7, 7–9.

저 자 쑹쥐안宋娟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연 도 2015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고구려 도성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高句丽都城与环境的互动关系探讨

주 제 어 고구려
도성
환경
상호작용

지원사업 길림성 교육청 '십이오十二五' 사회과학 항목(길교과문합자吉教科文合字[2013]제333호)
길림성 사회과학 고구려 특색 문화 연구기지 항목(2014JD1)

고구려의 도성은 평지성과 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지성은 보통 기존에 존재했던 성을 기초로 보강, 확장, 중건하여 평시에 이용한다. 이는 도성 건축 시간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평지성은 쉽게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는 산성은 위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고구려 경내에는 산이 많아 산성의 위치 선택이 용이했다.

고구려의 도성은 흘승골성紇升骨城에서 국내성國內城, 다시 평양성平壤城까지 모두 비옥한 토지와 험준한 산, 깊은 물 등 뛰어난 자연 환경을 이용했다. 비옥한 토지에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산과 강은 육류, 어류, 채소 등 풍부한 자원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천연의 방어막이 되었다. 그 밖에 고구려의 도성 위치 선택에는 중원 왕조 및 주변 민족과의 관계, 거리, 국가의 발전 전략 등 사회적 요소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조기 흘승골성은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국내성을 선택할 때는 자연 환경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 역시 높아졌다. 평양성을 선택할 때는 자연 환경 요소보다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발전하려는 전략에 대한 고려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구려 도성 중 평지성은 평면이 방형에 가깝고, 구조도 비교적 정연하며 성내의 도로가 도성을 기능별로 구획하는 등 도시 환경 건설과 각 산업의 발전 상황을 모두 고려했다. 또한 한漢의 회랑, 무전廡殿 형식을 모방했고, 치와 옹성도 설치했다. 성 바깥에는 해자를 파서 도성의 방어와 안전을 고려했다. 도성의 군사적 위성이라 할 수 있는 산성은 주로 산세가 험한 산 위에 축성되었다. 성벽은 주위의 몇몇 산봉우리를 연결시켰다. 성벽은 산세를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해서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지세가 낮은 곳은 성벽을 높게 쌓아 방어 능력을 높였는데, 이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부분이다. 특히 환도산성丸都山城은 국내성에서 2.5㎞ 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동이 편하고 모양이 파기형簸箕形이라 방어에 유리하다. 전란이 발생하면 고구려 왕은 환도산성에 들어가 적을 방어했는데, 국내성을 도성으로 삼았던 시기가 가장 길었던 것 역시 환도산성의 존재와 관계가 있다.

고구려 도성 내의 일부 시설 역시 고구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이용과 보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온돌은 중국 고대 북방민족이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한 난방 시설이었다. 고구려 역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온돌 시설을 사용했다. 그리고 고구려의 도성 건축에는 배수체계에 대한 고려도 컸다.

자연 환경은 도성 건설의 선결 요소로, 도성 건설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도성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고구려는 발전 과정에서 시기별로 자연 환경에 대한 상이한 요구 조건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조건에 더 적합한 지역을 찾아 도성을 옮기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중심인 도성은 정치적 기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통치자는 전국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에 도성을 설치하게 된다. 고구려의 영토 확장은 자연히 도성 위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도성의 방어 능력을 제고할 필요도 발생했다. 이처럼 전쟁은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 항상 따라오는 요소였고, 고구려 도성 이전의 중요한 사회 환경 요소가 되었다. 경제 조건의 변화 역시 도성 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고구려는 영토의 확장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토지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토지 이용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지력이 점차 소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결국 도성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흘승골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할 때는 국내 지역의 우월한 자연 환경이 천도에 더 큰 영향을 주었고,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나라의 안정과 선왕의 업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 부친을 이어 남방으로 발전하려는 전략적 측면의 고려가 더 컸다. 즉 1차 천도와 달리 2차 천도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자연 환경적 요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宋娟, 2015, 「高句丽都城与环境的互动关系探讨」, 『北方文物』4, 57–59.

저 자 왕면허우王绵厚
요령성 박물관
연 도 1997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고구려 성읍城邑 제도와 도성

高句丽的城邑制度与都城

산성을 핵심으로 한 '성읍城邑' 제도는 고구려 사회 구조와 지역별 편제의 중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고구려 성읍 제도의 발전은 고고학의 측면에서 볼 때 조기, 중기, 만기 각 도성 및 압록강鴨綠江 양안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다량의 산성, 중요 평지성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고구려 조, 중기 성읍 제도와 사회 구조를 분석하면, 고구려는 중국 동북 지역 남부 혼강渾江과 압록강 우안(서안) 지역에 대형 산성 위주로 건립된 도시 노예제 정권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현도군玄菟郡 경내에 '성읍 제도'를 핵심으로 수립된 도시 노예제 정권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성읍 제도는 서한西漢 시기 동명성왕東明聖王 시대부터 이미 수립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동명성왕 10년(기원전 28) 왕은 북옥저를 멸하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고 한다. 고구려는 처음 한위漢魏의 군현 지역을 점령한 후에도 그 땅에 성읍 제도를 실시했고, 때로는 한漢의 군현을 성읍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성읍을 중심으로 제후에 봉해지는 제도는 고구려 민족 고유의 성읍 관리 제도가 아니라 원래 한대 이전과 한대 각 제후국 및 군현의 관리 제도였다. 이는 최소한 동한東漢 말, 압록강 중류 '불내성不耐城' 등지의 고구려 성곽을 책임지는 장관이 여전히 한나라 조정의 책봉을 받았고 공납, 신속 관계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납과 신속 관계는 고구려가 존속했던 전체 기간 동안 계속 이어졌다. 이는 고구려에서 출토된 다량의 관인官印으로 증명된다.

그 뒤, 고구려는 '5부'의 성장과 산간계곡이라는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중심 성읍에 '욕살褥薩', '처려處閭', '누초婁肖' 등 등급 차이를 보이는 성읍 관리 체제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고구려 성읍 제도는 호태왕好太王이 요동遼東을 점령하고 장수왕長壽王이 평

양平壤으로 천도하여 한반도 북부 지역을 모두 차지한 후부터 산성을 중심으로 한 성읍 구조에서 중원의 군현제 형식으로 발전했다.

고구려 산성 제도의 형성, 발전 및 그 구축 방식에도 역시 고구려 민족의 특정 주거 환경 요소와 외래 요소의 영향이 혼합되어 있다. 주요 외래 요소로는 북방 지역 선진先秦 시기 이래의 유목민족과 어렵漁獵민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고구려 산성은 그들이 정착했던 요동의 선대 문화인 '맥貊'족의 민족문화 전통에서 기원했다. 혼강渾江과 압록강 양안의 조기 맥족은 이미 석축묘와 석축성이라는 문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이 전통은 시기적으로 송화강松花江 유역 예濊족의 '서단산西團山 문화'로 대표되는 북부여 즉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의 출신 지역 문화보다 훨씬 더 일러, 고구려의 석축 문화는 당연히 맥족 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계에서는 고구려 조기 도성을 요령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오녀산산성五女山山城과 하고성자下古城子 평지성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 중기 도성은 유리명왕琉璃明王이 흘승골성紇升骨城에서 천도한 국내성國內城과 환도성丸都城이다. 고구려 후기 도성은 장수왕 천도 이후 대동강 하류에 형성된 평양성平壤城, 황성黃城, 장안성長安城, 안학궁安鶴宮을 말한다. 평양성은 대동강 우안의 현 북한 평양의 고성을 말한다.

王绵厚, 1997, 「高句丽的城邑制度与都城」, 『辽海文物学刊』2, 89–103, 114.

저 자 왕충안王从安
요령성 환인현 지방사연구회
지페이纪飞
요령성 환인현 지방사연구회
연 도 200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졸본성卒本城에 대한 새로운 고찰

卒本城新考

졸본성卒本城 유적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졸본성과 관련된 비류수沸流水, 졸본천卒本川, 졸본부여卒本夫餘, 졸본 지역 등의 옛 지명에 대한 고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학자들은 졸본천이 부이강富爾江과 혼강渾江이 합류하는 요령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부근의 평원지대라고 보고 있다. 졸본부여는 옛 졸본 지역의 한 부락국가로 고구려보다 일찍 건국했으며 세력 범위가 매우 작은 소국이었다. 졸본은 홀본忽本이라고도 부르는데, 옛 졸본 지역은 그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았을 것으로 주몽이 처음 자리 잡은 비류수 강가 졸본천 부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지명에 대한 고찰과 『삼국사기三國史記』 및 호태왕비好太王碑 내용 그리고 기타 사료까지 종합하면 졸본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제는 졸본성이 평지성이고 오녀산성五女山城의 동쪽에 위치하며 비류수(현 부이강) 강변, 졸본천(부이강 강변의 충적평원)에 위치했고, 성 주변 환경은 비옥한 토양에 산과 강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 환인桓仁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성지 가운데 이상의 조건을 갖춘 곳은 확인된 곳이 없다.

그에 반해, 청淸 선통宣統 원년에 제작된 『회인현지懷仁縣志』에는 부이강과 혼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고성 유적이 있는데, 언제 축성된 것인지는 모르고 주민들은 이를 나합성喇哈城이라 부른다는 기록이 있다. 이 성의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등은 모두 졸본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둘 다 평지성이고, 오녀산성의 동쪽에 위치하며 부이강과 혼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하고 사방이 산이며 평탄하고 넓으며 토양이 비옥한 점으로 보아, 나합성이 졸본성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2002년 여름 북전자촌北甸子村 부근에서 시굴 조사를 진행했으나 고성 유적은 물론 졸본부여, 고구려 시기의 유물도 모두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선통 원년 이후로 부이강

과 혼강의 수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이강이 혼강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부이강의 초입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체 북전자 지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결국 부이강과 혼강의 두 번째 합류 지점, 즉 처음 두 강이 합류한 후 500m를 지나 부이강이 혼강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2㎞를 지나 다시 한 번 합류하는 지점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곳은 만룡배灣龍背 제1촌 부근으로 이곳의 혼강 우안 작은 평지에서 나합성 유적 즉 졸본성지를 찾을 수 있었다.

만룡배 제1촌의 혼강 우안 작은 평지는 이미 혼강 저수지에 수몰되어 건기에만 지면에 노출된다. 평지는 지형이 남북방향으로 좁고 길어 남북이 2㎞, 동서가 약 500~600m이다. 현지 주민들의 소개에 따르면 평지 동쪽 지표에는 일찍이 석벽과 돌무지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03년 이 지역에 대한 시굴 조사가 진행되어 남북방향의 성벽 기초를 확인했다. 시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성지의 평면은 방형이고 방위는 남향이다. 시굴 과정에서 3점의 협사회도夾砂灰陶 주상이柱狀耳와 다수의 토기편도 출토되었는데 특히 주상이는 졸본부여 시기의 유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분석에 근거하면 이 성지가 바로 졸본부여가 세운 졸본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王从安 · 纪飞, 2006, 「卒本城新考」, 『博物馆研究』3, 54-59.

저 자 왕페이펑王飞峰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4
『考古』4

환도산성丸都山城 궁전지 연구

丸都山城宮殿址研究

주 제 어 고구려
환도산성
궁전지
연대
성격

환도산성丸都山城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파기형簸箕型 산성'이다. 2001~2003년, 길림성吉林省 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集安市 박물관 등에서 대규모 발굴을 진행했다. 그중 궁전 구역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으며, 대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환도산성 궁전 구역의 토층은 총 6층이고 그중 고구려 시기 궁전지는 제3~5층에 해당한다. 궁전지는 평면이 평행사변형에 가깝고, 사방 주변에 석재를 쌓아 궁전 담장을 만들었다. 궁전지에서는 온돌 등의 난방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환도산성 궁전 건축물이 장기간 사용하는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1층 경작층에서만 일부 현대 자기가 나왔고 나머지 토층에서 나온 유물은 모두 고구려 시기 유물인 점으로 보아 전체 궁전지의 문화층이 비교적 단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궁전지 토층에서는 홍소토와 목탄 등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환도산성 궁전지가 불로 인해 훼손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출토된 토제 유물 중 다수는 기와, 와당 등 건축부재이고 생활용품인 토기는 12점에 불과하며 그중 원형 복원이 가능한 것은 쌍횡이관雙橫耳罐, 반盤 각 1점을 포함하여 총 4점이다. 이 쌍횡이관은 기형이 오녀산성五女山城 제3층에서 출토된 쌍횡이관과 유사하고, 반 역시 오녀산성 출토 반과 유사하다. 오녀산성에서 출토된 토기 3점은 제4기 문화에 속하고, 시기는 대체적으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해당한다.

환도산성 궁전지에서 출토된 와당은 수면문獸面紋, 연화문蓮花紋, 인동문忍冬紋 세 종류이다. 이와 유사한 문양은 국내성國內城과 동대자東臺子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국내성 출토 와당은 확실하게 연대를 비정할 수 있는 표본이 부족한 반면에 동대자 유적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그 외에 온특혁부성溫特赫部城

그 림

1. 환도산성 궁전지 건축물 배치도
2. 고구려 쌍횡이도관
   1) 환도산성 궁전 구역 출토
   2) 오녀산성 F66 출토
   3) 오녀산성 T53 출토
   4) 한국 구리시 아차산 4보루 출토
3. 고구려 와당
   1) 수면문 와당
   2) 연화문 와당
   3) 인동문 와당(1~3. 환도산성 궁전 구역 출토)
   4) 수면문 와당
   5) 연화문 와당
   6) 인동문 와당
   7) 연화문 와당 (4~7. 동대자 유적 출토)
   8) 연화문 와당(온특혁부성 출토)
   9) 연화문 와당(평양 지역 출토)
4. 동수묘 벽화 묘주상
5. 고구려 및 삼연 지역 연화문 도안
   1) 동수묘 후실 천장부 장식
   2) 조양 원대자 벽화묘 출토 동령 문양
   3) 조양 원대자 벽화묘 출토 동령 문양
   4) 조양성 출토 와당
6. 요양 상왕가 진묘 벽화 묘주상
7. 보요형 운주
   1) 환도산성 궁전 구역 출토
   2) 한국 창녕 교동 11호묘 출토
   3) 일본 천기산 고분 출토
   4) 일본 충지도 7호 제사 유적 출토
8. 한국 출토 반구형 운주
   1) 창녕 교동 11호묘 출토
   2) 경주 금령총 출토
   3) 합천 옥전 6호묘 출토
   4) 의령 경산리 2호묘 출토
9. 환도산성 궁전지 출토 금동 보요형 운주 사용 방식 복원도
10. 환도산성 궁전 구역 2호 및 3호 건물지 평·단면도
11. 한국 경주 나정 유적 제3차 발굴 건물지 평면도

과 평양平壤 지역에서도 유사한 와당이 발견되었다. 환도산성 궁전지 출토 와당 중 일부는 호태왕好太王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와당 이외에 19점의 보요형步搖形 운주雲珠가 출토되었는데, 연대는 궁전지와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지역에서 출토된 운주와 형태를 비교하면 하한은 6세기 초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환도산성 내에서 적석묘,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 봉토묘 등 총 3종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전부 고구려 고분이다. 무단석광묘無壇石壙墓와 방단석광묘方壇石壙墓는 모두 고구려 조기 무덤 형식으로 하한 연대가 5세기이다. 따라서 환도산성 내에서 발견된 적석묘와 방단적석묘의 연대는 늦어도 5세기 말에 해당할 것이다. 이 무덤들은 성내 혹은 궁전 구역 부근에 위치하는데, 이는 무덤이 조성되기 십 수 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이미 환도산성이 폐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광개토왕본기廣開土王本紀」에 따르면, 17년(407) 봄 2월에 궁궐을 지었다고 한다. 이 기록과 환도산성 궁전지의 토층, 출토유물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발굴된 궁전지는 342년 모용황慕容皝이 환도산성을 공격한 후, 호태왕 17년에 다시 세운 궁전 유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뒤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환도산성 궁전 건축은 점차 폐기되었다.

환도산성 2호 및 3호 건물지는 모두 팔각형이고 각각 23개와 22개의 초석이 발견되었으며, 건물지 중앙에 십자형의 초석 구조가 있다. 중국 및 한반도에서 발견된 이 시기 전후의 팔각형 건물지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환도산성의 두 건물지는 불탑 등 불교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王飞峰, 2014, 「丸都山城宮殿址研究」, 『考古』4, 93-104.

저 자 왕페이펑王飞峰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연 도 2016
간행물명 『동남문화』4
『东南文化』4

국내성國內城 체육장體育場 지점 고구려 유적 연구

国内城体育场地点高句丽遗址研究

주 제 어 집안 체육장 지점
국내성 시기
고구려 유적
수라간[御膳房]
왕궁
와당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2010년도 중대 과제 '고구려, 발해 문화 발전 및 그 관계 연구[高句麗, 渤海文化發展及其關係研究]'(10&ZD085)

2001~2003년에 진행된 집안集安 국내성國內城 체육장體育場 지점 발굴에서는 건물지 4기와 수혈 7기가 발견되었고, 다수의 고구려 와당, 전돌, 시유도기, 청자기 등이 출토되었다.

와당은 권운문卷雲紋, 연화문蓮花紋, 인동문忍冬紋 그리고 수면문獸面紋 등이 포함되어 있다. 2호 건물지에서는 '□□년조와고기세□□年造瓦故記歲'라는 명문이 있는 권운문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우산禹山 992호묘에서 출토된 동일 유형 와당과의 비교를 통해 명문의 기년이 '무술년戊戌年' 즉 338년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또한 체육장 지점 4기 건물지의 상한 연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T18 ⑤층에서는 명문이 없는 권운문 와당도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고구려에서는 권운문 와당이 가장 빨리 등장했고, 권운문이 사라진 후에 연화문, 수면문, 인동문 와당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연화문 와당은 불교가 전래된 후에 등장했고,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동진東晉 태원太元 말기(390~396)이다. 권운문 와당은 연호年號명 권운문이 태녕太寧(323~326) 시기 즉 미천왕美川王(300~331) 시기에 유행했고, 간지干支명 권운문이 3세기 초 후반기에서 4세기 말 전반기 즉 미천왕과 고국원왕故國原王(331~371) 시기에 유행했으며 일부 와당은 하한 연대가 고국양왕故國壤王 3년(373)까지 내려간다. 일반 명문의 권운문 와당은 355년과 357년을 중심으로 한 4세기 중기 즉 고국원왕 시기에 유행했다. 명문이 없는 권운문 와당은 소수림왕小獸林王(371~384)과 고국양왕(384~391) 시기에 유행했고, 일부 와당의 하한 연대는 호태왕好太王 3년(393)까지 내려간다. 겅톄화耿鐵華는 와당 중앙에 '태泰'자가 있는 권운문 와당은 고국원왕 시기에 유행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T18 ⑤층에서 출토된 명문이 없는 권운문 와당이 소수림왕 즉위 연도인 371년보다 빠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구려 연화문 와당, 수면문 와당, 인동문 와당

그 림 1. 체육장 지점 및 환도산성 궁전 구역 출토 와당과 기와
2. 체육장 지점 출토 청자기
3. 체육장 지점 및 절강 출토 관, 호
4. 체육장 지점 출토 유도옹과 유도준
5. 무용총 벽화

은 출현 시기가 대체적으로 동일하고, 그중 환도산성丸都山城 궁전지와 천추총千秋塚에서 출토된 와당을 연구한 결과 연화문 와당은 407년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권운문, 연화문, 인동문, 수면문 와당의 유행 시기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2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무술년' 간지명 권운문 와당은 기타 건물지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면문, 인동문 와당과 달리 비교적 이른 시기의 교란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와당을 근거로 2호 건물지 및 기타 관련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문이 없는 권운문 와당의 토층(제⑤층)은 '무술년' 간지명 와당 및 기타 문양 와당이 출토된 층위보다 확실히 빠르다. 이 유적 건물지의 토층은 한 번의 퇴적으로 형성된 층위이고, 따라서 그 연대는 건물지 내 출토유물의 연대보다 빠를 수 없다. 출토유물 가운데 도기, 수키와, 암키와, 전돌 등은 정확한 연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비해 와당은 연대가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국내성 체육장 지점 출토 와당을 근거로 할 때, 그 건물지의 연대 상한은 407년 즉 동진(317~420) 후기가 되고, 연화문, 수면문, 인동문 와당의 연대 하한은 평양平壤 천도(427)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물지의 연대는 대략 동진 후기일 것이나, 남조南朝 유송劉宋(420~479) 시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체육장 지점의 4기 건물지가 상한은 407년이고 평양 천도 이후 점차 폐기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7기 수혈에서는 모두 12점의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 청자가 절강浙江 지역의 동진 시기 가마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보았다. 고구려에는 자기나 청자를 생산할 기술이 없었으므로 이곳의 청자는 모두 중원에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

이 유적에서는 다량의 시유도기도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3호 수혈에서 발견된 대형 옹甕과 유사한 시유도옹이 육조六朝 시기 남경南京 지역 및 한반도 백제 지역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 풍납토성風納土城 경당지구 196호 유구에서는 대형 전문錢文 시유도옹 30여 점이 출토되기도 했다.

체육장 지점에서 출토된 권운문, 연화문, 인동문, 수면문 와당, 용문龍紋 전돌 그리고 당시에는 고구려 왕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청자와 다량의 시유도기 등은 모두 이 유적의 등급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 유적 가운데 이처럼 많은 청자가 발견된 유적은 이곳이 처음이고, 기타 시유도기 역시 대부분 술, 차, 그리고 절인 야채 등을 담는 용기였다. 식량 자급이 어려웠던 고구려 지역에서 이처럼 풍부한 음식 생활이 가능했던 계층은 고구려 왕실뿐이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는 조지竈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이 유적이 당시 고구려의 '수라간[御膳房]'과 관련된 창고 시설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王飞峰, 2016, 「国内城体育场地点高句丽遗址研究」, 『东南文化』4, 66–72.

저 자 왕페이펑王飞峰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연 도 2016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길림吉林 집안集安 동대자東臺子 유적 연구

吉林集安东台子遗址研究

주 제 어 동대자 유적
종묘
사직
옥벽
와당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2010년도 중대 과제(10&ZD085)

동대자東臺子 유적은 고구려 시기 중요 건축 유적으로, 일본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이를 사찰 유적으로 보았다. 1958년 3차에 걸쳐 길림성吉林省 박물관 등에서 이 유적을 발굴했다. 팡치둥方起東은 이 유적이 고국양왕故國壤王 9년(392) 3월에 건설된 고구려 국사國社와 종묘宗廟 유적일 것이라 추정했고, 한국의 강현숙姜賢淑은 이 유적의 연대를 5세기 말 이후부터 발해 멸망 이전까지라고 주장했다.

동대자 유적은 정면의 동실(Ⅰ실)과 서실(Ⅱ실), 서실 북면의 북실(Ⅲ실), 동실 동남쪽의 동남실(Ⅳ실) 등 4기의 건물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대자 유적의 문화 퇴적층은 두텁지가 않은데, 이는 사용 시간이 짧았거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팡치둥은 동대자 유적 Ⅰ실 중앙의 장방형 석좌石座가 사주社主와 관련 있다고 보았다. 이 석좌가 사주와 관련 있다면 동대자 유적은 제사 관련 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주는 사신社神의 상징이고 사신이 의거하는 곳으로, 돌을 사주로 삼는 방식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동대자 유적 출토 토기 중 일부는 오녀산성五女山城 제4기 문화층 혹은 국내성國內城 출토 토기와 유사하다. 오녀산성 제4기 문화층의 시대는 4세기 말, 5세기 초이다. 국내성 출토 토기는 비록 정확한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오녀산성 제4기 문화층의 시대와 비슷하다. 따라서 동대자 유적 출토 일부 토기의 연대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볼 수 있다.

동대자 유적 서쪽에서는 옥벽玉璧 1점이 수습되었는데, 후에 이는 동대자 유적과 관련된 토층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옥벽은 현재까지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1점이다. 옥벽은 중국 고대 제왕이 천지 사직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던 예기로, 동대자 유적 출토 옥벽은 유적의 성격

그 림 1. 동대자 유적 출토 토기와 오녀산성 제4기, 국내성 출토 토기 형태 비교
2. 관련 유물
1) 동대자 유적 출토 구멍 뚫린 토기
2) 평양 지역 출토 구멍 뚫린 토기
3) 동대자 유적 수습 발해 대구
3. 환도산성 궁전지, 국내성, 동대자 유적 출토 수면문 와당 (동일 거푸집)
1) 환도산성 궁전지 출토 수면문 와당
2) 국내성 출토 수면문 와당
3) 동대자 유적 출토 수면문 와당

과 그 등급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대자 유적에서는 유공有孔 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토기가 평양平壤 지역 고구려 유적에서도 발견된 일이 있는데, 그 시기는 평양 천도 이후이다. 이러한 유공 토기는 고구려, 발해, 요금遼金 등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며, 제사 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와 비교하면 동대자 유적 출토품은 형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공예 기술도 조잡하며 구멍도 하나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차이보다 제작 시기의 차이에 따른 변화 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대자 유적 출토품의 연대는 평양 천도 전후의 일정 시간 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에서는 자루 달린 철산鐵鏟 1점도 출토되었다. 견부는 원각방형이고 인부는 호형이며 크기는 작은 편이다. 고구려, 발해 지역 철산의 형태는 크기가 점점 커지고 견부가 원각방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동대자 유적 출토품은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 고이산성高爾山城, 아차산峨嵯山 제4보루 출토품보다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석대자산성과 고이산성 출토품의 연대는 고구려 만기(6세기 혹은 더 늦은 시기)이다. 그리고 아차산 제4보루의 연대 상한은 고구려가 풍납토성風納土城을 점령한 475년이므로 동대자 유적 출토품의 연대는 475년 이전이 된다.

동대자 유적에서는 4점의 동제 대구帶具가 발견되었다. 강현숙은 이 대구가 발해 시기 유물이고 따라서 유적 역시 발해 시기까지 계속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유물은 수습품으로 정확한 토층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동대자 유적의 연대 추정에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대자 유적 출토유물 중에는 와당이 상당 수량을 차지한다. 문양에 따라 구분하면 연화문蓮花紋과 인동문忍冬紋 그리고 수면문獸面紋으로 구분된다. 동대자 유적 출토 와당은 수량과 문양의 측면에서 유적의 등급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3종 와당은 환도산성丸都山城 궁전지 출토 와당의 문양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환도산성 궁전지는 호태왕好太王 17년(407) 새롭게 조성되었고 평양 천도 이후 점차 폐기되었다. 따라서 동대자 유적 출토 와당의 시기는 407~427년 전후가 된다. 또 일부 수면문 와당은 환도산성 궁전지, 국내성에서 출토된 와당과 같은 거푸집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는 위의 세 유적이 일정한 시간 내에 공존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대자 유적은 고국양왕 8년(391) 축조되기 시작한 고구려 국사와 종묘 유적이다. 그러나 그 해 5월 고국양왕이 사망하면서 이 건축물은 완공되지 못했다. 호태왕 시기에는 선왕의 능묘를 보수하고 일부 능묘 위에 비석을 세우며 새로이 환도산성 궁전도 축조하고 선왕인 고국양왕 시기에 완공하지 못한 국사와 종묘 건축물도 완성하였다. 국내성의 일부 건물도 보수했다. 그중 환도산성 궁전지는 호태왕 17년(407)에 새로 조성되었고, 평양으로 천도한 후

점차 폐기되었다. 동대자에서 출토된 일부 연화문 와당, 수면문 와당이 환도산성 및 궁전 구역 출토품의 문양과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같은 거푸집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대자 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와당이 호태왕 시기의 유물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시기는 대략 407~412년이 된다. 동대자 유적은 국내성 내에 위치하지 않는데, 사실 중국 고대의 국사와 종묘 역시 결코 고정된 위치에 건축된 것은 아니었다. 진국晉國 신전新田 시기(즉 현 산서성山西省 후마시侯馬市)의 종묘 제사 유적 역시 성 밖에 위치했다. 따라서 국내성 밖에 위치한 동대자 유적이 고구려의 국사와 종묘였다는 사실 역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王飞峰, 2016,「吉林集安东台子遗址研究」,『北方文物』3, 44-49.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연 도 1985
간행물명 『북방문물』2
『北方文物』2

고구려 초, 중기 도성

高句丽初、中期的都城

표 1. 고구려 초기와 중기 도성의 수축과 이동

고구려 정권은 도성 천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와 중기의 경계는 유리명왕琉璃明王 22년(서기 3)에 국내성國內城으로 천도하여 위나암성尉那巖城을 쌓은 것이고, 중기와 후기의 경계는 장수왕長壽王 52년(427)에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것이다.

고구려의 초기 도성은 졸본천卒本川 서쪽 산 위에 세워진 흘승골성紇升骨城이고, 고고자료에 근거하면 이는 혼강渾江 건너편의 오녀산성五女山城이다. 오녀산성이 고구려 초기 도성임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는 바로 산성 부근에서 발견된 다수의 고구려 무덤이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고구려 무덤은 오녀산성 남쪽 혼강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 남쪽의 고분군이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이 고분군에는 총 700여 기의 무덤이 있었는데, 집안集安 지역을 제외하고 중국 내에서 확인된 가장 큰 규모의 고구려 무덤이다.

고구려 도성의 특징은 산성과 평지성의 결합이다. 초기 고구려 도성 역시 예외가 아닌데, 환인현桓仁縣 서쪽 약 2㎞ 지점, 혼강 맞은편에 있는 하고성자고성下古城子古城이 바로 오녀산성과 짝을 이루는 평지성이다.

고구려 중기 도성은 집안현 내의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유리명왕 22년(서기 3)에 국내國內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축성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나암성은 산성으로 성 내에 수원水源이 있었고 방어에 유리했다. 또한 고구려왕은 평상시에는 이곳에 머물지 않다가 전쟁이 나면 이곳으로 옮겨갔다. 위나암성이 바로 산성자산성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산상왕山上王 2년(198)에 환도성丸都城을 축성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환도성이 바로 환도산성丸都山城이자 위나암성인데, 위나암성은 도성으로 사용하기 이전의 명칭이고 환도성은 도성으로 승격된 후의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위나암성이라

는 명칭은 산상왕이 환도성을 축조하여 이곳으로 이주하기(산상왕 13년[209]) 이전까지만 등장하고, 그 후로는 위나암성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즉 유리명왕이 위나암성을 축조했을 때는 도성이 아니었고, 산상왕이 환도성을 축성한 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요 성벽과 궁전지가 축조되었던 것이다. 한편 국내성은 현 집안현 내의 평지성으로 유리명왕 22년에 이곳을 도성으로 삼았다. 1975~1977년의 국내성 조사를 통해 현 국내성 성벽 하부에서 판축한 토성벽을 발견했다. 이는 전국戰國시대~고구려 건국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서한西漢 시기 성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구려는 서기 3년에 이곳으로 천도하면서 원래 이곳에 있던 성지를 이용하여 평지성으로 삼았고,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북쪽 산에 위나암성을 축조했던 것이다. 산상왕은 즉위한 후 공손탁公孫度의 공격으로 서한 시기에 축조된 원래의 국내성이 파괴되자 위나암성에 새로 환도성을 축조하여 도성으로 삼았던 것이고, 3세기 중엽 위魏의 관구검毋丘儉이 환도성을 파괴한 후 동천왕東川王은 부득이 다시 평지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이를 사서에서는 평양성平壤城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뒤 고국원왕故國原王 시기에는 선비족鮮卑族 모용慕容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환도성과 국내성을 동시에 축조했다. 이 때의 국내성은 동천왕이 축조했던 평양성을 중수한 것이다. 당시의 평양성은 결코 현재 북한의 평양이 아니다. 고구려가 낙랑군樂浪郡 군치郡治를 점령하고 정식으로 천도한 것은 장수왕 55년(427)의 일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평양은 '국내성' 명칭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고, 그 이전에 국내성을 평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중기와 후기는 물론 초기에도 전시에 사용하는 산성과 평시에 사용하는 평지성을 함께 도성으로 사용했던 것 같다. 고구려 도성이 이런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구려의 원래 활동 중심지가 혼강과 압록강鴨綠江 중류로, 산과 계곡이 많고 평지가 드문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성지는 산 위에 쌓아 경작이 가능한 평지를 많이 확보하고자 했던 까닭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건국이후 고구려에 줄곧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평지성 부근에 산성을 축조하여 외부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력를 강화하고자 했던 까닭일 수도 있다. 이는 고구려 도성의 특징이 형성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魏存成, 1985, 「高句丽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2, 28–36.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1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0집
『边疆考古研究』10辑

고구려 국내성國內城 서벽 외측 배수함동排水涵洞 및 관련 유적 고찰

高句丽国内城西墙外排水涵洞及相关遗迹考察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항목 (10&ZD085)
길림대학 '985공정' 항목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에 있는 고구려 국내성國內城 서벽에서는 배수함동排水涵洞이 발견되었다.

이 배수함동과 국내성 서벽 및 국내성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려면 배수함동 및 그 주변의 유구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수함동 북쪽 18m 지점의 치가 있고, 남쪽 13m 지점에 위치한 서쪽으로 꺾어지는 성벽 기초도 있다. 『국내성』 보고서에서는 이 서쪽으로 꺾인 성벽 기초가 고구려 시기 치의 남쪽 가장자리라고 보았다.

그 이전에 1975~1977년 집안현集安縣 문관소文管所는 시굴 조사를 통해, 남성벽 T4, T5와 북성벽 T8의 석성벽 하부에서 단면이 궁형인 단단한 흙 둔덕을 발견했다. 학계에서는 이 흙 둔덕이 고구려의 토성벽보다 이른 시기일 것이라고 보았다.

『문물文物』 1984년 1기에 실린 「집안 고구려 국내성지 조사와 시굴[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 보고서에서는 함동의 연대가 석축 성벽보다 이르거나 혹은 흙 둔덕과 동시에 축조된 흙 둔덕 기초 부분의 시설에 속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국내성 서벽 북단은 흙 둔덕을 석벽으로 개축할 때 동쪽으로 옮겨진 것이 된다. 이러한 보수 및 부단한 위치 이동의 원인은 통구하通溝河의 물에 의한 서성벽 서북부의 지속된 침식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03년의 발굴에서는 함동 남북에서 모두 석축 성벽 기초가 발견되어 함동과 흙 둔덕의 관계가 부정되었다.

『국내성』 보고서의 2003년 발굴 상황 소개에서는, "현존 성벽의 서북쪽 모서리에서는 성벽이 꺾이는 구체적인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다. 고구려 시기 국내성 성벽의 서북쪽 모서리는 이미 모두 사라졌고, 당시에 축조된 국내성 북벽은 현존 벽체의 서북쪽 모서리를 따라 계속 서쪽으로 이어졌던 것으

그 림 1. 국내성 서벽 외측 배수함동 평·단면도
1) 1984년 『문물』 수록 도면
2) 『국내성』 보고서 수록 도면
2. 국내성 평면도
1) 1914년 도면
2) 『통구』 수록 도면
3) 1984년 『문물』 수록 도면
4) 『국내성』 보고서 수록 도면
3. 국내성 서벽 서측 절장 기초 평·단면도
4. 국내성 서벽 북문 옹성 복원도

로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가 국내성을 도성으로 삼았던 기간에 국내성은 여러 차례 파괴되고 복구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배수함동이 위치한 벽체가 고구려 시기에 건축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고구려는 한때 이 벽체를 국내성 서벽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견해와는 달리, 필자는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14년 평면도에 보이는 5개 성문 가운데 배치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는 동문(동벽 남문), 서벽 남문, 서벽 북문이 있다. 그중 서벽 남문은 성문 남북 양측 성벽이 위치가 비껴가면서 설치되었다. 2003년에 발굴한 서벽 남문은 1914년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문도 양측 벽체와 성벽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망격문網格紋 암키와 잔편과 수면문獸面紋 와당도 출토되었다. 이는 이 문지가 성벽과 시기가 동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성벽이 비껴가는 성문은 환인桓仁 오녀산성五女山城 동문에서도 확인된다. 서벽 남문의 발굴은 1914년 평면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 평면도 속 국내성의 형태와 성문 구조가 고구려 시기부터 내려온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1914년의 평면도에 표시된 것처럼 이곳은 옹성문이고, 석축 함동은 옹성 내측에서 외측으로 나가는 배수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국내성의 성문은 이 서벽 남문과 같이 성벽이 비껴가면서 문이 설치된 옹성 구조도 있고, 또 1914년 평면도의 서벽 북문과 동문(동벽 남문)처럼 한쪽 성벽이 곡척형曲尺形으로 꺾어지는 형태의 옹성 구조도 있으며, 북벽 서단의 성문과 북벽 중문처럼 성문 양쪽에 각각 치 하나씩이 있어 사실상 문궐門闕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옹성에 가까운 구조도 있다.

魏存成, 2011, 「高句丽国内城西墙外排水涵洞及相关遗迹考察」, 『边疆考古研究』10辑, 295–301.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고구려발해연구중심

연 도 2016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20집
『边疆考古研究』20辑

위진수당魏晉隋唐 시기 중원 지역 도성 구조의 발전 변화 및 고구려, 발해에 대한 영향

魏晋至隋唐时期中原地区都城规划布局的发展变化及其对高句丽渤海的影响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특별 위탁 항목(15@ZH007)

동한東漢 낙양성洛陽城은 서주西周부터 북위北魏까지 이어져 한위漢魏 낙양성이라 총칭한다. 동한 낙양성은 평면이 남북방향의 장방형이나, 후에 남벽이 낙하洛河에 의해 훼손되었다. 성내에는 북궁과 남궁이 있다. 두 궁성은 성지 북부와 남부의 중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전체 성지의 1/3을 넘는다.

동한 말년에 한漢 황실이 쇠락해가면서 조조曹操가 세력을 키워 업북성鄴北城을 축조하고 왕도로 삼아, 도시 계획에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성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남북이 1,700m, 동서가 2,400m이며, 서벽 남단이 외측으로 돌출되어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은 2,620m에 이른다. 성내 중간의 동서대로가 전체 성을 남북으로 나누고 있다. 북쪽 서부는 황실 원림인 동작원銅雀園으로, 동작대銅雀臺, 금호대金虎臺, 빙정대冰井臺가 바로 이 동작원 서쪽 성벽 위에 축조되었다. 북쪽 중부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왕실이 위치한다. 최근의 고고 조사를 통해 이를 복원한 결과 동서로 나란히 외조와 내조가 들어선 구조임을 확인했고, 외조 전면 남북대로가 중심선이 된다. 북쪽 동부는 귀족의 주거 구역이다. 남쪽은 백성들의 주거 구역인 방리坊里이다. 분산되어 있던 한대 궁전 구역의 구조와는 달리, 업북성은 구조가 정연하며 비교적 대칭을 이루고, 주민들의 주거 구역도 약간 확대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중국 도성 건설과는 다른 새로운 구조였다.

동한 낙양성은 동한 말년에 크게 훼손되었는데, 220년 낙양으로 돌아온 조위曹魏와 265년에 위魏를 대체한 서진西晉은 모두 낙양성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진 말년에 낙양성은 다시 크게 훼손되었다. 5세기 말 낙양으로 천도한 북위도 대규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 조위는 동한 낙양 북궁의 기초 위에 새로 단일 궁성을 지었다. 이 궁성은 성내 북부 중간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하며 남북의 장방형이다. 궁성 앞에는 동서방향의 도로와 남북의 중심대로가 있

그 림 1. 조위 업성 평면 복원도(『조위 업성의 평면 복원 연구[曹魏鄴城的平面復原研究]』에서 인용)
2. 북위 낙양성 평면 복원도(『조위 업성, 북위 낙양성, 동위 북제 업남성 평면 배치의 몇 가지 특징[略論曹魏鄴城, 北魏洛陽城, 東魏北齊鄴南城平面布局的幾個特徵]』에서 인용)
3. 당 장안성 평면 복원도
4. 평양 고구려 도성 성지와 무덤 분포도(『고구려의 역사와 유적[高句麗的歷史與遺迹]』에서 인용)
5. 집안 고구려 도성 성지와 왕릉 분포도(『집안 고구려 왕릉集安高句麗王陵』참고)
6. 발해 상경성지 평면 복원도
7. 1) 위진, 북위 낙양궁성 평면 구조 탐측 복원도(『한위 낙양 고성의 연혁과 형식 변화 첫 연구[漢魏洛陽古城沿革與形制演變初探]』에서 인용)
2) 북위 낙양궁성 평면 복원도(『중국 고대 건축사中國古代建築史』 제2권에서 인용)
8. 1) 동위, 북제 업남성 궁성 평면 복원도(『동위, 북제 업남성 평면 배치의 복원 연구[東魏, 北齊鄴南城平面布局的復原研究]』에서 인용)
2) 동위, 북제 업남성 궁성 평면 복원도(『중국 고대 건축사』 제2권에서 인용)
9. 당 장안성 태극궁 평면 복원도(『중국 고대 건축사』제2권에서 인용)
10. 1) 당 장안성 대명궁 유적 평면도
2) 당 장안성 대명궁 평면 복원도(『중국 고대 건축사』제2권에서 인용)
11. 안학궁 유적 평면도(『안학궁 연대 고찰[安鶴宮年代考]』에서 인용)
12. 1) 발해 상경성 궁성 유적 평면도
2) 발해 중경 화룡 서고성 유적 평면도
3) 발해 동경 혼춘 팔련성 유적 평면도

다. 북위 만기에는 가로방향 도로 북쪽의 북반부 거의 전부를 왕실이 점유하고 궁성 전면 중심대로 양쪽에도 관청, 사찰, 고위 관리의 저택 등이 들어선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 수隋 대흥성大興城의 궁성과 황성이 이어받는다. 다음으로 동한 낙양성의 서북쪽 모서리에 금용성金墉城이라는 3기의 작은 성을 축조했다. 성내 남쪽의 병성丙城은 조위 시기에 축성했고, 병성 북쪽의 을성乙城과 갑성甲城의 수축 연대는 북위 만기 혹은 수 말기로 볼 수도 있고,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한 후 수축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용성의 위치와 역할은 업북성의 3대臺를 참고한 것이다. 그 다음은 북위의 외곽성 축조이다. 주민 거주 구역인 방리의 확대를 위해 북위 시기에는 동한 낙양성 이외에 새로 '동서 20리, 남북 15리' 규모의 거대한 외곽성을 쌓았다.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따르면 방리는 '사방 350보가 1리이고 각 리에는 4개의 문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는 그 내부에 십자로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위 낙양성의 구조는 수당隋唐 장안성長安城에 와서 완벽해지고 제도화되었다. 수나라는 통일 직전에 구도인 한 장안성에서 새로 축성한 대흥성으로 옮겼다. 당은 대흥성을 계속 이용했으나 이름은 장안으로 바꾸었고, 이것이 후대에 수당 장안성이 되었다. 수당 장안성은 첫째, 외형이 반듯하고 규모가 거대하며 동서가 남북보다 크다. 둘째, 황실과 중앙 관청이 위치한 궁성과 황성이 각각 하나의 성을 이루며 앞뒤로 이어져 있고 모두 곽성 북부 정중앙에 위치한다. 셋째, 곽성 내부에는 몇 개의 남북방향, 동서방향 도로가 방리 및 동서의 두 시장을 구획하고 있고, 이러한 방리와 시장은 또 황성 전면 주작대로朱雀大路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넷째, 궁성, 황성, 중심대로 양쪽과 곽성 네 모서리에 모두 100여 곳의 불사와 도관이 세워졌다.

고구려는 처음에 환인桓仁에서 건국했고, 서기 3년에 집안集安으로 천도했다가 427년에 다시 평양平壤으로 천도했다.

평양성은 '성城'과 '택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택'은 '성' 옆에 위치하는데 항상 거주하는 곳이고, '성'에는 창고 시설이 있고 전쟁이 나면 들어가 방어하는 곳이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기록과 고고자료를 결합하여 고구려 도성이 산성과 평지성의 결합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성'은 산성이고, '택'은 평지성인 것이다.

고구려 도성에서 산성의 지위와 역할이 이처럼 독특한 것은 고구려가 큰 산과 계곡이 많은 곳에 위치했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양 지역에서는 대성산성大城山城, 청암리토성淸巖里土城, 안학궁安鶴宮, 평양 시내 고성 등 도성과 관련된 성지 네 곳이 발견되었다. 학계에서는 그 가운데 대성산성이 상술한 문헌기록 속 산성이고, 평양 시내 고성은 522년에 시축되고 586년에 이주한 장안성長安城으로 보고 있다.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곳은 바로 청암리토성과 안학궁이다. 일부 연구자는 안학궁이 대성산성과 결합된 평지성

이라 보고 있고, 일부는 청암리토성이 대성산성과 결합된 평지성이라 보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후자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성산성에서는 여러 건물지와 저수 시설이 발견되었다. 대성산성의 수축 연대를 원 보고서에서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보았고, 이는 문헌기록과 부합한다.

청암리토성에서는 장군총將軍塚 출토 연화문蓮花紋 와당과 동일한 와당이 발견되었고, 498년에 창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강사지金剛寺址의 여러 건물지도 발견되었다. 청암리토성 동북방향으로 대성산성이 약 4㎞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성문은 직접 마주보고 있어 두 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보여주고 있다.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구조는 고구려가 집안을 수도로 삼았던 시기에도 이미 구비되어 있었으며, 환인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집안의 고구려 도성은 하나가 집안 시내의 평지성 즉 문헌상의 국내성國內城이고 다른 하나는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 즉 문헌기록에 앞뒤로 나타나는 위나암성尉那巖城과 환도성丸都城이다.

국내성은 성벽 외측에 다수의 치가 있고, 최근에는 일부 대형 건축지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곳이 고구려왕의 궁실 위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환인현의 오녀산성五女山城은 고구려 초기 도성이고, 오녀산성에서 혼강渾江을 따라 10㎞를 내려오면 강 우측으로 하고성자고성下古城子古城이라는 평지성이 있다. 시굴 결과, 토층 및 출토유물에서 이 성이 고구려 초기에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구려 초기 도성이 이미 산성과 평지성의 관계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산성과 평지성이 공존하는 고구려 민족의 도성 구조와 특징은 후기에 평양 시내 고성인 장안성을 수축할 때에 이르러 변화가 생겼다.

평양 시내 고성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나뉘어 있다. 내성에 왕실을 두고 중성에 관청, 외성에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들어섰다. 외성에는 십자로로 정연하게 구획된 방리가 있고, 북성은 산봉우리에 위치하여 내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 성은 원래 산성과 평지성이 상호 결합되는 전통의 기초 위에 다시 북위 낙양성의 도시 계획을 흡수하여 형성된 새로운 구조이고, 산성과 평지성을 하나로 합쳐 전시의 방어와 평시의 거주가 합리적으로 통일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발해는 698~926년까지 중국 동북 지역, 한반도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 건립된 정권이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모두 네 차례 천도했고, 도성은 모두 네 곳이었다. 처음 돈화敦化에서 건국했는데 역사에서는 이를 '구국舊國'이라 부른다. 천보天寶(742~756) 연간에 중경中京 서고성西古城(길림성吉林省 화룡和龍)을 도성으로 삼았고, 천보 말에 상경上京(흑룡강성黑龍江省 영안寧安)으로 천도했으며, 785년에 상경에서 동경東京 팔련성

八連城(길림성 혼춘琿春)으로 옮겼다가 794년에 다시 상경으로 옮겼다. 발해는 그 뒤 926년에 요遼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고구려 도성은 지리 환경과 역사 배경으로 인해 오래도록 민족적 특징을 유지했고, 후기에 와서 중원 도성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발해는 초기 상황은 불명확하나, 빠른 시간 안에 중원 도성의 배치 계획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당시 중원 문화의 번영 및 당唐과의 우호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발해 도성과 당 도성 사이에도 차이점은 있다. 일부 연구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궁성의 정전에 모두 태극전太極殿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그들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발해 정권 역시 같은 이유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고구려 도성이 발해 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조합이나 지역 분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이 높은 두 정권이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당唐 왕조가 발해에 끼친 영향에 비하면 이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魏存成, 2016,「魏晋至隋唐时期中原地区都城规划布局的发展变化及其对高句丽渤海的影响」,
『边疆考古研究』20辑, 277–305.

저 자 자오사오쥔赵少军
요령성 문물국
연 도 2015
간행물명 『동북사지』2
『东北史地』2

국내성國內城 성벽 수축 문제 연구

国内城城墙修筑问题探讨

주 제 어 국내성
성벽
보수

국내성國內城은 1900년대 초 일본 학자들이 처음 조사하여 『통구通溝』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중국은 1962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내성-2000~2003년 집안集安 국내성과 민주民主 유적 시굴 보고서[國內城-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성 평면도는 모두 4종이다. 가장 이른 것은 1914년 일본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발표한 안내도 성격의 평면도이고, 그 다음은 1938년 『통구』에 실린 실측 평면도이다. 『문물文物』 1984년 1기에 발표된 「집안 고구려 국내성지의 조사와 시굴[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에도 국내성 평면도가 실렸으며, 마지막은 2004년 『국내성』 보고서에 실린 것이다.

국내성 성벽은 수축 방식이나 사용된 재료가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1종은 반듯한 방형과 장방형 석재를 평행하고 정연하게 쌓은 경우로, 성벽 기초 부분이나 기초에서 가까운 부분에 주로 사용되었다. 북벽 외측, 동벽, 서벽 남단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제2종은 석재도 반듯하지 않고 평행을 이루지도 않으며 석재 사이 빈틈에는 쇄석을 끼워 넣은 경우로, 성벽 중상부에서 많이 확인된다. 남벽 전체와 서벽 북단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제3종은 석재의 크기와 석질이 모두 균일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쌓아 올린 경우로, 성벽 상부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는 만주국滿洲國 시기 혹은 해방전쟁(1945~1949) 시기에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성은 몇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자주 파괴되었고 자연히 이에 대한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다. 고구려 당시에 이미 북벽 내측은 한 차례 안쪽으로 넓히는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벽 외측의 축조 방식과 내측의 축조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북벽 내측은 안쪽으로 넓히는 공사 이외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북쪽 모서리 내

그 림 1. 국내성 지리 위치도
2. 1914년판 국내성 평면도
3. 1938년판 국내성 평면도
4. 1984년판 국내성 평면도
5. 2004년판 국내성 평면도
6. 국내성 T5 서부 단면도
7. 국내성 T8 동부 단면도
8. 국내성 T4 서부 단면도
9. 국내성 북벽 절개 지점 평·단면도
10. 국내성 북벽 중문 평면도
11. 국내성 북벽 서문 평·단면도
12. 국내성 서벽 문지 평·단면도
13. 국내성 동북 모서리 북벽 치 평·단면도
14. 국내성 서남 모서리 각루 평·단면도
15. 국내성 서벽 외측 배수구 평·단면도

측에서도 조사 구역 서쪽과 동쪽 사이에서 축조 방식과 재료의 차이가 확인되어 이곳에도 보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 외측의 경우, 1984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벽과 북벽에서 모두 제2열 벽체가 확인되었다. 축조 방식은 성벽 제1종 축조 방식과 동일하고 출토유물도 고구려 시기에 해당하나 기초 부분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또한 남벽 T1, T3, T5의 제2열 벽체와 T4 제3열 벽체의 일부 석축 구조 및 석재가 다른 구간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2009년에도 남벽에서 석재와 벽체 형식에 차이를 보이는 3열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볼 때, 남벽과 북벽 외측 벽체 역시 보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4년 평면도에는 치가 모두 41개이나, 1938년 평면도에는 8개뿐이고, 1984년 평면도에는 14개가 나온다. 이는 국내성 성벽이 고구려 시기에 이미 수차례 보수 공사를 거치면서 새로 추가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으며, 근현대에 와서도 보수 공사로 인해 사라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동벽과 남벽의 조사 자료에 근거하면 1914년판 평면도에 표시된 치의 숫자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서벽은 안쪽으로 이동한 흔적이 보인다. 근거는 배수구와 서남쪽 모서리의 각루에 대한 발굴 자료이다. 현재 배수구는 서벽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러나 배수구는 원래 석축 성벽과 유기적으로 조합된 구성 부분으로 배수구가 포함된 벽체가 고구려 시기의 서벽이었다. 서남쪽 각루 역시 고구려 시기에 축조된 것이나, 전형적인 국내성 성벽 축조 방식과는 달리 내부를 자갈돌로 채웠다. 전형적인 국내성 성벽은 내부를 모두 석재로 채웠다. 사용된 재료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 국내성은 나중에 성벽을 넓히거나 보수 공사를 진행할 때는 종종 자갈돌을 재료로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남쪽 각루는 나중에 보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분석에 근거하면 국내성 서벽은 원래 배수구와 함께 그 위에 축조되었으나 후에 서벽 전체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의 국내성 서벽 남단까지 옮겨졌고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성 문지는 1914년 평면도의 동벽 성문, 서벽 남문과 북문이 1938년판(서벽 북문 제외)과 1984년판에 모두 표기되어 있어 원래 국내성의 성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판에 표시된 남벽 성문과 북벽 성문은 1984년판에도 표시되어 있어 신뢰할 만하다. 1984년판에 표시된 동벽 북문은 근거가 소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2004년판 평면도에는 발굴을 통해 북벽에 원래 기록된 중문지 이외에 따로 서문지가 있음을 확인하여 표시했다. 2009년 조사에서는 동성로東盛路 입구의 남벽 문지를 확인했다. 따라서 동벽에도 문지가 하나 있고, 남, 북, 서벽에 각각 2개씩 모두 7개의 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최종 수량이 아니다. 예를 들면 동벽 북문의 경우 아직은 확실한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나 앞으로의 발굴에서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1914년판에서는 동벽과 서벽의 성문이 옹성인 것으로 표시되었고, 남벽과 북벽의 성문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각 성문에 모두 옹성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벽의 두 문지 동, 서 양쪽에 각각 치가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국내성 각 성문에 모두 옹성이 설치되었다는 견해는 치의 흔적을 옹성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북벽 서문이 발견되면서, 학계에서는 '성문이 중앙에 설치된다'는 관점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도 생겼다.

赵少军, 2015, 「国内城城墙修筑问题探讨」, 『东北史地』2, 14–21.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4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12
『社会科学战线』12

고구려 후기 도성 '평양성平壤城' 재 고찰

高句丽后期都城 "平壤城" 再考

주 제 어 고구려
평양성
장안성
2차 천도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 (11CKG005)

기존 학계의 고구려 평양성平壤城에 대한 연구는 많은 이견이 있어왔다. 마오웨이苗威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고구려 역사상 '상평양上平壤, 하평양下平壤, 남평양南平壤' 등 3개의 평양성이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중 '상평양'은 호태왕비好太王碑에 기록된 '하평양'이라는 문구에서 추론한 것으로, 313년 이전의 평양이 상평양이고 위치는 현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 시내라고 보았다. 그 후 334년 고국원왕故國原王이 평양성을 증축한 이후의 평양성은 모두 하평양이며 이는 현 북한 평양平壤 시내의 장안성지長安城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평양'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현 장수산성長壽山城 남쪽의 평지성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구려의 후기 도성 '평양성'을 '하평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헌자료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이다. 5세기 중엽 이전까지 고구려는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기록된 334년에 증축된 평양성은 절대 현재의 북한 평양시에 위치할 수가 없다. 4세기 70년대 이후부터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평양성' 혹은 '평양'이라는 명칭이 현재의 평양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구려는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했고, 586년에 새로 축성한 '장안성'으로 옮기는 '2차 천도'의 모습이 확인된다. 앞의 평양성은 평양시 대성산성大城山城과 청암리토성淸巖里土城의 조합으로 구성된 평양성이고, 뒤의 평양성(장안성)은 평양 시내에 위치한 고성으로 판단된다.

赵俊杰, 2014, 「高句丽后期都城 "平壤城" 再考」, 『社会科学战线』12, 103–108.

저 자 주리예祝立业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 도 2016
간행물명 『학문』6
『学问』6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왕도王都 문화 몇 가지

集安地区高句丽王都文化的几个内容

주 제 어 집안
고구려 왕성
문화

지원사업 길림성 철학사회과학기금 항목 (2016B297)

일반적으로 지역성, 민족성, 시대성은 도성 문화를 구성하는 3대 특징이고, 고구려의 경우 시기별 3기 도성에 모두 이 세 가지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고구려는 초기 도성(흘승골성紇升骨城)과 중기 도성(국내國內 지역)의 위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생산 능력과 방어 능력이었다. 초중기 고구려의 도성은 모두 도시를 자연의 산천, 하류에 융합시켜 사람과 자연이 화합하는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다수의 성읍을 도성 주변에 조성하여 수도가 중심이 되고 각 성읍이 이를 둘러싸는 방어체계를 구성했다.

고구려는 도성을 수륙 교통의 요충지에 건설하여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도성 방어를 구상했다. 또한 도성 주변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했다. 주거의 편의와 용이한 방어를 고려하여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된 '1도都 2성城'의 도성체계를 형성했고, 이는 민족의 고유 습관을 지키면서 한漢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다.

집안集安 시내의 평지성인 국내성國內城은 배산임수의 자연 조건을 충분히 이용했다. 국내성 동, 북의 산맥은 천연 방어막이 되었고, 통구하通溝河와 압록강鴨綠江은 천연의 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동쪽과 북쪽에는 10m 너비의 인공 해자도 조성했고, 성 북쪽에는 산세가 험준한 환도산성丸都山城이 위치한다. 환도산성은 통구평원通溝平原으로 통하는 고구려의 남북도南北道 즉 문헌에 기록된 '북치도北置道'와 '남협도南陜道'를 통제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성은 산맥, 해자, 하천이 함께 어우러진 완벽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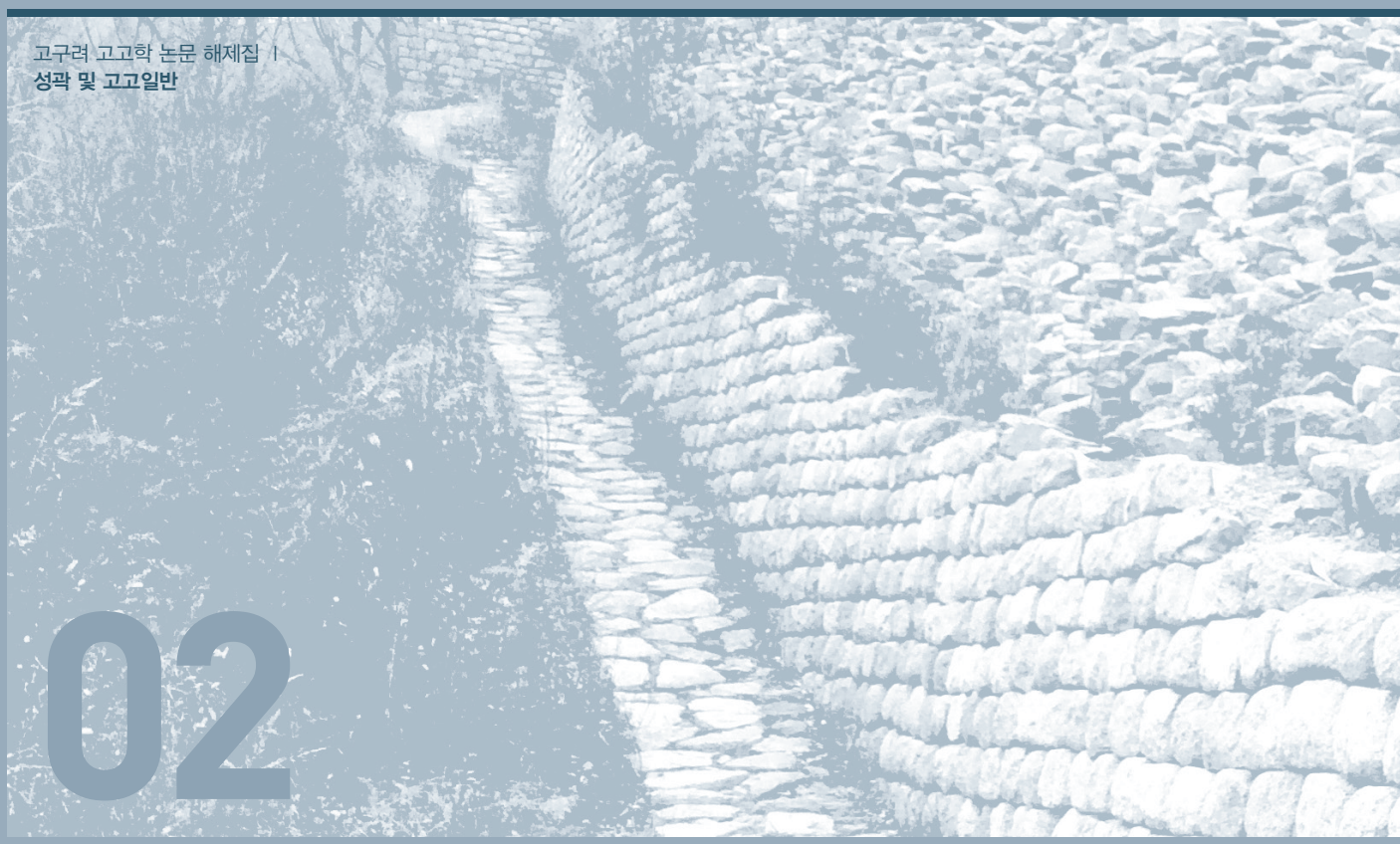
고구려 중기 도성 소재지는 일련의 산성이 둘러싼 중심에 위치한다. 이 산성들 역시 고구려 중기 도성의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인桓仁, 집안을 중심으로 한 혼강渾江 유역, 압록강 중류, 태자하太子河 상류, 혼하渾河 상류, 휘발하輝發河 유역 그리고 제2송화강松花江, 압록강 상류 지역의 산

성으로는 환인의 오녀산성五女山城, 고검지산성高儉地山城, 마안산산성馬鞍山山城, 수허산성愁虛山城, 집안 환도산성, 관마산성關馬山城,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 통화通化 자안산성自安山城, 건설산성建設山城, 영과포산성英戈布山城, 혼강 협피구성夾皮溝城, 동마성東馬城, 신빈新賓 전수호산성轉水湖山城, 태자성산성太子城山城, 본계本溪 굴륭산성窟窿山城, 이가보산성李家堡山城, 무순撫順 성자구산성城子溝山城, 서산성西山城, 유하柳河 나통산성羅通山城, 조어대고성釣魚臺古城, 휘남輝南 휘발성輝發城 등이 있다. 이곳은 고구려 정권이 초중기에 활동한 중심지 및 그 주변 지역이다. 고구려 산성의 특징을 개괄하자면, 산에 위치하며 하천을 차지하고 있어 나루를 확보했고, 실용성을 중시하여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군사적 목적이 우선이고 각 성들이 상호 호응하는 형태였다. 집안의 국내성과 환도산성을 보면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평시와 전시에 서로 호응하여 '복합식 도성'의 전략적 우위를 발휘하고 있다.

국내성은 수륙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 방어체계는 고구려 남북도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특히 남도에 위치하는 방어 시설로는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 갑방고성甲邦古城, 오룡산성五龍山城, 하방자고성下房子古城, 이도하자고성二道河子古城, 북관관애北關關隘 등이 있고, 북도에는 백기보한성白旗堡漢城(책구루성幘溝婁城), 고각산돈대孤脚山墩臺, 고각산산성孤脚山山城, 쾌대무고성快大茂古城, 패왕조산성, 망파령관애望坡嶺關隘 등이 있다.

집안을 수도로 했던 시기 국내 지역에는 이미 사찰, 왕궁, 관청, 민간 거주지 등 기능별로 구역이 구분되어 있었다. 이는 도시 기능의 완성 및 선진 도시 건설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나라 문화의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 왕릉과 귀족의 무덤이 보통 도성 주변에 조성되었고, 고구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집안시에 분포하는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 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 만보정묘구萬寶汀墓區, 마선묘구麻線墓區, 우산묘구禹山墓區, 하해방묘구下解放墓區, 장천묘구長川墓區 등은 국내 지역을 수도로 하던 시기에 조성된 거대한 고분군이다.

祝立业, 2016, 「集安地区高句丽王都文化的几个内容」, 『学问』6, 58–62.



02

둥펑	동북 지역 고구려 산성의 유형 분류 및 연대	058-059
량전징	고구려 천리장성 고찰	060-062
런훙쿠이	박작성泊汋城 방위 고찰	063-064
류란	고구려 고성 연구	065-067
류란 · 사오춘화	길림吉林 통화시通化市 한대漢代 자안산성自安山城 조사와 고증	068-069
류쯔민	'신성新城'의 '평양平壤' 여부에 대한 질의 및 '황성黃城' 고찰	070-072
리구	고구려 산성에 관하여	073-074
리뎬푸	고구려 신성新城의 시축 연대	075-076
리뎬푸	고구려 산성 연구	077-079
리룽빈	철령鐵嶺 경내 고구려 산성의 몇 가지 문제	080-082
리샤오중	석대자石臺子 고구려 산성 복원 연구	083-084
리젠차이	동북 지역 중부의 변강邊崗과 연변장성延邊長城	085-087
리젠차이	길림시吉林市 용담산산성龍潭山山城 고찰	088-090
리젠차이	당대唐代 고려의 부여성扶餘城과 천리장성에 대한 재론	091-093
리훙예	요령성遼寧省 암주고성巖州古城 고찰(연주燕州)	094-096
박진석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과 토성촌토성土城村土城 및 그 축성 연대	097-099
셴쥔옌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을 통해 본 고구려의 산성 위치 선정, 구조, 배치 및 건축예술	100-102
쉬밍강	대련大連 지역 고구려 4기 산성 고찰	103-103
쉬쿤 · 녜융 · 장디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 자안산성自安山城 시기 재론	104-105
신잔산	요령성遼寧省 경내 고구려 성지 고찰	106-108
쑨진지	심양瀋陽 석대자石臺子 고구려 산성 명칭 및 축성 시기 고찰	109-110

봉황산산성 성벽 ©국립문화재연구소

영구시박물관	안시성지安市城址에 관한 고찰과 연구	111-112
왕멘허우	압록강鴨綠江 우안 고구려 산성 연구	113-115
왕멘허우	고구려 성읍城邑 제도와 산성	116-117
왕젠췬	고구려 천리장성	118-119
원슈룽	고구려 산성의 배수체계	120-121
원슈룽	무순撫順 지역 고구려 산성에 관하여	122-123
웨이춘청	북한에서 발견된 고구려 산성	124-125
웨이춘청	중국에서 발견된 고구려 산성	126-127
자오샤오강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 명칭 고증	128-129
자오샤오강 · 왕하이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 방어체계 탐구	130-132
자오쥔제	고구려 산성 성벽 석동石洞의 기능에 대한 시론	133-134
자오쥔제	고구려 산성 성벽 내측 주동柱洞의 기능에 대한 재론	135-137
장위펑	고구려 성벽 석동 재 탐구—문헌자료를 통한 석동 기능 연구	138-139
저우샹융	고구려 금산성金山城 고찰	140-141
저우샹융	서풍西豐 성자산城子山, 철령鐵嶺 최진보催陣堡 두 산성 내 수졸戍卒 영지營地 관련 문제	142-143
정원철	고구려 산성 옹성의 유형	144-146
천다웨이	무순撫順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 구조, 배치 분석	147-148
천다웨이	요령遼寧 고구려 산성 재 탐구	149-151
천핑	고구려 산성 기원에 대한 초보 분석	152-153
퉁다	신빈新賓 오룡五龍 고구려 산성	154-155
펑융첸	고구려 천리장성 설치 연구	156-156

저 자 둥펑董峰
연 도 1995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동북 지역 고구려 산성의 유형 분류 및 연대

东北地区高句丽山城的分类及年代

그 림 1. 고구려 산성 분포도
(▲: 석축성, ●: 토석혼축성, ■: 토축성)
2. 제1유형 산성
3. 제2유형 산성

고구려는 주변 국가 및 중원 정권과 많은 마찰이 있었고, 다수의 평지성과 산성을 쌓아 외부 세력에 대항했다.

고구려 산성은 대부분 평지성을 둘러싸는 형태로 분포하고, 평지성으로 통하는 중요 교통로의 관문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산성은 주로 길림성吉林省 동부, 동남부, 요령성遼寧省 동부, 남부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그중에서도 압록강鴨綠江 중상류, 혼강渾江 유역, 한반도의 대동강大同江 유역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축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면 석축성이 가장 많고, 토축성이나 토석혼축성은 적은 편이며 후자는 주로 혼강, 부이강富爾江 유역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한다.

고구려 산성은 축성 재료, 축성 방식, 군사 시설, 분포면의 상이점 등을 근거로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 산성은 오녀산성五女山城, 흑구산성黑溝山城,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 환도산성丸都山城, 전수호산성轉水湖山城, 태자성太子城의 내성內城 등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산허리를 따라 축성하여 평면이 불규칙하고 규모도 작으며 성곽이 하나뿐이다. 물론 도성이었던 오녀산성(둘레 2,500m)과 환도산성(둘레 6,951m)은 둘레가 큰 편이나 나머지는 모두 1,500m를 넘지 않는다. 이는 고구려의 생산력이 낙후되었고,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인구가 많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건국 초기 활동 범위는 압록강 중상류, 혼강 유역에 국한되어, 국력이 약했고 인구도 적었다. 비록 주변 국가와의 분쟁도 있었지만 이는 모두 소규모 전투였고 그래서 큰 산성을 쌓을 필요도 없었다. 둘째, 성벽은 대부분 쐐기모양의 돌로 쌓은 석벽이거나 혹은 천연의 절벽을 그대로 이용했다. 셋째, 산성의 기본 방어 시설인 성벽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여장, 각루, 망루, 옹문 등 다양한 방어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각

루는 주로 적에 대항하는 용도였고, 망루는 적정을 감시하는 용도였다.

제2유형 산성은 나통산성羅通山城, 태자성의 외성外城, 고이산성高爾山城, 용담산성龍潭山城, 동단산성東團山城, 삼도령자산성三道領子山城이 가장 대표적이다. 제1유형 산성과 마찬가지로 산맥의 자연 방향에 따라 산허리에 성벽을 쌓았으나, 성벽 구조, 방어 시설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규모가 커서 둘레가 기본적으로 2,000m 이상이다. 주로 혼강, 부이강 유역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하여, 고구려가 강성해지고 인구도 증가한 후에 축성된 산성이다. 소규모 산성에 비해 면적이 늘어나면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유형 산성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성곽을 축조한 경우가 많다. 둘째, 성벽은 다수가 토석혼축이거나 절벽이나, 천연 절벽은 감소하고 인공으로 정돈한 절벽이 늘어난다. 셋째, 방어 시설의 기능이 증대되었다. 이 유형 산성의 방어 시설 역시 제1유형과 대동소이하나, 기능면에서 차이를 보여, 각루와 망루는 감시와 방어라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성문 근처의 성벽이 성 안쪽으로 휘면서 오목하게 들어가 옹문을 형성하는 것은 이 유형 산성 옹문의 보편적인 형식이다.

고구려 산성은 일반적으로 축성 방법이 간단하고 조잡할수록 연대가 이르고, 복잡하며 형식이 다양할수록 연대가 늦다. 따라서 축조 방식과 형식에 근거하면 대체적인 산성의 연대를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 산성은 주로 현 집안集安, 환인桓仁, 신빈新賓의 압록강 중상류, 혼강 유역에 분포한다. 이 지역은 고구려 민족이 초기에 활동하고 건도한 지역이다. 성벽은 쐐기모양으로 가공한 돌로 쌓았고, 돌과 돌 사이 틈에는 작은 쇄석을 끼워 넣었다. 제1유형 산성의 연대 상한은 고구려 건국 초기라고 할 수 있겠다. 연대 하한은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기 어렵지만, 늦어도 3세기 말로 생각된다.

제2유형 산성은 주로 현 길림吉林, 유하柳河, 신빈新賓, 무순撫順에 분포한다. 주로 중심이 되는 제1유형 산성 주변에 방사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북 지역 고구려 산성은 2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체적인 연대는 제1유형이 기원전 1세기 중기에서 3세기 말(서한西漢 말~조위曹魏 시기)까지이고, 제2유형은 4세기 초~5세기 후기(서진西晉~북위北魏 시기)까지이다.

성벽 축성 방식 가운데 쐐기모양 석재를 사용하는 것은 고구려의 전형적 특징이고, 흙다짐 방식은 중원의 특징이다. 제1유형 산성에 흙다짐이 없고 제2유형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것은 중원 건축 방식이 고구려에 영향을 준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구려 산성의 변화는 고구려 문화가 중원 문화와 상호 융합하고 발전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합과 발전은 역사상 민족 관계의 일반적 규칙과 필연적 추세를 대표하는 것이다.

董峰, 1995,「东北地区高句丽山城的分类及年代」,『博物馆研究』3, 30–37, 101.

저 자 량전징梁振晶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고구려 천리장성 고찰

高句丽千里长城考

그 림 1. 고구려 천리장성도

고구려는 영류왕榮留王 14년(631)에서 보장왕寶藏王 5년(646)까지 당唐에 대항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성했다. 천리장성의 구체적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리젠차이李健才의 견해로 현 길림성吉林省 농안현성農安縣城 서남쪽에서 회덕현懷德縣 경내까지 동북에서 서남방향의 25㎞ 토축 성벽 유적과 다시 남쪽으로 요령성遼寧省 경내로 들어와 요하遼河 동안을 따라 영구營口 해변까지 이르는 총 1,000여 리를 고구려 천리장성으로 보고 있다. 왕젠췬王健群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발표했다. 다른 하나는 북한 손영종孫永鍾이 제기한 견해로, 북한 서북쪽의 대령강大寧江, 창성강昌城江 북안에서 발견된 120㎞ 장성이 고구려 천리장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 외에 천다웨이陳大爲는 요령성 동부 산악지대와 평지의 교차지점에 동북에서 서남방향으로 이어지는 천리산성이 고구려 서부의 연합 방어선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천리산성 연합 방어선을 연구하면 그것이 바로 문헌기록에 보이는 고구려 천리장성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천리장성은 동북에서 서남방향이고, 동북쪽 끝은 부여성扶餘城이며 서남쪽 끝은 바다에 이어진다.

방향을 고찰해보면, 철령鐵嶺 서풍현西豐縣 양천향凉泉鄉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에서 합대哈大철로를 따라 대련大連 금주金州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동북에서 서남방향이라는 지리 조건에 부합한다. 물론 리젠차이의 견해 역시 동북에서 서남방향이기는 하나, 지리적인 측면이나 고구려의 국력 등 객관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방어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견해이다. 게다가 소택沼澤 지역은 건축물 시공의 난도가 높고, 일단 공격에 무너지면 퇴각하기에도 불리하다. 방어의 측면에서 볼 때, 요하는 원래가 천연의 해자이다. 수隋, 당이 육로로 고구려를 공격할 때는 먼저 요하

를 건너는 것이 첫 번째 전투였다. 요하를 건넌 후에는 다시 산성을 중심으로 한 연합 방어선의 고구려 군대를 공격해야 했다. 요하와 산성 연합 방어선 사이의 요동평야遼東平野는 방어에 유리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만약 이곳에 장성을 쌓는다면 산성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퇴각에 불리하다. 고구려는 방어에 불리한 곳에서 전투를 벌일 이유가 없었다. 사서에는 고구려 천리산성 가운데 남쪽은 안시성安市城이 중심이고, 북쪽은 신성新城이 중심이었다고 나온다. 이 두 곳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으로 수당 군대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처럼 방어에 유리한 천리산성 연합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가능한 추정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천리장성의 기점인 부여성의 위치를 분석해보면, 리젠차이는 부여성이 길림성 농안이라고 보았다. 당시 농안에서 회덕으로 이어지는 라인의 서쪽은 거란契丹의 땅이었다. 그러나 거란은 고구려의 주요 방어 대상이 아니었다. 만약 당이 거란에 길을 빌어 고구려를 공격한다면 거란이 이를 의심하는 등 불필요한 상황이 유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농안에서 회덕까지 일대의 동쪽에서는 고구려 성지 등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여성이 농안이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반면에 왕멘허우王綿厚는 서풍현 양천향 성자산산성이 바로 고구려 서북부의 중요 요충지인 부여성임을 증명했다. 사실 현재까지 농안에서는 고구려와 관련된 아무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성자산산성은 성내 여러 곳에서 건축물 유구 및 고구려 기와 등 전형적인 고구려 특징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리젠차이는 천리장성의 서남단을 영구시 교외로 보고 있으나, 필자는 대련 금주 대흑산산성의 해변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흑산산성은 서쪽이 절벽이고 그 서쪽으로는 방어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 없다. 반면에 영구시 교외는 전체가 평야로 방어의 근거지로 삼을 곳이 없다. 게다가 영구시 교외까지만 천리장성이 이어진다면, 영구시 교외에서 대련 금주까지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당나라 군대에 완전히 노출되게 된다.

그리고 농안에서 회덕까지 이어지는 25㎞의 토축 성벽 유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에 반해 철령 서풍현에서 대련 금주까지 이어지는 평야와 구릉의 교차지대에서는 다수의 고구려 산성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대형 산성이 중심이 되고(남쪽의 안시성, 요동성遼東城, 북쪽의 신성, 부여성), 중소형 산성 및 일부 평지성이 보조 역할을 하며, 요하 평원에서 요동 산지의 고구려 중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을 틀어막고 있어 거시적으로 볼 때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어지는 천리장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농안에서 영구까지의 천리장성설은 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고고 조사를

통한 증명이 결여되어 있어 성립될 수 없다. 그에 반해 서풍 양천향 성자산산성에서 금주 대흑산산성까지의 천리산성 연합 방어선은 상술한 여러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는 동시에 역사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라인이 바로 사서에 등장하는 고구려 천리장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천리장성은 대형 산성이 중심이 되고 중소형 산성, 평지성이 보조 역할을 하며 일부 구간에는 토축 성벽까지 쌓아 하나의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요하 평원에서 고구려의 중심지로 들어오는 요충지를 가로막는 지역적 특색과 민족적 특색이 농후한 방어 건축물을 형성하고 있다.

梁振晶, 1994, 「高句丽千里长城考」, 『辽海文物学刊』2, 84–87.

저 자 런훙쿠이任鴻魁
단동시 문물관리판공실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박작성泊汋城 방위 고찰

泊汋城方位考述

고구려가 요동遼東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 현 단동丹東 지역에도 다수의 성을 쌓았고, 그중에는 박작성泊汋城도 포함된다.

당唐 정관貞觀 22년(648) 태종太宗은 바다를 통해 고구려 박작성을 공격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박작성은 압록강鴨綠江 입구에서 100여 리 떨어졌고, 강변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나라 군대는 동래東萊(현 산동성山東省 액현掖縣)에서 출발하여 발해渤海 해협을 지나 황해 서안을 따라 압록강에 들어가 100여 리를 가서 박작성에 도착한 후 박작성 남쪽에 군영을 설치했다. 그러므로 박작성은 압록강 북안에 위치해야 한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애하상첨고성靉河上尖古城, 구련성고성九連城古城, 투외토성套外土城, 호산산성虎山山城 등이 있고, 이 중 하나가 고구려의 박작성일 것이다.

학계에서는 단동시 진안구振安區 구련성진九連城鎭 애하상첨촌靉河上尖村에 위치한 고성을 한대漢代 서안평현西安平縣 고성으로 비정하고 있고, 이견도 없다. 이 성지에서는 다수의 한대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중에는 '안평락미앙安平樂未央'이라는 명문 와당과 '안평성安平城'이라는 명문이 있는 토기 구연부, 오수전五銖錢 등도 있다. 한대 문화층 위로는 다수의 고구려 시기 기와, 연화문蓮花紋 와당, 생활 용구, 생산 도구 등도 출토되어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했을 당시에도 계속 이 성을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탐도리기賈耽道里記』에서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에서 남쪽으로 압록강 북안 박작성까지 700리이고, 이곳은 옛 안평현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후대에 고구려 박작성이 한 서안평현 고지에 위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해辭海』에서는 서안평현의 현성이 고구려에 점령된 후 박작성으로 개칭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당서舊唐書』, 『책부원귀冊府元龜』,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는 박작성이 산의 험준함을 이용하는 동시에 압록강이 있어 방어력이 더 높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애하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첨고성은 압록강 북안과 애하靉河 사이의 충적평야에 위치한 평지성으로 압록강을 통한 방어력 제고는 가능하겠지만 산의 험준함을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애하첨고성은 박작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탐도리기』의 기록은 박작성이 '고안평현故安平縣' 경내에 위치했고, 한대 서안평현이 고구려에 와서 안평현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서안평현 고성이 고구려에서는 안평성이 된 것이고, 박작성은 따로 존재했던 것이다.

호산虎山은 단동시 동북쪽 15㎞ 지점의 관전현寬甸縣 호산향虎山鄉 호산촌虎山村에 위치하고 역시 압록강 북안에 해당한다. 호산은 명대明代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일 뿐만 아니라 산 위에 비교적 큰 규모의 고구려 산성 유적도 있다. 호산의 동, 서 양끝에서 성벽은 다시 남쪽으로 압록강변을 향해 간다. 20년 전 조사 당시에는 높이 4m의 성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산 남쪽 산 아래의 산성 중심에는 지금도 고구려 시기의 대형 우물이 남아 있다. 산성 내에서는 다량의 고구려 기와, 철도鐵刀, 철전두鐵箭頭, 동전두銅箭頭, 철갑편 등 무기와 철제 농구 등이 출토되었다. 호산 고구려산성은 건축 규모와 성내의 대형 우물 등 시설이나 주변 자연 환경이 모두 문헌상의 박작성 관련 기록과 부합하고 있다.

호산 고구려산성은 압록강 입구에서 60㎞, 대포석하大蒲石河 하구에서 약 17.5㎞ 떨어져 있다. 이는 『구당서』, 『신당서新唐書』에 기록된 박작성, 박작구泊汋口의 위치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압록강 북안에 위치한 고구려산성은 호산과 애하첨 두 곳뿐이고, 그중 호산산성만이 북쪽으로 산에 의지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압록강이 흐르고 있어 문헌기록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박작성은 한대 서안평현 고성지도 아니고, 구련성 혹은 대포석하 하구 등지도 아니며, 그 정확한 위치는 압록강 북안(즉 우안) 단동시 관전현 호산향 호산촌의 호산이 분명하다.

任鴻魁, 1994, 「泊汋城方位考述」, 『辽海文物学刊』2, 29-32.

저 자 류란柳岚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0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고구려 고성 연구

高句丽古城研究

고구려 고성은 주로 요령성遼寧省 요하遼河 동쪽 대부분과 길림성吉林省 중부 동남쪽 및 한반도 북부에 분포하고, 이는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을 당시의 활동 구역에 해당한다. 중기 고성은 주로 요령성과 길림성에 위치하고 한반도는 대부분 만기 고성이다. 고성은 유형과 구성의 측면에서 도성, 산성, 평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산성이 많아 길림성에서 발견된 산성, 관문, 보루(초소) 등만 40여 기에 달한다. 산성은 고구려 고성의 명확한 특징을 더 잘 대표하고 있다. 고구려 고성은 도성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분포하고 강안을 따라 험한 산 정상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수륙교통의 요충지를 방어한다. 사서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남북으로 두 교통로가 있었다. 즉 남협南峽과 북치北置인데, 고성은 대부분 이 두 교통로에 분포하여 한편으로는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 교류와 경제 무역, 강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성이 중심이 되고 주위로 작은 규모의 위성이 둘러싸며 관문과 보루도 설치했다.

고구려 도성은 현재 세 곳이 남아있고 모두 산성과 평지성의 조합이다. 조기 도성은 즉 요령성 환인현桓仁縣의 오녀산성五女山城과 하고성자고성下古城子古城이고, 중기 도성은 길림성 집안현集安縣의 국내성國內城과 환도산성丸都山城(위나암성尉那巖城이라고도 부른다)이며, 만기 도성은 북한 안학궁安鶴宮과 대성산성大聖山城인데, 이는 장안성長安城이라 총칭한다. 산성은 조기, 중기, 만기로 구분할 수 있고 평지성은 매우 적다.

고구려 산성은 모두 강 양안 산 정상에 위치하고, 천연 지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수륙교통로를 통제한다. 석축 성벽은 고구려 민족의 독특한 건축이다. 산성은 성벽 구축 유형에 따라 조, 중, 만기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시기별로 대, 중, 소형 산성의 차이가 있다.

산성은 모두 산세를 따라 축성되어 불규칙한 장방형, 타원형, 다변형이다. 조기 산성은 자연 석재나 가공한 석재를 이용했고, 각 석재를 교차하여 쌓는 방식으로 축성했으며, 옹문과 여장 등도 있다. 중기 산성은 토석혼축 성벽이며, 만기 산성은 다수가 토축 성벽에 옹문, 각루, 치 등 시설이 있다. 큰 산성은 모두 강과 육로의 교통 요충지에 축성되었고 그 주위로 소규모 산성이 위성 형태로 분포한다. 대형 산성은 둘레가 2,000m 이상이고 중형 산성은 1,000m 전후, 소형 산성은 수 백m 이내이며, 관문이나 보루는 100m 정도로 완전한 군사 방어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조기 산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녀산성, 환도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모두 조기의 대형 산성이다. 중형 산성으로는 신빈현新賓縣 흑구산성黑溝山城과 전수호산성轉水湖山城, 집안현의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 등을 들 수 있다. 소형 산성으로는 통화현通化縣의 건설산성建設山城이 대표적이다.

중기의 대형 산성으로는 길림시 용담산성龍潭山城, 유하현柳河縣 나통산성羅通山城, 용정龍井 성산자산성城山子山城 등이 있다. 용담산성 부근으로는 동단산산성東團山山城과 삼도령자산성三道嶺子山城이라는 두 위성이 있다. 각각 송화강松花江의 좌안과 우안을 통제한다. 평상시에는 병사가 주둔하지 않다가 전란이 발생하면 들어갔다.

만기 산성은 길림성 요원시遼源市의 용수산고성龍首山古城이 전형적이다. 용수산고성 동남쪽으로는 동요하東遼河를 사이에 두고 공농고성工農古城이 위치하고, 동북쪽으로는 성자산고성城子山古城이 있다. 두 성은 모두 고구려 시기 토축 산성으로 용수산산성과 함께 삼각형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용수산산성의 위성이다.

관문과 보루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집안의 관마장관애關馬墻關隘(관마산성關馬山城)가 있다. 서, 동남, 동북 3면으로 높은 산이 있는데 각각의 두 산 사이 절벽을 이어놓은 성벽 세 줄로 구성된 삼각형의 산성이다. 관마장관애는 고구려 북도의 중요 관문이다. 집안의 대천大川보루는 관마장관애의 전진 초소이다. 고구려 남도에는 망파령관애望波嶺關隘가 있다. 이들 관문과 보루는 남, 북도 방어체계의 중요 구성 부분 중 하나이다.

평지성은 발견된 수량이 많지 않다. 길림성에는 총 6기가 있고 가장 큰 것이 국내성이다. 나머지는 모두 소형 평지성이다. 길림시吉林市 교외의 동단산평지성東團山平地城은 황토로 쌓았고 원형이다. 혼강渾江의 동마고성東馬古城은 토석혼축 구조이고 평면은 정방형이다. 고구려 평지성은 대부분 전국戰國, 서한西漢의 토성 기초 위에 축성했다. 평지성이 적은 것은 당시 고구려인들이 예를 들면 장백현長白縣에서 발견된 십사도구촌읍十四道溝村邑이나 십이도만촌읍十二道灣村邑과 같은 촌락에서 거주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성에 들어가 국토 방어에 매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산성 내에서는 출

토유물이 비교적 적고, 대부분이 기와와 초석뿐인 것이다.

고구려는 산성 입지를 선택할 때 모두 강가에 접한 산을 골랐고, 산세가 험하며 정상부에는 평지가 있는 곳을 선택했다. 산성의 형태는 산세를 따라 축조했기 때문에 모두 불규칙하여 장방형, 타원형, 다변형, 사다리꼴, 삼각형 등등 다양하다. 성벽은 시기별로 석벽, 토석혼축벽, 토벽으로 구분되고 절벽을 성벽으로 삼은 경우는 각 시기에 모두 존재한다. 보통 절벽은 그대로 가공 없이 성벽으로 이용하나 일부 규모가 큰 성이나 중요한 산성에는 절벽 위에 여장을 석축하기도 하고, 절벽 위에 성벽 기초가 될 고랑을 파고 석재를 둘러 쌓아 인공 벽을 만들기도 했다. 만기의 산성에서도 절벽 위에 흙을 다진 낮은 성벽을 쌓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조기의 석벽 재료는 가공하지 않거나 약간 쐐기형으로 가공하여 사용했고, 중만기에는 정교하게 가공한 석재를 사용했으며, 내부는 쇄석과 흙으로 채웠다. 일부 산성은 외측은 돌로 쌓고 내측은 흙을 다진 후 중간을 흙과 쇄석으로 채운 경우도 있다. 만기에는 중원의 축성법인 흙다짐 성벽이 전래되었다. 고구려 산성 성벽에는 여장, 각루, 치 등 방어 시설도 있다. 성문은 출입이 편리한 곳에 산성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1~5개씩 설치되었다.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곳이 정문으로 남문이 다수이다. 또한 대부분 옹문 구조이다. 산성 내에는 수원이 있고 저수 시설 및 배수 시설도 구비되었다. 고구려의 평지성은 수량이 적고 특징이 명확하지 않다. 국내성의 경우, 가장 명확한 특징은 평면이 방형이라는 점이다. 구조는 당唐 장안성長安城의 구조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柳岚, 2000,「高句丽古城研究」,『博物馆研究』1, 62–68.

저 자 류란刘岚
사오춘화邵春华
연 도 1991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길림吉林 통화시通化市 한대漢代 자안산성自安山城 조사와 고증

吉林通化市汉代自安山城调查与考证

그 림 1. 위치도
2. 산성 평면 실측도
3. 수습 유물도

자안산성自安山城은 길림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에 위치한다. 산성 서남쪽은 합밀하哈密河가 흐르고 동쪽은 혼강渾江에 접해 있으며, 합밀하가 산성 앞에서 혼강에 합류해 들어간다.

1983년 봄, 여름에 2차에 걸친 조사가 진행되었고, 1985년, 1988년, 1989년 각각 한 차례씩 모두 5차에 걸친 조사, 실측이 실시되었다. 이 산성은 축조 형태 및 특징이 한대漢代 산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성 평면은 불규칙한 장방형에 남북방향 최장 길이는 925m, 동서방향 너비는 300~450m이다. 성벽은 자연 석재의 평평한 면을 외측으로 두고 쌓았다. 일부 약간 가공한 석재도 있다. 동남부에서는 지표에 건축물 기초 일부가 노출되어 있고, 돌로 쌓은 우물도 발견되었다. 북부에도 일부 건축물 기단이 확인된다. 성내에는 저수 시설도 있다.

성내 지표에는 다수의 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기종은 주로 관罐, 증甑 2종이고 완형 석구石臼 2점도 발견되었다. 토기 재질은 대부분 니질회도泥質灰陶이고 니질홍도泥質紅陶가 그 다음으로 많다. 소량의 조개껍질이 섞인 홍갈도紅褐陶도 있다. 소성온도는 높은 편이고 재질도 단단하며, 모두 윤제輪製이다. 대부분 민무늬이고, 일부 토기에서 능형菱形 망격문網格紋, 압획문壓劃紋, 요현문凹弦紋등이 확인된다.

산성에서 수습된 유물은 모두 한대 유물이다. 니질회도 관의 형식, 재질, 소성온도나 증 저부 잔편이 모두 내몽고內蒙古 철리목맹哲里木盟 내만기奈曼旗 사파영자沙巴營子 한성漢城 출토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길림성 영길현永吉縣 대해맹大海猛 2기 한대 유적 출토 회도 발鉢, 분盆 등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필자는 산성 성벽이 석축인 점에 근거하여 이를 고구려 환도산성丸都山城,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 나통산성羅通山城 등과 동시대 고구려 산성으로 보는 견해에 동

의할 수 없다. 산성의 축성 연대 추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내 출토유물이다. 비록 이 산성이 석축 성벽으로 고구려 시기 산성 축조 방식과 동일하지만, 성내 출토유물은 그 형식, 재질, 소성온도, 스타일 면에서 모두 한대 유물로 고구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산성을 고구려 산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대의 건축 재료는 보통 모두 현지에서 구하거나 현지 토착 민족의 습성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벽이 토축인지, 석축인지를 근거로 그 민족의 성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가장 주요한 근거는 산성 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 산성이 고구려 산성이 아니라 한대 산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산성 서남쪽 30㎞ 부근에 적백송고성赤柏松古城이라는 한대 고성이 있다. 이곳은 한漢 현도군玄菟郡 상은대현上殷臺縣의 치소로 알려져 있다. 자안산성에서는 고운 니질의 회도편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는 모두 한대의 유물이고, 지리적으로 적백송고성과도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이 두 성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안산성을 적백송고성, 즉 상은대현의 수비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백송고성은 한대에 축성되었고 후에 폐기되었다가 요대에 다시 이용된다. 그러나 자안산성에서는 한대 유물 이외에 다른 시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산성이 조위曹魏 혹은 고구려에 들어 적백송고성과 함께 폐기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刘岚 · 邵春华, 1991, 「吉林通化市汉代自安山城调查与考证」, 『博物馆研究』3, 73–78.

저 자 류쯔민刘子敏
연변대학
인문학원 역사학과

연 도 2008
간행물명 『동북사지』1
『东北史地』1

‘신성新城’의 ‘평양平壤’ 여부에 대한 질의 및 ‘황성黃城’ 고찰

“新城” 即 “平壤” 质疑—兼说 “黄城”

주 제 어 신성
평양
황성
양민
화피전자

최근 중국 학계의 일부 연구자가 동천왕東川王이 축성한 ‘평양성平壤城’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기했고, ‘신성新城’ 및 ‘평양동황성平壤東黃城’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견해를 발표했는데, 필자는 이들의 ‘신성’이 바로 ‘평양’이고, 둘 모두 ‘양민고성良民古城’이라는 관점에 이견을 갖고 있다.

양민고성은 남북의 길이가 350~400m, 동서의 너비가 약 300m, 사방으로 성문이 있고 남북으로 해자가 있다. 이 정도의 규모는 무순撫順 고이산성高爾山城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고이산성은 동서 길이가 1,200m, 남북 너비는 920m로 양민고성에 비해 약 3배나 크다. 새 견해에서는 나통산성羅通山城이 고구려의 ‘나라 북쪽 신성’이고, 무순의 신성을 포함하여 고구려에는 모두 세 곳의 신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나통산성은 양민고성보다 크기가 크다. 이 성은 상호 연결된 동, 서의 두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은 규모로 보아 대성大城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결코 신성은 아니다.

양민고성은 평지에 축성된 토성인데, 이는 고구려의 축성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 견해의 논자는 이 성이 먼저 토성벽을 쌓고 후에 다시 토성벽 외측에 석벽을 쌓았다고 했으나 이는 국내성國內城, 환인桓仁 하고성자下古城子, 집안集安 관마장關馬墻, 망파령관애望波嶺關隘의 축성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내성 하부에는 원래 토축 성벽이 있었다. 국내성은 원래 한대漢代 토성 외측에 돌을 쌓은 것이다. 환인 하고성자는 오히려 양민고성과 비슷하게 흙을 다져 축성한 성이다. 그러나 하고성자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양민에서는 아무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양민고성 외측의 석벽 1열은 따로 축성된 성벽으로, 양민고성이 본래 토성벽 외측에 돌을 쌓았다거나 혹은 토석이 결합된 축성법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평양성은 동천왕 21년(247)에 축성되었고, 고

국원왕故國原王 12년(342) 2월에는 마침내 환도성丸都城이 보수되어 8월에 환도성으로 옮겨갔다. 90여 년에 걸친 시간 동안 고구려는 계속 평양을 수도로 삼았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봉상왕烽上王 7년(298)에 궁실을 증축했는데 매우 화려했으며, 봉상왕 9년(300)에는 궁실을 수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양성에 분명히 궁실 종류의 건축물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양민고성에서는 아직까지 건물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성에는 궁전 건축지가 있고, 또 초석, 전돌, 기와, 와당 등도 발견되었다. 와당 중에는 '태녕太寧 4년', '월조月造' 등의 명문 와당도 있어, 동진東晉 시기에 성내에 기와 건축물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태녕 4년은 동진 제2대 황제 사마소司馬昭 4년 즉 326년(고구려 미천왕美川王 21년)이고, 이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여전히 평양성이었다. 이는 즉 평양성이 바로 훗날의 국내성 자리에 위치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이다.

양민고성이 위치한 양민전자良民甸子는 동쪽으로 압록강鴨綠江에 접해 있고, 서쪽은 산이 있어, 면적이 좁아 고대에는 작은 마을 정도만 형성될 수 있었을 뿐이고, 현대에도 마을 하나가 들어설 정도에 불과한 외진 지역이다. 고구려는 평양으로 옮긴 후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동진에게는 사대정책을 취하여 쌍방이 우호적인 정치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인근 민족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등 국력이 부단히 증강하였다. 집안시는 전체적인 조건이 모두 양민에 비해 훨씬 유리했다. 자연 조건의 측면에서 보면, 기후가 온난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육로와 수로 교통이 모두 발달되었다. 역사적으로도 집안 일대는 전국戰國, 진한秦漢 이래로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되어왔다. 이는 이미 여러 고고 조사 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어 양민고성은 이에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고구려 100여 년의 수도가 이곳에 세워지지 않고 양민에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새 견해의 논자는 양민을 고구려 첫 번째 평양성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황성黃城은 화피전자고성樺皮甸子古城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

화피전자고성은 실제 고구려 고성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고구려인이 축성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너무 편벽되어 있어 고구려왕이 거주할만한 곳이 아니다. 세력 확장의 큰 뜻을 품은 고구려왕이 국내성, 환도성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화피전자고성에 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영토와 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 관점의 논자는 양민고성이 고구려 첫 번째 평양성이고, 고국원왕 4년에 증축한 평양성 역시 양민고성이며, 이 때 증축한 부분이 양민고성 북쪽에 추가된 석성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양민토성 동쪽의 석벽 1열은 토성과는 별개의 담장이지 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증축한 평양성은 도대체 어느 성인가? 필자는 그것이 대동강大同江 북안에 위치한 낙랑군樂浪郡 조선현朝鮮縣 치

소였던 위만조선衛滿朝鮮의 고도 왕검성王儉城이라고 생각한다. 이 성지는 대동강 북안 현 평양 시내에 위치하는데, 학계에는 고구려 '장안성지長安城址'로 알려진 곳이다. 남하 정책을 확정한 고구려가 한반도 내에서 발전하기 위해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양성을 증축하는 것이었다. 평양이라는 말은 이 성이 평지성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곳은 왕검성 고지였다. 증축이라 말한 것은 원래의 기초 위에 일부 건축물을 더한 것임을 말한다.

황성에 관해서는 2종 견해가 대두되어 있다. 하나는 집안 '동대자東臺子'설이고 다른 하나는 현 평양 동쪽 '청암리고성靑巖里古城'설이다. 필자는 이 가운데 청암리고성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목멱산木覓山이 (평양)부 동쪽 4리에 위치하고 황성의 옛터가 있다"고 한다. 왕멘허우王綿厚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볼 때, 이 성은 대성산성大城山城과 안학궁安鶴宮보다 빨라, 고구려의 '임시 도성'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화피전자설에서는 청암리고성이 평양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황성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평양을 현재의 평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황성으로 이거한 것은 피난이 아니라 진격을 위한 전략적 행위였다. 국왕이 대동강에 평양성과 황성을 쌓은 것은 한반도 서부 영토에 주목한 중요한 표현이었다.

371년 백제가 공격한 평양성은 대동강 북안의 평양성이라는 견해는 현재까지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평양이 양민고성이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백제가 공격한 평양성 역시 양민고성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리상으로나 당시 회복되고 있던 고구려의 국력 등을 고려할 때 절대 불가능한 견해이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전쟁을 벌인 지역은 북으로 대동강에서 남으로 예성강禮成江 사이이다. 이 기간 백제는 이미 한강 양안을 공고히 했고 고구려 세력은 황해북도黃海北道까지 이르러, 쌍방의 전투는 현 예성강 하류 지역에 국한되었다.

신 견해의 논자는 양민전자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양민고성 인근의 고구려 무덤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실제 양민고성 내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화피전자가 황성이라는 주장에도 전국에서 서한西漢까지의 유구와 유물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충분한 논거라 할 수는 없다.

刘子敏, 2008, 「"新城" 即 "平壤" 质疑一兼说 "黄城"」, 『东北史地』1, 11–15.

저 자 리구栗谷
연 도 1983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고구려 산성에 관하여

关于高句丽的山城

현재까지 알려진 다수의 고구려 산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산성으로는 환인桓仁의 오녀산성五女山城, 집안集安의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 평양平壤의 대성산성大城山城, 순천順川의 자모산성慈母山城과 황룡산성黃龍山城, 태천泰川의 용오리산성龍吾里山城 등이 있다.

고구려의 산성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으며 방어에도 유리한 곳에 축성되었다. 오녀산성은 오녀산 북부와 동부의 다수 산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고 험한 정상을 중심으로 축성되었다. 오녀산 서남쪽에는 광활한 환인분지가 있고, 동남쪽에는 압록강鴨綠江 지류가 환인분지를 지난다. 통화通化에서 집안으로 통하는 대로는 오녀산 서부 산록 아래의 협곡을 지나는데, 오녀산은 이 길을 지키는 일종의 관문 성격을 지니게 되어, 집안 지역과 서쪽 지역을 연결시키는 육로와 수로의 요충지였다. 집안의 산성자산성, 평양의 대성산성 등 기타 고구려 산성도 모두 산세가 험준한 곳에 위치하고 평야와 하천으로 이어지는 수륙교통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고구려는 자연 지세를 그대로 활용하여 산성을 축조했다. 보통 3면은 산이나 절벽으로 둘러싸였고, 남면에 완만한 경사지와 계곡이 위치하는 형태이다. 성 내에는 1~2개의 계곡이 있어 '인人'자 형태나 '종从'자 형태를 띤다.

산성에는 여장, 치첩雉堞, 각루, 망루, 수문 등 성벽 관련 시설도 있고, 내부에는 장대, 봉수, 창고, 병영, 저수 시설 등이 있다. 성벽은 토축과 토석혼축도 있으나 절대다수가 석축이다. 성벽 축조에 사용된 석재는 모두 현지에서 조달했던 관계로 크기나 종류가 각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벽 바깥면만 석재를 쌓았으나 부분적으로 양면을 모두 석재로 쌓은 경우도 있다. 내부는 쇄석과 흙으로 다져 채웠다. 양면으로 석재를 쌓은 부분은 주로 성문, 성벽과 이어지는 치첩, 각루 등 중요 시설 부분이다. 성벽은 또 위로 올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라가면서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지나 거의 직선으로 올린 경우도 있고, 저부에서 일정 높이까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그 위로 다시 약간 비스듬하게 올린 경우도 있다.

고구려가 주로 전쟁을 벌인 곳은 요동遼東 지역이다. 그래서 고구려는 요하遼河 부근에 10여 기의 성을 쌓아 전초기지로 삼았다. 그리고 요동 지역에서 국내성國內城으로 통하는 고구려의 남로와 북로에도 길을 막는 관문을 설치했다.

국내國內 지역을 방어하는 고구려의 방어선은 이렇게 3중, 4중으로 구성되었고, 그 마지막 방어선은 국내성 부근에 축성된 산성자산성이었다. 그러나 평양으로 천도한 후에는 고구려의 방어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요하 유역에 많은 성을 축성했을 뿐만 아니라 천산산맥千山山脈을 통과하는 중요 입구인 봉황성鳳凰城에 거대한 산성을 쌓아 평양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했다. 그리고 요동 지역의 성들이 함락되면 고구려는 압록강을 천연 요새로 삼아야 했고, 그래서 압록강의 중요 나루인 의주義州 백마산성白馬山城이 압록강을 방어하는 라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인근에 황룡산성, 자모산성 등 다수의 위성을 쌓아 수도의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栗谷, 1983,「关于高句丽的山城」,『博物馆研究』1, 33–38.

저 자 리뎬푸李甸甫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88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고구려 신성新城의 시축 연대

高句丽新城的始筑年代

고구려 신성新城은 무순撫順의 고이산성高爾山城으로 비정되고 있다. 쉬자궈徐家國, 쑨리孫力가 『요해문물학간遼海文物學刊』 1987년 제2기에 발굴 약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 고국원왕故國原王 '5년 봄 정월에 나라 북쪽에 신성을 쌓았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고이산성의 시축 연대를 335년, 진晉 성제成帝 함강咸康 원년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이 견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삼국사기』에는 고국원왕 5년 신성 축성 이전인 봉상왕烽上王 5년(266), 서천왕西川王 7년(276), 19년(288)에 이미 신성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고구려 조기 유물의 존재 여부는 신성 시축 연대 추정의 방증이 될 수 있다. 약보고서 그림7에 표시된 출토유물 중에는 한대漢代 철겸도鐵鎌刀, 철삽鐵鍤, 철산鐵鏟 등 생산도구가 있다. 이러한 철제 생산도구는 늦어도 동한東漢 시기의 유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성 즉 고이산성의 시축 연대를 진 성제 함강 원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고국원왕 5년의 신성 축조 기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김부식金富軾은 유리왕琉璃王이 22년(서기 3)에 위나암성尉那巖城(환도성丸都城)을 쌓았다고 기록했고, 산상왕山上王 2년(198)에 환도성을 쌓았다고 기록했는데, 사실 산상왕 2년에는 환도성을 증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국원왕 5년의 신성 축조 이전인 서천왕과 봉상왕 시기에 신성은 이미 존재했다. 그러므로 고국원왕 5년의 신성 축조는 '재 축조' 혹은 '개축' 등으로 이해해야하고 절대 '시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 신성의 시축은 언제였을까? 사실 신성의 수축과 관련된 사료는 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태조대왕太祖大王 '3년 봄 2월에 요서遼西 10성을 쌓아 한漢의 병사를 대비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조대왕 3년은 후한後漢 광무光武 31년(서기 55)이다. 이는 태조대왕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3년에 이미 고구려의 세력 범위가 신성을 훨씬 더 넘어선 지역까지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순 고이산 일대는 이미 고구려 영역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성의 시축 연대는 당연히 태조대왕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이산성에서 후한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 역시 이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겠다.

李甸甫, 1988, 「高句丽新城的始筑年代」, 『辽海文物学刊』2, 156, 15.

저 자 리뎬푸李殿福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8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고구려 산성 연구

高句丽山城研究

고구려의 산성 건축은 당시 신라, 백제, 가야, 그리고 일본에까지 모두 큰 영향을 주었고, 중국 동북 지역의 후대 국가인 발해, 요遼, 금金 등 여러 민족의 물질문화 건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 산성이 위치한 곳은 토양이 비옥하면서 산과 강이 험준하여 방어 기능이 뛰어나고 교통의 요새라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산성인 환인桓仁의 오녀산성五女山城은 환인현 부근 평지를 넓게 조망할 수 있고, 토양이 비옥하며 산과 강이 험준하다. 또한 혼강渾江이 흘러 수륙 교통의 요로要路라고 할 수 있다. 오녀산성에 이은 두 번째 산성이 집안集安의 환도산성丸都山城인데, 이 역시 산과 강이 험준하고 토양은 비옥하며 군사 방어의 기능에 유리하여 고구려 산성의 지리 위치상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길림성吉林省, 요령성遼寧省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고구려 산성에서도 모두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 산성은 형식과 축성 특징에 따라 전형적인 산성, 평산성平山城, 관애關隘, 보루(초소)의 4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형적인 산성은 규모가 크고, 건축 공정도 거대하다. 보통 자연 산세를 따라 산마루 혹은 그 외측에 성벽을 쌓았고 자연 장벽도 충분히 이용했다. 또 산세가 낮은 지역 혹은 협곡 사이에는 석축 성벽을 쌓았는데 지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벽을 더 높게 쌓았다. 산성에는 대부분 내부에 완만한 경사지가 있으며 3면은 높고 1면은 낮은 자연 지세를 보인다. 전체적인 외형이 파기형簸箕形인 산성은 환도산성,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 대성산성大聖山城 등이 있다. 사면의 성벽 내부에 넓게 트인 산 정상의 평지가 있는 유형도 있는데 오녀산성이 대표적이다. 길림시吉林市의 용담산산성龍潭山山城, 신빈新賓의 흑구산성黑溝山城 등은 사면 성벽 내부에 분지가 있다. 대부분의 산성 내부에는 저수 시설이 있고, 일부

지세가 낮은 곳에는 문지와 배수를 위한 배수로가 설치되었다. 성문은 지형지세에 따라 설치되었고, 그중 정문은 보통 옹성 구조로 축조되었다.

평산성은 평지성과 산성의 특징을 다 갖춘 산성이다. 1기의 산성에 산 위 부분과 평지 부분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고구려 최후의 도성인 장안성長安城이 이 유형에 속한다.

관애는 교통 요로 상의 험준한 협곡에 축조한 관문이다. 보통은 양쪽 산봉우리가 등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험준하여 그 사이 협곡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었다. 협곡 사이에 석축 성벽을 쌓아 양쪽 산을 연결시키고 그 가운데 적절한 부분에 문을 설치했다. 대표적으로는 집안의 관마장관애關馬墻關隘, 통화通化의 석호관애石湖關隘 등이 있다.

보루는 일종의 전망 시설이다. 보루는 적을 관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여 봉화대와 유사하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고구려는 보통 15~20㎞마다 보루를 하나씩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 요로 부근의 산 정상에 작은 보루를 쌓고 석축 성벽을 둘렀는데, 성벽 1면은 보통 30~50m이고 문은 하나만 설치했다. 통화 남대성보南臺城堡, 태평구성보太平溝城堡, 영과포성보英戈布城堡 등이 모두 이런 소형 보루 건축물이다.

고구려 산성의 성벽 구조와 축조 방식은 4개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석축 구조이다. 제일 하층에 큰 장조석을 1~2단으로 쌓고 그 위로 평평한 사다리꼴로 가공한 석재를 쌓아올린다. 각 단 사이 틈이 큰 부분은 쇄석을 넣고, 위로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들여쌓기를 한다. 성벽 높이는 4~6m로 일정하지 않고, 성벽 상단에는 높이 1m, 너비 1m의 여장을 쌓는다. 성벽 상단의 너비는 약 2m이다. 성벽 내측은 높이가 약 1~2m 정도이다. 여장 기초 아래에는 돌로 쌓은 방형 구멍이 있는데 간격은 1~2m로 일정하지 않다. 이 구멍은 곤목뢰석滾木礌石을 설치하는 기둥 구멍으로 이용하기도 했고, 기를 세우는 용도로도 썼다. 대표적인 산성으로 오녀산성, 환도산성, 흑구산성, 패왕조산성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성벽 내외면은 돌로 쌓고 내부는 흙을 채우는 방식이다. 유하현柳河縣의 나통산성羅通山城이 대표적이다. 산마루를 평평하게 정돈하고 2~5단으로 기초석을 쌓은 후 가공한 석재를 양 측면에 쌓고 중간에 흙과 쇄석을 섞어서 채우는데 내부를 채운 흙과 쇄석에는 별도로 달구질을 하지는 않는다. 성벽의 단면은 사다리꼴이다. 세 번째는 토석혼축 방식이다. 흙이 주요 재료가 되고 그 속에 돌을 일부 섞는다. 길림시 용담산산성, 요원시遼源市 용수산산성龍首山山城이 대표적이다. 용담산산성 성벽은 달구질을 한 토성벽과 토석혼축한 성벽이 섞여 있다. 용수산산성 이외에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 역시 토석혼축한 성벽이다. 마지막 유형은 흙으로 판축하는 방식이다. 성벽 전체가 달구질을 통해 흙을 다지는 판축기법으로 축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심양瀋陽의 탑산산성塔山山城이 있다.

성벽을 석재만으로 쌓아올린 산성인 오녀산성, 흑구산성, 환도산성, 패왕조산성 등은 모두 고구려 조기의 산성이다. 따라서 이런 축조방식은 고구려 조기 산성에서 통용되던 축성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표면을 석재로 쌓은 나통산성은 휘발하輝發河 상류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고구려가 2~3세기에 점령한 지역이다. 국내성國內城과 한반도 안학궁安鶴宮의 성벽 축조 방식도 이와 동일하다. 국내성 성벽은 고국원왕故國原王 12년(342)에 시축되었다. 따라서 이런 축조 방식은 4세기 상반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석혼축 방식은 하나의 산성에 일부 구간은 토축성벽이고, 일부 구간은 석축성벽인 경우로, 대표적인 산성이 길림시 용담산산성, 무순시撫順市 고이산산성인데, 용담산산성은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에 고구려 관할이 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 유형 성벽 축성 방식의 연대보다 늦는 것으로 보인다.

흙으로만 판축하여 축성하는 토성벽은 요동반도遼東半島에서 다수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심양 탑산산성은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한 후에 수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산성 축성 방법 가운데 연대가 가장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의 대형 산성에는 다수의 군사가 주둔하여 산성 내부에는 주거 건축물, 음수 시설, 저장 시설, 장대, 봉수대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했다. 오녀산성, 환도산성, 대성산성처럼 산성이 도성 자체인 경우에는 보통 궁전지나 종묘건축이 있었다.

李殿福, 1998, 「高句丽山城研究」, 『北方文物』4, 25–27.

저 자 리룽빈李龙彬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8
간행물명 『동북사지』4
『东北史地』4

철령鐵嶺 경내 고구려 산성의 몇 가지 문제

铁岭境内高句丽山城的几个问题

주 제 어 철령
고구려
산성

요령성遼寧省 철령鐵嶺 경내에는 서풍西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 개원開原 마가채산성馬家寨山城, 개원 위원보威遠堡 용담사산성龍潭寺山城, 개원 팔과수八棵樹 고성자산성古城子山城, 철령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 철령 이천호李千戶 장루자산성張樓子山城 등 총 6기의 고구려 산성이 있다.

시기가 비교적 이른 산성은 서풍 성자산산성으로, 이는 성벽의 축조 방식에서 확인된다. 성자산산성의 성벽은 표면을 설형楔形 석재로 쌓고 내부는 쇄석으로 채웠다. 고구려 만기 성지는 보통 토석혼축이거나 석축이고, 조기의 성지는 전체가 폭이 좁고 긴 설형 석재를 쌓아서 축성했다. 성문의 형식에서도 서풍 성자산산성은 조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 진행한 서문의 발굴에서 남북의 성벽 양 끝 부분이 서로 어긋나게 교차되는 형식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형식이 환인桓仁 오녀산산성五女山山城 동문지, 신빈新賓 흑구산성黑溝山城 동문지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고구려 조기 산성의 성문 형식으로 만기의 특징이 명확한 옹성 구조 성문과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고구려 조기 산성의 성벽에는 높이가 낮은 여장이 있고 여장 내측 기초부분을 따라 석동石洞이 파여 있다. 집안集安 환도산성丸都山城,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 환인桓仁 고검지산성高儉地山城, 신빈 흑구산성 등에서 모두 확인되는 형식인데, 서풍 성자산산성 남벽 중단에서도 동일 유형의 석동 7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06년 고구려 중만기 산성인 봉황산산성鳳凰山山城의 발굴에서도 이렇게 열을 지어 파여 있는 기둥구멍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석동의 유무를 기준으로 산성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령 경내의 고구려 만기 산성으로는 장루자산성이 있다. 특징은 성문의 옹성 구조와 치의 설치에서 드러난다. 저수지와 망대 역시 전통 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장루자산성 북문에는 타원형 옹성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

고, 서벽에는 2개의 치가 있다. 저수지는 산성 북벽 바깥에 위치하는데 저수지 서쪽으로 산세를 따라 물이 성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다. 망대는 총 7기인데 그중 성벽 위에 6기, 남문 밖에 1기가 있다. 남문 밖 망대는 산성 남문과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적을 살피는 기능뿐만 아니라 남문의 병력과 상호 호응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처럼 저수지와 망대를 성 밖에 설치하는 것은 산성의 위치와 축조 방식이 이미 충분히 성숙된 고구려 만기가 되어야 출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철령 경내의 나머지 4기 산성은 모두 고구려 중기 혹은 중기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조성된 성지이다. 최진보산성은 둘레가 5㎞로 규모가 큰 편이다. 성벽은 설형 석재가 아닌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일부 구간은 단애를 그대로 성벽으로 이용했고, 경사가 완만한 남벽 동단은 주변에 석재가 드물어 석재 없이 흙으로 성벽을 쌓았으며, 서벽과 북벽 구간은 암석 구간이라 주변 석재를 그대로 이용하여 석축 성벽을 쌓았다. 그러나 이곳의 석재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이다. 나머지 3기 산성은 모두 개원 동부 지역에 위치하는데, 성벽은 모두 쇄석과 흙을 섞어 쌓았다. 규모는 모두 그리 크지 않아 둘레가 1,000~1,500m 정도이다. 또한 '벽 밖의 벽'과 '성 위의 성' 형식도 등장했다. '벽 밖의 벽'은 개원 마가채산성에서 발견되었다. 산성 북벽 동단 바깥의 경사지는 남북방향 길이 약 300m의 계곡인데, 이 계곡 북단을 지나면 바로 평지가 나와 고구려는 이 계곡에 따로 토축 성벽을 쌓아 계곡 입구를 막았다. 이러한 성벽은 다른 고구려 산성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천다웨이陳大爲는 이를 '난마장攔馬墻'이라 불렀다. 수암현岫巖縣과 장하시庄河市의 태양구산성太陽溝山城, 노고성산성老古城山城에 있는 난마장은 석축이나 마가채산성과 심양瀋陽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의 난마장은 토석혼축 성벽이다. '성 밖의 성' 구조는 개원 팔과수 고성자산성에서만 확인된다. 이 형식은 산허리 밖으로 돌출된 자연 산세를 이용하여 그 밖으로 돌출된 성벽 안쪽에 다시 1열의 내벽을 쌓아 조성한 것이다. 이 작은 성은 동서 길이가 60m, 남북의 최대 너비가 14m인데, 이는 고성자산성이 위치한 자연 지세와 관련된 것이지 중기 산성의 보편적인 형식은 아니다.

위원보 용담사산성과 팔과수 고성자산성은 후기의 개축으로 인해 원래의 성문 형식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마가채산성은 현재까지도 타원형의 옹성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다. 한편 최진보산성 남문은 안팎으로 2중의 옹문이 설치되었다. 최진보산성 남문 옆으로 약간 은폐된 지점에는 암문도 설치되어 있다. 서벽 남단 성 밖으로는 각대, 외측 해자 등 시설도 보인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성문 및 기타 요충지의 방어 형식과 구조 등에서 고구려 중기 산성과 조기 산성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철령에는 고구려 조, 중, 만기의 산성이 모두 존재하고 산성

의 시대적 특징이 비교적 명확하다. 특별한 부분에 대한 방어 시설의 형식 변화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기타 고구려 산성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형식적 특징도 다수 갖추고 있다.

철령은 요하遼河 북부 평원과 백두산 남부 산지가 만나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지 민족에 속하는 고구려로서는 중요한 방어의 대상지였고 자연히 고구려는 이 지역 방어에 큰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 역사 속 다수의 중요 사건이 모두 현 철령의 동부 산지에서 발생했다. 고구려 건국 전후와 폐망 직전의 두 시간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고고 조사 결과와 사서에 기록된 상황이 모두 이에 부합하고 있다.

李龙彬, 2008,「铁岭境内高句丽山城的几个问题」,『东北史地』4, 77–80.

저 자 리샤오중李晓钟
심양시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6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4집
『边疆考古研究』4辑

석대자石臺子 고구려 산성 복원 연구

石台子高句丽山城复原研究

주 제 어 석대자산성
연구
복원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은 1978년에 심양瀋陽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기 산성으로 1990년과 1991년 소규모의 시굴이 있었고, 1997년과 1998년,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한차례씩 발굴이 진행되었다. 외형은 불규칙한 사변형의 삼각형이고 둘레는 1,384.1m이다.

성벽은 산의 경사지를 따라 축조되었고, 성벽 내측으로는 내벽과 같은 높이에서 지면까지 비스듬하게 경사진 제방을 쌓았다. 성 남쪽의 단애 상부에도 벽체를 축조했으며, 동쪽 계곡 입구도 성벽을 쌓아 막았다. 산성은 설계 단계부터 배수체계를 계획하여 동, 남, 북문에 각각 함동涵洞을 팠고, 성내 저지대 두 곳에도 함동을 팠으며, 동, 서, 남, 북 네 성문에는 내측과 외측에 모두 상응하는 배수 시설을 조성했다. 성벽에는 모두 9기의 치를 축조했는데, 대기臺基가 방형인 Ⅰ식이 5기, 원각식圓角式 대기인 Ⅱ식이 1기, 방형에 대기가 없는 Ⅲ식이 3기이다. 동쪽에는 두 곳에 절각장折角墻을 설치하여 방어 능력을 높였다.

성벽과 치는 모두 석재로 쌓았다. 벽면 외측에는 주로 설형楔形 석재를 사용했고, 문동門洞의 모서리와 치의 외측 모서리에는 정방형 석재를 썼다. 산세에 기복이 있어 벽면의 수평 유지가 어려울 때는 곡척형曲尺形 석재를 세로로 끼워 넣었고, 안쪽으로 꺾이는 모서리와 치의 연접 부분에는 곡척형 석재를 가로로 끼웠다. 장조형 석재도 사용되었는데, 치의 기초 저부 양쪽 가장자리 외각과 함동의 입구 내측에는 크기가 큰 장조형 석재를, 벽면 모서리 부분에는 크기가 작은 장조형 석재를 썼다. 성벽 정상부나 여장 상부의 뚜껑돌 위치에는 위아래를 연결시키기 용이한 쌍조형雙槽形 석재를 썼다. 사실 석대자산성에는 잔존하는 여장이 없으나 환도산성丸都山城, 백암성白巖城, 패왕조산성覇王朝山城 등에 모두 여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석대자산성에도 여장이 있었을 것으

그 림 1. 석대산산성 지리 위치
2. 석대자산성 평면도
1)~9) 치
10), 11) 함동
12), 13) 트렌치
3. 초석
1) 서측 초석
2) 동측 초석
4. 성벽 축조 구조도
5. ST2 성벽 복원
6. 여장 복원도
7. 성문 구조
8. 성문 입·단면도
9. 북문지 복원도
(정입면도·단면도)

로 판단되며 쌍조형 석재가 여장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벽체 내부에는 가공한 북 모양[梭形] 석재를 끼워 넣었고, 벽면의 틈새는 쇄석 등을 이용하여 채웠다. 함동의 뚜껑으로는 판석이 사용되었다.

성벽과 치의 기초는 지세에 따라 기조基槽 기초, 착암鑿巖 기초, 역사식逆斜式 기초로 조성되었다.

북문지의 보존 상태는 다른 세 문지보다 양호하다. 문도 양쪽 하부에 설형 석재로 만든 석대가 있다. 문도 상부에는 목재 들보가 있었을 것이고, 성문은 양쪽으로 열리는 목판문木板門이었다. 성문 상부에는 망루가 있었다. 문도 위에 퇴적된 유물을 통해 볼 때, 망루는 벽에 전돌을 쌓거나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 않은 단순한 목조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대자산성은 건축 형태, 재료, 공예, 군사 방어 등의 측면에서 동시기 중대형 산성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산성으로, 이는 당시 고구려 정권에 있어 석대자산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李晓钟, 2006, 「石台子高句丽山城复原研究」, 『边疆考古研究』4辑, 1–12.

저 자 리젠차이李健才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87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1
『辽海文物学刊』1

동북 지역 중부의 변강邊崗과 연변장성延邊長城

东北地区中部的边岗和延边长城

중국 동북 지역에는 모두 6곳의 장성 유적이 있다. 그 가운데 길림성吉林省과 요령성遼寧省 중부 평원지대에 동북에서 서남방향으로 이어지는 노변강老邊崗, 그리고 연변延邊 지역과 목단강牧丹江 지역에서 발견된 연변장성延邊長城은 방향이나 건축 연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상이한 견해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동북 지역 중부의 송료평원松遼平原에는 노변경, 변강邊崗, 소변小邊, 토룡土龍 등으로 명명된 지명이 많고, 이 지명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북-서남방향으로 이어지는데, 길림성 농안현農安縣, 회덕현懷德縣, 이수현梨樹縣 등지에서 모두 확인되고 여기서 다시 요령성으로 들어간다. 요령성에서는 개원현開原縣, 신민현新民縣, 심양시瀋陽市, 해성현海城縣, 그리고 다시 서남쪽으로 들어가 영구현營口縣과 영구시營口市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일찍이 개발이 진행되어 지명만 남고 장성 유적은 사라졌다. 특히 요령성 경내의 변강 지명 부근에서는 장성 유적이 발견된 기록이 없다. 하지만 길림성 회덕현 내의 변강 지명 부근에서는 일부 장성 유적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미 평지가 되었거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흔적이 명확하진 않지만 일부는 지표보다 높게 솟아 명확하게 유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기타 지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위치와 방향이 불분명하지만, 회덕현 경내의 조사 자료와 영구시 교외의 노변촌老邊村, 노변참老邊站 등 지명을 연결시켜 보면, 이 변강은 동북쪽의 현 농안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의 현 영구 해변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요하遼河 동안 노변강의 동부 부근에서는 서남에서 동북으로 줄을 지어 배치된 고구려(고려) 산성이 있다. 서남에서 동북으로 금현金縣의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 복현復縣 득리사得利寺 부근의 용담산성龍潭山城, 신금현新金縣의 고려성高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麗城, 개현蓋縣의 고려성(건안성建安城), 해성현의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안시성安市城), 요양시遼陽市의 고려성(암주성巖州城), 심양시의 탑산산성塔山山城, 무순시撫順市의 고이산성高爾山城(신성新城), 철령鐵嶺의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 개원開原의 위원보산성威遠堡山城, 서풍현西豐縣의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 등이 이어지고, 개원 위원보산성에서 동북으로 길림성에 들어가면 현 길림시吉林市의 용담산성龍潭山城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북단의 고구려 산성이다.

고구려 즉 고려 장성을 기록한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는 영류왕榮留王 시기 당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동북쪽 부여성扶餘城에서 서남쪽 바다까지 1천여 리에 걸쳐 장성을 쌓았다고 한다. 한漢, 요遼, 명대明代에는 모두 동북 지역 중부 평원지대에 동북에서 서남방향으로 1천여 리의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고, 노변강의 방향과 시작 지점 및 마지막 지점, 길이 등은 모두 문헌에 기록된 고려가 쌓은 장성과 완전히 부합한다.

고려 장성의 시작점을 문헌에서는 모두 부여성이라고 했는데, 고려 부여성이 현재의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요령성 창도昌圖 사면성四面城설, 개원開原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필자는 고려 부여성이 현 농안이라고 생각한다. 고려 부여성의 위치를 고려할 때는 그 고성 부근 및 서남쪽으로 장성 유적이 있어야 한다. 농안 서남쪽과 회덕현 경내에서는 변강 즉 장성 유적이 확인된다. 서남쪽으로 바다에 이어진다는 마지막 지점은 서남쪽 연안 일대의 노변촌, 노변참이라는 지명이 있는 영구시이다.

즉 장성 유적은 바로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어지고, 그 거리 역시 1천여 리라는 기록에 부합한다. 만약 부여성을 창도 사면성이나 개원 등지로 보면 실제 거리는 600여 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북 지역 중부 평원지대의 동북쪽 농안에서 서남쪽 영구까지 1천여 리의 변강이 바로 장성 유적 즉 고려 장성이라 추정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5~7세기 중기의 서부 변경이었다.

연변장성은 현 혼춘琿春, 용정龍井, 화룡和龍 및 목단강 일대에 분포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진일보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북 지역 고대 장성 유적은 모두 문헌기록을 찾을 수 있다. 필자는 현 연변 지역에 장성을 쌓은 시기는 금대金代뿐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시기에는 이 일대에 장성을 쌓은 기록을 찾을 수 없다. 현 연변의 금대 고성과 장성은 금나라가 고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 것이다. 현 연변장성의 형식에는 계호界壕, 변장邊墻, 보루 등이 있고 이는 대흥안령大興安嶺 동쪽의 금대 계호, 보루와 그 형식이 동일하다. 『대금국지大金國志』권24에는 태화泰和 원년(1201) 겨울에 계호를 준설했는데 깊이와 너비가 각각 3장이고 동쪽으로 고려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하경夏境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금나라가 동쪽과 서쪽에 각각 계호, 보루를 만들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 연변과 북한

함경남도 경내의 보루, 장성 유적은 즉 금나라가 만든 '동으로 고려에 접하는' 장성이고, '서쪽으로 하경에 이르는' 장성은 바로 대흥안령 동쪽 기슭의 금대 계호이다.

李健才, 1987,「东北地区中部的边岗和延边长城」,『辽海文物学刊』1, 102–107.

저 자 리젠차이李健才
연 도 1995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길림시吉林市 용담산산성龍潭山山城 고찰

吉林市龙潭山山城考

길림시吉林市 용담산산성龍潭山山城 및 주변의 용담산 기차역, 동단산東團山, 모아산帽兒山 일대는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청동기 시대 문화)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고, 연燕, 진秦, 한漢 동북 고대 장성 북쪽에서 한대漢代 문화 유적, 유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이 산성은 고구려 산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규모도 비교적 큰 산성이다.

서단산문화는 예인濊人이 남긴 문화 유산으로 길림, 장춘長春 등지에 분포하는 청동기 시대 문화이다. 그중 길림시는 서단산문화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시내와 교외의 서단산문화 유적이 24곳에 달한다. 서단산문화의 연대는 보통 서주西周 초에서 진한秦漢 시기로 보고 있다.

초기에 학계에서는 서단산문화의 중심 민족을 숙신족肅愼族으로 보았으나, 숙신족은 당시 여전히 원시사회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일찍 계급사회에 진입한 예인들의 문화 유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특히 서한西漢 초기 부여가 건국하면서 왕성을 쌓은 곳이 용담산 일대로 비정되면서, 부여 건국 이전의 고대 예인들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견해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용담산산성 및 그 부근은 한, 위魏, 진晉 시기 부여의 왕성이었다(기원전 206~기원후 346). 이 지역은 요령遼寧 지역에 비할 수는 없으나 연, 진秦, 한의 고대 장성 이북 지역 즉 현 요령성遼寧省 이북 지역만 보면 그래도 한대 문화 유산이 가장 집중되고 풍부한 곳이다. 용담산 기차역에서 동단산 사이의 철로 양측에서는 토기, 동전, 동경, 와당 등 다수의 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용담산산성 남쪽과 동단산 동쪽의 모아산 일대에서는 시기상으로 한대에 해당하는 무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에 모아산에서 발굴된 무덤은 대부분 토갱목곽묘土坑木槨墓이고 시기는 역시 한대에 해당한다. 용담산성은 토석혼축 성벽

에 평면은 불규칙한 다변형이다. 둘레는 2,396m이고 산성 내 주요 건축물로는 '수뢰水牢'와 '한뢰旱牢'가 있다. 수뢰는 장방형으로 가공된 석제를 쌓아 만든 저수지이다. 한뢰 역시 석축했다. 필자는 이 한뢰 역시 저수 시설로 추정한다.

보통 산성 부근에는 모두 평지성이 있는데, 용담산 기차역 부근에서 다량의 한대 유물이 출토된 점을 볼 때, 이곳이 평지성 자리였을 것으로 보이고, 동단산산성東團山山城은 그 위성이었을 것이다. 이 지역이 한, 위, 진晉 시기 부여의 왕성이라는 근거는 문헌기록에도 남아있다. 『삼국지三國志』에 따르면 부여는 장성의 북쪽이고 현도군玄菟郡에서 천리가 떨어져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동진東晉 목제穆帝 영화永和 2년(346)에, '부여가 원래 녹산鹿山에 거주하다가 백제가 침략하여 부락이 흩어졌고 서쪽으로 연나라 근처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한, 위, 진晉 시기 부여 왕성이 산성이거나 부근에 산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46년에 부여 왕성은 현 농안農安으로 서천했다. 따라서 부여의 전기 왕성인 녹산 일대는 현 농안의 동쪽이 된다. 『삼국지』에는 또 남녀가 간통하거나 부녀자가 질투를 하면 모두 사형시켰고, 시신은 나라 남쪽 산에서 썩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즉 부여 왕성의 남산이 묘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 용담산산성 남쪽 모아산이 바로 당시 무덤이 위치한 곳이다.

사서에는 부여가 백제의 침입으로 서천했다고 하나, 사실 당시 부여를 공격한 것은 전연前燕이었다. 사서에 따르면 당시 모용황慕容皝은 세자를 보내 부여를 공격하고 그 왕과 백성 5만 여명을 이끌고 귀환했다고 한다. 346년에 서쪽 연나라 근처로 잡혀온 부여왕은 농안에 자리 잡았다. 그 후 부여는 494년 북쪽 물길勿吉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고구려와 말갈靺鞨에 융합되었다.

용담산산성은 훗날 고구려 북부 변경의 중요 요충지인 부여성扶餘城이 된다(410~668).

동진 시기 중원이 혼란에 빠지자 고구려는 이 기회를 틈 타 전연, 후연後燕과 요동遼東, 현도 두 군의 쟁탈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고, 부여가 346년 서천한 후 세력이 약해지자 호태왕 20년(410)에 동부여를 쳤다. 동부여는 부여가 서천한 후 원래 녹산에 남아있던 부여로 서천한 부여의 동쪽이라 동부여라 부른다. 고구려는 동부여를 점령한 후 이곳에 '북부여수사北夫餘守事'를 관리로 파견했다.

호태왕 이후, 중원의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고구려는 북으로 물길勿吉과 접하게 되었다. 물길은 수당隋唐 시기의 말갈로 고구려 북쪽에 위치하여 자주 고구려와 마찰을 빚었다. 410년 이후 고구려 세력이 속말수速末水 즉 현 제2송화강松花江까지 이르러 북쪽 물길, 속말말갈粟末靺鞨과 대치하게 된다. 말갈의 남침을 방어하는 고구려 북쪽 변경의 중요 요충지가 바로 부여성(북부여성)이었다.

필자는 이 고구려 부여성이 바로 부여가 녹산에 자리 잡고 있던 전기 왕성 즉 길림시 용담산산성이라고 본다.

동단산산성은 용담산산성 남쪽 2.5㎞ 지점의 송화강 북안에 위치하고, 구참남산성九站南山城 즉 삼도령자산성三道嶺子山城은 서북쪽 10㎞ 지점의 송화강 서안에 위치한다. 규모가 큰 용담산산성을 중심으로 2기의 작은 산성이 송화강 상하류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여 용담산산성을 보호하는 위성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전술했던 것처럼 한대 유물 이외에 홍색 승문 혹은 ⊕형 문양이 있는 고구려 기와도 출토되었다. 즉 호태왕 20년 동부여를 점령한 이후 이 성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고구려 기와도 발견되는 것이다.

당唐 고종高宗 건봉乾封 3년(668), 당의 설인귀薛仁貴 등이 부여성을 공격하여 1만여 명을 사살 혹은 생포하고 성을 함락시켰다. 당시 고구려는 부여성에 지원군 5만을 보냈으나 설하수薛賀水에서 이적李勣을 만나 패퇴했다. 고구려와 당의 부여성 전투에 투입된 인원과 사상자 숫자를 고려하면 고구려 부여성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이 지역은 발해말갈渤海靺鞨에 귀속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부여성은 바로 부여의 전기 왕성이다. 고구려 부여성은 속말말갈에 인접하고 그 동남쪽에 위치하며 고구려의 북쪽 변경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오직 현 길림시 용담산 고구려 산성뿐이다.

고구려 멸망 이후 현 길림시는 발해말갈이 점거했으나, 용담산산성에서는 발해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단산산성 부근에서는 발해 시기의 치미, 회색 지압문指壓紋 암키와, 화전花磚 등이 발견되어, 이를 발해의 '속주독주주涑州獨奏州'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발해시기 이 지역은 이미 발해의 내지가 되어 군사상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발해 중앙 직할의 중요한 주성州城이 위치한 곳이었다.

李健才, 1995,「吉林市龙潭山山城考」,『博物馆研究』2, 18–23.

저 자 리젠차이李健才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0
간행물명 『북방문물』1
『北方文物』1

당대唐代 고려의 부여성扶餘城과 천리장성에 대한 재론

再论唐代高丽的扶余城和千里长城

당대唐代 고려(즉 고구려)의 부여성扶餘城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 일부에서 요령성遼寧省 서풍현西豐縣 양천진凉泉鎭 성자산城子山 고구려 산성이 부여성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문헌에 기록된 고려 부여성의 방위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당대 고구려의 부여성은 속말말갈粟末靺鞨의 동남쪽에 위치했다.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권71에는 개황開皇 연간에 속말말갈과 고구려의 전쟁 관련 기록이 있고, 그 기록에서 수문제隋文帝 개황(581~604) 연간에 속말말갈과 고려 부여성의 상대 위치가 각각 서북, 동남이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고려 부여성의 위치 추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속말말갈은 속말수粟末水, 즉 현 제2송화강松花江 유역에 위치했다. 현 길림시吉林市 서북쪽의 제2송화강 북안에 위치한 영길현永吉縣 대해맹大海猛, 유수현楡樹縣 노하심촌老河深村, 농안農安 북부 송화강 남안에서 모두 수당隋唐 시기 말갈족의 고분군과 문화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는 문헌에 나오는 속말말갈의 근거지 관련 기록과 부합하는 것이다. 말갈7부는 고려의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중 하나인 속말부는 고려와 서로 접해있었다. 속말말갈 동남쪽의 고려 부여성은 말갈의 남하를 방어하는 고구려 북부 변방의 중요 군사도시였다. 현 길림시의 용담산산성龍潭山山城, 동단산東團山 고구려 산성, 구참남산성九站南山城(즉 삼도령자산성三道嶺子山城, 제2송화강 서안)은 바로 속말말갈의 동남쪽에 해당한다. 이 3기 산성 가운데 용담산산성이 가장 크고 나머지 2기는 작은 편으로 용담산산성의 위성이거나 전초기지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헌기록 속 고려 부여성의 위치 및 군사 방어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산성은 길림시 용담산산성 및 부근의 2기 위성이지, 서풍현 성자산 고구려 산성은 아니다.

고려의 부여성은 부여 초기 거주 구역인 녹산鹿山의 전기前期 왕성으로 현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길림시 용담산에서 동단산 사이 일대이다. 405년 고구려는 전연前燕, 후연後燕과 싸워 요동遼東, 현도玄菟 두 지역을 차지했고, 346년 부여가 서천西遷한 후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호태왕好太王은 410년에 동부여를 공격했다. 호태왕이 410년에 점령한 동부여는 부여의 전기 왕성이었다. 고구려가 부여의 전기 왕성을 점령한 후 이곳은 북방의 물길勿吉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변방의 중요 군사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길림시 용담산산성에서 동단산산성 사이에서는 한대漢代 부여의 유적, 유물과 고구려의 유적, 유물이 모두 출토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풍 성자산산성에서는 고구려와 요遼, 금金의 유물만이 확인되었을 뿐 한대 부여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동이전東夷傳」에는 부여가 장성 북쪽이고 현도에서 1천리 떨어져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위치에 부합하는 것은 길림시 용담산산성이지 서풍현 성자산산성이 아니다. 따라서 서풍 성자산산성은 절대 부여의 초기 근거지인 녹산의 전기 왕성 소재지일 수 없고, 자연히 당대 고려 부여성의 소재지일 수도 없다. 『자치통감資治通鑑』과 『구당서舊唐書』에 따르면 668년 당은 고려의 부여성을 공격했다. 호삼성胡三省은 이 부여성이 부여국의 옛터이고 그래서 성에 그 이름이 남아있다고 주석을 달았다. 원래 부여의 왕성은 둘이었다. 하나는 녹산의 부여 전기 왕성이고, 다른 하나는 동진東晉 영화永和 2년(346)에 연燕나라 근처로 서천한 부여 후기 왕성이다. 부여 후기 왕성은 494년에 물길에게 공략당했다. 668년 당나라가 공격한 고려 부여성은 410년 고구려가 점령한 부여의 전기 왕성으로 현 길림시의 용담산산성이지, 서풍현 성자산산성이 아니다.

당대 고려 천리장성의 동북단에 있던 부여성은 상술한 고구려 부여성이 아니라 부여의 후기 왕성을 말하는 것이다.

원래 천리장성의 북단은 현재의 농안으로 비정되었으나, 고고 조사 결과 농안에서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농안은 고구려 천리장성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요사遼史』「지리지」에 따르면, 황룡부黃龍府(현 농안)는 한때 서남쪽으로 옮겼다가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황룡부는 곧 발해의 부여부扶餘府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곳이 고구려의 부여성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지리지」에서는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에 언급된 발해 부여부가 '고려의 옛 땅'이라는 기록을 인용했는데, 이는 발해 부여부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려 천리장성 동북단의 부여성은 고려의 부여성이 아니라 원 부여국의 후기 왕성을 말하는 것이다. 발해 부여부는 고려 부여성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고려 천리장성 동북단의 부여성이 서풍 성자산산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이 산성은 결코 고구려 천리장성의 동북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풍 성자산산성의 북쪽으로는 요원시遼源市 용수산산성龍首山山城과 가장 북쪽의 길림시 용담산산성 등 여전히 많은 고구려 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서풍 성자산산성은 고구려 천리장성의 동북단이 될 수 없다.

당대 고려 천리장성은 고구려 산성의 연합 방어선이 아니다. 일부 연구자는 고려 천리장성이 각 산성을 연결한 방어선이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분명히 장성을 수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리장성은 631~646년 사이에 완성되었고, 현 요령성 경내의 각 고구려 산성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어지는 라인 위의 고구려 산성은 요하遼河 동안과 고려 천리장성 동부의 방어선이다. 이 산성들은 405년 고구려가 요동과 현도를 완전히 점령한 후부터 당나라 초기인 7세기 초 사이에 축성된 것이다. 일부 고고 조사에서는 동북지방 중부 지역의 노변강老邊崗이 바로 고려 천리장성의 부분 유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려 천리장성이 분명히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적이고, 현 요령성 경내 각 산성의 연합 방어선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려 천리장성과 각 산성은 주로 당나라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고구려 북부의 산성과 고려 천리장성의 북단은 주로 말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당시 고려 북방의 위협은 거란契丹이 아닌 속말말갈이었다. 수당 시기 거란은 주로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와 노합하老哈河 일대에서 활동했고 아직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으며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고려의 부여성이 바로 부여 전기 왕성, 즉 현 길림시 용담산산성에서 동단산 사이 일대라고 생각하고, 고려 천리장성 동북단의 부여성은 고려의 부여성이 아니라 부여 후기 왕성인 현 농안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고려 천리장성은 각 산성의 연합 방어선이 아니라 16년간 수축된 장성이다.

李健才, 2000, 「再论唐代高丽的扶余城和千里长城」, 『北方文物』1, 27–29.

저 자 리홍예李鴻业
요령성 안산 광업
총공사

연 도 1999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요령성遼寧省 암주고성巖州古城 고찰(연주燕州)

辽宁省岩州古城考(燕州)

그 림 1. 암주성 복원도(음영이 없는 부분은 현재 결손 부분이다)
2. 성벽 기초 공정도
A. 성벽 기초가 지형을 따라 조성되어 성벽이 수평을 이룬다.
B. 산비탈을 따라 성벽 기초부에 물이 흐르는 고랑을 설치한다.

암주성巖州城은 요령성遼寧省 요양시遼陽市 동쪽 30㎞에 위치하는 해발 197m의 백암산白巖山에 자리 잡고 있다. 『요양현지遼陽縣志』에 따르면 암주성(현재는 연주성燕州城으로 잘못 고쳐졌다)은 고려 시기 백암성白巖城 혹은 백애성白崖城으로 불렸고, 당대唐代에는 암주巖州, 요대遼代에는 백암군白巖軍, 금대金代에는 석성石城이라 불렸다. 역사적으로 여대旅大에서 심양瀋陽 일대까지의 요동遼東 지역은 한족漢族이 주류를 이루었던 지역이다. 전국戰國 시기 이곳은 연燕나라의 속지였고, 서한西漢 시기에는 요양현遼陽縣이 설치되었으며, 후위後魏 시기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그 후 고려가 요동 지역을 침범하기 시작하여 태자하太子河를 따라 서쪽으로 점차 요동성遼東城(요양)과 인근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598년에는 고려왕 고원高元이 요서遼西까지 군대를 보내기도 하여 수문제隋文帝가 요동 정벌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신당서新唐書』, 『구당서舊唐書』 등에 따르면, 그 뒤 644년 당태종唐太宗이 고려 정벌에 나서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백암성, 개모성蓋牟城까지 취했다. 그러나 군량이 부족했던 당나라는 곧 철수하게 되고 암주를 포기하게 된다. 이 기록에서 처음으로 암주성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당시 암주성이 비록 당과 고려가 서로 점령을 반복한 곳이지만, 이의 축성은 분명 고려였다.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 세력이 확장되었을 당시 이곳은 그들의 방어 능력 확대에 가장 유리한 곳이었다. 한위진漢魏晉 시기 중원의 변경은 저 멀리 압록강鴨綠江 부근이었기 때문에 중원의 입장에서는 요동성 부근에 또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 또한 한족이 쌓는 성은 보통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성이다. 그러나 이 성은 오직 군대의 주둔만을 고려한 성으로 백성과는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은 축성 방식 면에서 독특한 산성 스타일의 특징을 갖고 있어, 고려가 쌓은 성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 성의 축성 시기는 중국이 혼란에 빠졌던 남북조南北朝 시기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성이 당태종의 요동성 공격 이후 바로 새롭게 축성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의 성은 석재를 구하고 성을 쌓는데 긴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축성 공정의 정교성을 고려하면 결코 급하게 쌓은 성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요동성과 암주 사이는 거리가 가까워 당나라 군대는 요동성을 함락한 후 짧은 시간 내에 암주성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요동성을 손에 넣기 전에 이의 공격을 위해 그 동쪽에 먼저 암주성과 같은 방어적 성격의 성루를 쌓는 것이 이치에 맞는 조치이다. 그 목적은 당연히 요동성을 엿보는 동시에 기존의 점령 지역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의 구축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요동성 바로 아래에 이와 같은 성을 축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가 바로 중원 세력이 최대로 쇠약해졌던 남북조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가 암주성을 쌓은 시기는 남북조 시기 그들이 요동성을 점령하기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암주성은 방어에 중점을 두고 축성한 성이고 이를 위해 자연 지세를 충분히 이용했다. 남면과 동남면은 태자하에 면한 절벽을 그대로 이용했다. 지세가 비교적 완만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공격받기 쉬운 곳에는 성벽을 더 두텁고 크게 쌓았다.

성벽은 산 능선을 따라 능선 바깥쪽으로 축조했다. 이는 우선 석재를 바로 능선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석재를 캐내면서 능선이 평탄하게 되는 이점도 있으며, 성벽 바깥은 경사가 있어 방어가 쉽고 안쪽은 높이가 낮아져 성벽에 오르기 쉬우며 방어 설비와 기재의 운반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문은 모두 훼손되어 찾을 수 없으나, 서남쪽으로 산간 평지의 출구가 있어 이 성의 정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성문구城門口'라 부른다.

석재 장축방향이 성벽의 방향과 교차되어 벽면은 긴 석재의 단면이 된다. 이는 성벽을 더 견고하고 쉽게 빠지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석재 사이 틈은 백석회로 채웠다. 암주성에는 이미 수대隋代 이전에 석회가 이용된 것이다.

성내 유구로는 병영이 있으나 암석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거나 돌로 쌓은 기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당시 병영은 모두 간단한 초가집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문 근처의 높은 단에서는 기와편이 발견되기도 했다. 아마도 이곳에 당시 장군의 처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 정상에는 기층의 석회암 암반 아래로 4×6m, 깊이 1m의 방형 구덩이를 파놓았는데, 이는 저수 시설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고려의 암주성은 서쪽의 외적을 대처하는데 이용되었다. 요동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요동성 점령을 위한 준비가 가능한 곳이었고, 요동성을 빼앗긴 후에는 다시 이곳에서 본계本溪로 이어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곳

이기도 했다. 이 성은 면적이 넓지 않아 일종의 전진 초소, 감시 초소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李鸿业, 1999, 「辽宁省岩州古城考(燕州)」, 『博物馆研究』3, 33–37.

저 자 박진석朴真奭
연 도 1987
간행물명 『연변대학학보』4
『延边大学学报』4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과 토성촌토성土城村土城 및 그 축성 연대

城子山山城和土城村土城及其筑城年代

그 림 1. 성자산산성 및 그 부근 약도

표 1. 산성 내 엽전 출토 상황표

연길시延吉市 동쪽 10㎞ 지점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이 있고, 그 동남쪽 1~1.5㎞ 지점에 평지성인 토성촌토성土城村土城이 있다. 학계에서는 이 산성이 동하국東夏國의 남경성지南京城址라고 보고 있으나, 필자는 동하국의 남경성지가 이 산성 하나뿐이 아니라 토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내에서 발견된 유물로 금대金代에 중원의 한족漢族 문화를 모방하여 제작한 동경(금방한선인신수원경金仿漢仙人神禽鏡), 방형 동제 인장 2점(남경로구당공사인南京路勾當公事印, 구당공사지인勾當公事之印), 각종 동전(당唐, 송宋, 금金, 청淸의 동전 총 384매) 등이 발견되었다. 개원통보開元通寶는 당唐 고조高祖 무덕武德 4년(621)에 발행된 동전으로 당대에 가장 먼저 주조되었으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동전이다. 당나라 시기 연변延邊은 발해에 속했다. 따라서 산성 내에서 다량의 개원통보가 발견된 점은 당나라와 발해의 우호 관계와 교류를 증명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원통보는 후대 동전의 표준이 되기도 했던 동전으로 1천여 년 간 유통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북송北宋과 요금遼金, 심지어 그 이후 시기까지의 이 지역과 중원 내지 사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북송대 동전은 전체의 약 74%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 지역 금대 유적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 이유는 북송이 일찍이 금나라에 다량의 세폐歲幣를 받쳤던 까닭도 있지만, 금나라가 초기에 직접 동전을 주조하지 않고 요와 송의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성 내에서 다량의 북송 동전이 발견된 사실 및 이곳에서 출토된 각종 금대 유물은 모두 이 유적과 금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금대 연변과 중원, 여진족女眞族과 한족漢族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증명하는 유력한 물증이라 할 수 있다.

산성과 토성에서는 각종 자기편도 수습되었는데 역시 중원 지역 북송 시

기 자기로 동전과 함께 연변 지역에 유입된 것이다. 그 외에 기와편, 토기편, 무기류, 생산용구, 장식품, 오락용품, 종교 미신 관련 유물 등도 발견되었다.

토성은 현재 연길시 장백향長白鄉 하룡촌河龍村에 속한다. 10년 동란을 거치며 토성은 거의 다 파괴되어 현재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남벽에 붙은 옹성 유적은 전부 사라졌고, 현재는 토성 네 벽의 흔적만 남아있다. 1958년 리원신李文信이 토성을 조사한 일이 있는데, 그는 '성내 지표에 기와편과 토기편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고구려 기와와 토기편이다. 금대 토기편은 많지 않다. 고구려 기와는 회색과 홍색 2종이고 문양은 승문繩紋 혹은 방격문方格紋이다. 암키와 앞쪽 끝은 지압문指壓紋 혹은 기구로 눌러 생긴 비스듬한 결각문缺刻文이 있다. 성의 건축은 금대일 것으로 보이는데(필자는 고구려 시기로 생각한다), 기와편과 토기편이 적어 건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1964년 필자는 토성에서 360여 점의 발해 시기 각종 기와편(연판문蓮瓣紋 수막새, 암막새, 수키와편 등)을 발견했다. 1978년에도 길림성吉林省 고고연구실 등에서 토성을 조사하여 연판문 와당, 지압문 수키와, 승문 수키와 등을 확인했다.

필자는 산성과 토성이 모두 고구려 시기에 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1961년 길림성 인민위원회에서 공표한 길림성 제1차 중점문물보호단위 명단에서 이 산성이 고구려와 금대 산성이라고 명기했고, 『간도성 고적조사 보고서[間島省古迹調査報告]』에는 산성 내에서 다수의 고구려 기와가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원신 역시 성벽 내에 고구려 기와가 포함되어 있고, 지표에는 기와편이 많지 않지만 다수가 고구려 기와라고 밝혔다. 그 외에 한 지역에 산성과 평지성을 함께 쌓아 연결시키는 방식은 고구려 축성법의 분명한 특징 중 하나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착오가 없다면, 이 산성과 토성은 사서에 기록된 '책성柵城'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와 발해에 모두 책성이 있었고, 발해의 책성은 원래 고구려 책성의 옛 땅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구려 책성의 위치를 소개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먼저 발해 책성부柵城府의 위치를 확인해야 고구려 책성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대다수 연구자들은 혼춘琿春 팔련성八連城이 발해의 동경東京 용원부龍原府이자 책성부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구려의 책성이 혼춘 팔련성이 아니라 연길 부근의 토성과 산성의 연합체라고 생각한다. 책성부는 사실 범위가 광대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그 아래 경주慶州, 염주鹽州, 목주穆州, 하주賀州 등 4개 주가 설치되었다. 이 광범위한 구역 내에는 혼춘 팔련성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양안 지역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멀지 않은 연길 일대까지

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 책성 유적은 분명 고구려의 특징적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팔련성은 평지에 축성된 토축의 방형 성으로 외성과 내성이 있어 발해 성지의 형식에는 부합하지만, 고구려 축성법 즉 평지성과 산성이 한 지역에 함께 축성되는 특징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팔련성 출토유물은 다양한 종류에 숫자도 많으나 절대다수가 발해의 유물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연길 부근의 '토성'과 '산성'이 고구려 책성 유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해 시기에는 책성부 치소가 현 연길 부근에서 혼춘 팔련성으로 옮겨 갔을 것이다. 13세기에 편찬된 『제왕운기帝王韻記』에 등장하는 '남책성南柵城'이라는 명칭이 혹시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책성에 발생했던 변화 및 그 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朴真爽, 1987, 「城子山山城和土城村土城及其筑城年代」, 『延边大学学报』4, 107–115.

저 자 셴쥔옌佟俊岩
심양시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2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을 통해 본 고구려의 산성 위치 선정, 구조, 배치 및 건축예술

从石台山城看高句丽对山城选置 结构布局及建筑艺术

심양瀋陽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은 배산임수에 수륙 교통의 요충지에 축성되었다. 산성의 해발은 100여m로 높지 않지만 이곳은 고구려 중심지로 들어가는 서쪽 변경의 요충지이다. 석대자에 산성을 쌓은 것은, 배산임수라는 우월한 자연 조건에 더하여 동남쪽으로 19㎞ 밖에 떨어지지 않은 무순撫順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과도 상호 호응할 수 있으며, 산의 높이와 크기 및 모양이 산성 축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고구려 산성은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산세, 지형에 맞추어 구조를 짰다. 석대자산성은 그중에서도 더욱 산세를 잘 이용한 산성이다. 이 산성은 평면 형태가 불규칙한 삼각형이다. 산세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며 남쪽이 넓고 북쪽이 좁다. 네 모서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산성의 사면 중앙은 모두 계곡 입구로 지대가 낮아 각각에 모두 성문을 설치했다. 서북쪽과 서남쪽은 산과 물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북쪽 산허리 아래로는 완만한 경사지가 이어져 이 구간의 산허리에 쌓은 성벽에는 별도로 10개의 치를 설치했다. 치 사이 간격은 40~60m로 성벽의 방어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벽의 견고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한다. 동북쪽과 동남쪽은 천연 절벽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성벽을 쌓았다. 동문 쪽은 산세가 특수하여 동문 남단 성벽을 동쪽으로 약 4m 정도 돌출시킨 후 남쪽으로 90도를 꺾어 다시 동단 성벽과 연결시켰다. 이는 산세에 맞추어 성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형태이나 자연스럽게 동문을 보호하는 치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성내 동북쪽과 동남쪽 모서리에는 모두 높고 평평한 대지가 있다. 특히 동북쪽 모서리의 절벽 쪽에는 방형의 평평한 대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인공적으로 정리한 흔적도 있고, 토기편도 출토되어, 망대 혹은 장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 건물지와 저수 시설은 각각 중앙과 남북의 평지에 분

포한다. 북문 근처에서는 모두 4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내에는 기둥 구멍, 불을 피운 흔적, 격벽 등의 구조가 확인되었고, 돌절구도 출토되었다. 동문 위쪽의 첫 번째 평지에서는 남북방향으로 이어지는 1열의 인공 돌무지와 인공 벽체도 확인되었다.

고구려 산성은 절벽을 천연의 장벽으로 이용했고, 공격받기 쉬운 완만한 경사지, 계곡 입구 등에는 성벽을 쌓았다. 고구려 산성은 이처럼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건축예술을 드러내고 있다. 석대자산성은 둘레 1,384.1m에 석축 성벽을 쌓았다. 심지어 동남쪽과 동북쪽의 절벽과 지세가 험한 천연 장벽에도 인공 석벽을 쌓았다. 산세에 따라 고랑을 파서 기초를 만드는 방식, 기반암을 파서 기초를 만드는 방식, 버팀벽 축조방식[戧築法] 등이 모두 사용되었다. 계곡 입구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는 성벽 너비만큼 암반층까지 고랑을 판 후 기초를 다졌다. 산세가 비교적 가파르고 암석이 노출된 부분은 우선 암석을 평평하게 깎아 고랑을 낸 후 성벽을 쌓았다. 성벽 기초 하부를 내측 암석에 붙인 후, 벽체가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면 다시 마름모꼴 석재를 내벽면과 연결시키고 성벽 상부까지 계속 쌓아 올렸다. 버팀벽 축조방식은 산세가 가파른 경사지에 벽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역시 먼저 기초 고랑을 파고 산세에 따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각 고랑이 모두 경사가 높은 쪽으로 기울어져 성벽 벽면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진다. 그 경사도는 대략 10~12°이다.

벽체는 안팎에서 모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겹치고 교차하고 중복하여 안쪽으로 좁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외벽은 높이 1m마다 약 0.06~0.08m씩 안으로 들어가고 내벽은 1m마다 약 0.01~0.05m씩 안으로 들어간다. 내벽의 좁아지는 폭이 외벽보다 작은 이유는 내벽에 성벽을 보호하는 용도로 흙을 다져 쌓은 축대가 있기 때문이다. 축대는 성벽 높이에 맞춰서 쌓아 올라간다. 이 축대는 내벽을 더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축성 당시에는 자재 운반에 편의를 제공하고, 전시에는 성벽에 편히 오를 수 있게 하는 기능도 한다.

석대자산성 성벽 서북쪽과 서남쪽에 모두 9개의 치가 있다. 형태는 방형 혹은 장방형이고, 성벽과 이어지는 부분은 석재를 교차하여 중첩시켰다. 1호와 3호 치는 기초 구덩이를 파고 대형 쐐기모양 석재를 쌓아 기초를 만들었다. 기초 양쪽 모서리 가장 아래쪽에는 장조형의 큰 석재를 놓아 산허리와 평행을 맞추었다. 치는 다진 기초 위에 내측으로 1m 정도 들어와서 쌓아 올렸다. 치의 기초 정면은 성벽 기초 보다 1.6m 더 깊고, 매 1m마다 안으로 0.08m씩 들여쌓았다. 기초 위의 치 역시 매 1m마다 안으로 0.08m씩 들여쌓았다. 2호 치는 기초를 따로 다지지 않고, 성벽 외측 경사지를 파고 직접 치를 쌓았다. 역시 매 1m마다 0.08m씩 들여쌓았다.

성문은 사방에 하나씩 모두 넷이다. 문은 모두 계곡 입구에 위치하고 좌

측이나 우측에 치가 있어 하나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문과 남문 바깥으로는 'S'자 모양으로 굽은 좁은 산길이 있어 사람들이 도보로 드나든 문으로 보인다. 서문 외측은 넓은 경사지로 수레나 말이 드나들 수 있다. 네 성문의 문도 아래에는 배수용 암거가 설치되어 있다.

佾俊岩, 2002, 「从石台山城看高句丽对山城选置、结构布局及建筑艺术」, 『博物馆研究』2, 49–56.

저 자 쉬밍강许明纲
연 도 199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대련大連 지역 고구려 4기 산성 고찰

大连地区高句丽四座山城略考

그 림 1. 대련시 고구려 4기 산성 분포도
2. 대흑산 비사성 평면도
3. 대흑산 비사성 남단 성벽
4. 오고성(외패산성)
5. 득리사산성 동문

대련大連 지역에는 규모가 비교적 큰 고구려 산성 4기가 있다. 각각 금주구金州區 대흑산大黑山 비사성卑沙城, 보란점시普蘭店市 외패산성巍覇山城, 와방점시瓦房店市 득리사산성得利寺山城, 장하시庄河市 성산산성城山山城(전성前城과 후성後城으로 구성) 등이다.

문헌에 기록된 4기 산성의 건축 시기는 진晉 원흥元興 3년(404)에서 당唐 고종高宗 총장總章 원년(668) 사이로, 고구려가 요동遼東 지역을 점령했을 당시에 축조한 것이다. 대련의 4기 산성은 모두 요동반도遼東半島 남단의 험준한 산에 위치하여 요동반도 남단, 황해와 발해 사이 넓은 대지는 물론 해륙 교통의 요충지를 통제하고 있다. 비사성은 비사성卑奢城, 필사성畢沙城, 대흑산성大黑山城이라고도 불린다. 요동반도 남단, 황해 북안, 금주성金州城 동쪽 15㎞의 대흑산에 위치한다. 요동반도 남단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수당隋唐의 고구려 정벌 당시 산동성山東省 등래登萊에서 바다를 건너면 처음 마주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외패산성은 오고성吳姑城이라고도 불린다. 요동반도 남단, 벽류하碧流河 서안에 위치하며 역시 황해 해안의 중요 성곽이다.

성산산성은 전성, 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류하 동안에 위치하고 역시 황해 해안가의 중요 산성으로 황해 연안 동단을 통제한다. 박작성泊灼城의 서쪽, 외패산성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득리사산성은 용담산성龍潭山城이라고도 불린다. 발해의 동안에 위치하고 남으로 비사성, 북으로 건안성建安城 사이에 있는 중요 성곽이다. 4기 산성은 모두 큰 규모에 공격이 어렵고 방어는 쉬운 험한 산에 위치하며 성벽은 산세를 따라 축성하여 평면이 불규칙한 특징을 보인다.

许明纲, 1996, 「大连地区高句丽四座山城略考」, 『博物馆研究』1, 55–61.

저 자 쉬쿤徐坤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녜융聂勇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장디张迪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12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 자안산성自安山城 시기 재론

再论吉林省通化自安山城的年代

주 제 어 길림성 통화
자안산성
연대

자안산성自安山城은 혼강渾江 중류의 길림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북쪽 교외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압록강鴨綠江의 주요 지류인 혼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합밀하哈密河가 흐르며, 동남쪽은 합밀하와 혼강이 만나는 삼각주이다. 성지의 평면은 불규칙하나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은 장방형에 가깝다. 성내 지세는 북쪽이 평탄하고 남쪽은 약간의 경사지와 계곡이 있으며 동쪽이 서쪽보다 높다.

현재까지 자안산성의 연대와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1980년대에 출판된 『문물지文物志』에 수록된 견해로, 산성의 축성은 한사군漢四郡 설치와 관련되어 있어 그 시축 연대는 한대漢代이나, 고구려가 다시 대규모 증축을 했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산성이 고구려 산성이 아니라 한대 산성이라는 견해인데, 그 근거로는 성내에서 출토된 다량의 세니회도편細泥灰陶片이 모두 전형적인 한대 토기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전까지 자안산성의 연대 비정에 주요 근거가 된 것은 주로 성내에서 출토된 토기였고, 토층이나 유구에 근거한 판단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고구려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자안산성의 연대 비정을 위한 비교 대상이 다양해졌다. 자안산성은 오녀산성五女山城에 비해 인공 축조 성벽이 훨씬 증가했다. 석재의 선택 및 가공이 더욱 정교해졌고, 축성 기술도 진보, 성숙해졌다. 성문지의 옹문 구조 역시 오녀산성에 비해 방어에 유리하게 변화했다. 자안산성 4호 문지의 만기 문도 내측 초소의 위치와 구조는 오녀선상 서문지와 유사한데, 오녀산성 서문지의 초소는 이 성의 제4기에 축조된 것이다. 자안산성 1호 성문지의 옹문과 배수 암거가 결합된 구조는 환도산성丸都山城 남문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상의 축성 특징 비교에 근거하면 자안산성 석축 성벽의 시축 연대는 오녀산성보다 늦고 환도산성 성벽의 축성 연대에 근접해 있다. 자안산성 4호 문

그 림 1. 자안산성 위치도
2. 출토 토기
3. 철촉

지 만기 문도의 축조 연대는 오녀산성 서문지 초소의 축조 연대보다 빠르지 않다.

자안산성 출토유물 가운데 도관陶罐은 유형별로 국내성國內城 체육장體育場 지점, 국내성 북성벽 절개 지점, 국내성 문구장門球場 지점, 오녀산성 F40:23과 유사하다. 도증陶甑도 국내성 체육장 지점, 오녀산성 F4:7 및 T56②:15 도증과 유사하다.

철촉은 유형별로 환도산성 장대, 오녀산성 F11:1 출토 철촉과 동일한 것도 있고, 일부는 국내성 성벽 서북쪽 모서리와 동북쪽 모서리 출토 철촉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오녀산성 T408②:6, T49①:1과 비슷한 것도 있고, 우산묘구禹山墓區 M157:37, 동대파東大坡 M217:6 철촉과 유사한 것도 있다.

자안산성에서 출토된 토기와 철촉은 전체적으로 오녀산성 제4기 및 국내성 고구려 중기 유물 가운데 동일 기종과 형태가 유사하다.

이처럼 산성 축성 구조상의 특징과 출토유물 비교에 근거하면, 자안산성 축성 연대와 사용 시간은 고구려 시기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그 시축 연대는 환도산성, 국내성보다 빠르지 않으며, 사용 연대는 오녀산성 제4기 및 국내성 사용 연대와 대체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徐坤 · 聂勇 · 张迪, 2012, 「再论吉林省通化自安山城的年代」, 『博物馆研究』1, 71–76.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저 자 신잔산辛占山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요령성遼寧省 경내 고구려 성지 고찰

辽宁境内高句丽城址的考察

고구려 성지는 산성이 다수이다. 보통 자연 산세를 그대로 성벽의 일부로 이용했고 경사가 완만하거나 하곡 지대에만 석축, 토축, 토석혼축한 성벽을 쌓았다. 성벽 위나 성내 여러 곳에 높은 대臺 혹은 망대를 설치했는데 이는 속칭 점장대點將臺라 한다. 성내에는 모두 수원水源이 있다. 현재 요동遼東 지역에 '산성자山城子', '성산城山', '성산정城山頂', '고구려성高句麗城' 등의 지명이 붙은 곳은 다수가 고구려 성지를 가리킨다.

요령성遼寧省의 고구려 성지는 모두 요하遼河 동쪽에 분포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초소 성격의 작은 산성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100여 기 이상으로 추정된다. 규모가 큰 산성은 대부분 요하 및 그 지류 혹은 직접 바다로 들어가는 일부 수계의 협곡 부근 산 위에 축조되었다. 고구려 산성은 보통 밀집 분포하거나 2개씩 마주 보기도 하고, 대형과 소형이 그룹을 이루어 하나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혼강渾江 유역의 산성은 모두 석축 산성이고 구조도 동일하다. 요하 유역과 해안 지역의 중대형 성지는 석축, 토축, 토석혼축 산성이 뒤섞여 있고 구조도 복잡하다.

현재까지 요령성에서는 전형적인 고구려 평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교적 중요한 고구려 산성 부근에는 분명 평지성이 존재했다. 이 평지성들은 대부분 한대漢代 고성이다. 예를 들어 오녀산성五女山城 아래의 하고성자下古城子는 토축 성지로, 평면은 방형에 가깝다. 성내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물 및 한대 유물과 유사한 토기, 철기 등도 발견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성이 오녀산성과 짝을 이룬 평지성이라 보고 있으나, 이는 정식 발굴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환인桓仁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산성은 모두 7기로 오녀산성, 성장립자산성城墻砬子山城, 와방구산성瓦房溝山城(이상은 혼강 인근), 고검지산성高

儉地山城, 마안산성馬鞍山城(육도하六道河 인근), 흑구산성黑溝山城, 전수호산성轉水湖山城(신빈新賓 경내, 부이강富爾江 유역) 등이다.

고검지산성에서는 성벽 축조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성벽 위에 여장을 축조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서벽에서 발견된 일렬로 늘어선 9개의 기둥 구멍이다. 흑구산성 서벽에서도 기둥 구멍이 발견되었으나 여장은 없다. 흑구산성은 전체적인 건축 구조와 시설 배치 측면에서 볼 때 고검지산성보다 더 진일보했고 방어체계도 더 완전해졌다. 그러나 산성 구축 방법이나 사용된 재료, 기둥 구멍 시설 등은 일치하고 있다. 흑구산성에서는 사질이 섞인 갈도褐陶 잔편만 발견되었는데 이는 성지의 건축 연대가 비교적 이르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성이 오녀산성보다는 약간 늦지만 고구려 조기의 성지라고 생각한다. 성장립자산성은 남벽만 석축했는데, 축조 방식이 오녀산성과 동일하다. 7기 산성 가운데 마안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6기는 모두 조기 산성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쐐기모양 석재로 성벽을 쌓았고 벽체는 위로 올라가면서 안으로 좁아져 들어가며 저부의 폭이 일정하다. 성벽 위에 기둥 구멍을 조성하는 방식은 길림吉林의 환도산성丸都山城,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에서도 확인된다. 성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홍색 승문繩紋, 방격문方格紋 암키와나 연화문蓮花紋 와당, 주거지 용도의 반지하식 둥근 구덩이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모두 고구려 조기 산성의 공통된 특징이다.

4세기 초부터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고 410년에는 마침내 요동군遼東郡과 현도군玄菟郡을 점령하여 고구려의 서쪽 경계가 요하까지 이르게 되었다. 4세기 이후 고구려 성지의 특징은 무순撫順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과 개주蓋州 청석관산성靑石關山城에서 잘 들어난다. 고이산산성은 환인 지역 산성과 달리, 방어체계가 크게 강화되었고, 성벽이 토축이나 토석혼축으로 바뀌었으며, 성내에서 다량의 전형적인 고구려 시기 유물과 건축부재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진보는 분명한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이산산성은 고구려 서부 변경의 중요 요충지인 신성新城으로 문헌에는 3세기 말, 4세기 초에 등장한다.

청석관산성의 성벽은 토석혼축했다. 즉 남북의 두 산 위에는 장방형 석재로 석축 성벽을 쌓았고, 동서 양면에는 흙을 다져 성벽을 쌓았다. 문은 네 개로 동쪽에 하나, 서쪽에 셋이고 서벽에 수문이 있다. 남벽의 일부 산세가 험한 구간은 따로 성벽을 쌓지 않는 고구려의 전통 방식이 남아있다. 편축식으로 경사지 안쪽은 석재를 올리지 않고, 외측에만 석재를 올리는 방식도 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이 산성은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한 후인 5세기 전후에 축조한 산성이다.

환인 오녀산성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조기 산성은 대부분 해발 고도가 매

우 높은 산 정상에 축조되었고 자연 산세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계곡이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는 정연하게 가공한 쐐기모양 석재로 성벽을 쌓았다. 수원 확보에 주의했고 반지하식 원형 구덩이를 주거지로 사용했다. 성내 일부 지점에는 망대를 설치했고 성벽에는 기둥 구멍을 조성하여 방어 능력을 제고했다. 유물 중에는 사질이 섞인 토기가 많고 일부 니질 토기도 있다.

고구려 세력이 점차 서쪽으로 확대되고 한족漢族 문화와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고구려 축성 기술 및 산성의 특징에도 변화가 생긴다. 일부 규모가 매우 큰 성지가 등장했고, 높은 산 정상이 아닌 곳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이며 쐐기모양 이외의 형태로 가공한 석재나 판석을 사용하기도 한다. 석축 성벽을 대신하여 토석혼축 혹은 흙다짐 성벽도 등장 한다. 그 외에 산성의 외부 시설(작은 규모의 성)도 등장하고 성문 구조도 개선되었다. 성내에는 건축물이 점점 더 많아졌고 건축부재로는 승문, 방격문의 홍색, 회색 암키와, 연화문 와당 등이 사용되었다. 니질회도와 철기도 다량 출토되어 그 시대적 특징을 검증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辛占山, 1994,「辽宁境内高句丽城址的考察」,『辽海文物学刊』2, 33–37, 92.

저 자 쑨진지孙进己
심양 동북아연구중심
연 도 2000
간행물명 『북방문물』1
『北方文物』1

심양瀋陽 석대자石臺子 고구려 산성 명칭 및 축성 시기 고찰

沈阳石台子高句丽山城城名及建立时间考

심양瀋陽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은 1987년에 발견되었고 1991년에 시굴이 진행되었다. 포하蒲河 우안에 위치하고 심양 시내에서 25㎞ 떨어져 있다. 평면은 남북으로 약간 긴 불규칙한 장방형이며 산세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둘레는 약 1,600m이고 동쪽은 단애로 별도의 성벽이 없으며 나머지 3면은 석축 성벽을 쌓았다.

시굴 보고서에서는 석대자산성이 고구려 창암성倉巖城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석대자산성은 신성新城(무순撫順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의 서쪽 수 십리에 위치하여 당연히 고구려 신성 서쪽의 어느 성이어야 한다. 신성의 서쪽이고 요수遼水의 동쪽이면서 신성과 인접한 성은 개모성蓋牟城이 유일하다.

과거 『중국역사지도집 동북지구 자료회편中國歷史地圖集東北地區資料匯篇』에서는 개모성을 현 무순시 노동공원고성勞動公園古城으로 보았다. 개모성이 신성과 인접해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순시 노동공원고성은 한漢의 고성이지 고구려 성이 아니다. 인근에 고이산산성을 제외하면 다른 고구려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연구자들은 무순 노동공원고성이 한나라 현도군玄菟郡의 제3차 이동 지역이고, 고이산산성은 현도군 고성에서 가까워 고구려가 이를 신성이라 칭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동북역사지리東北歷史地理』에서는 일찍이 노동공원고성이 개모성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모성이 심양 소가둔구蘇家屯區 진상둔陳相屯의 탑산산성塔山山城이라고 보았는데, 이 역시도 틀린 것이다. 당시에는 아직 심양 석대자에 고구려 산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진상둔 탑산산성은 심양시 동남쪽 수 십리에 위치하고 신성과 요동성遼東城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개모성이 신성과 인접해있다는 문헌기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석대자산성은 이러한 문헌기록과 완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고려 개모성은 심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양 석대자산성으로 보아야 한다.

원 보고서에서는 석대자산성이 '고구려 역사 시기 600~700년간 계속 이용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견해이다. 이곳은 동한東漢 시기에는 현도군의 서개마현西蓋馬縣이었고, 위진魏晉 시기에도 계속 현도군에 속해 있었다. 고구려가 현도군을 점령한 것은 미천왕美川王 16년(315) 봄 2월의 일이다. 따라서 기원 4세기 이전까지 고구려는 절대로 심양 석대자에 산성을 세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삼국사기三國史記』권38에는 고국원왕故國原王 5년(335)에 나라 북쪽에 신성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무순 고이산산성은 4세기에 축성된 것이다. 그리고 『자치통감資治通鑑』권201에서는 신성이 고려 서쪽 경계의 요충지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 시기에 석대자산성이 축성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동진東晉 시기 모용慕容씨의 연燕나라와 고구려는 신성, 남소南蘇, 목저木底 등지에서 장기간 빈번한 교전을 벌였다. 이 지역은 모두 무순, 신빈新賓 일대이다. 그리고 『동사회강東史會綱』에는 광개토왕廣開土王 11년(402)에 연의 요동성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 14년(405)에 연이 요동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가 요심遼瀋지역을 점령한 것은 5세기 초의 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석대자산성의 축성 연대는 아무리 빨라도 5세기 초이거나 혹은 그 보다 더 늦은 시기가 된다. 보고서에서는 홍도평구직통관紅陶平口直筒罐 등이 고구려의 이른 시기 기종 가운데 하나이고, 이는 이 산성의 상한 연대 추정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물은 긴 시간에 걸쳐 계속 이용될 수도 있고 전파될 수도 있어, 조기 고구려의 유물이 만기까지 남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유물을 근거로 이 산성이 고구려 역사 시기 동안 계속 이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필자는 이 산성의 상한 연대가 5세기 초를 넘어갈 수 없고 하한 연대는 645년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문헌기록에 따르면 당은 개모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에서 2만여 호戶를 얻었다고 하는데, 필자는 그들이 결코 모두 고구려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했던 20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고구려족의 인구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방 지역으로 이주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심양 석대자산성은 분명 한인漢人이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고, 후에 거란족契丹族, 여진족女眞族, 몽골족, 만족滿族 등이 요심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원래 거주하던 한인들과 섞여서 살았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석대자산성 문화 연구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孙进己, 2000, 「沈阳石台子高句丽山城城名及建立时间考」, 『北方文物』1, 30–32.

저 자 영구시박물관营口市博物馆
[왕융메이王咏梅]
[옌하이闾海]
[추이더원崔德文]
[궈더린郭德林]

연 도 2000
간행물명 『북방문물』2
『北方文物』2

안시성지安市城址에 관한 고찰과 연구

关于安市城址的考察与研究

동북 지역에 안시현安市縣이라는 명칭이 처음 기록된 것은 『한서漢書』「지리지」이고, 그 뒤로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에도 안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한漢, 당唐 시기 안시성安市城의 위치에 대한 각각의 기록이 상세하지 않아 사학계의 안시성 위치 고증에는 북탕지北湯池설, 요양시遼陽市설, 봉황성鳳凰城설, 북한 청천강淸川江 좌안설, 평양시平壤市 용강龍岡 오석산烏石山설, 해성시海城市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설 등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그중 해성시 영성자산성설이 가장 타당한 견해로 알려져 있다.

『자치통감』에 나오는 당나라의 고구려 정벌 관련 기록을 보면, 안시성은 건안성建安城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는 당태종唐太宗이 백암성白巖城을 치고 안시성에 가기 전에 요양성遼陽城에서 군사의 이동 방향을 논의할 때 나온 말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건안성을 개주시蓋州市 청석령진靑石嶺鎭의 고려성촌산성高麗城村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시성은 이 산성의 북 혹은 동북에 있어야 한다. 한편 『신당서』에서는 먼저 서쪽으로 건안을 쳐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당태종이 안시성에 도착하여 공격 방향을 논의할 때 나온 말이다. 즉 안시성은 요동성遼東城(현 요양시)의 남 혹은 서남쪽에 위치하고 건안성(청석령진 고려성촌)의 동 혹은 동북쪽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 두 사서에서는 안시성의 지세가 험준하여 방어가 쉽고 공격이 어려우며 군사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구당서』와 『자치통감』에 따르면 당나라 군대가 요동성에서 출발하여 안시성에 도착하는데 9일이 걸렸고, 당시 당나라 군대는 하루에 15㎞ 정도를 진군했다고 하니, 요동성에서 안시성까지의 거리는 약 135㎞로 추정된다. 같은 책에서는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 공격을 위해 성 동남쪽 모서리에 토산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통감』에는 안시성 서쪽에 서령西嶺이라는 산이 있고, 남쪽에 남산이 있으며

북쪽에는 다수의 산과 협곡이 있고, 북쪽 산에 오르면 남쪽의 산이 보이며, 동남쪽에 강과 다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문헌기록에 근거하면, 안시성의 위치는 다음의 7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나, 요동성에서 안시성까지 거리는 135㎞ 전후여야 한다. 둘, 안시성은 요동성의 남 혹은 서남쪽, 건안성의 동 혹은 동북쪽이어야 한다. 셋, 안시성은 지세가 험준하며 10만의 병사가 주둔할 수 있는 큰 성이여야 한다. 넷, 안시성 서남쪽과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는 협곡이 있어야 한다. 다섯, 성의 북쪽 혹은 동북쪽에 남쪽 전장戰場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산이 있어야 한다. 여섯, 성 남쪽 및 동남쪽에는 강과 교량이 있어야 한다. 일곱, 산성 동남쪽 모서리에는 인공으로 쌓은 토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성자산성은 요양시(즉 요동성)의 서남쪽에 위치하나 청석령진 고려성촌산성(즉 건안성)의 동 혹은 동북이 아니라 북쪽에 위치하고, 요양시까지 거리는 50㎞에 불과하다. 산의 해발 높이도 높지 않고 산세도 험하지 않으며 규모도 작아 10만 병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산성 동남쪽에 인공으로 쌓은 토산도 없다. 이상으로 보아 해성시 영성자산성은 당대 안시성의 입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군사용 성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해 대석교시大石橋市에 있는 해룡천산성海龍川山城은 요양시까지의 거리가 약 135㎞이고, 요양시의 남쪽, 청석령진 고려성촌산성의 동쪽에 해당하며 산세가 험준하고 성 내부는 10만 병사를 수용할 만큼 크다. 또한 성 서남쪽에 있는 산은 여전히 서령으로 불리고, 남쪽으로도 큰 산이 있으며 북쪽에는 협곡이 있다. 그리고 동북쪽 모서리에는 해발 663.5m의 산이 있고 남쪽에는 대청하大淸河 상류의 많은 지류가 있으며 현재 각 하천에 모두 다리가 놓여 있다. 산성 동남쪽 모서리에는 성벽에서 몇m 거리에 인공으로 쌓은 토산도 있다. 이상과 같이 해룡천산성은 당대 안시성이 갖춰야 할 7가지 입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당대 안시성는 현 대석교시에 위치한 해룡천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营口市博物馆, 2000, 「关于安市城址的考察与研究」, 『北方文物』2, 79–83.

저 자 왕면허우王绵厚
요령성 박물관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압록강鴨綠江 우안 고구려 산성 연구

鸭绿江右岸高句丽山城研究

표 1. 기 발견된 압록강 우안의 중요 고구려 산성 일람표

본문에서 말하는 압록강鴨綠江 우안은 중국 동북 지역의 요령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동부를 말한다. 압록강 우안 고구려 산성의 건축 형식 및 구조적 특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귀납된다.

첫째, 산성 구축에 지리 조건을 매우 중시했다. 둘째, 고구려 산성은 자연 산세를 따라 축성하여 구조가 부정형이다. 셋째, 고구려 산성은 설계 측면에서 규범화와 의례화를 무시하고 실용성을 가장 중시했으며, 586년 평양平壤의 장안성長安城에 와서야 한漢, 진晉의 제도를 모방하여 평면 장방형에 북성, 내성, 중성, 외성의 형태를 구축한다. 넷째, 고구려 산성 내 건축 시설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다섯째, 산성 대부분이 험준한 산과 하천을 끼고 있으며 내부에는 충분한 수원水源이 있다. 여섯째, 중요 산성은 모두 교통로 혹은 관애關隘와 통하는 수륙 요충지에 위치한다. 일곱째, 규모가 큰 대형 산성이 중심이 되고 주위로 약간의 소규모 산성이 배치되어 상호 호응하고 있다. 도성이나 요충지에는 산성과 평지성이 상호 호응하는 형식으로 설치된다. 여덟째, 독특한 산성 축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벽은 주로 계곡 입구, 산 정상의 평평한 곳에 축조되는데 대부분 석축했고, 절벽 부분은 그대로 천연 장벽으로 삼았다. 조기의 대형 산성에는 주로 쐐기모양으로 가공한 석재를 쌓아 올렸고, 조금 늦은 시기의 소형 산성은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 올렸다. 쐐기모양 석재의 큰 면이 외측을 향하고 뾰족한 면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일부 성벽에서는 안쪽에 장조형 석재를 가로로 얹고 빈틈은 토석으로 채우기도 했다. 끝으로, 비교적 중요한 산성에는 모두 망대를 설치했다. 성벽 위에는 대부분 각루가 있고 일부 성문에는 옹문도 있으며, 치가 있는 성벽도 있다. 그러나 여장은 보통 설치되지 않았다.

이상 고구려 산성의 주요 축성 특징과 시설물 배치 규칙 등은 조기, 중기

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만기에는 토석혼축 산성이 등장한다.

압록강 우안 고구려 산성의 시기 구분과 분포 지역에 대한 종합 고찰은 고구려의 강역 확대 및 역사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축성 시기는 대체적으로 조, 중, 만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조기)는 고구려 건국 시기부터 영역이 요심遼瀋 변경까지 확대되어 북쪽에 신성新城이 축성될 때까지이다. 신성을 학계에서는 무순撫順 고이산 산성高爾山山城으로 보고 있다. 시축 연대는 266년에서 276년 사이로 추정된다.

제2단계(중기)는 신성 축성 이후부터 장수왕長壽王 천도(427)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고구려의 국력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이다. 그래서 장수왕의 부친 호태왕好太王을 역사에서는 '광개토경호태왕廣開土境好太王'이라고 부른다. 호태왕의 영토 확장은, 서쪽으로는 요동遼東의 중심지와 요동반도遼東半島를 중심으로 한 서남방향, 북쪽으로는 동부여의 옛 땅인 송화강松花江 중, 상류에서 진행되었고, 장수왕이 재위에 있었던 약 1세기 동안은 개척 방향을 압록강 좌안(동안)의 한반도 중, 남부 백제로 돌렸다. 그러나 당시 요동에 등장한 고구려 성읍은 대부분 한위漢魏 시기의 옛 성 명칭을 그대로 이용했고, 나중에 등장하는 개모蓋牟, 건안建安, 백암白巖, 안시安市, 비사卑沙 등 고구려 산성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고구려가 처음 요동을 점령하여 여전히 한, 위의 옛 성을 그대로 이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3단계(만기)는 427년 평양 천도 이후부터 영류왕榮留王 14년 즉 당태종唐太宗 정관貞觀 2년(628) 고구려가 요동에 '고려장성'을 쌓았을 때까지이다. 호태왕과 장수왕이 요동과 송화강 중, 상류를 안정적으로 차지하여, 요동의 고구려 영역과 요서遼西의 북위北魏 영주營州는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게다가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의 발전은 대동강大同江, 한강 이남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는 삼국시대의 전성기에 들어섰다. 이 시기 압록강 우안에 새로 축성된 고구려 산성은 주로 요하평원遼河平原과 요동 산지의 경계 지점인 남북 교통선의 동쪽에 집중된다. 이와 동시에 고구려는 요하遼河 양안에 순찰 용도의 보루도 일부 설치했다.

고구려 산성명은 주로 다음의 3종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조기 고구려의 원 부족 혹은 피정복 부족, 방국方國 명칭으로 명명된다. 요동 지역 고구려 산성 가운데 부족명으로 명명된 산성은 주로 조기 산성이다. 예를 들면 가물성哥勿城, 옥저성沃沮城, 북부여성北夫餘城, 설부루성屑夫婁城, 고모루성古牟婁城, 맥성貊城, 단려성檀盧城, 구모려성臼模盧城, 명모려성名模盧城, 야라성耶羅城, 각미성閣彌城, 모루성牟婁城, 한성韓城, 소회성蘇灰城, 연루성燕婁城, 예성濊城, 취악성鷲嶽城, 월희성越喜城 등이 있다. 이는 모두 고구려 옛 '5부'의 범위이거나 피정복 부족의 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일부는 원래 부족의 왕성 혹은 방국의 소재지이나 후에 고구려가 이를 계속 이용한 곳이다.

둘째는 산성이 위치한 산천의 자연 지리를 따라 명명한 경우로 전체 산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대표적인 산성으로는 환도성丸都城, 오골성烏骨城, 창암성倉巖城, 여산성黎山城, 대성산성大城山城, 대두산성大豆山城, 대산성大山城, 암문성巖門城, 우산성牛山城, 독산성獨山城, 금산성金山城, 우명산성牛鳴山城 등이 있고, 하천 이름으로 명명한 경우는 남소성南蘇城, 졸본성卒本城, 박작성泊汋城, 아리성阿利城, 사구성沙溝城, 맥곡성麥谷城, 웅천성熊川城, 수곡성水谷城 등이 있다.

셋째는 인접한 한위 시기 요동군遼東郡, 현도군玄菟郡의 옛 성지 이름으로 명명한 경우이다. 이 중 일부는 한위 시기 옛 토성에 직접 축성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요동성遼東城, 현도성玄菟城, 개모성蓋牟城(개마성蓋馬城), 안평성安平城, 안시성安市城, 건안성建安城, 평곽성平郭城, 북풍성北豐城, 역성力城, 대방성帶方城(대방주帶方州), 평양성平壤城, 장안성長安城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장수왕의 천도 이후에 축성되었다.

이상 3종 가운데 부족 이름으로 명명한 산성을 제외하고 산천이나 한위 시기 명칭으로 명명한 성지는 그 명칭이 대부분 한족漢族이 부르던 이름이거나 혹은 중국의 전적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한족 문화와의 연원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王绵厚, 1994, 「鸭绿江右岸高句丽山城研究」, 『辽海文物学刊』2, 38–50.

저 자 왕멘허우王绵厚
요령성 박물관
연 도 2001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4
『社会科学战线』4

고구려 성읍城邑 제도와 산성

高句丽的城邑制度与山城

압록강鴨綠江과 혼강渾江 유역은 5부 왕족 중 '소노부消奴部(서부)'와 '계루부桂婁部(내부)'의 핵심 지역이었다. 즉 고구려 산성의 조기 분포는 고구려 5부 가운데 시원이 된 소노부와 계루부의 조기 '씨족 취락'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고구려 산성의 확대와 발전은 마찬가지로 고구려 5부의 확대,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5부제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5부 욕살褥薩'이 고구려 산성의 주요 군사 수뇌와 부족 수령이 되었다. 고구려의 성읍城邑 제도와 산성 발전 사이의 관계에는 위진魏晉 시기 이후 고구려가 전성기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고구려 5부제의 확대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산성의 분포도 한漢나라 군현 지역 및 확대, 병합된 기타 부족의 구역으로 발전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5부 범위의 확대에 따라 고구려 중앙 왕족 이하 5부 욕살이 5부 산성을 관리하는 군사 및 행정의 최고 장관이 된 점이다.

도시 고고학의 측면에서 볼 때, 고구려 산성이 한漢, 위魏, 진晉, 당唐 등 중원의 도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군사방어 기능에 있다. 이는 고구려 산성 제도의 독특한 실용적 기능이다. 그러한 모습은 고구려 산성의 성벽이 모두 높은 산과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점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옹성이나 '관장關墻'의 보호를 받는 성문, 성벽 위의 각루, 망대, 여장, 치, 그리고 성벽을 둘러싸는 마도馬道 등 완벽한 군사방어 시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불규칙한 건축물 배치는 지세를 이용한 군사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과이다. 동시기 중원의 도시 계획에서 확인되는 방리坊里와 시정市井의 배치가 없는 점 역시 고구려 산성의 군사방어체계를 보여주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고구려 산성과 성읍 제도 발전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4세기 말의 중

기부터 산성 관리 제도가 5부를 핵심으로 한 '성방노예제城邦奴隸制'에서 중원 한나라식 '비군현比郡縣'으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성읍제의 5부 '욕살' 및 '읍장邑長, 천장仟長, 백장佰長' 등이 한나라 식의 '장사長史, 사마司馬, 참군參軍' 등 주州, 군郡의 장관으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미세한 발전과 변화는 마찬가지로 고구려 산성의 관리 체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비록 7세기 중엽 고구려 정권이 멸망할 때까지도 '성방노예제'가 완전히 봉건제로, 산성의 성읍 관리 체제가 '5부 욕살'에서 완전히 군현제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5부제에서 비군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사회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나라 문화와 한나라 관제의 영향 하에서 높은 산과 깊은 계곡에만 거주하던 고구려 민족정권이, 부단히 정권 구조의 다원일통多元一統을 향해 매진해 갔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王绵厚, 2001, 「高句丽的城邑制度与山城」, 『社会科学战线』4, 171–176.

저 자 왕젠췬王健群
연 도 1987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고구려 천리장성

高句丽千里长城

사료에 따르면, 천리장성은 631년에서 645년 사이에 축조되었다. 당시 고구려는 국력이 쇠락했고, 시간도 촉박하여 장성은 견고하게 축조되지 못했으며, 비록 이름은 장성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줄로 이어진 토루土壘 정도에 불과했다.

이 장성은 변경의 성루 바깥에 축조된 방어선이 아니라 각 성루 사이를 연결시켜 성루와 함께 하나의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 이 방어선에서 과거의 성루는 주요한 방어 거점이 되었고, 소위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당唐나라 군대의 전진을 막는 용도였을 뿐이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당나라 군대의 두 차례 공격은 모두 고구려가 장성을 수축한 이후이나 두 차례 모두 이 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두 차례 모두 요수遼水를 건넌 후 직접 고구려 변방의 성루를 공격했지, 장성에 막힌 일이 없었던 것이다. 현도玄菟, 개모蓋牟, 요동遼東, 안시安市 등 변방의 중요 성루에서 진행된 공방전에서 장성과 관련된 기사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연히 장성은 이 성루들과 동일 선상에 있어야 하며, 이 성루들은 장성 라인 상의 중요 거점이어야만 상술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 장성 유적에는 성문이나 각루, 돈대 및 기타 군사의 주둔 시설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진을 치고 방어하는 용도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이는 다만 변방 성루를 연결시킨 보조 시설일 수밖에 없고, 당나라 군대의 동진을 가로막는 기능뿐이었다.

고구려 서부 전선의 군사 요충지로 명확하게 기록된 곳은 부여夫餘, 신성新城, 현도, 요동, 사비沙卑, 개모, 안시, 건안建安 등 여러 성루이며 이 성루들은 남북의 한 라인으로 배치되었다. 부여는 현재의 농안農安이고, 신성은 심양瀋

陽, 요동은 요양遼陽이다. 개모성은 일부에서 요양과 심양 중간의 십리하十里河로 보고 있다. 건안은 요대遼代의 진주辰州, 즉 현재의 개평蓋平이다. 안시는 해성海城일 가능성도 있고, 일부에서는 개평 서북쪽의 탕지湯池라고 보기도 한다. 일부 성은 그 위치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어쨌든 남북의 한 라인으로 배치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 성루들이 바로 동북, 서남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농안은 북쪽에 위치한다. 개평은 남쪽이고, 영구의 동쪽은 발해만에 인접해 있다. 고구려가 수축한 천리장성은 이 지역들을 연결시켜 변방의 군사 요충지를 주요 거점으로 한 서부 방어선으로 구축된 것이고, 이를 통해 당나라 군대의 진공을 저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헌기록과도 부합하고, 현재의 고변古邊 유적과도 일치한다.

王健群, 1987,「高句丽千里长城」,『博物馆研究』3, 32–36.

저 자 원슈룽温秀荣
무순시 박물관
연 도 2002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고구려 산성의 배수체계

高句丽山城的排水系统

고구려 산성에서 수원水源과 관련된 유구는 우물과 저수 시설을 들 수 있다. 저수 시설은 보통 규모가 큰 소형 저수지 혹은 연못 등이 있고, 기능은 우물과 동일하다. 고구려 산성의 우물이나 저수 시설은 보통 성내 지세가 낮은 곳에 조성된다. 보통 지표의 물이 모이는 곳에 저수 시설을 조성하거나 아예 땅을 파서 우물을 찾아 물 문제를 해결했다. 수자원 해결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배수 시설이다. 한곳에 모인 물이 차서 넘쳤을 때 남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보통은 산성의 문지 하나와 함께 설치되었다. 배수 문제는 산성의 방어체계에도 문제를 가져와 성문에는 문을 가로 막는 석벽이 설치되곤 했다. 이런 석벽은 성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종의 둑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여름에 물이 많을 때는 우물에서 넘쳐난 물이 이 둑 위로 작은 폭포처럼 넘쳐 흘렀고 물이 적을 때는 석벽의 틈 사이로 조금씩 흘러 나갔다. 그래서 고구려 산성의 우물은 보통 성벽의 한 성문과 직선으로 마주하고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 흑구산성黑溝山城의 우물은 동문과 마주보고 있고, 태자성太子城 우물은 북문을 마주하고 있으며, 삼송산성杉松山城은 서문, 고이산성高爾山城은 남문을 마주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산성에는 몇 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중 우물과 관련된 성문은 수문이라 부른다.

고구려 산성의 우물은 물의 유입과 유출 두 조건을 겸비해야 했고, 수자원의 저장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고구려 산성에는 우물과 둑이 설치되었다. 우물은 수자원을 직접 저장하기 위한 것이고, 둑은 물이 유입되는 경사지 위에 쌓아 토사가 우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수위를 높이는 기능도 했다. 흑구산성이 이러한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흑구산성에는 우물 두 개가 낙차가 있는 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각 우물의 물이 유출되는 방향에 짧은 둑을 설치해 각 우물 내 저수량을 보장했다. 또 두 우물 위쪽과

좌우의 경사지 위에도 몇 열의 둑을 쌓아 토사가 우물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해성海城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4개의 우물이 설치되어 있다.

산성에서 수자원을 해결하는 것은 산성 방어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대무신왕大武神王 시기인 기원후 28년 한漢의 요동태수遼東太守가 위나암성尉那巖城을 포위했을 때, 한나라 군대가 위나암성에 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성을 포위하고 기다리자, 고구려는 수초로 싼 잉어와 술 등을 보내, 성내에 수자원이 풍부함을 보여주었고, 한나라 군대는 결국 철수하고 말았다고 한다. 반대로 후금後金은 1619년 철배산鐵背山에 계범성界凡城을 쌓았는데, 산이 험하여 방어에는 유리하나 성내에 수자원이 없어 결국 누루하치가 이 성을 버리고 다른 성으로 옮겨간 일도 있었다.

이처럼 고구려 산성은 고구려 정권이 존속할 수 있었던 든든한 방어 장벽이었으나, 사실 이 장벽을 지탱해준 것은 사실 고구려의 배수체계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温秀荣, 2002, 「高句丽山城的排水系统」, 『博物馆研究』2, 57–58.

저 자 원슈룽温秀荣
장보张波
연 도 199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무순撫順 지역 고구려 산성에 관하여

关于抚顺地区的高句丽山城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무순撫順 지역에서는 고이산高爾山, 흑구黑溝, 전수호轉水湖, 오룡五龍, 삼송杉松, 영액문英額門, 목기木奇, 태자성太子城 등 8기의 고구려 산성, 평지성이 발견되었다.

무순 지역은 고구려 정권 서쪽 변경의 관문이자 중요한 군사방어선이다. 무순 지역은 산지와 평원지대가 만나는 접점 지역으로 요심평원遼瀋平原을 감시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곳곳에 산성이 축성되었다.

무순 지역 고구려 산성의 조사보고서에 근거하면, 흑구, 전수호, 태자성 내성, 삼송산성 등은 모두 고구려 조기 산성으로 고구려 건국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산성들은 주로 절벽을 성벽으로 이용했고, 절벽이 끊어진 부분에만 석축 성벽을 쌓았는데 석재는 주로 쐐기 모양으로 가공하여 쌓았다. 성문의 옹성은 대부분 장방형이다. 성내에서는 사질이 섞인 홍갈도紅褐陶가 주로 발견되고, 기와편은 없다.

고구려 중기 산성은 산마루와 절벽에도 석축 성벽을 쌓았다. 저지대의 성벽은 높고, 절벽의 성벽은 1~1.5m로 낮아, 여장과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 성문은 다수가 안쪽으로 이어진 U자형 옹성구조이다. 쐐기 모양으로 가공한 석재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니어서 성벽 표면이 조기 산성만큼 정연하지 않다. 오룡산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태자성 성벽의 석재는 폭이 좁고 긴 모양으로 가공되었다. 성내에서는 기와편, 녹유자기편, 회도편 등이 출토되었다. 연대는 위진魏晉 시기 이후이고 오룡산성과 태자성 외성이 대표적이다.

만기 산성은 산마루를 따라 토축 혹은 토석혼축 성벽이 둘러쳐져 있다. 성문이나 방어에 약한 부분에는 높은 토축 성벽을 쌓았고, 석축 성벽은 보이지 않는다. 망대와 각대는 모두 토축 봉수대로 바뀌었다. 고이산성에서는 다량의 철제 무기가 발견되었고, 기와편과 토기도 다수 확인되었다. 영액문산

성에서는 금으로 도금한 철 장식과 철제 생산도구도 출토되었다. 목기木奇 평지성은 건축 재료가 매우 다양하다. 고이산성과 영액문산성의 연대는 진晉 이후부터 당대唐代까지이고, 목저木底 평지성은 당대 목저주木底州 치소였다. 그러나 목저성 유물에서는 고구려 유물의 특징도 확인되어, 연대 상한은 고구려 중기 이후로 판단된다.

温秀荣 · 张波, 1996, 「关于抚顺地区的高句丽山城」, 『博物馆研究』1, 53–54, 80.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0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9집
『边疆考古研究』9辑

북한에서 발견된 고구려 산성

朝鲜境内发现的高句丽山城

그 림
1. 북한 내 고구려 산성 분포도
2. 현 평양 시내 및 그 부근 고구려 후기 도성 성지 분포
3. 농오리산성 평면도
4. 거산성 평면도
5. 장수산성 및 그 남쪽 도시 유적
6. 자모산성 평면도
7. 평양 시내 고성 유적 및 외성 방리 복원도, 북성 지형과 유적
8. 평양 시내 고성 출토 석각 ("병술십이월중한성하후부 소형문달절자차서북행섭지 丙戌十二月中漢城下後部 小兄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

표
1. 북한 내 고구려 산성 통계표
2. 북한 내 고구려 산성 규모 통계표

북한 내 고구려 산성은 중국 내 고구려 산성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를 1,000m 이하, 1,000~2,000m, 2,000~3,000m, 3,000m 이상의 네 등급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각 등급 산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형부터 대형까지 각각 15%, 12%, 24%, 48%이다. 중국 내 고구려 산성의 경우 28%, 25%, 19%, 29%로, 이에 비하여 북한 내 산성은 2,000m 이상, 특히 3,000m 이상의 중대형 산성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형 산성의 발견이 어렵기도 하고 현재까지 남아있기 어려운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나, 더 주요한 이유는 한반도 북반부가 고구려 후기의 내지에 속하여 압록강鴨綠江 이북 지역에 비해 전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소형 산성을 많이 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중대형 산성의 증가는 이 시기 고구려의 국력이 증대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둘레 3,000m 이상의 대형 산성은 서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2,000~3,000m의 산성은 동해안에 위치한 강원도 학성고성鶴城古城(둘레 2,107m)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서해안에 위치한다.

산성의 유형은 총 33기 가운데 14기가 파기형簸箕形이고, 4기는 내외성內外城, 1기는 산정형山頂形이며, 나머지는 소개가 간략하여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파기형이 다수를 점하는 것은 중국 내 고구려 산성과 동일하다.

파기형 산성은 대부분 산마루에 환형環形으로 축조되는데, 보통은 3면이 높고 1면은 낮다. 산세가 가파른 곳에는 천연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아 따로 성벽을 축조하지 않기도 한다. 군사와 주민의 거주 및 방어 그리고 물건의 저장에 용이하여 수량도 가장 많다.

산정형 산성은 산 정상에 축조된다. 내부는 지세가 높고 평탄하며 사방은 대부분 절벽이거나 한쪽 면만 약간 완만한 경사를 보이곤 한다. 경사가 완만한 곳에는 성벽을 쌓고 나머지 부분은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거나 그 위

에 다시 성벽을 쌓기도 한다. 산성 아래에는 대부분 강이 흐른다.

내외성은 각 산성별로 형태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종은 외형상 하나의 산성으로 보이나 중간에 격벽이 있어 성을 둘로 나누는 형태이다. 다른 1종은 내성이 독립된 하나의 성으로 축조되고, 내성에서 지세가 비교적 낮고 평평한 측면에 따로 외성을 쌓아 내성과 서로 연결하거나 반을 둘러싸는 형태이다.

북한 내 고구려 산성의 성벽은 대부분이 석축 구조이나, 석축에 토석혼축 구조가 섞인 산성, 토석혼축 구조 산성, 토축에 석축 구조가 섞인 산성, 토축에 일부 구간만 석축 구조인 산성 등도 있다. 이는 중국 내 고구려 산성의 성벽 구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이다.

산성의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성벽에 치, 여장, 장대, 각대角臺 등이 축조된 산성도 있다. 장대는 보통 성내의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되나 성벽에 설치된 사례도 있고, 각대는 성벽의 모서리에 설치되는데 역시 장대와 마찬가지로 전망 용도로 사용되었다.

여장의 내측에 열을 지어 조성된 작은 석동石洞이 중국 내 고구려 산성에서는 확인되고 있으나, 북한 내 산성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

성내에서는 우물과 저수지도 다수 발견되었다.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던 시설 및 주거 시설도 확인되었다.

산성은 그 규모, 지세 및 수요에 맞추어 성문을 설치하는데 그 숫자는 산성에 따라 상이하다. 주요 성문은 보통 지세가 낮고 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고, 이의 방어를 위해 대부분 옹성이 설치된다. 또한 지세가 낮은 까닭에 성내의 물이 이곳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성문 옆에 따로 수문이 설치되곤 한다.

북한 내 고구려 산성은 대부분 고구려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 계속 이용하면서 증축, 보수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고찰, 조사에 반드시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 들어 남한 북부,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 지역에서 적지 않은 고구려 산성이 발견되고 있다. 규모가 매우 작아 보루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魏存成, 2010,「朝鮮境内发现的高句丽山城」,『边疆考古研究』9辑, 155–169.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 중심, 문학원 고고학과, 동북역사와 강역연구중심

연 도 2011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1
『社会科学战线』1

중국에서 발견된 고구려 산성

中国境内发现的高句丽山城

주 제 어 고구려
산성
만기 장성

지원사업 길림대학 '985공정' 항목

중국 경내의 고구려 산성은 요령성遼寧省과 길림성吉林省 두 곳에 분포되어 있다. 주요 분포 지역은 첫째가 환인桓仁과 집안集安을 중심으로 한 혼강渾江 유역, 압록강鴨綠江 중류와 태자하太子河, 혼하渾河 상류, 휘발하輝發河 유역과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환인, 집안, 통화通化, 백산白山, 신빈新賓, 본계本溪, 무순撫順, 청원清原, 유하柳河, 휘남輝南, 반석盤石 등이 포함되는데, 이 지역은 고구려 초기와 중기의 중심 및 주변 지역이다. 둘째는 요동반도遼東半島 남단에서 시작하여 금주金州, 보란점普蘭店, 와방점瓦房店, 개주蓋州, 영구營口, 해성海城, 요양遼陽, 심양瀋陽, 무순, 철령鐵嶺, 개원開原을 지나 서풍西豐, 요원遼源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이는 고구려 후기 서부의 중요 방어선이다. 셋째는 대양하大洋河와 애하靉河 유역으로, 수암岫巖, 봉성鳳城, 관전寬甸 등이 포함된다. 넷째는 고구려의 북방, 현재의 길림시吉林市와 동북방의 두만강豆滿江 유역이다. 두만강 유역에서 한반도 동북부까지는 한위漢魏 시기 옥저沃沮, 예맥濊貊의 활동 지역이었으나 후에 위만조선衛滿朝鮮과 한사군漢四郡의 관리를 받았고 나중에는 고구려에 신복했다.

고구려 산성의 규모는 다양하여 큰 것은 둘레가 1만m를 넘기도 하고 작은 것은 몇 백m에 불과하기도 하다. 둘레가 3,000m 이상인 대형 산성은 전체의 20%를 넘는다. 도성이었던 환인 오녀산성五女山城, 집안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 외에 대부분은 고구려 서부 방어선과 요양에서 단동丹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며, 수축 연대는 4~5세기 이후이다. 둘레가 1,000~3,000m인 중형 산성은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중형 산성은 상술한 대형 산성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형세이거나 지방의 중심 성지였다. 대표적으로 해성의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안시성安市城), 등탑燈塔의 석성산산성石城山山城(백암성白巖城), 심양의 탑산산성塔山山城(개모성蓋牟城), 길림의 용담산산성龍潭山山城 등이 있다. 둘레가 1,000m 이내의 소형 산성은 30% 이상을 점하는데, 대부분 주요한 중대형

그 림 1. 중국 경내 고구려 산성 분포도

산성의 위성이거나 교통로상의 관애關隘 및 보루(초소) 성격이다.

산성의 유형은 파기형簸箕型, 산정형山頂型, 축단위성형築斷爲城型, 좌우성左右城과 내외성內外城의 4종으로 구분된다.

파기형 산성은 대부분 산마루 위에 환형으로 수축되는데, 산마루는 보통 3면이 높고 1면은 낮다. 경사가 심한 부분은 자연 단애를 성벽으로 삼아 별도의 성벽을 수축하지 않기도 한다. 산정형 산성은 모두 산 정상에 수축된 산성이다. 사방이 대부분 절벽이거나 혹은 1면만 약간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는 따로 성벽을 쌓았고 다른 곳은 절벽을 천연 장벽으로 삼기도 하고 절벽 위에 다시 성벽을 쌓은 경우도 있다. 산성 아래로는 대부분 강이 흐른다. '축단위성형'은 산과 산 사이가 끊어진 협곡에 성벽을 쌓는 형태로, 산성의 축조 특징을 강조한 형태이다. 물론 협곡 이외의 부분에도 성벽을 쌓는다. 이 유형 산성의 지형은 군사와 주민의 주둔, 무기 저장에 용이하고, 용도는 주로 관애나 초소였다.

고구려 산성의 성벽은 석축, 토석혼축, 토축의 3종 형식으로 축조되었다. 보통 한 산성의 성벽은 한 가지 방식으로 축조되나, 일부는 2종, 3종이 섞인 경우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석축이 다수이고, 토석혼축과 토축은 비율이 적은 편이다. 그중 석축 성벽은 고구려 초기, 중기의 중심 지역인 환인, 집안, 신빈 지역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중, 후기의 서부 방어선과 한반도 지역도 다수를 차지한다. 그에 반해 토축이나 토석혼축의 10여 기 산성은 대부분 휘발하 유역, 제2송화강松花江 중류와 고구려 중, 후기 서부 방어선에 위치한다.

성문은 대부분 하나의 성마다 다수가 있으나 일부 하나뿐인 소형 산성도 있다. 주로 산세가 평탄하여 출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된다. 보통 성문은 지대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옆으로 수문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 성문에는 방어용으로 옹성이 설치되기도 한다. 중대형 산성에는 내부에 지세가 높고 평평한 대지가 있어 이곳에 성내의 중요 건축물이 축조된다. 산성에는 방어용으로 장대가 설치되고, 내부 인원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우물 등도 있으며, 저장용 창고 시설 그리고 기와를 굽는 가마, 철기 제련 공방 등이 설치된 경우도 있다.

고구려는 만기에 서부 지역 방어선으로 장성을 수축했다. 이는 문헌기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고, 실제 현지 조사를 통해서도 그 시작점과 끝,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장성 수축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간소하게 축조된 관계로 그 방어 기능은 상술한 산성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각각의 산성과 상호 보완 역할을 했으며, 후대의 유사한 건축물에도 영향을 주었다.

魏存成, 2011,「中国境内发现的高句丽山城」,『社会科学战线』1, 122–134.

저 자 자오샤오강赵晓刚
심양시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3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 명칭 고증

石台子山城城名考辨

주 제 어 석대자
고구려
횡산성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은 1987년 심양시瀋陽市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기 산성지이다. 고구려 시기 석대자산성의 명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굴보고서에서 제기된 창암성倉巖城설, 왕멘허우王綿厚의 금산성金山城설, 쑨진지孫進己의 개모성蓋牟城설, 석대자산성 제2차 발굴보고서에서 제기된 신성新城설 등 네 가지 견해가 있다.

필자는 석대자산성이 고구려의 횡산성橫山城이라고 생각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권198과 권200의 기록을 근거로 횡산성에 부합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을 정리해보면, 하나, 횡산성은 산성이고 산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둘, 횡산성은 현도군玄菟郡에서 가까워 현도군의 3차 이동 지점인 심양시 상백관고성上柏官古城 부근에서 찾아야 한다. 셋, 횡산성은 전란으로 두 차례 파괴되었다. 넷, 수隋나라가 이 성을 공격했다는 사서의 기록이 없고, 당唐 현경顯慶 4년에 당나라가 성을 파괴한 후에는 더 이상 사료에 등장하지 않아 다시 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계에는 횡산성이 두 곳(요양遼陽 부근의 화표산華表山과 법고현法庫縣의 팔호산八虎山)이었다는 견해와 한 곳(요양의 화표산)이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필자는 고구려의 횡산성이 한 곳이었고, 요양 부근이 아니라 현재의 석대자산성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석대자산성에서는 다량의 고구려 시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고구려 시기 유구층 하부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고구려 시기 산성들과 달리 요금遼金 시기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석대자산성은 청동기 시대 유적 위에 고구려 문화 유구가 직접 조성된 산성임이 분명하다. 지리적으로 석대자산성은 남쪽으로 상백관고성, 동남쪽으로 고이산성高爾山城(신성新城), 동북으로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남소성南蘇城)과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는 모두 교통로가 있다. 당 정관貞觀 19년 이적李勣의 군대는 요하遼河를 건너 먼저 현도성玄菟城을 치고, 바로 횡산성을 공격했다. 횡산성 즉 석대자산성은 규모가 작아 주둔한 군사도 적었고, 그래서 당나라는 하루도 안 걸려 성을 점령했다. 그 뒤 이적의 군대는 또 신성(고이산성)을 친 후 신속히 남하하여 개모성(탑산산성塔山山城)을 공격했다. 이적의 군대가 남하한 후 당나라는 현도성과 횡산성을 방치해두었다. 그래서 정관 19년의 공격으로 점령한 땅은 당의 관할 범위에 들지 않았고, 당나라 군대가 철수한 후 고구려는 다시 이곳에 횡산성을 쌓아 신성과 남소성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삼았다. 석대자산성이 바로 고이산성과 최진보산성의 서쪽에 위치하며, 세 성 사이 거리도 멀지 않아 함께 당나라의 공격을 방어하는 형세를 취한다. 그 후 현경 4년에 설인귀薛仁貴 등이 고려의 대장 온사문溫沙門을 횡산에서 대파하자 신성과 남소성은 당나라 군대와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횡산성은 그 뒤로 다시 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총장總章 원년에 이적의 군대가 다시 고구려를 칠 때는 아무런 저항 없이 신성까지 진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석대자산성은 횡산성의 위치와 정확하게 부합된다. 또한 고고 조사를 통해서도 석대자산성이 두 차례 파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발굴과정에 산성이 복구된 흔적을 확인했고 게다가 복구 공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북문 문도와 함동涵洞의 토층에서 석대자산성이 두 차례 불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 건축 석재를 보면 불에 탄 석재와 불에 타지 않은 석재가 섞여 있는데, 이는 산성의 2차 준공이 매우 촉박하였고, 복구 시에 새로운 석재를 사용할 시간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문과 북문의 함동 입수구 및 배수로의 복구 흔적에서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시설을 보수할 수 없어, 간단하게 응급조치만 취했던 모습이 확인된다.

고구려는 당나라의 연이은 공격에 대규모로 새롭게 각 성을 중건할 수 없었고, 오직 횡산성(석대자산성)만 신성, 남소성과 거리가 가깝고 이용 가치가 있어 복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피폐해진 국력으로 인해 다시 대규모로 인력과 물력을 들일 수 없었고, 결국 임시 조치만으로 횡산성을 복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복구된 횡산성도 결국 현경 4년에 다시 파괴되었고, 고구려는 그 뒤로 이를 다시 중건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횡산성의 객관적 조건을 바탕으로 고고 조사 결과와 사료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석대자산성이 고구려 횡산성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赵晓刚, 2003, 「石台子山城城名考辨」, 『北方文物』3, 28–32, 37.

저 자 자오샤오강赵晓刚
심양시 문물고고연구소
왕하이王海
하남성 문물건축보호
연구원
연 도 2014
간행물명 『동북사지』3
『东北史地』3

석대자산성 방어체계 탐구

石台子山城防御体系探究

주 제 어 석대자산성
고구려
방어체계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은 고구려 서부 제2방어선상의 중요 성지이다. 고구려 서부의 제1방어선은 요하遼河이고, 제2방어선은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 장성'이다. 이 고구려 장성은 '대형 산성이 중심이 되고, 중형 산성과 소형 산성, 평지성 및 일부 구간의 토축 성벽으로 구성된 하나의 방어조직'이다. 즉 고구려 천리장성은 서풍西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부여성扶餘城),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신성新城), 요양遼陽 구성舊城(요동성遼東城),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안시성安市城)이 중심이 되고,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 석대자산성, 고려성산성高麗城山城, 암주성산성巖州城山城, 득리사산성得利寺山城,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 및 일부 소형 산성 그리고 봉수와 토축 성벽으로 구성된 산성 연합 방어선이다. 석대자산성은 중형 산성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산성으로 구성된 전략 방어선에 위치한 고구려 서부 변경의 요충지이다.

석대자산성의 자체 방어 시설로는 먼저 성문을 들 수 있다. 성문은 모두 산허리에 설치되었다. 서문은 지세가 비교적 평탄하고 대로를 통해 산 아래까지 이어지며, 나머지 3문은 모두 경사가 급하여 적군은 십여m의 경사지를 타고 올라와야 한다. 그리고 성문 옆의 벽체가 안쪽으로 꺾여있기도 하고 주변에 치가 설치되기도 하여 측면에서 성문을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동문은 남쪽에 안으로 꺾인 벽이 있어 치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남문 서쪽에는 9호 치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절벽이다. 서문 동쪽에는 4호 치가 있고 북문 서쪽에는 1호 치가 있다. 그리고 동문 계곡 입구의 평지에는 따로 벽체[攔馬墻]를 쌓아 적군의 직접적인 성문 공격을 막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동문까지 모두 3열의 구불구불한 벽체를 쌓았다. 제3열의 벽체 옆에는 적대敵臺도 설치했다. 이러한 벽체는 산 자체와 함께 '옹성'의 역할을 하여 동문의 방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산성 동쪽에는 인공으로 절벽을 조성하고 그 위에 다시 성벽을 쌓았다.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북벽, 서벽, 남벽에는 9기의 대형 치를 설치했다. 치 사이 간격은 대체적으로 화살의 사정거리 이내이다. 산세가 험한 동벽에는 두 곳에 안으로 꺾인 벽을 만들어 마찬가지로 성벽 방어의 기능을 강화했다. 성벽 자체도 설형楔形과 능형棱形 석재를 섞어 서로 끌어당기도록 설계했다. 또 성내에서는 양쪽으로 홈이 파인 돌[雙槽石]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성벽 위에 여장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벽 내측으로는 성벽을 보호하는 경사진 축대를 쌓았고, 이 축대를 통해 사병들은 신속하게 성벽에 오를 수도 있었다.

성내 Ⅰ구역과 Ⅱ구역은 지대가 평탄하다. 이곳에서는 모두 41기의 주거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반지혈식이고 토축 혹은 석축의 온돌 시설도 확인되었다. 이는 전시에 사람들의 생활과 휴식을 담보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Ⅱ구역에서는 석축 저수 시설이 설치되었고, 성내에서는 모두 5곳의 배수 시설도 확인되었다. 이는 성문이나 성벽이 산에서 유출되는 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또 북문과 동문의 배수로는 비교적 크지만 입수구는 물이 되돌아 흐르게 설계했고, 출수구에는 깊은 구덩이를 파서, 적들이 배수로나 함동涵洞을 이용하여 성내로 진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상 분석에 근거하면 고구려가 채택한 성을 이용한 방어체계 건설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규모가 큰 성을 중심으로 두고 중형, 소형 성이 이에 호응하여 일정 구역을 중첩하여 보호하는 방어체계이다. 석대자산성은 상백관성지上伯官城址(현도성玄菟城), 고이산산성(신성), 최진보산성(남소성南蘇城), 탑산산성塔山山城(개모성蓋牟城)등과 비교적 가까워, 공동으로 신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서북부 다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역 방어 체계는 고구려 서부 방어선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둘째, 다중 경보 시설을 구축하여 최전선에서 성까지 이어지는 전략 방어 라인의 길이를 연장시켰다. 석대자산성에는 성 내외에 다중 경보 시설이 설치되었고, 특히 성 밖의 경보 시설은 석대자산성의 전략 방어 라인을 효율적으로 늘려, 충분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10여㎞ 밖의 적정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구려의 일반적인 중, 대형 산성 주위에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위성이나 보루(초소)가 설치되어 외곽의 경보 시설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외곽 경보 시설은 중심 성지의 방어를 위한 경계망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셋째, 중대형 산성은 그 설계 단계부터 방어 시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각각의 산성은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방어 주체이다. 석대자산성 성내 망대에서는 항시 적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성 내에는 생활 시설도 완비되어 있다. 폐쇄식의 높고 큰 성벽은 천연 지세를 충분히 이용했다. 합리적으로 설계

된 치, 성벽 밖의 도로를 막는 벽체, 안으로 꺾인 벽체 등을 통해 성문 방어를 강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방어 시설은 산성의 장기적인 방어를 보장하는 것이며, 고구려가 얼마나 성내 방어 시설을 중시했는지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赵晓刚 · 王海, 2014, 「石台子山城防御体系探究」, 『东北史地』3, 26–29.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08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고구려 산성 성벽 석동石洞의 기능에 대한 시론

试论高句丽山城城墙上石洞的功能

주 제 어 고구려
산성
석주동
배차목
결환망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시기 산성은 120기가 넘는다. 그 가운데 성벽에서 석동이 발견된 산성은 총 7기가 있다. 각각 신빈新賓 흑구산성黑溝山城, 환인桓仁 고검지산성高儉地山城, 오녀산성五女山城, 집안集安 환도산성丸都山城, 패왕조산성覇王朝山城, 서풍西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 철령鐵嶺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 등이다.

석동은 성벽에 몇 개 혹은 열 몇 개씩 줄지어 분포하고 형태는 정방형이거나 장방형이다. 정방형은 한 변의 길이가 0.2~0.4m 사이이고 장방형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0.15~0.3m, 너비는 0.2~0.35m, 간격은 1.45~2m이다.

석동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첫째는 석주동石柱洞이라는 견해로, 이는 구멍 속에 원래 나무 기둥을 세워 곤목뢰석滾木擂石을 설치하는 용도였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만궁彎弓이나 쇠뇌를 설치하는 장소로 보는 견해이다. 셋째는 구멍 속에 말뚝을 세우고 그 위에 가로로 판목을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성벽의 높이 및 방어력을 높이는 용도라는 견해이다.

7기 산성에서 석동이 있는 성벽은 가장 좁은 것이 1m 이하, 가장 넓은 것도 3.5m에 불과하여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너비 정도이다. 또한 석동은 각 산성의 인공 성벽에서 발견되었는데 인공 성벽이 있는 곳은 전체 산성 중 가장 방어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석동이 방어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 위 세 가지 견해는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위의 두 번째 견해는 여장의 높이가 낮아 군졸을 보호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여장의 두께, 성벽의 높이, 그리고 여장 내에서 관찰 가능한 시야, 쇠뇌의 사정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쇠뇌의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이는 주관적인 상상일 뿐 고구려 산성 방어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견해에서는, 곤목을 묶은 끈 한쪽은 석동에 세운 기둥에 묶고 다른 한쪽은 여장에 일정 간격으로 뚫린 구멍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7

그 림 1. 오녀산성 동벽 제5단 단면도
1) 표토
2) 배토
3) 성벽
4) 여장
5) 석동
2. 곤목뢰석 묘사도
3. 요동성도(요동성총)
4. 전붕 설치 방식 묘사도

표 1. 석동 발견 현황표
2. 석동 발견 성벽의 일부 제원표

기의 고구려 산성 조사보고서에는 어디에도 여장에 구멍이 있다는 설명이 없고, 설령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멍은 활을 쏘거나 적의 동정을 관찰하는 용도이지 끈을 통과시키는 용도는 아니다. 게다가 곤목을 설치하고 다시 돌을 쌓아두는 작업은 인력과 시간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작업인 반면에 지속성을 갖지는 못하는 방어 시설이다. 따라서 산성의 방어에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여장의 높이를 높이고 강화하는 기능이라는 견해는, 『책부원귀冊府元龜』, 『신당서新唐書』, 『구당서舊唐書』 등 사서에 기록된 당의 투석차를 비롯한 기타 공격 설비와 이를 방어하는 고구려 산성의 방어 설비 관련 내용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벽 위 석동에 세운 기둥은 세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데, 하나는 전붕戰棚(성벽 위에 세운 방어용 임시 누각)을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폭이 좁고 낮은 여장 자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목책 즉 배차주排叉柱(열을 지어 세워놓은 나무 기둥)가 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끈으로 엮은 그물을 고정하는 기둥이 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제2, 제3의 기능은 문헌에서도 확인되고 구축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고고 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백제 몽촌토성夢村土城 외성벽에서도 목책을 세우는 2열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제1기능은 문헌에서만 확인되었고 구조가 제2, 제3기능보다 복잡하여 앞으로 더 많은 발굴 조사를 통한 검증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각 산성에서 발견된 석동의 숫자는 동일하지 않고, 심지어는 1개만 발견된 경우도 있어, 석동의 숫자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담당했는지 여부, 석동 수량과 위치 사이의 관계 등은 앞으로의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赵俊杰, 2008, 「试论高句丽山城城墙上石洞的功能」, 『博物馆研究』1, 59–64.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2
간행물명 『고고여문물』1
『考古与文物』1

고구려 산성 성벽 내측 주동柱洞의 기능에 대한 재론

再论高句丽山城城墙内侧柱洞的功能

주 제 어 한국 고구려 산성
보루
주동
성책
전쟁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길림대학 기금 업무비 항목 (2011QG006)

동북 지역 고구려 산성의 일부 석축 성벽에서는 정연하게 배열된 석동石洞이 발견되었는데, 이 석동의 기능에 대해서, 성벽 방어용 나무나 뇌석을 지지하는 용도라는 설, 쇠뇌 받침 설, 목책 가설 용도라는 설, 성벽 축조 당시 사용된 기둥 구멍이라는 설 등이 있다. 필자는 그 가운데 목책을 세우고 그물을 엮는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성지에 따라 주동의 배치 수량과 기능에 차이를 보이고, 성벽 내측에 주동이 설치된 산성의 축성시기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최근에 발견된 한국의 고구려 성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고구려 성지는 주로 경기도京畿道 북부에 위치하고 일부 충청북도忠淸北道에서 발견된 성지도 있다. 성격은 대부분 산성(보루)이다. 경기도의 산성(보루)은 임진강臨津江 유역, 양주분지楊州盆地, 한강 유역에 집중 분포하고 그 가운데 주동이 발견된 산성(보루)은 한강 유역이 가장 많다.

한강 유역의 보루는 한강 북안의 아차산峨嵯山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망우산보루군忘憂山堡壘群, 용마산보루군龍馬山堡壘群, 아차산보루군峨嵯山堡壘群, 홍련봉보루군紅蓮峰堡壘群, 구의동보루군九宜洞堡壘群 등 모두 20여 기에 달하는데 대부분 산 정상에 위치하여 건너편의 백제 초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風納土城과 몽촌토성夢村土城을 조감할 수 있다. 보루 둘레는 300m를 넘지 않아 소형 산성에 속하고, 보루 내부에서는 늦은 시기의 특징을 보이는 고구려 토기와 철기가 발굴되었다. 시루봉보루, 홍련봉 제1, 제2보루의 성벽에서 주동이 발견되었는데, 이 보루들은 고구려가 한성漢城을 점령했던 475~553년 사이에 축성되었다.

시루봉보루에서는 석성벽 내측에서 40여 개의 주동이 발견되었다. 내부에는 나무 기둥 흔적이 남아있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목책열로 보았다. 홍련봉

그 림 1. 한강 유역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 분포도(고려대학 고고환경연구소 제공)
2. 시루봉보루 평면도(원 보고서 도면을 근거로 약간 수정)
3. 홍련봉 제1보루 전경(주동은 화면 좌측에 비교적 집중 분포)
4. 홍련봉 제2보루 전경 및 확대한 주동 사진
5. 당포성 성벽 내측에서 발견된 주동
6. 남성골산성 북쪽 모서리 유구 분포도(원 보고서 도면을 근거로 약간 수정)

제1보루와 홍련봉 제2보루에서도 나무 기둥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역시 목책열로 보았다.

충북 청원군淸原郡의 남성골산성에서는 안팎으로 나란히 배열된 2열의 주동이 발견되었다. 내측 주동은 내측 평지 바깥으로, 외측 주동은 외측의 급한 경사면 아래에 위치한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성책 유구로 보았다.

현재 한국에서 발견된 보루의 주동은 각 성지에 따라 크기가 다르나 각각의 성지 내 주동의 크기는 동일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내 고구려 산성에서 발견된 주동과 동일하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첫째는 중국 내 고구려 산성의 주동이 대부분 석동에 방형 구멍이며 석축 성벽 내부 혹은 석축 여장 하부에 위치하여 석주동石柱洞의 조성이 성벽 축성과 동시에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에, 한국내 고구려 산성의 주동은 당포성堂浦城을 제외하면 모두 토동土洞이고 원형이며 성벽 내측이나 성벽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다. 층위상으로 주동은 보루에서 성벽보다 시기가 빠르다. 둘째는 중국의 경우 주동 숫자가 적어 보통 10개 이내이나, 한국의 경우는 홍련봉 제2보루를 제외하면 모두 30개가 넘는다. 셋째, 중국의 경우 주동이 보통 산성 방어의 중점 지역에 위치하고, 여장과 함께 이용되며 수량과 분포가 지형의 변화에 따라 다르고, 각 성벽의 석동, 여장, 성벽이 독립된 방어 체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동이 모두 유적의 외곽 지형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중간에 빈 곳이 없어 전체가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넷째, 오녀산성五女山城의 주동 옆에서는 뚜껑이 발견되어 이곳에 세우는 기둥이 전시에만 임시로 사용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뚜껑이 발견된 경우가 없고 오히려 주동 내에서 나무 기둥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주동 내에 나무 기둥(목책)이 항상 꽂혀있던 시설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남성골산성에서 발견된 내외의 2중 기둥과 유사한 유구가 백제 몽촌토성에서도 발견되었으나 중국 내 고구려 산성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

당포성 성벽의 석동은 중국 내 고구려 산성의 석동과 형태 및 기능이 모두 동일할 것이나, 기타 산성(보루)의 주동은 상대 연대가 더 이른 것으로 산성 성벽 축성 이전에 성벽과 동일한 장벽 역할을 담당한 '성책'으로 보인다. 홍련봉 1, 2보루에서는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의 흙에서 판축의 흔적이 확인되어, 목책이 판축 당시 목판을 고정하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기의 고구려 산성은 석축 성벽이고, 늦은 시기 혹은 이른 시기에 축성하여 만기에 증축한 산성에서는 판축 혹은 토석혼축 성벽이 등장한다. 석주동의 응용은 고구려 조기 산성의 중요 특징이나 봉황산성鳳凰山城, 당포성을 보면 5, 6세기에도 석주동이 고구려 산성의 방어체계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주동土柱洞은 모두 한국 내 고구려 산성에서 발견되

었는데 목책을 세우는 용도였고, 주동과 성벽의 축조에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으며,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문헌자료까지 분석해보면 이러한 산성(보루)의 시축 연대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늦어 5세기 중엽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주동의 출현을 근거로 해당 산성이 고구려 만기 산성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赵俊杰, 2012,「再论高句丽山城城墙内侧柱洞的功能」,『考古与文物』1, 74–78.

저 자 장위펑姜雨风
흑룡강성 문물고고
연구소 흑하분소

연 도 2015
간행물명 『흑하학간』8
『黑河学刊』8

고구려 성벽 석동石洞 재 탐구—문헌자료를 통한 석동 기능 연구

高句丽城墙石洞再探—从文献角度对高句丽筑城石洞功用进行探讨

주 제 어 고구려 산성
문헌
방어
석동

고구려 산성 성벽의 석동石洞은 다수의 산성에서 발견되었으나 후대까지 계속 설치되는 치나 옹성 같은 일반적인 방어 시설과는 달리 후대까지 지속되지 않았고, 심지어 동시기의 신라, 백제 유적에서도 석동과 유사한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동이 발견된 고구려 산성으로는 환인桓仁 오녀산성五女山城(7개), 고검지산성高儉地山城(9개), 패왕조산성覇王朝山城(18개), 서풍西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남벽 6개, 북벽 1개), 대련大連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5개) 등이 있고, 신빈新賓 흑구산성黑溝山城, 개현蓋縣 고려성산성高麗城山城, 보란점시普蘭店市 외패산성巍覇山城, 후성산산성後城山山城, 집안集安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 수암岫巖 낭랑산성娘娘山城, 봉성鳳城 봉황산산성鳳凰山山城 등에서도 석동이 발견되었다.

석동의 기능에 관해서는 성벽 아래로 굴리는 목재를 묶는 용도, 쇠뇌를 설치하는 용도, 목책의 주동柱洞, 기를 꼽는 자리 등 모두 네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문헌기록만을 근거로 석동의 기능을 고찰해보면, 방어 설비의 일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고대 도시의 방어용구 중에는 뇌구檑具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문헌에 소개된 뇌檑로는 목뢰木檑, 니뢰泥檑, 전뢰磚檑, 차각뢰車脚檑, 야차뢰夜叉礧가 있다. 명칭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고대의 각종 뇌구에 사용된 재료는 딱딱한 나무와 흙, 전돌 등이었고, 목뢰와 야차뢰는 사방에 칼을 꽂아두기도 했다. 뇌구는 즉 성벽을 올라오는 적을 공격하는 무기였다.

뇌구와 유사한 방어 설비로 '낭아박狼牙拍'이 있다. 이는 나무 판에 철정 2,200개를 박고 사면에도 칼날을 하나씩 박았으며, 앞뒤로 두 개의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끈을 통과시켜 성 위에 걸어두었다가 적이 성벽을 오르면 철정이 박힌 면을 아래로 하여 적을 향해 내려뜨리는 무기였다. 이 무기는 전체 중량이 커서 도르래로 끌어올려 반복해서 사용했다.

뇌구와 낭아박은 모두 성벽을 오르는 적을 살상하는 무기였으나, 뇌목檑木은 낭아박과 달리 성벽 아래 산의 경사면까지 굴러가게 하여 산을 오르는 적까지 대적할 수 있는 무기였다. 패왕조산성覇王朝山城 북벽 동단 여장 아래에서 발견된 1열의 18개 석축 주동은 당시 고구려인들이 북면 산지로 오르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뇌목 유형의 방어 설비를 가설했던 말뚝 구멍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석동에 목재 혹은 석재 말뚝을 넣고 먼저 도르래를 이용하여 말뚝 사이에 뇌목을 준비해두었다가 전투 시에 이를 낙하시켰을 것이다. 냉병기시대의 수성전을 위해 고구려는 망대, 각루를 설치하여 높이의 우위를 차지했고, 또 나무나 돌을 굴려 방어력을 최대로 증강시킨 것이다.

姜雨风, 2015, 「高句丽城墙石洞再探–从文献角度对高句丽筑城石洞功用进行探讨」, 『黑河学刊』8, 61–62.

저 자 저우샹융周向永
연 도 1994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고구려 금산성金山城 고찰

高句丽金山城考

금산金山 전투는 당唐의 제6차 고구려 정벌 전쟁 가운데 핵심이 되는 전투였다.

이 전투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아들 남생男生이 국내성國內城으로 달아나 당에 원병을 요청하면서 발생한 전투로, 당나라는 방동선龐同善, 고간高侃 등을 파견하여 연남생과 함께 고구려를 치게 했고, 당시 설인귀薛仁貴도 후방에서 지원하게 했다. 방동선 등이 먼저 신성新城에 도착했는데 밤에 습격을 받자 설인귀가 지원하여 이들을 구했다. 그 뒤 방동선은 다시 금산으로 진격했으나 역시 고구려 군사에 패퇴했고, 이에 설인귀가 다시 고구려 군대를 맞아 큰 승리를 거두고, 바로 남소南蘇, 목저木底, 창암倉巖 등 세 성을 함락시켰다. 금산의 위치에 대해 기존에는 고구려 신성의 동북쪽으로 현 무순撫順과 철배산鐵背山 사이의 장당章黨 부근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신성을 기준으로 할 때 남쪽에 요동성遼東城, 안시성安市城이 있고 동쪽에 남소성, 목저성이 있으며, 서쪽에 개모성蓋牟城과 대요수大遼水가 있으니, 금산성金山城은 신성의 북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 즉 현 무순撫順 고이산성高爾山城의 북쪽에서 발견된 대형 고구려 산성으로는 서풍西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과 철령鐵嶺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이 있다. 리원신李文信의 고증에 따르면 전자는 고구려 부여성夫餘城이라 하고,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금산으로 비정될 수 있는 곳은 최진보산성 밖에 없다.

설인귀는 방동선을 쫓아 신성을 공격한 금산성의 고구려군을 중간에서 맞아 크게 이기고 기세를 몰아 금산성까지 함락시킨 후 기병 3천명만 부여성으로 보내 그곳까지 공격했다. 금산성과 부여성 가운데 고구려가 방어의 핵심으로 꼽은 곳은 금산성이었다. 현재의 최진보산성은 남벽이 절벽 위에 축조되었고, 절벽 아래는 범하汎河가 흐른다. 인공 둑을 만들어 계곡 입구도 막았고, 남문 옆에는 암문도 있으며 안팎으로 옹성을 설치하여 방어에는 유리하

나 공격은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 금산성과 부여성은 순치脣齒 관계라 이처럼 방어력이 강한 금산성이 무너지자 부여성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여성이 무너지자 고구려 서북쪽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설인귀와 방동선은 여세를 몰아 남소, 목저, 창암 세 성까지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당나라와 고구려 모두 금산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를 중시했다. 이처럼 중요한 군사적 의의를 갖는 성곽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현재의 지리를 고려해도 최진보산성 밖에는 없다.

금산 전투 당시 당나라 군대의 이동 노선을 살펴보면, 먼저 신성에서 시작하여 금산으로 이어지고 후에 부여까지 갔다. 이 노선이 바로 사서에 언급된 수당隋唐 2대에 걸친 고구려 정벌 당시의 부여도扶餘道이다.

마지막으로, 최진보산성 서남쪽 10㎞ 지점에 작은 고구려 산성이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이름이 '망보산望寶山'이다. '금산'과 '보산寶山'은 의미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망望'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역시 고구려 금산성이 철령 최진보산성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

周向永, 1994, 「高句丽金山城考」, 『博物馆研究』3, 32–35.

저 자 저우샹융周向永
철령 박물관
연 도 2011
간행물명 『동북사지』1
『东北史地』1

서풍西豐 성자산城子山, 철령鐵嶺 최진보催陣堡 두 산성 내 수졸戍卒 영지營地 관련 문제

西丰城子山、铁岭催阵堡两山城中戍卒营地的相关问题

주 제 어 서풍 성자산
철령 최진보
수졸 병영지
말갈
당려 전쟁

서풍西豐 성자산城子山과 철령鐵嶺 최진보催陣堡 두 고구려 산성에서는 모두 다수의 원형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이 구덩이들은 규모가 대체적으로 비슷하여 직경은 8~10m, 현존 깊이는 약 2m 전후이다. 구덩이들은 하나씩 서로 이어져 무리를 이루고 있다. 서풍 성자산에는 성내의 남북방향 구릉 정상 남쪽으로 모두 18기의 구덩이가 위치한다. 구릉은 북쪽으로 산성 북벽 중단에 이어지고, 구덩이 주변으로는 망대와 저수 시설이 있다. 철령 최진보에는 성내 중앙의 동서방향 산등성이 동쪽으로 8기의 구덩이가 위치한다. 서로 벽을 맞대고 이어져 있으며, 서쪽으로 서성벽이 있고 동쪽으로는 저수 시설이 위치한다.

두 산성의 성벽 내측 일부 구간에서는 이상의 구덩이와 유사한 분포 양식을 보이나 규모는 약간 작아 직경이 2m 전후, 깊이는 1m가 되지 않는 구덩이들도 발견되었다. 보통 2~3기가 서로 맞붙은 형태로 위치한다. 위치는 성벽에 바로 붙어있다. 조성 방식은 땅을 판 경우도 있고, 돌을 쌓은 경우도 있다. 최진보산성 북벽의 동서 두 구간에서는 돌을 쌓아 조성한 유구 3기가 발견되었는데, 이처럼 성벽에 바로 붙어서 조성된 소형 구덩이는 주변에 저수 시설도 없고, 지세도 험난하여 대체적으로 적을 감시하는 초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산성 가운데 이와 같은 대형 구덩이가 발견된 산성은 고검지산성高儉地山城, 나통산성羅通山城 등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 구덩이 유구가 고구려 산성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혈거 문화는 동북 지역 고대 민족 가운데 숙신肅愼 계통의 전통 주거 형식이다. 사서에 따르면, 숙신, 물길勿吉, 말갈靺鞨이 모두 혈거 형식이었다. 말갈을 중심으로 한 발해의 주거 형식 역시 아직 반지하식 주거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동인同仁 문화는 흑수말갈黑水靺鞨의 문화로 보고 있는데, 1973년 이 유적에서 발견된 반지하식 주거지의 조성 방식과 구조 등은 서풍, 철령 두 산성 내 대형 구덩이의 복원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혈거 방식은 숙신의 후예인 명대明代 여진족女眞族까지도 이어졌다. 고구려 산성 내의 이러한 혈거 방식의 대형 구덩이 유구는 고구려 경내에 고구려 민족과는 거주 방식에 차이가 나는 다른 민족이 다수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민족 가운데에서도 고구려와 함께 당唐에 대항했던 말갈인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말갈인은 고구려와 연합하여 다수의 중요 전장에 참여했다. 당태종唐太宗이 안시성安市城을 칠 때, 고구려 북부의 욕살褥薩 연수延壽와 혜진惠眞 등은 말갈 병사 15만을 이끌고 참전했다. 이들의 원 주거 지역은 당연히 북쪽이고, 오녀산五女山이나 환도산丸都山을 기준으로 할 때 서풍 성자산과 철령 최진보는 모두 고구려의 북방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구려 북부 욕살이 당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이끌고 내려온 군사들은 아마도 서풍과 철령을 포함한 북방 지역의 말갈인들이었을 것이고, 이는 또한 서풍과 철령 두 산성에서 발견된 대형 구덩이 유구가 당시 말갈인들이 생활하던 주거 유구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서에 따르면 말갈은 모두 7부가 있었고, 그중 백산말갈白山靺鞨은 시종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다. 고구려 만기 당나라에 대항하던 다수의 말갈인들이 바로 백산말갈이었을 것이고, 그들 중 다수가 요동遼東의 고구려 성지에 주둔했을 것이다. 혈거에 적합한 깊은 구덩이 유구가 서풍 성자산산성과 철령 최진보산성 등 일부 산성을 제외한 다수의 고구려 성지에서 발견되지 않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周向永, 2011, 「西丰城子山、铁岭催阵堡两山城中戍卒营地的相关问题」, 『东北史地』1, 35–38.

저 자 정원철鄭元喆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09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館研究』3

고구려 산성 옹성의 유형

高句丽山城瓮城的类型

주 제 어 고구려
산성
성문
옹성
국내성
오녀산성
환도산성

고구려 산성의 옹문은 대체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방어하는 성문에 설치되었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암문에서도 발견되었다. 고구려의 평지성인 국내성國內城에서도 모두 6곳의 옹성이 확인되었는데, 그 형태에 따라 3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형은 '요凹'자형으로 성문 양쪽에 각각 치를 설치한 형태이다. 북벽 중문과 서문 그리고 남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Ⅱ형은 '?'형이다. 성문 한쪽 성벽을 문도 밖으로 쌓아 마치 직각 곡척의 '?'형으로 만들고 다른 쪽 성벽에는 짧은 치를 조성한 옹성이다. 동벽 남문과 서벽 북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Ⅲ형은 '이二'자형이다. 양쪽 성벽을 직선으로 쌓고 교차지점에 앞뒤로 일정한 공간을 만드는 옹성 형태이다. 서벽 남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산성의 옹성은 평지성과 달리 지형의 영향을 받아 그 형태에 차이가 많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산성의 옹성은 크게 A, B, C, D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형은 옹성 전체 형태가 옹甕의 저부와 같이 성문 내측으로 오목한 형태이다. 성문 주변의 지형이 'U'자형이라 지형 자체가 옹성 구조를 띤다. 이 유형은 다시 Aa와 Ab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Aa형은 국내성 Ⅰ형과 같은 '요'자형 옹성이다. 그러나 국내성의 직각 치와 달리 이 유형에서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다. 성문 양쪽에 평행하게 돌출된 지형 위에 성벽을 쌓아 3면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형태이다. 환도산성丸都山城 남문, 오녀산성五女山城 서문, 태자성太子城 북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Ab형은 옹성의 전체 형태가 'U'자형에 가깝다. 이 유형은 옹성 외측 성벽의 유무에 따라 다시 2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U'자형의 계곡 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옹성으로 고구려 산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고이산성高爾山城 남문, 나통산성羅通山城 서성 남문,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 남문 외측 옹성, 용담산성龍潭山城 서문,

그 림 1. 국내성 평면도(1913년)
2. 국내성 Ⅰ형 옹성
3. 국내성 Ⅱ형 옹성
4. 국내성 Ⅲ형 옹성
5. 환도산성 남문
6. 오녀산성 서문
7. 나통산성 서성 남문
8. 최진보산성 남문
9. 연길 성자산산성 북문
10. 패왕조산성 북문
11. 능한산성 동문
12. 고려성산산성 서벽 북문
13. 환도산성 서남문
14. 서성자산산성 서문
15. 청룡산성 서문
16. 오녀산성 동문
17. 오고성산성 동북문
18. 청룡산성 남문
19. 고려성산산성 동문
20. 성산산성 후성 남문

득리사산성得利寺山城 동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Ⅱ형 옹성은 형태면에서 Ⅰ식과 유사하나 옹성 외측에 따라 성벽을 쌓아 2중문 구조를 구성한다. 연길延吉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북문, 동문, 서문에 모두 이 형태의 옹성이 있다.

B형은 문도 외측에 곡척형 성벽을 추가한 옹성이다. 세부적으로 3형으로 구분된다. Ba형은 국내성 Ⅱ형 옹성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성문 한쪽에 곡척형의 옹성을 쌓았고 다른 쪽에는 치를 쌓았다. 이 유형은 다시 2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Ⅰ식은 성문 문도 외측으로 직각의 곡척형 옹성을 쌓은 '?'형이며 옹성 내측은 장방형을 띤다. 패왕조산성覇王朝山城 북문, 흑구산성黑溝山城 동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Ⅱ식은 직각이 아니라 원형의 곡척 모양으로 옹성 내부가 반원형이 된다. 득리사산성 서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북한의 능한산성凌漢山城 동문과 서문, 황룡산성黃龍山城 남문 역시 이 유형이다. Bb형은 Ba형 Ⅰ식과 같이 옹성 성벽은 직각 곡척 형태이나 성문의 내측에 위치한다. 태자성 내성 성문에 남아있고, 고려성산산성高麗城山山城 서벽의 서문 북쪽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규모가 작아 암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c형은 성문 외측으로 불규칙한 모양의 성벽이 돌출된 형태로 환도산성 서남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다만 이곳에서는 건륭통보乾隆通寶, 도광통보道光通寶 등 청대淸代 유물이 출토되어 환도산성이 폐기된 후 후대에 다시 이용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옹성의 정확한 형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옹성 내부 형태는 반원형에 가까운 변형된 주머니 모양이다.

C형은 국내성 Ⅲ형처럼 양쪽 성벽이 둘로 어긋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다시 2형으로 구분되는데, Ca형은 국내성 Ⅲ형과 동일한 개념으로 축성된 옹성이나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서풍西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 서문, 청룡산성靑龍山城(장루자산성張樓子山城) 서문, 용담산성 서문, 고려성산산성 남문 등 그 예가 많은 편이다. Cb형은 문도에서 교차하는 두 성벽 중 하나를 곡척 형태로 자른 모양이다. 2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Ⅰ식은 문도 한쪽 성벽이 직각 곡척 모양으로 'V'자 형태이다. 오녀산성 동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Ⅱ식은 옹성 외측 성벽의 형태가 둥근 고리 모양이고 성벽 끝은 외측 성벽이 안쪽으로 평행하게 축성되어 양쪽 성벽 사이의 공간이 문도를 형성하는 옹성이다. 오고성산성吳姑城山城 동북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D형은 문도 양쪽 성벽 끝이 2열 혹은 3열로 갈라져 문도가 앞뒤로 2개처럼 보이는 구조이다. Ab형 Ⅱ식과 유사하나 그에 비해 옹성의 규모가 작고 옹성 내부도 좁거나 긴 형태이다. D형은 다시 3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Da형은 양쪽 성벽 끝이 각각 2열로 갈라져 문도 앞뒤로 돌출된 옹성이다. 청룡산성(장루자산성) 남문, 최진보산성 남문이 이 유형에 속한다. Db형은 Da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성문 중간에 별도의 흙더미를 쌓아올려 문도를 둘로 나누

었다. 고려성산산성 동문이 유일하다. Dc형은 성산산성城山山城 후성後城 남문에서 확인되는데, 토축된 Da, Db와 달리 성산산성 후성 남문은 석축했다. 전체 형태는 문도 양쪽 성벽이 각각 2열로 나뉜 2중문 구조이고, 서쪽에는 치가 더해져 3열로 갈라진 모양이다.

A, B, C형은 국내성의 옹성과 건축 개념이 동일하다. 국내성은 이미 상당히 선진적인 옹성 형태이고 이는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국내성 축성 시기까지 축적된 풍부한 옹성 건축 경험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D형 옹성은 국내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형식으로 국내성 건축 이후 새롭게 등장한 옹성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郑元喆, 2009, 「高句丽山城瓮城的类型」, 『博物馆研究』3, 54–59.

저 자 천다웨이|陈大为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2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무순撫順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 구조, 배치 분석

抚顺高尔山山城结构布局辨析

그 림 1. 무순 고이산산성 구조, 배치도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은 무순시撫順市 교외에 위치한 고구려의 대형 산성이고 변경의 중요 요충지이다. 이 산성의 구조에 대해서 일본의 와타나베 산조우渡邊三三는 중심성 하나에 지성支城이 셋인 '4성城'설을 주장했으나, 리원신李文信과 1964년에 발표된 「요령 무순 고이산고성지 조사 약보고서[遼寧撫順高爾山古城址調査簡報]」에서는 '1성'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1987년 『요해문물학간遼海文物學刊』 제2기에 발표된 「요령 무순 고이산산성 발굴 약보고서[遼寧撫順高爾山山城發掘簡報]」에서는 다시 와타나베의 견해를 따라 '동성東城이 중심이 된 여러 성의 연합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이산산성은 산간 협곡을 이용하여 주위의 산허리에 성벽을 쌓았다. 내부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남, 동, 북에 문이 있고 남문이 정문인 동시에 배수구이기도 하다. 성 전체 평면은 타원형이고 사방으로 일부 방어 시설을 구축했다. 산성 서남쪽으로는 큰 계곡이 산성에 맞닿아 있다. 산성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 계곡 남, 서, 북쪽에 반원형으로 벽을 쌓아 산성 북쪽 '장군봉' 아래 성벽과 연결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 계곡의 동단, 즉 남문에서 서남쪽으로 약 400m 지점에 북향의 토벽이 있다. 현존 길이는 약 100m이고 높은 곳은 약 2m이며 상부 너비는 1m이다. 서쪽은 가파르고 동쪽은 완만하며, 남쪽 산 아래에서 북쪽으로 상술한 계곡을 넘어 산성 서벽과 연결되고 있다. 산성 남쪽에도 동서로 약 200m 길이의 토벽이 있다. 이 토벽은 동쪽으로 산성 남벽의 서쪽 방향 끝과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현재 확인되는 남면 산허리의 동단과 연결되어 남문 바깥에 동서 약 500m, 남북 약 200m의 넓은 활동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산성 동남쪽 모서리에는 동서방향의 산허리가 있는데 평지보다 약 20m 높게 올라와 있다. 동쪽으로 '무서하撫西河'에 근접해 있고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이 혼하渾河 북안의 동서방향 교통로이다. 이런 지세를 고려하여 이

작은 산허리에도 동서방향 약 300m, 남북방향 약 150m의 타원형 성벽을 쌓았다. 산성 동쪽은 성벽이 높고 바깥은 바로 절벽이어서 다른 방어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없었다. 북문은 좌우의 성벽이 '동벽은 가로, 서벽은 세로'로 서로 교차되게 설치되었다. 북벽 서북쪽 모서리 바깥으로는 동서로 약 140m, 남북으로 약 50m의 각대가 있다(소위 '설상소성舌狀小城'이라 부르는 시설이다).

고이산성 바깥에 설치된 이상의 시설물들은 모두 성 바깥의 전망 및 방어 시설로 산성의 제1방어선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시설물들은 다만 산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성의 보조 시설과 장벽일 뿐으로, 이러한 산성 바깥의 전망 시설, 방어 시설을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와타나베의 '4성'설 혹은 발굴 보고서의 '위성' 등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陈大为, 1992,「抚顺高尔山山城结构布局辨析」,『辽海文物学刊』2, 45–47, 12, 101.

저 자 천다웨이陈大为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5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요령遼寧 고구려 산성 재 탐구

辽宁高句丽山城再探

그 림 1. 서풍현 성자산산성 평면도
1), 2) 기와편 집중 분포지
3) 묘지
4) 점장대
5) 마도
6) 샘물
7) 환형토벽
2. 요양 암주성산성 평면도
3. 해성 영성자산성 평면도
4. 무순 고이산산성 평면도
5. 개현 고려성산성 평면도
6. 환인 오녀산성 지형위치도

표 1. 요령성 고구려 산성 일람표

고구려는 건국 이후 부단히 외부로 세력을 확장하여 마침내는 요동 지역 전체를 차지했다. 고구려는 수백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그 정권을 공고히 하고 점령지의 발전을 위해 요령 동부 산악지대에 많은 수의 독특한 방어 거점과 산성을 축조했다.

요령 지역에 존재하는 고구려 산성은 약 70~80여 기에 달한다. 일부 소형 산성 및 산 정상의 망대나 초소 등까지 합치면 거의 100여 기에 이를 것이다. 산성은 모두 요하遼河 동쪽 9개 시의 범위 내에 위치한다. 그중 대련大連에 9기, 영구營口에 8기, 안산鞍山, 요양遼陽, 심양瀋陽에 각 1기, 단동丹東에 17기, 본계本溪에 10기, 무순撫順에 13기, 철령鐵嶺에 7기 등이 있다. 산성의 규모와 기능에 근거하면 크게 대, 중, 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산성은 주로 하천과 계곡 옆 수륙교통 요충지의 높은 산과 계곡에 위치한다. 요하 연안의 대형 산성은 대부분 요하 강변에서 멀지 않은 평원과 산악의 접점 지대에 위치한다. 성내에는 넓은 평지가 있고 수원도 있다. 이 산성들은 동북쪽에서부터 서풍西豐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 개원開原 위원보威遠堡(용담산산성龍潭山山城), 철령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 무순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 심양 탑산산성塔山山城, 요양 암주성산성巖州城山城, 해성海城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 개현蓋縣 청석령산성青石嶺山城, 복현復縣 용담산산성龍潭山山城, 그리고 바다에 인접한 금현金縣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까지 약 1천리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요하에서 좀 더 떨어진 하곡의 교통로에는 대부분 중형 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내륙 쪽의 중요 산성으로 최전선에 위치한 대형 산성 뒤편의 제2방어선이다.

소형 산성은 중대형 산성 사이에 끼어있다. 이는 대형 산성의 위성으로 중대형 산성의 귀와 눈이 되는 산성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는 없었다. 중소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형 산성은 상호 연결되어 통일된 관리 체계와 정보 전달의 연합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요동 지역의 일부 중요 산성 사방에는 모두 크고 작은 이러한 상호 연결된 그물망이 존재했다.

산성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양쪽의 높은 산 중간에 계곡이 있는 지형을 이용한 산성으로, 양쪽의 산허리를 자연 장벽으로 이용하고 두 산의 끝 부분에 성벽을 쌓아 서로 연결한 구조이다. 주로 대형 산성이 이런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속칭 의권형椅圈形이라 불리는 형태로 환형의 산허리를 성벽으로 이용한 구조이다. 성벽은 산허리에 축성한다. 계곡 입구는 산성의 주요 출입구가 된다. 보통 중형 산성에서 많이 보이나 일부 대형 산성도 있다. 마지막은 한쪽이 비탈인 산세를 선택하여 깎아지른 한 면은 자연 장벽으로 삼고 나머지 3면은 성벽을 쌓아 연결하는 구조다. 성문과 배수구는 모두 경사면에 조성한다.

산성 내부에는 넓게 트인 산간 계곡이 있어 인공 방어 설비와 병사들의 주거 및 저장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튼튼한 성벽, 충분한 수원과 저수 시설, 성문과 배수 시설, 망대 그리고 성을 둘러싼 마도馬道 등도 갖추고 있다.

성 밖으로는 각대角臺와 같은 성 밖 누대[城外臺], 호형토벽弧形土壁, 교통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성벽[攔馬墻], 성벽 밖으로 성벽을 쌓은 성외성城外城, 성문 외측면과 양쪽 산허리의 성벽을 서로 연결시킨 익장翼墻 등도 있다.

요령 지역 산성의 시대 구분은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하여 크게 조기와 만기로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경계선은 광개토왕廣開土王 시기(391~412)가 된다. 405년 광개토왕이 요동을 점령하면서부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총 263년간은 요동 지역 산성의 수축과 완성기이다. 그 사이에 동북의 부여夫餘에서 서남의 바다까지 이어지는 천리장성도 만들어졌다. 고고 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만기 산성은 다수가 요동 남부에 위치한다. 대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면, 혼하渾河와 태자하太子河 중류 지역을 경계로 무순, 본계 두 도시에서 남으로 가는 각 하류의 중요 교통로 사이에 위치한 산성이 모두 만기에 속한다. 만기의 산성에서는 홍색 승문繩紋 기와, 연화문蓮花紋 방형 전돌, 철촉, 철갑편, 철제 차할車轄 등 만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일부 산성에서는 회색 연주문連珠紋 와당과 개원통보開元通寶도 출토되었다. 조기 산성은 모두 청하淸河, 혼하, 태자하 상류 및 혼강渾江, 부이강富爾江 유역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모두 고구려가 발흥할 당시의 활동 지역이다. 성내에서는 협사홍도편夾砂紅陶片과 회갈색에 수제로 마연하고 활석이 포함된 고구려 조기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만기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에 산성이 등장한 것은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아 산과 계곡을 따라 거주했던 자연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소형에서 대형으로, 간소함에서 복잡함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산성은 원래 높은 산

속에 거주하던 풍속에 기원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집단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고, 방어에도 편리한 산간 계곡을 선택하여 집단의 주거지로 삼았을 것이며, 그 후 이 민족이 발전하고 더 먼 지역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점차 견고하면서도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산성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대형 산성은 당시의 행정 구역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관련 부족 집단을 관할,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대한 지원 및 공격 등 일련의 임무를 담당했다.

陈大为, 1995,「辽宁高句丽山城再探」,『北方文物』3, 55–63.

저 자 천핑陈平
절강성 박물관
연 도 2005
간행물명 『내몽고문물고고』2
『内蒙古文物考古』2

고구려 산성 기원에 대한 초보 분석

试析高句丽山城的起源

고구려 산성의 기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천다웨이陳大爲는 산성이 높은 산에 거주하던 풍속에서 기원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일부 산성에서 보이는 원형 구덩이가 길림성吉林省 구대시九臺市 상하만진上河灣鎭의 산악지대 주거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며, 군락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안전한 장소 혹은 방어에 유리한 산간 계곡을 집단 거주지로 택했을 가능성도 있고, 최종적으로 더 높은 산까지 올라가 거주하면서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산성을 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왕멘허우王綿厚는 요서遼西 지역 청동기 시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고산형高山型 석성石城의 지세 선정, 성벽이 산과 계곡을 따라 불규칙하게 축조되는 모습, 산세와 하천을 충분히 이용하는 성벽 축조 방식의 특징 등이 모두 고구려 산성에 흡수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산성 축조는 선진先秦 시기(심지어는 청동기 시대 조기)이래 중국 북방 특히 동북지방 산지와 초원 민족의 전통 문화 풍속 중 하나였으며, 고구려 산성은 동호족東胡族, 예맥족穢貊族(주로 맥족)이 석축 성벽을 쌓고 적석묘를 조성했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진희李進熙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고지대 취락에서 조선식朝鮮式 산성이 기원했다고 보았고, 니시카와 히로시西川宏도 이 견해를 받아들여 이를 논증했으며, 고지대 취락 혹은 산성을 매개로 부여와 고구려 문화 사이에 계승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고구려 산성 석축 성벽의 기원은 요서, 내몽고內蒙古 지역에서 보이는 돌로 쌓은 고지대 취락에서 찾아야 하고, 토축 성벽의 기원은 중원 신석기 문화의 성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았다. 하야시 나오키林直樹는 고구려의 성벽 토축 기술은 한漢 왕조와의 전쟁에서 빼앗은 한의 토성을 통해 중원의 토축 기술을 배운 결과이고, 석축 성벽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적석총의 형태 변화와 연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밖에 아즈마 우시오東潮와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는 부여의 '성책城柵이 모두 둥글다'라는 기록, 또 실제 자료 가운데 길림성 북부부터 내몽고 부근까지에서 보이는 고지대의 환호環壕 책렬柵列 취락 등이 고구려 산성의 원시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쟁을 대비한 고구려 산성과 주거용인 고지대 취락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성의 석축과 토축에 대해서는 기원전 1세기 초에 건국한 고구려인이 당시에 이미 연진燕秦 장성과 한의 현성縣城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벽 축조 방법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고지대 취락은 고구려가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은 지리 환경에서 거주했다는 사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고구려 민족의 발상지인 혼강渾江과 압록강鴨綠江 중류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유적은 대부분 강 양안의 대지臺地, 계단지, 경사지에 분포하는데, 이들 유적은 고구려 선민들이 남긴 것이다. 즉 고구려의 선조들은 고지대 취락을 형성하고 거주했던 것이다. 초기 산성은 후기에 나타나는 군사, 행정의 기능보다는 주거 문제를 먼저 고려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선민들이 강 양안 대지, 계단지, 경사지에 조성한 주거지가 고구려 산성의 원시 형태일 가능성이 더 크고, 실제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대지, 계단지, 경사지에 조성된 성지는 그 건축 방식이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산성과 동일하다. 다만 지세가 완만하여 이를 산성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조기 주거지의 형태를 계승, 발전시킨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산성의 기원은 마땅히 고구려 선민이 활동했던 지역 내에 남긴 산악 주거지에서 찾아야 한다. 고구려 선민은 예맥 계통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왕멘허우의 주장처럼, 고구려 산성은 예맥족(주로 맥족)의 석축 성벽과 적석총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陈平, 2005, 「试析高句丽山城的起源」, 『内蒙古文物考古』2, 82–84.

저 자 퉁다修达
무순시 문물관리위원회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신빈新賓 오룡五龍 고구려 산성

新宾五龙高句丽山城

그 림 1. 오룡산성 지리 위치도
2. 오룡산성 방어체계도
3. 오룡산성 유물

오룡산성五龍山城은 신빈현新賓縣 서북쪽 상협하진上夾河鎮 득승보得勝堡 저수지 동쪽에 위치한다. 산세를 따라 축성하여 평면은 이등변삼각형에 가깝다. 북쪽과 동쪽은 높이가 수 십m에 달하는 절벽이고 서쪽이 가장 높으며 남쪽도 가파른 경사지이다. 서, 북, 동, 동남쪽 최고 지점에 모두 각대角臺나 망대望臺를 설치했다. 성 밖은 험준하나 내부는 대부분 완만한 경사지와 대지臺地이고, 빗물과 지하수가 모여 흐르는 작은 개천이 북문을 통해 밖으로 이어진다.

각대와 망대가 연결되는 구간의 천연 절벽은 따로 성벽을 쌓지 않고 그대로 이용했으며 나머지 구간은 모두 인공 석축한 성벽이다. 성문은 북문과 남문이 있고 수습된 유물로는 고구려 시기의 홍색 기와 잔편, 토기편 외에 철제 차관車輦, 철촉, 연화문蓮花紋 와당 등이 있다.

오룡산성에서는 고구려 조기 산성의 수축 방식이 보이지 않고, 좀 더 늦은 시기의 산성 축조 방식인 긴 구간에 석벽과 여장을 수축하는 방식이 확인되어 대략 고구려 중기나 약간 더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룡산성에서 수습된 토기편은 주로 옹甕, 관罐, 분盆, 반盤 등이어서 당연히 고구려 중만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성에서 수습된 연화문 와당은 집안集安에서 출토된 와당과 거의 동일하여, 가장자리가 높고 부조도 높으며 두 줄의 경계선이 화판花瓣을 구분하고 있다. 화판 중심에는 볼록하게 긴 선이 있어 잎맥을 표현하고 있다. 이 와당의 연대는 392년 전후에 해당한다. 고구려는 5세기 초에 이미 요동遼東 지역을 차지했고, 또 유물의 연대가 대부분 산성 축조 연대보다 늦은 것으로 보아 산성의 연대는 4세기 중엽에서 당대唐代까지로 추정된다.

필자는 오룡산성이 남소성南蘇城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남소성은 남소수南蘇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남소수는 옛 현도군玄菟郡 내의 하천으로 현 신빈

현의 소자하蘇子河이다. 오룡산성을 남소성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다수의 문헌에 신성新城, 남소, 목저木底 3성이 함께 등장하는데 모두 신성, 남소, 목저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 하나의 작전로 상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남소성과 인접한 산성에 대한 기록에 나오는 방위가 모두 오룡산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신성은 남소성 서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남협南陜은 현 소자하와 혼하渾河가 만나는 살이호薩爾滸 지역인데 남소성은 이 남협의 동쪽이라 기록되어 있으니, 남소성은 당연히 신성 동쪽의 소자하 하구 동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목저성이 남소성 동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남소성은 목저성 서쪽에 위치해야 한다. 이처럼 남소성은 신성과 목저성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상의 기록이 오룡산성의 위치와 모두 부합하고 있다. 물론 신성과 목저성 사이에 계번성界藩城과 살이호성薩爾滸城도 있고, 그중 하나가 남소성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 두 성은 모두 후금後金이 세운 성이 분명하다. 또한 당나라의 고구려 정벌 당시 제일 먼저 공격한 성이 신성이고, 그 다음이 남소성이며 목저성은 남소성 공격 이후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339년 모용황慕容皝이 고구려를 칠 때는 신성을 함락시키자 목저성이 바로 연燕나라 군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342년에 목저성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즉 당시는 남소성이 축조되지 않았고 고구려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촉박하게 남소성을 축조했으며, 그래서 345년에 처음 연나라가 남소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된다. 남소성의 성벽 축조가 정교하지 못한 점은 이처럼 촉박한 상황에서 성을 축조했던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고구려가 남소성과 신성을 모두 회복한 뒤로는 상술했던 것처럼 모두 신성, 남소성, 목저성의 순서로 전투를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 남소성이 언급된 것은 345년 연나라의 고구려 공격 당시로 그 이전에는 남소성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소성의 상한 연대는 345년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67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신성,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倉巖城 등을 함락시키고 끝내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따라서 남소성의 하한 연대는 667년이 된다.

이상과 같이 지리 위치, 문헌상의 방위, 고구려 중기 이후의 특징이 보이는 건축 스타일, 4~6세기의 특징을 보이는 유물, 문헌에 등장하는 남소성의 상하한 연대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오룡산성은 고구려의 남소성일 것이다.

佟达, 1994,「新宾五龙高句丽山城」,『辽海文物学刊』2, 18–24.

저 자 펑융첸冯永谦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2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1
『社会科学战线』1

고구려 천리장성 설치 연구

高句丽千里长城建置辨

주 제 어 당대 고구려
천리장성
요령 길림 2성

그 림 1. 고구려 천리장성의 방향과 명대 장성, 청대 유조변의 방향 비교도

고구려 민족은 중국 동북의 요령성遼寧省 신빈新賓, 환인桓仁 일대에서 흥성했고, 그 후 전한前漢 만기에는 한漢의 군현 내에 정권을 건립하여 현 요령遼寧과 길림吉林 두 성의 동부 즉 요하遼河 이동의 땅에 약 700여 년간 할거했다. 중원의 당태종唐太宗이 수隋를 멸하고 당唐을 세워 사해四海를 평정할 때, 고구려 영류왕榮留王은 당의 정벌이 두려워 정관貞觀 5년에 거국적으로 장성 수축의 명을 내렸고, 총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동북쪽으로 부여에서 서남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1천여 리의 장성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 장성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했고, 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모두 제각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천리장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는 등 현재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그러나 최신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을 근거로 살펴보면, 고구려 천리장성은 현 요령성과 길림성 두 성에 걸쳐 존재했고, 실제로 성벽도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북으로 부여(성)에서 출발했다는 장성의 시발점은, 부여국의 옛 땅인 현 길림성 덕혜현德惠縣 노변강둔老邊崗屯 제2송화강松花江 남안이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현 요령성 영구시營口市 후강자둔後崗子屯의 발해만渤海灣 부근까지 이어졌다. 즉 장성은 요하의 동안에 위치했고 길이는 1천여 리에 달했던 것이다. 고구려 천리장성의 중간 구간은 명대明代에 와서 만리장성의 요동진遼東鎭 장성으로 변화, 이용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람들은 이를 명대 장성으로만 여겼고 고구려 천리장성의 존재는 그 아래 묻히게 되었다.

冯永谦, 2002, 「高句丽千里长城建置辨」, 『社会科学战线』1, 184–198.

03

경톄화	고구려의 어업과 수렵 경제 첫 검토	160-161
경톄화	집안集安 고구려 농업 고고 개설	162-163
경톄화	고구려 남북도南北道의 형성과 확대	164-167
량치정	고구려 곡식 저장 창고 고찰	168-169
룬하이 · 린커위 · 리위잉	고구려 '건안도建安道' 첫 검토	170-171
류창장	지리환경의 고구려 문화에 대한 영향 약론	172-173
리뎬푸	양한兩漢 시기 고구려 및 그 물질문화	174-176
리뎬푸	고구려 고고의 회고와 전망	177-180
리러잉 · 쑨웨이란	불교가 고구려 건축에 끼친 영향	181-183
리수잉 · 쑨진화	고구려인 음주飲酒, 양주釀酒 고찰	184-185
바이건싱	재당在唐 고구려 유민과 유물-유적 현황과 그 분포	186-187
샤오징취안 · 정천	무순撫順 지역 고구려 고고 회고	188-190
쉬자궈 · 쉬옌	당대唐代 목저주木底州 치소의 현재 위치 고찰	191-192

고고일반

강서대묘 벽화(청룡) ©김광섭

쑨웨이란 · 리러잉	고구려와 발해 불교 건축 비교 연구	193-195
쑹푸쥐안 · 자오푸샹	고구려의 수상교통	196-197
양선	돈황敦煌 벽화 속 고구려, 신라, 백제인 형상	198-199
양즈훙 · 마위량 · 처하이타오	고구려의 건축공예	200-201
왕멘허우	통화 만발발자萬發撥子 유적의 고고학, 민족학적 고찰	202-204
왕페이펑	삼연三燕 고구려 고고 찰기札記	205-206
웨이춘청	고구려, 발해 문화 발전의 고고학적 관찰	207-209
인궈유	고구려의 석石 문화	210-211
자스진	집안輯安 고구려 문화재 고고 조사의 새로운 과제	212-213
자오즈빈	고구려의 강역과 그 변화	214-215
장위환	집안輯安 부근 고구려 시기 건축	216-217
장정옌 · 왕핑루	신성도新城道 및 신성도 상의 여러 성지 고찰	218-219
천다웨이	요령성遼寧省 경내 고구려 유적	220-222
퉁다	고구려 남북 교통로에 관하여	223-224

저 자 경톄화耿铁华
연 도 198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고구려의 어업과 수렵 경제 첫 검토

高句丽的渔猎经济初探

그 림 1. 어망추, 석촉, 철제 낚싯바늘
2. 철촉, 모
3. 동모(축척 3/10)
4. 철촉(축척 1/3)
5.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산림 수렵도

고구려 민족은 거주 지역과 자연환경으로 인해 독특한 경제 유형을 형성했다. 이러한 경제 유형은 북방 초원지대 유목 민족의 목축경제와도 다르고 중원 지역의 발달된 농업경제와도 다르며, 농업과 어업, 수렵이 모두 중용된 경제 유형이다. 계급사회에 들어선 이후에도, 혹은 중원의 선진 농업생산 도구와 기술이 전래된 때에도 어업과 수렵 경제는 고구려 민족의 경제생활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주요 근거지는 백두산 지역 남부임이 고고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큰 산과 계곡이 많은 곳이고, 혼강渾江, 압록강鴨綠江 및 그 지류에는 다수의 충적평야가 있어 거주에 적합하다. 그러나 경작이 가능한 충적평야의 면적이 그다지 넓지는 않다. 이는 고구려의 농업 생산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였다. 그에 반해 이 지역에는 풍부한 자연자원이 있어 고구려의 어업과 수렵 경제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고구려의 어업과 수렵 경제 발전 상황은 국가 건립 전과 후의 모습에 큰 차이를 보인다. 고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관련 도구의 변화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 건국 이후, 영토가 확장되면서 중원 및 주변 각 민족과의 교류가 강화되었고 다수의 선진 생산 기술, 공예, 도구가 유입되었다. 제련, 주조업의 출현으로 철제 공구가 점차 석제를 대신했고, 토제 공예의 진보로 어업과 수렵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어망추뿐만 아니라 철제 낚싯바늘의 출토는 고구려의 어업 생산에 이미 그물 방식과 낚시 방식의 두 종류가 등장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생산 효율도 제고되었을 것이다.

수렵 도구인 화살촉과 창은 완전히 석제에서 철제 혹은 동제로 변해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철정동촉鐵梃銅鏃族도 있고, 철모鐵矛 역시 수량이 적지 않다.

위에 열거한 철촉, 철모, 동모銅矛, 그리고 집안集安에서 출토된 다량의 철도鐵刀 모두 중원의 무기를 모방하여 제조했을 것이다. 고구려인은 이러한 무기를 전쟁과 수렵의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고구려 벽화묘 속 수렵도는 묘주가 생전에 사냥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고, 고구려 현실 생활의 반영이다. 물론 벽화가 있는 고구려 무덤은 그 숫자가 매우 적어 대부분 고구려 귀족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귀족들의 수렵은 일종의 오락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근원은 역시 원시인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렵생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고구려인에게 있어, 수렵은 오락이 아니라 고기를 구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었다.

고구려의 어업과 수렵 경제는 관련 문헌기록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현재 확인되는 고고자료만을 가지고 정리, 추론할 수밖에 없고, 이에 더하여 고구려 벽화를 통해 그 실태를 연구,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어업과 수렵 경제 발전의 폭, 효율 그리고 전체 고구려 사회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은 아직 신뢰할 만한 문자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앞으로의 고고 발견을 더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耿铁华, 1986, 「高句丽的渔猎经济初探」, 『博物馆研究』3, 87–91.

저 자 경톄화耿铁华
집안시 박물관

연 도 1989
간행물명 『농업고고』1
『农业考古』1

집안集安 고구려 농업 고고 개설

集安高句丽农业考古概述

그 림 길림 집안현 출토 농업 고고 유물
1~6. 석부
7~12. 석호
13~21. 석도
22. 갈판
23. 갈돌
24. 석제 절구공이
25, 26. 철려화
27~29. 철부
30~33. 철삽
34~36. 철겸
37. 철분
38. 철산
39. 철삼조기
40. 창름 벽화
41. 도창
42. 토제 어망추
43. 철제 낚싯바늘

고구려 민족이 주로 활동한 혼강渾江 유역과 압록강鴨綠江 유역에서는 다수의 고구려 건국 이전 생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중에는 다수의 어망추도 있고, 출토 석기 중에는 타제 석호石鎬가 가장 많으며, 석부石斧, 석도石刀, 석촉石鏃이 그 뒤를 잇는다. 마제 석착石鑿, 석주石珠, 석모石矛, 석촉은 수량이 적으나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이에 근거하면 당시 고구려인들의 경제유형은 농업 생산과 어업, 수렵 생산이 병행되는 원시 경제유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사용한 원시 농기구는 주로 석제였고, 부斧, 호鎬, 도刀 그리고 곡물 가공용 갈판, 갈돌, 절구공이 등이 있다.

고구려 건국 이후 중원의 철기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고구려의 철기 제작을 촉진시켰고, 철제 농기구도 농업 생산에 투입되어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철제 농기구는 고구려 농업 생산 도구, 기술 등 여러 분야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왔고,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집안集安 지역에서 출토된 주요 철제 농기구로는 철려화鐵犁鏵, 철부鐵斧, 철삽鐵鍤, 철산鐵鏟, 철곽鐵钁, 철겸鐵鎌 등이 있다. 일부는 중원에서 전래된 것이고, 일부는 고구려에서 직접 제조한 것이다.

철부, 철삽, 철곽은 나무를 베어 경지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크기가 큰 철려화는 우경에 적합하다. 집안 고구려 벽화에는 외양간이 있고, 우마차도 있다. 이상 자료에 근거하면 고구려는 건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경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산, 삼조기三爪器, 각종 철겸 등은 고구려 농업 생산 기술의 제고를 말해주는 것이다. 생산도구의 개혁, 기술의 진보는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왔고, 부유한 집에서는 남는 식량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고구려에는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는데 이를 부경桴京이라 부른다고 했다. 마선麻線 1호묘 남측실에 그려진 우진각 지붕의 창름倉廩이 아마도 부경

일 것이다. 우산묘구禹山墓區의 적석묘에서는 도창陶倉이 출토되기도 했고, 동대자東臺子 유적에서도 도창 잔편이 출토되었다. 벽화 속 창름이나 출토된 도창은 모두 고구려 건국 이후 식량 생산의 부단한 증대와 여분의 식량을 저장하던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구려 민족이 활동한 지역은 산과 계곡이 많고 평지가 적어, 자연히 농업과 어업, 수렵을 겸하는 경제 유형이 형성되었다. 원시 시기 고구려인은 이미 물고기를 잡아 식용했다. 장강長崗 유적, 남대자南臺子 유적 등에서는 모두 다수의 토제 혹은 석제 어망추가 발견되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의 수렵경제는 화살촉, 칼, 창, 삼치기三齒器 등 다량의 석제, 금속제 공구로 증명되는 동시에, 고분 벽화 속 수렵도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의 어업과 수렵경제는 농업경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농업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구려 건국 후 농업 생산은 비록 크게 발전했지만, 고구려 국가 경제의 각 부분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농업은 수공업의 금속 제조, 금 도금, 금은기 제조 등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다. 제한된 경지 면적은 농업 생산량 확대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철제 농기구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상당 수량의 석제 농기구를 사용했고, 기술도 낙후되어, 농업 생산 발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 능력도 낮아 문헌에는 자주 바람, 비, 해충, 우박 등의 재해 관련 기록이 등장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농업 생산의 발전에 불리한 것들이었다. 고구려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업과 수렵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고구려 농업 생산을 연구할 때도, 어업, 수렵경제와의 상호 관련성, 상호 의존의 특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耿铁华, 1989, 「集安高句丽农业考古概述」, 『农业考古』1, 97–103.

저 자 경톄화耿铁华
연 도 1996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1
『通化师范学院学报』1

고구려 남북도南北道의 형성과 확대

高句丽南北道的形成与拓展

사서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남북2도'라 이르는 주요 교통로가 있었다. 최근에는 다년간 걸친 고고 조사와 남북2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새로운 이해도 가능해졌다.

첫째, '고구려에 2도가 있는데 북도北道는 평탄하고 남도南道는 험하다'는 기록은 4세기 고구려에 남북2도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 남북2도의 기점은 모두 당시 고구려 도성인 국내성國內城이지만 종점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방향만큼은 명확하여 하나는 북향이었고 하나는 남향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고구려 남북2도의 함의라 할 수 있다.

모용황慕容皝의 고구려 원정 당시 고구려에 남북2도가 있음이 이미 제기되었다. 물론 모용황과 신하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했든 간에 객관적으로 고구려에 남북2도가 있는 사실은 제기된 것이다.

둘째, 모용황 군대가 고구려로 원정을 떠나 '입자남협入自南陝', '종북치이진從北置而進'했다는 두 진군 노선은, 사실 고구려 남북2도와는 상이한 개념이고 상이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놓고 볼 수 없다.

모용황의 대군은 용성龍城(현 요령성遼寧省 조양시朝陽市 서남쪽 일대)에서 출발하여 남북 두 길로 나누어 고구려 도성을 향해 진군했다. 그들의 궤적은 두 지점 사이의 두 곡선이다. 반면에 고구려 남북2도는 고구려 도성에서 남, 북으로 가는 2개의 도로이다. 그 궤적은 한 지점에서 다른 두 방향으로 뻗어 나가 서로 교차되지 않는 선이다. 물론 모용황의 대군이 고구려 중심지로 들어갈 때, 그 행군 노선과 고구려 남북2도의 일부 구간이 서로 겹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개념을 절대 혼동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고구려에 2도가 있다'는 문구 앞에는 '장격고구

려將擊高句麗' 5자가 있다. 이를 연결시켜 읽으면, 모용황이 '고구려를 토벌하려는데 고구려로 통하는 교통로는 둘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용성에서 고구려 도성으로 이르는 길은 중원 혹은 요동遼東, 요서遼西에서 고구려로 들어가는 교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도로의 개통은 중원과 변방 지역 각 민족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었으며, 경제,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다. 따라서 이런 교통로가 몇 개가 있더라도 이는 당연히 '요동도遼東道'라 불러야지, '고구려도'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 교통로가 고구려 영역 내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고구려도'라고 부를 수 있다.

고구려 남북도에 대한 연구와 고증 관련 성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진정한 고구려 남북2도에 대한 연구와 고증이다. 대표적으로 팡치둥方起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1962년에 실시된 조사에 참여하여, 마선구麻線溝에서 판차령板岔嶺을 넘어 신개하新開河 협곡을 따라 가는 길이 남도이고, 노야령老爺嶺을 넘어 위사하葦沙河를 따라 가는 길이 북도라고 밝혔다.

둘째는, 고구려 남북도의 고증이라 말했지만 사실은 요동, 요서, 중원에서 고구려 영역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고증한 연구이다. 이는 모용황 군대의 고구려 진군 노선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쑨위량孫玉良이 밝힌 모용황의 고구려 원정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다. 그는 '당시 요동에서 고구려 왕성을 공격할 때 남과 북의 두 길로 갈 수 있었고, 모용한慕容翰의 계획에 따라 험준한 길을 선택하여 방어가 허술한 남도를 주요 공격로로 삼았다'고 하여, 모용황의 원정 노선과 고구려 남북2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몇 십 년에 걸친 노력으로 국내성에서 혼강渾江 연안으로 통하는 고구려 남북2도가 확인되었고, 두 도로에 위치한 성지, 보루, 관애關隘 등이 조사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 국내성에서 요동, 요서, 중원으로 통하는 몇 개의 도로도 확인되었다.

고구려 남북도는 고구려 건국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다. 원시시대 고구려인은 북방민족과 생산, 생활, 결혼 등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동시에 중원 정권과 각 민족의 교류도 나날이 빈번해졌다. 요령성의 전국戰國 시기 유적에서는 다수의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었고, 집안시集安市 경내에서도 여러 차례 전국 시기 화폐가 출토되었으며, 명문이 있는 조趙나라 청동단검도 출토되었다. 이는 요동 및 고구려인 거주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중원과 빈번하게 교류했고 도로도 넓게 뚫려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무제漢武帝는 요동, 위만조선에 출병하여 그곳에 낙랑樂浪, 임둔臨屯, 현도玄菟, 진번眞蕃 4군을 설치했다. 고구려 민족의 근거지는 현도군 관할에 속했고, 한漢의 관리와 군대가 중원과 4군 사이를 왕래했다. 즉 고구려 건국 이전에 중원과 4군 사이 통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구려와 부여의 통혼관계는 혼강 유역과 송화강松花江 유역 교통 연결의 고리가 되었다. 당시 고구려와 부여가 교류하며 함께 개척했던 길이 바로 고구려 북도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건국 이전에 이미 북방 부여족, 남방 요동, 중원 각 민족 사이의 남북 교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고구려 건국 이후에는 도성의 천도에 정치, 경제, 군사 역량의 발전 변화가 더해져 고구려 남북 교통로는 부단히 변화하고 확대되었다. 이는 크게 3개 역사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기는 기원전 37년에서 서기 3년까지로 고구려가 흘승골성紇升骨城에 도읍했던 시기이다. 흘승골성은 환인桓仁 오녀산성五女山城으로 이곳에서 길림시吉林市로 가는 길이 이 시기의 북도이다. 당시 이 길은 고구려 영토가 아니었다. 따라서 한 요동군에서 현도군에 이르는 교통로라 부를 수밖에 없다.

제2기는 서기 3년에서 427년까지로 국내성에 도읍했던 시기이다. 유류왕儒留王이 국내성으로 천도하면서 흘승골성과 국내성 사이의 도로가 개통되었다. 국내성을 출발하여 판차령을 넘고 신개하 하곡을 따라 혼강에 도착하면 흘승골성까지 이어지며 흘승골성에서 현도군까지의 도로로 바로 연결된다. 이것이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천도한 후의 고구려 남도이다. 국내성 천도 이후 고구려와 부여 사이의 교섭과 전투로 인해 국내성에서 부여로 통하는 도로가 개통되었다. 국내성을 나와 통구하通溝河 하곡, 소청하小靑河 하곡을 따라 가다가 노령老嶺을 넘어 위사하를 따라 가면 혼강에 닿는다. 다시 혼강을 넘어 휘발하輝發河 상류까지 가면 고구려와 부여 사이의 옛 도로와 연결된다. 천도 이후 고구려 남도의 가장 먼 곳은 현도군 군치(현 신빈新賓 영릉永陵 일대)까지였다. 북도는 혼강을 건너 통화通化, 유하柳河 일대까지 이어졌다. 휘발하에서 송화강까지는 여전히 부여의 통제 지역이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는 호태왕好太王의 영토 확장으로 고구려 남북도 역시 부단히 확대되어, 남도는 이미 양평襄平, 신성新城에 이르렀고, 북도는 송화강 중상류 지역까지 이어졌다.

제3기는 427년부터 668년까지로 평양平壤에 도읍했던 시기이다. 호태왕 시기에 이미 고구려는 수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한반도 남부로 통하는 교통로가 개척되었다. 따라서 늦어도 4세기 말에는 국내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육로 및 해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국내성으로 가는 교통로는 이 시기 고구려가 북방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그리고 이 시기 남도는 자연히 평양에서 신라 도성 경주로 가거나 평양에서 백제 도성 부여로 가는 도로가 된다.

평양 시기 북도는 평양성에서 출발하여 열수列水(대동강大同江)를 따라 개마대산蓋馬大山에 들어가고 산을 넘어 압록강鴨綠江 지류를 따라 가다 독로강禿魯江에서 만난 후 압록강을 건너 국내성에 이른다. 또 다른 길은 평양에서 출발하

여 패수沛水에 이르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압록강을 건너 요동 서안평西安平까지 이르면 요동의 여러 도로와 연결된다. 이는 고구려 만기 도성 국내성과 요동군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였다. 한강을 거슬러 동남으로 가다가 낙동강洛東江 상류에 들어가고 이를 따라 내려가면 신라에 들어가게 된다. 대방帶方에서 해안 평야를 따라 가다가 금강錦江에 들어가면 백제로 갈 수 있다. 이 두 길은 호태왕 통치 시기 활발한 군사 활동으로 개척된 길이다.

고구려 산성과 관애, 보루는 모두 고구려에서 요동, 요서, 북방 각지로 통하는 교통로에 위치한다. 이 산성들은 군사적 목적의 시설이면서 동시에 고구려인의 주거 지역, 활동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당수의 고구려 산성 부근에서 평지성, 주거지, 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고구려 남북도는 중원과 북방 각 민족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문화생활과 사상을 연결시키는 고리였고, 중국 동북 지역 개발사나 동북아시아 개발사의 측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耿铁华, 1996, 「高句丽南北道的形成与拓展」, 『通化师范学院学报』1, 77–89.

저 자 량치정梁启政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연 도 2007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6
『通化师范学院学报』6

고구려 곡식 저장 창고 고찰

高句丽粮食仓储考

주 제 어 고구려
식량
저장
농업

지원사업 길림성 교육청 과학연구 항목 (2004027)

고구려의 식량 저장 방식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발전, 변화해 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흉년에 국가가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했다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에 일찍부터 관창官倉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의 농업은 충분한 발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창고에 저장된 식량의 규모도 유한했을 것이다. 관창은 고구려의 각 가정마다 갖추고 있던 '부경桴京'이라는 작은 창고와 비교해도 그 규모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흉년이 심한 때에는 흔히 굶거나 식인食人 현상이 나타났다. 한漢나라 철제 농기구의 전래는 고구려 농업 생산력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호태왕好太王의 영역 확대는 고구려 농업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 일이었다. 영토의 확장으로 경작지가 확대되었고, 전쟁을 통해 대규모로 노동력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일반 가정의 부경에도 저장된 식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집안集安 마선麻線 1호묘 남측실 벽화에는 우진각 지붕의 창고가 등장한다. 이 창고는 지상의 습기로 인한 식량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에서 일정 높이를 띄워 만든 고상식高床式 건축이다. 현재도 집안, 통화通化, 환인桓仁 일대 농가에는 모두 이런 형태의 창고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문헌에 기록된 '부경'일 것이다. 그리고 우산묘구禹山墓區 M2325에서는 완형의 니질도창泥質陶倉이 출토되었다. 벽화 속 창고, 출토된 도창 등은 모두 고구려 건국 이후 점차 식량 생산이 증가하여 남는 식량을 저장했던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다.

수당대隋唐代에 들어서 고구려 농업은 더욱 발전했고, 식량 생산량도 늘어났다. 『책부원귀冊府元龜』에 따르면, 정관貞觀 19년(645) 이세민李世民이 고구려를 정벌할 당시 개모성蓋牟城의 창고에는 식량이 10여 만석에 달했고, 요동성遼東城에는 조가 50만 석이나 쌓여있었으며, 백암성白巖城에서 노획한 식량은 2만 8

천석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 사회의 관창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대성산성大城山城 창고 유적에서는 조, 수수, 밀 등 탄화곡물이 발견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구려의 농작물로 속粟(조), 서黍(기장), 맥麥(보리, 밀), 도稻(쌀), 숙菽(각종 콩), 량粮(수수)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작물들이 당시 고구려 창고에 저장되었던 식량 종류였을 수도 있다. 『책부원귀』에 언급된 세 성의 창고를 각각 창량倉粮, 창속倉粟, 창름倉廩으로 표기한 걸 보면 세 창고의 저장 곡물 종류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분명 식량 창고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고구려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식량 창고는 다음의 몇 가지 기능을 담당했다. 우선 재난 구제와 기근 대비 기능이다. 특히 고국천왕故國川王 16년에는 매년 3월에서 7월까지 관창을 열어 각 가정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식량을 빌려주었다가 10월에 다시 받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고구려 창고의 식량은 군량미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통치계급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근원이기도 했다. 정상적인 식용으로 소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량의 양식은 술 제조 등 사치성 소비에도 사용되었다. 고구려인의 음주 문화는 고구려 벽화 및 출토유물에서 증명되고 있다.

梁启政, 2007, 「高句丽粮食仓储考」, 『通化师范学院学报』6, 16–18.

저 자 룬하이闰海
영구시 박물관
린커위林克宇
영구시 박물관
리위잉李玉颖
영구시 박물관
연 도 2001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고구려 '건안도建安道' 첫 검토

高句丽 "建安道" 初探

요동遼東에서 고구려 중심지로 이어지는 교통로 문제는 이미 많은 연구자의 검토가 있었다. 특히 고구려 남북도와 목저木底, 남소南蘇, 신성新城 등의 여러 교통로 연구는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본문에서는 이상 여러 교통로 남쪽의 요남遼南 지역에서 고구려의 중심지로 이어지는 교통로인 '건안도建安道'에 대해 논할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수隋 대업大業 8년(612) 고구려 정벌 당시 일부 수나라 군대가 건안도로 향한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그 이전 삼연三燕 시기에 이 노선은 이미 고구려가 평곽平郭에서 요동을 침략하는 진군 노선이었다.

고구려는 요동을 점령한 후 평곽 부근에 건안성建安城을 축성했다. 건안성의 위치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현 개주시蓋州市 청석령산성青石嶺山城을 비정하고 있다. 수양제隋煬帝의 고구려 정벌에 나오는 '건안도'가 바로 건안성에서 고구려 중심지로 이어지는 교통로이고, 삼연 시기 고구려가 평곽 침입을 위해 진군한 노선이기도 하다.

건안도의 구체적인 노선은 이 지역에 위치한 산성을 선으로 연결하면 형태를 알 수 있다. 산성의 분포 상황을 보면, 건안성을 기점으로 두 개의 노선이 확인된다. 하나는 건안에서 사비沙卑(현 대련大連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에 이르는 길로, 즉 당唐 장량張亮이 사비성으로 상륙한 후 북상하여 건안에 이른 행군 노선이다. 사비에서 석성石城(현 보란점普蘭店 외패산성巍覇山城), 적리성積利城(현 장하庄河 성산산성城山山城)을 지나면 압록강 입구의 박작성泊灼城까지 진군할 수 있다. 이는 우진달牛進達의 수군이 진군한 노선으로 두 노선을 연결시키면 이 또한 건안에서 압록강 입구로 이어지는 교통로로 볼 수 있다. 다른 한 노선은 건안에서 오골성烏骨城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로 건안도의 중심 노선이다.

고구려 건안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삼연에서 수당隋唐까지 약 400여 년간 이용되었으며, 당시 요남 지역과 고구려 중심 지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헌에 따르면, 양한兩漢 시기 고구려의 요동 침략은 주로 요령성遼寧省 동북부 노선이었다. 위진魏晉 시기 이후 특히 삼연 시기가 되면 요남 지역의 건안도가 점차 고구려 요동 침입의 주요 진군 노선이 된다. 그 목적지가 양평襄平에서 남쪽의 평곽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는 고구려 통치 중심의 남하와 관련되어 있다. 고구려의 천도로 그 정치, 군사의 중심이 혼강渾江에서 압록강 유역으로 옮겨갔고, 마지막에는 대동강大同江 유역까지 내려갔다. 통치 중심이 남하하면서 자연히 고구려의 대외적인 군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로 역시, 압록강 유역부터 북상하여 무순撫順, 본계本溪로 이어지는 원 고구려 남북도南北道를 통해 진입했다가 다시 남하하여 양평, 평곽으로 진공하는 것보다는 요남을 통해 평곽으로 직접 가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워졌다. 그래서 건안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한 후 건안도는 고구려가 요동을 통제하고 요동의 각 성으로 군량, 군대를 공급하는 보급 노선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당의 중앙정부가 고구려 정벌에 나서는 진군 노선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闰海 · 林克宇 · 李玉颖, 2001, 「高句丽"建安道"初探」, 『博物馆研究』2, 34–37.

저 자 류창장刘长江
심양시 고고대考古隊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지리환경의 고구려 문화에 대한 영향 약론

略论地理环境对高句丽文化的影响

표 1. 고구려 도관 변화 상황 비교표

고구려 물질문화의 탄생과 발전단계에서 지리환경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산이 높고 석재가 많은 관계로 물질문화의 여러 측면이 석재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산성의 90% 이상이 석축 성벽인 점, 고구려 무덤을 대표하는 적석총 등이 모두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석재 자원 때문에 고구려 문화에는 전축塼築한 유적이 드물다.

산지라는 지리환경은 일상생활의 토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호四耳壺는 고구려 각 단계별 물질문화에 모두 등장한다. 운반이 용이한 사이호가 산지에서 생활하는 고구려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유형이었던 것이다. 또한 관罐의 형태 변화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변화 규칙은 폭과 높이의 비율이 점차 증대되고, 중심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전체 형태가 좁고 긴 형태에서 넓고 짧은 형태로 변화해 가는 점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며 사용하기에 점점 더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삼족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 역시 산지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산지가 많고 경지가 적은 자연환경은 고구려 사회경제의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그로 인해 문화 면모는 시기적으로 낙후되는 모습과 발전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주몽朱蒙이 군사 민주제 시대의 고구려 5부 문화를 계승하여 세운 국가 정권은 사회 성격의 측면에서 볼 때 노예제 사회였다. 노예제 사회 제도는 양한兩漢 시기까지 변화가 없었고,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를 지나 요동遼東을 점령했을 시기에 봉건사회로 들어갔다. 하지만 전체 사회의 여러 측면에 여전히 많은 원시적 특징이 남아있었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372)이지만 원시 자연 숭배의 유풍은 고구려 말기까지 이어진다.

고구려의 매장 문화는 후장厚葬으로 유명한데, 그 원인 가운데 자연환경

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자연조건이 열악하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고구려인들은 현실 생활을 비관하는 정서가 생겼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행복한 꿈을 사후의 천당, 극락세계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

지리환경 가운데 기후 조건 또한 고구려 물질문화 발전에 영향을 준 중요 요소였다. 한랭기후 시기에는 경제 생산이 저조해져 고구려인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다. 추운 겨울이 올 즈음 국왕이 수신隧神에 제를 올리는 것은 바로 수신에게 온난한 기후를 기원하는 행위였다. 고구려인은 음주를 좋아하고 직접 술을 빚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한랭기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다.

생존에 불리한 지리환경이라는 객관적 조건은 고구려 사회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지만, 반대로 고구려인은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를 극복해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성 축조이다. 국가 정권을 수호하고 중원 왕조의 정벌 및 주변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고구려인은 장기간에 걸쳐 산성을 수축했다.

고구려와 중원 왕조 및 주변 민족 사이의 전쟁에서 산성은 분명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수隋, 당唐의 연이은 고구려 정벌이 실패로 끝난 원인을 종합해보면, 자연환경의 역할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는 산지 생활에 익숙하고 한랭기후에 적응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당의 군대는 먼 원정길을 떠나와야 했고, 지형지세에 익숙하지 않았다.

고구려 700여 년의 물질문화 발전 과정에서 자연 지리환경은 대체할 수 없는 객관적 역할을 담당했다. 고구려 물질문화의 여러 특징은 일정 정도 지리환경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산과 계곡이 많고, 경지가 적으며 열악했던 기후는 고구려 문화의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였지만, 동시에 고구려 국가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여, 어느 정도는 고구려 왕국의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刘长江, 1994,「略论地理环境对高句丽文化的影响」,『辽海文物学刊』2, 88-92.

저 자 리뎬푸李殿福
연 도 1986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1
『辽海文物学刊』1

양한兩漢 시기 고구려 및 그 물질문화

两汉时代的高句丽及其物质文化

그 림 1. 고구려 건국 전 5부 문화 유물 비교도

고구려 민족의 전체 역사는 양한兩漢 시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 수당隋唐 시기 세 단계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한 시기 고구려는 초기 단계이고, 위진남북조 시기 고구려는 가장 발전했던 단계이며, 수당 시기 고구려는 전성기에서 쇠락과 패망을 향해가는 시기이다. 본문에서는 양한 시기 고구려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고구려라는 명칭은 이미 한漢 이전에 존재했고, 한무제漢武帝는 현도군玄菟郡에 고구려현을 설치했다.

주몽朱蒙 건국 이후의 노예제 국가인 고구려 왕국은 국왕 아래 상가相加, 대로對盧, 패자沛者, 고추대가古鄒大加, 주부主簿, 우대優臺, 사자使者, 조의선인皂衣先人 등의 정치 기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고구려 통치계급은 '대가大加'라 불렀고, 하층의 노동계층은 '하호下戶'라 불렀다. 노동은 하호의 몫이었고 대가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장례를 후하게 지냈으며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다. 양한 시기 고구려 무덤은 대체로 적석묘,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 방단계제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 등 몇 가지 형식을 보인다. 그들은 귀신을 믿었고, 10월에는 국내성國內城 동쪽의 큰 동굴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산과 계곡이 많고 비옥한 땅이 적어 큰 창고가 없이 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지었는데 이는 부경桴京이라 불렀다. 부경은 고구려 후기 벽화묘에서도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양한 시기 고구려 사회형태는 여전히 노예제 사회 단계에 머물렀고, 국내의 계급은 기본적으로 노예주와 노예의 두 대립 계급으로 구분되었다.

양한 시기 고구려와 중원 한 왕조와의 관계는 우호적인 신속관계였지만, 대립과 마찰도 있었다. 주몽은 건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한 왕조의 책봉을 받았다. 그러나 고구려는 자주 한 왕조의 구속에 복종하지 않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양한 시기 고구려의 물질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국 이전의 물질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고구려 문화는 먼저 건국 이전의 문화 즉 '고구려 5부 문화', 건국 후 양한 시기의 문화인 '조기 문화', 위진남북조 시기인 '중기 문화', 수당 시기인 '만기 문화'로 구분해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가 건국하여 활동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원 현도군 관할 범위이다. 현도군은 서쪽으로 요동군遼東郡에 접해있어 한의 선진 문화가 일찍이 전래되었다. 통화通化, 유하柳河, 휘남輝南, 해룡海龍 등지의 원시 문화 유적에서는 모두 한대漢代 철제 생산 도구가 발견되었다. 중원의 선진 농업 생산 도구가 양한 시기에 이미 이 지역에 전래되었고, 이 지역의 5부에 모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철기가 고구려 5부에 전래된 초기에는 철기와 석기가 병용되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철기는 석기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생산 능력을 발휘했고 결국 철기가 석기를 대체하게 된다. 집안集安 일대에서 발견된 한대 철제 농업 생산 도구 가운데 철화鐵鏵는 하북河北 만성滿城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철화와 형식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 외의 철기 역시 중원의 동시기 철제 도구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1982년 집안현集安縣 상활룡上活龍, 하활룡촌下活龍村의 고구려 무덤(82JXM8)에서는 철겸鐵鎌, 철분鐵鍤, 허리띠 고리 등 한대 철제품이 출토되었고, 82JXM20과 M8에서 모두 환두도가 출토되었다. 이는 양한 시기 고구려에 이미 각 계절별로 필요한 농업용 철제 도구가 완전히 갖춰졌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건국 이후의 고구려가 그 이전 5부 시기보다 농업에서 큰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철기의 전래와 광범위한 보급은 고구려 사회를 원시 씨족 사회경제에서 노예제 사회로 끌어올렸을 것이다. 건국 이후 주몽은 한 왕조와의 관계를 강화했고, 한의 선진 문화는 고구려 조기 문화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유리왕琉璃王이 집안으로 천도한 후 축조한 국내성國內城과 환도산성丸都山城에는 모두 성벽을 석축했는데, 철제 공구가 없었다면 석재 채석과 가공이 어려웠을 것이고, 이 또한 고구려 조기 사회의 생산력이 크게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고구려 조기의 토기 역시 5부 문화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한족의 선진 물질문화도 흡수했다. 이 시기 토기는 대부분 굵은 사질토가 섞였고 고운 사질토가 섞인 것은 드물며 니질은 더욱 더 적다. 색상은 황갈색, 홍갈색, 회갈색 등이나 균일하지는 않다. 소성온도는 높고 수제이다. 기종은 주로 호壺, 관罐, 배杯, 도창陶倉, 뚜껑 달린 완碗, 옹甕 등이다. 여전히 5부 시기 무문의 특징이 남아있으나 니질회도인 뚜껑 달린 완과 도창에는 요현문凹弦紋이 시문되는 등 한 문화의 영향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민족의 전형적인 기종인 사이호四耳壺도 이 시기에 등장하여 후기까지 계속 이용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시유도기施釉陶器도 등장하나 유약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조형도 소박한 모습이다.

양한 시기 혼강渾江 중류와 압록강鴨綠江 중류 일대 고구려 무덤은 적석묘,

방단적석묘, 방단계제적석묘의 3종 유형밖에 없다. 기타 유형은 그 이후 시기에 등장하나 조기의 이 3종 형식은 훨씬 늦은 시기까지 계속 나타난다. 이 3종 무덤에서는 '명화明化', '반량半兩', '오수五銖', '대천오십大泉五十', '화천貨泉' 등 전국戰國 시기 및 한대의 화폐가 확인되었고, 일부 무덤에서는 금동 마구와 금귀고리 등도 발견되어 모두 고구려의 후장厚葬 풍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조기 문화는 5부 고유의 문화 색채를 유지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는 한 문화의 영향도 받았다. 원래의 기초 위에 외래 영향을 흡수하여 고구려 민족 특유의 조기 문화를 창조해낸 것이다.

李殿福, 1986, 「两汉时代的高句丽及其物质文化」, 『辽海文物学刊』1, 58–66.

저 자 리뎬푸李殿福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2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고구려 고고의 회고와 전망

高句丽考古的回顾与展望

1949년 이전의 고구려 고고는 청말清末 민국民國 초기의 성과와 항일전쟁 시기 일본 학자들의 작업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청말 민국 초기의 고구려 고고는 주로 금석학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태왕비好太王碑이다. 이 시기에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비석의 주인, 입비立碑 연대, 비문 속 역사 사실 등을 고증했고, 이를 통해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광서光緖 30년(1904)에는 조위曹魏 시기의 관구검기공비毋丘儉紀功碑가 발견되어 고구려 역사 연구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항일전쟁 시기 일본인의 고구려 고고 연구 역시 호태왕비에서 시작되었고 차츰 기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사코 가게아키酒匂景信가 호태왕비 쌍구가묵본을 일본에 전달한 이후 일본 학계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집안集安 지역을 찾아오게 되었다. 1905년에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집안을 찾아 조사했고, 이듬해에는 프랑스의 샤반느Edouard Chavannes도 집안을 찾았다. 1912년에는 도리이가 재차 집안을 찾았고, 1913년에는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와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집안 지역을 조사했으며, 이듬해에 세키노는 「만주滿洲 집안현輯安縣 및 평양平壤 부근 고구려 시기 유적[滿洲輯安縣及平壤附近高句麗時期的遺迹]」을 발표했다. 1918년에는 구로이타 가쯔미黑板勝美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1935년에는 하마다 코사쿠浜田耕作가 조사를 했고, 1936년에는 하마다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미즈노 세이치水野淸一, 미카미 쯔기오三上次男 등이 동북을 찾았다. 1938년에 이케우치는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발견의 유래와 비석의 현황[廣開土王碑發現的由來與碑石的現狀]」을 발표했고, 같은 해에 『통구通溝』상권도 발표되었다. 미카미는 「고구려 유적[高句麗的遺迹]」을 발표했고,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는 「만주국滿洲國 안동성安東省 집안현의 고구려 유적 조사[滿洲國安東省輯安縣的高句麗遺迹調査]」를 발표했다. 1940년에는 이케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우치의 『통구通溝』하권이 출판되었다. 1944년에는 후지타의 『집안輯安』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세로 인해 일본인들은 좀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들의 조사는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약탈성 조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리원신李文信이 40년대에 집안을 조사했으나 글을 남기지 않았다. 1949년 이후에는 먼저 일본인들이 남긴 기록과 고대 문헌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고, 1960년에 최초로 전국 제1차 문화재 전수조사가 진행되어 제1기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가 공포되었는데 집안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과 호태왕비도 이에 포함되었다. 1961년에는 리뎬푸李殿福와 린즈더林至德가 동구고분군을 조사하여, 구역별로 하해방묘구下解放墓區, 우산하묘구禹山下墓區,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 만보정묘구萬寶汀墓區, 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 마선구묘구麻線溝墓區로 구분했다. 1966년 상반기에는 동구고분군 실측이 진행되었다. 당시 조사는 쉬한쉬안徐翰煊, 리원푸李文福가 주관했다. 1981년에는 왕젠췬王健群, 팡치둥方起東이 호태왕비를 조사했고, 당시 저우윈타이周雲臺를 초청하여 탁본 작업도 실시했다. 1983년에는 『집안현 문물지』의 편찬을 위해 리뎬푸의 책임 하에 집안현 전체에 대한 문화재 전수조사가 다시 한 차례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고구려의 채석장 유적과 국동대혈國東大穴 유적이 발견되었다.

발굴조사 작업은 1958년 집안 동대자東臺子 건축유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60년에는 오회분五盔墳 4호묘, 오회분 5호묘(사신총四神塚), 동구洞溝 12호묘(마조총馬槽塚)를 다시 발굴했다. 1966년에는 동구고분군의 실측 조사와 동시에 산성하묘구 332호묘, 983호묘, 만보정묘구 1368호묘를 발굴했다. 1968년에는 농업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 과정 중에 동구고분군의 174기 무덤을 발굴했고, 같은 해 가을에는 우산하묘구, 칠성산묘구, 만보정묘구. 산성하묘구, 마선구묘구 등에서 총 326기 무덤을 정리했다. 1969년에는 길림성吉林省 박물관에서 동구고분군의 18기를 발굴했고, 가을에는 우산묘구 2396호묘, 2418호묘를 발굴했다. 1975년에는 집안현 문관소文管所에서 칠성산묘구 1196호묘를 발굴했다. 이 해에는 삼실총三室塚 제1실을 정리하여 큰 수확을 얻었고, 국내성 성벽 시굴 조사도 실시했다. 집안현 문관소는 만보정묘구 242호묘, 2165호묘, 2164호묘 및 우산하묘구 2077호묘, 2057호묘, 2086호묘, 2084호묘도 발굴했다. 1976년에는 길림성 집안에 고고 조사 훈련반을 꾸려 산성하묘구 37기, 칠성산묘구 4기, 우산묘구 49기, 마선구묘구 49기를 발굴했다. 이상 여러 차례의 발굴 결과는 대부분 약보고서 형태로 발표되었으나, 10년 동란動亂 기간의 몇 차례 대규모 발굴 결과는 조사단원의 이동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요령성遼寧省의 고구려 유적 조사와 발굴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환인桓仁저수지 건설로 인해 환인현의 문화재 분포 상황을 조사한 일이 있

고 이를 통해 고구려 조기 적석묘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고고考古』 1960년 1기에 수록되었다. 60년대 초에는 무순시撫順市 전둔前屯, 와혼목洼渾木에서 일부 고구려 무덤이 발굴되었다. 무순시의 고고학자들은 무순시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고』 1964년 12기에 발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초, 요령성 박물관의 쑨리孫力는 오녀산성五女山城과 고이산산성을 조사하고 시굴까지 진행하여 다량의 진귀한 유물을 확인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본계시本溪市 박물관에서는 본계시 관할 각 현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고구려 조기 산성을 발견했고 그 결과를 『문물文物』 1985년 2기, 『박물관연구博物館研究』 1992년 1기에 발표했다.

고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고구려에 대한 고고학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성지와 유적 관련 연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평지성은 집안의 국내성, 환인의 하고성下古城 그리고 요양遼陽의 요동성遼東城 세 곳뿐이다. 이상 세 평지성은 모두 전국戰國 시기와 서한西漢 시기의 옛 토축성을 계속 이용한 것으로 나중에 보수를 거치면서 석성으로 바뀌었다. 평지성은 대부분 방형 혹은 장방형이고 내성과 외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내부는 방리坊里가 정연하게 구분되었다. 이는 모두 한대 성지의 고유한 특징이다.

성지, 무덤을 제외한 기타 유적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고구려 고고학 연구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팡치둥의 「집안 동대자 고구려 건축지의 성격과 연대[集安東臺子高句麗建築址的性質和年代]」가 있는데, 그는 동대자 건축지가 고구려의 국사國社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덤에 관한 연구는 1980년 『고고학보考古學報』 제2기에 실린 필자의 「집안 고구려묘 연구集安高句麗墓研究」가 중국에서는 처음 발표된 관련 글이었다. 그 뒤로 천다웨이陳大爲의 「환인 고구려 적석묘의 외형과 내부 구조[桓仁高句麗積石墓的外形和內部結構]」, 「환인 고구려 적석묘의 유형, 연대, 변화에 대한 시론[試論桓仁高句麗積石墓類型, 年代及演變]」이 발표되었고, 팡치둥도 「고구려 석묘 연구高句麗石墓研究」를 발표했으며, 웨이춘청魏存成은 「고구려 적석묘의 유형과 변화[高句麗積石墓類型和演變]」를 발표했다.

유물에 대한 연구 역시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 못 한 부분이다. 린즈더와 징톄화耿鐵華가 고구려 토기와 와당에 대해 각각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필자도 권운문卷雲紋 명문 와당의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 쑨런제孫仁傑는 고구려 금제 장신구에 대한 초보적 연구를 진행했다. 최근 웨이춘청은 「고구려 마구의 발견과 연구[高句麗馬具的發現與研究]」를 발표했다.

비석, 석각에 대한 연구는 1937년 뤄전위羅振玉가 「만주 금석지 서문滿洲金石誌序文」을 발표한 이후 1984년 왕젠췬의 『호태왕비 연구好太王碑研究』가 출판될 때까지 47년간 중국 연구자의 연구 논문은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 남북한에서는 고구려 금석문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쌍방은 호태왕비 신묘년辛卯年조 기사 및 석회 도포 사건 등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갔다. 왕젠췬의 책이 출판된 후, 중국에서도 류융즈劉永智, 우치펑吳琦奉, 박진석朴眞奭, 왕중수王仲殊, 정톄화 등이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집안 지역 고구려 벽화묘에 대한 연구에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인 연구자는 양훙楊泓이다. 그는 1950년대 말에 「고구려 벽화석묘高句麗壁畫石墓」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뒤 극좌 사조의 영향으로 고구려 학술 영역에서 벽화는 냉각기를 맞이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되었다. 1970년대 중기 학계에 봄바람이 불면서 비로소 필자와 팡치둥이 고구려 벽화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정톄화 등도 일부 고구려 벽화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구려 고고학 연구의 심화는 자연히 고구려 역사 연구도 촉진시켰다. 필자와 쑨위량孫玉良은 공동으로 『고구려 간사高句麗簡史』를 저술했고, 이 책은 1990년 한국에서 한글, 중문 대조판으로 출판되었다. 필자는 『고구려, 발해의 고고와 역사[高句麗渤海的考古與歷史]』를 저술했고, 일본고고학연구회에서 번역하여 1991년 출판하였다.

고구려 고고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이상과 같이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연구 인력의 양성에 좀 더 노력해야 하고, 고고 발굴, 문화재 보호 관리 및 관광 사업 개발이 서로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국내의 지역별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李殿福, 1992, 「高句丽考古的回顾与展望」, 『辽海文物学刊』2, 33-44.

저 자 리러잉李乐营
통화사범학원
고구려 및 동북민족연구중심
쑨웨이란孙炜冉
통화사범학원
고구려 및 동북민족연구중심
연 도 2013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11
『通化师范学院学报』11

불교가 고구려 건축에 끼친 영향

佛教对高句丽建筑的影响

주 제 어 불교
고구려
건축

소수림왕小獸林王 시기, 고구려에 전해진 불교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통치기구를 지지하는 정신적 지주로 적합했고,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생각을 견제하여 국가의 단결력과 응집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왕을 비롯한 통치계급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불교 수용과 보급으로 불교는 신속하게 발전했고, 사회 역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여러 영역에서 불교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상의 측면을 제외하고 가장 강렬하게 표현된 분야가 사찰 건물을 포함한 건축 분야이다. 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불교문화가 고구려 건축에 끼친 영향은 주로 건축 부재, 장식예술, 공간 배치 등에서 나타난다.

고구려에서 불교는 매우 높은 대우를 받았다. 고구려인은 산골, 계곡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는데 유독 불사, 신묘, 왕궁, 관부에만 기와를 사용했다. 이는 불교 사찰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소수림왕 시기에는 초문사肖門寺, 이불란사伊弗蘭寺를 건설했고, 호태왕好太王 시기에는 평양平壤에 9개의 사찰을 지었으며, 문자왕文咨王 시기에는 금강사金剛寺, 보장왕寶藏王 시기에는 반룡사盤龍寺를 지었다. 당시에 건축된 사찰은 다수가 1탑 3금당식의 배치를 보였다. 조기 고구려 사찰은 기본적으로 도성 부근의 평지에 불탑을 중심으로 건축되었다. 불사의 핵심 공간은 탑, 금당, 강당으로 구성되었다. 1936~1938년에 평양에서 진행된 일련의 고고 발굴에서 평양 부근의 다수 사찰지가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청암리淸巖里, 원오리元五里, 산고리山高里의 사찰지가 포함되어 있다.

고구려는 북조北朝와 관계가 밀접하여 고구려 불교와 사찰은 북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초기 고구려 사찰은 완전히 중국 북조 사찰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 국내성國內城에 세워진 사찰은 이미 역사의 물결 속에 사라져 그 구체적인 위치와 형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당시 고구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려 불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의 성과를 빌릴 수밖에 없는데, 1985년 집안集安의 인쇄공장 건축 부지에서 일부 고구려 시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중에 금동불상 1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불상이 발견된 고구려 문화층에서는 다량의 고구려 수키와, 암키와, 와당 잔편 및 다수의 토기편도 함께 출토되어 이곳이 원래 고구려의 사찰지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톄화耿鐵華는 이곳이 초문사 혹은 이불란사였을 것이라 추정했다. 국내성과 달리 평양 천도 후의 사찰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평양시와 그 주변에 집중 분포하는데, 현재까지 이미 발굴된 사찰지로는 금강사지金剛寺址, 정릉사지定陵寺址, 영명사지永明寺址, 중흥사지中興寺址, 상오리사지上五里寺址, 낙사지樂寺址, 상성리사지上城里寺址, 평천리사지平川里寺址 등이 있다. 이상 사찰지 가운데 상오리사지는 건축 구조 확인이 어려워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기타 유적은 중심 부분의 건축물 배치가 이미 기본적으로 모두 확인되었다. 모두 3전殿 1탑塔 구조로 동, 서, 북에 각각 전이 하나씩 있고 남쪽으로 대문이 위치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에 근거하면 고구려 사찰은 당시 중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금당과 탑이 병립하는 형식이며, 이는 고구려에서 중원의 사찰 건축 형식을 모방하고 학습한 결과라 하겠다. 이와 같은 중원 북조의 전형적 사찰 구조는 탑을 중심으로 낭원廊院을 설치하는 형식이며, 보통은 도시 내 평지에 위치하고 중심선을 따라 대칭되는 구조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엄격한 공간적 질서를 추구한다. 금강사지, 정릉사지, 상오리사지, 상성리사지 등이 모두 이러한 배치와 건축 구조를 보이고 있어 북조 사찰에 대한 철저한 모방과 학습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사찰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구조가 궁전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사찰의 정문인 남문은 왕궁의 정문과 유사하고 중심 건축인 금당 또한 왕궁 전조前朝의 정전과 동일하며, 전체 사찰을 담장이 둘러싸고 각 건축물들은 회랑으로 연결되어, 날씨와 상관없이 각 건축물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다. 고구려 사찰지에서 반영되는 이러한 특징은 중원 위진魏晉 시기 탑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사찰의 구조, 형식, 방식과 동일하다. 그리고 각 사찰지의 중심 건축물이 모두 8각 목탑인 점은, 오히려 중국 위진 및 북조 시기 중원 불사의 어떤 특징에 대한 반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불교문화가 더욱 발전하면서 사찰 건축 양식은 고구려 건축의 여러 부분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건축부재와 고분 벽화뿐이다. 건축부재 가운데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연화문蓮花紋 와당이 있다. 연화 문양은 벽화묘의 천장, 기둥, 벽 및 기타 건축부재의 장식에 등장한다. 조기 고구려 건축에 등장하는 연화문은 도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선도 굵으며 조잡하다. 그러나 4세기 후기 불교가 전래되면서 연화문 도안은 큰 변화와 발전을 맞이한다.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장천長川 1호묘로 이 무덤에는

다량의 연화문 도안과 수미좌須彌座 위의 부처, 연화대蓮花臺 위의 보살, 연화화생蓮花化生, 천계의 기악伎樂과 불공을 드리는 고구려인의 모습 등도 있어, 당시 사회생활에서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5세기부터 등장하는 인동문忍冬紋 역시 불교에서 근원한 것이다. 인동문은 원래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 성행했는데, 고구려와 내지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불교에서 흔히 보이는 인동문 역시 고구려에 전래된 것이다. 그 외에 오회분五盔墳 4호묘에는 불경을 읽는 스님의 모습도 있다.

이상과 같이 불교문화는 고구려 건축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불교는 통치계급의 효과적인 사상 통제 수단으로 고구려 사회에 널리 전파되었고, 특히 통치계급의 신앙은 더욱 공고하여 고구려인의 사상문화 생활 속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 의식을 행하는 사찰 건축은 더욱 발전하게 되어, 고구려 도시 건축 가운데 궁전에 다음가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구려 건축에는 분명한 민족적 특징과 더불어 주변 민족의 문화 특징까지 융합되었다. 이러한 '다원일체'의 문화 특징 역시 중원의 불교문화를 흡수한 건축 형식에서 반영되고 있다. 불교문화는 고구려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건설 형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문화 교류는 고구려 건축 양식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李乐营 · 孙炜冉, 2013, 「佛教对高句丽建筑的影响」, 『通化师范学院学报』11, 12–15.

저 자 리수잉李淑英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쑨진화孙金花
통화사범학원
연 도 1999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6
『通化师范学院学报』6

고구려인 음주飮酒, 양주釀酒 고찰

高句丽人饮酒酿酒考

주 제 어 고구려
음주
양주
제사
연회
호군
혼사

고구려인은 음주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대무신왕大武神王(18~44) 시기에는 신하들과 음주했던 기록이 수차례 확인되고, 술로 군사들을 위무했던 기록도 있다. 고구려인의 음주와 양주釀酒는 벽화에서도 확인된다. 대략 4세기 중엽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저총角觝塚 묘실 북벽에는 묘주 부부와 첩의 연회 모습이 있는데 각 인물 앞의 상에는 호壺, 발鉢, 이배耳杯 등의 그릇이 놓여있다. 이러한 주기酒器는 귀족과 처첩의 음주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용총舞踊塚 북벽에도 부부의 연회도가 있다. 각 인물 앞에는 3개의 상이 놓여 있는데, 그중 하나에는 음식을 담은 두豆가 있고, 다른 하나에는 술이 담긴 호, 마지막 하나에는 대발大鉢, 소발小鉢, 소배小杯 2개, 이배로 보이는 잔 1개가 있다. 소배나 이배는 당연히 술잔으로 보아야 한다.

고구려 유적 출토유물 중에도 다량의 주기酒器가 있다. 1958년 8월 집안集安 국내성國內城 북쪽의 한 건축물 유적에서는 백옥 이배 1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한대漢代에 궁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고구려에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배는 주로 술을 담아 마시는 용도로 사용했다. 고구려 건축물 유적에서 이와 같은 술잔이 발견된 것은 고구려 귀족 관리(혹은 왕족)들의 음주 풍속이 이미 중원에 알려졌고, 그래서 술잔을 하사하는 일까지 생겼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구려 벽화묘는 대부분 왕족, 귀족의 무덤인데, 이 무덤에서 발견된 주기 중에는 시유도기施釉陶器도 있다. 1975년 8월 삼실총三室塚에서는 일부 시유도기가 발견되었다. 기종은 발, 이배, 호, 조竈 등이다. 이처럼 조리기구, 식사용구, 주기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은 고구려 귀족의 식사에 음주가 빠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기는 귀족 무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의 무덤에서도 개별적으로 출토된 사례가 있다. 이는 고구려의 음주 문화가 매우 보편화된 사회 활동이었고 점차 하나의 풍속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음주 및 술의 사용 방식은 제사활동, 왕족과 대신들의 연회, 군사의 위무, 왕권 찬탈을 도모하는 연회, 혼인 등 몇 가지의 상황에서 확인된다. 그 외에 고구려에서 중원으로 보내던 조공품 중에도 술이 있었다.

고구려인이 주조에 사용한 원료는 속미粟米, 쌀 등의 곡식과 과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산상왕山上王 시기에는 이미 술통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마을인 주통촌酒桶村이 있을 정도로 술과 관련된 업종이 발달되어 있었다.

음주 풍속을 보면 실제 고구려인은 상商나라 사람에 매우 가깝다. 상나라의 멸망은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졌던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상을 멸한 주周는 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고구려인의 음주 문화가 물론 주지육림과 같은 무절제한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이었고 사회 전반에 성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 점은 분명 은상인殷商人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최소한 상나라 사람들이 중원에 진출하던 전후, 그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이 북방 각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고구려인에 대한 영향은 상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李淑英 · 孙金花, 1999, 「高句丽人饮酒酿酒考」, 『通化师范学院学报』6, 11–15.

저 자 바이건싱拜根兴
섬서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09
간행물명 『중국역사지리논총』1
『中国历史地理论丛』1

재당在唐 고구려 유민과 유물-유적 현황과 그 분포

在唐高句丽遗民遗物—遗迹的现状及其分布

주 제 어 고구려 유민
유물
유적
현황
분포

현재 중원 지역에 남아있는 고구려 유민의 유적은 이미 확인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서안西安, 낙양洛陽의 일부 유적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당대唐代 장안성長安城 남쪽의 고려곡高麗曲이다. 이는 고구려 유민의 거주 지역이었는데, 이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북송 장례張禮의 『유성남기遊城南記』이다. 그러나 현재 고려곡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고구려 마지막 왕인 고장高藏의 묘지가 있다. 당唐나라는 고장의 사후에 무덤을 힐리頡利 무덤 좌측에 조영했다고 한다. 『신당서新唐書』에는 힐리의 무덤이 파수灞水 동쪽에 위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고장의 무덤 역시 파수의 동쪽에 위치할 것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 2005년 장푸유張福有가 한차례 그 무덤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필자도 직접 이를 찾으려 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 서안 파교구灞橋區 신축가도판사처新築街道辦事處 소속의 고채촌총묘高寨村塚墓 유적이 고장의 묘지일 것으로 판단했다. 낙양洛陽 맹진현孟津縣의 천泉씨 묘지도 고구려 유민이 남긴 흔적이다. 낙양 북망산北邙山은 역대 고관대작의 묘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서 1920년대부터 천남생泉南生, 천헌성泉獻誠, 천비泉毖, 천남산泉南産, 고현高玄, 고자高慈, 고진高震의 무덤이 도굴되어 묘지명이 민간에 유전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유민의 유적은 주로 장안長安, 낙양 두 지역에 분포한다. 장안은 당나라의 도성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후 십 수 년 동안 여전히 당나라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고구려 유민의 상층 인물들 및 일반인도 장안에 모여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총 17점의 고구려 유민 묘지명은 3종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고구려 멸망 후 당에 들어온 제1, 제2대 고구려 유민인 천씨 가족, 고성

문高性文 부자, 고족유高足酉, 고현, 고목로高木盧 등의 묘지명이 있고, 다음으로 제3대 후손인 고진, 고진의 딸, 고흠덕高欽德 부자 등의 묘지명이 있으며, 마지막은 고구려에 귀화했다가 고구려 멸망 이후 중원으로 돌아온 한족의 후예들인 이회李懷, 왕경요王景曜, 두선부豆善富 등의 묘지명이 있다. 또 당나라 이전에 중원에 들어온 고구려인의 후예인 이인덕李仁德, 사선의일似先義逸 등의 묘지명도 있다. 이상의 묘지명들은 서안, 낙양 두 지역에서 출토되었고, 하남성河南省 정주鄭州, 낙양 및 그 주변 각 현의 박물관, 서안 비림碑林 박물관, 남경南京 박물원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당대 민족사, 동북지방사, 고대 동북아 관계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拜根兴, 2009, 「在唐高句丽遗民遗物—遗迹的现状及其分布」, 『中国历史地理论丛』1, 87–97, 145.

저 자 샤오징취안肖景全
무순시 박물관
정천郑辰
무순시 박물관
연 도 2007
간행물명 『동북사지』2
『东北史地』2

무순撫順 지역 고구려 고고 회고

抚顺地区高句丽考古的回顾

주 제 어 무순
고구려 유적
고고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에 이미 일본 학자들의 무순撫順 지역 고고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중에는 고이산성高爾山城 발굴도 포함된다. 1950년대에는 요령성遼寧省 박물관에서 장당진章党鎮 와자화락洼子火洛, 할자화락瞎子火洛, 영반營盤 등지의 고구려 적석묘 다수를 조사했고, 1956년 가을에는 전둔前屯, 와혼목洼渾木에서 19기의 고구려 무덤을 발굴했다. 1956년과 1963년에는 무순시 문화국에서 고이산성을 두 차례 발굴했다. 1963년 요령성 박물관의 천다웨이陳大爲는 청원현清原縣 영액문진英額門鎮 장춘둔長春屯의 '산성자山城子'를 조사했다. 1976년 4월에는 무순시 박물관에서 무순현 후안진後安鎮 후안촌後安村 동쪽 요보산腰堡山에서 소형 석축단실봉토묘 5기를 발굴했다. 이 무덤은 전둔 고구려 무덤과 묘실 구조, 부장 토기 등이 매우 유사하여 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는 3년에 걸쳐 문화재 전수조사가 진행되어, 신빈현新賓縣에서 흑구산성黑溝山城, 전수호산성轉水湖山城, 태자성太子城, 오룡산성五龍山城, 삼송산성杉松山城을 확인했고, 위자욕진葦子峪鎮 우가촌于家村에서 방단적석묘군方壇積石墓群도 발견했다. 또한 무순현, 청원현, 신빈현의 기타 지역에서도 다수의 적석묘를 조사했다.

1981년 봄, 천다웨이는 신빈현 목기진木奇鎮 입외자촌砬崴子村 남산에서 다수의 적석묘를 발견했다. 같은 해 무순시 노동공원勞動公園 내에서는 고구려 만기의 기와편 다수가 확인되었다.

1983년부터 요령성 박물관과 무순시 박물관에서는 3년에 걸쳐 고이산성을 발굴했다. 1988년에는 신빈현 목기진 하서촌河西村 동쪽 소자하蘇子河서안에서 다수의 고구려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당唐나라 목저주木底州 치소가 있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1998년, 무순시 박물관은 신빈 영릉진永陵鎮 소자하 남안의 하남산성河南山城

을 발굴했다. 당시의 성벽 절개 조사를 통해 토축 성벽 위에 돌을 쌓은 축성 방법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이산성 성벽과 유사하다. 원형 돌로 조성된 기단형 건축물도 확인되었다. 기단의 직경은 10m 전후이다. 이전까지의 고구려 고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이 발견되지 않아 제사와 관련된 건축물로 추정되었다. 출토 토기에 근거하면 이 성의 연대는 고구려 만기로 판단되었다.

1999년에는 신빈 상협하진上夾河鎭 득승보촌得勝堡村 동쪽의 득승보산성得勝堡山城을 조사했다. 2000년 11월과 2001년 10~11월에는 순성구順城區 시가채고施家菜庫 북산에서 발견된 60기의 고구려 봉토석실묘 가운데 총 43기를 발굴했다. 이 고분군은 서쪽의 고이산성에서 약 1.5㎞ 떨어져 있어, 고이산성에 살던 고구려 민족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2003년 6~9월,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와 무순시 박물관은 무순시 관문촌關門村 대서구문大西溝門에서 14기의 봉토석실묘를 발굴했다. 무덤 형식은 시가가施家街 고구려 무덤과 유사하다. 시기는 고구려 만기이다. 2004년 봄에는 순성구 연반향碾盤鄉 정장자촌丁庄子村 서쪽의 마화사산성馬和寺山城에서 우물 1기가 발견되었다.

최근에 들어 삼송산성에 대한 몇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80년대 조사된 부분은 서성西城이고 그 동쪽에 더 큰 규모의 성이 확인되어, 동서 두 부분으로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태자하太子河 상류 지역에서는 다수의 동혈洞穴 무덤이 발굴되어, 이를 마성자馬城子 문화로 명명했다. 마성자 청동기 시대 문화는 동이족東夷族, 맥족貊族 선조들의 문화로, 고구려족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맥족 문화 연구에 실마리가 되고 있다. 신빈현 대사평大四平과 평정산平頂山 등지에서도 마성자 청동시대 문화 유형과 동일한 다수의 동혈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순 지역에서 고구려족의 기원인 맥족의 조기 문화 유적을 찾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전후로 신빈 대사평 일대에서는 다수의 청동단검이 발견되었다. 이 유형의 청동단검은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 오도령구문五道嶺溝門, 요령성 본계시 상보上堡의 청동단검묘에서도 나타난다. 시기는 전국戰國 만기에서 한漢나라 초기로 비정되는데, 이 역시 고구려 조기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요동遼東과 길림성 서남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조기 철기 시대 문화 유적이 발견되었다. 가장 빨리 발굴된 유적은 무순 연화보蓮花堡 유적이다. 연화보 유적에서는 전형적인 연燕나라, 한나라 시기 유물 이외에 토착 문화 특징을 보이는 유물도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화 유형은 요령의 심양瀋陽 지역, 요북遼北 철령鐵嶺 지역, 길림성 서남부의 요원遼原, 통화通化까지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무순 지역에는 다수의 지석묘와 석개묘가 있다. 지석묘와 석개묘는 요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지속 기간도 길었다. 분포 지역은 전술한 조기 철기문화와 중복되어 양자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며, 역시 고구려 기원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된다.

현재까지 이상의 고고자료와 역사 문헌을 종합한 다수의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80년대 초에 발견된 흑구산성, 전수호산성 등의 조사자는 산성의 위치와 역사 문헌 속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산성의 성격, 시기, 민족 등을 보고서에 소개하였다. 국내외 학자들은 역사 속 고구려 남북도南北道의 방향 및 관련 성지를 대상으로 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 중에는 무순의 옛 도로와 고구려 성지가 언급되어 있다. 일부 연구자는 고이산성의 구조를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무순 지역 산성의 건축 특징, 산성의 배수체계 등을 종합 분석한 논문도 있다. 특히 고이산성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기존에 고구려 성지로 알려진 남장당산성南章党山城, 성자구산성城子溝山城, 황강자산성黃崗子山城, 고각산산성孤脚山山城, 입자촌산성砬子村山城, 나가보촌산성羅家堡村山城, 아화락촌산성阿伙洛村山城, 삼도보촌산성三道堡村山城 등에서는 아직까지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성지의 입지, 성벽 구조 등도 고구려 산성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고구려 산성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고구려 산성의 시기 구분 연구 분야에서 일부 연구자는 성내에서 발견된 토기나 성벽에 사용된 석재의 형태를 근거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 대다수의 고구려 조기 성지가 후기까지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만으로 성지의 시기를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肖景全 · 郑辰, 2007, 「抚顺地区高句丽考古的回顾」, 『东北史地』2, 53–59.

저 자 쉬자궈徐家国
무순시 박물관
쉬옌徐琰
무순시 박물관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당대唐代 목저주木底州 치소의 현재 위치 고찰

唐代木底州治今地考

당唐 총장總章 원년(668) 이적李勣이 고려를 평정했다. 그 해 12월에는 고려의 땅을 9도독부都督部, 42주州, 100현縣으로 나누고, 평양성平壤城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여 통치하게 했다. 안동도호부 예하 42주 가운데 목저주木底州의 치소가 현재의 어디인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1982년 필자는 무순현撫順縣 철배산鐵背山 아래 혼하渾河와 소자하蘇子河가 만나는 지점에서 신빈현新賓縣 홍승향紅升鄉 백기촌白旗村까지 100여 리에 달하는 소자하 양안을 답사하며 고성지, 유적지 등을 확인했다. 당시 필자는 신빈현 목기진木奇鎭 하서촌河西村 동쪽 소자하 강변 경사지에서 건물지 1기를 발견했다. 현지 주민들은 이를 대대자大臺子라 부르는데, 산세를 따라 불규칙한 형태로 축조되었다. 건물지에서는 동북쪽으로 소자하를 통제할 수 있고, 북쪽으로 요심遼瀋 지역으로 통하는 고구려 남도南道가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연화문蓮花紋의 홍색 와당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다량의 그물문양 홍색 암키와, 민무늬의 홍색 토기편 등 고구려 민족의 특징이 강한 유물 표본도 발견했다. 무순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고구려 유물이 발견된 곳은 3년 동안 발굴이 진행된 고이산高爾山 고구려 산성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었다. 이 유물과 유적의 지리적 위치에 근거하면, 이 건물지는 당대 목저주의 치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빈현 목기진 하서촌의 이 유적은 신성新城(고이산 고구려 산성)에서 소자하, 부이강富爾江, 신개하新開河를 따라 국내성國內城에 이르는 고구려 남도에 위치하고 있어, 당대 목저주 치소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하서촌 유적에서 수습된 유물 중 홍색 연화문 와당, 홍색 민무늬 수키와, 홍색 그물문양 암키와, 사질이 섞인 홍갈색 토기편, '개원통보開元通寶', 철제 차관車輨, 철촉, 철갑편 등에서는 모두 매우 강한 고구려 민족의 특징이 확인되는 동시에 한족漢族의 문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화 요소도 융합되어 있어, 당이 고려를 통일한 후 도독을 파견했다는 기록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유적의 시추 조사에서는 흙다짐 성벽이 발견되지 않아 목저주 치소에 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언할 수가 없으나, 『구당서舊唐書』권39에서는 항복한 고려의 14주에 성지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필자도 목저주 치소에 성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오룡촌五龍村 고구려 산성은 고구려 남도에서 10여 리나 떨어진 먼 곳에 위치하고, 지금도 여전히 구불구불한 좁은 산길밖에 없어 군사가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교통로가 없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군사용 산성이기는 하나 목저주 치소는 아니다.

徐家国 · 徐琰, 1994, 「唐代木底州治今地考」, 『辽海文物学刊』2, 28, 27.

저 자 쑨웨이란孙炜冉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통화사범학원
고구려 및 동북민족 연구중심

리러잉李乐营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역사와 지리학원

연 도 2015

간행물명 『사지학간』2
『史志学刊』2

고구려와 발해 불교 건축 비교 연구

高句丽与渤海佛教建筑比较研究

주 제 어 고구려
발해
불교
건축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특별 위탁 항목 '왕씨 고려, 이씨 조선과 고구려의 관계 연구[王氏高麗, 李氏朝鮮與高句麗關係研究]'(15@ZH007)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 항목 '고구려 비각, 벽화 및 관련 전적 수집 정리와 연구[高句麗傳世碑碣銘刻, 壁畫及相關典籍搜集整理與研究]'(14YJA770005)
길림성 고구려연구중심 중대 위탁 항목 '고구려 왕계 연구[高句麗王系研究]'(JG2014W006)

고구려와 발해가 남긴 건축 유적에는 두 문명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고 그 속에서 그들의 발전 과정과 각 민족의 문화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남긴 건축 유적에는 중원 종교문화의 영향 특히 불교문화의 영향이 매우 짙게 남아있어, 불교 건축도 양국 정권이 남긴 중요한 문화 유적이 되었다.

중국의 고구려 불교 건축 관련 연구는 전문 연구가 부족했다. 그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연구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국내성國內城 시기 사찰이 평양平壤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규모도 크지 않으며, 다량의 고구려 시기 불사 유적이 모두 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은 다수가 이 부분에 시각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발해 불사 유적에 대한 중국 연구자의 연구는 양이나 질에서 모두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발해 불교 건축 관련 연구는 주로 돈화敦化 지역, 서고성西古城 지역, 팔련성八連城 지역, 상경성上京城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상경성 지역의 연구가 더 자세하다. 그러나 중국의 발해 불교 건축 연구는 주로 고고학의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이론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일본은 과거 만주국滿洲國 시기부터 발해 불상과 불사를 연구했고, 연해주 지역에도 발해 불사 유적이 있어 러시아 연구자 역시 이에 대한 일부 연구를 진행했다. 고구려 불사에 비해 발해 불사 연구가 부족한 한국은 아마도 그 경내에 발해 유적이 없는 점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해 유적 조사는 1963~1965년 중국과의 공동조사에서 시작되었고, 당시의 자료는 1960년대 그들이 발해를 연구하는 기본 대상이 되었다. 그 뒤로 한동안의 침체기를 지나 1980년대에 함경도咸鏡道에서 발해 사찰 유적 2곳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고구려는 불교가 전래되고 이를 매우 중시했다.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준 것은 북조北朝였고, 당시 북조와 고구려는 관계가 밀접하여 불교와 사찰 역시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북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전래 초기의 불사는 그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문헌 속에서 부분적인 모습만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 불사의 정황을 확인하려면 많은 고고 조사 성과에 기댈 수밖에 없다. 1985년 집안시集安市의 한 건축 현장에서 금동불상 1점이 출토되었다. 높이가 7㎝인 석가모니좌상이고, 불상 출토 층위에서는 다량의 기와, 와당 및 토기편도 출토되었다. 고구려에는 불사, 신묘, 왕궁, 관부에만 기와를 쓴다는 기록에 출토 불상까지 고려하여, 정톄화耿鐵華는 이곳이 초문사肖門寺 혹은 이불란사伊弗蘭寺 유적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고구려는 중후기에 들어 주로 한반도를 향해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불교가 전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 건설의 중점은 모두 평양 지역으로 옮겨갔으며, 자연스럽게 평양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만 다수의 불사 유적이 남게 되었다.

중원 북조의 전형적인 불사 양식은 금당과 탑이 병립하는 형식이다. 이는 탑이 앞에, 불당이 뒤에 위치하며 탑을 중심으로 주변에 기타 부속 건축물이 대칭으로 들어서는 구조이다. 이러한 모습은 상술한 고구려 불사 유적에서 모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 고구려가 기본적으로 동시기 북조의 불사 양식을 모방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인은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중원의 불교 건축 문화를 흡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발전 과정에서 자기 민족의 문화 특징을 충분히 발휘했고, 그 기초 위에 주변 민족의 문화도 융합하여 '다원일체'의 불교 건축 문화를 완성했다.

발해의 불교 사찰지는 대부분 발해 오경五京 혹은 부성府城 지역 및 그 주변, 그리고 주요 교통로 상에 분포한다. 오경 혹은 부성 지역 및 그 부근의 불사는 규모가 큰 편이다. 사원은 대부분 원락식 건축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전은 대부분 정면 3칸 이상의 단독 건축물이다.

발해 불사 건축은 구조나 건축양식에서 모두 당唐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들만의 일부 독특한 특징도 갖고 있었다. 즉 발해 불사 건축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화문蓮花紋 와당, 방형 전돌, 삼채 치미[鴟吻], 수두獸頭 등 건축부재는 모두 발해 자체적인 문화 요소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축 분포의 측면에서 고구려 불교 건축은 대부분 도성과 그 주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묘당廟堂 문화가 비교적 강했으며, 발해 불교 건축은 전파 범위가 넓어 도성 및 그 부근에 국한되지 않고 중대형 도시 및 그 부근 혹은 지방의 교통로에도 분포하고 있어, 당시 불교가 얼마나 널리 퍼졌고 발해 민족의 사회생활에 깊게 이식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건축 형식과 평면 구조면에서는, 고구려가 북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당탑병립堂塔竝立', '삼전일탑三殿一塔'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해 불교 건축은 당

나라의 영향으로 위진魏晉 시기 이래 탑을 중심으로 했던 즉 고구려 불사의 전탑후전前塔後殿 구조가, 탑과 전이 병렬하는 방식 혹은 중심 건축 앞뒤의 양 측면으로 탑이 세워지는, 즉 불탑과 불사가 분리되는 새로운 구조로 바뀌었다.

건축부재, 예를 들어 와당, 문양전 등에서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모습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그러나 발해는 이를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문화 특징을 융합했다. 즉 발해는 고구려 문화의 직접적인 계승자가 아니다. 민족의 기원이나 사회 구조면에서 물론 고구려적 요소가 있지만 그러한 기초 위에 더 많은 다른 민족과 지역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원 한족漢族의 문화는 가장 주요한 표현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孙炜冉 · 李乐营, 2015, 「高句丽与渤海佛教建筑比较研究」, 『史志学刊』2, 21–29, 91.

저 자 쑹푸쥐안宋福娟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자오푸샹赵福香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연 도 2000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6
『通化师范学院学报』6

고구려의 수상교통

高句丽的水上交通

주 제 어 고구려
수상교통
내륙 하천
임해

고구려는 부단히 확장된 영역 내에 다수의 하천이 있고 여러 지역이 바다에 접해 있어 수상교통이 발전할 수 있는 자연지리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어업 경제, 전쟁 물자의 운반, 특히 중원 지역과의 교류는 수상교통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고구려 영토 내의 하천은 비류수沸流水, 염난수鹽難水, 마자수馬訾水, 패수浿水, 열수列水, 대요수大遼水 등이 있다. 비류수는 혼강渾江의 지류인 부이강富爾江이고 염난수는 혼강이다. 마자수는 압록강鴨綠江의 옛 명칭이다. 고구려 시조는 비류수 인근에서 나라를 세웠고, 첫 번째 도성인 흘승골성紇升骨城이 바로 이 지역에 축성되었다. 이 성은 현 환인현桓仁縣 서쪽 혼강의 서안에 위치한다. 마자수는 고구려 2대 유리명왕琉璃明王이 천도한 도성인 국내성國內城(집안시集安市)이 접하고 있는 큰 강이다.

고구려인은 일찍부터 이들 하천을 이용하여 수상교통 사업을 발전시켰다. 압록강변의 고구려 제방 유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내성지 남쪽 강변에 위치한 이 제방 유적은 국내성 성벽과 같은 방식으로 쌓은 석축 구조물로, 배의 정박에 편리하도록 수직벽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국내성으로 통하는 하천상의 통로를 통제하기 위해 압록강 우안에 2곳의 관애關隘를 설치했다. 하나는 집안시에서 50㎞ 떨어진 양수하자凉水河子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외차구外岔溝에 자리한다. 두 관애는 모두 압록강 인근 협곡 입구를 가로막는 석축 성벽으로 중간에 문지가 있고 양 끝은 험준한 산의 절벽까지 연결되어 있다.

동천왕東川王 20년 위魏나라 관구검毌丘儉이 침입했을 때, 동천왕은 비류수를 거슬러 올라가 위나라 군사와 대적했다. 봉상왕烽上王 당시의 국상 창조리倉助利는 봉상왕을 폐하고 미천왕美川王을 옹립하고자 했는데, 당시 미천왕은 비류수와 압록강에서 소금을 판매하며 살고 있었고, 그래서 창조리는 미천왕을

비류수의 한 배 위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상 기록은 고구려 시기 비류수와 마자수상의 교통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패수는 청천강淸川江이고 열수는 대동강大同江, 대요수는 현 요하遼河이다. 고구려가 이 세 강을 이용한 시기는 약간 늦어, 진晉 의희義熙 6년(410)에 요동군遼東郡을 점령한 후 대요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 고구려에는 이미 수군이 있었다. 호태왕好太王 4년(395)에는 백제와 패수에서 전투를 벌였고, 6년에는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출정했다. 14년에는 왜와 수상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수隋나라 우문술宇文述은 살수薩水에서 고구려군에 대패하기도 했고, 당唐나라가 침입했을 때는 연남생淵男生이 압록수에서 이를 방어하기도 했다.

고구려 영토는 바다에 면한 곳이 많아 해상교통이 내륙 하천의 교통보다 더 발달했을 것이다. 동명성왕東明聖王과 태조왕太祖王 시기 고구려는 북옥저와 동옥저를 점령하여 동쪽으로 바다까지 영토를 넓혔다. 태조왕은 남해를 순시했다는 기록도 있고, 중천왕中川王은 부인을 자루에 담아 서해에 던졌다는 기록도 있다. 고구려의 남해와 서해는 방위상으로 현 황해와 발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조왕과 중천왕 시기의 고구려 영토, 세력은 아직 그곳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고구려가 동북 지역에 존속했던 시기, 중원은 두 차례의 남북 분열이 있었다. 하나는 위촉오魏蜀吳의 삼국三國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조南北朝 시기이다. 삼국 시기 동오東吳와 교류하던 고구려는 장강長江 이북 지역을 차지한 위나라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동오를 찾아갔다. 마찬가지로 남북조 시기 고구려는 남북조의 모든 나라와 교류했는데, 남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북조를 지날 수 없어 해상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이는 고구려가 중원 정권의 분열 상황 하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다각 외교 정책을 취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구려의 국력이 나날이 강화되었고 해상교통 능력 역시 강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宋福娟 · 赵福香, 2000, 「高句丽的水上交通」, 『通化师范学院学报』6, 36–38.

저 자 양썬杨森
돈황연구원 문헌연구소
연 도 2011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2
『社会科学战线』2

돈황敦煌 벽화 속 고구려, 신라, 백제인 형상

敦煌壁画中的高句丽、新罗、百济人形象

주 제 어 돈황 벽화
도상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초당初唐 제335굴 벽화 속 설법을 듣는 왕자 가운데 3명이 한반도 출신 인물로 보인다. 그중 전면에 기립한 인물은 복식과 관모를 볼 때 신라 왕자로 추정되고, 뒤편에 기립한 인물은 고구려 왕자로 보이며, 우측 하단의 인물은 백제인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성당盛唐 제194굴 남벽의 유마힐경변維摩詰經變에도 관모에 2개의 깃털을 꽂은 인물이 있다. 그 복식이나 관모를 볼 때 한반도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 옆으로 가죽 모자를 든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의 의관은 장회태자묘章懷太子墓 동벽 객사도客使圖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인 동북 지역 소수민족 사신의 의관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벽화 속에 '산山'자 모양 관모를 쓴 인물은 한반도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시는 이미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시기이므로 이 인물은 신라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만당晩唐 제138굴 동벽 북측의 유마힐경변에 나오는 각국 왕자 가운데에도 관모에 2개의 깃털을 꽂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 만약 이 인물이 한반도 출신이라면 시기상으로 역시 신라인일 것이다.

오대五代 제61굴(947년에 조성되기 시작) 서벽에 있는 13.46m 길이의 〈오대산도五臺山圖〉에는 '신라왕탑新羅王塔', '고구려왕사高句麗王使', '신라송공사新羅送供使'라는 제기祭器와 그림이 있다. 인물의 복식은 당唐, 오대 복식과 동일하다. 이는 당대唐代 한반도의 신라와 고구려가 이미 당나라 및 불교 성지인 오대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 파리 기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경동藏經洞 제17굴에서 나온 오대 시기 유마힐경변 그림에도 2개의 깃털이 꽂힌 관모를 쓴 인물이 있다. 이 인물 역시 한반도 인물로 보이고, 시간상으로 보면 고려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송대宋代 작품인 〈번왕예불도番王禮佛圖〉, 〈육존자상六尊者像〉, 원대

元代 작품인 〈번왕예불도권番王禮佛圖卷〉 등에도 일반 깃털이나 꿩의 깃털이 달린 관모에 장회태자묘 객사도 상의 신라 사신 복식과 유사한 복식을 갖춘 인물이 나온다. 이 인물들은 시간상으로 고려 시기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돈황의 당대 벽화, 사마르칸트의 소그드인 벽화, 당 장회태자묘의 벽화, 서안西安에서 출토된 도관칠국육판은합都管七國六瓣銀盒 등에 등장하는 한반도 인물의 관모는 대체적으로 동일하여, 관모 상부의 깃털은 짧고 곧게 섰다. 그러나 돈황의 오대 및 송대 벽화,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의 고구려 고분 벽화 그리고 한반도의 고구려 고분 벽화, 중국 송대 그림 속 한반도 인물의 관모에 있는 깃털은 매우 길고 꿩의 깃털처럼 부드럽다. 조기 고구려인의 관모와 후대 신라인의 관모에 모두 깃털이 있지만, 그 형식면에서 전자는 부드럽게 굽어 있으며 후자는 딱딱한 직선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신라 이후 고려인의 관모는 조기 고구려인의 관모와 유사하다. 즉 관모 상단의 깃털이 짧고 곧은 것은 신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돈황 벽화의 당대 각국 왕자들 중 한반도 인물의 형상은 다수가 이와 같아 신라인이나 그 왕자임이 틀림없고, 오대 및 송 시기의 한반도 인물은 고려인이거나 그 왕자로 보아야 한다. 벽화 속에서 설법을 듣고 있는 왕자 가운데 깃털이 3개 이상인 인물은 그 출신 국가나 민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돈황 벽화에 한반도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은 당대 주변 국가 각 민족과 당나라 사이의 빈번한 교류를 말해주는 것이다. 당나라는 대외적으로 개방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 주변 각국과 각 민족은 당나라의 선진 문화, 전장典章 제도, 예술 등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모방했으며, 이를 소화시켜 자신들의 전통 문명을 창조했다.

杨森, 2011, 「敦煌壁画中的高句丽、新罗、百济人形象」, 『社会科学战线』2, 102–112.

저 자 양즈훙杨志红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마위량马玉良
처하이타오车海涛
연 도 1999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6
『通化师范学院学报』6

고구려의 건축공예

高句丽的建筑工艺

주 제 어 고구려
건축공예
궁전
무덤
사묘
성곽

고구려 건축공예는 건축 조형, 구조, 내용과 기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원의 전형적인 전통예술 스타일과 특징을 구현하고 있고, 동시에 고구려인의 지혜와 재능도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건축은 당시 생산력 수준과 건축 능력의 제한을 받았고, 계급과 종교의 낙인도 찍혀있으며 지리환경 역시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인은 3세기 중만기부터 기와를 사용했지만, 기와 건축물에는 엄격한 등급 차이가 있었다. 귀족의 주택은 보통 목조 건축물에 기와를 얹은 형태였다. 주택 한 채에는 다수의 방이 있었고, 방에는 모두 온돌이 설치되었다. 외부에는 회랑이 있고 정원 사방에는 담장이 있다. 주방, 육고肉庫, 우물, 방앗간, 외양간, 마구간, 수레용 차고 등 부속 건축물도 있었다. 안학궁安鶴宮은 가장 전형적인 고구려 왕실 건축으로 국왕의 권세와 위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시의 건축 수준과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구조의 고구려 건축물은 평양平壤 청암동 토성清巖洞土城 내에 위치한 금강사金剛寺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 고분은 크게 적석묘積石墓와 봉토묘封土墓로 구분된다. 그중 석분은 적석묘–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방단계제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방단석실묘方壇石室墓로 구분되고, 토분은 방단봉토석실묘方壇封土石室墓–방단계제봉토석실묘方壇階梯封土石室墓–토석혼봉석실묘土石混封石室墓–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로 구분된다. 이는 또한 무덤 건축의 변화 순서이기도 하다.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석재가 풍부했던 점은 적석묘 조영의 주요 전제이고, 산기슭을 따라 무덤을 조영한 것은 석묘의 유형이 변화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적석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구려인은 경사지 아래쪽부터 돌을 쌓았고 나중에는 사방에 모두 돌을 쌓아 방단적석묘가 형성되었다. 그 뒤에

는 어지럽게 쌓았던 돌을 좀 더 정연하게 쌓거나 혹은 담장처럼 돌을 쌓아올렸는데, 이 역시 처음에는 아래쪽만 쌓다가 나중에는 사방에 모두 쌓아올렸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계단 형식이다. 이와 같이 방단적석묘는 일반 적석묘보다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했고, 방단계제적석묘는 한 단계 진보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덤 내부 역시 먼저 격벽을 쌓고 중간에 쇄석을 채워 상부 적석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봉분의 적석 중량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계단 외측에 호석을 세웠으며, 석재 사이에 홈을 파서 미끄러짐을 방지했다. 고구려인은 넓은 묘실이 좁은 분실墳室보다 더 튼튼하다는 점에 주의하여, 방단계제적석묘에 묘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석실묘의 묘실은 점차 무덤 상부에서 지표로 이동했고 일부에서는 모줄임천장 구조의 묘실도 나타났다. 석묘에 이어 주요 무덤 건축 형식이 된 것은 석실봉토묘로 대부분의 고구려 영역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다. 묘실은 단실, 쌍실, 다실 등 다양하고 일부 쌍실묘에는 감실도 있다. 외형은 방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계단이 있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고분 건축에서 천장은 예술적 수준이 매우 높은 부분으로 평천장, 우진각천장, 꺾임천장, 궁륭식천장, 평행고임천장, 모줄임천장, 팔각고임천장, 평행모줄임천장, 궁륭식모줄임천장 등이 있다. 묘실 내부 양식을 지상의 축조 형식과 맞추기 위해 묘실 내부에는 기둥, 두공斗拱, 들보를 그렸으며 벽면에는 각양각색의 생활, 풍속, 인물, 사신도四神圖 등을 그렸고, 천장에도 화려한 문양을 그렸다. 고분 관련 건축 중 호태왕비好太王碑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걸작이다.

고구려는 건국 당시부터 자연 조건을 이용하여 성을 쌓았고, 4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대부분은 요하遼河 동안에 위치하여, 요하를 천연 장벽으로 삼고 있다. 각 성곽에도 역시 적을 방어하기 위한 여장, 망대, 각대, 옹성, 치 등의 방어 시설이 있었다. 고구려의 성벽 축성법은 한漢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점점 간단하고, 힘이 덜 들면서도 튼튼한 흙다짐 방식으로 변화해갔다. 성벽 위에는 성루와 각루 등 건축물도 설치했다.

고구려의 건축물은 규모가 매우 방대했으며, 지리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한랭한 기후 때문에 온돌을 설치했고, 건축 재료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석재를 이용했다. 그리고 중원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건축분야에도 그 흔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고구려 후기 성벽에 나타나는 흙다짐 성벽, 또 봉토묘 등이 모두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다. 고구려 건축의 변화는 고구려 민족의 문화가 중원 문화와 함께 융합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융합과 발전은 역사상 민족 관계의 일반적 규칙과 필연적 추세를 대표하고 있다.

杨志红 · 马玉良 · 车海涛, 1999, 「高句丽的建筑工艺」, 『通化师范学院学报』6, 16–20, 26.

저 자 왕면허우王绵厚
요령성 박물관

연 도 2001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통화通化 만발발자萬發撥子 유적의 고고학, 민족학적 고찰

关于通化万发拨子遗址的考古与民族学考察

주 제 어 만발발자 유적
고고학과 민족학적 성격

만발발자萬發撥子 유적은 혼강渾江 중상류에 위치한 유적으로 시기상으로는 신석기 만기부터 청동기, 철기 시대 조기까지 이어지는데, 그중 청동기 시대 유구와 유물이 가장 대표적이다. 석축 구조의 주거지와 무덤, 청동기 및 토기는 모두 압록강鴨綠江 우안과 혼강 유역의 토착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유적은 총 7기로 구성되어 있다. 1기는 신석기 시대 만기 유구로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6,000~5,000년 사이인데, 이는 다시 조기와 만기 두 단계로 구분된다. 2, 3, 4, 5, 6기는 각각 상주商周, 춘추전국春秋戰國, 서한西漢, 위진魏晉 및 명대明代에 상응한다. 그중 2, 3, 4기는 대체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높은 3종 유구이다. 1, 2기 유구는 분포 범위가 좁고, 3기 유구가 유적의 중심이 되어 전체 유적 범위에 고르게 분포하며 출토유물 역시 가장 풍부하고 문화 퇴적층도 두터운 편이다. 4기 유구는 면적은 넓으나 퇴적이 얇은 편이다. 5기 유구의 분포 면적은 크게 축소되었다.

보고서에 근거하면 유적의 제3, 4기는 춘추전국~서한 시기 유구이고, 분포 범위나 문화 퇴적, 유물의 특징 등으로 볼 때 이 유적의 중심이다. 문헌에 근거하면, 주요 문화 유형의 분포 시기는 2강(압록강, 혼강)과 2하(태자하太子河, 혼하渾河) 상류를 중심으로 동북 예맥濊貊 계통의 '맥貊'족이 집중 분포했던 중요시기에 해당한다.

압록강 우안과 혼강 유역을 중심으로, 요령성遼寧省 환인桓仁, 신빈新賓,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 집안集安, 임강臨江을 포함하는 지역의 '고구려 선대'인 청동기 시대 유적은 서한 이전 문헌에 등장하는 요동遼東 지역 고대 '맥'족(고이高夷)의 문화 유적이다.

2, 3, 4기 유구를 보면 전형적인 주거지는 반지하식에 장방형 혹은 원형의 석축 구조이고, 온돌과 연도煙道 시설이 있다. 전형적인 무덤 형식은 대석개묘

大石蓋墓, 석개적석묘石蓋積石墓, 토광석곽묘土壙石槨墓, 석관묘石棺墓 등이고 약간 만기가 되면 계단적석묘階壇積石墓가 등장한다. 전형적인 청동기로는 단검, 정錠, 모矛, 포泡, 환環, 부斧 등이 있다. 전형적인 토기로 2기 상주 문화층에서는 '대족력袋足鬲, 누공권족두鏤孔圈足豆'가 출토되었고, 3, 4, 5기의 중심 문화층에서는 관罐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시기 관은 수량뿐만 아니라 형식도 다양하며, 호壺, 권족완圈足碗, 발鉢 등과 기본적인 조합을 이룬다. 만발발자 유적 중 3, 4, 5기 주요 문화의 성격은 인접한 2강 유역의 요령성 환인, 신빈, 관전, 길림성 집안, 임강 등지에서 확인되는 서주, 춘추~서한 이전 석관(석개)묘 및 청동단검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 문화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고구려 선대' 동북 맥족 청동 문화의 기본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토광석곽묘, 석관묘와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계단적석묘의 공존은 혼강 중상류 예濊와 맥의 상이한 문화가 융합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3기에서 등장하는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조기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는 모두 '2강'과 '2하' 유역의 동일 시기 석묘石墓 및 출토유물과 동일한 성격에 속한다. 즉 고구려가 혼강에서 건국한 서한 중기 이전에 활동했던 고대 맥족의 유구인 것이다. 이런 유구는 민족 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고구려 선대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만발발자 유적에서 석개묘, 적석석관묘와 공존하는 토광묘 혹은 토광석관묘를 중심으로 한 무덤 양식은 북쪽으로 인접한 송화강松花江 중, 상류 지역의 고대 '예'족, 즉 서단산西團山 문화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이다. 그리고 4기 및 그 이후의 석개묘, 적석묘 역시 고구려 건국 이전의 맥족 유구이고, 이 단계에서는 북쪽으로 인접한 부여 문화의 선대인 예족의 특징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발발자 유적의 중심 문화는 맥족의 문화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심 문화층 이외의 일부 고대 '예'족의 문화 유구는 인접한 송화강 상류 '서단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조합 역시 맥족 계통이 중심이 되나, 예족 계통의 유형적 특징도 겸비하고 있다. 3, 4, 5기 유구 출토 토기의 조합은 '2강'과 '2하' 유역 맥족 계통 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유적의 제2기에서는 일부 삼족기三足器 잔편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청동기 시대 이 지역에서 맥족의 협사갈도夾砂褐陶가 보편화되기 전에 서단산 문화가 일부 영향을 주었거나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 유적의 청동기 문화는 맥족이 중심이지만 송화강 유역 예족 문화의 영향도 겸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발발자 유적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형태인데, 이는 고구려 조기 산성이 등장하기 전, 맥족 '씨족 마을'의 대표적 형태로 볼 수 있다. 고구려 건국 이전에 2강 유역에 분포하던 조기 맥족의 '씨족 마을'은 기본적으로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였거나 석축 담장으로 둘러싸인 취락 형태였다. 이와 같은 씨족 취락은 서한 중기에 고구려가 건국한 후 '성읍 취락(중심은 산성)'으로 전이되

는 직접적인 근원이 되었다.

한편 최근 북한과 한국의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한 소위 '고古 구려국句麗國' 개념은 문헌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전혀 증명되지 않는 주관적인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북부여의 주몽朱蒙이 남하하여 졸본천卒本川(혼강)에 정권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고古 구려국'이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구려, 구려호句麗胡'라는 글자는 모두 서한 이후이다. 동한東漢 시기의 『논략論略』에는 동명東明과 주몽이 등장하나 고구려는 보이지 않고, 그 후의 『삼국지三國志』, 『후한서後漢書』 등에 처음으로 '구려국'이 등장하나 이는 모두 현도군玄菟郡 내 고구려현의 고구려를 말하는 것이다. 이 두 사료에는 구려국이 '소수맥小水貊'에서 근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수맥은 바로 현 혼강 유역의 옛 맥부貊部일 뿐이고, '고 구려국'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문헌에 따르면 서한 중기 혼강 유역에 주몽이 정권을 수립하기 전, 압록강과 혼강을 중심으로 한 2강 유역에 분명 '고구려 선대' 민족이 있었다. 이 고구려 선대 민족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한 선진先秦 시기의 '고이' 즉 요동의 옛 '맥'족이다. 고구려 건국 이전의 맥부는 사회 발전 단계상 여전히 청동기 시대의 '씨족 취락' 시대에 머물러 있었고,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전 고구려'시기에는 혼강 유역에 '비류부沸流部' 등 부족이 존재했을 것이나 '고 구려국'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王绵厚, 2001, 「关于通化万发拨子遗址的考古与民族学考察」, 『北方文物』3, 1–7.

저 자 왕페이펑王飞峰
한국 고려대학 고고환경연구소

연 도 2012
간행물명 『동북사지』4
『东北史地』4

삼연三燕 고구려 고고 찰기札記

三燕高句丽考古札记

주 제 어 삼연
고구려
고고

삼연三燕과 고구려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원 지역과 한반도 사이 문화 교류의 교량 역할을 했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 및 일본 열도의 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삼령환三鈴環은 삼연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한반도의 삼국시대에도 다수의 삼령환과 사령환四鈴環이 등장했다. 또 삼연의 마표馬鏢 중에는 양 끝에 방울이 달린 것이 있는데, 이는 난표鸞鏢라 불린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난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자료에만 근거한다면, 난표는 삼연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 열도로 전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일부 마구는 한반도 출토 마구보다 삼연 지역 출토품에 더 가깝다. 이 역시 난표의 전파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환인桓仁 미창구米倉溝 장군묘將軍墓 봉토에서는, 작은 돌을 깔아 쌓아 석대石帶를 만들고, 묘실 주위로 돌을 쌓는 기법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법은 집안集安 지역이나 평양平壤 지역 고구려 고분에서는 보이지 않고, 한반도 남부 가야와 신라 지역 일부 무덤에서는 봉토 내부, 묘실 주위에 돌을 쌓는 구조가 발견되었다. 한국 학자들은 이를 '호석 시설'이라 부른다. 가야 지역에 호석 시설이 있는 무덤은 낙동강洛東江 상류와 하류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신라 무덤 가운데 호석 시설이 있는 무덤은 경주慶州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5세기 초 호태왕好太王은 가야까지 남정을 갔다. 미창구 장군묘의 연대는 대체적으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보고 있다. 특히 묘실과 봉토에 호석 시설이 있는 고구려 무덤은 미창구 장군묘가 처음이다. 따라서 미창구 장군묘의 봉토 속 석대와 묘실 주위에 돌을 쌓는 기법은 가야와 신라 지역 무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집안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내에 묘주가 신라인일 것으로 추정

그 림 1. 삼연 지역 삼령환, 사령환 및 오산 수청동 백제 고분 삼령환 출토 상태
2. 중국 및 일본 열도 난표
3. 중국 및 한반도 관련 무덤
4. 고구려 산형 철촉
5. 고구려 벽화 고분의 '곡식 창고'와 집안 지역 현대 곡식 창고
6. 고구려, 백제 지역 출토 연통 및 관련 유물

되는 무덤이 있어, 당시 고구려에 거주하던 신라인이나 가야인이 이 무덤 축조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집안 우산묘구禹山墓區 3231호묘는 토석혼축광실묘土石混築壙室墓로, 봉토는 복두형이고 광실 저부는 당시 지표 아래 0.8m까지 내려간다. 광실 상부 및 봉토 속에는 돌을 쌓은 모습도 보인다. 이는 지면에 무덤을 올리는 고구려 무덤과는 다른 형식이고 봉토의 형식 역시 차이가 크며, 오히려 신라 지역 무덤 구조와 유사하여 발굴자는 묘주가 신라인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미창구 장군묘와 우산묘구 M3231은, 한반도 국가가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들 고유의 문화 속성 역시 이 시기 중국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안 청동단검묘에서는 다수의 청동 유물이 출토되었다. 보고서는 물론 이후의 연구에서 모두 이를 무덤으로 보았으나,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인골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화장이 유행한 고구려 무덤에서 보이는 불에 탄 유물이나 용석鎔石 등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집안 청동단검묘에서 보이는 여러 현상에 근거해볼 때, 이는 무덤이 아니고 고구려 무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10여 점의 청동기가 함께 매장된 점으로 볼 때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조성되었거나 혹은 우연히 조성되었을 수도 있는 청동기 교장窖藏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토된 청동단검이나 다뉴세문경 등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은 모두 늦어도 한무제漢武帝 이전에 생산되어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께 출토된 산형鏟形 철촉은 형태가 고구려 철촉과 유사하여, 원래 청동기 유물이 매장되어 있던 교장 부근에서 활동하던 후대의 고구려인들이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한강 유역의 고구려 보루와 산성 유적 발굴에서는 다수의 긴 통형 토기가 발견되었다.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며, 양쪽이 모두 트여있다. 주로 건물지 부근 혹은 구들이나 연도에 이어져서 출토되었고 내측에 그을음이 있어 한국에서는 이를 연통으로 보고 있다. 집안 우산묘구 2325호묘에서는 창고형 토기[陶倉]가 출토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물이 백제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연통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집안 우산묘구 2325호묘 출토 창고형 토기 역시 고구려 시기의 연통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적으로 볼 때 고구려 연통은 한강 유역의 고구려 보루에서 먼저 생산되었고, 빠른 시간 내에 이와 인접한 백제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후에는 점차 고구려 기타 지역 및 집안 지역까지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중국 및 북한 내에서 발견된 고구려 연통의 수량이 적어 고구려 연통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는 여전히 추후의 고고 발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王飞峰, 2012, 「三燕高句丽考古札记」, 『东北史地』4, 11–17.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3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4집
『边疆考古研究』14辑

고구려, 발해 문화 발전의 고고학적 관찰

高句丽、渤海文化发展的考古学观察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길림대학 '985'공정 항목

한당漢唐 시기 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선·후로 고구려와 발해 정권이 수립되었다. 고구려 도성은 환인桓仁, 집안集安, 평양平壤의 세 곳이었고, 각각 산성과 평지성이 상호 보완되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환인에는 오녀산성五女山城과 하고성자고성下古城子古城, 집안에는 환도산성丸都山城과 국내성國內城, 그리고 평양에는 대성산성大城山城과 청암리고성淸巖里古城 혹은 안학궁安鶴宮이 있었다. 이러한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특징이 평양 지역의 두 번째 왕성인 장안성長安城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장안성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이 설치되었고, 내성에 왕실을 두었으며 중성에는 관청, 외성에는 주민들이 거주했다. 그중 외성은 십자로로 정연하게 구획된 방리坊里를 조성했고, 내성의 방어를 위해 내성 북쪽의 산봉우리에 따로 북성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북위北魏 낙양성洛陽城이나 대동大同의 북위 평성平城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구려 장안성은 원래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되는 전통의 기초 위에 북위 낙양성의 규획을 흡수하여 새로운 구조로 조성된 것이다.

발해는 처음에 현 돈화敦化 지역에 왕성을 마련했다. 학계에서는 성산자산성城山子山城을 대조영大祚榮의 동모산성東牟山城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도성은 중경中京이었고 곧 이어 상경上京, 동경東京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794년에 상경上京으로 옮긴다. 두 번째 상경으로 옮겨온 이후 발해는 상경성을 크게 증축했다. 처음 상경성을 도성으로 삼았을 당시의 성지를 궁성으로 삼고, 궁성과 그 좌, 우의 부속 구역 전면에 황성을 새로 수축하였다. 수당隋唐 장안성長安城의 배치 구조를 모방한 것이다.

고구려 무덤은 크게 적석묘와 봉토묘로 구분된다. 적석묘는 내외부 구조의 차이에 따라 다시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 적석석실묘積石石室墓로 나눌 수 있는데 적석석광묘는 고구려 정권 수립 이전부터 5세기까지 유행했고 적석석실묘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는 3세기 말, 4세기 초에서 5세기까지 유행했다. 봉토묘는 내부가 석실이라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로 불린다. 중소형의 벽화가 없는 무덤과 중대형의 벽화가 있는 무덤이 모두 포함된다. 중소형의 벽화가 없는 무덤은 시대 상한이 적석석실묘의 등장 시기와 비슷하고 하한은 고구려 멸망 이후까지 내려간다. 중대형의 벽화묘는 4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까지 유행한다.

발해의 무덤은 토土, 석石, 전磚 구조의 3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토광묘, 석실묘(석광, 석관, 석곽 포함), 전실묘(전곽묘 포함)이다. 이른 시기의 토 구조 무덤은 말갈족의 원래 문화 요소이고 그중에는 부여 문화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석 구조는 고구려 문화 요소이며 비교적 늦은 시기의 전 구조는 중원 문화의 요소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건축부재, 토기, 금속기 등 유물에서도 상이한 문화 요소와 상호 영향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무덤에서 발견되는 기와는 모두 회색이고 성지, 건물지의 기와는 대다수가 홍색이다. 기와의 문양 가운데 현지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은 비스듬한 격자문, 격자문, 자리문 등이다. 와당의 문양은 무덤의 경우 운문雲紋과 연화문蓮花紋이 차례로 등장하고 건물지에서는 운문, 연화문, 인동문忍冬紋, 수면문獸面紋이 차례로 등장한다. 그중 운문 와당은 중원 지역에서 한漢나라 이래로 유행한 와당이고, 연화문, 인동문, 수면문 역시 중원 지역의 불교가 유행한 후에 와당이나 화문전花紋磚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양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이 몇 가지 문양은 자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초석은 중원 지역과 동일한 복분식覆盆式이 있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팔각형도 있다.

발해는 육정산묘지六頂山墓地에서 승문繩紋, 비스듬한 격자문, 격자문이 출토되었고 그 후에는 민무늬가 광범위하게 유행했다. 그 후로 크게 유행한 것은 다양한 형식의 연화문이다. 발해의 초석 역시 복분식이나 복분 외면에 다시 도제의 복분권覆盆圈을 씌운 것은 발해의 독특한 형식이다. 일부 건축 부재 중에는 단색 녹유나 여러 색의 유약을 바른 것도 있다. 이러한 공예는 중원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토기에는 현지 토착 문화, 요동遼東과 낙랑樂浪의 한나라 문화, 요서遼西의 선비鮮卑 문화, 중원의 북위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고, 발해의 토기에도 역시 말갈 문화, 부여 문화, 고구려 문화, 중원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구려의 금속기는 발해보다 풍부하다. 대표적인 것이 무기와 사냥 도구이며, 그 외에 마구, 생산 도구, 생활 용구, 장식품 등도 있다. 다수가 철제이나 동제, 금동제도 있다. 이들 금속기는 대부분이 고구려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나 양식은 기타 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고구려의 마구는 선비 마구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발

해의 금속기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화살촉의 수량이 가장 많다. 또 발해와 고구려는 모두 동경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발견된 동경은 모두 중원에서 수입된 것이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중원에 영향을 준 것도 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가무가 중원에 전래되어 수당 시기 궁정 가무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발해는 금은동 불상과 자자분紫瓷盆을 당唐에 보냈고, 발해 왕자와 학자들이 당에서 정치, 문화를 공부했다.

魏存成, 2013, 「高句丽、渤海文化发展的考古学观察」, 『边疆考古研究』14辑, 220–228.

저 자 인궈유尹国有
통화사범학원 미술학과
연 도 2000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1
『通化师范学院学报』1

고구려의 석石 문화

高句丽的石文化

주 제 어 고구려
석 문화

집안集安 시내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다양한 유적 가운데 석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집안 시내에는 산성 5기, 관애關隘 3기, 보루 1기가 남아 있고 모두 석재로 축조되었다. 고구려 왕조의 두 번째 도성이자 이용 기간이 가장 길었던 국내성國內城은 정교하게 가공한 방형과 장방형 석재로 쌓은 부분과 가공하지 않은 석재로 쌓은 부분이 있고, 성벽 상부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재로 쌓기도 했다. 환도산성丸都山城 역시 자연 그대로를 장벽으로 이용한 일부 절벽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화강암으로 성벽을 쌓았다.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도 산세가 오목한 부분 및 남쪽 계곡 입구의 평평한 부분에 석축 성벽을 쌓았다. 역시 화강암을 이용했고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외측을 평평하게 쌓았다. 관마산성關馬山城은 집안시 서북쪽 53~54㎞의 심산 협곡에 위치한다. 이 성은 서쪽, 동서쪽, 동북쪽의 세 산 사이를 석축 성벽으로 가로막은 형태이다. 망파령관애望波嶺關隘, 칠개정자관애七個頂子關隘, 노변장관애老邊墻關隘, 대천大川 보루 역시 모두 석축했다.

호태왕비好太王碑는 천연 응회암 석주를 가공하여 제작했다. 4면에 총 44행 1,775자를 새겼다. 고구려 시기 비석으로는 집안 판차령板岔嶺 서북쪽에서 발견된 관구검기공비毋丘儉紀功碑 잔편도 있고, 집안 북쪽 산허리에서 발견된 인면人面 석각도 있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고구려의 모신상母神像이라 보고 있다. 또 고구려에서는 '묘상입비墓上立碑'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집안에서 팔각기둥 모양 혹은 하부는 방형에 상부는 원형의 비석이 발견되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외에 집안에서는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석주石柱도 발견되었다.

집안에는 1만여 기의 고구려 무덤이 분포하고 있다. 고구려 무덤은 재료와 축조 방법 차이에 따라 크게 석묘와 토묘로 구분한다. 석묘에는 적석묘,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 봉석동실묘封石洞室墓 등이 있고

토묘에는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 토석혼봉석실묘土石混封石室墓, 석체계단봉토묘石砌階壇封土墓, 석체방단계제봉토묘石砌方壇階梯封土墓, 봉토동실묘封土洞室墓 등이 있다. 석묘는 석재로 단을 쌓고 광실壙室을 만든 후 계단階壇을 둘러싸는 방식이고, 묘실 역시 석재로 쌓았다. 일부 석묘에는 벽화도 있다. 벽화는 평평하게 다듬은 석면에 직접 그렸다. 토묘는 대부분 묘실, 묘도를 석축하고 내부에는 시상을 석축하기도 했으며, 천장 역시 석재로 평행고임, 모줄임 천장 등을 조성한 후 봉분만 흙으로 조성했다.

집안 동대자東臺子 유적에서는 건물지와 회랑 등이 발견되었는데, 자갈과 황토를 다진 기초 위에 초석을 정연하게 배치했다. 실내에는 실외로 통하는 연도가 있는데, 연도 상부는 판석을 덮었다. 장천촌長川村 유적에서는 석축 담장도 발견되었다. 건물지나 성지 등에서 발견된 초석의 상면은 평평한 원형이고, 옆면은 팔각형, 볼록한 원형, 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생활용품 가운데 숫돌, 벼루 등의 석제품도 있다. 평양平壤 대성산성大城山城에서는 석갑石匣과 불상도 출토되었다. 석갑 안에서는 금동과 금은으로 제작한 남녀 조각이 발견되었다. 대성산성에서는 불경이 들어있는 석합石盒도 출토되었다. 고구려인들이 궁실, 능침 및 기타 건축물에 사용한 석재를 채석한 채석장 유적이 1981년 집안 북쪽 23㎞ 부근의 녹수교綠水橋 동북쪽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고구려는 건국 이전의 5부 문화, 양한兩漢 시기의 조기 문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의 중기 문화, 수당隋唐 시기의 말기 문화라는 4단계를 거쳐 왔지만, 각 단계마다 지리환경은 시종일관 그 물질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집안의 고구려 유적은 당시 고구려인의 눈부신 석石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尹国有, 2000, 「高句丽的石文化」, 『通化师范学院学报』1, 28–32.

저 자 자스진賈士金
연 도 1985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집안集安 고구려 문화재 고고 조사의 새로운 과제

集安高句丽文物考古工作中的新课题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은 고구려 정권이 서기 3년부터 427년 평양平壤 천도 이전까지 도읍으로 삼았던 곳으로 많은 고구려 유적이 남아있다. 그간의 고고 조사는 대부분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 유적 이외에 대부분 문화유산이 두루뭉술하게 고구려 문화유산이라고 불려왔다.

한대漢代에 집안에서 발생했던 여러 활동들은 고구려 전기 사회생활에 각양각색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집안 지역에서 한대의 유적을 찾는 작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한대에 이미 이곳에는 상당 규모의 성지가 있었다. 기존 조사에서 다량의 화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여러 유적, 무덤 등 기타 문화유산도 남아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안 경내의 고분군 혹 묘지는 총 71곳에 12,358기라고 한다. 그중 10,000기 정도가 동구에 집중되어 유명한 동구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동구고분군의 1만 여 무덤을 모두 고구려 무덤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고구려가 이곳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이미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으므로, 집안 지역의 고분에는 당연히 고구려 이전과 이후 무덤이 다 존재해야 한다. 집안에서 조사된 소형 동실묘洞室墓에서는 대부분 유골이 나오지 않았으나, 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에서 조사된 한 소형 동실묘에서는 흩어져 있는 다수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최소 4인 혹은 5인의 유해로 구분되는데, 하나의 묘실에 다수의 유골을 매장하는 방식은 발해 시기에 유행한 매장 풍속이다. 집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소형 동실묘는 대부분이 발해 시기 무덤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연대 상한이 고구려 만기까지 올라가는지, 또 고구려 만기 봉토석실묘와 관련이 있는지, 만약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를 통해 자료가 축적되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고구분군을 두루뭉술하게 모두 고구려 고분군이라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소형 동실묘는 길림성 돈화敦化, 화룡和龍 일대 및 흑룡강성黑龍江省 영안寧安 등지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초기에는 동구고분군의 소형 동실묘를 고구려 고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동실묘 역시 고구려 고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발해 유물이 출토되자 이를 다시 발해 고분이라고 수정했다. 하지만 집안 지역 소형 동실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해 무덤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贾士金, 1985,「集安高句丽文物考古工作中的新课题」,『博物馆研究』2, 29–32.

저 자 자오즈빈赵智滨
하남성 영양시
문화광파전시신문출판국
文化廣播電視新聞出判局

연 도 2017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고구려의 강역과 그 변화

高句丽的疆域及其变化

주 제 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강역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항목 '중국 동북 소수민족 문헌 정리와 연구 [中國東北少數民族文獻整理與研究]' (12BZS011)

고구려의 영토는 전체적으로는 부단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각 시기별로는 축소와 확대가 교차되었다. 고구려 영토의 변화는 크게 조기, 중기, 후기의 3시기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제2현도군玄菟郡 내 예맥계濊貊系 토착 세력이 세운 나라로 최초의 영역은 제2현도군의 영역과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제2현도군의 관할 지역은 고구려현高句驪縣, 상은대현上殷臺縣, 서개마현西蓋馬縣 지역이었다. 이는 현 요령성遼寧省 동남부, 길림성吉林省 서남부, 북한 자강도慈江道, 양강도兩江道 일대가 된다.

그 후 고구려는 계속해서 영토를 확대해 나가, 동예, 동옥저, 북옥저 등지를 정복했다. 전체적으로 고구려 조기의 강역은 현 요령성 동남부, 길림성 서남부와 동남부, 흑룡강성黑龍江省 동남부, 북한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咸鏡北道, 함경남도咸鏡南道, 강원도江原道, 한국 강원도, 러시아 연해주 남부까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세기 초 요동태수遼東太守 공손강公孫康의 공격 후, 고구려는 요령성 동남부를 잃게 되었고, 정시正始 6년(245)에는 조위曹魏의 공격으로 길림성 동남부, 흑룡강성 동남부, 북한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한국 강원도, 러시아 연해주 남부 지역을 잃었다. 당시 고구려는 길림성 서남부, 북한 자강도, 양강도 지역만 차지할 수 있었다.

4세기 초 서진西晉 왕조가 혼란에 빠지자 고구려는 이 틈을 타 다시 세력을 확대했다. 서쪽으로 요동遼東 지역을 공격하고, 남쪽으로 한반도를 정벌했으며 북쪽으로 부여와 백제를 쳐 영토를 급속히 확대해 나갔고, 호태왕好太王과 장수왕長壽王 시기에는 영토가 가장 넓게 확대되었다. 서쪽으로는 396년 탁발선비拓跋鮮卑가 모용선비慕容鮮卑의 후연後燕을 공격하자 그 틈을 타서 고구려도 후연을 공격했고, 5세기 초에는 결국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게 되

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4세기 상반기 백제가 옥저와 부여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자 고구려는 4세기 중엽 백제를 공격하여 그 세력을 한반도 한강 유역까지 몰아냈고, 고구려는 부여의 옛 땅에 북부여 정권을 세웠으며, 옥저 지역에는 동부여 정권을 세웠다. 북부여는 자치권은 있었지만 사실상 고구려의 일부분이었다. 즉 410년 고구려는 다시 옥저 지역 즉 현 길림성 동남부, 흑룡강성 동남부, 러시아 연해주 남부, 북한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회복했고, 길림성 중부의 서류송화강西流松花江 유역도 통제 하에 두었던 것이다. 남쪽으로는 고국원왕故國原王 시기에 이미 낙랑군樂浪郡 치소인 평양平壤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고, 호태왕 시기에는 백제군을 치고 재령강載寧江 유역까지 차지했으며, 475년에는 백제의 한강 유역까지 남하하여 대방군帶方郡 관할 지역을 모두 점령하게 되었다. 또 548년에 백제와 고구려가 독산성獨山城에 전투를 벌이는데, 독산성은 현 충청남도忠淸南道 예산禮山 일대이다. 따라서 548년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선은 현 충청남도 예산 이북까지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51년 백제와 신라 연합군은 평양을 공격했고 신라는 죽령竹嶺 이외, 고현高峴 이내의 10개 현을 차지했다. 즉 551년에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는 죽령 부근이었던 것이다. 죽령은 현 충청북도忠淸北道 단양丹陽 동쪽 30리 일대이다. 이처럼 당시 고구려의 남쪽 영토는 현 북한 전 지역과 한국 강원도, 서울, 경기도京畿道, 인천仁川, 충청남도 동북부 일부, 충청북도 북부 및 경상북도慶尙北道 동북부 대부분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의 중기 영역은 대체적으로 현 요령성 요하遼河 동쪽 지역, 길림성 중남부, 흑룡강성 동남부, 북한, 한국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북부, 충청남도 동북부 일부 및 경상북도 동북부 대부분, 러시아 연해주 남부까지였다.

491년 장수왕이 사망하면서 고구려의 영토도 축소되기 시작한다. 문자명왕文咨明王 시기 물길勿吉은 길림성 중부 서류송화강 유역을 점령했다. 남쪽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했다. 551년에 백제는 한강 중하류 유역을 회복했고, 신라는 한강 상류 유역을 차지했다. 그 뒤 고구려는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와 연합하면서 함경남도 지역을 신라에 양보했다. 물론 고구려는 다시 643년에 신라를 공격하여 함경남도, 강원도 일대를 회복하기는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668년 멸망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구려는 전기에는 혼강渾江, 압록강鴨綠江 유역을 중심으로 삼았고, 후기에는 대동강大同江 유역을 중심으로 삼아 광대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다. 현 요령성 요하 동쪽 지역, 길림성 중남부, 흑룡강성 동남부, 북한, 한국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북부, 충청남도 동북부 일부, 경상북도 동북부 대부분, 러시아 연해주 남부 지역이 모두 한 때 고구려의 영토였다.

赵智滨, 2017,「高句丽的疆域及其变化」,『博物馆研究』3, 73–78.

저 자 장위환张驭寰
연 도 1958
간행물명 『문물참고자료』4
『文物参考资料』4

집안輯安 부근 고구려 시기 건축

辑安附近高句丽时代的建筑

그 림
1. 동진 시기 고구려 강역도
2. 통구성 외곽 평면 및 단면
3. 장군총 외부 모서리의 대형 석괴
4. 원형 주초석
5. 타원형 주초석
6. 연판문 와당
7. 수면문 와당
8. 석주
9. 성루 및 각루
10. 성문
11. 가옥
12. 가옥의 상옥
13. 공포
14. 가옥의 하옥
15. 커튼
16. 기둥 및 작체
17. 들보
18. 천장 꽃무늬

고구려는 중국의 양진兩晉, 남북조南北朝 시기부터 수隋나라 말기까지 존재했다. 고구려의 도성은 처음에 환인桓仁이었다가 집안集安 국내성國內城, 환도산성丸都山城, 그리고 한반도의 평양平壤까지 이어진다.

집안 지역에 남아있는 고구려 건축물로는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산성, 엄청난 숫자의 고구려 고분이 있고, 광개토경평안태왕비廣開土境平安太王碑도 있다. 이외에도 건축물과 관련된 초석, 석주, 기와, 전돌 등 유물도 다량 발견되었다.

국내성은 평면이 장방형이고, 동서남북에 각각 성문이 하나씩 있다. 성벽은 모두 석재를 사용하여 건축하였다. 환도산성은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이라고도 불린다. 자연 지세를 따라 성을 만들었으며, 평면 형태는 불규칙한 타원형이다. 성 내에는 음마지飮馬池, 점장대 등이 있으며, 궁전으로 추정되는 유구도 있다.

집안에 남아 있는 고분은 매우 많은데, 석분과 토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실총三室塚, 무용총舞踊塚, 장군총將軍塚 등이 대표적이다.

고구려의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소재로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당시의 건축물도 있다. 삼실총 북벽 벽화에서는 성루, 성벽, 각루, 성문 등이 확인되고, 무용총 벽화에는 가옥이 등장한다. 삼실총 동벽에는 처마 아래로 공포가 있는 더욱 화려한 건축물이 있다. 환문총環紋塚 북벽 벽화에는 가옥 실내의 기둥과 작체雀替(서까래와 기둥의 교차점에 받침목이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구조물)가 붙어있는 모습이 있고 그 표면에는 각종 권문卷紋이 부조되어 있다. 여러 벽화에서 보이는 건물 기둥 상부에는 모두 공포가 있는데, 기둥 위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 올라갔다. 실외의 들보는 이런 공포가 받치고 있고 또 가옥 실내 들보에는 세밀하게 조각된 권문이 있다. 고분 천장은 능형, 방형으

로 조성되었고, 각종 도안과 초화문草花紋을 그렸다.

벽화에 나오는 침실 내부에는 모두 커튼이 있어, 당시 실내 장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집안 부근 고구려 건축 유적은 고구려 왕조가 현재에 남긴 많지 않은 유산이다. 이러한 유적을 통해 고구려 건축이 얼마나 웅장했고 장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고구려 건축 양식의 독특한 측면을 추측할 수 있다.

张驭寰, 1958, 「辑安附近高句丽时代的建筑」, 『文物参考资料』4, 22–25.

저 자 장정옌张正岩
무순시 박물관
왕핑루王平鲁
무순시 사회과학원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신성도新城道 및 신성도 상의 여러 성지 고찰

新城道及新城道上诸城考

'신성도新城道'는 『신당서新唐書』권220에 처음 등장한다. 647년 당唐나라 이적李勣이 고구려 정벌 당시 영주도독營州都督의 군사를 이끌고 신성新城으로 들어간 후 남소성南蘇城, 목저성木底城을 공격했다는 기록이다. 당대唐代의 신성도는 동진東晉 시기 고구려 남북2도 중의 남도南道이고, 수대隋代의 남소도南蘇道이다. 이 길은 신성에서 출발하여 남소, 목저를 지나 환인桓仁, 집안集安 지역으로 가는 길이다.

신성도에는 남소, 목저 이외에 창암성倉巖城, 가물성哥勿城도 있다. 『신당서』 권111에는 설인귀薛仁貴의 고구려 정벌 노선이 신성, 남소, 목저, 창암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책 권110에는 당시 천남생泉男生이 당나라 군대에 가물哥勿, 남소, 창암을 들고 가 항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가물성 역시 신성도 상의 성지임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이상과 같이 신성도는 신성에서 출발하여 남소, 목저, 창암, 가물을 지나 국내성까지 가는 교통로이고, 그 종점은 당연히 당시 고구려 수도인 평양平壤이었을 것이다. 신성은 무순시撫順市 고이산산성高爾山山城으로 비정되고 있다.

남소성은 문헌기록에 따르면 신성과 목저성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휘발하輝發河 상류의 길림吉林 해룡海龍 산성자山城子설, 철령鐵嶺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설, 무순撫順 살이호산성薩爾滸山城설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는 남소수南蘇水 비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남소수가 현 소자하蘇子河이고 남소성은 신빈현新賓縣의 득승보산성得勝堡山城이라고 생각한다.

목저성은 남소성 동쪽에 위치하는 고구려 남도상의 중요 성지이다. 1988년 무순시 박물관에서는 신빈현 목기진木奇鎮 하서촌河西村에서 고대 성지를 발견했다. 필자는 이 성지가 고구려 목저성이라고 생각한다. 사서에는 목저성

이 당대 목저주木底州가 되고 발해 역시 이를 계속 이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암성은 남소성, 목저성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 성의 내성은 산에 축조되었는데 고구려 산성의 형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가물성은 사서에 따르면 비류수沸流水 일대에 위치하면서 남소성, 창암성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비류수는 현 부이강富爾江으로 비정되고 있어, 가물성은 신성도와 부이강 유역이 교차되는 지점일 것으로 보인다. 신성도는 혼하渾河, 소자하를 따라 가다가 영릉진永陵鎭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 후에 부이강과 합쳐지는 곳이 바로 환인桓仁의 오녀산성五女山城이다. 필자는 이 오녀산성이 가물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분석에 근거하면, 신성도는 신성(고이산성)에서 출발하여, 혼하를 따라 동진하다가 철배산鐵背山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고대에 '남협南陜'이라 부르던 고구려 남도의 소자하 계곡으로 들어가 남소성(득승보산성), 목저성(목기하 서쪽 평지성)을 지난 후 계속 동진하여 소자하 유역의 가장 비옥한 평지인 영릉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 후 다시 창암성(현 구로성舊老城)에서 색가色家, 백가白家를 지나고 사가査家, 대청구大靑溝, 마도령馬道嶺을 지나 환인 지역에 들어간다. 그 후 다시 부이강을 따라 남하하다가 가물성(오녀산성)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을 지나 혼강渾江을 넘어서 신개하新開河 하곡으로 들어간 후 곧장 집안시 국내성國內城까지 이어진다. 이 노선이 바로 당대에 요동遼東의 산악지대와 이어지는 중요 교통로인 신성도이다.

张正岩 · 王平鲁, 1994, 「新城道及新城道上诸城考」, 『辽海文物学刊』2, 25–27.

저 자 천다웨이陈大为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89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1
『辽海文物学刊』1

요령성遼寧省 경내 고구려 유적

辽宁境内高句丽遗迹

요령성遼寧省 동부 산악지대의 혼강渾江, 부이강富爾江 유역은 중국 고대 북방 고구려족이 발원하여 건국한 곳이고, 고구려가 세력이 가장 강력했던 4~5세기에는 요동遼東 지역 전체를 점령하여 적지 않은 역사유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무덤, 건축(주거)지, 산성 등을 들 수 있다.

무덤은 주로 수 십 기에서 많으면 200~300기까지 군집을 이루고, 모두 7종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원구식圓丘式 적석묘로 대부분 대형이고 보통은 2기가 연결되어 있다. 무덤 상부는 석재를 원구형으로 쌓았다. 둘째는 계단식적석묘로 무덤 외형에 모두 2~3단의 계단이 있다. 이는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덤 기초가 비교적 낮고 계단은 동서로 길며 무덤은 남북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묘실이 전자보다 크며 무덤이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가 연결된 것도 있다. 셋째는 계단식 석실묘로 외형은 단독으로 조영된 계단식 적석묘와 거의 동일하나, 다만 계단 아래에 묘실이 들어서고 묘실 저부는 이미 지표 아래까지 내려간다. 넷째는 소석묘小石墓로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작은 판석을 세워 벽을 만들고 그 위에 판석을 덮어 관 모양으로 만드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판석을 평행하게 쌓아 벽을 만들고 바닥에는 자갈을 깔며 상부는 판석으로 덮는 형태이다. 다섯째는 봉석석실묘封石石室墓로 묘실 바깥에는 모두 방형 혹은 방형에 가까운 묘단墓壇을 둘렀고, 네 벽은 대부분 판석을 평행하게 쌓아올렸으나 일부 판석을 세로로 세워 벽을 만든 것도 있다. 여섯째는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로 묘실 네 벽은 모두 판석을 평행하게 쌓았는데 안쪽 면을 정연하게 맞추었고, 무덤 기초에서 위로 올라가며 점점 안으로 좁아들게 한 후 모줄임 구조를 만들었다. 상부는 큰 판석이나 장조형 판석을 이어 붙여 덮었다. 묘실은 단실, 쌍실, 삼실 등 다양하

다. 묘문 외측에는 모두 좁고 긴 묘도가 있고, 묘문은 석재로 봉했다. 마지막은 장방형 퇴석묘堆石墓로 천연 판석을 평행하게 쌓아 묘벽을 만들되 기초부에서 위로 올라가며 안으로 좁아들게 하여 옆에서 보면 약간 측각이다. 기초석은 크고 뚜껑돌은 약간 작다.

유물은 일부 봉석, 봉토석실묘에서 소량의 토기 관罐, 시유도기施釉陶器, 동제 대식帶飾과 팔찌, 은반지 등이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원구식 적석대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촉鏃, 모矛, 도刀, 마함馬銜 등 철제 무기와 마구도 있고 금동 팔찌와 은으로 씌운 동제 투조 장식 등도 있다. 이런 유물은 일반적인 무덤에 부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시기는 원구식 적석묘가 가장 일러 상한이 양한兩漢 교체기까지 올라간다. 계단식 적석묘는 원구식 적석묘와 큰 차이가 안 나고 구체적으로는 한위漢魏 교체기에 해당한다. 봉석, 봉토석실묘는 내부에서 시유도관施釉陶罐과 반환형半環形 횡이기橫耳器가 나온 점으로 보아 진당晉唐 시기로 비정된다. 장방형 적석묘는 조기 적석묘의 일종일 것으로 보인다. 소석묘와 장방형 퇴석묘는 발굴이 되지 않아 기타 유형 무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고구려 건축(주거)지는 대부분 대형 산성 내부 혹은 소형 산성 주위에서 확인된다. 청원현清原縣의 두도성자頭道城子에서는 다수의 생활 용기와 토기가 발견되었다. 무순撫順, 신빈新賓, 청원 등지의 산지 7곳에도 이름 뒤에 '성자城子'가 붙는 주거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토석 혼축 담장이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 다량의 생활용기와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고구려의 산성은 건축 재료에 따라 토성, 석성, 토석혼축성의 3종으로 구분되고, 규모에 따라 대, 중, 소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고구려 산성은 무에서 유로, 소에서 대로 가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 조기에 높은 산에서 거주하는 용도로 축조된 일부 소형 산성은 산성이 형식을 완비하기 전의 초기 형태이고, 중형과 대형은 축조 시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건국 후의 조기 산성은 대부분 위진魏晉 시기에 축조된 산성의 시작 단계에 속하는 산성이고, 요동과 요남遼南의 일부 대형 산성은 진당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중원이 전란에 빠지자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한 후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산성의 완성 단계라 할 수 있다. 그 뒤로 정관貞觀 5년(631)까지 고구려는 동북쪽 부여에서 서남쪽 바다까지 천 여리에 걸쳐 산성을 쌓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 산성의 현 체계가 완성된다. 즉 고구려 서쪽 변경의 전방 방어선이 완성된 것이다.

산성의 크기는 산세와 교통 등 자연 조건도 고려한 결과이나, 또한 당시의 행정구역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략과 전술 면에서도 상이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구려 유적은 고구려 민족의 자체적인 특징도 있지만 한漢 문화의 영향

을 받은 흔적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특히 고분 묘실의 구조와 출토유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陈大为, 1989, 「辽宁境内高句丽遗迹」, 『辽海文物学刊』1, 136–141.

저 자 퉁다修达
연 도 1993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고구려 남북 교통로에 관하여

关于高句丽南北交通道

고구려 남북 교통로는 도성인 집안集安에서 요동遼東 지역으로 통하는 중요 노선이다. 고구려는 요동의 산악 지역을 이용하여 변경 지역과 요충지대에 다수의 산성을 축성하여 경계와 교통의 이중 역할을 담당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고구려의 교통로는 보통 산악지대의 하곡을 따라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고구려가 성과 관문을 쌓는데 더 없이 좋은 자연 조건을 제공했다. 그래서 집안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남북 두 갈래 길에 관련된 요동 산악지대의 하곡을 연결시키고, 그 하천에 인접한 고구려 산성을 결합하면, 남북 두 교통로의 대체적인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북의 두 도로는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일련의 하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남도는 혼하渾河, 소자하蘇子河, 부이강富爾江, 혼강, 신개하新開河와 연결되고, 북도는 혼하, 영액하英額河, 유하柳河, 휘발하輝發河, 혼강渾江, 위사하葦沙河와 이어진다.

고구려 교통로의 흥성과 폐기는 고구려 정권의 흥망성쇠와 길을 같이 한다. 국력이 강했을 때는 요동을 공략하는 발걸음을 따라 점차 서쪽으로 연장되어 갔고, 쇠락했을 때의 교통로는 집안에서 혼강 근처까지로 국한되었으며, 세력이 강성했을 때는 교통로가 멀리 요동을 가리켰고, 쇠퇴했을 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교통로는 현도도玄菟道, 남협南陜과 북치도北置道, 신성도新城道의 세 시기를 겪게 된다.

고구려 건국 이후부터 현도군玄菟郡이 서쪽 무순撫順으로 옮겨가기 이전까지 집안에서 현도군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바로 현도도이다.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자 현도군은 서쪽 무순으로 옮겨가야 했고, 그 때부터 중원의 역대 왕조는 부단히 고구려 정벌 전쟁을 일으켰다. 이 때 중원 왕조에서 파견한 군대가 고구려로 진공하는 교통로가 바로 남북의 2도였다.

그리하여 북치와 남협 두 교통로는 오랫동안 환도성丸都城에서 서쪽 변경의 요충지인 신성新城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다.

고구려의 남북 교통로 가운데 가장 급소는 남도였다. 역대로 환도성 공격이 성공하고 평양平壤이 함락되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다 남도를 통한 공격이 효과를 본 때문이었다.

佟达, 1993, 「关于高句丽南北交通道」, 『博物馆研究』3, 34–38.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부록 III

[성곽 및 고고일반] 수록 논문 목록(간행물별)

1.『考古』

王飞峰	2014	「丸都山城宫殿址研究」	『考古』4

2.『考古与文物』

赵俊杰	2012	「再论高句丽山城城墙内侧柱洞的功能」	『考古与文物』1

3.『东北史地』(『学问』)

肖景全·郑辰	2007	「抚顺地区高句丽考古的回顾」	『东北史地』2
刘子敏	2008	「“新城” 即 “平壤” 质疑—兼说 “黄城”」	『东北史地』1
李龙彬	2008	「铁岭境内高句丽山城的几个问题」	『东北史地』4
周向永	2011	「西丰城子山、铁岭催阵堡两山城中戍卒营地的相关问题」	『东北史地』1
王飞峰	2012	「三燕高句丽考古札记」	『东北史地』4
赵晓刚·王海	2014	「石台子山城防御体系探究」	『东北史地』3
赵少军	2015	「国内城城墙修筑问题探讨」	『东北史地』2
祝立业	2016	「集安地区高句丽王都文化的几个内容」	『学问』6
*李健才	2004	「再论高句丽迁都到国内以前有无汉代县城的问题」	『东北史地』6
*李殿福	2004	「高句丽的都城」	『东北史地』1
*李健才	2004	「关于高句丽中期都城几个问题的探讨」	『东北史地』1
*耿铁华	2004	「集安作为高句丽都城的考古学证明」	『东北史地』2
*王从安·纪飞	2004	「卒本城何在」	『东北史地』2
*李新全·梁志龙·王俊辉	2004	「关于高句丽两座土城的一点思考」	『东北史地』3
*张福有	2004	「高句丽第一个平壤城在集安良民即国之东北大镇—新城」	『东北史地』4
*张福有	2004	「高句丽平壤东黄城考」	『东北史地』5
*刘素云	2005	「高句丽的发祥地—卒本川当今何地」	『东北史地』6
*王绵厚	2006	「辽东“貊系”青铜文化的重要遗迹及其向高句丽早期文化的传承演变—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若干问题之四」	『东北史地』6
*王丛安·王俊辉·赵金付	2006	「沸流王故地在桓仁」	『东北史地』2
*李殿福	2006	「国内城始建于战国晚期燕国辽东郡塞外的一个据点之上」	『东北史地』3
*梁志龙·魏海波	2008	「高尔山城始筑年代考辩」	『东北史地』3
*王春燕·郑霞	2008	「霸王朝山城的调查与研究」	『东北史地』3
*周向永	2009	「西丰城子山山城始建年代再考」	『东北史地』2
*李新全	2009	「高句丽的早期都城及迁徙」	『东北史地』6

*付百臣	2009	「改革开放以来中国高句丽史研究述评」	『东北史地』2
*耿铁华	2009	「改革开放三十年高句丽研究成果统计与说明」	『东北史地』2

4.『辽海文物学刊』

李殿福	1986	「两汉时代的高句丽及其物质文化」	『辽海文物学刊』1
李健才	1987	「东北地区中部的边岗和延边长城」	『辽海文物学刊』1
李甸甫	1988	「高句丽新城的始筑年代」	『辽海文物学刊』2
陈大为	1989	「辽宁境内高句丽遗迹」	『辽海文物学刊』1
陈大为	1992	「抚顺高尔山山城结构布局辨析」	『辽海文物学刊』2
李殿福	1992	「高句丽考古的回顾与展望」	『辽海文物学刊』2
王绵厚	1994	「鸭绿江右岸高句丽山城研究」	『辽海文物学刊』2
刘长江	1994	「略论地理环境对高句丽文化的影响」	『辽海文物学刊』2
佟达	1994	「新宾五龙高句丽山城」	『辽海文物学刊』2
任鸿魁	1994	「泊汋城方位考述」	『辽海文物学刊』2
徐家国·徐琰	1994	「唐代木底州治今地考」	『辽海文物学刊』2
张正岩·王平鲁	1994	「新城道及新城道上诸城考」	『辽海文物学刊』2
梁振晶	1994	「高句丽千里长城考」	『辽海文物学刊』2
辛占山	1994	「辽宁境内高句丽城址的考察」	『辽海文物学刊』2
梁志龙	1994	「哥勿考辨」	『辽海文物学刊』2
王绵厚	1997	「高句丽的城邑制度与都城」	『辽海文物学刊』2

5.『文物参考资料』

张驭寰	1958	「辑安附近高句丽时代的建筑」	『文物参考资料』4

6.『博物馆研究』

栗谷	1983	「关于高句丽的山城」	『博物馆研究』1
贾士金	1985	「集安高句丽文物考古工作中的新课题」	『博物馆研究』2
耿铁华	1986	「高句丽的渔猎经济初探」	『博物馆研究』3
王健群	1987	「高句丽千里长城」	『博物馆研究』3
李殿福·孙玉良	1990	「高句丽的都城」	『博物馆研究』1

刘岚·邵春华	1991	「吉林通化市汉代自安山城调查与考证」	『博物馆研究』3
佟达	1993	「关于高句丽南北交通道」	『博物馆研究』3
周向永	1994	「高句丽金山城考」	『博物馆研究』3
董峰	1995	「东北地区高句丽山城的分类及年代」	『博物馆研究』3
李健才	1995	「吉林市龙潭山山城考」	『博物馆研究』2
温秀荣·张波	1996	「关于抚顺地区的高句丽山城」	『博物馆研究』1
许明纲	1996	「大连地区高句丽四座山城略考」	『博物馆研究』1
李鸿业	1999	「辽宁省岩州古城考 (燕州)」	『博物馆研究』3
柳岚	2000	「高句丽古城研究」	『博物馆研究』1
闰海·林克宇·李玉颖	2001	「高句丽 “建安道” 初探」	『博物馆研究』2
温秀荣	2002	「高句丽山城的排水系统」	『博物馆研究』2
佡俊岩	2002	「从石台山城看高句丽对山城选置、结构布局及建筑艺术」	『博物馆研究』2
王从安·纪飞	2006	「卒本城新考」	『博物馆研究』3
赵俊杰	2008	「试论高句丽山城城墙上石洞的功能」	『博物馆研究』1
郑元喆	2009	「高句丽山城瓮城的类型」	『博物馆研究』3
徐坤·聂勇·张迪	2012	「再论吉林省通化自安山城的年代」	『博物馆研究』1
赵智滨	2017	「高句丽的疆域及其变化」	『博物馆研究』3

7.『边疆考古研究』

李晓钟	2006	「石台子高句丽山城复原研究」	『边疆考古研究』4辑
魏存成	2010	「朝鲜境内发现的高句丽山城」	『边疆考古研究』9辑
魏存成	2011	「高句丽国内城西墙外排水涵洞及相关遗迹考察」	『边疆考古研究』10辑
魏存成	2013	「高句丽、渤海文化发展的考古学观察」	『边疆考古研究』14辑
魏存成	2016	「魏晋至隋唐时期中原地区都城规划布局的发展变化及其对高句丽渤海的影响」	『边疆考古研究』20辑

8.『北方文物』

魏存成	1985	「高句丽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2
陈大为	1995	「辽宁高句丽山城再探」	『北方文物』3
李殿福	1998	「高句丽山城研究」	『北方文物』4
李健才	2000	「再论唐代高丽的扶余城和千里长城」	『北方文物』1
营口市博物馆	2000	「关于安市城址的考察与研究」	『北方文物』2
孙进己	2000	「沈阳石台子高句丽山城城名及建立时间考」	『北方文物』1
王绵厚	2001	「关于通化万发拨子遗址的考古与民族学考察」	『北方文物』3
赵晓刚	2003	「石台子山城城名考辨」	『北方文物』3

宋娟	2015	「高句丽都城与环境的互动关系探讨」	『北方文物』4
王飞峰	2016	「吉林集安东台子遗址研究」	『北方文物』3
孙炜冉	2017	「高句丽“尉那岩城”考辨」	『北方文物』1

9.『社会科学战线』

王绵厚	2001	「高句丽的城邑制度与山城」	『社会科学战线』4
冯永谦	2002	「高句丽千里长城建置辨」	『社会科学战线』1
魏存成	2011	「中国境内发现的高句丽山城」	『社会科学战线』1
杨森	2011	「敦煌壁画中的高句丽、新罗、百济人形象」	『社会科学战线』2
赵俊杰	2014	「高句丽后期都城“平壤城”再考」	『社会科学战线』12

10.『通化师范学院学报』

耿铁华	1996	「高句丽南北道的形成与拓展」	『通化师范学院学报』1
杨志红·马玉良·车海涛	1999	「高句丽的建筑工艺」	『通化师范学院学报』6
李淑英·孙金花	1999	「高句丽人饮酒酿酒考」	『通化师范学院学报』6
尹国有	2000	「高句丽的石文化」	『通化师范学院学报』1
宋福娟·赵福香	2000	「高句丽的水上交通」	『通化师范学院学报』6
李淑英	2001	「五女山城不是纥升骨城」	『通化师范学院学报』1
李淑英	2007	「国内城及其位置考论」	『通化师范学院学报』7
梁启政	2007	「高句丽粮食仓储考」	『通化师范学院学报』6
宋娟	2010	「高句丽都城环境初探」	『通化师范学院学报』7
李乐营·孙炜冉	2013	「佛教对高句丽建筑的影响」	『通化师范学院学报』11

11. 기타

朴真爽	1987	「城子山山城和土城村土城及其筑城年代」	『延边大学学报』4
耿铁华	1989	「集安高句丽农业考古概述」	『农业考古』1
陈平	2005	「试析高句丽山城的起源」	『内蒙古文物考古』2
拜根兴	2009	「在唐高句丽遗民遗物—遗迹的现状及其分布」	『中国历史地理论丛』1
姜雨风	2015	「高句丽城墙石洞再探—从文献角度对高句丽筑城石洞功用进行探讨」	『黑河学刊』8
孙炜冉·李乐营	2015	「高句丽与渤海佛教建筑比较研究」	『史志学刊』2
王飞峰	2016	「国内城体育场地点高句丽遗址研究」	『东南文化』4

*표시 논문은 2008년~2011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한 · 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에 수록되어 있어, 이 책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I

성곽 및 고고일반

총괄	이주헌(국립문화재연구소)
	임승경(現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재윤(現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김혜정(現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 · 관리사업추진단)
번역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해제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감수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편집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교정	홍밝음(국립문화재연구소)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발행일	2019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www.nrich.go.kr
	T. 042. 860. 9285 / F. 042. 861. 4924
디자인	지그래픽
	34566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03번길 3
	T. 042. 256. 5055 / F. 042. 625. 6882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926-01
ISBN	978-89-299-1706-7 94910 978-89-299-1705-0 (전3권)

© 2019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내용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성곽 및 고고일반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SBN 978-89-299-1706-7 94910
978-89-299-1705-0 (전3권)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927-01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고분

II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고분

발 간 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역사문화 관련 유적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 · 중 철기자료집 Ⅰ~Ⅵ』(2013), 『북방지역 고구려 · 발해 유적 지도집』(2014), 『고구려의 토기』(2016), 『고구려의 철기』(2017), 『고대국가 부여』(2018), 『중국 동북지역 고고조사현황-길림성 · 요녕성 · 흑룡강성 · 내몽고자치구편-1985~2015-(2012 · 2013 · 2017 · 2019)』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발간』 사업은 국내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중국의 우리 역사문화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중국의 고구려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가운데,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간행물은 총 11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일부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보 등에도 소량의 고구려 고고학 관련 연구논문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정기간행물에 보고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 총 248편을 수록하였으며, 도서의 구성은 Ⅰ. 성곽 및 고고일반, Ⅱ. 고분, Ⅲ. 유물로 나누어집니다. Ⅰ권에서는 고구려의 도성 및 산성 그리고 고고일반에

대한 논문 총 87편을 해제하여 수록하였으며, 대체로 고구려 도성의 위치비정 문제, 산성의 축성시기 및 유형 그리고 구조와 관련한 내용이 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Ⅱ권에는 고구려 고분 및 고분벽화와 관련한 논문 총 82편이 수록되었으며, 고분의 구조 및 형식, 고구려 고분벽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내용이 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Ⅲ권에는 고구려 유물에 대한 논문 79편을 담았으며, 특히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연구현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은 현재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현황 및 연구경향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책자를 통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 관련 발굴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구려 연구경향을 심도 깊게 파악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수집과 논문번역을 담당한 직원분들과 이를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9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 종 덕

일러두기

1. 이 책은 중국 주요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학술논문 총 248편을 주제별로 해제하여 수록한 도서입니다.

2. 논문의 제목, 간행물명, 소속은 중국어 간체자를 따랐으며, 필자의 소속은 논문이 게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간행물의 해제는 논문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책의 객관성 및 서술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용어 등은 수정하였습니다.

4. 책에 수록된 모든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하였습니다.

5. 본고에 실린 논고의 용어 등은 저자의 의견이므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발간사 ····· 002

일러두기 ····· 004

Ⅰ. 머리말 ····· 007

Ⅱ. 고분 ····· 011

1) 고분 ····· 012

2) 고분벽화 ····· 112

Ⅲ. 부록 ····· 215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머리말 I

머 리 말

이번『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발간사업은 중국 내 고구려 고고학에 대한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방지역 우리 역사문화 관련 유적에 대한 고대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고고학 관련 정기간행물은 약 37종이 있으며, 이 중 고구려 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간행물은 중앙의『고고考古』,『고고학보考古學報』,『문물文物』등 3종과 동북 지역의『고고여문물考古與文物』,『박물관연구博物館研究』,『변강고고연구邊疆考古研究』,『북방문물北方文物』,『요해문물학간遼海文物學刊』등 총 8종이다. 또한 고고학 관련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다수 수록된 정기간행물로 길림성에서 발간하는『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戰線』,『학문學問』(『동북사지東北史地』)과 통화사범학원에서 발간하는『통화사범학원학보通化師範學院學報』가 있다.

이번 책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정기간행물에 보고된 고구려 관련 논문 총 248편을 수록하였으며, 오른쪽의 표는 중국 주요 정기간행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본 도서의 구성은 Ⅰ. 성곽 및 고고일반, Ⅱ. 고분, Ⅲ. 유물로 나누어지며, Ⅰ권은 다시 도성, 산성, 고고일반으로 구분된다. 도성과 관련한 논문은 18편으로 주로 오녀산성과 국내성 등의 위치 비정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산성과 관련한 논문은 42편으로 성곽의 축성 시기 및 유형 그리고 구조와 관련한 해제이다. 고고일반은 27편으로 고구려 문화 및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Ⅱ권에서는 고구려 고분과 고분벽화에 대한 논문 82편을 담았다. 고분과 관련한 논문은 40편으로 주로 고분의 구조 및 형식, 그리고 변화 과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실렸다. 고분벽화에 관련한 논문은 42편으로 고분벽화 제제의 표현 내용 및 변천과정에 대한 해제가 대체로 수록되었다. Ⅲ권에서는 고구려 유물에 대한 논문 79편을 실었으며, 각각 금석류 41편, 금속류 11편, 기와류 8편, 토기류 8편, 기타 11편이다. 특히 금석류에서는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연구현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해제되어 있다.

이번 도서는 지리적 · 언어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중국의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해제함으로써 고구려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고구려 및 발해 관련 연구도서를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아갈 예정이다.

본 책자에 소개된 주요 정기 간행물 2018년 12월 기준

연번	간행물명	발간기관	유형	발간 권수	수록 편수*	개 요	비 고
1	고 고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월간	621	8	· 1955년 : 창간(매년 6집씩 출판) · 1958년 : 월간으로 발행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매년 6집씩 출판) · 1983년 : 월간으로 변경	
2	고고학보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계간	212	2	· 1936년 : 『전야고고보고田野考古報告』로 출판 · 1947년 : 『중국고고학보』로 개칭 · 1953년 : 현재 명칭으로 개칭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	
3	문 물	국가문물국	월간	741	8	· 1950년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문물국 자료실 내부자료로 발간 · 1951년 : 부정기 간행물로 공개 발행 · 1953년 : 월간으로 발행 · 1959년 : 『문물』로 개칭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	
4	고고여문물	섬서성문물국 섬서성고고연구원	격월간	228	9	· 1980년 : 창간(4집만 출판) · 1985년 : 5집만 출판 ※ 1980년 1985년 이외에는 격월간으로 출판	동북 지역 관련 논문과 보고서 다수 수록
5	박물관연구	길림성박물원	계간	144	75	· 1982년 : 창간	
6	변강고고연구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간	23	21	· 2002년 : 창간(매년 1~2집씩 출판)	
7	북방문물	북방문물잡지사	계간	149	37	· 1981년 : 『흑룡강문물총간黑龍江文物叢刊』으로 창간 (2집만 출판) · 1982년 : 3집만 출판 · 1985년 : 현재 명칭으로 개칭	
8	요해문물학간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반년	21	21	· 1986년 : 창간(1집만 출판) · 1987년 : 매년 2집씩 출판 · 1998년 : 정간	
9	사회과학전선	길림성 사회과학원	월간	283	20	· 1978년 : 창간(초기에는 계간으로 출발) · 2003년 : 월간으로 발행	철학, 경제학, 역사학 등 인문사회과학의 각 학문 분야를 모두 망라한 정기간행물
10	통화사범 학원학보	통화사범학원	월간	223	25	· 1980년 : 창간(부정기 출판으로 출발) · 1988년 : 계간으로 변경 · 1999년 : 격월간으로 발행 · 2007년 : 월간으로 발행	
11	학 문	길림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고구려연구중심	격월간	79	21	· 1982년 : 창간(『동북사지東北史地』로 출발) · 2016년 : 『학문』으로 개칭 · 2017년 : 정간	

* 11종 정기간행물 이외에 『내몽고문물고고內蒙古文物考古』(1편), 『농업고고農業考古』(1편), 『돈황연구敦煌研究』(1편), 『동남문화東南文化』(3편), 『요령대학학보遼寧大學學報』(1편), 『문물춘추文物春秋』(1편), 『사지학간史志學刊』(1편), 『사학집간史學集刊』(1편), 『사회과학집간社會科學集刊』(1편), 『연변대학학보延邊大學學報』(1편), 『장춘사범학원학보長春師範學院學報』(2편), 『중국역사지리논총中國歷史地理論叢』(1편), 『중국사연구中國史研究』(1편), 『화하고고華夏考古』(2편), 『흑하학간黑河學刊』(1편) 등에 게재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도 본 책자에 수록하였다.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고분 II

1) 고분

2) 고분벽화

01

겅톄화	고구려 귀족 염모冉牟의 무덤 및 묘지墓誌 고증, 해석	014-015
닝후이쉐	고구려 시조왕 주몽朱蒙 무덤은 어디에	016-017
닝후이쉐	환인桓仁 미창구米倉溝 장군묘將軍墓 묘주 고찰	018-019
량즈룽 · 왕쥔후이	요령성遼寧省 환인桓仁의 청동 유물 출토 무덤과 관련 문제	020-022
류란	고구려 적석관묘積石串墓 연구	023-025
류란 · 장쉐옌	고구려 봉토묘 연구	026-028
리뎬푸	집안集安 고구려 고분 연구	029-031
리수린	길림吉林 집안集安 고구려 3319호묘 일월신궐日月神闕 고증 및 관련 중대과제 연구	032-033
리수잉 · 겅톄화	고구려 왕릉 및 관련 문제 연구	034-035
마젠	집안集安 칠성산七星山 96호 고구려 적석묘의 시대 논의	036-038
쉬만	새로 발견된 평양平壤 동산동東山洞 고구려 벽화묘	039-040
쑨런제	고구려 석실묘 기원 재논의	041-042
쑹쥐안 · 겅톄화	고구려 장군총將軍塚의 배장묘	043-045
쑹쥐안 · 겅톄화	고구려 순장 풍속에 대한 첫 검토	046-047
왕샤	고구려 말각첩삽묘抹角疊澀墓(모줄임 구조 무덤) 초론	048-050
왕춘옌 · 쑨런제	집안集安 고구려 천추총千秋塚 묘실 형태 신론	051-052
왕페이신	고구려 봉토석실묘 문화 연원의 낙랑樂浪 요소 첫 검토	053-054
왕페이펑	천추총千秋塚, 태왕릉太王陵, 장군총將軍塚에 관한 몇 가지 문제	055-056
우자창	집안集安 고구려 왕릉에 관한 견해	057-058
우자창	본계本溪 소시묘小市墓 및 관련 문제	059-060
우자창	집안集安 고구려 무덤 2기 상부 석비의 '통천주通天柱'설	061-062

고분

산성하 고분군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웨이춘청	고구려 적석묘의 유형과 변화	063-064
웨이춘청	고구려 적석묘의 유형과 변화 재론	065-069
웨이춘청	집안集安 고구려 대형 적석묘 왕릉 연구	070-071
웨이춘청	중국 동북 지역의 고구려 봉토석실묘	072-073
웨이춘청	호태왕好太王의 능묘 재확인 및 관련 문제	074-076
윈리	집안集安 고구려 '절천정折天井'총의 시대	077-078
자오쥔제	대동강大同江 하류 고구려 봉토석 실묘의 등급	079-081
자오쥔제	고구려 평양平壤 시기 왕릉 고찰	082-083
자오쥔제	고구려 '염모총冉牟塚'의 일부 문제 재론	084-085
자오쥔제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만기 적석묘 탐색–적석벽화묘 2기의 시대를 중심으로	086-088
자오쥔제 · 마젠	집안集安 우산禹山 고구려 적석묘 2기의 시대 및 관련 문제	089-090
자오쥔제 · 마젠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신구묘제의 과도기에 관한 초보 연구	091-093
자오쥔제 · 마젠	고구려 태왕릉太王陵 묘주 '광개토왕廣開土王'설에 대한 고찰–출토된 명문 동령銅鈴 재 연구	094-096
자오쥔제 · 진위	5~6세기 한반도 서북부 지역 봉토석실묘의 단실화 과정–평양平壤 장산동長山洞 1, 2호 벽화묘를 중심으로	097-098
장구이위안 · 사오춘화	고구려 태왕릉太王陵에 세워진 판석의 기능 재고	099-100
장밍하오	안악安岳 3호묘의 건축 연원	101-102
팡치둥	고구려 석묘石墓의 변화	103-105
팡치둥	천추총千秋塚, 태왕릉太王陵 및 장군총將軍塚 묘주 추정	106-108
팡치둥	고구려 고분 연구의 몇 가지 문제	109-111

저 자 경톄화耿铁华
집안현 박물관

연 도 1987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고구려 귀족 염모冉牟의 무덤 및 묘지墓誌 고증, 해석

高句丽贵族冉牟墓及墓志考释

염모총冉牟塚은 집안集安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의 중요 무덤으로 1939년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발간한 『통구通溝』에는 모두루총牟頭婁塚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40년 라오간勞干이 이를 '염모묘冉牟墓'로 정정했다.

염모총은 동구고분군 하해방묘구下解放墓區에 위치한다. 절첨방추형截尖方錐形 봉토석실묘로, 내부에는 전실과 후실이 있고 중간은 용도甬道로 연결되어 있으며, 묘도, 용도, 전실, 후실이 동일 축선 상에 위치한다. 전실은 횡장방형이고 후실은 방형이며 좌우 벽 가까이에 각각 돌로 만든 시상이 하나씩 있다. 묘도와 용도 저부는 쇄석을 깔았으며, 내부 벽면은 돌로 쌓고 백회를 발랐다. 전실 천장은 복두식覆斗式이고 후실은 2단의 모줄임 구조 위에 뚜껑돌을 덮었다. 일찍이 도굴되어 1935년 일본인들의 발굴에서도 부장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내부의 묵서 묘지墓誌는 총 79행이고 각 행에 10자씩이며 글자 사이에는 종횡으로 경계선이 있고 따로 제수題首 2행이 있다. 전체 800여 자 가운데 판독되는 글자는 360자 정도이고, 예서체 한자로 한간漢簡 스타일을 보인다. 이는 호태왕비好太王碑 다음으로 긴 고구려 시기 문장으로 모두루牟頭婁가 주인 염모冉牟를 위해 쓴 것이다.

염모총 묘지에는 '노객奴客'이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한다. 라오간은 이를 '노예, 부하, 가신'으로 보았고, 왕젠췬王健群은 귀족 신분이면서 동시에 신하의 뜻도 갖고 있으며, 왕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칭하는 명칭이라고도 보았다. 정인보鄭寅普는 또한 스스로 의탁하여 예속된 자에 대한 호칭이라고 보았다. 노객은 한위漢魏 시기 전적(『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등)에도 다수 등장하는데, 노객은 황제를 따라 미행을 다닐 수도 있고 중신들보다 더 총애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그들의 출신 배경은 비교적 복잡하나 그들이 의탁하는 사람들은 황제 혹은 귀족, 부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과 지위도 일

반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러한 노객은 귀족과 평민 사이에 끼어 종종 이중 신분을 갖고 있었다. 주인 앞에서 그들은 노예였고, 백성 앞에서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다. 일부 문헌(『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등)에는 신분이 비교적 낮은 노객도 등장한다. 그들은 부곡部曲, 가병家兵으로 주인을 따라 전투를 하는 사병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일반적으로 주인이 매매할 수 있는 노예는 아니었다.

이러한 중원의 노객이라는 단어를 고구려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염모총 묘지에는 노객이 총 8번 나오는데, 그 노객, 노노객老奴客은 모두 모두루가 주인 염모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을 지칭한 것이다.

호태왕비에는 두 구절에 노객이 나오는데, 호태왕好太王에 대해 신라왕이 스스로를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문에 따르면, 노객은 왕 혹은 더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칭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염모총은 고구려 귀족 무덤 연구의 표준이 되는 무덤으로, 연구자들은 이 무덤을 기준으로 고구려 고분을 왕릉과 귀족묘, 평민 무덤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염모총의 조영 연대는 묘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묘지에 따르면 염모와 모두루는 호태왕 시기에서 장수왕長壽王 초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염모가 사망했을 때 호태왕은 이미 사망했으며 장수왕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즉 5세기 초에 해당한다.

염모총 묘지에는 고구려의 건국, 북부여와의 관계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노객, 성민城民, 곡민谷民 등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자료가 실려 있어, 5세기 전후 고구려 사회 각 계층의 정치 지위, 경제생활, 상호 관계 등의 심도 깊은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耿铁华, 1987, 「高句丽贵族冉牟墓及墓志考释」, 『辽海文物学刊』2, 129–133.

저 자 닝후이쉐宁会学
요령성 환인현 실화여행사
연 도 2002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고구려 시조왕 주몽朱蒙 무덤은 어디에

高句丽始祖王朱蒙墓何在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구려 지역이 원래 기자箕子가 책봉 받은 땅이고 한진漢晉이 모두 군현으로 삼았던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은 북부여 왕자로 기원전 37년 현 요령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오녀산산성五女山山城에서 정권을 세워 19년간 재위에 있었고 기원전 19년 가을 9월에 환인에서 사망했다.

사실 주몽 무덤을 찾으려면 먼저 방위를 확인해야 한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용산龍山에 묻혔다고 했다. 또한 『호태왕비의 새로운 고찰[好太王碑新考]』에 따르면,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 산 위에 성을 쌓아 도읍했고, 홀본 동강東岡에서 용머리를 밟고 승천했다'고 한다. 비류곡은 비류수沸流水에서 기인한 말이고, 비류수는 현재의 부이강富爾江이다. 졸본천卒本川은 비류수가 흐르는 곳으로, 비류수가 염난수鹽難水로 들어가는 입구의 평원이라 졸본천이라 불린다. 각 사서에는 졸본천만 나오지 홀본천忽本川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졸본은 홀본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홀본이 현재의 앵앵구鶯鶯溝일 경우 현 대묘산大廟山을 주몽 무덤이 위치한 곳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는 '홀본 동강, 홀본 서쪽'에 근거한 경우이다. 만약 졸본을 홀본으로 본다면 '비류곡이 홀본 서쪽에 위치하고,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성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되나, 왕이 졸본 동강에서 용머리를 밟고 승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졸본 동강은 현 북전자향北甸子鄉 강가가姜家街 동산 혹은 마구구馬狗溝이지 대묘산이 될 수는 없다.

『삼국사기』에서는 왕이 승하한 후 용강龍崗에 묻혔다고 했다. 용강은 현재의 대묘산이다. '승하'는 제왕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화장의 의미도 갖고 있다. 고구려 역대 28명의 왕 가운데 주몽만 사후에 승하라는 말을 썼고, 다른 왕들은 모두 '왕훙王薨'이라 했다. 이는 저자가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실

제로 화장의 뜻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호태왕비에는 홀본 동강에서 왕이 용머리를 밟고 승천했다고 했다. 여기서 홀본 동강은 대묘산이 되고, 승천했다는 말은 화장에 대한 역사 기록이라 볼 수 있다.

주몽을 화장한 이유는 첫째, 고구려 민족이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 풍속이 중원과 거의 같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 문화의 특수성, 예를 들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토템 숭배 등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 후 영혼이 승천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몽이 사망한 후 '승하', '승천'과 같은 매장 방식을 쓴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현 환인진桓仁鎭 고려묘자高麗墓子의 고구려 조기 무덤에서는 고구려 민족에게 화장하는 풍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둘째, 도성을 세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력이 세지 않았고, 미래의 상황이 불분명하여 만약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시신이 해를 입을 것을 걱정해서 아예 화장을 했을 수도 있다.

会学, 2002, 「高句丽始祖王朱蒙墓何在」, 『博物馆研究』2, 36–37.

저 자 닝후이쉐宁会学
요령성 환인현 지방사연구회
연 도 2004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환인桓仁 미창구米倉溝 장군묘將軍墓 묘주 고찰

桓仁米仓沟将军墓墓主考

장군묘將軍墓는 요령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아하향雅河鄉 미창구촌米倉溝村에 위치한다. 1991년 9월 12일 요령성, 본계시本溪市, 환인현에서 공동으로 발굴하여, 묘도, 남북 이실, 용도甬道, 묘실로 구성된 무덤임을 확인했다. 묘실에는 남북방향으로 2개의 석축 시상이 나란히 놓여있고 묘실 전체를 얇게 석회로 바른 후 연꽃 총 305송이를 그렸다. 유물은 총 20여 점이 출토되었다. 무덤 형식과 규모에 근거하면 이는 대형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로 고구려 중기에서 약간 이른 시기 즉 400~500년 전후의 무덤으로 보인다. 무덤의 규모나 출토된 금동 단추, 저온의 시유도조施釉陶竈, 도관陶罐 및 '왕王'자 도안 등으로 볼 때, 묘주는 신분이나 지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여, 장군묘가 아니라 왕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군묘 묘주 고찰은 벽화의 연화가 반영하는 사상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연화는 불교에서 특히 숭상하는 꽃이다. 불교가 고구려에 전해진 것은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372)이다.

리뎬푸李殿福는 고구려 벽화묘를 3시기로 구분했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조기 벽화묘는 주로 묘주의 생전 생활 모습을 담고 있고, 천장에는 일월성신日月星辰, 기이한 짐승, 비선飛仙 등이 있으며 대략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까지이다. 중기는 여전히 묘주의 생활이 주를 이르나 불교가 전래되면서 관련 내용도 증가되었고, 일부에서는 사신도四神圖가 등장하기도 했다. 시기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까지이다. 만기는 석벽에 직접 그림을 그렸고, 사신도가 중심이 되었다.

리뎬푸의 3시기 구분법에 근거하여 우자창武家昌은 '장군묘에 인물, 산수가 없고 연꽃은 불교와 관련 있으나 완전히 불교화된 도안이 아니라 불교의 초기 전래 단계로 보이며, 백회를 바른 것으로 보아 제1기와 제2기의 특징을 겸

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무덤은 중기에서 약간 이른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 시기는 즉 대략 370~380년이 된다.

고구려는 동명성왕東明聖王부터 18대 고국양왕故國壤王까지 총 18대 왕 가운데, 6대 태조대왕太祖大王과 7대 차대왕次大王을 제외하고 모두 매장지를 시호로 썼다.

소수림왕 이전에는 불교 전래 관련 기록이 없다. 그리고 호태왕好太王과 장수왕長壽王은 모두 집안集安에 무덤이 있다. 21대 이후의 왕은 재위 시기가 장군묘보다 더 늦다. 따라서 장군묘 묘주는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림왕은 소수림小獸林에 매장되었고, 고국양왕은 고국양故國壤에 매장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고국故國은 바로 환인 지역을 가리킨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졸본천卒本川에서 건국했고 기원전 34년에 흘승골성紇升骨城을 도성으로 삼았으며, 기원후 3년에 국내國內(현 집안)로 천도한 후 평양平壤으로 천도하기 전인 427년까지 고구려 도성은 현재의 집안시에 위치했다. 따라서 과거의 첫 번째 도성인 환인 지역이 '고국故國'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장군묘는 그 조영 시기, 출토유물, 문헌기록과 대형 봉토석실묘에 연화벽화묘蓮花壁畫墓라는 점 등이 모두 그 묘주가 고국양왕과 그 왕후의 합장묘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이를 왕릉이라 안 부르고 장군묘라 부르게 된 것은 후대인들이 이를 몰라 어느 대장군의 무덤으로 오해했던 것일 뿐이었다.

宁会学, 2004, 「桓仁米仓沟将军墓墓主考」, 『博物馆研究』3, 23–26.

저 자 량즈룽梁志龙
왕쥔후이王俊辉
연 도 1994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요령성遼寧省 환인桓仁의 청동 유물 출토 무덤과 관련 문제

辽宁桓仁出土青铜遗物墓葬及相关问题

그 림 1. 대전자묘 출토유물
2. 대협판구 무덤 출토유물
3. 봉명석실소토묘 평·단면도
4. 봉명석실소토묘 주변 출토유물
5. 망강루 적석묘 출토유물
6. 오도하자 적석묘 출토유물
7. 채아보 적석묘 출토유물

환인桓仁 지역에서 청동 유물이 출토된 무덤은 대전자大甸子 석관묘, 대협판구大夾板溝 무덤, 봉명석실소토묘鳳鳴石室燒土墓, 망강루望江樓 적석묘, 오도하자五道河子 적석묘, 채아보蔡我堡 적석묘 등 6곳이고, 모두 환인 지역의 고구려 문화와 관련이 있다.

대전자 석관묘 출토 청동단검은 검신이 좁고 날이 길어 요동 지역 제4기 유물에 속한다. 이 무덤은 전국 만기 혹은 약간 더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협판구 무덤에서 출토된 동령銅鈴은 형식과 문양이 모두 내몽고內蒙古 영성寧城 흑성고성黑城古城에서 출토된 한대漢代 동령과 일치하고 하북성河北省 양원陽原의 서한西漢 무덤 출토 동령과 유사하며, 동촉은 내몽고 조로고륜석성朝魯庫倫石城에서 출토된 한대 동촉과 형식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무덤은 서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명석실소토묘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은 유사한 것이 발견된 일이 없으나, 동채銅釵 측면에 새겨진 권운문卷雲紋은 한대 와당에 유행한 문양과 유사하여 한대에 조성된 무덤으로 추정된다. 망강루 적석묘에서 출토된 이식耳飾은 요령遼寧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고분군과 길림吉林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고분군에서도 출토되었다. 서차구고분군은 한무제漢武帝에서 소제昭帝 시기의 무덤이고, 노하심고분군은 서한 말이나 동한東漢 초의 무덤이다. 동절약銅節約과 일부 구슬 장식이 흑룡강黑龍江 태래泰來 평양전창平洋磚廠 전국戰國 시기 무덤 M108, M107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무덤은 노하심보다는 빠르고 서차구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도하자 적석묘와 채아보 적석묘에서는 모두 오수전五銖錢과 화천貨泉이 출토되었고, 그중 오수전은 동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채아보 적석묘 출토 오수전에는 '卅' 표시가 있는데, 이는 동한 중만기 오수전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두 무덤은 동한 시기 혹은 그보다 약간 늦게 조성

된 환인 지역 고구려 조기 무덤으로 보인다.

환인 지역은 고구려 건국 초기의 주요 활동 무대이다. 이상 자료는 대부분 고구려 건국 이전의 무덤으로, 아직은 더 많은 자료가 없어 이를 고구려 전신前身 문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관련성은 드러나고 있다.

우선 환인과 집안集安 지역에서 청동단검이 출토된 무덤은 집안 오도구문五道溝門 적석묘와 대전자 석관묘 둘뿐이다. 두 무덤의 형식은 각기 상이하지만 훗날의 고구려 무덤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대전자 석관묘의 판석을 세운 구조는 아마 고인돌이나 석개묘石蓋墓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다시 적석석실묘積石石室墓에 영향을 주었다. 집안 경내의 적석묘에서는 화장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구려의 이러한 화장 풍속은 현지의 옛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다. 대전자 석관묘는 바닥에 자갈돌을 깔았는데, 고구려 초중기 무덤에서도 이런 방식이 크게 유행했다. 대전자 석관묘는 고구려 문화와 다수의 접점이 있어, 양자의 민족 근원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일부 연구자가 말했던 것처럼 청동단검 문화의 창조자 중에는 고구려의 선인도 있었을 것이다.

대협판구 무덤에서 출토된 동령은 말의 가슴에 다는 마구馬具로, 이전에 중원과 요서遼西 지역에서 한두 점 발견된 일이 있다. 그 수량은 적지만 일부 연구자는 이 동령이 고구려와 신라 문화에 끼친 영향에 주목했다. 망강루 적석묘는 출토 유물도 서차구, 노하심과 유사하고 무덤의 지리적 위치 역시 유사하여 모두 구릉성 산지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 세 무덤을 조성한 민족은 상당히 가깝거나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차구는 현재 흉노匈奴, 오환烏桓, 부여라는 세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노하심은 선비鮮卑와 부여라는 두 가지 견해가 제기된 상태이다. 필자는 그 가운데 부여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서차구와 노하심의 무덤은 장방형의 토갱수혈묘이고 망강루 무덤은 적석묘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동일 민족이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긴 차이일 것이다. 지리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을 고려하면 망강루 적석묘는 고구려 건국 이전에 환인 지역에서 활동하던 졸본부여卒本夫餘의 유적일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 그리고 호태왕비好太王碑의 기록에 근거하면 졸본부여는 고구려 건국 이전 환인 지역에 거주하던 토착 민족이고 부여족의 한 계파이다. 주몽朱蒙은 원래 북부여의 왕자였고 남하하여 환인 지역에 정착했는데 만약 현지의 같은 민족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위서魏書』에는 주몽이 보술수普述水에 이르러 세 명의 상이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 함께 흘승골성紇升骨城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3인은 경제 형태가 상이한 졸본부여의 세 마을을 대표한다. 그들이 북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을 도와 함께 고구려를 건국한 것이다. 망강루 무덤 출토 유물이 대부분 부여 유물과 동일하고, 무덤 형식은 적석으로 현지에서 훗

날 흥기한 고구려의 무덤과 동일하다. 이는 바로 현지 부여 문화와 고구려 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오도하자와 채아보의 적석묘는 환인 지역의 고구려 초기 무덤이다. 현재 환인 지역의 고구려 무덤에서 발견되는 한대 화폐는 위 두 무덤에서 출토된 오수전과 화천 2종뿐이다. 오도하자에서 출토된 동팔찌[銅釧]는 오녀산성五女山城에서도 출토된 일이 있어, 고구려 초기 환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던 장신구로 보인다.

환인 지역에서 청동 유물이 출토된 무덤은 대부분 서한 혹은 약간 더 이른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고구려가 건국한 시간과는 근접하거나 맞물려있어 고구려 초기 문화에 분명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梁志龙 · 王俊辉, 1994, 「辽宁桓仁出土青铜遗物墓葬及相关问题」, 『博物馆研究』2, 72–78, 96.

저 자 류란柳岚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4
간행물명 『박물관연구』4
『博物馆研究』4

고구려 적석관묘積石串墓 연구

高句丽积石墓串墓研究

그 림
1. JYM3305 평·단면도
2. JYM3241 평·단면도
3. JYM3232 평·단면도
4. JYM3296 평·단면도
5. M356 평·단면도
6. JYM3105 평·단면도
7. 만보정 M242호묘 평·단면도
8. 산성하묘구 남대만자묘지 M1069, M1075, M1017 토석혼합관묘 평·단면도
9. M3241 부장품
10. M3232 부장품
11. M3296 부장품
12. M356 출토유물
13. M3105 부장품
14. M242 출토유물

고구려 고분의 석분石墳, 토분土墳 등 유형 분류 및 연대 측정은 기존에 이미 다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중 적석관묘積石串墓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천다웨이陳大爲, 리뎬푸李殿福, 팡치둥方起東, 장쉐옌張雪巖 등의 연구를 통해 기초가 다져져 마침내 석분류 가운데 독립된 한 유형의 연구대상으로 성장했다. 현재까지는 모두 27기의 적석관묘가 발굴되었고 그중 15기의 자료가 발표되었다.

적석관묘는 글자 그대로 적석을 봉분으로 하는 2기 이상의 석묘가 하나로 연결되어 배열된 무덤 형식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무덤 중에는 10기가 연결된 것도 있다. 대부분이 산비탈에 분포하고 산허리로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종행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산비탈 아래와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집중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독립된 적석묘와 소수의 봉토묘도 있다. 봉석封石은 강돌도 있고 산돌을 쓴 경우도 있으며, 두 종류가 섞인 경우도 있다. 봉석은 지표로부터 쌓기 시작하고 광실은 봉석 중상부에 위치하며 대부분 무덤에서 불에 탄 돌과 인골 잔해가 발견되었다. 무덤 외형은 첫째, 적석묘 1기를 쌓은 후 다른 1기를 앞의 1기 묘역 한 변에 이어서 따로 3면을 쌓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나가 무덤 상부의 봉석을 서로 연결시켰다. 둘째, 앞에 있는 적석묘 1기의 산비탈 낮은 쪽에 상부 석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석축 단을 쌓은 후 다음 무덤은 위쪽 무덤의 석축 단을 그대로 이용하여 나머지 3면을 쌓는다. 그렇게 무덤을 계속 이어서 조성하다가 평탄한 지형까지 내려온 마지막 무덤에는 석축 단을 따로 쌓지 않는다. 셋째, 첫 무덤 사방으로 방형의 기단을 쌓고 다음 무덤은 앞 무덤 한쪽 변의 기단을 그대로 이용하여 나머지 3면을 쌓는다. 넷째, 첫 무덤 사방에 방형 기단을 쌓은 후 기단 위로 제2, 3단의 계단을 만든다. 다음 무덤은 경사가 완만해져서 계단이 감소한다. 일부

적석관묘 중 제일 마지막 무덤의 끝에서는 묘설墓舌이 발견되기도 한다.

적석관묘는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식은 적석석광관묘積石石壙串墓로, 몇 기의 소형 적석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우산묘구禹山墓區(M3543~M3546A, M3548~M3587 등 총 15기가 집중 배치되어 있다), 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M0302~M0307, M1641~M1667 등 총 33기), 만보정묘구萬寶汀墓區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Ⅱ식은 방단적석석광관묘方壇積石石壙串墓로 묘역 네 면에 방형, 장방형 기단이 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양민良民고분군 M72, 우산묘구 M3241, M3305, 횡로9대橫路9隊고분군 M5가 있다.

Ⅲ식은 방단계제적석석광관묘方壇階梯積石石壙串墓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묘실 구조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된다. 제1종 묘실은 장방형의 광실이고 제2종은 광실에 간단한 용도甬道, 이실, 묘도가 등장한다. 제1종 무덤으로는 환인桓仁 M15, M19, 집안集安 양민良民 M74, 우산묘구 M3232, M3296,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 동대파묘지東大坡墓地 M356이 있고, 제2종 무덤으로는 우산묘구 M3105, M2841, M2403 등이 있다.

Ⅳ식은 방단계제적석석실관묘方壇階梯積石石室串墓로 만보정 M242호묘가 대표적이다. 이 무덤에는 석실, 묘도와 호석이 등장했다.

Ⅴ식은 토석혼합관묘土石混合串墓로 산성하묘구 남대만자묘지南大彎子墓地 M1069, M1075, M1070 등 3기로 구성된 관묘 하나만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적석관묘는 모두 다섯 유형으로 봉분이 모두 적석인 석분류에 속하나, Ⅰ식은 적석으로만 봉분을 쌓았고 Ⅱ식은 방형기단이 나타나며 Ⅲ식은 방형기단 위에 내측으로 좁혀 올라간 몇 단의 계단이 만들어졌다. Ⅰ~Ⅲ식의 내부 구조는 적석광실이고, 이 광실은 봉석 중상부에 위치한다. Ⅲ식의 제2종에서는 간단한 용도, 이실, 묘도가 등장한다. Ⅳ식에는 석실이 등장하는데, 지표의 봉석에서부터 석실을 쌓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뚜껑돌을 덮었다. 묘도와 외측의 호석도 설치되었다. Ⅴ식은 봉토묘와 적석묘가 섞여서 붙어있다. 이상 다섯 유형 관묘의 변화 과정은 또한 석분류의 변화 과정이기도 하다.

Ⅰ식과 Ⅴ식은 아직 정식 발굴이 진행되지 않아 부장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Ⅲ, Ⅳ식에서는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Ⅱ식 무덤은 석광에서 철꺽쇠, 철관정鐵棺釘, 철고리 및 작은 무기와 장식품이 많이 출토되었고, 돌 상자에는 도관陶罐 3점이 부장되기도 했다. 출토된 꺽쇠와 관정으로 보아 간단한 목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불에 녹은 돌은 화장 현상을 보여준다. Ⅲ식 제1종도 마찬가지로 석광 내에서 많은 철꺽쇠와 작은 무기, 생활용구 등이 출토되었고, 역시 돌 상자에는 도관 3점이 부장되었다. 그러나 각 무덤에서 출토된 기종은 직구관直口罐, 전연관展沿罐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봉석에서도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불에 녹은 돌도 확인되었다. 제2종도

광실 내에서 철꺽쇠, 철고리, 관정 및 작은 무기와 다수의 금동 장식품이 출토되었다. 돌 상자에 부장된 토기 조합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Ⅳ식은 석실관묘로 구조가 달라 부장 유물은 봉석과 석실 내부에 있고 돌 상자는 없다. 도굴과 교란으로 인해 석실에서는 도관 1점과 철도鐵刀 1점만 발견되었고, 호壺, 관罐, 철제 함표銜鑣, 동령銅鈴 등 대부분은 봉석 내에서 출토되었다.

적석관묘의 각 유형별 연대를 추정해보면, Ⅰ식의 상대연대 상한은 고구려 건국 전후가 된다. Ⅱ식의 상한은 동한東漢 초년이거나 혹은 이보다 빠르고, Ⅲ식은 동한 초, 기원후 2세기 전후가 된다. Ⅳ식의 상한은 3세기 말~4세기 초이고, Ⅴ식은 5세기 전후가 된다. 그러나 각 관묘의 하한은 존속 기간이 길고, 새로운 형식이 출현해도 다른 형식이 이와 공존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려우며, Ⅴ식이 존속되었던 시간에 근거하면 가장 늦은 하한은 4~5세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관묘를 구성하는 내부의 각 무덤은 시간적인 선후 구분이 용이하다. 보통은 먼저 제1묘를 조성하고 그 뒤로 순서에 맞추어 조성했다. 즉 제일 위쪽의 묘가 가장 이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늦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 무덤 사이의 시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적석관묘는 고구려인의 매장 풍속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항렬의 높고 낮음,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죽은 후 차례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광실이 둘인 무덤이 많은 편인데, 이는 부부를 이혈합장한 것이다. 대다수의 광실 내에서 철꺽쇠와 못 등이 발견된 것은 목곽의 사용을 말해주는 것으로, 『남사南史』「동이전東夷傳」에 기록된 '유곽무관有槨無棺'을 증명하는 것이다.

Ⅰ~Ⅳ식의 광실에서 불에 녹은 돌이 발견되었고, 또 동대파 M356에서는 불에 타 훼손된 청동기가 불에 녹은 돌과 붙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인골도 불에 탄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고구려에 화장 풍속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묘설'이 발견된 무덤은 Ⅱ, Ⅲ식뿐이고 모두 마지막 1기 적석묘의 아래쪽 비탈 묘역 가장자리에 축조했다. 형태는 방형, 반원형 계단식이다. 이는 아마도 무덤 위 적석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계속 무덤을 연결시키기 위해 준비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제사와 관련된 시설로 보기도 한다. 아직까지 이곳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압록강鴨綠江 중류 좌안의 북한 경내에서 일부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 자강도慈江道 초산군楚山郡, 만포시滿浦市 등지의 일부 고구려 적석묘에서는 분구墳丘 부위에 연결된 낮은 제단 시설이 발견되었고, 유물도 출토되었다. 묘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柳岚, 2004, 「高句丽积石墓串墓研究」, 『博物馆研究』4, 45–56, 42.

저 자 류란柳岚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장쉐옌张雪岩
집안시 박물관
연 도 2005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고구려 봉토묘 연구

高句丽封土墓研究

그 림
1. 방단계제봉토석실묘 I 식: 집안 동구고분군 산성하묘구 M464호묘 평·단면도
2. 방단계제봉토석실묘 II식: 집안 동구고분군 산성하묘구 M65, 66호묘 평·단면도
3. 원구형봉토묘 단실(1)
4. 원구형봉토묘 단실(2)
5. 원구형봉토묘 쌍실(3)
6. 원구형봉토묘 3실(4)
7. 집안 벽화묘 평·단면도
8. 집안 벽화묘 평·단면도
9. 평양 안악 지역 다실묘 평·측면도 및 감실과 측실이 있는 묘
10. 평양 안악 지역 다실묘 (쌍실) 및 단실묘 평·측면도
11. 집안 산성하묘구 M634
12. 봉토묘 출토유물
13. 봉토묘 출토유물
14. 집석공로 출토유물
15. M1897 유물도
16. JWM1368 출토 석조
17. 마선구 1호묘 출토유물
19. 장천 2호묘 출토유물
20. 삼실총 제1실 출토 시유도기
21. 오회분 4호묘 출토유물
22. 집안의 문자 없는 비석 2기
23. 1) 무용총 무용도 2) 각저총 우차도
24. 집안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벽화
25. 집안 장천 1호묘 전실 천장 동측 벽화
26. 집안 오회분 4호묘: 서남쪽 제1단 모줄임석의 바퀴

고구려 고분은 크게 석분과 토분 두 종류로 구분된다. 석분은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 무덤으로 고구려 민족의 조기 무덤 형식이며 요령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과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의 조, 중기 도성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토분은 봉토묘, 즉 석실봉토묘로 고구려 중, 만기 무덤 형식이며 주로 길림성 집안시와 북한 평양平壤 대동강大同江 유역에 분포한다.

집안시의 고구려 무덤 1만여 기 가운데 봉토묘는 55%를 차지하고, 한곳에 집중 분포하거나 적석묘와 섞여 있기도 하다. 대부분 지세가 비교적 낮은 산의 완만한 경사지, 산마루 앞, 하곡의 대지 및 평야지대에 분포하는 등 명확한 규칙성은 보이지 않는다. 봉토석실벽화묘는 평양 부근에서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

집안, 환인 지역 봉토묘는 대부분 중, 소형이고 대형 봉토묘는 모두 벽화묘이다. 필자는 봉토묘의 외형과 구조 차이에 근거하여 4종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방단봉토석실묘方壇封土石室墓, 방단계제봉토석실묘方壇階梯封土石室墓, 원구형봉토석실묘圓丘形封土石室墓, 절첨방추형截尖方錐形(복두형覆斗形)봉토석실묘이다.

원구형봉토묘는 비교적 많은 편이고, 발굴된 무덤도 많다. 대부분의 봉토는 이미 사라졌고 뚜껑돌이 노출되어 있으며, 묘실은 단실, 쌍실, 삼실 등으로 동분이혈인 경우가 많다. 묘실 평면 형태는 장조형長條形, 도형刀形, 산형鏟形 등이다. 천장은 평천장, 고임천장, 모줄임천장 등이다.

봉토묘 묘실은 작고 낮은 형태에서 높고 큰 형태로 변화했고, 천장은 간단한 평천장에서 복잡한 고임천장과 모줄임천장으로 변화했다.

고구려 봉토벽화묘는 봉토가 대부분 절첨방추형이고 묘실은 동분이혈쌍실이거나 동분동혈쌍실 혹은 삼실이다. 묘실은 대부분 산형이고 2개의 이실

만드는 사람, 입룡, 칼 가는 사람
27. 집안 오회분 4호묘: 동남쪽 제 1단 모줄임석의 선인, 입룡, 철을 단조하는 사람
28. 집안 오회분 4호묘: 서북쪽 제 1단 모줄임석의 용을 탄 선인, 입룡, 여와도
29. 집안 오회분 4호묘: 동북쪽 제 1단 모줄임석의 복희상, 입룡, 우두선인
30. 집안 오회분 4호묘: 북벽 현무 및 북쪽 들보의 교룡문
31. 집안 오회분 4호묘: 동벽 청룡 및 들보의 교룡문
32. 집안 오회분 4호묘: 서벽 백호 및 들보의 교룡문

이 있다. 천장 구조는 우진각식, 고임 궁륭식, 평행고임에 작은 모줄임식, 큰 모줄임식이다. 묘실 구조와 천장의 변화에 따라 5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내 고구려 석실봉토묘는 수량도 많고 형식도 다양하다.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에 분포하는데 이는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후의 주요 무덤 형식이 봉토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소형과 대형의 2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형은 대부분 벽화묘이다. 벽화묘는 단실, 쌍실, 다실묘 등에 감실 혹은 측실이 딸리기도 한다. 벽화 내용은 인물풍속도, 인물풍속과 사신도四神圖, 장식문양도, 사신도의 4종이다.

고구려 민족의 초기 매장 풍속은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 석분이었고, 3세기~4세기 말에 이르러 고구려 사회의 의식 형태에 거대한 변혁이 일어남과 동시에 중원 한족漢族의 불교 전래, 빈번한 전쟁 등으로 인해 매장 풍속이 바뀌었다.

고구려 봉토묘는 먼저 한족 특히 요동遼東과 요서遼西 지역 선진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벽화묘는 형식, 회화 내용, 기법, 배치 등에서 요령遼寧 조양朝陽 원대자묘袁臺子墓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고구려 봉토묘가 중원 한족 문화를 흡수하고 요동, 요서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발전했으며, 점차 주류가 되어 석분을 대체하는 매장 풍속으로 성장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형 절첨방추형봉토묘(복두식)는 한대漢代 황릉의 전형적인 묘제이고, 이는 전국戰國시대 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하북河北 연하도燕下都의 연燕나라 왕실 무덤 역시 방추형이다. 고구려 절첨방추형봉토묘 묘실에는 대부분 이실이 있는데, 이 역시 한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연나라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방형 복두식은 황족의 직계 친족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절첨방추형봉토묘도 왕릉, 왕족만 사용했을 것이다.

발해와 고구려는 시기상으로 접해 있으나 무덤에는 차이가 있다. 비록 모두 봉토석실묘지만 고구려 봉토묘는 묘실이 모두 지표 위에 지어졌고, 일부 지세의 영향을 받은 경우만 얕게 땅을 파 평평하게 만들었다. 물론 후기 벽화묘 중 일부는 지하에 축조된 무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발해 무덤은 대부분 묘실이 지하에 조성되었고, 그 위에 봉토는 지표보다 높게 올라와 있다. 고구려 무덤은 적석을 봉분(지표 위)으로 삼는 것에서 봉토석실(지표 위)로 변했고, 발해는 말갈靺鞨 토광묘土壙墓(지표 아래)에서 발해 봉토묘(묘실은 지표 아래)로 바뀌었다. 조기 발해묘 가운데 일부는 지표 위에 조성된 것도 있다. 그러나 존속된 시간이나 지리적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고구려의 봉토동실묘라는 명칭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석실봉토묘와 동실봉토묘는 구분할 수가 없다. 묘실이 어느 정도나 작아야 동

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척도가 없어, 동실묘는 소형봉토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柳岚 · 张雪岩, 2005, 「高句丽封土墓研究」, 『博物馆研究』3, 41–81.

저 자 리뎬푸李殿福
길림성 문물공작대

연 도 1980
간행물명 『고고학보』2
『考古学报』2

집안集安 고구려 고분 연구

集安高句丽墓研究

그 림
1. 집안 고구려묘 분포도
2. 적석묘(양민 168호묘) 평·단면도
3. 방단적석묘(양민 73호묘) 평·단면도
4. 방단계제적석묘 (양민 74호묘)평·단면도
5. 봉석동실묘 (유수림 대고력묘군 43호묘)
6. 방단계제적석묘 (JYM1장군총) 평·단면도
7. 동구고분군 칠성산묘구 국부—목이장 무덤 분포도
8. 마선구묘구 서대총 옆 방단 적석묘 출토 동전 탁본 (원본 크기)
9. 와당 탁본(2/5)
10. 명문전
11. 각저총 평·단면도
12. 만보정묘구 1368호묘 평·단면도
13. 동구 12호묘 평·단면도
14. 삼실총 평·단면도
15. 사신총 평·단면도
16. 오회분 4호묘 평·단면도
17. 용 문양 비교도
18. 비선 비교도
19. 연화관 비교도
20. 인동문 도안 비교도

집안현集安縣은 고구려 전 · 중기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으로 당시 사람들이 남긴 무덤이 총 12,358기에 달한다.

집안현성集安縣城의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은 하해방묘구下解放墓區, 우산하묘구禹山下墓區,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 만보정묘구萬寶汀墓區, 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 마선구묘구麻線溝墓區의 6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집안의 고구려 고분은 형식을 크게 석분石墳과 토분土墳 2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석분은 다시 5식, 토분은 4식으로 구분된다.

석분 Ⅰ식은 적석묘積石墓, Ⅱ식은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 Ⅲ식은 방단계제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 Ⅳ식은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 Ⅴ식은 봉석동실묘封石洞室墓이다. Ⅳ식은 대형 고분이 많고, 규모가 웅장하다.

토분 Ⅰ식은 방단봉토석실묘方壇封土石室墓, Ⅱ식은 방단계제봉토석실묘方壇階梯封土石室墓, Ⅲ식은 토석혼봉석실묘土石混封石室墓, Ⅳ식은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이다.

고구려 무덤의 매장 주체부는 간단한 곽실에서 묘실로 발전했고, 위치는 무덤 상부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매장 지점은 산지의 높은 곳에서 점차 평지의 낮은 곳으로 옮겨갔다. 석분류의 적석묘가 고구려 조기의 무덤 형태로 집안에 현존하는 9식 가운데 가장 이른 유형이며, 이는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유행한 형식의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봉분의 크기는 시대를 구분하는 근거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계급과 등급 관계를 반영한다. 석분류의 방단적석묘가 그 다음으로 등장했고 유행했던 시간도 긴 편으로 4세기까지 이어진다. 상한은 출토된 동전에 근거하면 늦어도 동한東漢 초기 이전일 것이다. 방단계제적석묘는 방단적석묘보다 늦은 4세기 중엽 이전이나 혹은 동시기에 등장했을 것이다. 방단계제석실묘는 방단계제적석묘를 모방한 것으로 묘실이 있다는 점만 다르다. 이 유형은 석분류의 가장 발달된

도 판 1. 길림 집안 고구려 무덤
1) 동구고분군 산성하묘구 국부
2) 석분류 Ⅴ식 봉석동실묘
3) 석분류 Ⅱ식 방단적석묘
2. 길림 집안 고구려 무덤
1) 우산하묘구 봉토석실묘
2) 석분류 Ⅳ식 방단계제석실묘 (장군총)
3) 우산하묘구 봉토석실묘
3. 길림 집안 고구려묘 벽화
1) 삼실총 제1실 남벽 출행도
2) 삼실총 제2실 천장의 진금이수珍禽異獸 도안
3) 삼실총 제3실 남벽 역사
4) 무용총 주실 천장 벽화
4. 길림 집안 고구려묘 벽화
1) 오회분 4호묘 모줄임천장 벽화
2) 오회분 4호묘 동북 모서리에 그려진 과수가 용을 바치고 있는 들보 그림
3) 무용총 주실 북벽 수렵도 국부

표 1. 집안 영전嶺前 영후嶺後 무덤 통계표
2. 동구 고구려 고분군 무덤 통계표
3. 고구려 무덤 형식 분류표
4. 집안 동구 석분묘군에 대한 연구자별 명칭 대조표
5. 집안 고구려 벽화묘 시기 구분표

형태로 5세기 전후까지 이어진다. 동실묘는 이미 묘실이 지표로 옮겨졌지만 외부는 여전히 돌로 봉분을 조성하여 석분류에 속한다. 그러나 토분의 특징도 갖고 있어 석분에서 토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형식으로 보인다.

토분은 묘실 구조와 벽화의 내용, 기법 및 부장품을 통해 상대 연대를 연구할 수 있다.

토분류 가운데 앞의 두 형식은 수량이 매우 적고, 석분과 토분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 역시 양자의 교체 시기 형식으로 보인다. 토석혼봉석실묘와 봉토석실묘는 동구고분군 전체의 55%를 점하는 고구려 무덤의 주요 구성 형식이고 고구려 중 · 만기 무덤 형식의 주류였다.

현재 집안에서 발견된 고구려 무덤 가운데 벽화가 있는 무덤은 대부분이 봉토석실묘이다. 이 벽화묘들은 내부 구조, 벽화의 제재와 제작 기법 등을 근거로 조기, 중기, 만기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 봉토석실벽화묘는 대체적으로 서진西晉 시기인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에 해당되고, 중기 봉토석실벽화묘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며, 만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북조北朝 말기에 비정된다. 이상과 같이 집안의 고구려 봉토석실묘는 일찍이 3세기 중엽에 이미 등장했고,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까지의 발전기를 지나 6세기 중엽에는 고구려 무덤 형식의 주류가 되었다.

벽화가 없는 봉토석실묘는 벽화가 있는 봉토석실묘보다 시기가 이를 것이다. 집안 고구려 고분군에는 현재 19기의 봉토석실벽화묘가 있는데, 사회 풍속과 도안 그림을 벽화로 그렸다. 묘실 벽면에 먼저 백회를 칠했고, 그 후에 그림을 그렸다. 신령 제재의 벽화묘는 다듬은 화강암을 쌓아 묘실을 만들었고, 평면이 매끈한 석면 위에 직접 벽화를 그렸다.

묘실 구조는 먼저 다실과 단실로 나눌 수 있다. 백회면에 벽화를 그린 무덤은 대다수가 다실묘이고, 직접 석면에 그림을 그린 벽화묘는 일반적으로 단실묘이다. 다실묘는 천장이 궁륭식穹窿式 또는 우진각식으로 조성되었고 일부는 평행고임과 모줄임 구조 위에 뚜껑돌을 올린 경우도 있다. 단실묘는 모줄임천장이다.

조기의 봉토석실벽화묘는 석재가 거칠고, 묘실은 내만하게 쌓아 궁륭식 또는 우진각식 천장으로 조성하였는데, 중원 전실묘磚室墓 구조를 모방한 것이 확실하다. 벽화 내용은 묘주의 생전 생활 모습으로 간단하고 소박하다. 시기는 대략 서진西晉 시기 즉,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까지이다.

중기의 봉토석실벽화묘는 현재 집안에 있는 벽화묘 가운데 비교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평면 구조는 조기와 대체로 비슷하고, 벽화 내용은 묘주의 생활과 출행이 주요 주제이지만 불교 제재도 증가하고, 사신도도 출현하였다. 연대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 4세기 이후의 고구려는 강역이 넓어지고, 상업적 왕래도 잦아져서 선진 생산기술이 외지에서 내지로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정황이 무덤에 반영되었다.

만기의 봉토석실벽화묘는 석재를 매끈하게 다듬어서 건축하였고, 평면 형태는 방형의 단실이며, 매끈하게 다듬어진 석면 위에 벽화를 직접 그렸다. 조기와 중기에 나타나는 묘주 생활 등 사회 풍속 제재를 대체하여 네 벽면에 사신이 등장한다. 상대 연대는 북조 말년,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일 것이다.

고대 고구려의 매장 제도가 석분에서 토분으로 변하는 것은 고구려 자체의 내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중원의 선진 문화가 고구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원에서는 일찍이 한漢나라 시기에 석실 혹은 전실磚室의 봉토묘가 등장했다. 전국戰國 시기 이래로 동북지방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요동군遼東郡 요양遼陽 일대에서는 다량의 한대 봉토석실묘가 발견되었다. 이는 고구려 무덤 형식과 장례 풍속의 변화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学报』2, 163–185.

저 자 리수린李树林
중국인민해방군 길림성
통화군분구通化軍分區

연 도 2002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3
『社会科学战线』3

길림吉林 집안集安 고구려 3319호묘 일월신궐日月神闕 고증 및 관련 중대과제 연구

吉林集安高句丽3319墓 日月神阙考释及相关重大课题研究

주 제 어 고구려
일월신궐
고국원왕

집안시集安市 우산묘구禹山墓區의 JYM3319 방단계제적석전실벽화묘方壇階梯積石磚室壁畫墓 전방의 동서 양쪽에는 각각 돌이 하나씩 서 있다. 그중 동쪽 입석의 정면에는 인물상이 새겨져 있다. 인물상은 조형이 기이하고 부호는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인물상을 '수묘호위守墓護衛', '수묘인守墓人', '제사화환祭祀花環', '모신상母神像', '태양신太陽神' 등으로 추정했다. 미술 고고학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인물 석각은 고구려 민족이 숭배하던 시조신 즉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서쪽 입석에는 비록 아무런 도안이나 부호가 없지만, 그 독특한 달 모양 조형으로 볼 때, 이는 태양신에 상대되는 '월신月神'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문 고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인물상 가슴의 '천서天書' 부호는 복합도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고고 발견을 통해서도 고구려 민족의 이러한 태양, 하늘 숭배 문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길림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의 왕팔발자王八脖子 유적에서는 고구려 조기 문화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 유구는 전방후원前方後圓의 삼환계단식三環階段式 조형이고 상층 평대平臺 남단에 천연 거석 일부가 있다. 이는 원시 선민들이 제사를 올리던 '사석社石'으로, 즉 고구려 태양신 인물상 석각 가슴에 있는 '삼환개천도三環蓋天圖'가 갖는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제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집안시 동대자東臺子 유적은 제왕의 궁실과 사직에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고구려 벽화묘에서 일월신日月神, 사신四神 제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모두 고구려의 태양, 하늘, 조상 숭배 풍속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중원에서는 서한西漢 시기 제왕과 동한東漢의 귀족계급 무덤에 그들 생전의 권세와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묘궐墓闕을 세웠다. 보통은 신도神道 양쪽에 각각 하나씩의 궐을 세웠는데, JYM3319도 이러한 중원의 무덤 양식을 모방하여 무

덤 앞에 이 일월신상日月神像 석궐石闕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JYM3319에서는 '정사丁巳' 기년의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고증에 따르면 이는 동진東晉 승평昇平 원년(357)으로 추정된다. 무덤에서는 청자반구호靑瓷盤口壺도 출토되었는데 그 재질, 조형, 스타일 등이 남경南京 부근의 동진 귀족묘에서 출토된 조기 기종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무덤의 조성 시기는 357년 전후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묘주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재위했던 고국원왕 故國原王(국강상왕國崗上王, 331~371)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고구려 민족의 성씨인 '고高'씨는 시조신 고양씨高陽氏에서 나온 것이고,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은 중원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결과이다.

李树林, 2002, 「吉林集安高句丽3319墓日月神阙考释及相关重大课题研究」, 『社会科学战线』3, 186–194.

저 자 리수잉李淑英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연 도 2003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2
『社会科学战线』2

고구려 왕릉 및 관련 문제 연구

高句丽王陵及相关问题研究

주 제 어 고구려
왕릉
방단계제석실묘
연대
주인

고구려 왕릉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문헌기록이 적고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고구려는 세 차례 천도했으며 무덤 유형 및 변화가 복잡하여 상이한 시기, 상이한 도성의 왕릉 구조가 어떠했는지 또한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고구려 시기에 남긴 문자 자료도 많지 않고, 호태왕비好太王碑 및 무덤에서 출토된 일부 명문 전塼과 명문 와瓦 등 왕릉 추정에 도움이 되는 명문 유물은 더욱 적다.

고구려 왕릉은 당연히 도성 부근에 분포해야 한다.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건국한 추모왕鄒牟王은 흘승골성紇升骨城을 도성으로 삼았다. 이곳은 현 요령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부근으로 추모왕의 무덤은 당연히 환인에 있어야 한다. 제2대 유리명왕琉璃明王은 22년(서기 3)에 졸본卒本에서 국내성國內城으로 천도하나, 고구려 왕은 즉위 즉시 능묘를 수축했으니, 천도 이전에 이미 능묘는 완성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능묘는 졸본 흘승골성 부근에 위치할 것이다. 또한 제3대 대무신왕大武神王부터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20대 장수왕長壽王까지는 모두 집안集安 국내성國內城에 능묘를 조성했을 것이다.

호태왕비의 기록뿐만 아니라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라는 명문 전돌에 근거하면 태왕릉太王陵은 광개토왕릉廣開土王陵일 것으로 보인다.

장수왕은 55년(427)에 평양으로 천도한다. 그러나 장수왕의 능묘는 이미 국내성에 조성되어 있었고, 마지막 왕인 보장왕寶藏王은 당唐의 수도에서 사망했다. 따라서 장수왕 이후 문자명왕文咨明王부터 영류왕榮留王까지 7명은 모두 평양에 능묘를 조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장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고구려 건국 초기의 무덤 형식은 적석묘積石墓,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가 다수이고 봉토묘封土墓와 봉토석광묘封土石壙墓는 적은 편이다. 중기는 각종 유형의 무덤이 교체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집안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에는

다양한 유형이 공존하는데, 천도 초기에는 적석석광묘나 방단적석석광묘方壇積石石壙墓가 많다. 신대왕新大王 시기(165~179)에는 귀족 묘지에도 수묘연호守墓烟戶가 배치되지만 왕릉의 수묘연호는 귀족 묘지보다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왕릉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방단계제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나 방단석실묘方壇石室墓가 등장했을 것이다. 평양으로 천도한 후에는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가 주류가 되고 묘실 내에는 벽화를 그렸다.

또한 고구려 왕릉에는 능묘 부근 혹은 능묘 상부에 건축물을 조성했다. 시조 동명왕東明王의 능묘에는 동명왕묘東明王廟가 세워졌다. 고고 조사를 통해서도 집안 지역 다수의 대형 방단계제석실묘에서 다량의 전돌, 기와, 막새, 초석 등이 발견되었다. 이는 고구려 왕릉의 능묘 상부 혹은 부근에 건축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구려 왕공귀족은 중원 한대漢代 이래의 능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묘연호를 두고 능원을 조성했다. 이는 문헌과 호태왕비에서도 증명되고 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이러한 능원 제도는 늦어도 신대왕 시기에는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구려 왕릉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벽화를 들 수 있다. 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은 연대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형으로 방단봉토석실묘方壇封土石室墓인데, 묘실 내부에 장식도안이 그려져 있다.

현재까지 왕릉의 묘주에 대한 연구 가운데, 장군총將軍塚, 태왕릉, 천추총千秋塚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되는 견해가 나와 있다. 즉 천추총은 고국양왕故國壤王, 태왕릉은 광개토왕廣開土王, 장군총은 장수왕으로 비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타 대형 고분의 묘주 비정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출토유물 등에 근거하여, 서대총西大塚은 15대 미천왕美川王, JYM992는 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 JYM3319는 17대 소수림왕小獸林王의 무덤으로 추정한다. 임강총臨江塚은 14대 봉상왕烽上王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4대에서 20대까지 7명의 왕릉은 추정이 가능하나 문자기록과 고고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추정 역시 완벽한 결론으로 볼 수는 없다.

평양에 위치한 왕릉 가운데 묘주 추정이 가능한 왕릉으로는 전동명왕릉이 있다. 이 무덤 벽화는 장식문양을 주요 도안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5세기 중만기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옥충玉蟲 날개 장식의 금도금 제품 역시 5세기 중만기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전동명왕릉의 조성 시기는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이고, 묘주는 21대 문자명왕일 것으로 추정된다.

李淑英 · 耿铁华, 2003, 「高句丽王陵及相关问题研究」, 『社会科学战线』2, 123-129.

저 자 마젠马健
길림성 장춘시 문물보호연구소
연 도 2013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집안集安 칠성산七星山 96호 고구려 적석묘의 시대 논의

集安七星山96号高句丽积石墓时代小议

주 제 어 고구려
칠성산 96호묘
5세기 전반
5세기 후반 초기
지속 축조

칠성산七星山 96호묘는 고구려 적석묘로 금도금 마구馬具가 온전한 세트로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서는 출토된 청동 용기와 황유黃釉가 시유된 호壺의 형식 특징 등을 근거로 이 무덤을 4세기 초에서 4세기 중엽의 무덤으로 판단했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은 이 무덤의 편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 무덤은 방단계제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로 묘실은 무덤 상부에 3개가 있으며 제1실에서만 뚜껑돌이 발견되었다. 제2실 남쪽에는 묘도의 흔적이 있어 보고서에서는 이 무덤을 묘실이 작고 묘도가 딸린 3실 적석묘이고, 결론에서는 더 나아가 이를 방단계제동실묘方壇階梯洞室墓이며 석광적석묘石壙積石墓에서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라고 밝혔다.

기존 학계에서는 고구려 동분이혈同墳異穴 적석묘의 각 묘실 축조 시기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동시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96호묘는 제2실과 제3실이 중앙에 위치하고 규모가 비교적 크나, 제1실은 제2실 서쪽으로 기단 가까이에 위치하며 규모도 작아 다른 두 묘실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 제3실 동쪽에서는 묘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축조 초기에는 아마도 제2실과 제3실 두 묘실만 축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제1실은 나중에 추가된 묘실로 축조 시기는 당연히 다른 두 묘실보다 늦다. 제2실에는 묘도가 있으나 뚜껑돌은 보이지 않아 묘도가 딸린 광실 구조에 원래 뚜껑돌이 없는 우산禹山 540호묘와 유사하다. 그러나 제1실은 묘도가 없는 석실 구조였을 것이다.

칠성산 96호묘에서는 복원이 가능한 토기 3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관罐, 2점은 호壺로 모두 민무늬이다. 호는 복부에 4개의 파수把手는 없지만 치구侈口, 전연展沿, 직경直頸, 고복鼓腹, 평저平底로 전형적인 고구려의 기형이다. 그 외에

그 림 1. 칠성산 96호묘 평면도
2. 칠성산 96호묘 출토 민무늬 도호와 시유도기 잔편
1) 회도호
2)~4) 시유도호 잔편
3. 도호 유형 변화 순서 속 칠성산 96호묘 도호의 위치
4. 태왕릉 칠성산 96호묘 출토 마등 비교
1) 태왕릉 출토
2) 칠성산 96호묘 출토

무덤에서는 시유도호施釉陶壺의 복부 잔편 3점도 출토되었다. 잔편의 복부 형태는 위의 민무늬 호와 거의 동일하다.

오가타 이즈미緖方泉는 96호에서 출토된 파수가 없는 호와 장천長川 2호묘 출토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양자는 복부 형태가 거의 일치한다. 다만 96호묘 출토 호의 구연은 후자에 비해 조금 덜 벌어졌고 경부는 약간 더 길다. 장천 2호묘는 사이전연호의 형식과 기타 유물에 근거하여 5세기 후반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묘사된 시유도호 잔편의 유색과 문양 차이는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 그중 1점은 유색이 황색이나 갈색이 짙은 토황색土黃色이고 시유한 두께는 얇으나 고르지 않으며 광택이 없다. 견부와 복부에 각각 2줄의 현문弦紋이 있으며 그 사이에 수장문垂帳紋이 있다. 다른 2점은 태질이 단단하고 유색은 황록색이며 영롱하게 빛이 난다. 1점에는 2줄의 현문 사이에 교차되는 비점문篦點紋이 있고, 다른 1점에는 견부에 수장문, 복부에 비점절치문篦點折齒紋이 있다. 즉 전자의 공예 수준이 뒤의 2점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출토유물이 시기상으로 선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구려는 5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시유도기 생산 기술을 갖추게 되었고, 5세기 중엽 이후 시유도기 생산과 공예 수준이 점차 발전했으며 5세기 후반 말기에는 생산 기술이 성숙 단계에 들어간다. 여러 무덤에서 출토된 사이전연호의 공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칠성산 96호묘 출토품 중 수준이 비교적 떨어지는 1점은 우산 540호묘 출토 시유도호와 유사하다. 이 무덤의 편년은 5세기 전반이다. 반면에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마선구麻線溝 1호묘 출토 사이전연호의 유색은 이미 황색 가운데 녹색이 보이지만 유약과 태토가 잘 결합되지 않았다. 따라서 96호묘의 다른 2점은 시대가 더 늦은 장천 2호묘에서 출토된 동일 기종과 대응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

칠성산 96호묘에서 출토된 용두龍頭 초두鐎斗는 호북성湖北省 한양漢陽 채전蔡甸 1호 서진西晉 무덤 및 남경南京 등저산登底山 서진 무덤에서 출토된 동일 유물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오다 후지오小田富士雄는 5~6세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추정되는 한국 강원도江原道 원성군原城郡 법천리法泉里 1호묘에서 칠성산 96호묘 출토품과 유사한 청동 초두가 출토된 점에 주목했다. 청동기는 이처럼 당시 변방 지역 주민들이 중시하던 물건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세상에 유전되었을 수 있다.

청동 용기와 달리 고구려 마구馬具는 사용 주기가 짧았고 형식도 다양하게 변화하여 편년의 기준으로 삼기에 유리하다. 칠성산 96호묘의 시대를 5세기 전반으로 추정했던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는 모두 마구의 특징, 특히 마등馬鐙 연구에 근거한 결론이었다. 칠성산 96호묘 출토 마등은 '직병횡천형直柄橫穿型

마등(윤등輪鐙)'으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등자는 요령遼寧 조양朝陽 지역 선비족鮮卑族 무덤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초기에는 나무의 3면을 청동편이나 가죽으로 싼 형태였고 조금 더 늦은 시기에는 나무의 4면을 (보통 금도금한) 청동편이나 철편으로 싼 형태로 변했으며, 철제 등자는 더 늦게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등병鐙柄이 점점 짧아지고 발판은 점점 넓어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최근 이사하야 나오토諫早直人는 고구려 마구 종합 연구를 통해 태왕릉太王陵에서 출토된 목심금동윤등木芯金銅輪鐙이 현재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등자 중 하나이고, 칠성산 96호묘 출토품은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나 등병이 짧아 제작 연대가 약간 더 늦다고 보았다. 태왕릉의 묘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이견이 있으나 조성 시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보고 있다. 따라서 칠성산 96호묘 등자의 제작 시기는 5세기 전반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이 무덤의 상한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문에서는 무덤 형식, 토기와 마구 세 가지 측면에서 칠성산 96호묘의 시대 특징을 살펴봤다. 그 결과로 필자는 이 무덤의 상한 연대가 5세기 전반이고 하한은 5세기 후반 초기까지라고 생각한다. 무덤 상부의 세 매장 주체부는 결코 동시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수 십 년의 시간에 걸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기간은 마침 고구려 무덤의 외형이 적석에서 봉토로 변화하는 기간이었고, 내부 구조는 수혈식석광묘, 광실묘에서 횡혈식석실묘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였다. 따라서 이 무덤은 고구려 신구 묘제 전환 과정 연구의 중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马健, 2013,「集安七星山96号高句丽积石墓时代小议」,『博物馆研究』3, 66-69.

편 역 쉬만徐曼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14
간행물명 『북방문물』1
『北方文物』1

새로 발견된 평양平壤 동산동東山洞 고구려 벽화묘

新发现的平壤东山洞高句丽壁画墓

주 제 어 벽화묘
고구려
평양
동산동
사자 모양 청자

2009년 북한과 일본은 공동으로 평양平壤 동산동東山洞 고구려 벽화묘를 발굴했다. 동산동 벽화묘는 평양시 낙랑구역樂浪區域 동산동(옛 손가동孫哥洞)에 위치한다. 대동강大同江 남안 낙랑토성樂浪土城 이남의 석암리石巖里, 정백리貞柏里를 중심으로 낙랑樂浪 시기 목곽묘와 전실묘가 밀집 분포하고 있는데, 동산동 벽화묘는 낙랑 한묘漢墓가 밀집 분포하는 지역의 동쪽 대지에 조성되었고, 이 구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시기 무덤이다.

발굴 당시 봉토는 이미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원래 봉토의 직경은 약 35m, 높이는 약 10m로 추정된다. 무덤은 묘도, 용도甬道, 전실, 동서 감실, 전후실 사이의 통로와 후실로 구성된 이실묘二室墓이다. 남북방향이고, 묘도, 용도, 전후실 사이의 통로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있다. 묘실 내부는 회를 발랐다. 천장은 궁륭정穹隆頂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위로 3단의 모줄임 구조가 있다. 표면에 바른 석회는 박락 현상이 심하다. 전실 동, 서 양쪽 벽의 중간에 각각 감실이 있다. 상부는 1단의 평행고임과 2단의 모줄임 구조이다. 지면에 석제 관대가 있다. 천장은 무너져 일부 궁륭 부분만 남아있다.

용도 벽면은 수평으로 선을 그어 상, 하 2단으로 나누었고, 동벽 상단에 말과 인물, 하단에 갑옷을 입은 기마인물을 그렸으며, 서벽 상단에서는 마차 바퀴와 인물, 하단에는 진현관進賢冠을 쓴 기마인물이 확인된다. 중간 통로에는 수문장이 있고, 후실에는 들보와 기둥의 건축물이 보인다.

발견된 유물은 반구형과 꽃잎형 금제 장식품,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인 원형 금동 장식품, 은두철관정銀頭鐵棺釘, 은제 소형 장식편, 오수전五銖錢, 사자 모양 청자, 토기, 세 개체의 인골이 있다. 사자 모양의 청자는 벽사형辟邪形 촛대라고도 불린다. 뒷면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으나 구체적 용도는 불명확하다. 머리와 앞다리 부분은 일부 훼손되었다. 인골은 두개골 셋과 기타 부위 골격

그 림 1. 사자 모양 청자
2. 2실묘 형식 비교
1) 덕흥리 벽화묘
2) 동산동 벽화묘
3) 약수리 벽화묘

이 발견되었는데, 1남 2녀로 추정된다.

이 무덤은 다음과 같은 중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현재 평양시 중심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무덤이고 주위에 이 무덤을 제외한 다른 무덤이 없다. 다음으로 감실 상단이 모줄임 구조인 이실묘는 평양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리고 고구려 무덤 가운데 묘도가 가장 길며, 봉토의 판축 구조와 묘실의 지면 구조가 확인되었다. 진대晉代의 사자 모양 청자는 평양 지역 고구려 무덤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전후 2실에 전실이 가로로 길며 양측에 감실이 있고, 천장이 궁륭정과 모줄임의 복합 구조이며 용도와 중간 통로가 동쪽으로 치우친 형식적 특징은 남포시南浦市 약수리藥水里 벽화묘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약수리 벽화묘는 전실 북벽 서쪽에 제단을 설치했고, 후실에 관대를 두었다. 이러한 조성 방식은 역시 이실묘인 덕흥리德興里 벽화묘에서도 확인된다. 덕흥리 벽화묘에는 감실이 없으나 전실이 가로로 길고, 용도와 중간 통로가 동쪽으로 치우쳐있으며 궁륭부 위로 고임 구조가 있는 특징은 앞의 두 무덤과 많이 유사하다. 이 무덤 전실 천장부의 묵서 묘지명에는 무덤 조성 시기가 30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석실의 형태면에서 볼 때 상술한 3기 무덤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대략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판단된다.

동산동 벽화묘에서 출토된 사자 모양 청자는 중국 산동성山東省 추성鄒城 유보劉寶 무덤(영강永康 2년, 301)과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 곡리谷里 1호묘(서진西晉 후기~동진東晉 전기)에서도 발견되어, 서진~동진 시기 중국의 생산품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생산된 청자가 100년 후의 고구려 무덤에 부장된 원인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徐曼 编译, 2014, 「新发现的平壤东山洞高句丽壁画墓」, 『北方文物』1, 32–34.

저 자 쑨런제孙仁杰
집안시 박물관
연 도 2002
간행물명 『박물관연구』4
『博物馆研究』4

고구려 석실묘 기원 재논의

高句丽石室墓起源的再探讨

기원전후 고구려 민족의 고유 묘제는 적석묘였다. 5세기 전후가 되면 적석묘가 점차 봉토석실묘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적석묘와 봉토묘의 교체 과정에서 무덤 내부에 석실石室이 등장한다.

고구려 민족의 묘제 중 광실壙室은 석실보다 시기가 이르다. 그러나 석실이 광실에서 직접 변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에 석실묘가 유행하는 시기는 5세기 이후로 태왕릉太王陵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그 외에 발굴된 자료를 보면, 이미 다수의 석실묘에서 1인장, 1차장이 확인되어 횡혈식석실묘 전체가 다인장多人葬, 다차장多次葬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고구려 무덤의 석광石壙, 광실, 석실 3단계 변화는 수혈식과 횡혈식 무덤이라는 분류 형식으로 개괄할 수는 없다.

다음 주제는 낙랑樂浪 묘제의 확산과 대동강大同江 유역 석실봉토묘의 북진 문제로, 고구려 정권은 고구려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다민족 결합체였고, 그래서 그들은 주변 각 민족의 선진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흡수했다. 특히 313년 고구려가 낙랑군樂浪郡을 점령한 후 그곳의 한漢 문화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404년 고구려가 서쪽으로 요동군遼東郡, 현도군玄菟郡을 점령한 이후 한족漢族들이 대규모로 고구려에 유입되었다. 동구고분군 내 다수의 석실봉토묘는 그 구조면에서 요동遼東 지역에 훨씬 더 가깝다. 고구려가 남천하기 전에 통구通溝 일대 고구려 민족에게는 이미 석실봉토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 출현 연대는 당연히 대동강 유역보다 늦지 않다.

고구려 묘제의 변화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중시해야 할 것이 내부 구조의 변화이다. 내부의 변화가 외부의 구조 변화를 수반하고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석재로 무덤을 덮고 보호하는 외형은 고구려 민족의 묘제이나 석실적석묘는 크게 유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 기술 측면에서도 그 원인

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 절천정총折天井塚, 1405호묘는 모두 계단석실벽화묘階壇石室壁畫墓로, 묘실은 석재로 쌓았고 상부는 판석으로 덮었으며 묘실 네 벽과 천장에 백회를 바르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외부 봉석이 조밀하지 않고 석재 사이에 틈이 커서 우기에는 비에 씻기고 겨울에는 결빙 등의 피해를 받아 백회가 박락되고 벽화가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 그에 반해 봉토 방식은 백회층의 보존에 더 유리했다. 그래서 내부 구조의 변화가 외부 구조의 변화를 유발시킨 것이다.

孙仁杰, 2002, 「高句丽石室墓起源的再探讨」, 『博物馆研究』4, 56–57.

저 자 쑹쥐안宋娟
길림사범대학
겅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연 도 2008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고구려 장군총將軍塚의 배장묘

高句丽将军坟的陪葬墓

주 제 어 고구려
장군총
배장묘

고구려 장군총將軍塚은 집안시集安市 동북쪽 4.5㎞의 용산龍山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는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로 1955년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에 대한 실측 조사 당시 우산묘구禹山墓區 1호묘(JYM0001)로 편호되었다.

장군총 묘주에 대해서는 시조 동명왕東明王설, 제10대 산상왕山上王설, 호태왕好太王설, 장수왕長壽王설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동명왕설과 산상왕설은 이미 근거가 희박해졌고, 호태왕설과 장수왕설 가운데 장수왕설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장군총의 배장묘 수량 역시 견해가 충돌되고 있다.

1935년 10월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를 포함한 일부 일본 학자들이 장군총을 조사하고 실측했다. 『통구通溝』 상권에는 장군총 묘역도가 있는데, 장군총 뒤편으로 1열의 배장묘가 확인된다. 도면에는 제1, 제2 배장묘가 명확하게 표시되었으나 총 몇 기의 배장묘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채 '장군총 배총군將軍冢陪冢群'으로만 기록하였다. 과거에는 장군총 뒤편에 1열로 5기의 배장묘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겅톄화耿鐵華는 『통구』 상권의 장군총 묘역도에 표시된 제1, 제2 배장묘 사이의 거리에 근거하여 제2 배장묘에서 제일 끝의 배장묘 사이에 있는 일부 크기가 큰 돌들이 또 다른 배장묘의 흔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그는 장군총 뒤편에 있는 1열의 배장묘가 총 4기라고 추정했다.

1997년 집안시集安市 박물관에서는 장군총 배장묘를 정리했다. 당시 2호 배장묘 북쪽에서 길이 58m, 너비 8m의 장방형 건축물 기초를 확인했는데, 당시의 발굴 보고서에서는 장군총 뒤편으로 1열의 배장묘 5기 혹은 4기가 있다고 본 과거의 견해를 부정하고, '제대祭臺' 성격의 건축물로 보았다.

그 림 1. 장군총 묘역도
2. 장군총 2, 3호 배장묘 평·측면도

많은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에서 이미 고구려가 무덤에 제사를 올리는 상장 제도를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대형 무덤에서 발견되는 기와, 막새, 전돌 등은 무덤 상부에 침전 종류의 건축물을 올린 흔적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지三國志』 등에서도 고구려인의 제사 모습이 증명되고 있다.

2003년에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 발굴 조사 당시 무덤 옆에서 다수의 적석 형태 유구를 발견했다. 마선묘구麻線墓區 626호묘 동쪽 20m 지점에서는 장방형 대기臺基를 발견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사와 관련된 유구로 보았다. 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 871호묘 북쪽(무덤 뒤쪽) 11m 지점에서도 석축 대기가 발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 대기가 동서로 배치된 4기의 무덤이며, 그 남쪽 무덤의 배장묘일 가능성도 있고 제사와 관련된 건축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임강총臨江塚 동쪽 지점에도 비교적 큰 돌로 쌓은 대기가 발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대祭臺로 보았다. 칠성산묘구 211호묘 북쪽 12m 지점에는 폭이 좁고 긴 형태의 돌무지가 있다. 1966년 조사에서는 이를 JQM0212로 편호했다. 후에 현지 농민이 농지를 개간하면서 크게 교란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장방형이고 돌무지 표면에는 비교적 큰 돌로 쌓은 격벽 3열이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 대기가 칠성산 211호 무덤의 배장묘 또는 제사용 건축물인데, 만약 무덤이라면 동서방향으로 배열된 방형의 작은 무덤 4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대총西大塚 동북쪽 40m 바깥으로도 장방형의 대기 모양 유구가 있다. 길이는 서대총 동쪽 변의 길이와 비슷하다. 북쪽에서는 2층의 단이 확인된다. 대기 상부에서는 금으로 도금한 보요步搖 장식 잔편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 유구를 제대 성격으로 보았다.

이상 왕릉급 무덤에 대한 발굴 조사 보고서에서는 다수가 무덤 옆의 유구를 제대 혹은 제사와 관련된 유구로 보고 있지만, 형태나 출토유물로 볼 때 이 유구들은 오히려 배장묘일 가능성이 더 높다. 임강총 동쪽의 대기 위에서는 원형의 흑토 띠 3개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배장묘의 묘실 혹은 광실壙室일 것으로 보이며, 출토유물도 제사 유물과는 거리가 멀다. 칠성산 871호묘 뒤편의 대기는 중간에 약간씩 간격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211호묘 뒤편 대기에는 격벽도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 무덤 뒤편에서 제사를 올렸다는 문헌기록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장군총 뒤편의 배장묘 2기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제2 배장묘에 바로 붙어 있는 장방형 석축 계단階壇은 제대祭臺가 아니라 배장묘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무덤에 올리는 제사는 무덤 옆의 침전에서 진행하는데, 장군총의 침전은 무덤 위에 있었으며 제사 관련 유구인 대기臺基는 묘실, 묘도, 묘의 정면 앞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제대는 무덤 뒤편 배장묘와 아주 근거리로 건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구려 무덤 가운데에는 적석 혹은 계

단식階壇式 관묘串墓도 있는데, 외형은 전체가 장방형이고 중간에 격벽이 있으며 각각 광실 혹은 묘실을 갖고 있다. 칠성산묘구 211호묘 북측 적석에는 3열의 격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장군총 뒤편의 대기에도 많은 교란은 있었지만 여전히 사이가 떨어져 있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군총 대기에서는 금도금한 신발 바닥, 금당金鐺 등 유물 및 일부 흑회색과 옅은 회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그 북쪽에서는 약간 가공한 호석護石 3개가 발견되었다. 이는 모두 배장묘와 관련된 유물, 유구들이다. 따라서 장군총 뒤편에 1열로 3기의 배장묘가 있었고, 그중 제3 배장묘는 계단적석관묘階壇積石串墓이며, 무덤 위의 광실 또는 석실이 이미 모두 훼손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宋娟 · 耿铁华, 2008, 「高句丽将军坟的陪葬墓」, 『北方文物』4, 18–21.

저 자 쑹쥐안宋娟
길림사범대학
중국사상문화연구소
겅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연 도 2009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고구려 순장 풍속에 대한 첫 검토

高句丽殉葬习俗初探

주 제 어 고구려
인순
습속

사람을 순장하는 풍속은 고대 중원에서 유행한 장례 풍속이었다. 신석기 시대 일부 유적에서도 이미 사람을 순장한 무덤이 발견되었고, 황하黃河 상류의 제가齊家 문화와 황하 하류의 대문구大汶口 유적에서도 사람을 순장한 다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런 풍속은 상대商代에 이르러 크게 유행했다. 물론 생산력의 발전, 사회의 진보에 따라 이런 풍속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봉건사회가 끝날 즈음에 와서야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문헌에서는 이런 풍속을 인순人殉 혹은 종사從死라고 불렀다. 이러한 풍속은 중원뿐만 아니라 변경 지역 민족에게도 존재했었다.

고구려에서도 분명 사람을 순장하는 풍속이 있었다. 다만 문헌기록이 적어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동천왕東川王이 사망한 후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순장을 원하여 자살했고, 봉상왕烽上王도 두 아들이 함께 순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 현재까지 발굴된 일부 고구려 무덤에서도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요령성遼寧省 무순시撫順市의 전둔前屯 9호묘와 17호묘, 길림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강구촌江口村 8호묘, 집안集安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 983호묘, 우산묘구禹山墓區 JYM1810 등이 있다. 이상 무덤은 다른 고구려 무덤과 달리 인골이 확인되었으며 부부 혹은 부부와 첩의 합장묘로 교란 혹은 2차장의 흔적이 없는 무덤들이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순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전둔 17호묘에는 1남 2녀가 묻혀있는데 이는 사람의 순장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외에 북한에서 발견된 노산동魯山洞 1호묘, 개마총鎧馬塚, 덕화리德化里 1호묘, 강서대묘江西大墓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헌과 고고 발굴을 통해 확인한 고구려의 사람 순장 풍속은 상당히 보편적인 사회 풍속이었다. 고구려는 왕실과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까지도

순장을 했는데, 이는 부장품이나 무덤의 규모로 보아 평민 무덤이라 판단되는 강구촌 8호묘, 전둔 17호묘를 통해 확인된다. 시간상으로는 동천왕이 사망한 248년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고, 가장 늦은 시기의 순장 증거는 북한의 강서대묘로 이는 7세기 초에서 7세기 중엽의 무덤이다. 이처럼 고구려에는 3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 계속 순장의 풍속이 존재했었다. 지역적으로는 고구려의 3개 도성 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변방 지방에서도 확인된다. 국내성國內城에서 거리가 떨어진 통화 강구촌, 무순 전둔 등이 이를 증명한다.

고구려의 순장 풍속은 깊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먼저 고구려인은 장례를 특히 중시했다. 남녀가 결혼하면 바로 묘지를 정하고 부장품을 준비했다. 왕실과 귀족은 더욱 화려하게 준비했으며, 재화가 부족한 평민들은 부인을 부장품으로 함께 매장했다. 또한 고구려 왕과 귀족은 수묘守墓 제도를 통해 사후 무덤의 관리와 제사를 책임지게 했으며, 호태왕好太王은 무덤에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고구려는 일찍이 서주西周와 교류했고, 그 뒤로 중원과의 관계를 계속 밀접하게 유지하여 중원의 순장 풍속이 고구려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후에 중원에서는 순장 풍속이 점차 사라졌지만, 고구려는 여전히 이를 실시했다.

宋娟 · 耿铁华, 2009, 「高句丽殉葬习俗初探」, 『北方文物』3, 64–66.

저 자 왕샤王俠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4
간행물명 『북방문물』1
『北方文物』1

고구려 말각첩삽묘抹角疊澀墓 (모줄임 구조 무덤) 초론

高句丽抹角叠涩墓初论

그 림
1. 고구려 고분군 분포도
2. 집안 고구려 말각첩삽묘 (모줄임 구조 무덤) 실측도
   1) 집안 대고력묘자 M31
   2) 집안 대고력묘자 M21
   3) 집안 산성하 M325
   4) 집안 노호초 M4
   5) 오회분 4호묘
   6) 집안 마선구 1호묘
3. 집안 고구려 말각첩삽묘 실측도
   1) 집안 무용총
   2) 집안 장천 1호묘
   3) 집안 삼실총
   4) 집안 마선구 M1437
4. 집안 고구려 말각첩삽묘, 일본 수증하이혈고분 실측도
   1) 집안 우산 M1897
   2) 집안 마선구 M1447
   3) 하이혈고분(좌측 웅혈 석실, 우측 자혈 석실)

말각첩삽抹角疊澀(모줄임 구조)무덤은 고구려의 무덤 중에서도 독특하고 새로운 구조의 무덤이다.

중국 내 고구려 무덤은 주로 압록강鴨綠江과 혼강渾江, 부이강富爾江 유역에 분포하고, 제2송화강松花江 상류의 백두산 서북쪽 기슭에서도 일부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고구려 무덤은 석묘石墓와 토묘土墓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석묘는 '적석묘'라고도 불리는데, 무단석광묘無壇石壙墓, 방단석광묘方壇石壙墓, 방단계제석광묘方壇階梯石壙墓, 방단석실묘方壇石室墓,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 등이 포함된다. 토묘는 '봉토묘'라고도 불린다. 방단봉토석실묘方壇封土石室墓, 방단계제봉토석실묘方壇階梯封土石室墓,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 등이 포함된다.

4~5세기에 고구려는 중원의 문화 전통이 남아있는 요동遼東 일대까지 세력을 넓혀 중원 및 요동과의 교류가 증대되었다. 이를 통해, 양한兩漢 시기에 시작되고 위진魏晉 시기에 성행한 첩삽疊澀(고임) 기술을 운용하여 넓은 묘실을 조성하는 풍속이 고구려에도 전파된 것이다. 고구려 상층 사회의 주도 하에 고구려에서 오래도록 유행했던 석묘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말각첩삽 구조를 적용한 새롭고 독특한 묘실은 고구려 무덤 구조의 성숙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말각첩삽묘는 석묘와 토묘에서 모두 확인된다. 석묘는 2기가 있고, 토묘는 모두 107기가 확인되었다.

석묘 가운데 말각첩삽묘는 방단석실묘에서만 발견되었다. 1형 I 식은 방단이혈쌍실묘方壇異穴雙室墓이고, 1형 II 식은 방단이혈삼실묘方壇異穴三室墓이다. 이 두 무덤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의 무덤으로, 고구려 말각첩삽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형이다.

토묘 가운데 말각첩삽묘는 묘실을 기준으로 3형 6식으로 구분된다. 1형은 단실묘, 2형은 동혈다실묘, 3형은 이혈다실묘이다. 1형은 2식으로 구분되는데 Ⅰ식은 다시 A, B로 구분된다. Ⅰ식 A는 용도甬道가 없는 단실묘이고 Ⅰ식 B는 용도가 있는 단실묘이다. Ⅱ식은 이실이 있는 단실묘이다. 2형 역시 2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동혈쌍실묘이고 Ⅱ식은 동혈삼실묘이다. 3형도 2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이혈쌍실묘, Ⅱ식은 이혈삼실묘이다.

1형 Ⅰ식 A는 용도가 없고, 간소한 형태의 말각첩삽 구조이며 무덤의 규모가 작아 보통 봉토가 5~10m에 불과하다. 묘실은 지표의 낮은 위치나 반지하로 조성된다. 이 유형의 무덤은 많은 수가 발견되었으며, 4세기 중엽부터 8세기인 발해 시기까지 유행했다. 1형 Ⅰ식 B는 용도가 있다. 봉토가 크고 높으며 방추형方錐形이다. 무덤 기저의 둘레는 100m 전후이고 묘실은 지하에 조성되었다. 1형 Ⅱ식은 이실이 있는 단실묘로 집안集安 마선구麻線溝 1호묘뿐이다. 이 무덤의 이실은 용도 양측에 하나씩 있는데 남이실은 복두식覆斗式이고 북이실이 말각첩삽의 구조다. 묘실 천장은 우진각식이다. 시기는 5세기 중엽이다.

2형 Ⅰ식은 동혈쌍실묘로 용도를 따라 2개의 묘실이 이어지고 주실 천장이 말각첩삽 구조이다. 2형 Ⅱ식은 동혈삼실묘로 집안 삼실총三室塚 1기뿐이다.

3형 Ⅰ식은 이혈쌍실묘인데,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까지 약 1세기 정도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3형 Ⅱ식은 이혈삼실묘로, 마선구 M1447 1기뿐이다. 3실 가운데 2실은 평행고임 구조이고 중간과 동측 묘실은 말각첩삽 구조이다. 시기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 사이이다.

4세기 중엽 방단석실묘에서 말각첩삽 구조가 등장한 후부터 7세기 하반기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말각첩삽묘는 고구려 무덤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말각첩삽묘는 각 시기별로 상이한 구조가 나타나 자체적인 발전의 단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소형 단실묘는 평민의 무덤으로 수량이 많고 구조상으로 큰 변화 없이 4세기 중엽에 등장하여 7세기 하반기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심지어 8세기 발해 시기까지도 이어졌다.

대형 말각첩삽묘는 비교적 복잡하다. 지속 기간은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이나 특징에 따라 조기, 중기, 만기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대형 말각첩삽묘의 변화 추세는 먼저 묘실 형식이 '주실 앞의 장방형 전실–주실 앞에 딸린 이실–동혈다실–용도가 딸린 단실'로 변화한다. 천장 구조는 평행고임 상부에 말각첩삽 구조가 올라간 형태에서 묘실 벽면 위에서 직접 말각첩삽 형식으로 올라간 구조로 변화한다. 벽화 내용은 묘주의 사회생활 제재에서 사회생활과 불교 제재로 변화했다가 다시 사신도로 변화한다. 그리고 백회를 바른 면에 벽화를 그리다가 직접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변화하는 특징도 보인다.

고구려의 말각첩삽묘는 요동과 중원 문화를 흡수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고구려는 일본으로도 이 문화를 전파했다.

王侠, 1994, 「高句丽抹角叠涩墓初论」, 『北方文物』1, 30–36.

저 자 왕춘옌王春燕
집안시 박물관
쑨런제孙仁杰
집안시 박물관
연 도 2011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집안集安 고구려 천추총千秋塚 묘실 형태 신론

集安高句丽千秋墓墓室形制新论

주 제 어 천추총
고구려 왕릉
광실묘

천추총千秋塚은 집안시集安市 서쪽 3.5㎞ 지점의 마선구하麻線溝河 동안에 위치한다. 무덤에서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라는 명문전이 발견되어 천추총이라 명명되었다.

천추총 외부에는 5단의 계단이 있고 평면은 방형에 가깝다. 제1단 계단의 서쪽과 남쪽 면은 모두 5층의 장조석으로 쌓았다.

묘실은 무덤 정상에 조성되었으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조는 불명확하다. 묘정墓頂에서는 덮개석이 확인되지 않았고, 무덤의 쇄석 중에도 석곽 잔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천추총 묘실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석실묘石室墓와 광실묘壙室墓라는 2종 견해가 제기되었다. 석실묘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덮개석 및 석실 축조에 사용된 석재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돌 가운데 석실을 조성한 석재 잔편이 있을 수 있으나 표본이 적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무덤 표면에 남은 석재 잔편을 볼 때 이미 대부분 사라졌거나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고, 광실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원래부터 묘실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적석묘는 고구려의 전통 매장 방식이다. 고구려 적석묘의 외부 구조는 무단無壇-유단有壇-계단階壇으로 변화했고, 외형은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했다. 내부 구조는 석광石壙-광실-석실로, 형태는 장방형에서 정방형으로 변화했다.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에서 계단적석광실묘階壇積石壙室墓 유형은 만보정萬寶汀, 칠성산七星山, 산성하山城下, 마선麻線, 우산禹山 등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계단적석광실묘는 보통 가공한 대형 석재를 사용했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점차 좁아지는 계단 형식이다. 계단 내부는 돌로 채웠고, 다수가 5단 이상이다. 왕릉은 제1계단 외측에 대형 호석護石을 두었

다. 광실은 모두 무덤 상단 중앙에 석재로 조성했고 방형 혹은 장방형이다. 광실 상부에는 덮개석이 없고, 바닥에는 작은 자갈을 깔았다. 일부 광실은 서벽에 묘도를 설치했는데, 묘도 역시 대부분 덮개석이 없다. 왕릉 주변에는 배장묘, 제단, 제사지가 있으며, 능원이 조성된 경우도 있다. 시기는 대략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해당한다.

광실과 석실의 차이점은 덮개석의 유무이다. 광실의 상단에 덮개석이 있는 것이 석실이고, 덮개석이 없는 것은 광실이다. 고구려 무덤 중 광실과 석실의 탄생은 모두 중원 무덤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동한東漢 이후 낙랑樂浪 지역과 요동遼東 지역의 영향이 지대했다. 석실묘가 동구고분군에서 유행한 시기는 5세기 이후이고 호태왕好太王 시기가 되면 광실에서 석실로의 전환이 완성된다. 고구려 묘제가 석실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태왕릉太王陵이다.

천추총이 계단석실묘라는 견해는 묘정 중앙에서 발견된 남북방향의 장조석 2점을 묘도의 덮개석이나 문미석門楣石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령 이 2점이 묘도 혹은 석광의 덮개석이라 해도, 이것이 석실묘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무덤 외부 형태가 천추총과 마찬가지로 대형 계단묘인 태왕릉과 장군총將軍塚이 모두 석실묘이기 때문에 이 무덤 역시 묘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천추총 조성 시기는 고구려 묘제의 개혁에 기초를 다지던 단계였고, 그 최종 완성은 태왕릉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끝으로 현재 무덤 상부 중앙에는 작은 자갈을 깐 동서 약 10m, 남북 약 7m의 바닥면을 다수의 고고자료에서 묘실 저부의 흔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천추총은 원래 묘실이 있었으나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선묘구麻線墓區의 서대총西大塚과 천추총에서는 모두 무덤 위에서 석곽 잔편이 발견되어 두 무덤 모두 석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단에 글자, 용문龍紋, 부호 그리고 기와에 부호와 글자를 새기는 것이 모두 서대총에서 시작되었다. 서대총과 천추총의 시기는 서로 근접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천추총에서 덮개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석실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태왕릉과 장군총의 덮개석은 모두 무게가 수 십 톤에 달한다. 따라서 천추총에도 덮개석이 있었다면 설령 훼손되고 파괴되었다고 해도 그 잔편은 존재해야 하고, 종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사라질 수는 없다.

王春燕 · 孙仁杰, 2011, 「集安高句丽千秋墓墓室形制新论」, 『北方文物』3, 22–24.

저 자 왕페이신王培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05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3집
『边疆考古研究』3辑

고구려 봉토석실묘 문화 연원의 낙랑樂浪 요소 첫 검토

高句丽封土石室墓 文化渊源之乐浪因素初探

주 제 어 고구려
낙랑군
묘장 제도
문화 연원

지원사업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 2003년도 박사기지[博士點] 기금(03JB780001)

4세기~5세기 초 집안集安과 평양平壤 일대의 봉토석실묘는 시기상으로 낙랑계樂浪系 전실묘와 인접해있어 묘실 구조 및 조성 방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실묘의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봉토석실묘 문화의 연원 중 하나는 낙랑樂浪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안 지역과 평양 지역 봉토석실묘 사이에도 일정한 차별성이 보인다.

집안 지역에서는 봉토석실묘가 등장하는 동시에 전실묘도 전래되었고, 조기의 봉토석실묘는 단실묘뿐이었다. 전실묘와 방형 묘실에 용도甬道 양측으로 이실이 있는 단실봉토묘에는 석축 방형 기단[方壇] 혹은 계단階壇이 있다. 석축 방형 기단, 계단은 적석묘 특유의 구조인데, 집안 지역 조기 봉토석실묘에 석축 기단이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 전통 무덤과 새로운 무덤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봉토석실묘가 집안 지역에 등장할 때, 적석묘의 내부 구조도 석광石壙에서 석실石室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4세기 중엽~5세기 초 집안 지역 적석묘는 내부 시설 면에서 새로운 묘실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고, 봉토묘 역시 부분적으로 적석묘 고유의 외부 특징을 채택한 것이다.

평양 일대의 봉토석실묘는 등장 시기가 집안보다 늦고, 무덤 형식도 다양하여 낙랑 문화의 요소 이외에도 요동遼東 지역 무덤 형식의 영향도 나타난다. 그 외에 이 지역의 비교적 이른 시기 봉토석실묘에서는 다수의 전실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묘실을 지하 혹은 반지하에 조성한 점, 궁륭식 천장, 묘실 벽면을 외측으로 휘어지게 한 점, 지면에 전돌을 깐 점, 전돌로 관상棺床을 조성한 점, 전돌 형태의 석재로 묘실을 조성한 점 등이 이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낙랑계 전실묘가 이 지역 고구려 봉토석실묘의 형식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의 봉토석실묘는 적석묘에서 직접 변화해 온 것이 아니

표 1. 한반도 서북 지역 출토 4세기 기년명 묘전 일람표

라 고구려가 부단히 외래문화 요소를 흡수한 결과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고구려 조기 봉토석실묘의 다양한 형식은 낙랑계 전실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고구려 봉토석실묘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마침 낙랑계 전실묘가 소멸하는 시기에 잇닿아 있으며, 전실묘에서 봉토석실묘로 전환되는 과도기 유형 역시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모두 낙랑의 무덤 형식이 고구려 매장 풍속 변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王培新, 2005, 「高句丽封土石室墓文化渊源之乐浪因素初探」, 『边疆考古研究』3辑, 1–10.

저 자 왕페이펑王飞峰
고려대학교 한국환경고고연구소

연 도 2011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0집
『边疆考古研究』10辑

천추총千秋塚, 태왕릉太王陵, 장군총將軍塚에 관한 몇 가지 문제

关于千秋墓、太王陵和将军坟的几个问题

주 제 어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연화문 와당

1990~2003년의 발굴 결과를 소개한 『집안 고구려 왕릉集安高句麗王陵』 보고서에서는 천추총千秋塚이 고국양왕故國壤王(재위기간 384~391), 태왕릉太王陵이 호태왕好太王(391~412), 장군총將軍塚이 장수왕長壽王(412~491)의 무덤이라고 비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3기 무덤에서 출토된 연화문蓮花紋 와당 및 무덤의 크기에서도 증명된다.

천추총의 연화문 와당은 경계선이 둘이고 잎이 여섯이다. 태왕릉에서도 천추총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둘에 잎이 여섯인 연화문 와당이 출토되었다. 장군총에서는 태왕릉에서 출토된 잎이 여덟인 와당과 동일한 와당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천추총에서는 권운문卷雲紋 와당도 출토되었는데 문양의 특징으로 볼 때 고구려 권운문 와당의 마지막 단계로 보인다. 즉 천추총은 권운문 와당이 사라지고, 연화문 와당이 등장하는 시기의 표준이 되는 무덤인 것이다. 국내성國內城 시기 집안集安 지역 연화문 와당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연잎의 수량의 점점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는 것인데,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에서도 여섯 잎에서 여덟 잎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즉 연화문 와당의 변화 순서상으로 천추총-태왕릉-장군총의 조성 순서가 확인되는 것이다.

태왕릉 출토 동령銅鈴의 명문은 "신묘년호대왕□조령구십육辛卯年好大王□造鈴九十六"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당시 석각 및 기타 자료에는 '태太'와 '왕王'의 조합은 있으나 '대大'와 '왕王'의 조합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동령의 명문은 '대'와 '태'를 혼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령은 호태왕 시기에 제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태왕이라는 호칭은 사후의 시호가 아니라 막 즉위한 호태왕의 칭호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왕大王'이라는 칭호는 고구려 6대 태조대왕太祖大王(53~146), 7대 차대왕次大王(146~165), 8대 신대왕新大王(165~179)에서만 확인되는데, 태왕릉의 형식 및 출토유물로 판단할 때 시기

그 림 1.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출토 와당
2. 호태왕 명문 동령 및 관련 유물
3. 태왕릉 석곽 및 천추총 명문 전와
1) 태왕릉 석곽
2) 천추총 '영락'명 수키와
3), 4) 천추총 '천추만세영고'명 전돌

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필자는 태왕릉의 묘주가 호태왕이고 천추총은 고국양왕, 장군총은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판단한다.

장군총의 성격에 대해 학계에서는 회장설回葬說과 허궁설虛宮說이 대립되고 있다.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장수왕의 시신을 집안으로 모셔와 장군총에 매장했다는 설이 회장설이고, 생전에 무덤을 조성했으나 평양에서 사망하여 실제 매장은 평양 인근에 했고, 장군총은 비었다는 주장이 허궁설이다. 그러나 고구려 시기 왕릉에 회장 제도가 존재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만약 회장 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환인桓仁 지역에 고구려 왕릉 구역이 존재했어야 한다. 또한 장군총 출토 부장품은 천추총이나 태왕릉 혹은 기타 왕릉급 무덤에 비해 수량이 적고, 주로 건축 재료가 많으며 생활용품은 적다. 이는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장군총의 조성 활동도 끝이 나게 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회장설보다는 허궁설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王飞峰, 2011, 「关于千秋墓、太王陵和将军坟的几个问题」, 『边疆考古研究』10辑, 1–8.

저 자 우자창武家昌
연 도 2002
간행물명 『박물관연구』4
『博物馆研究』4

집안集安 고구려 왕릉에 관한 견해

关于集安高句丽王陵的看法

집안集安에는 장군총將軍塚, 천추총千秋塚, 태왕릉太王陵, 서대총西大塚, 임강총臨江塚 등 대형 고구려 무덤이 있고, 이런 고구려 무덤은 건축의 측면에서나 규모의 측면에서나 모두 일반적인 무덤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구려 28대 왕 가운데 19명이 집안에서 고구려를 통치했고, 제20대 장수왕長壽王을 제외하면 모두 사후에 집안에 묻혔다. 그들의 무덤은 당연히 집안에 존재할 것이고, 위의 몇몇 무덤은 묘주가 이 19명 가운데 한 명일 것이다. 일본의 다무라 고이치田村晃一는 장군총이 광개토왕릉廣開土王陵일 가능성이 크고, 천추총은 4세기 말 전후의 왕릉일 것이라고 보았다. 팡치둥方起東은 천추총이 고국양왕릉故國壤王陵이고 태왕릉은 광개토왕릉이며 장군총은 장수왕릉長壽王陵이라고 보았다. 일부 연구자는 천추총을 서천왕릉西川王陵 혹은 소수림왕릉小獸林王陵으로 보기도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무덤은 모두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 계단적석묘階壇積石墓,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 등으로 분류되고, 적석묘의 시기가 비교적 일러 고구려 조기 무덤 형식으로 보고 있다. 방단계제석실묘는 모두 대형 무덤이고 소형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무덤 구조도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유형의 무덤이 묘주의 신분, 지위와 관련된 특수 형식이고,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무덤 형식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방단계제석실묘는 상당히 특수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단계제석실묘는 방단계제석광묘方壇階梯石壙墓와 동시기에 존재했고, 후자가 약간 빨라 방단계제석실묘가 방단계제석광묘의 기초 위에 발전되어 나왔으며, 한동안 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방단계제석실묘는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식이고 묘실에만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방단적석묘가 등장한 후 곧이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

고, 다만 묘주의 특수 신분 때문에 무덤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

봉토석실묘는 출현 시기가 늦다. 주로 중후기 고구려 무덤에서 유행하며, 묘벽에 벽화도 등장한다. 현재 벽화묘의 출현 시기는 4세기 만기 혹은 5세기 초로 보고 있다. 우산묘구禹山墓區 41호묘는 방단계제석실묘이면서 묘실 벽에 채색된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는 이 유형 무덤이 매우 긴 시간 동안 유행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41호묘는 방단계제석실묘의 하한을 말해주는 것이고, 벽화묘와 서로 교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 시기가 벽화묘보다는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방단계제석실묘는 방단적석묘가 등장하고 바로 나타났으며, 역시 방단계제석실묘인 우산고분군禹山古墳群 3319호묘 출토 명문 와당이 동진東晉 명제明帝 태녕太寧 연간의 말기(미천왕美川王[300~331]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근거하면 그 연대는 4세기 초로 비정되고, 하한은 4세기 말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 추정은 이상 무덤의 묘주 추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유형 무덤은 그 규모로 보아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무덤에서 모두 기와가 발견되었고, 명문 전돌의 내용도 고려하면 분명 고구려왕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고구려 중후기의 무덤, 특히 봉토석실묘가 등장하면서 묘실은 점점 더 커졌다. 이는 고구려 매장 제도가 요동遼東 일대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필자는 고구려 왕릉의 특수성과 각 왕릉 사이의 차이점, 문헌기록, 출토유물 등에 근거했을 때, 집안 지역의 대형 고구려 무덤 가운데 장군총은 장수왕릉, 태왕릉은 호태왕릉, 천추총은 미천왕릉, 서대총은 서천왕릉, 임강총은 동천왕릉東川王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武家昌, 2002, 「关于集安高句丽王陵的看法」, 『博物馆研究』4, 49–55.

저 자 우자창武家昌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5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본계本溪 소시묘小市墓 및 관련 문제

本溪小市墓及相关问题

본계本溪 소시묘小市墓는 지하에 조성되었고 상부에 봉토가 없는데,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훼손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무덤 입구가 지표에서 2m 깊이에 있어 지하에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무덤 형식은 '정丁'자형으로, 뒷부분은 장방형이며 앞부분에는 좌우로 이실이 있다. 묘실은 석재를 가로로 쌓아 올렸고 석재 사이 빈틈을 메웠으며 양쪽 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안으로 좁아들어 아치 모양을 띤다. 묘실 서쪽에 판석으로 시상을 만들었고, 묘실 바닥에는 작은 자갈을 깔았으며, 묘실 벽면에 백회를 발랐다. 이상과 같은 건축 방식은 주로 고구려 무덤에서 확인되는 방식이다. 이 무덤은 앞쪽에 전랑前廊이 있고 좌우에 이실이 있어 '정'자 모양이다. 이런 형식의 무덤은 주로 요양遼陽 일대의 위진魏晉 시기 무덤에서 많이 보인다. 그러나 요양 일대의 이런 무덤에서는 석재를 가로로 쌓으면서 빈틈을 메우고 아치 모양으로 만든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요양 일대 무덤의 묘실은 큰 판석을 무덤 위에 가로로 덮어 천장이 평평하다. 천장을 아치형으로 만드는 방식은 고구려 무덤 건축 방식에 가깝다. 이 무덤의 건축과 매장 방식에는 많은 부분에서 고구려 무덤과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어 고구려인의 무덤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지역 고구려인은 요동遼東과 가까워 요동 지역 무덤 형식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요동 지역 판석묘板石墓를 모방했지만 무덤 구조, 석재 사용, 축조 방식 등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과 특징을 유지했던 것이다. 즉 판석이 아닌 석재를 쌓아 올리고 아치형 묘실을 만든 것, 판석으로 시상을 만든 것, 바닥에 자갈을 깐 것 등이 모두 그들의 특징이다. 무덤 내 부장품 역시 대부분 고구려 시기 유물이다.

이상과 같이 소시묘는 고구려인의 무덤이 분명하고, 묘주는 아마도 비려碑麗에 잡혀왔던 고구려인이었을 것이다.

그 림 1. 소시묘 출토 도관
2. 마선구 M940 출토 도관
3. 칠성산 M96 출토 도관
4. 칠성산 M96 출토 평두 철촉
5. 칠성산 M96 출토 매화형 금도금 말 장식
6. 만보정 M78 출토 마함
7. 만보정 M78 청동 관엽형 포식
8. 소시묘 출토 평두 철촉
9. 소시묘 출토 궁형 고리
10. 소시묘 출토 매화형 금동 말장식
11. 칠성산 M96 출토 궁형 고리
12. 소시묘 출토 마함
13. 소시묘 출토 청동 관엽형 포식
14. 소시묘 출토 도관

소시묘의 형식, 부장품은 여러 종류의 문화가 집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특정 역사 시기 동북 지역 각 민족의 상호 교류와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고구려와 인접한 삼연三燕과의 관계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와 모용씨慕容氏의 연燕은 부단한 교류와 전쟁을 거치면서 쌍방의 문화도 교류되는 결과를 낳았다. 본계 소시묘의 여러 부장품, 각 민족의 문화를 보여주는 무덤 양식이 바로 이러한 각종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반영하는 것이다.

武家昌, 2005, 「本溪小市墓及相关问题」, 『博物馆研究』2, 49–57.

저 자 우자창武家昌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5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집안集安 고구려 무덤 2기 상부 석비의 '통천주通天柱'설

集安两座高句丽墓上的石碑为 "通天柱" 说

주 제 어 집안
고구려
석비
통천주
샤먼
전욱

고구려는 그들의 활동 범위 내에 다량의 유적을 남겨놓았다. 최근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집안集安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에서 '석비石碑'가 있는 2기 무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석비로 보았고, 일부 학자는 제사에 사용된 '사주석社主石'으로 보기도 하나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두 석비 가운데 하나는 5세기 중후기에 조성된 산성하山城下 1411호묘의 봉분 동쪽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 팔각기둥 모양이고 높이는 1.16m, 저부 직경은 0.85m, 상부 직경은 0.48m이다. 글자를 새긴 흔적은 없다. 다른 하나는 6세기 중후기에 조성된 우산하禹山下 1080호묘로 묘실과 용도甬道 입구에 위치한 격벽 상단으로 뚫린 도굴갱 입구 흙 속에서 발견되었다. 전체 높이는 1.6m이다. 저부는 장방형이고, 상부는 원형에 8조의 능선棱線이 있다. 석비 상단은 약간 안으로 오므라든다. 두 석비의 외형은 대체적으로 팔각에 가까운 원뿔 모양이고, 원래의 위치는 모두 봉분 상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두 조형물이 비碑나 제사용 '석주石主'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석주石柱라고 생각한다. 이런 석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천주通天柱'라 할 수 있는 전설 속의 신주神柱이다.

통천주는 원시 샤머니즘에서 기원했다. 샤머니즘에서는 세상 만물에 다 영혼이 있고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샤먼은 높고 큰 나무 기둥을 통해 서로 다른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 기둥이 바로 통천주이다.

고대의 선민들은 인간과 하늘의 소통을 통천주에 의지했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은 통천주를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은 선사시대 사회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고, 통천주를 숭배하는 풍속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후대에는 나무 기둥보다 더 오래도록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석재를 통천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집안 고구

그 림 1. 1411호묘 석비 정면도, 부감도 (1/30)
1) 정면도
2) 부감도
2. 1080호묘 석비 정면도, 부감도 (1/30)
1) 정면도
2) 부감도

려 무덤의 두 석주가 바로 이런 석재 통천주의 실제 증거이다.

전욱顓頊은 중국 고대 전설 속 한 부족의 수령으로 북방대제北方大帝라고도 불리는 북방의 태양신이다. 전욱 고양씨족高陽氏族은 북방에 거주하던 대규모 부족이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전욱의 부족은 새를 토템으로 삼았고, 스스로 난생卵生 부족이라 불렀다. 고구려 역시 시조 추모왕鄒牟王의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 추모왕은 모친 하백河伯의 딸이 낳은 알을 깨고 나왔다는 내용이 호태왕비好太王碑에 기록되어 있다. '하백의 딸'이라는 기록 속 하백은 중원 지역 황하黃河 유역의 산물이다. 하백은 중원의 한 고대 민족으로 원래 황하에서 제사를 관장하던 부족이었는데 훗날 황하의 신으로 변화된 것이다. 고구려가 하백을 자신들의 외조부로 보았다는 것은 고구려 민족이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계승은 당연히 전욱 고양씨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집안 산성하 1411호묘와 우산하 1080호묘에서 발견된 두 석주는 통천주가 맞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주인 통천주는 고대의 전설과 샤머니즘에서 기원했고, 다년간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이어져 왔으며, 일부 해석이 불가능한 자연 현상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영역 속 상징적 신물神物이다. 통천주는 전욱 고양씨족 사회에서 발생하여 유행했고, 몇 천 년 후 고구려 민족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행했다. 이는 고구려 민족과 전욱 고양씨족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武家昌, 2005, 「集安两座高句丽墓上的石碑为 "通天柱" 说」, 『北方文物』3, 43–49.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연 도 1987
간행물명 『고고학보』3
『考古学报』3

고구려 적석묘의 유형과 변화

高句丽积石墓的类型和演变

그 림 1. 집안 하화룡 적석묘Ⅰ식 M8 평·단면도
2. 고구려 무덤 출토 금속기(1)
3. 토기
4. 집안 칠성산묘구 M879 평·단면도
5. 환인 M11 평·단면도
6. 고구려 무덤 출토 금속기(2)
7. 환인 M15 평·단면도
8. 환인 M1 평·단면도
9. 환인 M21 평·단면도

표 1. 무단석광묘
2. 방단석광묘
3. 방단계제석광묘
4. 방단석실묘
5. 방단계제석실묘
6. 적석묘 유형별 연대표
7. 적석묘 내외부 구조별 분석표
8. 적석묘 내부 구조별 분석표
9. 훼손이 심한 2기 적석묘 제원표
10. 무덤 유형별 내외부 구조 분석표

도 표 1. 무덤 유형별 시기 구분

고구려 무덤의 외부 구조는 적석積石과 봉토封土 2종으로 나눌 수 있고, 내부 구조는 석광石壙과 석실石室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적석묘는 돌로 봉분을 쌓은 것이고 봉토묘는 흙으로 봉분을 쌓은 것이다. 석광은 돌로 네 벽을 쌓았고 뚜껑돌이나 문, 묘도는 없다. 석실은 뚜껑돌과 문이 있으며 일부는 묘도도 있다.

고구려의 적석묘는 무단석광묘無壇石壙墓, 방단석광묘方壇石壙墓, 방단계제석광묘方壇階梯石壙墓, 방단석실묘方壇石室墓,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로 구분된다.

무단석광묘는 자갈이나 돌덩이를 지표상에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쌓고 중간에 석광을 조성했다. 석광 바닥은 지표와 평행하거나 약간 높다. 석광 위에는 쇄석을 쌓았다. 이 유형은 고구려 정권 건국 이전부터 있었던 유형 중 하나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하한은 5세기까지 내려간다.

방단석광묘의 내부 구조는 기단이 없는 석광묘과 동일하나 외부의 적석 사방으로 대형 석괴나 긴 돌로 한 층의 방형 기단을 조성했다. 발견 수량은 많지 않으며, 유행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출토된 화폐 등으로 보아 상한은 늦어도 동한東漢 초 이전일 것이다.

방단계제석광묘의 내부 구조는 방단석광묘와 동일하나 외부의 방형 기단 위로 보통 3층 정도의 방형 단을 쌓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 계단 모양을 띤다. 단의 안쪽으로 자갈이나 크고 작은 석괴를 채웠으며, 석광은 대부분 제1층 단이나 제2층 단 위에 조성했다. 이 유형의 등장 시기는 기본적으로 방단석광묘와 동일할 것이고, 4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단석실묘는 사방에 방형 기단을 조성했고 묘실은 기단 중앙 지표에 조성했다. 뚜껑은 평평한 돌을 올리거나 모줄임으로 마감했다. 묘도는 한쪽으로 치우쳐 묘실과 묘도의 평면이 도형刀形을 띤다. 묘실은 단실, 2실, 3실 등으로 다양하다. 마지막에 쇄석이나 자갈로 묘실 상부를 덮었다.

방단계제석실묘의 내부 구조는 방단석실묘와 동일하나 외부에 방형의 단으로 계단 모양을 만들었다. 유행 시기의 하한은 5세기이나, 등장한 시기는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보인다.

무덤의 외부 구조에 따라 무덤의 규모, 부장품의 종류, 수량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나 유행 시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덤 등급상의 차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석광과 석실은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석석광묘가 적석석실묘로 변해가는 것은 동일한 등급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방단석광묘가 방단석실묘로 변화했고, 방단계제석광묘가 방단계제석실묘로 변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단이 없는 석광묘는 기단이 없는 석실묘로 변화했을 것인데,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이 리뎬푸李殿福가 언급한 '봉석동실묘封石洞室墓'로 보인다. 이 유형은 묘실을 지표에 조성했고, 묘실 상부에 간단한 모줄임 형식이 보이기도 하며 그 위로 큰 뚜껑돌을 덮었고 외부는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 형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는 대체적으로 기단이 없는 석실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무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발표된 사례가 없다. 아마도 무덤의 규모가 작고 파괴가 심하여 조사 과정에서 무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 적석석광묘는 고구려 정권 건립 전후부터 5세기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는 적석석실묘가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 세력의 발전 및 외부의 영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구려는 4세기 초에 낙랑군樂浪郡을 점령했다. 낙랑군은 중원 정권이 이곳에 세운 통치 중심이었고, 한漢 문화의 영향이 강하여 외부에는 봉토를 쌓고 내부에는 목곽, 전실, 석실을 조성하는 무덤 제도를 이어왔다. 또한 5세기 초 고구려는 중원 정권의 동북지방 통치 중심이었던 요동遼東까지 점령하게 된다. 즉 고구려는 중원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무덤 내부에 묘실을 조성하고 외부를 흙으로 덮는 풍속까지 받아들였던 것이다.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무덤은 석광에서 석실로, 적석에서 봉토로 변해 가는 두 과정이 확인되며 이는 거의 동시기에 진행되었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가 후자보다 약간 더 빠른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시작되었고, 후자는 4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점이다. 또한 양자는 모두 5세기 들어 완성되었다. 그래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5세기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과도기 형식인 적석석실묘가 등장했다. 그러나 수량이 많지 않은 것은 4세기 중엽에 봉토석실묘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봉토석실묘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魏存成, 1987, 「高句丽积石墓的类型和演变」, 『考古学报』3, 321–338.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연 도 1994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고구려 적석묘의 유형과 변화 재론

再谈高句丽积石墓的类型和演变

필자는 1987년 『고고학보考古學報』에 「고구려 적석묘의 유형과 변화[高句麗積石墓的類型和演變]」을 발표했었다. 이는 필자의 고구려 적석묘에 대한 단계적 성과를 종합한 것이다. 당시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1992년 일본의 다무라 고이치田村晃一는 「고구려의 적석묘[高句麗的積石墓]」를 발표하면서, 필자의 상기 논문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적석묘의 유형을 구분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무라는 필자가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방법에 동의하고 본인의 방식도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서는 사실 내부 시설을 기준으로 '석곽적석묘石槨積石墓(A, B, C로 세분), 묘도가 있는 석곽적석묘(A, B로 세분), 석실적석묘石室積石墓(A, B, C로 세분)'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고, 외부 구조는 방대형方臺形, 원추형圓錐形, 방추형方錐形, 계단형으로 간략하게 서술했을 뿐 이를 유형 구분의 표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래서 내부 구조로 구분한 3종 유형과 외부 구조 사이의 대응관계 및 설명하려 했던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또 필자가 사용한 석광石壙을 석곽으로 썼는데, 이에 대해 다만 용어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상기 논문에서 외부 구조의 변화 및 내부 구조의 차이에 모두 주목해야 하고, 각 유형의 명칭에서 이 두 측면이 모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표준에 근거하여 필자는 외부 구조를 무단無壇, 방단方壇, 방단계제方壇階梯로 구분하고, 내부 구조는 석광石壙과 석실石室 2종으로 구분했으며, 내외부 구조를 결합하여 무단석광, 방단석광, 방단계제석광(적석석광으로 통칭할 수 있다)과 방단석실, 방단계제석실(무단석실도 있을 것이나 아직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적석석실로 총칭할 수 있다)의 몇 가지 유형

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다무라가 말하는 '두 사람의 분류법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결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필자가 석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무덤 구조에 대한 이해의 차이이다. 석광은 돌로 네 벽을 쌓았고 뚜껑돌은 없으며, 보통은 묘문과 묘도가 없는 구조이다. 그에 반해 석실은 뚜껑돌도 있고 묘문과 묘도도 있는 경우이다. 석축 구조의 무덤은 석광, 석실 이외에 석곽, 석관石棺도 존재한다. 석곽, 석관은 모두 돌로 네 벽을 쌓고, 위에 뚜껑돌이 있으며, 석관은 문이 없고, 석곽도 보통은 문이 없다. 석광은 비교적 크고, 내부에 다수가 목관을 두었다. 석관은 비교적 작고, 내부에 목관이 없으며 그 자체가 바로 관이다. 고구려 적석묘의 석곽은 뚜껑돌이 없고 보통 문, 묘도 역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석곽이라 부를 수 없다. 환인桓仁 M12는 석관이고, 만보정萬寶汀 M242-3은 석곽 혹은 석관이다. 현재까지 고구려에서 확실한 석곽묘, 석관묘는 발견된 경우가 매우 적어, 필자가 이를 상기 논문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유행 시간은 석광보다 늦고 석실과 비슷하다고만 언급했다. 그밖에 최근에 들어 다수의 고구려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에서 관정棺釘, 관환棺環, 관판棺板 잔편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 유형의 무덤에 목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적석석광묘에서는 이러한 목관 부재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규모가 큰 적석석광묘에서 출토된 것은 오히려 양 끝이 같은 방향으로 휘어진 철제 꺾쇠였다. 이러한 꺾쇠는 아마도 목곽에 사용된 부재였을 것이다. 목곽은 자재가 커서 꺾쇠로 연결하여 고정했던 것이다. 적석석실묘에서도 철제 꺾쇠가 발견되고, 일부는 관좌棺座를 두기도 했으며, 관정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목곽이 이 유형 무덤에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목관도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역시 과도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상술한 추론이 정확하다면, 석광은 더욱 더 석곽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다무라가 '석곽의 천장이 목재류 등 쉽게 부식되는 재료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한 것 역시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네 벽을 돌로 쌓았기 때문에 그래도 석광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적석묘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에서 드러나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무덤 외부 구조가 등급의 차이를 의미하고, 내부 구조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다무라는 그가 1982년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 제68권 제1호에 발표한 「고구려 적석묘의 구조와 분류를 논하다[論高句麗積石墓的結構與分類]」에서 제기했던 결론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논문에서는 적석묘의 외부 구조를 분류 표준으로 삼지 않았고, 외부 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외부 구조에서 드러나는 의의를 설명할 때, '어쨌든 고구려 적석묘의 외부 구조 차이를 통해 볼 때, 일부는

축조 기술, 방법의 차이 때문이고, 일부는 사자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 때문이지, 단순하게 축조 연대의 선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 그는 석실이 석곽보다 늦다고 밝혔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관점을 이미 1981년 중국고고학회 제3차 연회에서 발표했던 「발해 왕실귀족 무덤[渤海王室貴族墓葬]」에서 밝혔다. 이 글에서 필자는 발해 무덤과 고구려 무덤의 관계를 언급하며, 내외부 구조를 통해 적석묘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또한 내부 구조 가운데 석실이 석광보다 늦다는 견해를 명확히 지적했다.

그는 '묘도가 있는 석곽적석묘를 석곽적석묘와 석실적석묘 사이의 과도기 형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상기 논문에서 묘도가 있는 석곽적석묘를 독립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다만 만보정 M78을 분석하면서 이 무덤에 묘도가 등장하는데 그 규모가 기타 석광 구조에서 보이는 '갈라진 틈'에 비해 좀 더 정연하고 완전하다고만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을 석실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시기에는 석광 구조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석실 구조로 향해 가는 과도기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적석묘의 변화 순서와 관련해서 필자는 상기 논문에서 적석묘 각 유형의 구체적인 분석과 동시에 봉토석실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필자는 적석석광묘 중 무단석광묘의 하한을 5세기로 보았고, 적석석실묘의 상한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보았으며, 그 하한은 5세기로 보았다. 그리고 봉토석실묘의 출현 시기를 분석하며 예로 든 것은 동수묘冬壽墓였는데, 동수묘는 357년에 조성된 무덤이고 따라서 봉토석실묘의 출현 시기를 4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하지만 봉토석실묘는 사실 이 양식을 사용한 외부인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을 것이고, 그 시기는 적석석실묘의 출현 시기보다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적석석실묘는 원래 적석석광묘를 사용하던 고구려인이 봉토석실묘의 영향을 받아 먼저 석광을 석실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전체를 모두 봉토석실묘로 바꾸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적석석광묘가 먼저 등장하고, 봉토석실묘와 적석석실묘가 동시에 등장한다고 판단한다.

다무라도 1982년의 논문에서 석곽적석묘가 석실적석묘로 변화하는 것은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적석묘를 분류한 표준과 유형이 달라서 적석묘 각 유형의 지속 시간도 필자의 견해와 구별된다. 이는 또한 직접적인 비교도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고구려 봉토석실묘의 상한, 적석묘 각 유형과 봉토석실묘가 어떻게 교체되고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이 없었다.

다무라는 또 1992년의 논문에서, 필자가 석실 구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로 보았고 그래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것은 필자가 적석석실묘를 분석하면서 횡혈식석실묘와 동실묘洞室墓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는 필자가 동실묘의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일률적으로 석실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사실 횡혈이라는 말은 수혈에 상대되는 말이고, 동실과 횡혈은 모두 같은 유형에 속한다. 중원을 예로 들면, 한대漢代 이전 무덤은 묘광이 주로 장방형의 토갱이다.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지면에서 아래로 파고 들어갔고 그래서 이를 수혈이라 부른다. 전국戰國 중기 이후에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는데, 먼저 수직으로 묘도를 파고 저부에서 횡으로 토동土洞을 파 묘실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것을 횡혈, 동실, 횡혈식토동 등으로 부른다. 전국 중만기, 서한西漢 중기와 만기에는 횡혈토동 내에 시기의 변화에 따라 공심전空心磚, 소형 전돌과 석재 등을 써서 묘실을 만들었다. 이를 각각 공심전묘, 전실묘, 석실묘라고 부른다. 전실묘는 동한東漢 시기에 급속히 보급되어 전국 각지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무덤 양식이 되었다. 그 외에 서한 시기에는 산을 파서 무덤을 조성하는 애묘崖墓도 등장했다. 그러나 단순한 흙 구조의 토동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수당隋唐 및 그 이후까지 유행했다. 이는 대부분 낮은 등급의 무덤에 사용되었다. 묘도는 수직으로 파는 방식 이외에, 비스듬히 경사지게 파는 방식과 비스듬한 계단식으로 파는 방식이 등장했다. 이상 몇 종이 모두 횡혈, 동실에 속한다. 수혈에서 횡혈로 바뀌고, 횡혈 내부에 전돌, 석재를 통해 지상의 건축물을 모방하여 축조한 묘실이 원래의 목곽을 대체했고, 이는 중국 고대 묘제의 첫 번째 대 변화였다. 횡혈의 전실묘나 석실묘 내부에 사용된 장구는 목관이었고, 일부 등급이 높은 무덤에서는 석곽도 사용했다. 고구려의 적석석광묘는 수혈에 속한다. 적석석실묘가 수혈과 동실에 속하는 것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 석재를 쌓아 만드는 것이니 역시 석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중원과 다른 점은 이 무덤이 적석석광묘에서 변화된 것이라, 석실이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는 점이다. 이처럼 지상에 있기 때문에 먼저 횡으로 토동을 파고 다시 벽을 쌓을 수가 없었고, 반대로 지면의 적석 기초 위에 직접 벽을 쌓으면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묘도 역시 대부분 묘실과 수평으로 나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무덤은 석실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면 여전히 횡혈과 동실에 속하기는 한다. 그렇다면 전체를 두고 석실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그중 일부분을 횡혈과 동실이라고 부르게 되면 개념상의 혼란만을 조성할 뿐이다. 다무라는 또 이 동실묘가 바로 봉석동실묘라고 보았다. 그러나 봉석동실묘라는 명칭은 필자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봉석이라는 것은 즉 적석으로 봉분을 삼았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적석이기 때문이다. 적석에

는 무단, 방단, 방형계제의 구분이 있는데, 이를 모호하게 봉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과거 정식으로 봉석동실묘라는 유형 명칭을 사용한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들어 더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방단봉석석실묘方壇封石石室墓와 방단석실묘 등으로 개칭하고 있다. 방단석실묘라는 유형 명칭은 필자가 상기 논문에서 처음 제기했고, 다무라는 이를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칭찬했는데, 이에 대해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무라는 1982년 논문에서 내부 시설을 기준으로 고구려 적석묘를 석곽적석묘, 묘도가 있는 석곽적석묘, 석실적석묘로 분류했고, 각 유형을 다시 세분했다. 그러나 각 유형과 외부 구조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사실 외부 구조는 고구려 적석묘의 유형 분석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적석석실묘를 포함한 모든 고구려 무덤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조사, 발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魏存成, 1994, 「再谈高句丽积石墓的类型和演变」, 『博物馆研究』1, 30–35.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고고학과

연 도 2007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4
『社会科学战线』4

집안集安 고구려 대형 적석묘 왕릉 연구

集安高句丽大型积石墓王陵研究

주 제 어 집안
고구려
대형 적석묘 왕릉

지원사업 길림성 사회과학기금 항목
(2006280)
길림대학 '985공정' 항목

왕릉은 보통 왕도 부근에 위치한다. 고구려는 환인桓仁, 집안集安, 평양平壤 세 곳을 왕도로 삼았었다. 따라서 평양으로 천도한 제20대 장수왕長壽王 이전 19대 왕의 왕릉은 당연히 환인과 집안에 위치해야 한다. 평양 천도 이전 고구려 왕릉의 유형은 대부분 대형 적석묘이고 내부 구조는 석광石壙에서 시작하여 석실石室로 변화되었다.

2003년에 집안에서 진행된 대규모 발굴 조사를 통해 모두 13기의 대형 적석묘가 고구려의 왕릉일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의 발굴 결과를 정리한 『집안 고구려 왕릉集安高句麗王陵』 보고서에 언급된 이 13기 왕릉은 각각 마선麻線 2378호묘, 산성하전창山城下磚廠 36호묘, 마선 626호묘, 칠성산七星山 871호묘, 우산禹山 임강총臨江塚, 우산 2110호묘, 칠성산 211호묘, 마선 서대총西大塚, 우산 992호묘, 마선 2100호묘, 마선 천추총千秋塚, 우산 태왕릉太王陵, 우산 장군총將軍塚 등이다. 이상 13기는 동시기 무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매장 시설이 가장 완벽하며 장지도 크고 넓다. 또한 개별 능으로 독립되어 모두 묘역이 있다. 그리고 배장묘 및 제단도 있고, 능침도 점차 완비되어 갔으며, 무덤 위에서 기와도 발견되었고, 일부는 왕족 계급에 부합하는 유물도 출토되었다. 이상 13기 이외에도 규모면에서 역시 왕릉으로 볼 수 있는 일부 비교적 큰 적석묘가 있다. 모두 12기로 우산 0호묘, 산성하전창 1호묘, 산성하전창 145호묘, 마선 2381호묘, 마선 707호묘, 마선 610호묘, 우산 901호묘, 우산 황니강대묘黃泥崗大墓, 우산 540호묘, 우산 2111호묘, 우산 2112호묘, 우산 3319호묘 등이다.

집안의 대형 적석묘는 발견된 문자 자료가 적어서 피장자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자 자료가 발견된 경우는 명문전이 나온 태왕릉과 천추총이 있다. 다른 문자 자료로는 호태왕비好太王碑가 있다. 집안 고구려 왕릉의 묘주 비정은 주로 호태왕비, 태왕릉, 장군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때로 천추총

표 1. 고구려왕 계보
2. 집안 대형 적석묘 왕릉 통계표
3. 집안 고구려 왕릉 후보 무덤표

도 언급되기는 했다. 각 연구자별로 이들 무덤의 묘주에 대한 추정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필자는 태왕릉이 호태왕好太王의 능묘이고 장군총이 장수왕의 능묘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태왕릉은 그 규모, 내외부의 구조, 지면 시설, 출토유물 등을 제외하고도 명문전에 새겨진 '태왕'이라는 글자, 그리고 2003년에 태왕릉 남쪽 2.9m 지점에서 발견된 동령銅鈴에 새겨진 문자, '신묘년호태왕□조령구십육辛卯年好太王□造鈴九十六' 등을 볼 때 호태왕의 능묘임에 틀림이 없다.

장군총이 장수왕의 능묘라는 점은 장군총의 조성 연대가 태왕릉보다 늦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태왕릉보다 늦게 조성된 대형 적석묘 왕릉은 장수왕의 능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장수왕 이후로는 적석묘가 더 이상 유행하지 않고, 왕릉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수왕이 사망 후 실제로 집안으로 돌아와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매장은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장군총은 '허궁虛宮'으로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천추총은 고국양왕故國壤王, 마선 2100호묘는 17대 소수림왕小獸林王, 우산 992호묘는 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 마선 서대총은 15대 미천왕美川王, 칠성산 211호묘는 13대 서천왕西川王, 마선 2100호묘는 소수림왕小獸林王으로 비정된다. 그 외에 칠성산 871호묘는 산상왕山上王, 임강총은 동천왕東川王, 우산 2110호묘는 중천왕中川王에 비정된다. 우산 0호묘는 더 원시적이고 기단도 보이지 않으며, 기와는 승문繩紋이고, 주변에 배장묘로 추정되는 다수의 적석더미가 분포하여, 『집안 고구려 왕릉』에서는 이 무덤이 집안에 현존하는 가장 이른 형태의 고구려 왕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집안의 첫 번째 고구려왕은 유리명왕琉璃明王이고, 그는 사망 후에 '두곡동원豆谷東原'에 매장되었다. 일부 학자의 고증에 따르면 두곡이 통구하通溝河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산 0호묘가 바로 유리명왕의 능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소수림왕의 능묘가 마선 2100호묘라고 비정했으므로, 대수림원大獸林原에 매장된 제3대 대무신왕大武神王의 무덤 역시 마선묘구麻線墓區에 위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선 2378호묘, 626호묘가 가능성이 가장 크고, 왕릉급 무덤 후보 명단의 2381호나 610호는 그 규모가 왕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머지 무덤 가운데, 우산 540호는 묘실이 석광에서 석실로 변해가는 단계에 해당하여 고구려가 집안을 왕도로 삼았던 기간 가운데 후반기의 어느 왕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산 2112호와 540호묘는 시기상으로 태왕릉과 유사하나 규모가 작은 편으로 왕릉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우산 3319호묘는 기타 고구려 무덤과 달리 묘실이 방형 전실로 묘주가 고구려 민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왕릉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魏存成, 2007, 「集安高句丽大型积石墓王陵研究」, 『社会科学战线』4, 165–176.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6
간행물명 『동남문화』4
『东南文化』4

중국 동북 지역의 고구려 봉토석실묘

我国东北地区的高句丽封土石室墓

주 제 어 고구려
봉토석실묘
유형 구조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특별 위탁 항목(15@ZH007)

현재 중국 환인桓仁, 집안集安 두 지역을 중심으로 다량의 고구려 유적이 남아있고, 그중 가장 많은 것이 무덤이다.

고구려 무덤은 적석묘와 봉토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시기가 이르고, 후자는 늦으며 각 유형별 무덤 숫자는 비슷하다. 두 유형의 전환 시기는 4~5세기 무렵이다.

적석묘는 외형에 따라 무단無壇, 방단方壇, 방단계제方壇階梯 3종으로 구분되고, 내부 구조는 이른 시기의 석광石壙과 후기의 석실石室 2종으로 구분된다. 고구려 정권이 집안을 수도로 삼았던 기간은 적석묘의 유행 시기이다.

봉토묘는 외부 봉분을 흙으로 쌓았고, 내부는 석실 구조로 조성하여 봉토석실묘라 부른다.

고구려 민족의 원래 무덤 유형은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이나 후에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체적인 석조 구조의 전통이 합쳐져서 외부 적석은 봉토로 바뀌고 내부 석광은 석실로 변화되어 봉토석실묘가 완성된다. 적석석실묘積石石室墓는 전후 양자가 교체되던 시기에 등장한 일종의 과도기 유형이다. 석실은 석광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이라 그 위치는 대부분 지표 위 혹은 반지하이고, 묘도는 석실과 동일한 높이에 위치한다.

적석묘와 마찬가지로 봉토석실묘 역시 등급의 차이, 규모의 차이가 있다. 등급이 높은 귀족 무덤은 봉토와 석실도 크고 석실에 사용된 석재 역시 정교하게 가공되었으며 석벽 4면과 천장에 대부분 벽화를 그렸다. 벽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시작하여 점차 불교 제재가 증가하고 마지막에는 사신도四神圖가 중심이 된다.

다량의 중소형 봉토석실묘는 봉토와 석실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석재의 가공 및 축조 기술도 떨어지고 벽화도 보이지 않으며, 일부 묘

그 림 1. 봉토석실묘 평·단면도(1)
2. 봉토석실묘 평·단면도(2)
3. 봉토석실묘 평·단면도(3)
4. 봉토석실묘 평·단면도(4)

실 벽은 백회로 틈새만 메우거나 전체를 백회로 바르기도 했다. 석실은 대부분 단실이나 일부 쌍실, 3실도 있고, 석관 혹은 석곽을 쓴 경우도 있다. 석실과 묘도의 평면은 장조형長條形, 도형刀形, 산형鏟形(철凸자형이라고도 한다) 등이고 묘도가 없는 장방형도 있다. 장조형과 장방형은 수량이 적다. 천장은 뚜껑돌로 평평하게 덮은 형태, 고임 형태(평행 고임과 유사), 모줄임 형태의 3종이다.

석관과 석곽은 모두 돌로 네 벽을 쌓고 위에 뚜껑돌을 얹었다. 목관이 있는 경우를 석곽이라 부르는데 대부분은 목관이 없어 석관이라 부른다. 장조형은 묘실과 묘도가 하나로 이어져있고 다른 무덤의 묘실보다 확실히 길지만 너비는 그다지 넓지 않으며 석관보다는 약간 넓다. 천장은 평평한 구조이다. 장조형은 대부분 소형 무덤이다. 평면이 도형인 무덤은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천장을 평평하게 덮은 것도 있고 평행 고임, 모줄임이 모두 존재한다. 산형 평면의 무덤은 보통 규모가 크고, 천장은 대부분이 평행 고임, 모줄임이다.

고구려는 4세기 초 평양平壤 지역 및 남쪽의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공략했고 427년에는 왕성을 평양으로 옮겨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와 경쟁했다. 평양 지역의 고구려 무덤 대부분은 봉토석실묘이고 백제와 신라에도 영향을 주어 봉토석실묘가 백제와 신라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7세기 이전에 중국 동북 요하遼河 동쪽과 한반도에 장기간 공존했던 세 정권이고, 신라는 당唐에 출병을 요청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다.

고구려 정권은 668년에 멸망했고 그 전후로 다수의 고구려인이 중원으로 이주했다. 그중 비교적 집중된 한 차례는 정권이 멸망한 이듬해로 총 3만 호가 내주萊州(현 산동반도山東半島 액현掖縣), 영주營州(현 요서遼西 조양朝陽) 두 지역을 지나갔다. 각각 육로와 해로를 통해 장강長江, 회하淮河 이남 및 산남山南, 경서京西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했다. 3만 호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숫자이다. 그 뒤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의 위무를 위해 677년 고구려 마지막 왕 고장高藏을 요동遼東으로 돌려보내고 중원으로 옮겨왔던 고구려인도 돌려보냈다. 그러자 고장이 요동에서 반역을 도모했고, 당나라는 다시 고장을 불러들였으며 나머지 고구려인들은 하남河南, 농우隴右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켰다. 강소성江蘇省 연운항連雲港에서는 일부 토돈석묘土墩石墓가 발견되었는데, 그 성격이 봉토석실묘와 유사하다. 당대唐代 하남도河南道의 해주海州가 현재의 연운항이다. 따라서 이곳에 봉토석실묘를 조성했던 집단이 하남도로 분산된 고구려 유민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다.

魏存成, 2016, 「我国东北地区的高句丽封土石室墓」, 『东南文化』4, 73–76.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고고학과

연 도 2016
간행물명 『사학집간』1
『史学集刊』1

호태왕好太王의 능묘 재확인 및 관련 문제

好太王的陵墓再确认及相关问题

주 제 어 호태왕
태왕릉
장군총
집안 마선고구려비

호태왕비好太王碑가 발견되면서 호태왕好太王의 능묘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그 무덤과 시기적으로 근접한 무덤을 호태왕 앞뒤 왕들과 대응시키는 묘주 비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이미 여러 연구자가 이 작업을 진행했고, 물론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나 다수 연구자가 태왕릉太王陵을 호태왕릉好太王陵으로 비정했다. 1993년 필자와 정톄화耿鐵華도 태왕릉이 호태왕의 능묘라는 견해의 논문을 발표했다.

문헌이나 비각에 등장하는 '태왕(대왕)'이라는 명칭 가운데, 그 재위 기간이 태왕릉의 추정 연대와 근접한 기록은 먼저 호태왕비의 '이구등조, 호위영락대왕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이 있는데, 이는 분명 호태왕을 지칭한다. 다음으로는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의 '고려대왕高麗大王'이 있다. 이 비석의 고려대왕은 문자명왕文咨明王이나 평원왕平原王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장수왕長壽王 이후의 왕릉은 더 이상 대형 적석묘가 아니다. 따라서 문자명왕과 평원왕의 능묘가 태왕릉일 수는 없다.

태왕릉 출토 동령銅鈴의 '태왕太王' 두 글자 앞에 '호好'를 더하면 즉 '호태왕好太王'이 된다. 그런데 '호태왕'이라는 명칭은 호태왕비와 경주 출토 호우명 그릇에만 등장하며 모두 호태왕을 지칭한다. 기타 고구려왕 중에서는 이 칭호를 사용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동령 명문 속 '호태왕' 역시 호태왕을 제외한 다른 왕일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태왕릉을 다른 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동령 명문 속 신묘년辛卯年은 호태왕 재위 기간에 포함되는 391년으로 호태왕이 즉위한 해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동령이 이 해에 주조되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391년 이후의 '신묘년'에 주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즉 '호태왕'이라는 칭호는 호태왕 사망 후에 붙여진 칭호로, 생전에는 태왕 앞에 '호'자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 림 1. 집안 고구려 왕릉 및 대형 적석묘 왕릉 분포도

표 1. 중국, 일본 연구자의 태왕릉, 장군총 묘주 비정 비교표 (1980년대 이전)

태왕릉 이외에 묘주 추정과 관련해서 가장 논의가 많은 것이 장군총이다. 이는 장군총의 무덤 유형과 출토 기와 등이 모두 태왕릉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상당수 연구자들이 장군총을 호태왕의 능묘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덤 유형과 출토 기와를 비교하면 장군총은 태왕릉보다 시기가 늦고, 태왕릉보다 늦으면서 왕릉급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적석묘 왕릉도 장군총 1기뿐이다. 하지만 기왕 태왕릉을 호태왕의 능묘로 비정했다면, 장군총은 장수왕의 능묘일 수밖에 없다.

장수왕은 평양平壤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는 평양 지역 진파리眞坡里 10호묘(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을 장수왕릉이라 보고 있다. 이 무덤은 진파리고분군의 가장 앞에 위치하고, 그 앞쪽 멀지 않은 평지에서는 탑을 중심으로 한 대형 불사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 앞의 건축과 연대 등을 고려할 때, 이 무덤을 장수왕릉으로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필자는 장수왕이 집안에 장군총을 축조하기 시작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가장 일찍 제기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호태왕릉이 태왕릉인지 장군총인지를 추정할 때는 무덤의 방향과 호태왕비를 연결시켜 고려하기도 한다. 두 무덤은 방위 면에서 모두 비석과 필연적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결론의 근거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하지만 거리 면에서는 태왕릉이 분명히 장군총보다는 가깝다.

1990~2003년의 집안 고구려 왕릉 조사보고서인『집안 고구려 왕릉集安高句麗王陵』에는 태왕릉과 장군총을 포함한 13기 왕릉의 묘주를 추정했고, 또한 11기의 후보 명단도 열거했다. 최근 일부 연구자는 고구려 왕릉 전체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2기 무덤의 묘주에 대해서는 학계 견해가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 하나는 마선하麻線河 동쪽 천추총千秋塚으로, 무덤 유형과 출토 기와가 태왕릉과 비슷하여 제18대 고국양왕故國壤王의 능묘로 비정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산禹山 992호묘로 제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의 능묘로 비정하고 있다. 이 무덤은 방단계제광실묘方壇階梯壙室墓이고 기와는 대부분 소면素面이며 와당은 운문雲紋이 다수이나 연화문蓮花紋 1점도 있다. 기와 명문 중에 '무술戊戌' 기년이 있는데, 고국원왕 재위 기간 중의 338년이 바로 무술년이다. 고국원왕은 '국강상왕國罡上王'이라고도 불리는데, 호태왕의 칭호인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첫머리와 칭호가 같다. 게다가 992호묘는 태왕릉에서 매우 가깝고 지세도 동일하다. 즉 이곳이 바로 '국강國罡'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호태왕비에는 그의 생전 칭호인 영락대왕永樂大王이 있고, 또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광개토경호태왕',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 등의 명칭도 언급되어 있다. 그중 가장 완전하거나 비교적 완전한 칭호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로 동일 칭호의 다른 표기방식을 보인다. 기존 학계에서는 이를 모두 호태왕의 시호로 보았다. 전체 칭호는 3개 칭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뒤쪽의 '호태왕'으로, 이것이 생전의 칭호인지 사후의 칭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중간의 '광개토경'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사후 칭호인 '광개토왕'과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즉 시호가 된다. 첫머리의 '국강상'은 지세를 말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왕의 칭호 명명이 대부분 능묘 매장 위치를 근거로 했고, 모두가 사망한 후에 명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시호이다. 비록 그 매장 지점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국강상' 3자만으로 능묘 위치를 이해하는 것도 말은 된다. 따라서 '국강상' 3자를 단독으로 호태왕의 시호로 보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魏存成, 2016, 「好太王的陵墓再确认及相关问题」, 『史学集刊』1, 84–89, 124.

저 자 원리云丽
장춘시 문물보호연구소
연 도 2012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집안集安 고구려 '절천정折天井'총의 시대

集安高句丽 "折天井" 墓的时代

주 제 어 고구려
절천정총
연대
만기 적석묘

절천정총折天井塚(JSM1298)은 집안集安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이고, 현재까지 발견된 몇 안 되는 고구려 적석석실벽화묘積石石室壁畫墓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무덤의 형식은 우산禹山 1041호묘(우산 41호묘)와 거의 동일하고 시대는 약 5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외부 평면은 정방형이고 3층의 방형 기단이 있으며 제1층 방형 기단은 각 변의 길이가 20m를 넘는다. 묘실은 제2층 기단 상부 중앙에 조성되었고 단실 구조이며 묘도 한쪽으로 방형의 낮은 이실이 있다.

우산 1041호묘는 절천정총과 달리 기단석 외연에 1조의 돌대가 있고, 절천정총 묘실의 네 벽은 약간 가공된 장방형 석괴로 쌓았으나 우산 1041호묘 묘실은 거대한 판석 아래 각각 장조석을 깔아서 묘벽을 받치고 있다. 또한 우산 1041호묘의 뚜껑돌 외측 처마 하부에는 가는 홈을 팠다. 이는 장군총將軍塚 배장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빗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절천정총은 석괴로 덮기만 하여 벽화가 모두 박락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산 1041호묘 묘실 저부는 지표보다 약간 낮으나 절천정총 묘실은 지표보다 2m 남짓 더 높다.

이처럼 우산 1041호묘의 구조가 절천정총보다 더 정교한 점은 등급 차이 혹은 시기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산 1041호묘의 전체 규모는 절천정총과 유사하여 동일 등급으로 보이나, 학계에서는 고구려 무덤 묘실의 위치가 점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 있어, 절천정총의 시기는 우산 1041호묘보다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산 1041호묘의 연대는 현재까지 4세기 후반, 5세기, 5세기 중엽, 5세기 후반의 네 가지 견해가 제기된 상태이다. 그중 4세기 후반과 5세기 중엽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자오쥔제趙俊傑가 무덤 형식, 벽화, 부장품을 종합하여 5세기 말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그 림 1. '절천정'총과 관련 무덤의 형식, 구조 비교
1) 절천정총 평·단면도
2) 우산 1041호묘 묘실 평·단면도
3) 우산 1041호묘 묘실 외부 처마 북쪽 일부
4) 통구 12호묘(마조총) 평·단면도
5) 산성하 332호묘 평·단면도

로 추정했다. 따라서 절천정총의 연대 하한은 당연히 이보다는 앞선다고 볼 수 있겠다.

절천정총은 네 벽 상부가 안쪽으로 기울었고, 천장은 우진각식과 차이가 없으며, 무덤 방향과 구조가 모두 통구通溝 12호묘(마조총馬槽塚) 북실과 유사하여 그 시대 역시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조총 남실의 형식은 산성하山城下 332호묘과 유사한데 산성하 332호묘는 출토된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의 특징에 근거하여 5세기 후반기 초엽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마조총 역시 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절천정총의 시대 역시 대략 5세기 후반기 초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절천정총과 우산 1041호묘는 고구려 적석묘 가운데 가장 늦게 출현한 유형이라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만보정萬寶汀 78호묘, 칠성산七星山 96호묘 역시 출토유물과 묘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봤을 때 고구려 적석묘의 가장 늦은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적석묘의 하한 연대 확정은 고구려의 적석묘가 봉토묘로 변해가는 과도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아직까지 고구려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필자는 6세기 이전에 고구려에서 신구 묘제의 교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云丽, 2012, 「集安高句丽 "折天井" 墓的时代」, 『博物馆研究』1, 68-70.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09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8집
『边疆考古研究』8辑

대동강大同江 하류 고구려 봉토석 실묘의 등급

大同江下游高句丽封土石室墓的等级

주 제 어 대동강 유역
고구려
봉토석실묘
등급

427년 고구려가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大同江 하류 지역은 점차 고구려 문화 분포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 지역에는 다량의 고구려 후기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무덤 형식도 동일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묘실의 평면은 길이가 너비보다 큰 장방형이고 묘실 벽면은 수직이며 천장은 2층 혹은 3층의 평행고임이나 모줄임 구조, 혹은 평행고임과 모줄임이 각각 2층씩인 무덤이 대다수를 점하게 된다. 봉토석실묘 가운데 절대다수는 6세기에 조성된 것이고, 일부 무덤의 상한은 5세기 중엽까지 올라간다. 무덤에 따라 현저한 규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이한 규모의 무덤은 당연히 상이한 사회 계층에 대응된다. 따라서 고구려 봉토석실묘의 등급과 묘주 신분에 대한 비교를 통해 6~7세기 고구려 사회의 등급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대동강 하류의 봉토석실묘는 무덤 규모와 구조의 차이에 따라 4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형은 봉토가 방대형方臺形과 원형이고 직경은 30m를 초과하며 높이는 8m 이상이다. 무덤 전체 길이는 9m가 넘고 묘도는 전벽 정중앙에 위치한다. 묘실은 방형 혹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면적은 10㎡ 이상이다. 묘도에는 묘도 입구를 막는 돌, 묘도 중간의 석문(판석, 석벽), 묘실 입구의 석문 등 3중의 폐쇄 시설이 있다. 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 경신리慶新里 1호묘, 토포리대총土浦里大塚, 호남리湖南里 사신총四神塚, 강서江西3묘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토포리대총과 강서소묘江西小墓를 제외한 나머지 5기에는 모두 벽화가 있다.

B형은 봉토가 방대형과 원형이고 직경은 보통 20~30m이며 대다수 무덤의 묘도는 전벽 중앙에 위치하나 일부 좌측으로 치우친 무덤 혹은 완전히 좌측 끝으로 간 도형刀形 무덤도 있다. 묘실은 방형 혹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이

그 림 1. 단실묘 A형
2. 단실묘 B형
3. 단실묘 C형
4. 단실묘 D형
5. B, C등급 무덤 분포도

표 1. 단실묘 A~D형 비교
2. A등급 무덤 비교
3. B등급 무덤 사례 비교
4. C등급 무덤 사례 비교
5. 문헌에 보이는 고구려 관위 제도의 변화
6. 고구려 관위와 무덤의 대응 관계 (아즈마 우시오 1997)
7. 고구려 관위와 무덤의 대응 관계

다. 묘실 면적은 7㎡ 이상이고 일부는 10㎡를 초과하기도 한다. 묘도 내부 폐쇄시설은 2중도 있고 3중도 있다. 이 유형에는 토포리고분군, 호남리고분군, 진파리眞坡里고분군 및 설매동雪梅洞고분군, 대보면大寶面고분군의 대부분 무덤 및 기타 고분군 중의 일부 대형 무덤이 속하며, 21기의 벽화묘도 이 유형에 속한다.

C형은 봉토 직경이 10~20m이고 묘도는 대부분 전벽 중앙에 위치하나 좌측으로 치우친 무덤과 완전히 좌측 끝으로 간 무덤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무덤의 전체 길이는 4m 이상이고 묘실의 면적은 5㎡ 이상이며 일부 7㎡ 이상인 무덤도 있다. 묘도 내에는 보통 석재 문짝이나 석문 하나를 설치했고 일부 무덤은 2중의 폐쇄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다. 우산리牛山里 1-4호묘, 토포리남총土浦里南塚, 노산동魯山洞 1호묘, 평정리坪井里 벽화묘 등이 있고, 15기의 벽화묘가 이 유형에 속한다.

D형은 봉토 직경이 10m 이하이고 묘도는 대부분 전벽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소량의 무덤만 전벽 중앙에 위치한다. 묘실 면적은 4㎡ 이하가 다수이나 5㎡ 이상인 것도 있다. 묘도 내에는 대부분이 묘문 하나만 있고, 일부 폐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보림리普林里 대동大洞고분군과 우동牛洞고분군, 낙랑동樂浪洞고분군의 대부분 무덤이 이에 속한다. 벽화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 4형은 A에서 D까지 점차 등급이 내려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덤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산형묘鏟形墓가 도형묘刀形墓보다 많아지고, 높은 등급의 무덤일수록 벽화묘의 비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벽화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등급이 낮은 것은 아니어서, 벽화의 유무는 등급의 차이에 근거하기 보다는 묘주의 정치, 경제적 실력, 신앙 등과 더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A형과 D형 무덤은 무덤 간에 큰 등급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B형 무덤과 C형 무덤은 봉토 및 묘실의 규모에 따라 다시 2개 등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B1급에는 진파리 4호묘, 불당골[佛堂谷] 1호묘 등이 해당되고, 개마총鎧馬塚 등이 B2급에 해당된다. C1급으로는 산형묘 및 일부 규모가 큰 도형묘가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토포리남총, 호남리 2호묘 등이 있고, C2급으로는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도형묘 및 전벽 좌측에 묘도가 설치된 산형묘 일부가 포함되는데 진파리 10호묘, 평정리 벽화묘 등이 해당된다.

이상 6개 등급의 무덤 가운데 A는 고구려의 왕릉급 무덤이고 B(B1, B2)는 왕공귀족계층의 무덤, C(C1, C2)는 중소귀족계층의 무덤, D는 평민계층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B, C무덤과 6~7세기 고구려 관직의 대응관계를 구분해보면, B1급은 대대로大對盧와 태대형太大兄, B2급은 오졸烏拙, 태대사자太大使者, 의두대형衣頭大兄, C1급은 대사자大使者, 대형大兄, 욕사褥奢, 의사사意俟奢, C2급은 소사자小使者, 소형小兄, 예속翳屬, 선인先人의 무덤으로 비정할 수 있다.

제1급에서 5급까지의 관직은 고구려의 정치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당연히 B무덤으로 봐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B무덤은 주로 평양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역시 묘주는 고구려의 중앙 관리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중 연대가 상대적으로 이른 무덤은 왕릉의 배장묘가 다수를 차지하나 시기가 늦은 무덤은 왕릉 주변에 분포하지 않는데, 이는 평양 천도 후 고구려 왕릉의 능원 제도 변화 추세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C무덤은 비교적 산재된 분포 양상을 보이는데, C1급은 이미 도성에서 먼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C2급은 평양 이외의 다수 지역에 퍼져있다. 즉 C무덤의 묘주에는 고구려 중앙 관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방 관리 및 부족 수령까지 포함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평양을 고구려의 경성으로 보고, 평양 주변을 경기 지역, 그 외는 기외畿外 지역으로 본다면, B, C무덤의 분포가 보여주는 3단계 양상 역시 고구려 관직 제도의 전모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赵俊杰, 2009,「大同江下游高句丽封土石室墓的等级」,『边疆考古研究』8辑, 148–162.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0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9집
『边疆考古研究』9辑

고구려 평양平壤 시기 왕릉 고찰

高句丽平壤期王陵考略

그 림
1. 우산 M2112 및 주변 무덤 분포도
2. 청룡 형상 비교
3. 고구려 '평양 시기' 왕릉
4. 전동명왕릉과 장천 2호묘, 산성하 983호묘 형식 비교
5. 연화문 와당의 형식 변화
6. 사이전연호의 변화
7. 호남리 사신총과 강서3묘 묘실 석재 접합부 처리 방식 비교

표
1. 고구려 평양 천도 이후 왕들의 재위 기간, 이름, 시호
2. 기존 연구자들의 고구려 평양 천도 이후 왕릉 비정
3. 본문의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 왕릉 비정
4. 왕릉의 외부 형식과 부속 유구

평양平壤 지역 7기 왕릉급 무덤은 그 형식, 출토유물의 시대적 특징 등에 근거하여 연대 순서를 구분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연구는 주로 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과 강서江西3묘의 묘주 추정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기초 위에 기타 무덤의 묘주까지 추정해본다면, 장수왕長壽王이 전동명왕릉(본문의 편년은 5세기 후엽 만기에서 5세기 말), 문자명왕文咨明王이 경신리慶新里 1호묘(6세기 초 혹은 약간 늦은 시기), 안장왕安臧王이 토포리대총土浦里大塚, 안원왕安原王이 호남리湖南里 사신총四神塚(6세기 전엽 만기에서 6세기 중엽), 양원왕陽原王이 강서소묘江西小墓, 평원왕平原王이 강서중묘江西中墓(6세기 후엽 만기), 영양왕嬰陽王이 강서대묘江西大墓(7세기 초에서 7세기 전엽)에 비정된다.

전동명왕릉부터 고구려 왕릉의 외부 형식은 적석에서 봉토로 변화한다. 그러나 봉토 저부에는 여전히 2단의 석축 기단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호남리 사신총까지 이어진다. 봉토 위의 기와는 고구려 적석묘 왕릉의 기본 특징 중 하나이나,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 봉토석실묘 왕릉 중에는 경신리 1호묘에서만 봉토 아래에서 기와가 발견되었고 기타 왕릉에서는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무덤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은 바람과 비의 침식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적석묘는 봉토묘에 비해 바람과 비에 의한 묘실의 손상이 커서 무덤 위에 건축물이 필요했으나, 봉토묘로 바뀌면서 이런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봉토묘로 바뀐 초기 무덤인 전동명왕릉이나 경신리 1호묘의 경우 묘실 내부 벽화의 손상이 심한데 이는 무덤을 덮은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았던 까닭이다. 경신리 1호묘 봉토 아래에서 나온 기와 역시 원래 봉토 위의 건축물에 들어간 기와가 아니라, 봉토 위에 그냥 기와를 덮었던 것이었다. 그 뒤로 봉토 조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흙을 다져 봉토를 조성하게 되었고, 더 이상 기와를 덮

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자연히 묘실의 보호 기능이 더 뛰어나게 되어 호남리 사신총이나 강서중묘 및 강서대묘의 벽화는 더 양호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왕릉의 능원 형식에도 변화가 있는데, 위의 7기 무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그룹은 전동명왕릉, 경신리 1호묘, 토포리대총, 호남리 사신총이고 제2그룹은 강서3묘이다. 제1그룹의 능원 형식은 먼저 왕릉이 구릉이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다. 전동명왕릉은 왕릉 앞의 평지에 먼저 정릉사定陵寺가 축조되어 배장묘는 후방의 고지대에 위치하나, 나머지 3기 왕릉의 배장묘는 모두 왕릉 전방의 낮고 평평한 위치에 조성된다. 경신리 1호묘의 전방에 위치한 배장묘는 두 그룹이 좌우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고, 토포리대총의 전방 배장묘는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거리상으로 가까운 그룹과 먼 그룹이 있어 묘주와의 친소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리 사신총의 배장묘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면서 3열로 나뉘는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갈수록 점차 규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전동명왕릉 주변으로는 유구가 거의 대부분 노출되었는데, 구조는 '능陵', '사寺'를 중심으로 서쪽에 진주지眞珠池가 있다. 나머지 왕릉의 능원은 아직 발굴되지 않아 유구의 배치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제2그룹은 왕릉이 강서평원江西平原의 평탄지에 위치하고 3기 무덤이 삼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주변 2㎞ 범위 내에 다른 무덤이 없다. 아즈마 우시오東潮는 이 구역이 강서3묘의 능원 범위라고 보았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관련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능원 내부에 배장묘를 두지 않는 왕릉 구조는 그 이전 시기 왕릉의 웅장한 기백을 보여주는 배치 구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赵俊杰, 2010, 「高句丽平壤期王陵考略」, 『边疆考古研究』9辑, 139–154.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2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1집
『边疆考古研究』11辑

고구려 '염모총冉牟塚'의 일부 문제 재론

再论高句丽 "冉牟墓" 的若干问题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 (11CKG005)

염모총冉牟塚의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다수 연구자가 묘지墓誌의 내용에 근거했고 무덤의 형식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편이었는데, 벽화의 제재나 무덤의 형식에 근거해 보면 대체적으로 5세기 전반기 끝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묘지명의 해석 및 묘주에 대한 견해 역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크게 보면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사에키 아리키오佐伯有淸,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등의 묘주가 '모두루牟頭婁'라는 주장과 라오간勞干, 정톄화耿鐵華의 '염모冉牟'라는 주장이 있다. 이 가운데 묘지명의 구조와 의미 연구에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라오간과 다케다의 관점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묘지명을 다섯 부분으로 구획했다. 그러나 두 연구자의 관점은 첫 번째 표제 부분만 동일할 뿐 나머지 네 부분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 두 견해 및 기타 연구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다시 묘지명의 내용을 구획해보았다. 필자의 구분에 따르면 묘지명은 총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주는 모두루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제1부분은 1~2행으로 모두루총 묘지명의 표제, 제2부분은 3~6행으로 동명성왕東明聖王 및 고구려 건국 신화, 제3부분은 7~10행으로 모두루 선조의 사적과 관직 수여, 제4부분은 10~40행으로 모두루의 조부(혹은 증조부) 염모가 반란을 평정하고 모용선비慕容鮮卑와 교섭한 일, 제5부분은 40~44행으로 모두루 조부, 부친의 관직 수여 및 왕의 은혜를 받은 일, 제6부분은 44~63(?)행으로 모두루 본인의 사적과 관직 수여, 제7부분은 63(?)행~끝까지로 모두루의 사망에 대한 애도이다.

이상과 같이 소위 염모총은 형식면에서 5세기 전반기 끝 무렵의 무덤이고 묘지명에 근거하면 묘주는 염모가 아닌 모두루이며 염모는 모두루의 선조인

그 림 1. 염모총 편년
2. 모두루총 묘지명 표제
3. 집안 지역 일부 봉토석실묘의 연원과 계보

표 1. 라오간과 다케다 유키오의 묘지명 구조 구분
2. 본문의 모두루총 묘지명 구조 구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덤의 형태에서 드러나는 시대적 특징과 묘지명의 내용을 종합 분석해보면 모두루총은 집안集安 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봉토석실묘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 4세기 후반기 이래 고구려의 한반도 서북부에 대한 경략을 통해 현지 한족漢族 문화가 고구려 민족에게 흡수되었고, 이는 5세기 전반기 집안 지역 고구려 무덤이 적석묘에서 봉토묘로 변환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427년 장수왕長壽王의 평양平壤 천도로 인해 집안 지역의 무덤 제도 변화는 더욱 빨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무덤 제도의 교체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산禹山 41호묘(계단적석석실묘階壇積石石室墓)의 편년은 적석묘의 유행 시기를 5세기 후반기 끝 무렵까지 연장시키고 있어, 봉토석실묘라는 새로운 무덤 양식이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집안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적석묘 전통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두루총으로 대표되는 봉토석실묘는 5세기 전반기에 등장했고 5세기 중엽 이후로는 점차 주류 양식으로 성장하였으며 6세기 이후에는 이 봉토석실묘가 집안 지역의 유일한 고구려 무덤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집안 지역의 봉토석실묘가 결코 한반도 서북부 지역 한족 무덤의 영향만 받았던 것은 아니다. 6세기 이전 집안 지역 고구려 봉토석실벽화묘의 면모는 현지 적석묘의 자연적인 변화와 외지의 성숙된 봉토묘 양식의 도입이 함께 뒤섞여 탄생한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赵俊杰, 2012, 「再论高句丽 "冉牟墓" 的若干问题」, 『边疆考古研究』11辑, 218–230.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5
간행물명 『화하고고』2
『华夏考古』2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만기 적석묘 탐색–적석벽화묘 2기의 시대를 중심으로

集安地区高句丽晚期积石墓的探索—以两座积石壁画墓的时代为中心

주 제 어 집안
고구려
만기 적석묘
묘제
과도기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 (11CKG005)

이전의 연구에서 필자는 우산禹山 540호묘(적석광실묘積石壙室墓)와 우산 1041호묘(적석석실묘積石石室墓)의 시기를 5세기 전반과 5세기 후반 만기~5세기 말로 추정하고, 전자는 적석묘에서 봉토묘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시작, 후자는 만기 적석묘의 대표로 보았다. 또 이 2기 무덤 연대 사이의 간극이 고구려 신구 묘제 교체의 과도기라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장군총將軍塚을 고구려 만기 적석묘의 대표라고 보아왔지만, 여러 가지 특징에서 그 연대 하한이 5세기 중엽을 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집안 산성하山城下 1405호묘와 산성하 1408호묘를 통해 적석석실벽화묘積石石室壁畫墓의 시대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무덤을 종합하여 고구려 만기 적석묘의 실례를 더 찾아보고자 한다.

산성하 1408호묘는 기단적석석실묘基壇積石石室墓로 기단은 2층이고 중앙에 석실이 있으며 상부는 쇄석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다. 매장 주체부는 묘도, 전실, 용도甬道, 후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실은 작은 장방형이고 천장은 우진각 구조이다. 후실은 방형에 가깝고 천장은 4단의 평행고임 위에 2단의 모줄임 구조로 조성되었다. 묘실 벽면에는 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다. 보고서에서는 이 무덤을 약 5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

산성하 1405호묘는 계단적석석실묘階壇積石石室墓로 동, 북쪽으로 3층의 계단이 확인된다. 묘실은 2층 계단 평면 중앙에 위치한다. 매장 주체부는 묘도,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실은 장방형에 가깝고 네 벽은 상부로 올라가며 좁아진다. 천장은 1단의 평행고임 위에 3단의 모줄임 구조로 조성되었다. 묘실 벽에는 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다. 보고서에서는 이 무덤이 5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

산성하 1408호묘와 동일한 집안集安 지역의 편방전실扁方前室 2실 벽화묘로

그 림 1. 산성하 1405호묘와 1408호묘 평·단면도
2. 집안 지역 평방전실 2실묘의 편년과 연원
3. 산성하 1405호묘 편년

는 또 모두루총牟頭婁塚, 하해방下解放 31호묘, 장천長川 1호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실과 후실의 벽면이 점점 더 수직에 가까워지고, 천장은 우진각식이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며, 후실 천장의 고임돌 단수도 감소하고, 묘실에 사용된 석재는 대형화, 규격화의 추세를 보인다.

모두루총의 묘주 사망 시기는 장수왕長壽王 전기 즉 5세기 전반 만기이다. 하해방 31호묘는 형식이 평안남도平安南道 순천군順天郡 동암리東巖里 벽화묘와 유사한데, 후자는 5세기 후반 만기에 조성된 무덤이다. 따라서 이 무덤 역시 5세기 후반 만기 무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장천 1호묘는 벽화 특징에 근거하면 삼실총보다 더 늦은 6세기 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그 형식이 모두루총보다 늦고 하해방 31호묘보다는 빠른 산성하 1408호묘는 아마도 5세기 후반 초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하 1405호묘는 1408호묘와 달리 사용된 석재의 크기가 크고 정교하게 가공되었으며, 주실 천장이 1단의 평행고임 위에 3단의 모줄임 구조가 올라갔다. 석재의 대형화, 규격화, 그리고 천장 평행고임 단수의 감소는 당시 석재 가공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고 상술한 편방전실 2실묘의 변화 추세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산성하 1405호묘는 1408호묘보다 시기가 더 늦다고 보아야 한다.

봉토석실묘인 집안 오회분五盔墳 4호묘와 5호묘는 산성하 1405호묘와 천장 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오회분 4호묘는 천장이 1단의 평행고임 위에 2단의 모줄임 구조이고, 5호묘는 1단의 평행고임 위에 1단의 모줄임 구조이며, 제3단의 뚜껑돌은 다시 평행고임으로 2단 위에 올라갔다. 벽화는 1405호묘가 백회에 그렸는데, 오회분 4, 5호묘는 벽면에 직접 그렸다. 학계에서는 오회분 4, 5호묘가 집안 지역에서 가장 늦은 고구려 벽화묘의 대표이고 시기는 북조北朝 만기로 비정하고 있다. 필자는 두 무덤 벽화 속 사신도四神圖의 위치와 형태 변화 및 평양平壤 주변 고구려 벽화묘 사신도와의 비교를 통해 4호묘를 6세기 전반 만기~중반으로, 5호묘는 6세기 중반~후반 초기로 비정했다. 상술한 고구려 무덤 석재 가공 기술의 발전 추세 그리고 벽화 제작 방식의 차이에 근거하면 산성하 1405호묘는 오회분 4, 5호묘보다 이른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무덤이 재료나 벽화 제작 방식 혹은 천장 단수 등에서 모두 장천 1호묘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대략 6세기 전반 초기일 것으로 보인다.

산성하 1405호묘와 1408호묘의 연대 추정은 고구려 무덤이 적석묘에서 봉토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필자는 이전에 고구려 적석묘의 하한 연대를 5세기 말로 보았는데, 이 글에서는 산성하 1405호묘의 하한 연대가 6세기 전반 초기까지 늦어진다고 밝혔다. 즉 이 시기에 고구려 적석묘가 봉토묘로 넘어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본문에서 언급한 산성하 1405호묘와 1408호묘의 시기 판단을 결합하면, 집안 지역 신구 묘제의 과도기에 대한 진일보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첫째, 고구려 신구 묘제의 과도기는 5세기 전반 초기에 시작되었는데 그 지표는 계단토석혼봉광실묘階壇土石混封壙室墓 즉 우산 540호묘의 출현이다. 둘째, 모두루총牟頭婁塚은 현재 집안 일대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단이 없는 봉토석실묘로 시기는 약 5세기 전반 만기이고, 그 형식은 덕흥리德興里 벽화묘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기 주변 지역 무덤을 참고로 삼은 산물이다. 셋째, 5세기 중엽부터 우산 540호묘에서 변화되어 나온 마선구麻線溝 1호묘가 봉분은 토석이 섞인 형태에서 흙으로만 쌓는 형태로 변화했고, 내부 구조에서는 이실이 더 커져 측실로 바뀌었으며, 광실이 석실로 변화하는데, 이는 집안 지역 본토에서 기원한 기단이 없는 봉토석실묘의 효시가 된다. 넷째, 신구 묘제의 전환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봉토묘가 등장하고도 적석묘는 여전히 계속 유행하여 그 하한 연대는 6세기 전반 초기까지 내려간다. 또한 5세기 후반 초기에 기단적석석실묘基壇積石石室墓가 새롭게 파생되어 나오고, 5세기 후반 만기에는 다시 기단봉토석실묘基壇封土石室墓가 파생되어, 봉토석실묘의 2종 유형이 모두 등장하게 된다.

적석묘와 봉토묘의 과도기와 관련하여 아직도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는 적석묘인 우산 540호묘는 매장 주체부가 광실壙室로 뚜껑돌이 없으나, 동일 계보에 속하는 봉토묘 마선구 1호묘 묘실 천장은 이미 비교적 성숙된 궁륭정 구조로, 양자의 형식 사이에는 어떤 고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왕릉 이외의 조기 적석석실묘을 찾아 이 단계 매장 주체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묘실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적석광실묘의 존속 기간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전문 연구도 부족하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비록 산성하 1408호묘가 기단적석묘인 것은 분명하나 이 유형에는 오직 이 무덤 하나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기단적석묘에서 기단봉토묘로의 전환 역시 결코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된 것이 아닐 것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기단적석묘의 유행 기간을 명확히 할 수가 없다. 이는 앞으로의 더 많은 고고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赵俊杰, 2015,「集安地区高句丽晚期积石墓的探索—以两座积石壁画墓的时代为中心」,『华夏考古』2, 127–137, 152.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마젠马健
길림성 장춘시 문물보호연구소
연 도 2012
간행물명 『고고』5
『考古』5

집안集安 우산禹山 고구려 적석묘 2기의 시대 및 관련 문제

集安禹山两座高句丽时期积石墓的时代及相关问题

주 제 어 고구려
적석묘
시대
등급
묘장 제도
시유도기 생산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11CKG005)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길림대학 기본 업무비 항목(2011QG006)

우산禹山 M2112와 M0540은 집안集安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우산묘구禹山墓區에 위치한 계단적석광실묘階壇積石壙室墓이다. M2112는 1994년과 2003년에 발굴되었고 1994년도 발굴 보고서에서는 무덤에서 출토된 연화문蓮花紋 와당의 형식에 근거하여 시기를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보았다. M0540은 2003년에 발굴되었고, 조사자는 무덤의 계단階壇 및 묘실의 형태에 근거하여 천추총千秋塚보다 시기가 약간 이르며, 광실壙室에서 출토된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의 형식에 근거하여 대략 5세기 전후로 판단했다.

우산 M2112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은 문양에 따라 팔판연문八瓣蓮文(A형)과 육판연문六瓣蓮文(B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종류 와당은 형식, 크기, 토질, 색의 측면에서 모두 태왕릉太王陵 D형 및 E형 연화문 와당과 매우 유사하여 동일시기 생산품으로 판단된다. 태왕릉에서 출토된 와당은 총 7종인데 그중 A형과 E형이 가장 이른 시기의 형태이자 태왕릉 조성 시기에 가장 근접한 와당으로 보고 있다. 또한 태왕릉 묘주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광개토왕설廣開土王說,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국양왕설故國壤王說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고국양왕은 391년에 사망했고 광개토왕은 412년에 사망했다. 따라서 태왕릉의 조성 시기는 묘주가 누구이든 간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판단할 수 있고, 우산 M2112의 조성 시기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하여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판단할 수 있다.

우산 M0540은 이실에서 출토된 우산받침형[傘座] 포식泡飾과 광실壙室에서 출토된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의 형식 비교를 통해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우산받침형 포식은 그 받침이 우산 모양이라 붙여진 이름이고, 포식 상부 요엽搖葉의 수량에 따라 요엽이 3~4개인 A형, 요엽이 하나인 B형으로 구분된다. M0540에서 출토된 포식은 후자에 속한다. 우산받침형 포식의 변화는 3단

그 림 1. 우산 M2112 평면도
2. 우산 M0540 평면도
3. 우산 M2112와 태왕릉 출토 와당
4. 우산받침형 포식의 변화
5. 사이전연호의 변화(비율 불일치)

계로 구분되고, 우산 M0540 출토 포식은 2단계 말에 해당하며 형태상으로 태왕릉 출토품보다 시기가 늦다.

우산 M0540에서 출토된 사이전연호는 모두 4점이고 그중 2점이 복원되었다. 이 2점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경부의 차이에 따라 A, B형으로 구분되며 비교적 이른 시기의 특징을 보인다. 이 두 유물의 형식 변화에 근거하면 우산 M0540의 조성 시기는 대략 5세기 전반기로 판단된다.

우산 M0540은 한 변의 길이가 약 35m로 상당히 큰 규모이다. 발굴자는 이 무덤이 왕릉급 무덤이며 묘주는 고구려 제17대 소수림왕小獸林王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무덤의 조성 시기는 5세기 전반기로 태왕릉보다 늦고 장군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기이다. 그런데 적석묘 왕릉의 변화 순서를 보면 태왕릉과 장군총은 앞뒤로 이어져 있고 중간에 빠진 고리가 없어 M0540이 왕릉이라는 견해는 근거를 잃게 된다. 게다가 이 무덤은 태왕릉에서 가깝고 완전한 형태의 묘역 범위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무덤은 태왕릉에 배장된 고구려 왕족 구성원의 무덤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우산 M2112는 한 변의 길이가 19m로 우산묘구 적석묘 가운데 중간 규모에 속한다. 이 무덤은 우산묘구 남쪽 평지에 위치하고 무덤 남쪽 멀지 않은 곳에 오회분五盔墳 3, 4호묘가 있으며 동쪽으로 통구사신묘通溝四神墓, 서쪽에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M2110이 있다. 이처럼 무덤의 규모, 묘역 등이 모두 동시기 왕릉급 무덤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상부에 기와가 있고 금으로 도금한 유물도 풍성하여 묘주는 고구려 시기 고급 귀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왕릉의 매장 주체부가 완전한 석실 구조를 보이는 것은 태왕릉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고구려 무덤에 석실이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산 M0540의 매장 주체부는 여전히 광실 구조이고, 이는 늦어도 5세기 전반기까지 석실이 여전히 고구려 귀족무덤의 주류가 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무덤의 평면 형태는 이미 횡혈식석실묘의 기본 특징을 갖추어, 석광石壙에서 석실石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속한다. 이 무덤의 봉토 역시 전통 적석묘가 큰 돌덩이로 쌓았던 것과 달리, 흙과 백회白灰, 큰 돌덩이를 혼합하여 쌓았다. 즉 외부 구조에서도 적석묘에서 봉토묘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5세기 전반기는 고구려 신구新舊 무덤 제도의 전환기였음을 알 수 있다.

赵俊杰 · 马健, 2012, 「集安禹山两座高句丽时期积石墓的时代及相关问题」, 『考古』5, 83–95.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마젠马健
장춘시 문물보호연구중심

연 도 2012
간행물명 『동남문화』1
『东南文化』1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신구묘제의 과도기에 관한 초보 연구

试论集安地区高句丽新旧墓制的过渡时段

주 제 어 집안 지역
고구려
적석묘
봉토석실묘
과도기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2022CKG005)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 청년 기금 항목(11YJC80006)
길림대학 기본 업무비(우수 청년 기금) 항목(2011QG006)

웨이춘청魏存成은 적석묘 가운데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가 고구려 정권 건립 이전부터 5세기까지 유행했고, 적석석실묘積石石室墓는 3세기 말, 4세기 초에서 5세기까지 유행했으며, 봉토묘 가운데 중소형에 벽화가 없는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의 상한은 적석석실묘가 등장한 시기와 비슷하고, 그 하한은 고구려 정권 멸망 이후까지 이어지며, 중대형에 벽화가 있는 봉토석실묘는 4세기 중엽부터 7세기 초까지 유행했다고 보았다. 봉토석실묘와 적석묘의 전환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공존하는 과도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는 대략 3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인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장군총將軍塚과 그 배장묘를 가장 늦은 시기의 적석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시기는 약 5세기 전기에서 중기로 보고 있는데, 우산禹山 41호묘의 형식이 위 두 무덤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무덤의 연대 추정은 고구려 적석묘 하한 연대를 고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덤에 대한 학계의 연대 추정은 차이가 커서 4세기 후반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 5세기, 5세기 중엽, 5세기 말 등 모두 네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제1, 제4의 견해를 주장하는 연구자가 가장 많다.

우산 41호묘는 적석계단석실벽화묘積石階壇石室壁畫墓로, 내외의 구조에서 모두 고구려 적석묘 만기 형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묘실 위치는 오히려 봉토석실묘와 유사하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이 무덤의 연대가 장군총 및 그 배장묘보다 늦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산 41호묘의 벽화는 인물 풍속 위주이고, 양측 벽면 상단에는 등거리로 정면의 연꽃 6송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인물 풍속과 장식 문양이 결합된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벽화의 시대적 특징으로 보았을 때, 우산 41호묘의 연대는 5세기 후반 이전일 수는 없게 된다.

즉 우산 41호묘 편년에 근거하면 고구려 적석석실묘의 하한은 대략 5세기

그 림 1. 우산받침형 포식의 변화
2. 만보정 1369호묘와 관련 무덤 종합 비교
3. 일부 고구려 무덤의 계보와 편년

후반 만기에서 5세기 말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우선 고구려 적석묘의 하한 연대를 5세기 후반 만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봉토석실묘는 외부의 봉토와 내부의 석실로 구성된 무덤 유형으로, 봉토와 석실이 공존해야만하는 종류이다. 따라서 봉토와 석실이 각각 고구려 무덤에 등장하는 시기를 고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고구려 적석묘 왕릉 가운데 태왕릉의 매장 주체부는 일찍이 석실이 석광을 대체했고, 그 후 장군총의 발전을 거쳐 석실 형태가 점차 성숙되어 갔다. 왕릉의 형식과 구조는 당시 고구려의 가장 선진적인 무덤 조영 공예 수준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공예는 최상층에서 점차 아래로 전파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산 M540은 태왕릉에서 200m 남짓 떨어져 있는 태왕릉의 배장묘로 묘주는 고구려 귀족으로 추정된다. 이 무덤은 계단광실階壇擴室 구조인데, 이는 즉 5세기 전반까지도 석실이 여전히 고구려 귀족 무덤에서 주류를 형성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적석묘에서 봉토묘로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는 5세기 전반~5세기 말로 보아야 한다. 6세기 이후 적석묘는 사라졌고 봉토석실묘는 고구려 지역의 유일한 무덤 형식이 된다.

보통 고구려 지역 봉토석실묘 특히 외부의 봉토는 당연히 한족漢族 묘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5세기 초 고구려는 요동遼東에서 선비족鮮卑族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요양遼陽 지역 한족계 벽화묘는 서진西晉 이후 급속히 쇠락하여, 현재까지 발굴 혹은 확인된 동진東晉 만기 한족 무덤은 적은 편인데 이는 선비 문화의 강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남쪽 국경에서 고구려는 4세기 후반 백제의 공격을 격퇴한 후 이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평양平壤 및 그 주변 지역을 확고하게 장악했으며, 4세기 말에는 고구려가 관미성關彌城을 함락시켰고 실질적인 통제 구역을 한강 북안까지 확대하였다. 점차 한반도 서북부에서 안정을 찾은 고구려 세력은 자연히 현지에 이전부터 거주하던 한족 세력과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한족 문화 가운데 선진적인 요소를 흡수했다. 덕흥리德興里 벽화묘의 발견은 당시 고구려 문화와 한족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실례가 되고 있다.

덕흥리 벽화묘는 전실과 후실의 2실묘로 전실 전벽 상부의 묵서 묘지명에 '영락永樂 18년'이 있어 그 시기가 408년임을 알 수 있다. 이 무덤의 전체 구조, 벽화 주제 등은 돈황敦煌, 주천酒泉 등지의 위진魏晉 시기 벽화묘와 많은 유사성이 있고, 묘주는 중원에서 이곳으로 망명한 관료이므로 역시 한족계 무덤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영락'이라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를 사용했고, 고구려의 '국소대형國小大兄'이라는 관직도 등장하여 묘주가 이미 고구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했으며 고구려 정권의 책봉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관료체계에 흡수된 한족 관리는 고구려 정치, 경제 체계의 발전에 거대한 촉진제 역할을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5세기 초 전실묘가 낙랑樂浪, 대방帶方의 옛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석실묘가 이 지역 한족의 주류 무덤 형식이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 조직 구조 속에 중원 망명자 및 낙랑, 대방 지역 한족 유민의 광범위한 흡수는 4~5세기 고구려 왕권의 신속한 확대와 안정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민족 융합의 과정 속에서 고구려 묘제 역시 신속하게 적석묘에서 봉토석실묘로 전환될 수 있었다.

赵俊杰 · 马健, 2012, 「试论集安地区高句丽新旧墓制的过渡时段」, 『东南文化』1, 116–122.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마젠马健
장춘시 문물보호연구중심

연 도 2015
간행물명 『고고여문물』3
『考古与文物』3

고구려 태왕릉太王陵 묘주 '광개토왕廣開土王'설에 대한 고찰— 출토된 명문 동령銅鈴 재 연구

高句丽太王陵墓主 "广开土王" 说的反思— 出土铭文铜铃再研究

주 제 어 고구려
태왕릉
묘주
명문 동령
광개토왕
고국양왕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 (11CKG005)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항목 (10&ZD085)
길림대학 기본 업무비 항목 –(2011QG006)

최근에 발표된 『1990~2003년 집안 고구려 왕릉 조사 보고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査報告』에는 태왕릉太王陵에서 출토된 "신묘년호태왕□조령구십육辛卯年好太王□造鈴九十六"이라는 명문이 있는 동령銅鈴이 소개되어 크게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 가운데 판독이 어려웠던 글자가 '릉崚'자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 동령과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로 귀납되는데, 하나는 '신묘년辛卯年'이 언제인가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호태왕好太王'이 어느 왕인가, 마지막은 판독이 어려웠던 7번째 글자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신묘년은 현재 331년(고국원왕故國原王 원년)설, 391년(광개토왕廣開土王 원년)설, 451년(장수왕長壽王 39년)설의 세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적석묘 왕릉의 구조와 출토된 와당의 계보 및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호태왕'이 모두 광개토왕을 가리킨다는 점에 비추어 391년설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451년설 역시 장수왕이 부친 광개토왕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한 유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무리한 추측은 아니다.

이상의 견해는 모두 명문 내용 및 태왕릉의 묘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고, 동령銅鈴의 형식 분류에 근거한 추정은 아니었다. 현재까지 동령이 발견된 고구려 무덤으로는 산성하山城下 195호묘, 만보정萬寶汀 242호묘, 천추총千秋塚, 태왕릉, 우산禹山 0540호묘 등이 있고, 출토된 동령은 형식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된다. A형은 견부가 직선으로 평평하며 길고 둥근 고리가 있고 하부는 약간 둥글며 중간에 대칭으로 장조형 누공이 있다. 내부에는 방울추가 있다. 산성하 195호묘와 만보정 242호묘에서 이 유형의 동령이 출토되었다. B형은 상부가 좁고 하부가 넓으며, 전체적으로 종 모양에 가깝고 상단 중간에 반원형 고리가 있다. 이는 신부身部 형태에 따라 다시 3식으로 구분되는데, Ⅰ식은 상단이 타원형이고 신부는 원주형, 동령 입구는 내측으로 휘었

그 림 1. B형 청동령과 석비의 양식 변화
2. 1) 동령 및 명문 스캔 사본
(『1990~2003년 집안 고구려 왕릉 조사 보고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査報告』, 2004)
2) 동령의 고해상도 사진 및 명문 판독(장푸유)

표 1. 금석문 및 전세 문헌 속 '호'와 '태왕' 별칭이 등장하는 실례

거나 오목하다. 천추총, 태왕릉에서 출토되었다. Ⅱ식은 상단이 원형에 가깝고 신부는 원주형에 입구는 평평하다. 태왕릉에서 출토된 명문 동령이 바로 이 유형이다. Ⅲ식은 상단이 육각형이고 신부는 육각기둥형이며 입구의 여섯 변이 모두 약간 안쪽으로 오목하다. 우산 0540호묘 출토품이 이에 해당된다. A형 동령의 시기가 비교적 빠르고 B형은 상단의 형태가 타원형-원형-다변형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BⅢ식이 출토된 우산 0540호묘는 공반된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의 형식에 근거하면 대략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태왕릉 BⅡ 동령은 대략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묘년은 39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태왕릉에서는 '원태왕릉[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崚]安如山固如岳'이라는 명문전돌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호태왕비好太王碑에서는 광개토왕을 '영락태왕永樂太王'이라 불렀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연구자들은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동령까지 출토되어 이 주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런데 기존 발굴 자료와 문자 자료를 살펴보면, 태왕은 고구려왕의 존호이지 시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 분석에 따르면 '태왕'이라는 호칭이 가장 빨리 등장한 것은 고국원왕故國原王 시기이고 장수왕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문자명왕文咨明王 시기에도 등장해서 사용 시기를 4세기 중엽에서 6세기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태왕은 모두 광개토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고구려왕의 칭호는 '호태왕'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상술한 명문전만을 근거로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 태왕릉이 정말 광개토왕릉이라면 명문전에는 '원호태왕릉[릉]안여산고여악願好太王陵[崚]安如山固如岳'이라고 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령에서 판독이 어려운 7번째 글자를 '능崚'자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이를 근거로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사실 이 글자의 자형은 '능崚'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명문전의 '능崚'자와도 차이가 크며, 설령 '능崚'자라고 하더라도, '신묘년, 호태왕릉, 조령, 구십육'이라는 문장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자를 '능崚'자로 보고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이상과 같이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라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모두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동령의 명문이 태왕릉 묘주를 추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동령이 391년에 제조된 제사용품이라는 점, 고구려에는 왕이 즉위하고 바로 자신의 무덤을 조성하는 제도(수릉제壽陵制, 고구려 관련 문헌에는 사후의 부장용품을 미리 준비한다는 내용만 있고 무덤을 준비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동령은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에 부친 고국양왕故國壤

王의 무덤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제작한 것이고, 따라서 태왕릉의 묘주는 고국양왕이라는 견해가 좀 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명문전의 태왕 역시 고국양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석묘 왕릉의 마지막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장군총將軍塚은 수릉제가 없었던 고구려의 입장에서 볼 때 평양平壤 천도 이전의 마지막 왕, 즉 광개토왕의 능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평양 지역에서 발견된 정릉사定陵寺 및 '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이 대동大同에 위치한 북위北魏의 사원불사思遠佛寺 및 영고릉永固陵과 수축 연대, 배치 구조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 전동명왕릉은 장수왕의 능묘일 것으로 추정된다.

赵俊杰 · 马健, 2015, 「高句丽太王陵墓主 "广开土王" 说的反思—出土铭文铜铃再研究」, 『考古与文物』3, 86–91.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진위金愉
길림대학 중일연의의원 도서관
연 도 2014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6집
『边疆考古研究』16辑

5~6세기 한반도 서북부 지역 봉토석실묘의 단실화 과정—평양平壤 장산동長山洞 1, 2호 벽화묘를 중심으로

5~6世纪朝鲜半岛西北部地区封土石室墓的单室化进程—以平壤长山洞 1、2号壁画墓为中心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 (11CKG005)

장산동長山洞 1, 2호묘는 평양시平壤市 서성구역西城區域 장산동長山洞에 위치한다. 발굴자는 이 두 무덤의 조성 시기를 4세기 말~5세기 초로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무덤은 그 형식이 거의 동일하나 1호묘의 묘실 내부 시설이 2호묘만큼 정연하지는 못하여 두 무덤 사이에 시기상의 선후 관계가 존재한다. 무덤은 전체적으로 장방형의 단실에 평행고임 천장이고 벽화는 묘주와 사신도四神圖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구려 단실 벽화묘로는 매산리梅山里 사신총四神塚, 덕화리德花里 2호묘, 개마총鎧馬塚 등이 있는데, 장산동 1, 2호묘는 시기상으로 매산리 사신총과 덕화리 2호묘 사이, 즉 6세기 전반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5~6세기 한반도 서북부의 고구려 벽화묘에는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 먼저 2실묘가 5세기 초에 등장하고 5세기 후반 말기에 성행하다가 6세기 전반기 이후로 사라지게 되고, 단실묘는 5세기 말에 대규모로 등장하여 6세기 전반기 이후로는 이 지역의 유일한 무덤 형식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네 벽과 천장 형태는 2실묘와 단실묘에서 동일한 변화를 보이는데, 즉 네 벽은 수직화, 천장의 석재는 대형화, 그리고 평행모줄임 천장이 정형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변화는 5세기 후반 말기에서 6세기 전반기에 가속화되면서 6세기 중엽에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장산동 1, 2호묘는 비록 단실묘이지만 묘실 중앙에 모두 초석이 있어 전체 묘실을 전후의 두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당시 2실묘가 점차 쇠락하고 단실묘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환경 속에서 묘실 내에 2실묘의 공간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북한 내 고구려 2실묘는 전실의 형태 차이에 따라 편방전실扁方前室(A형), 횡장전실橫長前室(B형), 소전실小前室(C형)로 구분된다. 그러나 고구려의 전통

그 림 1. 장산동 1, 2호묘 평 · 단면도
2. 북한 내 고구려 시기 일부 2실 및 단실 벽화묘의 편년
3. 북한 내 고구려 2실묘의 단실화 과정
4. 북한 내 고구려 다실 벽화묘

표 1. 안악 3호묘와 덕흥리 벽화묘 묘지명 비교

묘제는 네 벽이 수직인 단실묘였다.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무덤은 석실묘가 등장한 이래 단실묘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석실묘로 조성된 고구려 왕릉도 모두 단실묘이다. 평양 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 고구려 왕릉인 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은 집안 지역 고구려 봉토석실묘와 명확한 전승관계를 보인다. 반면에 2실묘의 경우, 북한에서 확인된 고구려 시기 최초의 A형 2실묘는 덕흥리德興里 벽화묘이고, 요동성총遼東城塚을 B형 2실묘의 시조로 보는 관점에도 무리가 없다. 덕흥리 벽화묘의 묵서 묘지墓誌에 근거하면 묘주는 유주幽州 출신으로 고구려에 망명한 관료였다. 무덤의 형식은 위진魏晉 시기 2실묘에서 근원한 것으로 보인다. 요동성총은 무덤 형식과 벽화 내용이 모두 요양遼陽 지역 한위진漢魏晉 석실묘와 일맥상통하여, 요동군遼東郡 출신이나 후에 고구려로 옮겨간 한인漢人 관료 가족의 합장묘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 내 고구려 시기 A, B형 2실묘가 사실은 한족漢族 계통의 무덤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서북부에서 2실묘가 단실묘로 변화하는 과정은 한족과 고구려 두 민족 집단의 문화 융합 과정을 축소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시기 한인의 고구려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세기 후반 말기부터 고구려는 국내 한족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바로 이 시기부터 한반도 서북부의 2실묘가 성행에서 쇠락으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으며, 단실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고, 분포 범위 역시 초기의 평양 일대에서 전체 한반도 서북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6세기 전반 초기에 비록 장산동 1, 2호묘를 통해 단실묘 속에서 전후 2실 구조를 회복하고자 했던 한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는 있지만, 이는 다만 석양 무렵 잠시 빛나는 태양의 모습이었을 뿐, 이 시기에는 이미 평행고임, 모줄임 천장을 갖춘 전형적인 고구려 단실묘가 이미 유일한 무덤 형식으로 성장했다. 무덤 형식의 동일화 추세, 명확한 등급의 차이 등은 현지 한족 사회의 고구려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赵俊杰 · 金愉, 2014, 「5~6世纪朝鲜半岛西北部地区封土石室墓的单室化进程—以平壤长山洞1、2号壁画墓为中心」, 『边疆考古研究』16辑, 226-235.

저 자 장구이위안张桂元
길림성 박물원
사오춘화邵春华
길림성 박물원
연 도 200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고구려 태왕릉太王陵에 세워진 판석의 기능 재고

高句丽太王陵立置石板作用再探讨

태왕릉太王陵에서 청록색 판석의 흔적이 비교적 완전한 부분은 무덤 남쪽 1~2단 계단階壇 중부이다. 계단 위의 봉석封石을 정리하자 전체 판석이 노출되었는데, 2단의 계단석 위에 세워진 판석은 몇 조각으로 깨져있었고 그 면적은 좁은 편이었다. 판석 중단 서쪽의 1단 계단 상부에는 또 한 층의 판석이 가로로 놓여있다. 이 판석은 태왕릉 무덤 계단 기초 건축 위에 일정한 보강의 기능과 방수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왕릉은 건축 당시에 제1단 계단부터 제2단 계단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넓어 무덤 사방의 제1단 계단석 위에 가로로 판석을 한 층 깔아 위에서 누르도록 했다. 즉 계단석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더한 조치인 것이다. 제2단 계단은 6층으로 쌓았고 각 돌의 체적이 비교적 작아 그 위로 판석을 한 층 세웠는데 이 역시 구조의 견고성을 강화하여 무너지지 않게 처리한 조치였다. 제2단 계단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계단석의 층수도 점차 줄어드는데 특히 제5단 이상의 계단석은 2~3층에 불과하여 판석을 통한 견고성 강화가 불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청록색 판석이 주로 제1단에서 제4단 계단에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제1단 계단석 위에 가로로 놓은 청록색 판석은 견고성 강화 기능 이외에 방수 기능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덤 남쪽 제1단 계단석에 가로로 놓은 판석의 서쪽을 절개하여 확인한 결과, 그 아래로 가공하지 않은 자갈돌이 빽빽하게 쌓여있었다. 자갈돌은 침수 작용에 유용하여, 자갈돌 위에 직접 봉석을 채우면 상부의 물이 천천히 계단 내부와 계단 기초 저부에 침투될 것이기 때문에, 자갈돌 위에 판석을 한 층 깔아 물이 무덤 기초를 침식하는 것을 방지 혹은 감소시켰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태왕릉의 계단석 위에 놓인 청록색 판석이 무덤의 견고

성 및 방수 기능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구조물일 것으로 생각한다.

张桂元 · 邵春华, 2006, 「高句丽太王陵立置石板作用再探讨」, 『博物馆研究』2, 48–49.

저 자 장밍하오张明皓
동남대학 건축연구소

연 도 2007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안악安岳 3호묘의 건축 연원

论安岳三号墓的建筑渊源

주 제 어 안악 3호묘
고구려
건축 연원

지원사업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0478070)
박사기지[博士點]기금 항목
(20040286007)

안악安岳 3호묘(동수묘冬壽墓)는 1949년 봄 북한 황해남도黃海南道에서 발견되었다. 이 무덤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하나이다.

동수묘는 남북방향이고 묘도는 없으며 평면은 연실羨室, 전실, 후실, 동측실, 서측실,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실, 전실, 후실은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측실은 전실 양측에 위치하며 회랑은 곡척형曲尺形으로 후실의 동, 북 두 방향으로 이어진다. 묘실 내부에는 다수의 팔각 혹은 사각 기둥이 내부 공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기둥 상부에는 공포가 있다. 동수묘 동측실 동벽에는 차고, 고기 창고, 주방 등의 건축 형상 벽화가 있다.

동수묘의 평면 구조에 대해 북한 학자들은 고구려 통치자 가옥의 평면 구조를 모방했다고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덤의 평면 구조가 가옥과 일대일로 맞대응되기는 불가능하다. 그 보다는 중국 동북 특히 요양遼陽 일대에서 발굴된 다수의 한위漢魏 시기 무덤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수 무덤의 평면이 철凸자형 구조이고 묘실은 대부분 전실, 후실, 좌우 측실이며 일부 무덤의 묘실에는 회랑도 있다. 이들 무덤은 안악 3호묘의 평면 구조와 매우 유사하여 이 무덤과 요양 지역 한위 시기 무덤 사이의 연원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묘실 내부의 팔각, 사각 기둥이 내부를 지탱하는 '주량식柱梁式' 구조 역시 요양의 한위 시기 무덤 및 한대漢代 화상석묘畫像石墓에서도 확인된다.

동수묘에서 확인되는 천장 형식은 한대 화상석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남沂南의 한대 화상석묘 천장은 동수묘 천장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 또 두 무덤의 천장 끝부분에는 유사한 연화 문양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동수묘와 산동성山東省 한대 화상석묘 사이의 어떤 역사적 연원을 보

그 림

1. 안악 3호묘 평·단면도
(출전: 『Koguryo Tomb Murals』, p.20)
2. 안악 3호묘 차고, 육고, 주방도
(출전: 『Koguryo Tomb Murals』, p.24)
3. 미천왕릉 묘실과 주택의 구조 관계(출전: 『조선 고고학 개요』, p.195)
4. 요양 지역 분묘의 변천
(출전: 『동북아 고고 자료 역문집, 고구려, 발해 전호東北亞考古資料譯文集, 高句麗渤海專號』, p.84)
5. 안악 3호묘와 기남 화상석묘 구조 비교(출전: 『고구려 벽화』, p.7; 『기남 고화상석묘 발굴보고沂南古畫像石墓發掘報告』, p.8)
6. 동북 지역 한위 시기 무덤 회랑 비교도
   1) 동문리 한묘
   (출전: 1985, 『문물』, 6, p.25~26)
   2) 봉대자 2호묘
   (출전: 1960, 『고고』, 1, p.21)
   3) 남설매 1호묘
   (출전: 1960, 『고고』, 1, p.17)
7. 안악 3호묘 천장 조정
(출전: 『한국전통건축』, p.75)
8. 맥적산 140굴 북위 벽화 건축도
(출전: 『부희년 건축사 논문집傅熹年建築史論文集』, p.119)
9. 1) 안악 3호묘 두공 설두
   2) 하남 회양 북관 1호 한묘 출토 석천록승반 두공 설두
   (출전: 『조선의 문화 유물朝鮮的文化遺物』, p.17; 1991, 『문물』, 4, p.39)
10. 1) 돈황 제257호 북위 굴 지붕 형상
   2) 안악 3호묘 주방 지붕 형상
   (출전: 『돈황의 예술 보장敦煌的藝術寶藏』; 『Koguryo Tomb Murals』, p.24)

여주는 것이다.

벽화 속 주방의 인人자형 차수叉手는 두 지붕을 지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한대부터 남북조南北朝 시기까지 다량 응용되던 방식이다. 또 묘실 사각 기둥 상부의 두공 양식은 한대 화상석에서 보이는 양식과 유사하고 두공 하부에 외측으로 돌출된 '설두舌頭'는 구체적으로 기능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하남성河南省 회양淮陽 북관北關 1호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석천록승반石天祿承盤의 설두와 유사하다. 주방과 고기 창고의 용마루가 치켜 올라간 형태는 돈황敦煌 제257굴의 북조北朝 벽화에 보이는 치켜 올라간 용마루와 매우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안악 3호묘는 동북 지역 한위 시기 무덤의 평면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고, 양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동북 지역 한위 시기 무덤이 한반도에서 계승,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무덤 속 건축 구조와 건축 요소에서는 한위 시기 산동성과 중원 및 돈황 지역 건축 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끼친 영향도 확인된다.

안악 3호묘의 건축 특징에서 중국 동북, 산동, 중원 지역과의 역사적 연원 관계가 드러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다. 한위 시기 중국과 한반도 여러 나라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는 건축 기술과 문화가 전파되는 한 요인이었고, 이러한 교류는 사람들의 부단한 이동으로 인해 가능했다. 따라서 이민이 가져온 건축 기술과 문화는 한반도 본토의 건축 문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는 위진魏晉 시기의 혼란을 피해 이동한 이민의 이동 경로가 바로 중국 제도와 문화의 동아시아 전파 경로이고, 중국의 이민은 그 과정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안악 3호묘가 평면 구조, 건축 구조, 건축 요소 등의 측면에서 모두 중원 지역 무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무덤은 동북 지역 한묘 형식을 중심으로 삼고, 무덤의 내용면에서 중원 및 돈황 등 여러 건축 문화의 스타일과 요소를 융합한 건축물로, 중국 문화가 동쪽으로 전파된 중요한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조기 실크로드가 동쪽으로 전파되는 과정 속의 중요한 표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张明皓, 2007, 「论安岳三号墓的建筑渊源」, 『北方文物』4, 24–31.

저 자 팡치둥方起东
연 도 1985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고구려 석묘石墓의 변화

高句丽石墓的演进

고구려 고분은 크게 석재로 봉분을 쌓은 석분石墳과 황토로 봉분을 쌓은 토분土墳으로 나눌 수 있다. 석분과 토분은 외형만을 근거로 구분한 것일 뿐, 무덤 조영의 전체 재료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 중 석분은 연대도 비교적 이르고, 지속 기간도 길며 수량도 많아 고구려 고유의 매장 제도와 풍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고구려 석분은 적석묘라고 부른다. 완전히 석재만을 쌓아놓은 것으로 일부 강돌이 섞인 것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산돌을 사용했다. 묘광은 적석 상부 중앙에 위치하고 묘광 위에 소량의 봉석封石을 덮은 것도 일부 있다. 적석묘에서 발견된 화폐는 대부분 서한西漢 오수전五銖錢과 신망新莽의 화천貨泉이다. 따라서 그 연대는 고구려 건국(기원전 37) 전후로 보아야 한다. 적석묘보다 늦은 단계의 석분은 기단적석묘基壇積石墓 혹은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로, 적석묘 기초 부분에 비교적 큰 석재로 기단을 만든 것이다. 유행한 시기는 대략 2~3세기이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석묘는 계단적석묘階壇積石墓이다. 이는 방단적석묘의 기초 위에 기단을 계단 모양으로 쌓아올린 형식이다. 묘광은 좁고 간단한 구조이며, 이때부터 점차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묘실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계단적석묘는 대략 3세기 말에 등장하여 4~5세기에 유행한다.

고구려는 산과 계곡이 많고 평지가 드문 지역에 자리 잡아 식량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국력이 아직 강성해지지 못하여 다른 지역에서 식량 공급이 불가능하던 전기에는 특히 더 어려움이 있어 자연히 무덤은 경작이 불편한 산기슭의 경사지에 조성하게 되었다. 심지어 규모면에서 분명 왕실 귀족의 무덤으로 보이는 대형 적석묘 역시도 가능한 한 경작이 용이한 평지를 피하여 조성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역사 사실은 고구려 석묘 형식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산악지대는 고구려인이 석재를 가공하여 무덤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제였고, 경사지에 무덤을 조성하는 것은 고구려 석묘 변화의 주요한 계기였다.

현재까지 보존된 고구려 석묘, 특히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적석묘는 외형이 대부분 정연하지 않지만 보통은 평면이 거의 방형 혹은 장방형에 가깝다. 조성 당시에도 외형이 그렇게 정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정연하지 못한 외형은 처음 고구려인들이 무덤의 외형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설령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산기슭에 위치한 적석묘는 중력 때문에 상부의 석재가 아래로 흘러내리기 쉽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산기슭 아래쪽에 놓을 석재를 위쪽보다 더 큰 것으로 고르게 되었다.

경사지 아래쪽뿐만 아니라 나머지 3면으로 석재가 흘러내리는 현상 역시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경사가 완만한 지역의 적석묘는 석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내릴지 알 수가 없었고, 자연히 경사지 아래쪽 방향의 기초부위에 큰 석재를 놓는 것만으로는 전체 석재의 유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적석묘 사방 가장자리의 기초 부분에 모두 큰 석재를 놓기 시작했다. 외형이 나날이 정연해지는 소위 방구식적석묘方丘式積石墓는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또한 이상의 적석묘는 아직 기초부분이 정연하게 쌓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소위 말하는 기단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기단적석묘는 그 다음 단계에 등장한다. 기단이라는 것은 대형 석재를 정연하게 배열하거나 쌓아 올린 것으로 봉분 기초 부위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담장 역할을 했다. 이런 구조는 이전에 무질서하게 큰 돌을 쌓아 놓는 방식보다는 적석과 무덤 외형을 고정하는데 더 유리했다. 최초의 기단은 경사지 아래쪽에서 등장했다. 기단의 등장은 고구려인이 적석묘 봉분의 석재 유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진이었다.

기단적석묘의 기단은 처음 경사지 아래쪽 한 면에만 설치되었다가 점차 양측면까지 확장되었고, 마침내는 사방에 모두 설치되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렇게 네 면에 모두 기단이 설치된 적석묘를 방단적석묘라 부른다.

고구려 적석묘는 종류를 불문하고 상당수가 2기, 3기 혹은 더 많은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무덤은 고구려인의 종족관념 등 사회의식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물론 무덤 조영 기술의 측면에서 볼 때도 몇 기가 연결된 무덤은 위쪽에 위치한 무덤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고구려인은 석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방단적석묘 기단부위 외측에 또 다시 몇 겹으로 낮은 담장을 쌓는 새로운 구조 형식을 고안해냈다. 그렇게 조

성된 낮은 담장은 기단보다 더 낮아 계단 모양으로 조성되었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를 계단식 담장[階墻]이라 불렀다.

계단식 담장 구조의 방단적석묘는 외형이 계단적석묘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계단식 담장의 출현은 계단의 서막이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계단은 아니었다. 구조적으로 계단식 담장과 기단은 분리된 것이고 특히 경사지 아래쪽의 계단식 담장은 중력 때문에 쉽게 아래쪽으로 무너질 수 있어, 기단에 대해 작용하는 지지력은 한계가 있었다. 계단식 담장이 바깥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기단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단식 담장의 경사지 아래쪽 지면에 먼저 석재를 깔아 받쳐야 했다. 바로 이것이 계단식 담장에서 계단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먼저 경사지에 석재를 채워 평평하게 만들고 다시 그 위에 계단식 담장을 세우는 이런 구조가 등장하면서, 특히 크기가 큰 석재를 지면에 받치는 과정에서 고구려인은 계단식 담장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그 하부에 받친 석재가 자체적으로 계단식 담장의 하중을 받기 때문에, 담장 외측에만 쌓았던 석재가 쉽게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위로 층을 나누어 쌓아올린 계단은 구조적 측면에서 바로 계단식 담장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아래쪽에 석재를 받치는 그런 구조가 변화, 확대된 형태였다.

고구려 석묘는 이처럼 적석묘–방구식적석묘–기단적석묘–방단적석묘–계단적석묘의 순서로 발전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발견은 점에서 시작하여 면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한 유형의 적석묘가 그 앞 유형 적석묘보다 반드시 시기적으로 더 늦게 조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고구려인은 대형 계단적석묘를 조영할 때, 내부와 외부에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무덤 외형의 고정을 도모했다. 먼저 내부에는 석재를 한 줄씩 격자형으로 쌓은 격벽을 만든 다음에 격벽 사이의 공간에 돌을 채워 격벽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켰고, 이를 통해 봉분의 적석이 계단에 주는 압력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외측에는 계단에 비스듬히 호석을 세워 계단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계단적석묘 묘실의 크기가 확대되면서 봉분으로 올라가는 석재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자연히 계단이 받는 압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의식적으로 압력 감소를 위해 취해진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석묘 형식의 변화는 고구려인들이 산악지대라는 지리 조건에 맞추어 장기간에 걸쳐 무덤을 조영하던 과정 속에서 쌓인 경험을 종합하고 새로운 방식을 부단히 개척한 성과였다. 이는 고대 고구려인의 지혜, 역량, 성격, 기개, 그리고 창조 정신의 증거물이다.

方起东, 1985,「高句丽石墓的演进」,『博物馆研究』2, 33–36, 67.

저 자 팡치둥方起东
연 도 198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천추총千秋塚, 태왕릉太王陵 및 장군총將軍塚 묘주 추정

千秋墓、太王陵和将军坟墓主人的推定

장군총將軍塚의 피장자는 동명왕東明王, 산상왕山上王, 광개토왕廣開土王, 장수왕長壽王 등으로 보고 있고, 태왕릉太王陵의 피장자는 광개토왕, 고국양왕故國壤王, 소수림왕小獸林王 등으로 보고 있으며, 천추총千秋塚의 경우 연구가 비교적 늦어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나, 서천왕西川王, 소수림왕, 고국양왕의 무덤이라는 견해가 있다.

유형면에서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은 모두 계단적석묘階壇積石墓에 속한다. 장군총과 태왕릉이 같은 형식의 무덤이면서도 장군총의 보존 상태가 태왕릉보다 더 완전한 것은 전체 체적이 작은 이유도 있지만, 건축 기교 상의 우위 역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공예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장군총의 조성 연대는 천추총과 태왕릉보다 늦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형학의 측면에서 봐도, 고구려의 초기 석묘는 간단한 광실壙室이었고 석실石室은 그 후에 등장했다. 따라서 넓은 묘실은 석묘 가운데에서도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석묘 묘실의 변화 순서를 고려할 때 장군총의 연대는 당연히 태왕릉보다 더 늦고, 이는 기술 공예 측면에서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직접적으로 태왕릉과 장군총의 피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는 호태왕비好太王碑가 있다.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기하는 연구자들은 태왕릉과 비석 사이에 4~5기의 석분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고 있다. 왕릉 묘역 특히 능묘와 묘비 사이에는 설령 배장묘라고 해도 들어설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호태왕비와 장군총, 태왕릉 사이 관계를 고려하면서, 일부 연구자는 각각의 방향에 주목하기도 했다. 즉 비석의 방향이 태왕릉과는 배치되고, 장군총과 일치한다는 말이다. 태왕릉의 기단 네 변은 대체적으로 방위선상에 위치

하고, 묘실은 정서쪽을 향해있다. 그러나 비석은 네 변이 아니라 네 모서리가 방위선상에 위치하고 정면이 동남쪽을 향한다. 장군총의 기단 역시 비석의 방향과 동일하여 네 모서리가 방위선상에 위치하고 묘실은 서남쪽을 향한다. 이를 근거로 일부 연구자가 장군총이 광개토왕릉이고 비석은 장군총 묘실 전방에 위치한 신도비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장군총은 비석에서 약 1.3㎞ 떨어져 있어 꽤 먼 거리라 할 수 있고, 비석 역시 신도비가 아니며, 설령 신도비라고 하더라도 비석의 방향과 장군총 신도의 방향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비석의 정면은 동남향이고, 장군총 묘실은 서남향이다. 게다가 장군총 전면은 그다지 크지 않은 평지이고, 그 앞에는 상당히 길고 넓은 고랑이 있어 신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다.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412년에 사망했고, 2년 만에 태왕릉이라는 거대한 왕릉에 매장되었다. 이는 당시의 인력, 물력, 기술의 기초 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태왕릉이 광개토왕 생전에 이미 축조되기 시작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전술했던 것처럼 태왕릉의 방향은 서향이고, 천추총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는 광개토왕 이전에, 광개토왕 생전까지 포함하여, 능묘를 축조할 때는 서향으로 축조한다는 관념이 유행했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호태왕비의 방향을 선택할 때처럼 영원히 빛을 받고 해와 달과 함께한다는 관념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축물의 네 모서리를 방위선상에 위치하게 방향을 선택하여, 건축물이 영원히 해와 달의 빛을 보도록 하는 설계 관념은 당시에 막 나타난 새로운 관념인 것이다. 이 비석이 비록 광개토왕릉의 묘비이지만, 광개토왕 시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장수왕 즉위 후 2년째에 세워졌다. 이는 해와 달의 빛을 받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새로운 관념이 장수왕 즉위 초년에 나타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왕릉보다 늦게 조성된 장군총 역시 이 관념 형태와 설계 관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장군총의 방향은 장수왕 초년에 세워진 호태왕비와 동일하다. 이처럼 두 건축물이 동일한 관념을 구현하고 있으며, 연대 역시 태왕릉보다 약간 늦으므로, 필자는 장군총 역시 이 비석과 동시에 축조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의 보충 논증이 필요하다. 하나는 장수왕의 회장回葬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장군총이 문자명왕文咨明王 이후의 왕릉인지 여부이다.

집안集安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중의 거대한 능묘와 평양平壤 부근의 거대한 능묘는 고구려왕이 모두 수도 부근에 매장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왕은 대부분 즉위 초기에 능묘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장수왕 역시 즉위 이후 바로 집안에 능묘를 조성했을 것이다. 장수왕은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젊은 시절에 국내에서 즉위했고, 평양으로 천도할 당시에는 이미 왕

릉이 거의 다 축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평양에 새로 능묘를 조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국내國內로 회장回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장군총이 문자명왕 이후의 왕릉일 가능성인데, 필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회장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자명왕 이후의 고구려왕은 모두 평양에서 생활하여, 장수왕처럼 국내에 그다지 많이 얽힌 일이 없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와 능묘를 세웠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평양 부근의 강서대묘江西大墓와 같은 일부 거대한 무덤들은 이미 고구려 후기 왕릉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무덤의 변화 순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략 4세기 중엽 이후 집안 일대의 고구려 석묘는 점차 토묘로 대체되고, 5세기 초에 축조된 장군총은 고구려 석묘 건축 예술의 최고봉이자 거의 마지막 건축이다. 5세기 말에 즉위한 문자명왕 및 그 후대 왕의 능묘가 다시 석묘의 형식을 취했을 가능성은 없다.

필자는 천추총이 고국양왕의 능묘라고 생각한다. 무덤 구조의 측면에서 천추총은 태왕릉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이며, 광개토왕의 선대왕이 바로 고국양왕이다. 고국양왕의 재위 기간은 10년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그 왕릉의 축조 연대가 태왕릉과 매우 인접하게 되었다. 천추총은 형식, 출토 명문전, 와당, 그리고 자리 잡은 방향 등이 모두 태왕릉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천추총이 고국양왕릉, 태왕릉은 광개토왕릉, 장군총은 장수왕릉이라고 생각한다.

方起东, 1986, 「千秋墓、太王陵和将军坟墓主人的推定」, 『博物馆研究』2, 38–49.

저 자 팡치둥方起东
연 도 1996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고구려 고분 연구의 몇 가지 문제

高句丽墓葬研究中的几个问题

고구려 고분은 석분石墳과 토분土墳이 있다. 석분은 연대가 비교적 이른 유형으로 전체를 석재로 조성한 것이고, 토분은 연대가 비교적 늦으며 묘실은 석재로 조성하고 봉분은 흙으로 덮는다.

석분은 4식으로 구분된다. 첫째가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로 쇄석을 쌓고 상부에 간소한 석광을 만들었다. 둘째는 기단적석석광묘基壇積石石壙墓로 거대한 석재로 기단을 만든 후 그 안을 쇄석으로 채우고 상부에 간소한 석광을 만들었다. 산비탈에 위치한 것은 아래쪽에만 기단을 만들기도 했고 평지에 위치한 것은 사방에 기단을 만들었다. 셋째는 계단적석석광묘階壇積石石壙墓로 사방에 거대한 석재를 이용하여 2단 이상의 계단 모양 기단을 만들고 그 안을 쇄석으로 채우며 상부에 석광을 만들었다. 산비탈에 위치한 것은 아래쪽에만 계단 모양 기단을 만들기도 했고 평지에 위치한 것은 사방에 모두 완형의 계단 모양 기단을 만들었다. 넷째는 계단적석석실묘階壇積石石室墓로 사방에 2단 이상의 계단을 쌓고 내부에 석실을 만들며 석실 위에 쇄석을 덮는 것이다. 이 유형은 수량이 많지 않고 유행했던 기간도 길지 않은 일종의 과도기 유형이다.

토분은 2식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석단봉토석실묘石壇封土石室墓로 사방 기초부에 석단을 쌓고 석단 상부에 흙을 덮으며 그 속에 석축 묘실을 조성한 유형이다. 둘째는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로 봉분 전체가 흙이고 그 속에 석축 묘실을 조성했다.

이상 유형 이외에 집안集安에는 일부 석봉石封, 토봉土封, 토석혼봉土石混封의 작은 동실묘洞室墓도 있고, 일부 봉석封石 무덤은 봉분 주위에 계단 형식을 만든 것도 있다. 묘실 상부 네 모퉁이는 보통 모줄임 구조이나 석재 가공과 축조 공예가 상당히 조잡한 편이다. 이런 유형 무덤은 고구려 만기에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필자는 발해 시기 무덤일 것으로 추정한다.

고구려의 특정 매장 풍속과 그 변화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석분과 토분 두 유형에 주의해야 한다. 적석묘 가운데 절대다수가 석광이 있고, 모든 토분에는 석실만 있다. 석광에서는 불에 탄 인골과 쇠못, 불에 녹아 엉킨 돌덩이가 흔히 발견되는데, 이는 목곽과 시신을 함께 불태우는 화장 풍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석실에서는 시상과 관목棺木 흔적이 흔히 발견되고, 관정棺釘, 관환棺環 등도 출토되며 일부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유골도 남아있다. 이는 관목을 이용하여 시신을 안치하는 토장土葬 풍속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석광과 석실에서 반영되는 매장 풍속은 동일하지 않아, 석분과 토분은 두 가지 상이한 형식이면서도 상호 내포하고 있는 내용 역시 완전히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사망과 영혼에 관한 관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구려 고분이 석분에서 토분으로 석광에서 석실로 변화한 근본적인 이유는 매장 풍속이 화장에서 토장으로 변화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고구려 영토에는 산지가 많고 평지는 적어 경지가 매우 귀했다. 그래서 조기 석분은 경작이 곤란한 산허리나 산기슭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비탈에 돌을 쌓다보니 중력에 의해 돌이 흘러내리는 폐해가 생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 아래쪽에 좀 더 큰 돌을 받쳤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단의 원형이었고, 기단적석묘基壇積石墓는 이런 이유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봉분이 거대한 기단적석묘는 상부에 쌓인 적석도 많았고 자연히 상부 적석의 하중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하부의 기단도 높게 쌓아야 했으며 다른 조치를 통해 기단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켜야 했다. 그래서 고구려인은 기단 외측에 다시 한 줄 혹은 여러 줄로 기단을 보호하는 용도의 석벽을 쌓았다. 이와 같은 기단과 그 외면에 몇 열로 이어진 계단 모양 담장이 계단적석묘階壇積石墓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적석묘–기단적석묘–계단적석묘로 변화하는 과정은 바로 당시 고구려 역학 지식의 축적과 석조 건축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 석분은 현 혼강渾江과 압록강鴨綠江 유역을 중심으로 주로 분포하고 평양平壤 일대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분포 양상은 고구려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론 평양 역시 고구려의 판도 내에 들어간 지역이지만, 시간과 지역, 종족 차이 등의 구분 없이, 고구려에 점령되기 이전 평양 일대 무덤까지 모두 고구려 고분이라고 부르고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방식일 것이다.

또한 묘주가 어느 민족인가 하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이는 고구려 경내에 비고구려인 무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민, 혹은 같은 고구려인이라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문화 전통을 가질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이다.

고구려의 전통 묘제는 석분이고 고구려 전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집안集安 일대에 집중 분포한다. 고구려 경내의 토분과 벽화묘는 평양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토분과 벽화묘는 황하黃河 유역과 요동遼東 일대(평양의 낙랑樂浪 시기 포함)의 전통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에 대해 구역별, 종족별(혹은 문화 전통별)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양 일대 토분, 벽화묘의 등장과 발전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고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크게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고분은 보통 군집을 이루어 분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묘제를 연구할 때도 이러한 군집의 규칙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집안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에도 일부 왕릉 및 귀족 무덤인 대형 석분들이 단독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 기의 무덤이 하나로 연결된 관묘串墓이다. 토분 역시 열을 지어 조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구려 벽화묘는 일본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고구려 석분의 대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드물었다. 실제 일본 남가하南加賀 일대의 고분시대 후기 고분의 특징은 분명 고구려의 석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매장 풍속에서도 다수의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평양 일대에서는 고구려 석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반도 남부 서울 석촌동石村洞에서는 백제 시기 계단적석묘가 발견되었다. 이는 고구려 석분과 일본 석분의 중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적석묘는 한반도 중남부 및 일본 열도에 분명히 일정 정도는 영향을 주었다.

方起东, 1996, 「高句丽墓葬研究中的几个问题」, 『辽海文物学刊』2, 74–78.

02

경톄화	고구려 벽화 속의 사회경제	114-116
경톄화	고구려 벽화 속의 종교와 제사	117-118
경톄화	집안集安 오회분五盔墳 5호묘 천장 벽화의 새로운 해석	119-121
경톄화 · 리수잉	고구려 벽화 속 귀족 생활	122-123
경톄화 · 아잉	고구려 벽화 속 전쟁 제재를 통해 본 고구려 군대와 전쟁	124-126
둥펑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 속 사신도四神圖	127-128
류쉬안탕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 연구 개설	129-131
류쉬안탕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와 요동遼東, 요서遼西 한위진漢魏晉 벽화묘 비교 연구	132-134
류쉬안탕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와 요동遼東, 요서遼西 한위진漢魏晉 벽화묘 비교 연구(속편1)	135-136
류쉬안탕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와 요동遼東, 요서遼西 한위진漢魏晉 벽화묘 비교 연구(속편2)	137-138
류쉬안탕 · 류잉주	집안集安 고구려 고분 벽화의 장식 특색, 문양 변화 및 한족漢族 문화와의 관련성	139-141
리뎬푸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 첫 검토	142-144
리뎬푸	집안集安 동구洞溝 삼실총三室塚 벽화 관련 기록 보정	145-146
리뎬푸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반영되는 고구려 사회 생활 풍속 연구	147-149
리신	고구려 동수冬壽 부부상	150-151
린스샹	길림吉林 집안集安 고구려 산연화총散蓮花塚의 연대 탐구	152-152
쑤바이	북한 안악安岳에서 발견된 동수묘冬壽墓	153-154
쑨런제	고구려 벽화묘 속 연화蓮花 도안	155-156
쑨진지 · 쑨훙	3~7세기 집안集安 및 평양平壤 지역 벽화묘의 족속族屬과 시기 구분	157-160
양훙	고구려 벽화석묘	161-162
왕위안린	고구려 벽화묘의 특징 및 그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163-165

고분벽화

환인 미창구 장군묘 모형(요령성박물관 전시)
ⓒ국립문화재연구소

왕쯔린 · 치후이린 · 왕쓰보	집안集安 고구려 고분 벽화 조형예술 탐구	166-167
왕페이펑	동수묘冬壽墓 연화문蓮花紋 연구	168-169
우자창	환인桓仁 미창구米倉溝 장군묘將軍墓 벽화 첫 검토	170-171
원위청	집안集安 장천長川 1호 고구려묘 불교 벽화 연구	172-175
원위청	집안集安 장천長川 고구려 1호묘의 불교 벽화	176-178
인궈유	고구려 묘실 벽화 속 상조尙鳥 예술	179-180
인궈유	고구려 탕곡부상도湯谷扶桑圖 및 탕곡부상 관념의 전파 고찰	181-183
자오둥옌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의 시기 구분 시론	184-185
자오쥔제	벽화 속 초거軺車 도상의 변화를 통해 본 고구려 벽화묘 3기의 편년	186-188
자오쥔제	고구려 봉성리鳳城里 벽화묘 시대 추론	189-190
자오쥔제 · 량젠쥔	북한 내 고구려 벽화묘의 분포, 형식 및 벽화의 주제	191-192
자오쥔제 · 마젠	고구려 귀갑총[龜甲蓮花墓], 미인총美人塚에 대한 단상	193-194
자오쥔제 · 마젠	평양平壤 및 주변 지역 고구려 중기 벽화묘의 변화	195-196
자오쥔제 · 마젠	집안集安 우산禹山 41호 고구려 벽화묘의 시대	197-198
장비보	고구려 벽화묘 사신도상四神圖像과 중국의 천문학, 신화학神話學	199-200
정위안위안 · 신항	집안集安 고구려묘 벽화의 국제화 연구 및 보호성 개발 논의	201-201
정춘잉	고구려 벽화묘의 연구 역정, 반성과 전망	202-204
캉제	북한 덕흥리德興里 벽화묘 및 관련 문제	205-207
팡치둥	집안集安 고구려묘 벽화 속의 무악舞樂	208-209
팡치둥 · 류쉬안탕	집안集安 하해방下解放 제31호 고구려 벽화묘	210-211
훙칭위	동수묘冬壽墓의 발견과 연구에 관하여	212-213

저 자 경톄화耿铁华
연 도 1986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고구려 벽화 속의 사회경제

高句丽壁画中的社会经济

그 림 1. 마선 1호묘 남측실 창고도 (모사본)
2. 삼실총 천장 관조탁어 (모사본)
3. 무용총 묘실 북벽 수렵도 (모사본)
4. 오회분 4호묘 묘실 천장 단철도와 제륜도(모사본)

고구려는 국내성國內城으로 천도한 후 압록강鴨綠江과 혼강渾江 유역의 자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 어업, 수렵을 겸하고 수공업도 진보한 사회경제 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모습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뿐만 아니라 고분의 벽화 속에서도 확인된다.

마선麻線 1호묘 남측실 남벽에는 창고 한 채가 그려져 있다. 이 창고는 고상식高床式 건물로 지면의 습기와 벌레를 통한 곡식의 변질을 막고 있다. 현재 집안集安 일대 농가는 거의 모든 집에 이런 구조의 창고가 있다. 문헌에도 고구려는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는데 이를 부경桴京이라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부경이 바로 마선 1호묘 벽화 속의 창고일 것이다. 또한 각저총角觝塚, 무용총舞踊塚 벽화에 그려진 우마차牛馬車로 보이는 그림은 고구려가 이미 우경牛耕을 실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 사회경제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수렵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다수의 고구려 고분에서 낚시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고, 삼실총三室塚 천장 현무도玄武圖 우측에서는 황새가 물고기를 쪼는 모습의 그림도 확인되었다. 수렵과 관련된 벽화는 집안 지역의 경우 7기의 벽화묘에서 확인되었다. 무용총과 장천長川 1호묘의 수렵도가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집안 고구려 벽화 속 수렵도는 묘주의 수렵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벽화 속 고구려인은 기마 혹은 도보로 사냥을 했다. 화살로 쏘기도 하고, 잠복해 있다가 몰래 움직이기도 하며 2명이 협공하거나 다수가 포위하여 사냥하기도 한다. 또 매와 개로 사냥감을 몰기도 한다. 장천 2호묘에는 20여 명이 함께 사냥하는 모습이 있다. 사용하는 무기는 주로 활과 긴 창이다. 주요 사냥 대상은 호랑이, 곰, 멧돼지, 사슴, 노루, 표범, 담비, 토끼, 족제비, 꿩과 각종 새들이었다.

고구려 벽화 속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수공업 관련 내용은 건축, 야금, 토기, 목기, 방직 등이 있다.

삼실총 제1실 북벽에는 공성도攻城圖가 있다. 좌측에는 고성이 하나 있는데 높고 크며 구불구불 꺾여있는 석축 성벽에는 성문과 각루도 있다. 이는 현존하는 고구려 성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처럼 고구려는 평지성이든 산성이든 모두 방형 혹은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여 성벽을 쌓았고 최고 높이는 5m에 달하기도 한다. 그 외에 성문, 옹문, 성루, 치, 배수 시설 등 건축물도 모두 설계, 시공 등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가의 전문 기구가 이러한 부분을 책임졌을 것이다. 고성 건축 이외에 궁전과 일반 주택도 당시 건축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야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각종 무기인 칼, 창, 활, 갑주, 투구, 마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이다. 오회분五盔墳 4호묘와 5호묘 천장에는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그림도 있다. 특히 수레바퀴는 수레 생산의 한 부분으로 공정이 비교적 복잡하다. 이처럼 바퀴를 제작하는 벽화는 고구려 수공업에 명확한 분업이 있었고 서로 간에 협동이 매우 원활했음을 보여준다.

각저총, 무용총, 삼실총 벽화의 부부 연회도, 장천 1호묘에서 음식을 담은 그릇이 확인되는데 색상과 조형으로 볼 때 모두 토기로 보인다. 물론 고구려 벽화 속에서 토기 제작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는 벽화묘의 주인이 대부분 귀족이고 그들의 생활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으로, 토기 제작과 같은 평민들의 노동 장면은 벽화의 제재로 포함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벽화 속에 등장하는 토기의 종류, 시유도기 등을 통해 볼 때, 고구려의 토기 생산은 사회생활의 수요에 맞추어 부단히 진보하고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벽화의 모든 연회 장면에는 탁자 등 목제 가구가 등장한다. 일부 벽화에는 나무 침대, 수레, 가옥의 목조 구조 등도 표현되어 있다. 이는 목공과 목기 제조가 고구려인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른 시기의 무덤인 각저총, 무용총부터 늦은 시기의 오회분 4호묘, 5호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 대부분이 선명한 색상에 다양한 양식을 지닌다. 장천 1호묘 전실 북벽의 수렵도에 나오는 40여 명 가운데 일부는 긴 치마를, 일부는 긴 바지, 화려한 저고리를 입고 있는 등 색상과 문양이 모두 상이하여 고구려 방직업의 발달 정도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이상 벽화는 대부분 4~6세기의 작품으로, 여기서 반영되는 사회경제는 이 시기 고구려 경제생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고구려의 사회경제 발전은 불균형한 상태였다. 우선 지역 분포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있었다.

농업 생산은 몇몇 비교적 넓은 평원지대에서만 발전할 수 있었고, 기타 지역은 경지 면적이 적었다. 어업과 수렵 생산 역시 자연 환경과 조건의 제한을 받았다. 수공업 생산은 주로 도성 부근에 집중되었다. 국가의 전체 통치 범위로 보면 사회경제 발전의 중심 지역은 고구려의 도성 부근 일대였다. 다음으로는 각 산업 사이의 불균형이다. 농업에 비록 철기와 우경이 도입되었으나 경지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생산 발전의 속도는 수공업보다 낙후되었다. 수공업 생산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작이 늦었지만, 선진 기술의 도입과 풍부한 물자, 그리고 군사 방면의 수요로 인해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금은기, 금도금 제품, 무기 생산 등은 발전 속도가 더욱 더 빠르고 수준도 높았다.

耿铁华, 1986, 「高句丽壁画中的社会经济」, 『北方文物』3, 27–32.

저 자 경톄화耿铁华
집안현 박물관

연 도 1988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고구려 벽화 속의 종교와 제사

高句丽壁画中的宗教与祭祀

그 림
1. 장천 1호묘 전실 천장 동측 제2단 뚜껑돌 예불도 모사본
2. 장천 1호묘 전실 천장 제2단 뚜껑돌 북측 4존 보살과 연화화생도 모사본
3. 오회분 4호묘 벽화
4. 장천 1호묘 후실 천장 일월신과 북두칠성도
5. 사신총 천장 학을 탄 선인도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 대부분은 왕실귀족묘의 네 벽과 천장에 그려졌다. 이는 4~6세기 고구려 사회생활의 축소판이다. 이 중 종교와 제사 그림은 고구려인의 신앙, 의식 등 사상 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고구려는 한漢의 현도군玄菟郡 내에서 건립되어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여러 측면에서 모두 중원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종교 신앙 역시 중원과 동일하다. 고구려에 도교가 전래된 것은 당唐나라 초년이었고, 이 때 유교와 불교는 이미 고구려에 전해져 있었다. 이처럼 고구려인이 믿는 유, 불, 도 3교 모두 중원에서 전래된 것이었다.

집안 고구려 벽화에는 대부분 연꽃이 있다. 연꽃은 벽화의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주제의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고구려 귀족묘에 연꽃이 많은 것은 바로 묘주가 생전에 불교를 신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교에서 신봉하는 사방 사신 중 청룡, 백호, 주작도 이미 무용총舞踊塚 천장 동, 서, 남 3면에 등장했다. 이는 불교, 도교의 사상 및 영향이 사서의 기록보다는 훨씬 빨리 고구려에 전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사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국가 정치 활동의 하나였다. 고구려는 10월에 제천행사로 나라 동쪽의 큰 동굴에서 동맹제를 지냈다. 또한 국내國內에 사당 등 대형 건축물을 짓고 천제, 귀신, 영성, 사직, 조상, 산천, 동굴 등에 제사를 올렸다.

고구려 벽화 속에서는 아직까지 제사 장면이 묘사된 그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월신日月神, 별, 복희伏羲와 여와女媧, 선인仙人, 들보를 받치고 있는 역사力士 등 제사의 대상을 표현하고 신령을 숭배하는 그림은 많이 확인되었다.

고구려 벽화에서 드러나는 종교와 제사 형상은 고구려인의 의식을 이해하

는 바탕이 된다. 즉 고구려 통치계급은 유, 불, 도를 숭배했고, 동시에 하늘, 신령,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통치의 영속성을 추구했으며,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 그들의 지위가 대대로 전해지길 희망했다. 또한 종교와 제사는 노동 군중을 환상 속에 마비시켜 핍박과 수탈의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했다. 고구려 통치자들이 신령과 부처를 모시는 그림을 그린 것은 그들이 종교와 제사를 통해 군중을 속이고 마비시킬 필요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기만과 위안을 찾으려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에 유행한 종교, 제사의 대상, 내용, 방식 등은 모두 중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는 중원의 신앙과 제사가 고구려인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원과 고구려의 전쟁은 이러한 교류의 중요 경로였다. 또한 건국 시기부터 지속된 고구려의 중원 왕조에 대한 조공 등 우호적인 신복臣服 관계 역시 중원의 종교와 제사를 받아들이는 주요한 방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고구려 민족과 중원 각 민족들의 사상과 심리적 공통점은 고구려가 중원 종교와 제사를 받아들이는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고구려가 받아들인 중원의 종교와 제사 활동은 고구려의 세력 확대 및 대외 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종교, 제사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耿铁华, 1988, 「高句丽壁画中的宗教与祭祀」, 『辽海文物学刊』2, 79–86.

저 자 경톄화耿铁华
집안시 박물관

연 도 1993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집안集安 오회분五盔墳 5호묘 천장 벽화의 새로운 해석

集安五盔坟五号墓藻井壁画新解

그 림 1. 집안 오회분 5호묘 천장의 벽화 4폭 모사본

집안集安 오회분五盔墳 5호묘는 고구려 만기 벽화묘로 용도甬道 양 측면, 묘실 네 벽 및 천장에 채색 벽화가 있다. 1962년 길림성吉林省 박물관에서 이 무덤을 발굴하고 약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호묘 묘실 주벽에는 사신도四神圖가 있고, 천장 각 단의 덮개돌과 모줄임석[抹角石]에는 기악선인伎樂仙人, 성운星雲, 수목화문樹木花文 등이 있다. 제1단 모줄임석에는 전통 설화와 관련된 네 폭의 벽화도 있다.

제1폭은 동북방의 모줄임석에 있는 복희伏羲와 여와女媧이다. 복희와 여와의 전설은 가장 오래된 신화 가운데 하나로 서방의 아담, 이브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시조신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사람의 몸에 용의 꼬리를 한 일월신상日月神像'으로 설명했다. 사람 머리에 용 혹은 뱀의 몸을 한 반인반수 형상은 한漢나라 화상석畫像石, 화상전畵像磚에서 다수 확인된다. 보통 1남 1녀이고 꼬리가 서로 접해있거나, 마주보기도 하고 떨어져있기도 하다. 오회분 5호묘의 복희, 여와는 두 꼬리가 서로 떨어져있고 머리는 마주보고 있으며, 머리 위에 일월륜日月輪을 이고 있다. 보고서에서 이를 일월신으로 본 것은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일월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월신은 따로 형상이 있다.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서 출토된 화상전의 일월신은 머리는 사람에 새의 몸으로 표현되었고 복부에 둥근 원이 있다. 일신日神의 원 안에는 금조金鳥가 있고 월신月神의 원 안에는 두꺼비와 계수나무가 있다. 고구려 벽화 중에도 일월신상이 있다. 각저총角觝塚, 무용총舞踊塚, 삼실총三室塚, 장천長川 1호묘, 사신총四神冢, 오회분 4, 5호묘의 천장에는 동서방향으로 두 개의 채색된 둥근 원이 있다. 일신의 원 안에는 삼족오가 있고 월신의 원 안에는 두꺼비가 있다. 장천 1호묘 후실의 일월신은 뚜껑돌에 있는데 일신은 기타 벽화와 동일하게 삼족오지만, 월신은 둥근 원 속에 두꺼비와 옥토끼가 약을 찧는 형상이다. 양 측면

에는 각각 성신星辰이 있고, 자색으로 '북두칠청北斗七靑'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따라서 5호묘 천장 동북방 '인수사신人首蛇身'의 남녀는 인류의 시조인 복희와 여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제2폭은 동남방 모줄임석에 있는 신농씨神農氏이다. 원 보고서에서는 이를 '우수인牛首人과 비천飛天'으로 보았다. 전체 그림에는 소머리에 사람 몸을 한 사람과 그 뒤로 1명의 남자 선인仙人이 있으며 화면 양 측면에는 보리수가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우수인신牛首人身 형상은 여러 문헌에 기록된 신농씨와 부합한다. 게다가 이 벽화에서는 우측 손에 벼 이삭을 들고 있어 더욱이 농업 생산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뒤편의 선인은 불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신농씨가 '불로써 왕이 되어 염제炎帝라 불린다'는 기록과도 부합한다. 원 보고서에서 이를 비천으로 보았으나, 이는 신농씨를 따라 화전경작을 하며 곡식을 심는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로, 신선처럼 승화시킨 표현으로 보인다.

제3폭은 서남방에 있는 수레를 만드는 해중奚仲과 길광吉光 부자의 형상이다. 벽화에는 2인이 등장하는데 1인은 수레바퀴를 만들고, 다른 1인은 부속품을 가공하고 있다. 앞의 제1, 2폭 그림이 모두 신화 전설과 관련되어 있고, 이 그림의 위치, 구도, 인물, 크기 등도 앞의 두 그림과 유사하여 이 그림 역시 신화 전설의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제4폭은 서북방에 있는 천자가 순행하는 장면이다. 원 보고서에서는 이를 '두 선인'이라고만 발표했다. 이 화면에도 역시 2인이 등장한다. 앞의 1인은 용을 타고 왕관을 썼으며 뒤의 1인은 비렴飛廉을 타고 있다. 이는 선인이라기보다는 옛 천자의 순행 모습과 더 유사하다. 앞의 3폭 벽화가 모두 전설 속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 역시 전설 속의 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 네 폭의 벽화는 당시 고구려의 사회 모습을 매우 심도 깊게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는 서한西漢 말에 건국한 이래 계속해서 한漢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벽화 속의 사신 및 복희와 여와, 신농, 해중, 황제黃帝 등 전설 역시 모두 한나라의 기록과 전설에서 온 것이다. 고구려인이 무덤 내에 그린 벽화 역시 한나라 사람들의 상고시대 전설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화면 속 인물은 주로 상고시기 삼황三皇을 반영하고 있다. 양한兩漢 시기에 이런 신화는 사서에 기록되기 시작했고, 상고 사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이상 네 폭의 그림에서 신의 모습을 벗겨내면 더 큰 발견이 가능하다.

제1폭의 복희와 여와는 시조 형상의 출현이다. 이는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2폭은 인류가 농업 생산을 시작한 모습을 보여준다. 제3폭은 농업에서 파생된 수공업자의 노동을 보여준다. 제4폭은 국가 통치자의 출현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인류의 탄생, 농업 생산, 수공업의 분

업, 제왕(국가)의 탄생은 바로 인류 사회가 야만에서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오회분 5호묘 천장의 벽화는 인류 사회가 문명을 향해 발전해 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4폭의 벽화에 포함된 사회 모습과 역사적 가치는 단순한 신화의 내용을 이미 크게 초월하는 것이다.

耿铁华, 1993,「集安五盔坟五号墓藻井壁画新解」,『北方文物』3, 37–41.

저 자 경톄화耿铁华
리수잉李淑英
연 도 1987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고구려 벽화 속 귀족 생활

高句丽壁画中的贵族生活

그 림 1. 무용총 북벽 연회도 (모사본)
2. 무용총 묘실 남벽 가무도 (모사본)
3. 각저총 벽화
4. 통구 12호묘 북실 수렵도 (모사본)

4~5세기, 미천왕美川王에서 호태왕好太王 사이는 고구려가 번영하고 발전했던 시기로 영토가 확대되고 경제 교류가 빈번해졌으며 농업, 수렵, 어업, 수공업 생산도 부단히 진보하여 사회 경제는 발전했고 국내 정치도 나날이 안정되어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 왕실과 귀족들의 생활 역시 사치와 부패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귀족 생활 모습은 대부분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다. 이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부터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이후에 등장하는 벽화에는 비록 주제가 사신도四神圖 위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호화롭게 향락을 즐기는 귀족의 모습이 남아있다.

연회 모습 벽화는 각저총角觝塚 묘실 동벽, 무용총舞踊塚 묘실 동벽, JYM1041호묘 묘실 동벽, 통구通溝 12호묘 남실 동벽과 북실 동벽, 삼실총三室塚 제1실 동벽, 마선麻線 1호묘 묘실 동벽 등에 등장한다. 대개 연회도宴會圖는 묘실 동벽에 위치하는데, 각 무덤은 서향이라 동벽이 주벽이 된다. 대부분 묘주와 처첩이 함께 등장하여, 고구려 귀족의 가족 구조와 음식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묘주는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묘주 가까이에 처가 위치하는데 크기는 묘주보다 작다. 첩은 처 옆에 위치하며 역시 처보다 크기가 작다. 가장 작은 크기는 묘주 주위에 시립한 남녀 시종들이다. 이러한 구도는 고구려 귀족 계층,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등급 제도와 등급의 관념이 상당히 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무 장면으로는 4세기 고구려의 군무를 보여주는 무용총 남벽의 대형 가무도歌舞圖가 있고, 통구 12호묘 남실 서벽, 마선 1호묘 묘실 남벽, 장천長川 1호묘 전실 남벽과 북벽에도 가무도가 있다. 가무 장면을 관람하는 관객은 묘주 1인 혹은 부부만 등장하여 가무 관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고구려 귀족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씨름 장면은 무용총 천장,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좌측 상단 모서리에 작은 폭으로 등장하고, 각저총 묘실 동벽은 전체가 씨름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다. 이 3기 무덤의 묘주는 생전에 씨름 관람을 좋아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씨름은 일종의 오락이면서 동시에 체육 활동이기도 했다.

곡예도曲藝圖는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상반부에서 확인되는데 주인과 손님들이 함께 각종 가무와 곡예를 관람하는 모습으로 고구려 귀족이 한가롭고 평안하게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렵은 일종의 오락이면서도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다. 수렵도狩獵圖가 등장하는 고구려 벽화묘로는 무용총, 삼실총, 통구 12호묘, JYM1041, 왕자총王字塚, 마선 1호묘, 장천 1호묘 등이 있다. 그중 통구 12호묘에는 3폭의 수렵도가 있다.

고구려 귀족은 외출 시에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탔다. 장천 1호묘 전실 북벽에서 말을 타고 외출하는 귀족 남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각저총 묘실 북벽과 무용총 서벽에서는 수레가 확인된다. 통구 12호묘 남실 남벽, 북벽에는 뚜껑이 있는 수레에 앉은 귀족 여성의 모습도 있다.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귀족의 생활 모습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모두 한진漢晉 시기 일부 화상석畫像石, 화상전畫像磚, 벽화 조각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즉 고구려 귀족과 중원 귀족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귀족 계급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나 또한 상호 모방 혹은 영향의 요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벽화에 보이는 것이 고구려 왕실, 귀족들의 전체 생활 모습일 수는 없다. 그러나 연회, 가무, 씨름, 곡예, 수렵, 출행 등의 규모와 장면 배치 등을 보면 고구려 귀족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볼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의 진부하고 몰락한 의식과 향락을 추구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耿铁华 · 李淑英, 1987, 「高句丽壁画中的贵族生活」, 『博物馆研究』2, 60–64.

저 자 경톄화耿铁华
아잉阿英
연 도 1987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고구려 벽화 속 전쟁 제재를 통해 본 고구려 군대와 전쟁

从高句丽壁画中的战争题材，看高句丽军队与战争

그 림
1. 삼실총 제1실 북벽 공성도 부분(모사본)
2. 통구 12호묘 북실 포로 참수도(모사본)
3. 1) 마선 1호묘 묘실 북벽 기마무사(모사본)
   2) 장천 1호묘 전실 천장 서측 전투도(모사본)
   3) 삼실총 수문위사
4. 통구 12호묘 마구간 부분(모사도)

집안集安 고구려 고분에 등장하는 전쟁 벽화는 고구려 군대와 전쟁 상황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구려 군대와 전쟁이 표현된 벽화가 있는 고분은 전체 벽화묘 가운데 1/5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5~6세기 사이의 작품이다. 내용은 공성전攻城戰, 기마전, 포로 참수, 군대 장비 등이다. 삼실총三室塚 제1실 북벽에는 공성전이 있다. 인물은 모두 6명이 나오는데 성 안에 1명, 성 위에 1명, 성 밖에서 전투를 벌이는 2명의 병사, 그리고 기마전을 벌이는 장군 2명 등이다. 삼실총 제2실 서벽에는 완전 무장한 장군 1명이 있다. 이 장군의 모습은 제1실의 기마전에서 적장을 쫓는 장군의 모습과 유사하다. 삼실총은 무덤 형식, 구조, 전체 화면의 구조와 내용에 근거하면, 5세기 초기 호태왕好太王 통치 시기 고구려 군대의 공성전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성도와 연대가 비슷한 전쟁도가 통구通溝 12호묘 후실 남벽에도 등장한다. 이 벽화는 기사의 출정 모습과 포로를 참수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중앙에 기마무사 1명이 있다. 말 앞으로도 3명의 모습이 확인되나 선명하지 않다. 뒤편으로도 무사 1명이 있다.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기마무사와 동일하다. 이 무사는 무릎을 꿇고 있는 포로를 오른손에 든 칼로 참수하고 있다. 이 무사는 왼손으로 말을 끌고 있는데 전면의 기마무사가 탄 말과 달리 갑옷을 입고 있지 않다.

이외에 5세기 전반기의 고구려 벽화 가운데 전쟁과 군대 생활을 제재로 한 벽화가 더 발견되었으나 벽화면의 박락이 심하여 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마선麻線 1호묘 묘실 북벽 동단에 1명의 개마무사鎧馬武士가 있는데 무사가 타고 있는 말은 상반신만 남아있다. 나머지 부분은 박락이 심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 구도에서 개마무사의 위치 및 장비를 분석해보면, 벽화는 전체적으로 고구려 기병의 출정도이거나 혹은 개선도일 것이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하는 장천長川 1호 벽화묘에도 기사의 교전 모습이 있다. 이 벽화는 전실 천장 서측의 제2, 3단 덮개돌로 구성된 '철凸'자형 벽면에 위치한다. 양 끝은 훼손이 심하여 중간의 갑옷을 입은 무사가 역시 갑옷을 입은 말에 타고 있는 모습만 확인된다. 말은 우측 위로 질주하는 모습이고, 말의 아래로 구름이 있다. 이 말의 좌측에는 장비를 갖춘 말의 앞발 부분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벽화는 2명의 기마무사가 교전하는 모습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의 군대와 전쟁 모습이 담긴 벽화는 고구려 군사사와 전쟁사 연구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자료에 문헌기록까지 결합하면 5세기 전후 고구려 군대의 조직 및 전쟁 상황을 더욱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전쟁사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의 전쟁은 대내 전쟁과 대외 전쟁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내 전쟁은 주로 왕공귀족 사이의 권력, 재산 다툼이다. 그러나 더 빈번했던 것은 대외 전쟁이었다. 둘째, 고구려에는 보병, 기병, 수군의 3군을 통한 다양한 전투 방식을 수행했다. 비록 수군이 선상에서 벌인 전투 상황은 사서의 기록도 없고 벽화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추정이 불가능하나, 보병과 기병은 벽화에도 모두 묘사되어 있다. 삼실총 공성도를 보면, 성 밖에서 전투를 벌이는 병사는 당시의 보병일 것이고 그중 1명은 분명 당시의 고구려 병사일 것이다. 성 밖의 개활지에서는 기병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위의 고구려 벽화에는 기병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 당시 고구려 군대에서 기병이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포로에 대한 정책도 특징 중 하나다. 고구려의 대외 전쟁은 보통 성을 공격하여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약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포로가 된 병사와 백성은 기본적으로 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벽화 중 통구 12호묘 후실 남벽에서는 포로를 참수하는 제재가 확인되었다. 이 포로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환두도環頭刀와 긴 창은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런 모습에 근거하면 이 사람은 적군의 장수일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가 고구려 군대에 완강하게 저항했고, 그래서 포로가 된 후에 고구려 장수가 그를 참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그림은 고구려 군대가 전쟁에서 채택한 포로 정책을 보여주는 진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넷째, 고구려 군사 장비의 특징은 크게 전마戰馬와 무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벽화에서 보이는 전마는 모두 안장은 갖추고 있지만, 갑옷을 두른 경우와 안 두른 경우의 두 종류가 있다. 벽화에서 보이는 무기는 창, 칼 등 장병기長兵器, 환두도, 단도 등 단병기短兵器, 화살 등 원사병기遠射兵器, 방어용의 갑주, 투구, 정리釘履, 마갑馬甲 등이 있다. 최근 집안 일대 발굴에서 다량의 고구려 병기가 출토되었는데, 종류와 형태가 벽화와 대부분 비슷하다. 다섯째, 벽화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군대는 상

비군과 경비 부대, 후방의 지원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상비군은 전장에 나가 전투를 벌이는 부대로 수군, 보병, 기병을 포함한다. 벽화 속 고구려 보병은 갑옷을 입지 않고 있으며 창과 칼을 들고 있다. 기병은 긴 창과 칼을 들고 있으며 갑옷을 입고 있다. 수군의 장비는 벽화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경비 부대는 주로 왕궁 내원과 귀족 대신의 가옥을 지키는 군사로 보통은 전장에 나가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10여 명의 위사도衛士圖는 모두 머리에 투구를 썼고, 전포戰袍를 입고 있으며 손에는 길고 짧은 무기를 들고 있어, 상비군의 보병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투구와 복식은 좀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후방에는 지원 부대도 있었다. 고구려인은 기마와 활에 능했고, 평상시의 사냥이 사실은 매우 훌륭한 군사 훈련이었다. 고구려 벽화 중에는 많은 수렵도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전투 연습이며, 보병과 기병 두 부대가 실제 무기로 산림 속에서 작전을 행한 것이다. 이러한 수렵 활동은 고구려 군대 보충 병력의 군사적 소질을 높여주었으며 상비군의 전투력 제고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耿铁华 · 阿英, 1987, 「从高句丽壁画中的战争题材, 看高句丽军队与战争」, 『北方文物』3, 23–27.

저 자 둥펑董峰
집안시 박물관

연 도 2001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 속 사신도四神圖

集安高句丽壁画墓中的四神图

그 림 1. 집안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사신도(조기, 중기)
2. 집안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사신도(만기)
3. 주작도

표 1. 고구려 고분 벽화 사신도 방위 대조표

사신四神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진한秦漢 이래 고분 벽화, 화상석畫像石, 화상전畫像磚, 와당, 동경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원래 사신은 방위를 구분하고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며 천체 현상을 표현하는 그림이었다. 그래서 이를 '사상四象'이라고도 부른다. 후에는 사람이 죽은 후 승천할 수 있다는 사상이 유행하면서 사신은 사자死者를 데리고 승천하는 신령이 되었고, 그래서 '사령수四靈獸'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위진魏晉 시기 이후 사신은 상서로움과 벽사를 표현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어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처음 천체 운동의 관측에서 유래되었던 사신은, 진한 시기에 신선 사상이 성행하면서 사후에 '사상四象'이 사자를 데리고 승천하게 한다는 관념으로 변화되었고 여기에 네 동물의 형상이 결합되면서 원래의 별자리 배열 구조에서 동물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를 화상전, 화상석, 와당 등에 새기기 시작한 것이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는 동한東漢 시기 참위설讖緯說의 영향을 받아 사신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이 시기는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고 전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회가 불안하여, 생활이 안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후에 사방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악귀를 쫓아내는 신령의 개념을 사신에 투여한 것이다.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고분 중 사신도四神圖가 있는 것은 총 8기이고, 그 연대는 4세기 말부터 7세기 초까지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용총舞踊塚, 산성하山城下 983호묘, 장천長川 1호묘, 삼실총三室塚, 환문총環紋塚, 사신총四神塚, 오회분五盔墳 4호묘, 오회분 5호묘이다. 무용총의 연대가 가장 일러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초로 비정되고, 산성하 983호묘, 장천 1호묘, 삼실총, 환문총은 대략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이며 가장 늦은 것이 사신총, 오회분 4, 5호묘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기로 비정된다.

집안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사신은 별과 함께 등장한다. 이는 양자가 상호 보완하여 완성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덤 속 사신과 별의 결합은 하늘을 대표하는 것이고 천당을 상징하는 것이며, 사후에 천당, 극락세계에 올라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영혼불멸 관념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신의 위치, 크기, 모습은 각 시기별 고구려인의 사신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사신이 표현하는 의미도 동일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기와 중기 사신도는 묘실 천장에 위치하고 크기도 작아 '사령수四靈獸'의 의미만 갖고 있으며, 길상, 신령을 상징하고 묘주를 따라 승천하여 천당에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만기에 이르러 사신의 위치가 주벽으로 옮겨가고 형상에 위엄이 넘치고 강렬해지는 것은 사방을 지키고 악귀를 쫓으며 묘주가 안전하게 천당에 갈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인은 동시기 중원의 사신 사상 속 각종 특징을 흡수, 계승하고 여기에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 문화를 융합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표현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냈다.

董峰, 2001, 「集安高句丽壁画墓中的四神图」, 『博物馆研究』1, 85–90.

저 자 류쉬안탕刘萱堂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8
간행물명 『북방문물』1
『北方文物』1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 연구 개설

集安高句丽壁画墓研究概述

표
1. 초기 집안 지역을 조사한 일본 학자와 보고서
2. 중국 고고학계의 집안 고구려 벽화묘 조사 통계
3. 일부 중국학자의 집안 고구려 벽화묘 시기 구분과 연대에 관한 견해
4. 일부 중국학자의 집안 고구려 벽화묘 시기 구분과 연대에 관한 비교표

현재 집안시集安市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묘는 모두 20기이다.

집안의 고구려 벽화묘는 전후의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그 경계는 5세기 말이다. 전기 무덤은 이실이 딸린 단실, 쌍실, 삼실 등으로 구분된다. 묘실 벽면에 백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다. 벽화 내용은 묘주의 연회, 일상생활, 출행, 수렵, 가무, 씨름, 전투 등이다. 일부 무덤의 천장에는 기이한 동물, 비천飛天, 선인仙人, 일월성상日月星象, 사신四神 등도 있다. 장식 문양으로는 연화蓮花, 만초蔓草, 왕자王字, 운문雲紋 등이 있다. 후기 무덤은 이실이 없는 단실이다. 벽화는 묘실 벽면에 직접 그렸고, 신선을 주제로 한 그림이 다수이다. 사신도四神圖가 네 벽에 들어가고, 천장에는 일, 월, 신神, 기악선인伎樂仙人 등이 있다. 장식 문양으로는 인동문忍冬紋, 연판문蓮瓣紋, 화염문火焰紋, 용문龍紋 등이 있다. 두 시기 벽화에서는 한족漢族 회화의 내용 및 예술 기법을 흡수한 특징에 고구려 민족의 예술 특징까지 모두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진위푸金毓黻가 1935년에 가장 먼저 고구려 벽화묘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고 조사는 1960년대 초에 와서 시작되었다. 먼저 1962년 길림성吉林省 박물관에서 오회분五盔墳 4, 5호묘, 동구洞溝 12호묘, 마선麻線 1호묘를 조사했다. 1966년에는 길림성 문관회文管會, 길림성 박물관, 집안현集安縣 문관소文管所에서 공동으로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고, 왕자묘王字墓, 연화총蓮花塚, 만보정萬寶汀 1368호묘, 하해방下解放 31호묘 등의 벽화묘는 따로 조사를 실시했다. 70년대 초에는 장천長川 1, 2호묘를 발굴했고, 70년대 중기 이후로는 우산禹山 1041호묘, 동대파東大坡 365호 벽화묘도 발견되었다. 또한 삼실총三室塚의 재발굴도 진행되었다. 80년대에는 벽화묘에 대한 보존, 보호 작업이 진행되었고, 일부 벽화에 대한 모사도 제작도 실시되었다. 또한 장천 4호묘가 발견되었고, 1983년에는 집안 문물조사단이 절

천정총折天井塚을 다시 실측했으며, 1985년의 재조사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회벽 잔편과 벽화 흔적을 발견하여 이 무덤 역시 벽화묘임이 확인되었다. 90년대 초에도 길림성 고고연구소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60년대 초 이후 고구려 벽화묘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는 13편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고구려 벽화묘 종합 연구는 양홍楊泓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50년대 말 그는 「고구려 벽화 석묘高句麗壁畫石墓」(1958, 『문물참고자료』4)에서 벽화묘의 연원, 형식 특징, 벽화 내용, 시기 구분, 연대 등 벽화묘와 관련된 전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60~70년대에는 고구려 벽화묘 연구자가 적어 연구의 진전과 성과가 크지 않았고, 쑤바이宿白가 1974년에 편찬한 『삼국-송원 고고三國-宋元考古』(상)에서만 일부 소개가 되었다. 80년대 이후로는 연구자가 늘어나면서 다수의 연구 성과물이 발표되었다. 리위李浴는 조기에 집안 고구려 벽화묘를 조사한 학자로 『중국 미술사강中國美術史綱』에서 집안 벽화묘를 소개했다. 그 외에도 천자오푸陳兆復의 「고구려 벽화예술 첫 검토[高句麗壁畫藝術初探]」, 류융즈劉永智의 「고구려 벽화묘와 중원 문화의 관계[高句麗壁畫墓與中原文化的關係]」, 웨이춘청魏存成의 『고구려 고고高句麗考古』, 겅톄화耿鐵華의 「고구려 고분벽화 및 그 보호[高句麗古墓壁畫及其保護]」 등도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전문 분야의 연구로 팡치둥方起東은 「집안 고구려 벽화 속 무악[集安高句麗壁畫中的舞樂]」, 쑨런제孫仁傑는 「고구려 벽화묘 속 연화 도안[談高句麗壁畫墓中的蓮花圖案]」 등을 발표했고, 그리고 벽화 속의 사회경제, 종교제사, 귀족생활, 전쟁과 군대 등을 연구한 겅톄화의 다수 논문도 빠질 수 없다.

고구려 벽화묘의 시기 구분과 연대 연구는 중국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분야이다.

양홍은 고구려 벽화묘를 3기로 구분했다. 그는 무덤 형식의 변화를 '단실에 다층 고임 궁륭정→다실에 다층 고임과 모줄임→단실에 모줄임'으로 정리했고, 벽화 내용은 '생활 제재→생활 제재와 사신→순수 사신'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는 각저총角觝塚, 무용총舞踊塚을 제1기에 포함시켰다.

리뎬푸李殿福는 양홍의 시기 구분과 유사하나 일부 새로운 자료를 더 추가하여, 후에 발견된 1368호묘를 제1기로 포함시켰고, 332호, 983호, 마선 1호, 장천 1, 2호는 제2기로 포함시켰다. 그 밖에 시기 구분의 시간 폭이 양홍의 견해와는 약간 차이를 보였다.

팡치둥은 총 4기로 구분했고, 탕츠湯池는 3기로 구분했으며, 웨이춘청은 4기로 구분했는데 가장 늦은 시기를 7세기 초까지로 보았다.

자오둥옌趙東艷은 새로운 각도에서 무덤 형식과 벽화 내용의 변화를 기준으로 3기로 구분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묘실과 용도 양측에 이실 설치→이실이 반전실半前室과 쌍실, 삼실로 변화→단실'이라는 형식 변화 규칙을

제시했고, 벽화 내용은 제1기에 사신이 없음을 강조했으며, 각저총은 제1기에서 제2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유형으로 보았다. 무용총은 제2기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이 무덤 벽화 속의 사신도이다. 자오둥옌이 제시한 연대의 폭은 웨이춘청의 견해에 근접해 있다.

이상 집안 고구려 벽화묘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먼저 시기 구분에서는 연구자들이 모두 유형 비교법을 채택했다. 무덤 형식과 벽화 내용을 현지의 다른 무덤과 비교하고, 중원 지역의 무덤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해의 차이에 따라 각자의 견해가 대두되었다. 특히 중기(2기, 3기) 벽화묘의 시기 구분법과 각 시기 연대에 대한 이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로 각 보고서의 발표 시기에 차이가 컸고, 전면적으로 고구려 벽화를 소개하는 책자와 체계적인 고구려 무덤 전문 연구 논저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시기 구분 연구에 투입된 연구 역량이 부족했다. 앞으로 고구려 벽화묘 연구 조직이 성립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학술 교류가 진행되면 집안 고구려 벽화묘 시기 구분과 연대에 대한 연구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刘萱堂, 1998, 「集安高句丽壁画墓研究概述」, 『北方文物』1, 34–43.

저 자 류쉬안탕刘萱堂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3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와 요동遼東, 요서遼西 한위진漢魏晉 벽화묘 비교 연구*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

표
1. 요동, 요서, 한위진 벽화묘 형식과 벽화 내용
2. 요동, 요서 한위진 벽화묘 형식과 벽화 내용
3. 요동, 요서 한위진 벽화묘 형식과 벽화 내용
4. 요동, 요서 한위진 벽화묘 유형표
5. 요동, 요서 벽화묘 시기 구분 및 연대표

동한東漢 말기에 북방 세력이 흥기하면서 전란이 빈번한 16국 시기를 맞게 되었고, 이 시기 동북 지역 벽화묘는 주로 요서遼西 이동의 요양遼陽 지역에 집중되었다. 요동반도遼東半島의 여순旅順, 대련大連 지역과 요서 대릉하大陵河 유역의 조양朝陽 지역에도 일부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요동, 요서 지역 벽화묘는 모두 22기로 동한 말, 위진魏晉에서 16국 말기(5세기 초엽)까지 무덤이 포함되고 무덤 형식에 따라 요동반도의 전실묘磚室墓, 요양의 석실묘石室墓, 조양의 석곽묘石槨墓로 구분된다. 요양 지역 벽화는 대부분 판석의 벽면에 위치하고 주요 내용은 묘주(부부)의 식사, 출행, 수레 행렬, 말을 끄는 시종, 기마 인물, 우마차, 가무, 오락, 주방, 마구간, 방, 주택, 문리門吏, 속리屬吏, 개, 동물, 일월성신日月星辰, 기이한 동물, 신선 등이다. 조양 지역 벽화묘는 내벽에 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렸다. 칠관화漆棺畵도 등장했다. 주요 내용은 요양 지역 벽화에 없는 산림, 우경牛耕, 사신四神 등이 있다.

이 지역의 3종 벽화묘 가운데, 전실묘는 주실에 회랑이 있고 양 측면에 이실이 있으며, 천장은 궁륭정이다. 석실묘는 주로 요양 지역에 분포하고 총 16기이다. 무덤 형태에 따라 4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Ⅰ형은 회랑형으로, 묘실이 회랑, 이실, 관실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3식으로 구분되어 Ⅰ식은 회랑에 이실이 더해진 무덤, Ⅱ식은 불완전한 회랑형, Ⅲ식은 회랑은 있으나 이실이 없는 형태이다. Ⅱ형 무덤은 후실형으로, 회랑이 사라지고 후실이 Ⅰ형의 후소실後小室과 후랑後廊을 대체했다. 역시 3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Ⅰ식은 후실만 있는 경우, Ⅱ식은 좌이실이 우이실보다 큰 형태, Ⅲ식은 좌우 이실의 크기가 동일하다. Ⅲ형은 후실이 없는 형태로, 역시 3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후실이 없고 좌이실이 크다. Ⅱ식은 후실이 없고 우이실이 더 크다. Ⅲ식

* 이 논문은 필자가 1997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본 간행물에서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재하였다. 원 발표문과 내용에 큰 차이는 없고, 장절 순서만 일부 수정했다.

은 전랑前廊의 중심이 넓어지고 양쪽 이실과 전랑의 경계가 약해져 넓은 전실로 변화된 형태이고, 천장에는 다단의 고임 구조가 등장했다. Ⅳ형은 단관실單棺室 형태로, 묘실이 단관실, 묘문, 이실과 감실로 구성되어 있다. 천장에는 다단의 평행고임과 모줄임 구조가 등장했다. 셋째 유형인 석곽묘는 주로 요서 지역에 분포한다. 석재로 묘곽을 쌓았고 구조는 단실묘이며, 보통 이실은 없고 감실과 문이 있으며 내부는 목관이 있는 1인장이다. 이러한 구조는 조기 석관묘와 한대漢代 목곽묘에서 기원했다. 관실과 뚜껑 돌 내벽에 풀과 백회를 섞어 바른 후 그림을 그렸고, 목관 표면에도 그림을 그렸다.

무덤 형식과 벽화 내용에 근거하면, 이 지역 벽화묘는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전실묘와 석실묘 Ⅰ형 Ⅰ식, Ⅱ형 Ⅰ식과 Ⅱ식이 포함된다. 회랑이 있고 복수의 이실이 있는 구조이다. 이 시기는 벽화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고, 동한 시기의 특징도 보여준다. 문리와 속리가 있고 수레 행렬과 말을 끄는 시종, 가무, 오락, 주방 등이 있으며, 신선과 기이한 짐승 등도 있다. 제2기는 석실묘 Ⅰ형 Ⅱ식, Ⅲ식, Ⅱ형 Ⅱ식의 북원北園 2호묘, Ⅲ형 Ⅰ식을 포함한다. 불완전한 회랑형에서 전랑만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과도기이다. 벽화는 묘주 인물도가 사라지고 부부 인물도로 대체된다. 가무와 오락 장면은 없고, 기이한 짐승과 신선은 적어지나, 말을 끄는 시종과 수레 행렬은 남아있다. 제3기는 석실묘 Ⅱ형 Ⅲ식, Ⅲ형 Ⅱ식이 포함된다. 형식상으로 후실형과 후실이 없는 형태가 병존했고, 벽화 내용은 문리와 문졸이 사라지며, 연회 장면에서는 주로 부부가 마주보는 형태로 표현된다. 출행도에는 수레 행렬, 말을 끄는 시종이 사라지고 기마 인물과 우마차가 출행도의 중요 위치를 점한다. 제4기는 요서 지역 무덤이 주를 이루고, 석실묘 Ⅲ형 Ⅲ식, Ⅳ형 Ⅰ식, 석곽묘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이 세 유형에 차이는 있지만, 이실과 전랑이 있는 쌍관실 형태에서 이실은 있으나 전랑이 없는 단실형으로 바뀌고 다시 이실과 전랑이 없는 단실형으로 변화한다. 그 외에 이 시기 석실묘에는 천장에 모줄임 구조가 등장하고, 석곽묘에는 목관에도 그림이 등장한다. 벽화 주제 중 연회 장면에서 묘주 개인의 모습이 강조되고 부부 인물도는 배경으로 처리된다. 손님과 대좌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은 모습은 사라졌다. 출행, 주방, 주택, 일월성신은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고, 동시에 산림, 우경, 수렵, 사신 등이 등장한다.

제1기 무덤의 연대는 영성자묘營城子墓가 동한 중기보다 이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동한 중만기에서 동한 말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세기 중만기에서 3세기 초가 되겠다.

2기 무덤에는 기년 명문이 없고, 무덤 유형이 다양하다. 제2기의 연대는 한漢에서 위魏로 넘어가는 시기 즉 3세기 초에서 3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제3기의 연대는 조위曹魏가 공손씨公孫氏를 멸한 이후부터 서진西晉 시기까지, 3세기 40년대~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년에 해당한다.

제4기의 연대는 대략 동진東晉 시기 즉 4세기 초에서 5세기 초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刘萱堂, 2003,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 『博物馆研究』1, 60-68.

저 자 류쉬안탕刘萱堂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3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와 요동遼東, 요서遼西 한위진漢魏晋 벽화묘 비교 연구(속편1)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续编一）

그 림
1. 1) 집안 오회분 5호묘 문틀의 보리문 도안
2) 집안 오회분 4호묘 인동문, 연화문, 화염문 도안
3) 집안 사신총 들보의 인동문 도안
4) 대동 사마 김용 무덤 주춧돌의 인동문 도안
5) 고원 북위 칠관의 보리문, 인동문 도안
2. 1), 2) 남경 서선교 남조묘 벽화 모사본과 탁본
3) 낙양 북위 화상석관 탁본(부분)
4) 집안 오회분 4호묘 들보 속 보리수(벽화 모사)
3. 1) 낙양 북위 화상석관 속 방상씨 탁본
2) 하북 자현 동위 여여공주 무덤 벽화: 방상씨
3) 집안 오회분 5호묘 속 방상씨(벽화 모사)

표
1. 집안 고구려 벽화묘 형식과 벽화 내용
2. 집안 고구려 벽화묘 형식과 벽화 내용
3. 집안 고구려 벽화묘 형식과 벽화 내용
4. 집안 고구려 벽화묘 형식과 벽화 내용
5. 집안 고구려 벽화묘 유형표
6. 집안 고구려 벽화묘 시기 구분 및 연대표

현재 집안시集安市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묘는 23기로 20기가 동고고분군洞溝古墳群에 위치하고 나머지 3기는 집안시에서 25㎞ 떨어진 장천고분군長川古墳群에 위치한다. 23기 가운데 10기의 벽화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이는 즉 각저총角觝塚, 무용총舞踊塚, 환문총環紋塚, 삼실총三室塚, 사신총四神塚, 오회분五盔墳 4호, 5호묘, 장천長川 1호, 2호묘, 염모총冉牟塚 등이다. 귀갑총龜甲塚, 미인총美人塚, 절천정총折天井塚, 장천 4호묘, 하해방下解放 31호묘 등 5기는 벽화가 거의 박락되었고, 나머지 8기의 보존 상태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집안 고구려 벽화묘는 5세기 말엽을 경계로 전후의 2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 무덤은 단실에 이실이 딸린 형식, 쌍실, 삼실로 구분되고, 백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렸다. 주요 내용은 묘주의 연회, 일상생활, 출행, 수렵, 가무, 씨름, 전투 등이다. 일부 무덤에는 기이한 짐승, 비천飛天, 선인仙人, 일월성신日月星辰, 사신四神 등도 있고, 장식으로는 연화문蓮花紋, 만초문蔓草紋, 왕자운문王字雲紋 등이 있다. 후기 무덤은 단실에 이실이 없고, 벽면에 직접 그림을 그렸다. 신선 제재가 주를 이루고, 네 벽에 사신도를 그렸으며, 천장에는 해, 달, 용과 학을 탄 기악선인伎樂仙人 등이 있다. 문양은 인동문忍冬紋, 연화문, 화염문火焰紋, 용문龍紋 등이 있다. 벽화 기법이 뛰어나고 색채가 짙으며, 가공한 붓으로 덧칠하기도 했다. 전후 2기의 벽화 내용과 기법에서는 고대 한족漢族 회화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일부 인물의 복식과 도안 문양에서는 고구려 민족의 자체적인 특징이 농후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집안 벽화묘는 외형을 기준으로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와 봉토묘封土墓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인 방단적석석실벽화묘方壇積石石室壁畫墓로는 절천정총과 우산禹山 1041호묘가 있다. 제2유형인 봉토석실벽화묘封土石室壁畫墓는 다음의 4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형은 용도甬道 양측에 이실이 딸린 단실형이다. 이

는 다시 2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천장이 궁륭식, 우진각식 혹은 다단 고임식으로 변화하는 구조로 마선구麻線溝 1호묘와 통구通溝 12호묘가 해당된다. Ⅱ식은 다단 고임식에 모줄임이 더해지는 형태로 변화하는 구조로 산성하山城下 332호묘, 장천 2호묘, 산성하 983호묘가 있다. Ⅱ형은 반전실半前室이 더해진 단실형이다. 역시 2식으로 구분되는데, Ⅰ식은 Ⅰ형 Ⅱ식의 천장과 유사하여 다단 고임식 혹은 복두형覆斗型에 모줄임이 더해지는 형태로 변화한다. 산연화총散蓮花塚, 하해방河解放 31호묘가 있다. Ⅱ식은 주실 천장이 사각에서 팔각 다단 평행고임에 1단의 모줄임이 더해진 형태로 변화하는 구조로 궁륭식과 유사하며 각저총, 무용총이 해당된다. Ⅲ형은 쌍실형, 삼실형이다. Ⅰ식은 쌍실형으로 장천 1호묘과 염모총冉牟塚이 있다. Ⅱ식은 삼실형으로 삼실총三室塚이 있다. Ⅳ형은 단실형이다. Ⅰ식의 천장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복두식이 만보정萬寶汀 1368호묘와 환문총이고, 다단 평행고임 위에 모줄임이 있는 구조가 귀갑총이며 동분이혈로 묘실이 병렬된 장천 4호묘는 천장이 다단 고임에서 다단 모줄임으로 변화하는 구조이다. Ⅱ식은 천장이 이중의 대형 모줄임 구조이고 거석으로 뚜껑을 덮었다. 동대파東大坡 365호묘는 백회를 발랐고, 나머지 사신총, 오회분 4호, 5호묘는 직접 벽면에 그림을 그렸다.

봉토묘는 Ⅰ형 무덤의 주실+이실→Ⅱ형의 주실+반전실→Ⅲ형의 주실+전실(혹 삼실)→Ⅳ형의 단실이 시기상으로 조기에서 만기로 점차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각 무덤 천장은 궁륭식 혹은 복두식에서 다단 평행고임으로 다시 모줄임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점차 간결한 구조로 변화하는 규칙은 요동遼東, 요서遼西 및 중원의 한위진漢魏晉 시기 무덤 구조 변화와도 부합한다. 고구려 벽화묘의 주요 내용은 두 종류로, 하나는 묘주의 생전 생활과 신선 제재가 주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도안 장식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벽화 내용의 변화까지 결합하면 고구려 벽화묘의 시기는 모두 3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약 4세기 중엽에서 4세기 말, 제2기는 5세기에서 6세기 초, 제3기는 6세기 초에서 6세기 중만기로 추정된다.

刘萱堂, 2003,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续编一)」, 『博物馆研究』2, 46–58.

저 자 류쉬안탕刘萱堂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4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와 요동遼東, 요서遼西 한위진漢魏晉 벽화묘 비교 연구(속편2)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续编之二）

그 림
1. 집안 마선구1호묘 북측실 서벽 벽화 모사본(1963년 류쉬안탕 모사,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수장)
2. 1) 조양 원대자묘 백호와 주작도
   2) 집안 무용총 백호도 모사본
   3) 집안 무용총 주작도 모사본
3. 1) 조양 원대자묘 청룡도
   2) 집안 무용총 청룡도 모사본
   3) 조양 원대자묘 일륜과 삼족오
   4) 집안 무용총 일륜과 삼족오 모사본
4. 1) 조양 원대자묘 우마차와 수레를 끄는 시동 벽화 모사본
   2) 집안 무용총 우마차와 수레를 끄는 시동 벽화 모사본
5. 1) 조양 원대자묘 수렵도
   2) 집안 무용총 수렵도 모사본
6. 상 : 원대자묘의 시종이 음식을 나르는 그림과 기마도
   하 : 무용총의 시종이 음식을 나르는 그림과 주인의 기마 출행도 모사본
7. 1) 영하 고원 북위 칠관의 칠화 일부분 및 삼각화염문 도안
   2) 집안 무용총 삼각화염문(벽화 모사본)

요동遼東, 요서遼西와 집안集安 벽화묘에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과 건축 재료에는 차이가 있으나 형식이 유사하다. 둘째, 복잡함에서 간소함으로 변화한다. 셋째, 유형과 시기 구분에 연속성도 있으면서 동시에 교차되는 모습도 있다.

벽화묘의 시기 구분은 형식의 변화 순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벽화 내용과 출토유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동시기의 무덤임에도 다양한 형식이 등장할 수 있다. 유형과 시기 구분에 교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각 유형 사이의 상하 연결 관계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지역 벽화의 주제와 내용을 비교하면, 요동, 요서의 벽화묘는 '식食, 주住, 행行'이 전 시기를 걸친 중심 주제이고, 집안 벽화묘는 '인간'과 '선계'의 두 주제가 등장한다. 요동, 요서의 무덤 중 가장 많은 제재는 묘주의 연회이다. 그 다음이 주거 환경이고, 셋째는 출행도로 이 세 가지가 각 시기 벽화묘에 모두 등장한다. 그러나 집안의 벽화는 전기에는 묘주의 생전 생활 모습에서 인간 세계의 행복을 보여주었고, 후기에는 선계의 묘사를 통해 천당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안 고구려 벽화묘 제1기의 전기 단계는 주로 묘주의 생전 생활이 중심이 되나 후기 단계에는 연화蓮花, 왕자운문王字雲紋 등 도안이 묘실을 장식하고 천장은 연화 위주에 소량의 권운문卷雲紋이 등장하며, 일월성신日月星辰과 사신도四神圖는 보이지 않는다. 제2기의 중심은 사신, 역사力士, 비선飛仙, 기이한 짐승 등이고 생활 모습은 점차 줄어든다. 일부 무덤에서는 여전히 문양으로 묘실을 장식하기도 하나 1기의 연화, 왕자문王字紋은 드물다. 제3기는 완전히 신선 제재로 바뀐다. 이 단계는 중원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벽화묘의 영향이 매우 크다.

고구려 벽화묘의 형성은 한위漢魏 이래 중원 및 요동, 요서 벽화의 영향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서진西晉 말년은 북방 민족정권이 할거하던 시기로, 고구려 역시 이를 틈타 발전을 이루었고, 4세기 초엽에는 자주 요동 지역을 침입하여 한족漢族을 포로로 데려갔다. 한족 문화는 자연히 이런 과정을 통해 고구려에 전래되었고, 그래서 고구려 벽화묘도 자연히 한족 벽화묘의 영향 하에 탄생하게 되었다.

집안 고구려 벽화에는 요동, 요서 지역 벽화묘와 달리 문양 장식이 매우 풍부하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각양각색의 연화 도안이다. 연화문蓮花紋의 출현은 불교의 고구려 전래보다 약간 빠르고, 조기 연화문 양식도 불교의 전형적인 연화문과 차이를 보인다. 4세기 중기 이후 불교가 고구려에 전래되면서 고구려는 더욱 연화문을 추앙하게 되고 연화문으로만 묘실을 장식하는 기법도 등장한다. 이런 형식은 중원 벽화묘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고구려인의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고구려 벽화 속 장식 문양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흡수하는 동시에 중원의 기타 지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또한 당시 고구려와 중원 지역의 문화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刘萱堂, 2004,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续编之二)」, 『博物馆研究』3, 55–64.

저 자 류쉬안탕刘萱堂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류잉주刘迎九
길림성 박물관
연 도 2006
간행물명 『북방문물』2
『北方文物』2

집안集安 고구려 고분 벽화의 장식 특색, 문양 변화 및 한족漢族 문화와의 관련성

集安高句丽古墓壁画的装饰特色、纹样演变及与汉文化的联系

주 제 어 집안 고구려 벽화묘
장식 특색
문양 변화
한족 문화와의 관련성

무덤의 회화는 특수한 회화 예술로 형식면에서 무덤 구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각종 장식 문양과 회화 형식으로 묘주의 생전 생활과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 형식은 출행, 연회, 가무, 주방, 수렵, 사신, 금수, 신선, 불도佛道, 방상씨方相氏, 역사力士, 문지기 등의 그림이다. 이들은 전통적이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형식이며 표현 방법은 대부분 장식화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무덤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묘실과 벽면을 장식하는 도안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한위진漢魏晉 시기 무덤 회화의 기본 형식이다.

고구려 벽화무덤은 총 4기로 구분되는데, 제1기는 마선구麻線溝 1호묘와 마조총馬槽塚, 제2기는 각저총角觝塚과 무용총舞踊塚, 제3기는 장천長川 1호묘와 삼실총三室塚, 제4기는 오회분五盔墳 4호와 5호묘로 대표된다. 각 시기별 벽화의 내용과 문양의 변화, 발전을 살펴보면, 먼저 묘주의 경우, 1기와 2기에서는 마주 보고 앉아있는 형식에 주요 벽면을 차지하고 크기도 큰 편이다. 3기에서는 화면의 한쪽 모서리로 옮겨지고 마주 보는 모습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바뀌며 출행, 가무, 오락 등의 장면에서 크기 비율도 작아진다. 이는 기타 벽화 내용의 증가 및 도안화된 장식 효과의 강조와 관련되어 있다. 제4기가 되면 묘주는 벽화에서 사라지고, 출행도 행렬에도 변화가 있다. 제1기 출행도는 종복이 대열을 이루고 숫자가 많지 않으며 모두 보행 상태이다. 제2기에는 인원수는 더 줄어드나 우마차와 말을 탄 묘주가 등장한다. 제3기에는 인원수가 많아지고 말을 탄 묘주가 대열 속에 등장하나 벽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은 편이다. 제4기에는 출행도가 사라진다. 가무 장면의 경우, 제1기에서는 마주보며 춤을 추고 인원수도 적다. 제2기에는 인원수가 증가하고 대열을 이룬다. 제3기에는 장면이 확대되고 내용도 풍부해진다. 제4기에는 가무 장면이 사라진다. 건물의 기둥과 들보에도 변화가 있다. 제1기에는 들보와

그 림 1. 마선구 1호묘 남측실 남벽, 동벽 벽화모사도
2. 무용총 벽화 수렵도
3. 무용총 벽화 무용도
4. 삼실총 제3실 서벽 역사도
5. 오회분 5호묘 천장 승룡기악선인
6. 장사 마왕퇴 1호 한묘 백화 백묘도
7. 1) 장천 1호묘 역사도
2) 장사 마왕퇴 1호 한묘 백화 역사도
8. 1) 오회분 4호묘 비선과 운문
2) 복천추묘 운문도
9. 각저총 주실 좌벽 각저도
10. 기남 화상석묘 화상(쌍구모사도)
1) 복희여와도
2) 우인
3) 들보를 받치는 괴수(방상씨)
4) 말 타고 활 쏘는 그림
11. 기남 화상석묘 화상의 권운문 도안(모사도)
12. 기남 화상석묘와 집안 무용총 장식도안 비교(쌍구모사도)
1) 기남 화상석묘 속 휘장과 두공 문양
2) 집안 무용총 주실 정벽 휘장과 두공 문양
13. 기남 화상석묘 속 연화와 수면문 장식(쌍구모사도)

도 표 1. 인간 생활 제재의 장식회화 도안
2. 자연 제재의 장식 문양
3. 선계 신화 제재의 장식회화 도안

기둥이 권운문卷雲紋, 능형운문菱形雲紋 혹은 이운문螭雲紋으로 장식되어 있다. 제2기에는 목조 건축을 모방한 공포가 등장한다. 제3기에는 간소화된 목조 건축물 형태로 변화하고 제4기에는 사라진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형태에서 간소한 형태로 발전하다가 4기가 되면 원래의 기둥, 들보 양식은 사라지고 용과 괴수 등이 이를 대체하게 되는데, 이는 천상 세계를 내용으로 하는 제4기 벽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장식의 변화가 4기 벽화의 변화 특징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연 소재 장식 문양의 경우, 운문은 전체 4기에 모두 등장한다. 제1기의 두 무덤에는 능형운문이 등장하나 기타 3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마선구 1호묘와 장천 1호묘에는 모두 동일한 구름이 보인다. 마조총과 삼실총에는 유사한 권운문이 있다. 각저총과 무용총의 변형 운문은 비교적 독특하다. 오회분 두 무덤의 운기문雲氣紋은 처음 등장하는 문양이다. 화염문火焰紋은 1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2기의 각저총과 무용총에서는 간소화된 화염문과 운문으로 구성된 삼각형 도안이 특징적이다. 제3기에서는 화염과 보주寶珠 혹은 연화로 조합된 단독 문양이 있다. 제4기에는 화염문과 인동문忍冬紋, 연화문蓮花紋이 정교하게 조합된 사방 연속 도안이 네 벽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연화 문양은 고구려 벽화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전체 4기에 모두 등장한다. 측면 혹은 조감의 형태도 있고, 단독으로 벽화 속 인물과 동물 사이에 등장하기도 하며 연속 도안으로 벽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그 외의 자연 소재 장식 문양으로는 마선구 1호묘와 장천 1호묘의 호피虎皮형 도안, 각저총의 만초문蔓草紋, 무용총의 운기문, 오회분 두 무덤의 보리수 변형 문양 등이 있다. 사신도는 1기에 없고, 2기에 등장하나 완전한 사신이 아니며 3기에는 완전한 사신과 쌍사신이 등장한다. 이상의 도안은 모두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4기에 오면 사신도가 비로소 네 벽의 주제로 등장한다. 기이한 금수와 신선, 부처 등은 제2기 무용총에서 처음 등장하고 3, 4기에는 더욱 풍부해지며 자연 소재 문양과 결합하여 천장을 장식한다. 2, 3기의 기악선인伎樂仙人은 4기에서 용과 학을 탄 모습으로 변화한다. 2, 3기 천장에 대량으로 등장하는 기이한 금수는 4기가 되면 숫자가 줄어들고 그 공간을 신선이 차지한다. 3기 이후로 불교 제재가 등장하는데 장천 1호묘에는 예불도와 보살상이 있고, 오회분 4호묘에는 연화대蓮花臺 위에 선 공양인이 등장한다. 제4기에는 금수가 대량으로 감소하고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줄어들며 대부분 선인仙人과 조합을 이룬다. 묘문 양측은 문지기의 위치이다.

이상 고구려 무덤의 벽화는 양한兩漢 시기 무덤 회화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마왕퇴馬王堆 한묘漢墓의 백화帛畵는 천지인天地人을 주제로 한 풍성한 전통 회화 형상이 장식 도안으로 등장했다. 천상의 모습은 화폭 상단에 위치하고, 복희伏羲, 상아嫦娥, 신수神獸를 타는 신선, 하늘로 인도하는 사자使者, 비룡飛龍, 창룡蒼龍, 선학仙鶴, 신표神豹, 일월륜日月輪, 금오金烏, 옥토玉兎, 두꺼비, 부상수扶

桑樹, 상운祥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계는 중간에 위치하고, 묘주, 천사, 우인羽人, 종복, 쌍룡, 주작, 신표, 치효鴟鴞, 원벽圓璧, 상운祥雲, 주방 등으로 구성된 묘주의 승천 준비 장면이다. 지하(대해大海)의 모습은 대지를 받치고 있는 거인, 쌍경雙鯨, 괴수(방상씨), 뱀, 거북, 부엉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 전통 문양은 'T'형으로 구성되어 대칭의 장식성이 강하다. 산동성山東省 임기臨沂 금작산金雀山의 서한묘西漢墓에서도 마왕퇴와 유사한 백화가 출토되었는데, 그 내용과 형식 및 연대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집안 고구려 무덤의 벽화와 서한西漢의 백화는 주제 면에서 많은 유사한 점이 있고 내용과 문양 면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고구려 벽화 제1기에서 3기까지의 주방, 주인과 종복, 출행, 가무, 씨름, 가옥 등 생활 내용은 서한 백화의 인간 부분에 모두 등장한다. 고구려 벽화의 제2, 3기 일월륜, 금오, 두꺼비, 기이한 금수, 역사 등은 서한 백화의 천상과 지하 부분 내용 및 문양과 유사하다. 고구려 벽화 제4기의 복희, 여와, 신수를 타는 신선, 우인, 인신수수人身獸首 선인, 용 등 선계의 형상은 마왕퇴 1호묘 백화와 유사하다.

서한 무덤의 벽화는 주로 천계, 승선升仙, 벽사를 주제로 한다. 그리고 낙양洛陽의 61호 한묘漢墓에는 방상씨가 귀신을 쫓는 모습, 천상도, 용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 등이 있고, 금곡원金谷園 한묘에는 사신도와 사방 성상도星象圖가 있다. 고구려 벽화묘 2~3기의 천계에는 일월륜, 사신도, 일부 신수 등 위와 유사한 내용과 도안이 있다. 4기 벽화에서 보이는 복희, 여와, 우인, 선녀, 사신 등 천계의 도안과 벽사의 방상씨 역시 서한 무덤의 벽화와 유사하다.

동한東漢 무덤의 벽화는 주로 묘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동한 벽화 내용 역시 고구려 벽화묘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산동 기남沂南의 한나라 화상석묘畫像石墓에도 복희, 여와, 동왕공東王公, 서왕모西王母, 금수, 제사도祭祀圖, 방상씨, 우인, 신수, 그리고 연회, 출행, 가무, 오락과 역사 인물의 고사, 불교, 권운문, 연화문, 수면문 등의 도안이 있다. 이는 고구려 벽화묘 1~4기의 대부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다수의 문양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중원 지역 양한兩漢 시기 무덤 회화의 주제와 장식 문양은 집안 고구려 고분 벽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고구려 문화와 한족漢族 문화 사이에 불가분의 연원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刘萱堂 · 刘迎九, 2006, 「集安高句丽古墓壁画的装饰特色.纹样演变及与汉文化的联系」, 『北方文物』2, 33–46.

저 자 리뎬푸李殿福
연 도 1980
간행물명 『사회과학집간』4
『社会科学辑刊』4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 첫 검토

集安高句丽壁画初探

집안集安 지역 고분 벽화의 제재는 크게 사회생활 풍속, 도안, 신령의 3주제로 나눌 수 있다. 앞의 2종은 주로 고구려 조기(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 중기(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의 작품이고 후자는 만기(5세기 말에서 6세기 중엽) 작품이다. 고구려 벽화는 어떤 측면에서는 고구려 사회풍속과 신앙, 경제 발전 수준, 건축 특징 등을 보여주고 있다.

집안 지역의 수많은 무덤은 고구려인의 후장厚葬 풍속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벽화 예술 역시 이의 증거이다. 오회분五盔墳 4, 5호묘와 사신총四神塚 천장 제1단 고임돌 측면에 그려진 도철饕餮과 용의 입에는 원래 보석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보석을 상감한 구멍이 남아있다. 오회분 5호묘 천장 제2단 고임돌 측면의 신농씨神農氏(우수인신상牛首人身像)의 두 눈은 녹색 보석을 상감했는데 현재도 남아있다. 5호묘는 과거 사엽총四葉塚이라 불렸는데, 이는 무덤에 4개의 금엽金葉이 부장되어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러한 금은보화가 모두 후장 풍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기, 중기 벽화묘에는 고구려인의 가무 풍속이 묘사되어 있다. 무용총舞踊塚, 장천長川 1호묘, 마선구麻線溝 1호묘, 동구洞溝 12호묘에 모두 무용도가 있다. 무용에는 1인무, 2인무, 집단무가 있다.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상반부의 가무백희도歌舞百戲圖는 화면도 크고 인물도 많으며, 내용은 씨름, 서커스, 악기 연주, 무용 등 다양한 오락 활동이 교외에서 열리는 모습이다.

동구 12호묘 북실 남벽의 참부도斬俘圖와 삼실총三室塚 제1실 북벽의 공성도攻城圖는 고구려인의 강인함과 상층 통치 계급의 전쟁에 대한 애호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기와 중기 벽화에는 수렵도 역시 다수가 등장한다. 무용총, 동구 12호묘, 산성하山城下 332호묘, 삼실총, 장천 1호묘 등에 모두 수렵도가 있는데, 이

는 고구려인이 산간계곡에서 생활하여 야생 동물 사냥을 생활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기, 만기 벽화에는 종교와 신령 제재가 증가하면서 점차 주도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고구려 사회의 풍속과 신앙이 후기에 들어 큰 전환을 맞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사회의식에 비약적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회가 부단히 발전하면서 내부의 계급 모순이 격화되었고, 상층 계급은 그들의 통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교를 믿고 귀신을 숭배하는 풍토를 적극 제창했다.

불교가 중원에서 고구려로 전래된 것은 고구려와 중원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교가 고구려에서 전파, 성행하고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통치 계급의 사상에 부합했고, 빈곤한 '하호下戶'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기 벽화에서는 유가儒家의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신선술神仙術의 도가道家 사상을 보여주는 장면도 등장한다.

고구려 농업 생산의 발전 상황은 사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나 벽화에서는 적지 않은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무용총과 각저총角觝塚에는 모두 우마차가 등장한다. 이런 뚜껑이 있는 우마차는 당연히 귀족의 교통수단이지만, 동시에 3세기 중엽 고구려인들이 이미 수레를 만들 수 있었고, 소가 이를 끌게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수레와 소는 일정 부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수준을 알려준다.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를 농업에도 이용했을 것이다. 또한 수레에는 많은 부속이 들어가고, 철제 부속 역시 빠지지 않아 철기 제련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집안 지역에서는 서한西漢 시기의 철화鐵鏵, 철삽鐵鍤, 철부鐵斧 등 생산 도구도 발견되었다. 이런 유물과 벽화 속 우마차를 종합해보면, 동한東漢 시기 고구려의 농업 생산에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고구려 사회의 중요 발전 시기는 4세기 이후이다. 중기 벽화에 등장하는 갑옷과 각종 무기는 이 시기 제철업이 이전에 비해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다수 벽화에서 보이는 복식은 이 시기 고구려 방직업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고, 방직업의 발전은 역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중기 벽화묘에는 또 창름倉廩이 등장한다. 이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여 남는 곡식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헌에는 집집마다 작은 창고인 부경桴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창고는 바로 4세기 이후의 농업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만기 벽화는 규모가 커지고 색채가 화려해지는데, 이는 고구려 사회의 번영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천장 고임돌 측면에 바퀴를 제작하는 선인仙人, 신농씨神農氏 등이 등장하는 것은 농업 경제를 중시하는 모습과 그 발전에 대한 일종의 표현 형식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벽화에 등장하는 것으로는 귀족이 거주하는 가옥 건축이 있고, 그 외에 성곽, 성벽, 각루, 정자, 주방, 창고 등도 있어 고구려 고대 건축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집안 고구려 만기 벽화의 신령 제재는 대부분 중원의 신화 전설에서 소재를 가져왔다.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묘실 벽화에 들어간 사신도四神圖가 집안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한족漢族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층 계급이 사후에도 여전히 사방을 통치하고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집안 고구려 벽화의 회화 스타일에는 농후한 고구려 민족의 특색과 동시에 한漢 문화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만기 벽화는 한 문화 영향이 더욱 명확하다. 전체적으로는 한 문화를 흡수하고, 고유의 기초 위에서 자기 민족의 특색을 갖춘 고구려 회화 예술을 창조하였다.

조기 벽화는 소박하고 고졸하며 주제를 돌출시켜 투시, 비례 관계 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기 벽화도 조기의 특징이 남아있으나 선이 숙련되어갔고 형상이 더욱 정확해졌으며 화면이 더 풍성해졌다. 그러나 후기 벽화와 비교하면 형상의 비율에 여전이 모자람이 있다. 후기 벽화는 현실을 초탈하여 주로 신령 제재를 묘사했지만, 기악선인伎樂仙人과 공양인供養人, 동물 등의 형상은 정확하고 생동감 넘치며 선도 부드러우면서 변화가 충만하다.

색상에도 시기에 따라 큰 변화가 생긴다. 조기와 중기는 색이 판에 박은 듯 평범하게 칠해졌으나 만기에는 농담의 변화가 강해졌다. 주요 색상은 홍색, 황색, 백색, 흑색, 녹색, 자색 등으로 더 선명해졌고, 안료도 더 순수해져 더 안정적이게 되었다. 후기 벽화는 직접 석벽에 그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색상이 새롭다.

이상과 같이 집안 고구려 고분 벽화는 당시의 사회 모습과 고구려인의 사상 면모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 가치를 지닌다. 예술적인 면에서는 중원 회화의 기교와 표현 방식을 흡수한 기초 위에 고구려 민족의 회화 특색을 창조했다.

李殿福, 1980, 「集安高句丽壁画初探」, 『社会科学辑刊』4, 120–125.

저 자 리뎬푸李殿福
연 도 1981
간행물명 『고고여문물』3
『考古与文物』3

집안集安 동구洞溝 삼실총三室塚 벽화 관련 기록 보정

集安洞沟三室墓壁画著录补正

그 림
1. 제1실 벽화
1) 제1실 동벽 벽화
2) 제1실 남벽 출행도
2. 제2실 벽화
1) 제2실 통로 동벽 위사
2) 제2실 통로 서벽 위사
3) 제2실 천장 벽화
3. 제3실 벽화
1) 제3실 천장 독각수
2) 제3실 천장 천마도
3) 제3실 천장 노자탁어도

집안集安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중 삼실총三室塚은 일본인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1914년 처음으로 기록을 남겼다. 이후 일본학자들은 1935년과 1936년 두 차례에 걸쳐 집안을 방문했고, 삼실총에 관한 기록을 『통구通溝』(하권)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삼실총 벽화를 관찰한 결과 그 기록에는 다수의 착오와 누락이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삼실총의 묘도, 통로, 세 묘실의 네 벽 그리고 천장에는 모두 벽화가 있다. 벽화의 제재는 일상생활 모습이다.

제1실 동벽은 제1실의 주벽主壁으로 묘주가 그려져 있다. 모두 3개의 방이 있는데, 한 방에 남자 1인, 다른 한 방에 여자 1인, 또 다른 한 방에 여자 1인이 있다. 남벽 상단은 11인 일행이 일렬로 좌측을 향해 나아가는 출행도出行圖이고, 하단은 묘주의 수렵도이다. 북벽은 공성도攻城圖로 긴 창을 들고 성 앞에서 싸우는 2명의 기마무사가 있고, 성의 좌측 위쪽에는 2명의 병사가 격투를 벌이고 있다. 서벽은 묘도가 전체를 둘로 나누고 있는데 좌우로 모두 문졸 1명씩이 있다. 천장에는 사신도四神圖와 권운문卷雲紋 도안의 하늘이 있다. 묘도 양측에도 벽화가 있으나 박락이 심하고, 묘도 남벽에서는 일부 인물들이 묘실을 향해 걷는 모습만 확인된다. 묘도 천장에는 일월성수도日月星宿圖가 있다.

제1실에서 제2실로 통하는 통로 양쪽에는 2명의 위사衛士가 있고, 남, 북, 동 3벽에도 각각 역사力士 1명씩이 있다. 서벽에는 무사 1인이 북쪽을 향해 기립해 있다. 천장에는 쌍사신도雙四神圖, 비금飛禽, 이수異獸(독각수獨角獸, 매화록梅花鹿 등), 상운祥雲, 일월성수와 북두칠성, 남두육성南斗六星, 연화선자蓮花仙子, 비선飛仙, 비파선인琵琶仙人, 우수인신상牛首人身像 등이 있다.

제2실에서 제3실로 통하는 통로 양쪽에는 각각 위사가 1명씩 제2실을 향해 있다. 네 벽에는 모두 역사도가 있다. 천장에는 역시 쌍사신도, 연화, 비

금, 상운, 동물, 일월성수도 및 노자탁어도鷓鴣啄魚圖와 천마天馬, 독각수 등이 있다.

삼실총의 벽화는 동구고분군의 기타 각저총角觝塚, 무용총舞踊塚, 동구洞溝 12호, 마선구麻線溝 1호 등 벽화묘와 달리 쌍사신도, 들보를 받치고 있는 역사, 연화선자, 독각수, 출행도, 공성도, 노자탁어도, 우수인신상 등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제재는 삼실총의 시대 비정에 유력한 근거 자료가 되는데, 거기에 묘실 구조 및 제1실에서 출토된 몇몇 시유도기 등까지 종합해보면, 삼실총은 동구 12호와 마선구 1호보다는 늦고, 사신총四神塚, 오회분五盔墳 4, 5호묘보다는 이른 5세기 혹은 5세기 이후의 무덤으로 보인다.

벽화 내용에 따르면 묘주는 매우 화려한 가옥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는 묘주가 고구려의 상층 계급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실총의 묘주는 제1실 동벽 출행도에 보이는 하인들을 대동한 1남 2녀의 모습에 근거하면 아마도 1남 1처妻 1첩妾이었을 것이고, 제1실 북벽의 공성도는 남자 묘주가 무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전도城戰圖에서는 묘주가 전쟁에서 공적을 쌓은 장면을 그렸다.

삼실총은 구조가 엄격하고 배치가 신선하며 양식이 특수하고, 벽화의 제재도 다양하면서 내용도 풍부하여, 고구려 무덤 형식, 건축사, 회화사 등 각 부분 연구에 모두 큰 가치를 지닌다.

李殿福, 1981, 「集安洞沟三室墓壁画著录补正」, 『考古与文物』3.

저 자 리뎬푸李殿福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1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반영되는 고구려 사회 생활 풍속 연구

高句丽古墓壁画反映 高句丽社会生活习俗的研究

주 제 어 고구려 민족
고구려 고분
생활 풍속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고구려 민족의 생활 풍속 8종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 민족의 생활 풍속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먼저 후장厚葬 풍속이 있다. 무덤 속의 찬란하고 다채로운 벽화 예술은 후장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오회분五盔墳 4, 5호 벽화묘, 사신총四神塚의 제1단 모줄임돌에는 머리를 돌리고 있는 용이 있는데, 용의 입에는 보석이 상감되었던 오목한 구멍이 있다. 오회분 5호묘의 제2단 모줄임돌에 있는 신농씨神農氏(우수인신상牛首人身像)의 두 눈에는 녹색 보석이 상감되어 있으며 묘실의 여러 곳에 금박을 붙인 흔적이 남아있다. 오회분 5호묘에서는 금엽金葉 4점이 출토되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후장 풍속의 결과물이다.

다음으로 가무를 즐기는 풍속이 있다. 다수의 사서에 고구려 민족이 가무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벽화에서는 1인무, 2인무, 집단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특정 음률에 맞춰 긴 소매를 휘날리는 모습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세 번째로 출행과 수렵의 풍속이 있다. 고구려 조기, 중기 벽화에는 출행과 수렵 제재가 넘쳐난다. 이는 당시에 출행과 수렵이 매우 성행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삼실총三室塚 제1실 남벽 상반부에는 11인의 출행도가 있다. 장천長川 1호묘 전실 북벽에는 교외에서 거행된 연회도가 있으며, 안악安岳 3호묘의 출행도에는 총 250명이 등장한다. 종행의 대열을 조감도로 그렸는데, 보행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탄 사람도 있으며 수레, 악대 등도 있다. 수렵도는 대부분 산 속에서 최소 2인 이상 집단으로 사냥하는 모습이다. 무용총舞踊塚 수렵도에는 산맥이 있고, 산간의 평지에 말을 탄 4인, 산 앞에 말을 탄 3인, 산 뒤에 말을 탄 1인이 있다. 주제를 강조하고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산림은 작

게 그렸다. 후기의 고분 벽화에는 수렵도가 거의 없는데, 이는 고구려가 낙랑樂浪, 요동遼東을 점령한 후 영토가 넓어지면서 농업 생산이 크게 발전하여 수렵 풍속이 변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구려인의 전쟁 습성은 벽화에도 묘사되어 있다. 이는 동구洞溝 12호묘의 포로 참수도斬首圖나 삼실총 제1실 북벽의 공성도攻城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성도는 전체 화면이 어느 성의 한 모서리로 성문은 닫혀있고 성 밖에는 2명의 장수가 말 위에서 창을 들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두 장수 위쪽에는 육박전을 벌이는 2명의 병사가 있다. 이는 묘주가 생전에 어느 성의 방어전에서 공을 세운 장면일 것이다.

그리고 투호投壺와 씨름 활동도 있다. 오회분 4호묘 남벽의 공양인도供養人圖에 투호의 모습이 보인다. 씨름은 각저총角觝塚, 무용총, 장천 1호묘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그중 각저총의 벽화가 가장 전형적이다. 각저총의 씨름도는 오늘날의 스모나 유도와 비슷해 보인다. 씨름은 북방 민족에서 시작되어 고구려에서 널리 유행했고 멀리 일본까지 전해졌다. 현재 일본의 스모는 고구려의 씨름을 계승한 것일 수도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불교 신앙 풍속도 보인다.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는 동한東漢 말기에 중국에 전래되고 육조六朝 시기에 동북으로 전파되었다. 불교의 전래와 성행은 고구려 문화 예술을 더욱 촉진시켰다. 4세기 말 이후에 등장한 고구려 벽화묘에서도 이런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전형적인 불교 제재 벽화로는 5세기의 장천 1호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예불 장면과 보살상이다. 장천 1호 벽화묘는 5세기 말에 조성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 고구려에 이미 불교가 성행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구려 조기, 중기 벽화묘는 사회 생활 모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중기에서 만기로 넘어오면 종교와 신령 제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 사회 풍속과 신앙이 후기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사회 내부의 계급 모순이 격화되었고 상층 계급은 그들의 통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과 신령 숭배를 적극 제창했다. 고구려 만기 벽화묘에서는 이미 신령 제재가 주도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중기의 벽화묘에서는 사신도四神圖의 지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만기가 되면 묘실 네 벽의 주요 그림으로 사신도가 등장한다. 만기 벽화묘에는 복희伏羲와 여와女媧도 등장한다. 삼실총, 오회분 4, 5호묘에는 모두 우수인신상牛首人身像이 있다. 이는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의 화신이다. 사신총四神塚과 오회분 4, 5호묘에는 학을 탄 선인이 나온다. 이는 선인仙人 왕자교王子喬이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벽화 속 신령 제재는 중원의 신화 전설에서 따온 것으로, 이는 고구려 민족 문화와 한족漢族 문화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후기에 이르러 고구려에 신령을 숭배하는 풍속이 성행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구려 민족은 의식주 풍속에서도 자기 민족의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구려 벽화 속 인물들은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모자와 복식을 갖추고 있으며, 절풍모折風帽를 쓴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여성들은 대부분 긴 치마를 입고 있다. 무용총과 각저총 주실의 연회도에서는 그들의 음식 문화가 확인된다. 벽화에서는 귀족들의 주택 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

역대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사회의 생활 풍속은 벽화 속에 모두 담겨 있고,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록까지도 벽화 속 그림을 통해 해석이 가능해져 문헌기록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있다.

李殿福, 2001, 「高句丽古墓壁画反映高句丽社会生活习俗的研究」, 『北方文物』3, 22–29.

저 자 리신李歆
통화사범학원 미술학과
연 도 2001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3
『通化师范学院学报』3

고구려 동수冬壽 부부상

高句丽冬寿夫妇像

주 제 어 고구려 벽화
동수 부부상
복식
상투
회화 이론
한대 문화

동수冬壽 부부상은 동수묘冬壽墓 묘실의 벽화로 북한 황해남도黃海南道 안악군安岳郡 오국리五局里에서 발견되어 안악安岳 3호묘라고도 불린다. 묘벽의 묵서명에 따르면 동수는 함강咸康 2년, 즉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 6년(336)에 고구려에 왔고, 영화永和 13년인 고국원왕 27년(357)에 사망했다. 동수는 원래 전연前燕의 장군이었고, 고구려에 올 때도 많은 군인과 친족을 데리고 왔다. 필자는 이 무덤의 묘주가 동수이고 벽화 속 인물은 동수 부부인물상이라고 생각한다.

묘주 동수의 초상화는 서측실 서벽 중앙에 위치한다. 묘주 좌측으로 '기실記室', '소리小吏', 우측으로 '성사省事', '문하배門下拜'가 있다. 서측실 남벽에는 동수 부인의 인물상이 있고, 그 우측으로 시녀 2명이 있다. 동측실에는 군마軍馬, 소, 인물, 방앗간, 우물, 부엌 등이 있다. 후실에는 출행도와 악대와 무용하는 인물이 있다. 벽화는 벽면에 석회를 바르고 그렸다.

동수가 고구려에 거주하던 시기의 중국 북방은 5호16국 시기로 민족 정권의 교체가 빈번하고 인구 유동도 심했다. 일부 연구자는 동수묘 벽화가 옛 낙랑군樂浪郡 지역 혹은 요동遼東 지역에 거주하던 한족漢族이 그린 것이라고 보았고,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당시 북방 각 민족은 여전히 중원 문화를 선진 문화로 보아 이를 배우고 모방하여 북방 각 민족 문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비록 시기상으로 몇 세기가 떨어져 있고, 중간에 많은 정변과 전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속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동수묘 벽화와 후기 고구려 벽화에는 차이점이 있다. 동수묘 벽화의 내용과 형식은 한대漢代 묘실 벽화를 그대로 모방했다. 동수묘 벽화 속 인물의 복식 역시 한대에서 이어진 양식이다. 고습袴褶은 호복胡服의 일종으로, 한대 이전 북방 민족들은 대부분 승마의 편의를 위해 폭이 좁은 긴 바지를 입었다.

동한東漢 말년에는 넓은 통의 바지가 유행했고 위진魏晉 시기에는 더욱 성행했다. 동수묘 벽화의 출행, 악대, 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런 바지를 입고 있다. 또한 악대가 들고 있는 쟁箏, 금琴, 현악弦樂 등도 모두 한대 이래의 전통 악기이다. 그리고 140년 낙랑군에는 18개 성에 25만명이 거주했는데 다수가 중원의 이민으로 한족 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그들이 복식에서 중원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는 동수 부인의 머리 모양이 위진 시기에 유행한 형태와 유사하며, 이는 한대의 영향으로 남겨진 유풍이라고 보았다.

회화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동수묘 벽화는 사실적 화법畫法으로 동수 부부의 생전 현실 상황을 묘사하였다. 양한兩漢 시기 벽화와 회화에 등장하는 사실적 화법은 민족의 대융합과 실크로드의 개방으로 아시아 전체에 퍼졌다. 그러나 고구려 민족의 회화 이론에 관한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 따라서 동수묘 벽화는 한대부터 전해진 사실적 화법 이론에 기초하여 이를 발전, 운용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구려는 정권 수립 전후부터 계속해서 양한과 관계를 유지했다. 게다가 고구려 정권이 유지된 700여 년 동안 어떠한 회화 이론 방면의 문헌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중후기에는 위진과 관계를 유지하며 위진 시기 회화 기법을 흡수하기는 했으나, 동수묘 벽화의 풍격, 기법, 형식 등은 완전히 한대 회화의 유풍으로 보아야 한다. 벽화에서는 고구려 사회 속 동수의 지위가 반영되고, 일상생활도 중원 한족 관리의 풍속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동수는 고구려인이 아니고 동수묘 벽화 역시 고구려인이 그린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동수는 336년에 고구려에 왔고, 모용황慕容皝은 337년에 전연前燕을 세웠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동수는 모용황과 전연의 정권을 다투다가 실패하여 고구려로 도망간 것은 아닐까? 고구려에 온 이후 동수와 고구려 정권 및 왕족 등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더 많은 고고자료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수묘의 구조, 기세, 그리고 벽화에 묘사된 내용 등을 보면 동수는 분명 왕자王者의 풍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歆, 2001, 「高句丽冬寿夫妇像」, 『通化师范学院学报』3, 5–7.

저 자 린스샹林世香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12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2집
『边疆考古研究』12辑

길림吉林 집안集安 고구려 산연화총散蓮花塚의 연대 탐구

吉林集安高句丽散莲花墓年代探讨

산연화총散蓮花塚(우산고분군禹山古墳群 1893호)은 집안시集安市에 위치한 봉토석실 벽화묘로 1930년대에 발견되었다. 인근의 각저총角觝塚이나 무용총舞踊塚 벽화의 측면 연꽃과 달리 벽화에 정면의 연꽃이 있어 산연화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03년의 집안 고구려 문화재 보호 작업 과정에서 산연화총 벽화의 보존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무덤의 형식은 궁륭정穹窿頂 단실묘이고, 용도甬道와 묘도 사이에는 하나로 이어진 두 이실耳室이 있으며 서향이다. 이러한 유형은 각저총, 무용총과 유사하다. 현재까지 이 두 무덤의 조성 연대는 약 4세기 중엽이거나 조금 늦은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연화총과 이 두 무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덤이 지면이 아닌 지하에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고구려 벽화묘가 지면에 묘실을 조성하는 것에서 지하에 조성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보고 있다. 산연화총처럼 지하에 묘실을 조성한 무덤으로는 7세기의 오회분五盔墳 4호묘, 5호묘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만을 근거로 산연화총의 축조 연대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실의 네 벽에는 연화 도안이 있고, 네 모서리에는 목조 건축물을 모방한 공포가 있으며 이실에는 무사와 나무가 있다. 물론 조기의 인물풍속화 제재와는 거리가 있으나 이실에는 여전히 일부 풍속화 스타일이 남아있다. 즉 북이실 북벽의 인물은 조기에 흔히 보이는 묘주와 시종을 제재로 한 스타일과 유사하다. 무덤 형식, 벽화의 구조와 내용을 근거로 하면 산연화총은 고구려 5세기 중만기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에서는 합장이 유행하여, 동일 무덤이 중복 사용되는 풍속이 있었다. 산연화총 이실에서는 벽화가 가려진 현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장천長川 1호묘 전실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 역시 이 무덤의 연대가 장천 1호묘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林世香, 2012, 「吉林集安高句丽散莲花墓年代探讨」, 『边疆考古研究』12辑, 292–293.

저 자 쑤바이宿白
연 도 1952
간행물명 『문물참고자료』1
『文物参考资料』1

북한 안악安岳에서 발견된 동수묘冬壽墓

朝鮮安岳所发现的冬寿墓

동수묘冬壽墓는 묘실 네 벽에 백분白粉을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벽화 제작 방식은 간접적으로는 중국 산동성山東省과 하남성河南省 일대 화상석묘畫像石墓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동북 요양遼陽 일대 삼국三國 시기 벽화묘를 계승한 것이다. 무덤 내부 구조와 천장의 축조 방식은 육조六朝 시기 이래의 축조 방식이며, 전실과 후실 내부에 다량의 석주를 세운 것은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지만 8각 기둥 상부를 둘로 나누어 들보를 받치는 등 석주와 관련된 양식은 육조 시기에 유행했던 방식이다.

천장에 장조석을 사방에서 안쪽으로 겹치며 공간을 줄이다가 마지막에 방형으로 천장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불교 건축물에서 흔히 보이는 사례로 대동大同의 석굴과 돈황敦煌 및 중앙아시아 일대 5~6세기 이전 불교 건축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벽화의 제재로 묘주, 기실記室, 소리小吏 등 인물상과 주방, 마구간, 방아, 우물 및 다수의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형식은 한漢 화상석의 내용 및 형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천장에 연좌蓮座 등 문양을 그리는 것은 육조 시기 이래 불교 예술 장식의 주제였다. 또한 묘주 인물상의 크기와 다른 인물들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것은 인도 회화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동수묘는 한묘漢墓 및 육조 시기 불교 예술의 영향을 받은 중국 계통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동수묘에서 발견된 묵서명에는 동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과 사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동수는 전연前燕 모용황慕容皝의 사마司馬였고 후에 모용인慕容仁에게 투항했다가 모용인이 전투에 패하자 함강咸康 2년(336)에 고구려에 의탁했으며 영화永和 13년(357)에 사망했다. 묵서명에 언급된 그의 직함은 사서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묵서명에 동진東晉 목제穆帝의 기원을 쓰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동진에서 그에게 관직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동수는 요동遼東 사람으로 고구려에서 20여 년을 관직에 있었다. 그는 양국의 문화 교류, 특히 고구려인이 한漢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분명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宿白, 1952, 「朝鮮安岳所发现的冬寿墓」, 『文物参考资料』1, 101–104.

저 자 쑨런제孙仁杰
연 도 1986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고구려 벽화묘 속 연화蓮花 도안

谈高句丽壁画墓中的莲花图案

그 림
1. 1) 무용총 측면 연화 도안
2), 3) 무용총 연화 꽃봉오리
4), 5) 무용총의 사실적인 연화
2. 1) 마선구 1호묘 용도 천장의 연화
2) 정면 연화
3) 측면 연화
4) 꽃봉오리
3. 마조총 천장의 연화
4. 1) 정면 연화
2)~7) 측면 연화
8) 연화화생
9)~14) 꽃봉오리
5. 1) 연화와 권초문으로 구성된 도안
2) 연화와 화염문으로 구성된 도안
3) 정면 연화
4), 5) 연화화생
6) 연화와 운문으로 구성된 도안
6. 1)~3) 사실적인 연화
7. 4호묘 북벽 현무도
(바탕은 연화, 화염, 망상문)

연화蓮花는 고구려 벽화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식이다. 연화 도안은 고구려 민족의 불교 숭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의 장식 기능도 담당했다.

집안의 고구려 벽화묘는 크게 4기로 구분되고, 각 시기에 따라 연화 도안의 구도, 위치, 회화 기법, 형태, 색채 운용, 장식 효과 등에서 차이점이 모두 확인되었다.

1기 벽화묘는 무용총舞踊塚으로 대표된다. 시기는 약 4세기 전후이다. 벽면에 백회를 바르고 그림을 그렸는데, 중심은 묘주의 생활 모습이다. 묘실 천장에 신수神獸, 성상星象, 연화가 있다. 천장 제1단에는 3각 화염문火焰紋이 있고 그 위에 연화를 한 바퀴 둘렀다. 모두 측면이고 화판花瓣은 13장이다. 아래로는 '공工'자 모양의 꽃받침이 있다. 각각의 연꽃 중간에 모두 짙은 붉은색의 봉오리가 있다. 1기 연화 도안은 보통 묘실 천장에서만 확인된다. 주로 신수와 일, 월, 성상 사이에 끼어있으며, 도안의 변화는 많지 않고 매우 사실적이다. 색상은 짙은 홍색과 흑색이다.

2기 벽화묘는 마선구麻線溝 1호묘로 대표된다. 시기는 약 5세기 전반기이다. 백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렸다. 주요 내용은 부부의 연회 장면, 구름과 새, 가옥, 기마 수렵, 창고, 소 등이다. 묘실 천장은 모두 연화 장식이다. 2기 연화 도안은 이미 묘실 천장 전체를 뒤덮었고 묘실 4벽 상단에도 연화 도안이 있다. 이 시기에는 연화의 변화도 크고 모양도 다양해졌다. 측면 연화는 다수가 5~9판이다. 꽃봉오리는 더욱 화려해졌고, 만개한 정면 연화 도안도 등장했다. 화판은 다수가 뾰족하고 얇다. 또한 사실적인 표현 역시 더욱 성숙해졌다.

3기 벽화묘는 장천長川 1호묘로 대표된다. 시기는 약 5세기 말이다. 벽화는 역시 백회를 바르고 그렸다. 장천 1호묘는 이실二室 구조인데, 1실은 전체

가 묘주의 생활 모습이고 2실은 모두 연화 도안이다. 이 시기 연화 도안은 풍부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묘의 4벽과 천장에서 모두 확인된다. 심지어 일부 묘실 벽면은 전체가 연화 도안 장식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사실적인 분위기를 보이던 연화의 숫자는 줄었다. 이 시기에는 묘실 벽화에서 반영되는 불교 색채가 매우 짙어 연화화생蓮花化生과 연대蓮臺도 등장했다. 색상 역시 자홍색, 주홍색, 백색, 황색 등으로 풍부해졌고, 회화 기법도 자연스러워졌으며 일부는 검은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색을 덧칠하기도 했다. 꽃술은 홍색이나 백색을 칠했다. 이 시기 연화 도안은 화판이 뾰족하고 얇으며 종류와 변화가 다양하다. 또한 이 시기는 꽃봉오리가 벽화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4기 벽화묘는 오회분五盔墳 4호묘로 대표된다. 시기는 6세기 중엽이다. 벽화는 석벽에 직접 그렸다. 벽화 내용은 중심이 사신四神이고, 천장에는 각종 선인仙人, 비천飛天, 반룡盤龍, 성신星辰 등을 그렸다. 전기에 보이던 사회생활 모습은 사라졌고, 사실적 기법의 연화 역시 거의 사라졌으며 다수가 이미 예술적 과장이 커졌다. 벽면의 연화 도안은 모두 기타 문양의 도안과 조합을 이루어 등장한다. 도안의 종류도 많이 감소했다.

일부 벽화묘에는 인물이 없고, 각종 도안만 장식했다. 대표적으로 왕자묘王字墓를 들 수 있는데, 이 무덤 천장에도 연화 도안이 있다.

상술한 4기 연화 도안의 변화를 비교하면 변화, 발전의 규칙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연화 도안의 위치가 묘실 천장에서 네 벽으로 내려오고 끝내는 전체 묘실을 다 차지한다. 둘째, 모양은 간소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다. 셋째, 단조로운 색채에서 복잡한 색채로 변화한다. 이상과 같은 각 시기별 벽화 도안 변화의 규칙성은 고구려 벽화묘의 시기 구분에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연화 도안은 불교의 고구려 전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372)에 처음 불교가 전파되었다. 그 후로 무덤의 벽화 예술에 다량의 불교 요소가 등장하게 되었고, 기존의 사실적 기법의 풍속화가 불교, 신령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그리고 연화 도안 역시 자연스럽게 궁전 건축과 무덤 벽화에 대규모로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대규모로 등장하는 연화 도안은 고구려인의 연화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孙仁杰, 1986, 「谈高句丽壁画墓中的莲花图案」, 『北方文物』4, 16–21.

저 자 쑨진지孙进己
심양 동아연구중심
쑨훙孙泓
연 도 2004
간행물명 『북방문물』2
『北方文物』2

3~7세기 집안集安 및 평양平壤 지역 벽화묘의 족속族屬과 시기 구분

公元3~7世纪集安与平壤地区壁画墓的族属与分期

주 제 어 집안
평양 지역
벽화묘
족속
시기 구분

중국 한漢, 위魏, 진晉 벽화묘의 영향 아래 현 중국 집안集安 지역 및 북한 평양平壤 지역에서는 벽화묘가 대규모로 등장했다. 이전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모두 고구려 벽화묘라 총칭했다. 그러나 고구려가 낙랑군樂浪郡을 점령한 것은 4세기이고 평양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5세기의 일이다. 따라서 평양 지역의 3~4세기 다수 무덤은 결코 고구려 무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다. 게다가 5세기 중엽에는 고구려가 이미 고려로 개칭했으니 그 후 평양 지역에 조성된 벽화묘는 더 이상 고구려 벽화묘라 부를 수 없고 당연히 고려 벽화묘라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고구려 무덤은 사실상 3~5세기 집안 지역에 조성된 무덤에 국한된다. 현재까지 평양 지역 내 편년이 확실한 무덤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안악安岳 3호묘와 덕흥리德興里 무덤이다. 그러나 이 두 무덤은 모두 고구려인의 무덤이 아니라 한족漢族과 선비족鮮卑族의 무덤으로 고구려 무덤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평양 지역에 위치한 소위 '고구려 벽화묘'의 상한을 너무 이른 시기까지 올려보는 것은 근거가 결여된 판단이다. 북한 학자들은 이 두 무덤이 고구려인의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

안악 3호묘는 무덤 전실의 서쪽 측실 좌벽에서 '동수冬壽'라는 인물과 관련된 묵서가 확인되었고, 당시 이 묵서를 근거로 쑤바이宿白는 이 무덤을 동수묘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북한 학자들이 이견을 제시했다. 당시 북한의 이여성李如星은 묘주를 고국원왕故國原王으로 보았고 동수는 고국원왕의 충신으로서 배장된 것으로 보았다. 박윤원朴尹元은 전연前燕이 약탈해간 미천왕美川王의 유해를 고국원왕이 회수하여 다시 이곳에 안장했으며, 동수는 무덤 조성에 공이 있어 묵서를 남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김용준金瑢俊은 묘실의 구조,

벽화의 내용과 기법, 묵서의 내용 등에 북한 및 중국 각지의 고고 자료를 종합해볼 때, 동수의 무덤이 맞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 학자 홍청옥洪晴玉도 묘실의 구조, 벽화 제재, 묵서명기에 근거하여 역시 이 무덤을 동수묘로 보았고 1986년 캉제康捷 역시 홍청옥의 견해에 동의를 표했다.

한국의 김원룡金元龍은 동수가 동진東晉의 연호를 사용하고, 동진의 관직을 받았는데, 이는 낙랑군 패망 이후 고구려가 평양에 천도하기 전까지 낙랑, 대방帶方의 옛 땅에 거주하던 중국 혈통 주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무덤은 중국 위진魏晉 시기 벽화묘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묘실의 평면, 모줄임 천장, 석주와 벽화 내용 등은 이후 고구려 벽화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일본의 아즈마 우시오東潮 역시 안악 3호묘 피장자를 동수로 보았다.

이처럼 각국 학자들은 모두 안악 3호묘를 고구려 왕릉이 아니라 동수묘로 보고 있으나, 북한의 박진욱朴晉煜, 손영종孫永鍾 등은 여전히 고국원왕설을 주장하고 있다.

덕흥리 벽화묘는 북한 평안남도平安南道 대안시大安市 덕흥리에서 발견되었다. 무덤에서 '절동이교위유주자사진節東夷校尉幽州刺史鎭'이라는 문자가 발견되어 유주자사묘幽州刺史墓라고도 불린다.

북한의 김용남金勇男, 박용서朴容緖는 유주자사묘가 고구려 무덤이고, 진鎭은 신도현信都縣 출신에 관직은 고구려가 수여한 것이며 고구려는 370년 전후 유주幽州 지역(현 화북華北, 동북東北 등지)을 통치했다고 보았다.

김원룡은 신도현이 중국의 기현冀縣이므로 묘주는 중국인이고, 그가 역임했던 대소형大小兄은 고구려의 관직이지만, 기타 관직은 모두 중국 관직이므로 고구려의 통치 범위가 하북성河北省까지 이르렀다는 관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벽화의 기법에서 중국 계통을 찾아볼 수 있어, 유주자사묘와 동수묘는 묘지명에 절대연대를 남긴 중국인의 무덤이라고 보았다. 중국의 류융즈劉永智와 캉제, 일본의 사에키 유세이佐伯有淸도 묘주가 고구려에 망명한 중국인이고, 무덤 양식 역시 중국식인 중국 무덤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 학자들은 여전히 진鎭이 고구려의 유주자사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진욱과 손영종은 이 무덤의 구조가 약수리藥水里 벽화묘 및 모두루총牟頭婁塚과 거의 유사한 고구려 양식인 점, 벽화 속 인물의 복식이 고구려 복식인 점, 묘주 진의 출생지인 신도현이 고구려 신도현인점, 국소대형國小大兄의 관직을 역임한 점, 덕흥리 벽화묘 속 유주의 군현郡縣 구성이 중국 역대 유주의 군현 구성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무덤이 고구려 벽화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근거 가운데 첫 번째는 이미 중국의 류융즈가 이 무덤의

묘실 구조와 벽화 제재가 위진 시기 무덤과 유사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고, 벽화 속 의관 역시 진晉의 의관과 동일하다는 점을 밝혔다. 박진욱이 주장하는 일부 고구려 무덤의 구조, 복식과 유사하다는 점은 오히려 일부 고구려 묘의 구조와 인물의 복식이 덕흥리 벽화묘와 마찬가지로 모두 중국 위진 시기 무덤 구조와 중국의 복식을 계승한 것이고 덕흥리 무덤은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밖의 나머지 근거 역시 문헌사료에 대한 곡해의 결과이다.

일부 고구려 벽화묘의 시기 구분과 연대를 연구한 논문에서 평양 지역 고구려 벽화묘의 상한을 3세기까지 올린 경우가 있다. 박진욱은 대성리臺城里 2호묘, 봉성리鳳城里 1호묘가 평양역전 벽화묘나 감신총龕神塚에 비해 화법과 구조가 조악하여 이를 3세기 무덤으로 보았다. 평양역전 벽화묘, 감신총은 4세기 전반기, 안악 3호묘, 요동성총遼東城塚, 대성리 1호묘는 4세기 후반기, 덕흥리 벽화묘, 약수리 벽화묘, 연화총蓮花塚 용강대묘龍岡大墓, 동명왕릉東明王陵은 5세기 전반기로 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고구려는 3세기에 아직 평양 지역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시 평양 지역에 고구려 무덤이 있을 수 있는가? 고구려가 낙랑, 대방을 점령한 것은 313년인 4세기 초이다. 당시 고구려왕과 귀족들이 대규모로 평양 지역에 이주할 수는 없었다. 이들이 평양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427년 천도 무렵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평양 지역에 대규모의 고구려 무덤이 등장할 수가 없다.

김원룡은 요동성총의 묘주를 고구려에 투항한 한족으로 보았다. 아즈마 우시오도 '요동성총처럼 특이한 평면 구조는 요양遼陽 삼도호三道壕 1호묘 등 요동遼東 지역에 분포하는 위진 시기 묘실을 계승한 것이다. 낙랑군, 대방군의 옛 땅에 357년 안악 3호묘(동수묘)가 조성되었는데, 이 역시 이런 묘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전호태全虎兌 역시 요동성총이 묘실의 구조상 중국 한위진漢魏晉 시기에 조성된 요양 지역 석실묘와 같다고 보았다.

평양역전 1호묘와 관련해서, 김원룡의 경우 이 무덤 부근에서 영화永和 9년(353) 명문전이 발견되었고, 무덤 구조가 전석혼축磚石混築이며 요동성총의 구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묘주는 중국 혈통이거나 혹은 가장 먼저 평양으로 남하한 고구려 귀족의 무덤일 것이라고 보았다. 아즈마 우시오는 평양역전 2실묘가 전돌을 석재로 바꾼 소위 전실묘이고, 감실도 있어 그 묘주를 고구려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아즈마 우시오는 또 대성리 1호묘의 석실 구조, 축조 기술, 벽화 내용 등이 모두 안악 3호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역시 고구려인의 무덤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4세기까지의 평양 지역 벽화묘 가운데 분명하게 고구

려 귀족 무덤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동수와 마찬가지로 중국 한족 혈통의 낙랑인과 한족 망명인의 무덤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들의 묘제는 위진 시기 중국 묘제를 계승했고, 중국 위진의 묘제에서 고구려의 묘제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다.

孙进己 · 孙泓, 2004, 「公元3 ~ 7世纪集安与平壤地区壁画墓的族属与分期」, 『北方文物』2, 36-43.

저 자 양홍杨泓
연 도 1958
간행물명 『문물참고자료』4
『文物参考资料』4

고구려 벽화석묘

高句丽壁画石墓

표 1. 고구려 벽화석묘의 형식과 벽화 내용 변화표

고구려 벽화석묘의 형성과 유행은 중국 고대 문화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벽화가 있는 묘실은 석실 또는 전실묘의 특징이 있는데, 이는 중원 지역의 동한東漢 시기에 이미 출현한 것이다.

고구려 벽화석묘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통구通溝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군이고 하나는 평양平壤을 중심으로 한 고분군이다. 평양 부근의 조기 벽화석묘는 동수묘冬壽墓 체계에서 변화해 온 것으로 보통은 다실多室에 구조가 복잡하다. 통구를 중심으로 한 조기 고분군은 조성 연대가 더 이르고, 요동遼東 일대 한묘漢墓의 축조 방식에 영향을 받아 석실이지만 전실묘를 모방하여 궁륭정 혹은 횡권식정橫券式頂이며, 벽화 내용은 묘주의 생활, 연회, 천상도 등이 있다. 그 후로는 북조北朝 무덤의 영향을 받아 사신도四神圖가 주요 제재로 등장한다. 이 두 그룹은 조기에는 비록 차이가 있었지만 고구려 내부의 통일과 발전에 따라 점차 통일된 형식을 갖춰가고, 결국에는 모줄임 천장에 단실의 석묘 및 네 벽에 사신도를 그리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정형화된 형식은 평양 천도 이후 정국이 안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자, 현재 발견되는 고구려 벽화 석묘의 만기 단계에 해당한다.

고구려 벽화 석묘는 형식면에서 단실과 다실로 나뉜다. 다실은 보통 전실과 후실로 되어 있고 중간에 짧은 용도甬道가 있다. 주실 평면은 방형이고 전실은 장방형이며, 무용총舞踊塚, 각저총角觝塚,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 등이 있다. 전실 양 측면에 작은 소실小室 혹은 감실을 만든 경우도 있는데, 고산리高山里 제9호묘와 감신총龕神塚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복잡한 경우로는 통구 삼실총三室塚이 있다. 곡척식曲尺式으로 꺾여 있고 각 실의 평면은 방형에 가깝다. 단실묘의 평면도 방형에 가깝고 전면에 긴 용도가 있다.

벽화 제작 방식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석벽에 백분白粉을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석벽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다. 전자의 예로는 무용총, 각저총, 삼실총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통구 사신총四神塚, 우현리遇賢里 대묘大墓 등이 있다.

벽화의 제재는, 첫 번째로 네 벽에는 일상생활 모습을, 천장에는 하늘을 표시한다. 두 번째는 여전히 일상생활 모습이 주된 소재이지만, 사신도四神圖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후 사신도와 생활 모습이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되다가, 점차 운문雲紋 배경에 사신도가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 변화되고, 연판형蓮瓣形 그물 문양 배경에 사신도가 중심이 되다가, 배경이 없이 사신도만 중심이 된다. 이상의 특징 이외에 일부 무덤에서는 좀 더 특별한 벽화 배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감신총에는 주요 인물을 측실의 감실에 그렸고 옆으로 시자侍子가 늘어서 있다. 안성동安城洞 대총大塚은 거의 꽃무늬로만 장식을 했다. 간성리肝城里 연화총蓮花塚의 전실 각 천장에는 큰 연꽃을 그렸고, 쌍영총雙楹塚 용도에는 우마차, 기사 등의 출행도가 있다. 또한 모두루총牟頭婁塚에는 묵서명만 있고, 환문총環紋塚, 산연화총散蓮花塚, 귀갑총龜甲塚에는 도안만 그리기도 했다.

고구려 벽화석묘의 시기는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다실묘로 석재의 처리가 조잡하고 형태와 크기도 일치하지 않는다. 대부분 전후의 이실二室이다. 백회를 바르고 그림을 그렸는데, 네 벽에 묘주의 생활상, 출행, 수렵도, 천정에는 일월성신日月星辰, 선인仙人 등을 그렸다. 구체적으로 한대漢代보다는 늦고 위진魏晉 시기보다는 이르다. 제2기는 2식으로 구분된다. 제1식은 삼실총으로 대표되고, 제2식은 매산리梅山里 사신총으로 대표된다. 이 시기의 전체적인 특징은 일상생활 제재의 벽화가 남아있으면서 사신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삼실총은 주실 네 벽이 여전히 묘주의 생활 모습이고 나머지 실에 사신이 등장한다. 매산리 사신총에서는 사신도가 네 벽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후벽에만 생활 모습이 있다. 제2기의 무덤은 다실에서 단실로 변화해 가고, 모줄임천장도 등장하여 주류를 형성해 간다. 이 시기는 1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북조北朝 조기에 해당한다. 제3기는 사신도가 벽화의 중심 제재가 되는 시기이다. 묘실은 방형의 단실이고 전면에 긴 용도가 있으며, 모줄임천장이다. 또한 석재의 처리도 정교해진다. 이 시기는 3식으로 구분되는데, 제1식은 통구 사신총으로 대표된다. 특징은 운문 배경 위에 사신도가 배치되는 것이다. 제2식은 통구 제17호묘로 대표된다. 특징은 연판형 그물문양의 배경 위에 사신도가 배치되는 것이다. 제3식은 우현리 대묘가 전형적이다.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배경 위에 사신도가 배치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하한 연대는 북조 말년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벽화석묘의 상한 연대는 한나라 말기이고 하한 연대는 북조 말기이다.

杨泓, 1958, 「高句丽壁画石墓」, 『文物参考资料』4, 12–16.

저 자 왕위안린王元林
중국문화유산연구원
연 도 2012
간행물명 『북방문물』2
『北方文物』2

고구려 벽화묘의 특징 및 그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高句丽壁画墓的特质及其文化遗产价值评估

고구려 벽화묘의 특징은 첫째, 많은 수량의 발견과 지역의 집중이다. 주요 발견 지역은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과 북한의 평양平壤 두 곳으로 모두 110여 기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벽화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무덤은 30여 기에 불과하다. 두 번째 특징은 구조와 제작 기법의 독특함이다. 고구려의 왕실 및 귀족 벽화묘는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가 90% 이상이다. 그 다음이 적석석실묘積石石室墓와 적석전묘積石磚墓이다. 묘실은 단실도 있고 다실 구조도 있다. 조기 벽화묘는 대략 4세기 상반기에 등장했으며, 벽화는 석벽에 백회를 바른 후 그렸다. 6~7세기에는 화강암을 깎아 네 벽을 만들고 마연한 후 바로 벽화를 그렸는데, 오회분五盔墳 4, 5호묘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고구려 벽화묘는 대부분 도굴되어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이 없다. 그래서 무덤 형식과 벽화 내용, 소량의 출토 유물에 근거하여 시기를 판단해야만 한다. 고구려 벽화묘의 조성 시기는 크게 조, 중, 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는 4세기 중기에서 5세기 중기까지로 수량은 많지 않다. 주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제재로 삼고 있다. 중기는 5세기 중기에서 6세기 중기까지이고 무덤 숫자도 많은 편이다. 만기는 6세기 중기에서 7세기 중후기까지로 발견된 무덤이 가장 많다. 만기에는 평평한 석벽에 직접 그림을 그렸고, 일부 벽화에서는 금으로 도금한 꽃 장식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녹송석으로 새나 동물의 눈을 상감한 경우도 있다. 넷째, 벽화의 내용이 풍부하고 민족적 특색을 보여준다.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벽화묘는 제재나 양식이 모두 집안 지역의 동일 유형 벽화묘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벽화의 내용도 풍부하여 귀족의 생활과 사회 풍속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농후한 민족적 특색도 보여주고 있다. 4세기 후기에서 5세기 전기의 벽화는 주로 고구려 상류사회의 생활모습, 무용, 씨름, 출행, 수렵 등을 제재로 했다.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전기까지는 귀

족의 생활모습 이외에 사신도四神圖가 등장하고, 일부 무덤에서는 예불도, 보살 등 불교 미술도 등장한다. 6세기 중기 이후에는 사신, 신화, 기악伎樂, 선인仙人, 신선도 등이 유행하고, 각종 장식 문양도 나타난다. 다섯째, 역사적 연원이 깊고 중원 문화의 요소도 농후하다. 4세기에 중원 왕조는 위진魏晉 시기에 들어섰다. 당시는 이미 불교가 중원에 전파되어 북방 초원의 실크로드와 중원의 한漢 문화가 교류, 융합되던 시기였고, 북부 변경에 위치한 고구려 정권도 불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사회 풍속이 주요 제재였던 조기 벽화묘도 천장에는 작은 연꽃이 등장했다. 그 외에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 사이, 벽화의 제재가 사회생활에서 사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장식 도안이 중심이 되는 과도기 현상이 등장하는데, 이 때 등장한 장식 도안이 연꽃, 구름 문양의 왕王자, 채색된 환문環紋, 귀갑문龜甲紋 등이다. 6~7세기 묘실 벽화는 주로 북한에 분포하는데, 이 시기 벽화는 비교적 복잡하고 화려하며, 문화 요소가 뒤섞여 있다. 벽화 내용은 사신이 많고, 중원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복희伏羲, 여와女媧, 황제黃帝, 신농神農, 기악, 선인, 승려, 도사 등도 있어, 유, 불, 도 문화의 융합 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원 문화의 영향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 가치의 측면을 보면, 고구려 벽화묘는 고구려 민족 문화의 발전 역사를 반영하고, 고구려 무덤 제도 및 상장 풍속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생활, 교통수단, 경제방식, 천문기상, 종교제사, 문화관념 등의 측면에서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예술, 종교신앙, 풍속과 민심, 자연환경 등을 구현하고 있다.

고구려 벽화묘는 중원 문화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고, 한진漢晉의 도교 문화와 외래 불교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특히 중원 한진 무덤의 회화가 북방에 전래되어 고구려 회화 예술과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사신도, 선인, 비천, 영수靈獸 등이 묘실 천장이나 네 벽의 중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고구려 민족의 신령사상과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구려 벽화묘는 민족 특색과 지역 특색도 반영하고 있다. 벽화에는 귀족들의 생활 모습인 연회, 가무, 씨름, 놀이, 수렵, 출행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풍부한데, 이런 내용에서 고구려 민족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다. 농업, 어업과 수렵, 그리고 토기 제작, 금속 제련, 건축, 목기, 방직 등 수공업 등에서도 민족적 특색이 드러난다.

고구려 벽화묘는 동아시아 벽화묘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고대의 문화 교류사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하서회랑河西回廊의 돈황敦煌에서 대동大同, 집안 나아가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북방 초원 실크로드의 주요 전파 노선이다. 각지의 무덤 벽화, 석굴 벽화, 출토된 금은기 등을 관찰하면 하서河西 지역에서 동북 고구려까지 이어지는 북방 문화의 교류 통로를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그 국제 문화 교류의 통로에서 연결 고리 역할

을 했다.

고구려 벽화묘는 미술사와 예술사 연구에도 중요한 실물 사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로 무덤 건축 설계 예술과 회화 예술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묘실 건축과 벽화 속 인물의 복식, 무용, 음악, 체육 등 여러 방면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고구려 벽화묘는 건축 설계 예술 및 건축 미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궁륭정으로 마감된 봉토석실묘는 독특한 건축 설계 예술과 매우 높은 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묘실 건축 속 회화 스타일과 벽화 속 건축 양식도 풍부하다. 묘실에는 단순화된 목조 창고, 주방, 대청 등 건축물이 묘사되기도 했다. 이는 한漢나라 건축의 구조, 조형, 색상, 도안 등과 매우 유사하여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제재가 광범위하여, 일상생활 모습이 있고 시녀, 공양인, 무사, 역사力士 등도 있으며, 신도들의 예불 모습, 보살, 비천, 연화화생동자蓮花化生童子 등 종교와 관련된 제재도 있고, 복희伏羲, 여와女媧, 제련製鍊, 제륜制輪, 나무를 문질러 불을 얻는 모습 등 신화 제재도 있다. 이처럼 고구려 고분 벽화는 다양한 회화 제재를 통해 고구려 민족의 농업, 목축업, 종교 신앙, 복식,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 벽화묘는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물질적 저장매체이자 실물 증거이다. 또한 2004년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로 정식 등록된 고구려 벽화묘는 시대성을 띠고 대체가 불가능하며 재생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학적 관리와 효과적인 보호가 전시와 이용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王元林, 2012, 「高句丽壁画墓的特质及其文化遗产价值评估」, 『北方文物』2, 102–105.

저 자 왕쯔린王子林
장춘사범학원 미술학원
치후이린祁慧琳
왕쓰보王思博
연 도 2008
간행물명 『장춘사범학원학보』11
『长春师范学院学报』11

집안集安 고구려 고분 벽화 조형예술 탐구

关于集安高句丽古墓壁画造型艺术的探讨

주 제 어 고구려
고분 벽화
예술 형식

고구려의 조기 고분 벽화는 주로 사회 풍속을 주제로 했고 중기에도 현실 생활 묘사가 주를 이뤘으나 제재가 다양해졌으며 불교 관련 내용과 사신四神 문양이 등장했다. 만기에는 현실생활 묘사는 사라지고 종교가 중심 제재가 되었는데, 특히 사신도四神圖가 묘실 네 벽에 방위에 맞춰 묘사되었다.

집안集安 고분 벽화는 생활 풍속을 반영하는 동시에 종교, 신화를 반영하고 있다. 수미좌須彌座 위의 부처, 보살상 등이 벽화에 나타났으며, 만기 벽화는 사신 묘사가 비교적 많다. 복희伏羲, 여와女媧, 신농神農, 비천飛天, 승룡선인乘龍仙人, 일월성신日月星辰 등도 나타난다.

고구려 벽화와 중원 벽화는 내용, 이미지, 조형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 조기 벽화는 대체적으로 중원 양진兩晉 시기 묘실 벽화에 상당하여 벽화 속에서 한漢, 진晉 시기 벽화 내용과 조형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고구려 벽화가 한, 양진 시기 벽화 예술의 표현 형식을 모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용총舞踊塚 벽화 속 수렵도를 예로 들면, 소, 수레, 인물 형상, 동작, 비례, 선 등이 위魏, 진晉 가욕관嘉峪關 전벽의 '우차도'와 유사하다. 이는 육조六朝 시기 조형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 중기 벽화는 5세기 북조北朝 조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묘실 벽화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만, 반영되는 현실 생활 풍속의 제재는 여전히 다양하다. 물고기 비늘모양 철갑을 두른 무사, 불교와 도교 등 종교 제재도 등장한다. 벽화 제재는 여전히 인물이 많은데 그중에는 군왕, 귀족과 그 처첩, 귀부인, 남녀 시종, 예술인, 무용수, 비천 등이 포함된다.

불교가 전래되면서 고구려 벽화의 조형예술 형식, 제재, 내용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현실 생활 제재는 점점 적어지고 종교(불교, 도교)와 신화 제재가 나날이 늘어난다. 서한西漢 시기 중원에서 흔히 등장했던 사신은 이 시

기 가장 주요한 소재가 되어 고구려 만기 묘실 벽화 조형예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조기와 중기 벽화는 벽면에 백회를 바르고 그림을 그렸고, 만기 벽화는 중기와 달리 대부분 석벽에 그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석벽 표면이 고르지 않아 그림의 난도가 크게 증가했다.

王子林 · 祁慧琳 · 王思博, 2008, 「关于集安高句丽古墓壁画造型艺术的探讨」, 『长春师范学院学报』11, 185–187.

저 자 왕페이펑王飞峰
고려대학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 도 2013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4집
『边疆考古研究』14辑

동수묘冬壽墓 연화문蓮花紋 연구

冬寿墓莲花纹研究

그 림
1. 동수묘 평·단면도 및 구조도
2. 동수묘 좌상
3. 동수묘 연화문 및 수면문
4. 16국 시기 후진, 후연과 고구려 위치도
5.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사진 및 정면 비문 탁본
6. 동수묘 벽화, 요양 상왕가촌 진묘 벽화 및 관련 연화문
7.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연화문 와당 및 천추총 '영락'명 수키와
8. 환도산성 궁전지 및 동대자 유적 고구려 와당

동수묘冬壽墓는 전형적인 고구려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로 북한 황해남도黃海南道 안악군安岳郡 오국리五菊里에 위치한다.

무덤 내부에는 벽화가 있다. 동수 및 그 부인상은 각각 서측실 서벽과 남벽에 위치하고 그 외의 주요 내용은 출행, 가악歌樂, 씨름, 취사, 급수, 마구간, 우사, 시종, 누각 등이 있으며 서측실 입구 남쪽 시종도의 상부에서는 7행 68자의 묵서도 있다.

동수묘의 연화문蓮花紋은 전실 서측실 서벽 동수의 좌장坐帳 양 모서리와 상단부, 남벽 동수부인의 좌장 양 모서리와 상단부, 전실과 후실 사이 4개 기둥 노두櫨頭의 동서 측면, 후실 천장 상단부에서 확인된다. 후실 천장의 연화문은 정면 형태이고, 나머지는 모두 측면 형태의 연화이거나 꽃봉오리이다. 안료는 백색, 홍색, 흑색, 검푸른색[黛青色]을 사용했다. 먼저 윤곽을 묵선으로 그린 후 묵선 위에 다른 색으로 다시 윤곽을 그리고 내부를 채우는 방식도 있으며, 묵선의 윤곽 없이 직접 연판이나 봉오리를 그리는 방식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수묘의 연화문은 현재까지 고구려 벽화묘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연화문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동수묘 연화문의 연구는 불교가 언제 고구려에 전래되었는지, 고구려 연화문 와당이 언제 등장했는지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 고대 및 한반도의 관련 사료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면 동진東晉 태원太元 말(약 390~396) 후진後秦의 승려 담시曇始가 불교를 고구려에 소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담시는 당시 육로를 통해 관중關中에서 요서遼西에 이르고, 요동遼東을 지나 고구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수묘에 등장한 연화문 및 좌장의 형식은 한위漢魏 16국시기의 요서 지역 벽화묘에서 직접 근원한 것으로, 당시 고구려 지역에서

는 단지 좌장과 공존하는 단순한 장식 문양에 불과했을 뿐이며, 고구려 지역에 전파된 불교와는 관련이 없었고 불교의 고구려 전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었다. 고구려의 가장 이른 시기 연화문 와당은 천추총千秋塚에서 발견된 쌍계격雙界格 육판六瓣 연화문 와당으로, 그 연대는 대략 호태왕好太王 시기의 정미년丁未年(407) 전후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구려 연화문 와당은 불교가 고구려에 전래된 이후의 산물임이 분명하고, 또한 삼연三燕의 연화문 와당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王飞峰, 2013, 「冬寿墓莲花纹研究」, 『边疆考古研究』14辑, 136–151.

저 자 우자창武家昌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1994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환인桓仁 미창구米倉溝 장군묘將軍墓 벽화 첫 검토

桓仁米仓沟将军墓壁画初探

그 림 1. 장군묘 네 벽 연화 도안
2. 고임 들보상의 변형 연화 도안

환인桓仁 미창구米倉溝 장군묘將軍墓는 요령성遼寧省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시기의 대형 벽화묘로, 용도甬道를 제외한 전체 벽면에 벽화가 있다.

미창구 장군묘 묘실 내 벽화는 모두가 장식 문양이다. 주실 네 벽은 측면에서 본 연화蓮花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벽의 상부와 저부에는 모두 주홍색으로 들보를 그렸고 들보에도 묵선으로 대칭의 쌍룡 도안이 있다. 이 도안 중간에는 양 끝이 나팔 모양이고 중간은 장방형인 흑색 틀이 있다. 이 도안은 마치 장구처럼 보인다. 천장 고임돌의 들보 정면에는 홍, 황, 자赭, 녹색으로 변형된 연화의 기하 도안이 줄지어 이어져 있다. 들보 하부와 좌우 이실에는 '왕王'자 도안이 있다. 천장에는 정면의 연화 9송이가 있다. 묘실은 정연하게 가공한 큰 돌로 쌓았고 먼저 백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렸으며, 이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측면의 연화가 네 벽을 장식하고 있다.

연화가 중심이 된 벽화는 고구려 사회의 불교 숭상을 상징한다. 불교는 4세기 중기 이전에 고구려에 전래되었다. 연화를 주제로 한 벽화를 그렸다는 것은 장군묘 묘주의 연화와 불교에 대한 숭배,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쌍룡 도안 역시 길상과 권위를 상징한다. 쌍룡과 함께 등장하는 장구 모양 도안은 기존 벽화에서는 발견된 일이 없다. 『북사北史』에 따르면, 고구려는 장례식에 음악을 울리며 사자死者를 보낸다고 했다. 장구 모양 도안은 바로 이런 풍속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현재의 장구가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뎬푸李殿福는 벽화를 3기로 구분했는데 그에 따르면, 조기 벽화는 묘주 생전의 생활 모습이 주를 이루고, 시기는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까지이다. 중기 벽화는 묘주 생전의 생활 모습에 불교 내용과 사신도四神圖가 추가되었고, 시기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까지이다. 만기 벽화는 석벽에 직접

그림을 그렸고, 사신도가 주요 내용이 된다. 이에 근거하면 장군묘 벽화에는 인물, 산수 등이 없고 불교와 관련된 연화만 등장하나, 직접적인 불교 관련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무덤 벽화는 중기에서 약간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武家昌, 1994, 「桓仁米仓沟将军墓壁画初探」, 『辽海文物学刊』2, 80–83.

저 자 원위청温玉成
하남성 용문석굴연구소

연 도 2001
간행물명 『북방문물』2
『北方文物』2

집안集安 장천長川 1호 고구려묘 불교 벽화 연구

集安长川一号高句丽墓佛教壁画研究

주 제 어 고구려
불교 벽화
5세기 초

집안현集安縣 동북쪽 약 45㎞ 지점에 위치한 장천長川 1호 고구려 무덤은 대형 봉토묘封土墓이다. 묘주는 '대형大兄'에 해당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고위 관리이다. 이 무덤의 불교 벽화는 현재까지 알려진 약 80여 기의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유일한 불교 벽화로 학계의 주목을 끌었고, 한국 학계에서는 더욱 중시했다.

이 무덤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 가지 견해가 발표되었다. 보고서 집필자는 제3기 무덤인 약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리뎬푸李殿福는 이 무덤이 제2기 무덤이고 상대 연대는 약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이라고 보았다. 웨이춘청魏存成은 이를 다시 제3기에 포함시켰고, 연대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엽까지로 보았다. 그러나 불교 고고학을 연구한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 불교 벽화의 연대를 연구한 사람이 없다.

이 무덤은 전실과 후실로 나뉘고 불교 벽화는 전실 및 상부 천장에 위치한다. 전실과 후실을 이어주는 동벽이 '주벽主壁'이고, 상하 4층으로 구분된다. 위에서 1, 2층에는 비천飛天이 있고 3층이 핵심 부분으로 중심에 좌불 1존이 있다. 그 좌측에 묘주 부부가 오체투지五體投地하는 모습이 있고 외측으로 2명이 시립해 있는데, 이는 묘주의 자녀로 보인다. 좌불 우측에는 묘주 부부가 보물을 들고 공양하는 모습이고, 외측으로는 마찬가지로 2명의 자녀가 시립해 있다. 4층 중간에는 마주보고 있는 날개를 펼친 주작이 있고, 외측에는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의 기린麒麟이 있다. 주벽 4층 아래로는 용도甬道가 있고, 용도 좌우에 각각 문리門吏 1명이 있다.

주벽 4층에 한진漢晉 시기에 흔히 보이는 '오령五靈'에 속하는 주작과 기린이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사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격식이 들어오지

그 림 1. 장천 1호묘 평·단면도
2. 장천 1호묘 전실 동벽 및 천장 동측 벽화 백묘 모사본
3. 장천 1호묘 전실 남벽 및 천장 남측 벽화 백묘 모사본
4.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및 천장 북측 벽화 백묘 모사본
5. 1) 장천 1호묘 후실 천장 뚜껑돌 벽화 백묘 모사본
2) 무위 천제산 석굴 1호굴 공양천인도
3) 주천 고선목 석탑도
6. 무위 천제산 석굴 제1굴
1) 제1굴 평면도, 입면도
2) 최하층 가장자리 장식

앉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실 남벽에도 위에서 1, 2층은 비천이 있고, 3층에는 나란히 시립하여 공양하는 천인天人 4명이 있으며, 4층에는 백호가 있어 서쪽을 표현하고 있다. 4층 이하의 잔존 화면은 여러 사람이 가무를 통해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장면으로 보인다.

전실 북벽 위에서 1, 2층은 비천, 3층은 나란히 시립한 천인天人 4명, 4층은 청룡이 있다. 4층 이하는 다시 상, 하 두 부분으로 나뉘나 명확한 경계는 없다. 상반부 중심은 '칠보수七寶樹'로 보이는 큰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는 묘주가 칠보로 부처에 공양하는 장면이다. 하반부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여러 가지 수렵 관련 그림이 있다.

전실 서벽은 북쪽을 표시한다. 묘도가 중간을 뚫고 있어 남, 북의 두 구간으로 나뉘는데 각각 묘도를 향한 시위侍衛 1인씩이 있으나 현재는 박락이 심하다.

전실 네 벽 위쪽 천장의 제1, 3, 5층 뚜껑돌 네 모퉁이의 모줄임돌에는 모두 다리를 뻗고 앉아있는 역사상力士像이 있다. 모줄임돌 바닥면에는 측면의 연화 한 송이가 있다. 역사의 형상은 일찍이 양한兩漢 시기 마왕퇴馬王堆의 백화帛畵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 역사상이 불교에 수용된 것은 동한東漢 말에서 삼국三國 전기 사이이다.

전, 후실을 연결하는 용도 남북 양쪽 벽에는 각각 시녀 입상 1인씩이 있다. 묘문 외측에는 북쪽 문짝에 연화 세 송이가 있고 남쪽 문짝은 이미 파괴되었다.

후실 네 벽과 천장에는 모두 부감의 연화 도안이 있다. 후실의 가장 높은 뚜껑돌에는 일日(내측에 금오金烏), 월月(내측에 약을 찧는 토끼와 두꺼비) 및 '북두칠성' 등이 있다.

장천 1호묘 전실의 구조는 묘도를 바라보고 좌측에 청룡, 우측에 백호가 아니라 묘도를 등 진 기준으로 좌측에 청룡, 우측에 백호를 배치했다.

장천 1호묘 벽화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하늘이 위(일, 월, 북두 등)에 위치하고, 부처와 천인이 중간에 위치하며 묘주의 예불도는 하단에 위치하는 체계화된 논리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관념은 16국에서 남북조南北朝 시기까지 이어진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장천 1호묘 벽화의 구조는 16국 '북량北涼(397~439)' 시기 일부 석탑의 구조와 동일하다. 장천 1호묘의 5단 고임 천장은 석탑의 7단 상륜에 해당한다. 석탑에 부처가 조각된 여덟 감실은 장천 1호묘에서는 부처 1존으로 대표되었다. 탑신상의 8대 공양천인은 장천 1호묘에서는 양쪽 측벽으로 옮겨졌다. 장천 1호묘 벽화 최하단은 묘주가 예불하는 모습이다.

고고학자들은 무덤 형식에 근거하여 시기 구분 연구를 진행했고, 장천 1호묘의 시기를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로 보았다. 그러나 무덤 형식

의 변화는 완만한 것이기에, 장천 1호묘의 연대학 연구에 가장 가치 있는 참고 대상은 불교 벽화라 할 수 있다. 먼저 색상과 화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 벽화는 모두 토홍색土紅色 바탕에 토홍색과 흑색으로 선을 그었고, 색조는 순박하고 단순하다. 인물의 얼굴에는 백분白粉을 칠하고 검은 선으로 눈과 눈썹을 그렸으며 입술은 주색朱色을 칠했다. 이는 16국 시기의 전형적인 화풍이다. 불상의 경우, 불신佛身에 화염문火焰紋 '신광身光'이 있고, 정수리에 타원형 감미龕楣가 있다. 이는 감숙甘肅 병령사炳靈寺 석굴 169호굴의 6호 감실 벽화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시기는 서진西秦 건홍建弘 원년(420)이다. 얼굴은 둥글고 흰 털이 있으며 콧수염이 있는데 이 역시 위의 6호 감실에서 확인된다. 장천 1호묘에는 17명 이상의 비천이 각각 상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병령사 169굴 11호 감실 벽화에서 모두 확인된다. 장천 1호묘의 연화화생쌍동자도蓮花化生雙童子圖는 약 6폭이다. 이는 내세에 연화 속에서 태어나 극락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감숙성甘肅省 무위武威 천제산天梯山 석굴 18굴 최하층 벽화의 가장자리에도 북량 시기 연화화생동자도가 있다. 화면의 공백 부분에 꽃이나 꽃봉오리를 채워 넣는 화풍은 3세기 후반의 서역 화풍까지 올라가고 쿠차 석굴의 벽화에서도 확인된다. 8대 공양천인은 머리에 화만관花蔓冠을 썼는데, 감숙성 장액張掖 금탑사金塔寺 동굴東窟 중심 기둥 남쪽 하층 감실의 우측 보살상도 같은 관을 쓰고 있다. 연대는 북량 시기이다. 투루판의 북량 시기 송경宋慶 석탑 탑신의 8대 공양천인도 유사한 화만관을 쓰고 있다. 8대 천인은 모두 발을 외측으로 벌린 팔자 모양인데, 이는 전형적인 간다라 미술 양식이다. 병령사 169굴 및 북량 석탑에도 다수가 이런 자세이다. 그러나 주천酒泉 단정아段程兒 석탑(436)에서는 이런 자세가 사라졌다.

이상과 같이 장천 1호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 요소를 계승 · 포함하고 있다. 선불식仙佛式 배치, 오령문五靈紋, 부처의 형식 등에서는 한진漢晉 이래 전통 관념과 제작 방식을 계승했다. 그러나 천天, 불佛, 인人의 3층 공간은 북량 석탑의 방식과 일치하여 시대적 특징이 도드라진다. 서역 예술의 영향은 연화화생, 8대 공양천인의 화만관과 영락, 자세 등에서 확인된다. 고구려 민족의 문화 요소는 묘주 부부와 시종의 복식, 가무와 제사 장면, Y자 문양의 연꽃봉오리에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장천 1호묘의 연대 상한은 400~410년 전후이고, 하한은 430년 전후로 대략 북량 시기에 상응한다. 고구려 역사로는 호태왕好太王에서 장수왕長壽王 전기까지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리뎬푸의 추정과 부합한다. 427년에 고구려가 국내성國內城에서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점을 고려하면 장천 1호묘는 천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러 문헌기록에 따르면, 불교는 366년 이전에 고구려에 전래되었고 금동불상의 제작은 400년 이전의 일이다. 덕흥리德興里 벽화묘의 묘주 모용진慕容鎭

(332~403)이 스스로 '석가문불제자釋迦文佛弟子'라 칭하고, 평양시 평천리平川里에서 서진西秦 영강永康 7년(417)의 금동미륵불이 출토된 것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천 1호묘의 연대학 연구는 고구려의 시기 구분 연구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불교 고고학 연구 역시 촉진시킨다. 장천 1호묘의 불교 벽화는 중국 내륙의 조기 불교 벽화 가운데 병령사 169굴의 대형 불교 벽화보다 약간 늦고, 돈황(북량 시기)보다 빠르며, 운강雲崗, 용문龍門보다는 훨씬 더 빠른 벽화이다.

温玉成, 2001, 「集安长川一号高句丽墓佛教壁画研究」, 『北方文物』2, 32–38, 70.

저 자 원위청溫玉成
용문석굴연구소, 소림문화연구소

연 도 2001
간행물명 『돈황연구』1
『敦煌研究』1

집안集安 장천長川 고구려 1호묘의 불교 벽화

集安长川高句丽一号墓的佛教壁画

주 제 어 집안 장천 1호묘
고구려
벽화
불교

장천長川 1호묘는 1970년에 정리되었고, 1982년에 보고서가 발표된 대형 봉토묘封土墓로, 묘주는 지위가 '대형大兄' 혹은 그 보다 더 높은 관리였다.

이 무덤의 연대에 대해서 원 보고서에서는 약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라고 보았고, 리뎬푸李殿福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이라고 보았다. 웨이춘청魏存成은 이를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이 무덤은 전실과 후실이 있고, 불교 벽화는 전실 및 그 상부 천장에 있다. 벽화의 중심 내용은 전실과 후실이 연결되는 동벽에 위치한다.

장천 1호묘 벽화의 구도는 하늘이 위(해, 달, 별)에 위치하고 부처와 천인天人이 중간에 위치하며 묘주가 아래에서 부처에게 예를 다하는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도는 16국에서 남북조南北朝 초기까지 중국인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유가 및 도교의 하늘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부처는 하늘 아래의 신神이라 생각했다.

장천 1호묘 벽화의 구도는 16국 북량北涼(397~439) 시기 일부 석탑의 구도와 일치한다. 감숙성甘肅省 주천酒泉, 돈황敦煌 및 신강新疆 투루판[吐魯蕃]에서 발견된 북량 석탑은 모두 10기이고 그 형식도 거의 유사하다. 예를 들어 주천 고선목高善穆 석탑은 승현承玄 원년(428)에 세워진 것으로 제일 꼭대기에 북두칠성이 있고, 그 아래 7단의 상륜相輪, 그 아래 복발覆鉢에는 8개의 작은 감실을 파고, 과거 7불 및 교각미륵보살交脚彌勒菩薩을 조각했다. 그 아래는 탑신으로 경문과 8명의 공양천인을 새겼다. 각 천인의 머리 옆에는 팔괘 부호가 하나씩 새겨져 있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장천 1호묘와 석탑은 모두 하늘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5단의 고임 천장은 석탑의 7단 상륜에 해당한다. 석탑에 부처가 조각된 8감실은 장천 1호묘에서는 좌불 1존으로 대표된다. 탑신의 8대 공양천인이 장천 1호묘에서는 양 측벽으로 이동했다. 장천 1호묘 벽화

그 림 1. 장천 1호묘 전실 동벽 및 천장 동측 벽화 모사도(1/40)
2. 장천 1호묘 전실 남벽 및 천장 남측 벽화 모사도(1/40)
3.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및 천장 북측 벽화 모사도(1/40)
4. 장천 1호묘 벽화와 관목 문양
1) 용도 북벽 시녀(1/20)
2) 후실 천장부(1/20)
3) 관목 잔편상의 문양(1/10)
5. 주천 고선목 석탑

가장 하부는 묘주(공양인)의 예불 모습이다.

8대 공양천인은 팔괘 부호로 남녀 노인, 중년, 청년, 소년을 대표한다. 장천 1호묘에 그려진 8명 역시 남, 녀, 노, 소의 의미를 가진다. 8대 공양천인이 병렬된 화면은 조기 석굴사원 벽화 및 불상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고고학에서는 현재 이 무덤의 시기를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 사이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덤 형식의 변화는 매우 더뎌서 오히려 장천 1호묘의 연대 연구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불교 벽화라 할 수 있다. 벽화 속 불상은 몸에 화염문火焰紋이 있고, 머리 위에는 원형 감미龕楣가 있는데 이런 형식은 감숙성 병령사炳靈寺 제169굴 제6감실 벽화에서 보인다. 이는 서진西秦 건홍建弘 원년(420)에 제작된 벽화이다. 부처 얼굴의 특징 역시 제6감실과 동일하다. 가사는 통견식通肩式이고 두 손은 선정인禪定印인데, 이는 삼국三國 시기 이래 조기 불상의 보편적인 형식이다. 두 손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 역시 선불仙佛 유형의 유풍이다.

장천 1호묘 17비천의 형상은 병령사 제169굴 제11감실 벽화에서 다수 확인된다. 그 시기는 420년이다. 이 무덤에는 6폭의 연화화생동자도蓮花化生童子圖가 있다. 이는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 나온 것으로, 신강新疆 화전和田 동북쪽 단단우리크[丹丹烏里克] 유적과 아크트르크[阿克特勒克] 유적에 다수의 연화화생동자가 등장하고, 감숙 무위武威 천제산天梯山 석굴 제18굴 최하층 벽화의 가장자리에도 북량의 연화화생동자도가 있다.

천제산 석굴 제1굴 벽화에도 측면의 연꽃이 있는데, 역시 북량 시기 작품이다. 그러나 장천 1호묘의 Y자 문양 연꽃과는 차이가 큰데, 이는 무용총舞踊塚 등 고구려 조기 벽화의 전통에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공백 부위에 꽃잎, 봉오리를 채운 것은 3세기 후반 서역의 화풍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공양천인의 상반신에는 X자형의 짧은 영락纓絡이 있고, 아래는 긴 치마를 입었으며 피백帔帛이 몸 뒤 양쪽으로 흩날린다. 피백과 영락으로 몸을 단정히 장식하는 것은 서역의 구풍으로 주천 고선목 석탑, 마덕혜馬德惠 석탑에서도 확인된다. 바깥으로 벌어진 팔자형 발모양으로 서 있는 자세는 이 무덤 8대 공양천인의 공통된 자세인데, 이는 전형적인 간다라 양식이다.

북연北燕은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연의 풍소불馮素弗(?~415) 묘에서는 보요관步搖冠이 출토되었는데, 이 관의 전면 장식편에 좌불 1존과 보살상 2존이 있다. 이 무덤은 요령성遼寧省 북표현北票縣 서관영자촌西官營子村 장군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다.

장천 1호묘는 복잡한 문화요소를 계승, 포괄하고 있다. 선불식仙佛式 배치, 오령문五靈紋 채택, 부처의 형상 등은 한진漢晉 이래의 전통 관념과 방식을 계승했지만, 하늘과 부처와 사람의 3층 공간에서는 북량 석탑의 제작 방식과 동일한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화풍의 측면에서 연화화생동자와 8대 공양천인이 서있는 자세, 화만관, 영락, 피백은 분명히 서역 예술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 민족문화 요소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 주로 묘주 부부와 시종들의 복식, 동방전지칠보東方典知七寶, 가무를 통한 신에 대한 제사, Y자형 연꽃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면, 장천 1호묘의 연대 상한은 400~410년 전후가 되고, 하한은 430년 전후가 되어 대체적으로 북량 시기에 해당하며, 고구려 역사에서는 호태왕好太王 재위 기간(391~412)에서 장수왕長壽王 재위 기간(413~491)의 전기까지에 해당한다. 427년 고구려가 국내성國內城에서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점을 고려하면 장천 1호묘는 천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천 1호묘의 불교 벽화는 중국 조기 불교 벽화 가운데 병령사 제169굴의 불교 벽화보다 약간 늦고, 돈황이나 맥적산麥積山보다는 이르며, 운강雲崗, 용문龍門보다는 훨씬 더 빨라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기 불교 벽화가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에서 등장한 것은 고구려 불교사 및 불교 예술의 전파노선 연구에 모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温玉成, 2001, 「集安长川高句丽一号墓的佛教壁画」, 『敦煌研究』1, 64–71, 188.

저 자 인궈유尹国有
연 도 1997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3
『通化师范学院学报』3

고구려 묘실 벽화 속 상조尚鳥 예술

高句丽墓室壁画中的尚鸟艺术

그 림 1. 삼족오
2. 우의를 입은 일월신
3. 고구려 벽화 속 주작 형상
4. 진대 주작과 삼련관에 이사를 한 선조 형상
5. 기학선인상

고구려 무덤의 벽화에 묘사된 다량의 일신日神, 월신月神, 삼족오三足烏 형상은 고구려 민족이 태양을 숭배하고 새를 토템으로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 벽화 속에 태양과 봉조鳳鳥가 복합된 도상은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원의 회화에서는 태양과 봉조가 복합된 형상이 다량 발견되었고, 그 시기도 모두 고구려 벽화 무덤보다 이르다. 고구려 벽화 속에는 태양과 봉조의 복합 도상 이외에 조류 형상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각저총角觝塚 벽화에는 큰 나무 한 그루, 그 위에 새, 나무 아래 동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필자는 이 장면의 새가 단순히 풍경에 추가되는 한 대상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봉조(태양) 토템으로 등장한 것이고, 각저총 벽화 속 나무, 새, 두 마리 동물은 바로 탕곡부상도湯谷扶桑圖라고 생각한다. 마선麻線 1호묘 벽화 속 좌우의 처마 끝에 있는 새 역시 토템으로 등장한 것이다.

고구려 벽화 속 인물 중에는 다수가 깃털을 장식하고 있다. 고구려는 깃털을 숭상하여 깃털로 장식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우의羽衣를 입은 일월신日月神도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고구려가 새를 토템으로 한 민족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용총舞踊塚 동벽의 대규모 가무도 속 첫 번째 인물은 머리에 꿩의 꼬리 2개를 장식했다. 묘실 들보 아래의 말을 탄 무사는 머리에 깃털[羽翎]을 꽂았다. 마선 1호묘 동벽의 수렵도 속 아래쪽 2인 가운데 좌측 인물이 쓴 '절풍折風'에도 깃털이 꽂혀 있다. 우측 인물은 좌측 팔에 매 한 마리가 앉아있다. 우의를 입은 인물은 다수 벽화에서 확인된다.

새털은 조류의 상징이고, 토템의 대상인 새는 그 민족의 선조이자 보호신이다. 이처럼 고구려 민족은 태양, 양조陽鳥, 깃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

고, 깃털 장식은 새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 그 대상을 모방하는 방식이었다.

사신총四神塚에 나오는 기학선인騎鶴仙人 역시 사람과 학의 복합 도상으로 선인과 선학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과 여기서 암시하는 내용은 고구려의 선조가 학이고, 학은 고구려가 숭배하는 조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구려 벽화 속에 묘사된 무용에는 2인무도 있고 군무도 있다. 그들의 동작은 학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이처럼 숭배의 대상을 모방한 무용 동작은 고금동서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무용에서는 일종의 모방 능력이 드러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진晉에서 칠현금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이 소리를 듣고 현학玄鶴이 와서 춤을 추어 이를 현학금이라 불렀다가 후에 다시 현금玄琴으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다. 이 역시 고구려인의 학에 대한 숭배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원의 봉조 토템과 토템 예술은 3대 계파로 나눌 수 있다. 남방계는 주로 장강長江 중하류 지역의 봉조이고 동방계는 주로 황하黃河 유역과 회하淮河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 연안 지역 봉조이며, 서방계는 황하 상류,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봉조이다. 3대 계파의 봉조는 모두 태양과 어떤 새와의 복합 구조이다. 북방계의 경우, 홍산紅山 문화 및 동북 지역 선사 문화(혼강渾江과 압록강鴨綠江 유역 포함) 속 봉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아직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고구려 벽화 속 내용 및 기타 문화 유적에 근거하면 북방계 봉조는 학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혼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의 봉조가 학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尹国有, 1997, 「高句丽墓室壁画中的尚鸟艺术」, 『通化师范学院学报』3, 77–80.

저 자 인궈유尹国有
연 도 1997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2
『通化师范学院学报』2

고구려 탕곡부상도湯谷扶桑圖 및 탕곡부상 관념의 전파 고찰

高句丽汤谷扶桑图 及汤谷扶桑观念播迁考略

각저총角觝塚 묘실 동벽에는 큰 나무 하나에 위쪽으로 새가 있고 아래에 동물 2마리가 있으며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나무 우측에 2명의 역사力士가 씨름하는 모습이 있다. 필자는 '나무, 새, 동물 2마리'가 '탕곡부상도湯谷扶桑圖'라고 생각한다. 이는 해를 숭배하고 새를 토템으로 하는 씨족의 탕곡湯谷 일출 관념을 묘사한 것이다.

탕곡은 동쪽의 해가 뜨는 골짜기이고 우곡禹谷은 서쪽의 해가 지는 골짜기이다. 탕곡 일출 관념은 선조들의 봉조鳳鳥 숭배에서 파생된 관념이다. 즉 중국은 일찍이 태양을 토템으로 삼았고, 선조들은 태양이 동쪽의 탕곡부상에서 올라오거나 준조踆鳥가 태양을 등지고 올라온다고 생각했다.

탕곡은 원래 중국 동이東夷, 풍이風夷, 양이陽夷 등 태호太昊, 소호少昊족의 발상지 즉 현 강소성江蘇省 연운항連雲港 운대산雲臺山 일대이다. 이 관념은 선조들의 태양 숭배에서 기원했고 일출의 고향을 찾는 토템 숭배 의식에서 기원했다. 이런 관념은 7천 년 전의 하모도河姆渡 문화와 3천 년 전의 신점辛店 문화에서 이미 명확하게 묘사되고 있다.

『산해경山海經』에는 탕곡 위에 부상이 있다고 했다. 부상은 즉 부목扶木으로 탕곡에서 자라는 큰 나무를 말한다. 일출 모습은 태양이 탕곡 위의 나무 끝으로 올라오는 모습인 것이다.

신점 문화는 황하黃河 상류 및 그 지류 지역인 청해靑海, 감숙甘肅 지역에 위치하고 시기는 서주西周 조기에 해당한다. 신점 문화의 부상도에도 역시 개나 새가 있고, 고구려 부상도에도 새와 동물(개) 2마리 및 부상수扶桑樹가 있어, 기본 특징이 역시 동일하다.

한대漢代 백화帛畵 속 부상수는 줄기가 굽어있고 가지에는 청룡이 있으며 나무 끝에는 붉은 태양이 있고 태양 안에 까마귀 한 마리가 있다. 가지 사이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에는 태양 8개가 숨어 있고, 태양신인 복희伏羲(태호太昊)가 위쪽 정중앙에 위치한다. 태양의 총 숫자는 10개이다. 섬서성陝西省 수덕綏德의 동한東漢 시기 부상도는 나무 끝에 복희가 소의 머리 혹은 머리에 모자를 쓴 모습으로 등장한다. 산동성山東省 무량사武梁祠에도 부상도가 있다.

이상의 탕곡부상도를 종합해보면, 잎이 무성한 부상수에 양조(혹은 양조 복합체-태양), 혹은 동물(개)이라는 3개의 요소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원래 태양을 숭배하고 새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다. 호태왕비好太王碑에는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천제天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천제가 바로 태양신이다. 염모총冉牟塚 묵서에는 그 조상을 '일월지자日月之子'라 하여 태양신의 아들이라 언급하고 있다. 또 추모왕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이는 새 토템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는 태양을 숭배하고 새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탕곡 일출의 관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탕곡부상도에는 탕곡부상의 기본 특징이 모두 갖춰져 있다. 무성한 나뭇잎은 전국戰國시대 증후묘曾侯墓 속 부상수와 매우 유사하고, 4마리 양조는 하모도문화 도분陶盆 속 부상도의 두 마리 태양조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과 일치한다. 또한 여러 부상도에 개가 등장하고 고구려 부상도에도 개 2마리가 등장한다. 이처럼 고구려 각저총 벽화 속 나무, 새, 동물의 그림은 전형적인 탕곡부상도로 확인된다. 부상도는 무덤,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다수의 탕곡부상도는 대부분 무덤 묘실에서 출토되었다. 고구려 벽화의 주제도 대부분 토템, 별, 승천, 전쟁, 수렵, 오락, 신선, 출행 등과 관련되어 있고 단순한 경치 묘사는 드물다. 그러므로 고구려 각저총 동벽 벽화 좌측 부분은 결코 경치의 묘사가 아니라 탕곡부상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의 부상도와 아메리카 대륙 고대 인디언들의 부상도는 일맥상통하고, 예술 표현과 이미지 구성 요소 등이 중국 6~7천 년 이래의 부상도와 거의 동일하다. 상고시대 중국인의 대규모 아메리카 대륙 이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중화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문구大汶口 문화 시기 소호少昊인들은 부단히 북, 서쪽으로 이주했고 상당수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소호족을 대표로 하는 동이 집단의 기본 세력이 동북 평원과 동북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동북이東北夷와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주민을 형성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토템 문화 유형인 소호 부족, 소호 동이 집단 구성원, 동북이東北夷 중의 고구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고대 인디언들의 문화 흔적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 태양을 숭배하고 해 뜨는 곳을 찾으려는 관념과 토템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 부상도를 통해 확인되는 탕곡부상 관념의 전파 노선은 중원의 장강長江 유역, 황하 유역에서 동북아, 다시 아메리카 인디언의 토착 거주지까지로 이어진다. 이 전파 노선의 중간이자 소호족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위치한 고구려 거주 지역의 유적에 탕곡부상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尹国有, 1997, 「高句丽汤谷扶桑图及汤谷扶桑观念播迁考略」, 『通化师范学院学报』2, 71–74.

저 자 자오둥옌赵东艳
요령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 도 1995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의 시기 구분 시론

试论集安高句丽壁画墓的分期

집안集安 고구려 벽화묘는 주로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나 방단계제석실벽화묘方壇階梯石室壁畫墓에 존재한다.

각 단계별 벽화묘의 발전은 묘정墓頂 구조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묘정의 변화는 벽화묘 발전 문제 중 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 하나만을 무덤 발전 변화의 결정 요소로 볼 수는 없다. 그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덤 형식과 벽화의 내용이다.

무덤의 형식 구조에 근거하면 집안 고구려 벽화묘는 크게 3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종은 용도甬道 양측에 감실 혹은 이실이 있는 단실묘로, 산성하山城下 M983, M332, 장천長川 M2, 통구通溝 M12, 마선麻線 M1 등이 이에 속한다. 적석묘 중 절천정총折天井塚 역시 이실 하나가 딸린 단실묘이다. 제2종은 다실묘로 쌍실인 각저총角觝塚, 무용총舞踊塚, 산연화총散蓮花塚, 염모총冉牟塚, 하해방下解放 M31, 장천 M1, 삼실총三室塚 등이 포함된다. 제3종은 단실묘로 귀갑연화총龜甲蓮花塚, 미인총美人塚, 만보정萬寶汀, M1368, 환문총環紋塚, 동분이혈同墳異穴의 장천 M4, 사신총四神塚, 오회분五盔墳 5호묘와 4호묘, 동대파東大坡 M365 등이 포함된다. 이 3종 유형의 무덤은 대체적으로 제1종–제2종–제3종의 순서로 등장했으나 양자가 섞여서 공존하기도 했다.

고구려 벽화묘는 이실이 있는 적석묘의 기초 위에 등장했다. 이실이 있는 무덤은 한위진漢魏晉 시기 한족漢族 벽화묘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작은 감실이 있는 단실묘가 나왔으며, 이실의 끊임 없는 개선으로 다실묘가 등장한다. 후기의 단실묘는 다시 동시기 중원 무덤의 영향을 받아 등장했다. 고구려 벽화묘는 중원 한족 문화 요소의 침투를 통해 형성된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벽화의 내용 역시 벽화묘 발전 변화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고

구려 벽화묘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5종 형식으로 귀납할 수 있다. 제1종은 현실 생활 제재로, 연회, 가무, 전투, 수렵도 등이 있고, 연꽃이 있는 천장이 다수이다. 제2종은 도안 장식의 벽화묘로, 전체를 운문雲紋, 왕자문王字紋, 연화문蓮花紋으로 채웠다. 제3종은 현실 생활과 사신도四神圖가 결합된 벽화묘이다. 묘주의 예불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신령 소재의 벽화는 제1종 형식 벽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고구려 벽화묘 발전의 새로운 단계이다. 제4종은 도안과 사신도의 결합이다. 제5종은 사신도 벽화이다.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가 등장하거나, 운문이나 연화화염문蓮花火焰紋이 바탕에 들어간다.

무덤 형식과 벽화 내용에서 드러나는 특징에 근거하면, 집안 고구려 벽화묘는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적석벽화묘인 우산禹山 M41, 절천정총, 봉토벽화묘 제1유형의 산성하 M983, M332, 통구 M12, 장천 M2, 마선 M1, 제2유형의 각저총이 포함된다. 이 시기는 이실이 있는 단실묘에서 다실묘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 다실묘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벽화에는 사신도가 보이지 않고, 연회, 가무, 수렵, 출행 등 묘주의 생전 일상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왕자문, 연화문 등으로 벽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묘실 천장에는 연화가 많다. 다만 각저총은 비교적 특수하여 천장에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三足烏,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가 있는 성상도星象圖가 있으며 다량의 만초문蔓草紋이 있으나 연화문은 보이지 않는다. 만초문은 장식 기능을 하는 도안이고, 일월성상은 한족 무덤의 영향 하에 등장한 것이다. 제2기는 제2유형의 무용총, 귀갑연화총, 산연화총, 염모총, 하해방 M31, 장천 M1, 삼실총, 제3유형의 만보정 M1368, 미인총, 장천 M4, 환문총 등이 포함된다. 이 유형은 다실묘에서 단실묘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현실 생활 제재가 여전히 존재하며 규모면에서도 약간 발전했다. 동시에 도안 장식의 벽화도 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천장에 등장하는 사신도이다. 그 외에 각종 신령, 선인도 등도 있다. 염모총 전실 후벽에 있는 묵서 묘지墓誌는 이 시기 벽화의 특수 형식이다. 제3기는 주로 단실묘인 사신총, 오회분 4호묘와 5호묘, 동대파 M365 등이 포함된다. 벽화에서는 현실 생활 모습이 사라지고, 사신도가 묘실 네 벽을 차지했다. 천장 벽화는 제2기의 신수神獸와 비천飛天 이외에 복희伏羲, 여와女媧 및 각종 천인도天人圖가 주를 이른다.

집안 고구려 벽화묘의 연대는 세 시기 무덤의 형식과 벽화의 제재 등에 근거할 때 제1기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초, 제2기는 5세기 상반기에서 6세기 상반기, 제3기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赵东艳, 1995, 「试论集安高句丽壁画墓的分期」, 『北方文物』3, 64–68.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2
간행물명 『북방문물』2
『北方文物』2

벽화 속 초거軺車 도상의 변화를 통해 본 고구려 벽화묘 3기의 편년

从壁画中轺车图像的演变看三座高句丽壁画墓的编年

주 제 어 초거 도상
고구려 벽화묘
편년
계보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11CKG005)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 청년기금 항목(11YJC780006)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현재 학계에서는 고구려 무덤 묘실 벽화 주제의 전체적인 변화 추세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나, 벽화묘의 시대 비정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본문에서는 고구려 묘실 벽화에 등장하는 초거軺車 그림을 대상으로, 기년이 있는 무덤의 동일한 벽화 내용이나 출토 유물의 형식 변화를 비교하여 통구通溝 12호묘, 고산동高山洞 7호묘, 약수리藥水里 벽화묘의 편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일부 관련 무덤의 편년을 추정하고자 한다.

초거는 한대漢代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위 관리가 타는 사방이 트인 작은 수레로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으며, 말이나 소가 끈다.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묘실에 초거 그림이 있는 무덤은 안악安岳 3호묘, 덕흥리德興里 벽화묘, 약수리藥水里 벽화묘 등 3기이다. 함양咸陽 평릉平陵 1호묘와 대동大同 안북사원雁北師院 송소조宋紹祖 무덤에서는 도제 초거가 발견되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밖에 통구 12호묘, 고산동 7호묘에는 사람이 끄는 손수레가 있는데 초거와 형태가 유사하다.

초거는 수레 측면부와 바퀴의 상대 높이 변화를 근거로 5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식은 안악 3호묘 동회랑 남측, 동측실 정벽(북벽)의 초거이다. 수레 양 측면 높이가 낮고 중간 부분 상단 가장자리의 곡선은 완만하고 매끄러우며 바퀴 상단보다 약간 높다. 수레 양 측면의 전면, 후면 끝은 모두 바퀴 상단 아래로 내려온다.

Ⅱ식은 평릉 1호묘에서 출토된 도제 초거이다. 수레 양 측면 뒷부분의 높이가 높아지고, 곡선이 완만해지며, 가장 높은 곳의 상단과 바퀴 상단 사이 간격은 더 커지지만 뒷부분은 여전히 바퀴 상단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한다.

Ⅲ식은 덕흥리 벽화묘 전실 동벽의 초거이다. 수레 양 측면 중간 부분이

그 림 1. 초거의 형식 변화
1) 안악 3호묘(357)
2) 평릉 1호묘
3) 덕흥리 벽화묘(408)
4) 고산동 7호묘
5) 통구 12호묘(마조총)
6) 송소조묘(477)
7) 약수리 벽화묘
2. 1) 통구 12호묘(마조총) 평·단면도
2) 산성하 332호묘 평·단면도
3. 일부 고구려 무덤의 계보 편년
(1, 2. 적석묘; 3~13. 봉토석실묘)
1) 우산 2112호묘
2) 우산 540호묘
3) 마선구 1호묘
4) 산성하 332호묘
5) 통구 12호묘 남실
6) 산성하 983호묘
7) 고산동 7호묘
8) 고산동 15호묘
9) 고산동 10호묘
10) 고산동 9호묘
11) 각저총
12) 무용총
13) 산연화총
4. 만보정 1368호묘와 관련 무덤의 종합 비교
1)~3) 만보정 1368호묘
(1. 평·단면도; 2. 벽화 속 목조 건축물 모방 기둥과 들보; 3. 출토 석조)
4), 5) 대성리 2호묘
(4. 평·단면도; 5. 벽화 속 목조 건축물 모방 기둥과 들보)
6), 7) 약수리 벽화묘
(6. 평 · 단면도; 7. 벽화 속 음식 조리 도상)
8) 안악 2호묘 평·단면도
5. 요동성총(1, 3, 5)과 약수리 벽화묘(2, 4, 6) 벽화 형상 비교
1), 2) 청룡
3), 4) 백호
5), 6) 성곽도

높아지고 가장 높은 곳의 상단과 바퀴 상단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며, 양 측면 앞쪽 끝이 바퀴 상단보다 약간 올라간다.

Ⅳ식은 고산동 7호묘 전실 동벽 남측의 초거(손수레), 통구 12호묘 남실 좌벽의 초거(손수레)이다. 수레 양 측면 중간 부분이 매우 높게 올라가서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뒤쪽은 바퀴 상단 위에, 앞쪽은 바퀴 상단 아래에 위치한다.

Ⅴ식은 송소조묘 출토 도제 초거, 약수리 벽화묘 전실 남벽의 초거이다. 수레 양 측면 앞쪽과 뒤쪽의 높이가 모두 급하게 높아져서 상단의 곡선이 완만해졌고, 수레 전체가 바퀴 상단보다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상과 같이 초거의 형식은 수레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Ⅰ~Ⅲ식 초거는 대략 4세기 중엽~5세기 초에 유행한 것고, Ⅳ식 초거(손수레) 그림이 있는 무덤의 연대는 대략 5세기 후엽 조기로 판단할 수 있다. Ⅴ식 초거 그림이 있는 무덤은 5세기 후엽 만기로 추정된다.

이상 벽화묘의 시대 비정은 고구려 벽화묘 전체 편년의 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계보는 먼저 단실에 묘도 양측으로 부속 시설이 있는 계열로, 순서는 우산禹山 2112호묘→우산 540호묘→마선구麻線溝 1호묘→통구 12호묘, 장천長川 2호묘, 산성하山城下 332호묘→산성하 983호묘로 이어지고, 최초의 근원은 아마도 우산 3319호묘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순수한 단실묘로 발전한다. 이 기간에 부속 시설의 규모는 점차 발전하다가 다시 쇠락하는 과정을 거친다. 무용총舞踊塚과 각저총角觝塚, 산연화총散蓮花塚의 횡향 장방형 전실 구조는 마선구 1호묘의 발달된 측실에서 발전된 것이다.

고산동 7호묘 역시 마선구 1호묘의 형식 특징을 계승했으나 다른 한 갈래의 발전 맥락을 대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좌우의 두 작은 방이 측실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이실 입구의 묘도 부분이 묘실처럼 변화하는 경향이다. 이는 묘도의 기타 부분과 달리 '연실羨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실이 있는 2실묘로는 고산동 10, 15호묘가 있고, 좀 더 늦은 시기의 무덤으로 고산동 9호묘도 있다. 이 무덤들의 변화 과정은 전실(연실)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다가 마지막에는 사라져 단실묘로 변화한다. 구체적인 계보는 마선구 1호묘→고산동 7호묘→고산동 15호묘→고산동 10호묘→고산동 9호묘이다.

만보정萬寶汀 1368호묘는 평면 형식이나 벽화 내용에서 모두 대성리臺城里 2호묘와 유사하다. 대성리 2호묘는 묘실 좌우 벽에 각각 하나씩 감실이 있는데, 이런 구조는 약수리 벽화묘와 안악 2호묘에서도 확인된다. 만보정 1368호묘 출토 석조石竈는 약수리 벽화묘 전실 동벽에 그려진 조灶와 유사하다. 따라서 만보정 1368호묘의 시대는 5세기 후엽 만기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약수리 벽화묘의 벽화 형상과 요동성총遼東城塚 벽화에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청룡과 백호의 형상이 그렇고, 요동성도遼東城圖와 약수리 벽화묘 '성도城圖'의 성벽 역시 전체적인 특징이 비슷하다. 그러나 벽화에서 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수리 벽화묘가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성도' 역시 약수리 벽화묘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요동성총의 연대는 약수리 벽화묘보다 약간 이른 5세기 후엽 조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분석에 근거하면 고구려 봉토석실묘는 5세기 중엽 이후 대규모로 등장하고 무덤 형식은 마선구 1호묘를 정점으로 분화하기 시작하여 점차 각자의 계보를 형성한다.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봉토석실묘에는 모두루총牟頭婁塚으로 대표되는 편전실扁前室(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보다 작다) 2실묘 유형도 있다. 2실묘 유형은 모두루총→하해방下解放 31호묘→장천 1호묘의 계보로 이어진다. 가장 먼저 등장한 모두루총은 직접적으로 한반도 덕흥리 벽화묘에서 근원했고 시기는 약 5세기 전반 만기로 마선구 1호묘보다도 이르다. 따라서 집안 지역 고구려 봉토석실묘에는 현지 적석묘가 자연적으로 변화한 것과 외지의 성숙한 봉토묘가 직접 전래된 양대 근원이 있는 것이다. 427년 장수왕長壽王의 평양平壤 천도는 고구려 옛 수도의 무덤 제도 전환을 어느 정도는 촉진시켰을 것이다. 4세기 후엽 이래 고구려가 한반도 서북부를 직접 관할하면서 현지 한족漢族 문화를 흡수하였고, 이는 5세기 전반 집안 지역 고구려 무덤이 적석묘에서 봉토묘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赵俊杰, 2012, 「从壁画中轺车图像的演变看三座高句丽壁画墓的编年」, 『北方文物』2, 15–20.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5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8집
『边疆考古研究』18辑

고구려 봉성리鳳城里 벽화묘 시대 추론

高句丽凤城里壁画墓时代刍议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 (11CKG005)

봉성리鳳城里 벽화묘는 북한 황해남도黃海南道 안악군安岳郡 봉성리鳳城里에 위치한다. 안악安岳 1, 2호묘가 그 서남쪽 4㎞ 지점에 위치하고, 안악 3호묘는 동남쪽 약 8㎞ 지점에 위치하며, 북으로 월암산月巖山 너머 3㎞ 지점에는 복사리伏獅里 벽화묘가 있다.

이 무덤은 봉토가 방대형으로 직경은 약 15m이며 내부는 도형刀形의 단실 구조이고 묘도는 남벽의 동쪽으로 치우쳐있다. 묘실 입구에서 80㎝ 지점의 묘도 양쪽 벽면은 각각 안쪽으로 5㎝ 좁아져 마치 용도甬道와 같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묘실은 장방형이며 천장은 붕괴되었으나 묘실에서 발견된 천장돌에 근거하면 고임 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묘도와 묘실에는 원래 모두 벽화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박락되어 묘도에는 벽화의 흔적만 남아있으며 묘실 내부에 떨어진 벽화 잔편에서는 산, 나무, 구름, 그리고 산봉우리의 매 등이 확인된다. 발굴자는 벽화묘의 전체 형식과 시대가 4세기 복사리 벽화묘, 성총星塚, 안악 1호묘, 우산리牛山里 1, 2, 3호묘와 유사하고 잔존 벽화의 제재는 모두 안악 1호묘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하나 회화 기법이 후자에 비해 덜 성숙되어, 안악 일대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연대가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굴자는 이 무덤의 시대를 4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구려 벽화묘의 연구 상황을 보면, 무덤 형식과 벽화 주제의 변화가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단순히 무덤 형식 혹은 벽화 내용만을 근거로 정확하게 무덤의 시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무덤의 묘문 내측으로 묘도가 좁아지면서 용도와 같은 공간이 형성된 점은 우산리 1호묘, 안악 2호묘와 유사하다. 평양平壤 및 그 주변 지역 고구려 무덤 중 묘도와 묘실 사이에 용도가 등장하는 것은 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이 처

그 림 1. 봉성리 벽화묘 형식 복원도
2. 북한 내 묘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고구려 단실 벽화묘 사례
3. 북한 내 용도가 딸린 고구려 단실 벽화묘 사례

음이고 전동명왕릉의 조성 시기는 5세기 중엽 말기로 확인되고 있어, 봉성리 벽화묘의 조성 시기 역시 5세기 중엽 말기보다 이를 수는 없다.

이 무덤의 벽화 제재 중에는 수렵도도 있는데, 기존의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약수리藥水里 벽화묘에도 수렵도가 등장한다. 또 약수리 벽화묘에는 후실 정벽의 묘주 도상과 현무가 나란히 위치하는 등 벽화의 제재가 변화하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시기는 5세기 후반 말기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성리 벽화묘의 연대 상한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봉성리 벽화묘의 용도 형태가 우산리 1호묘와 유사하다고 했는데, 우산리 1호묘의 발굴 보고서에서는, 이 무덤 벽화에 인물 풍속과 사신도四神圖가 공존하고 있고 사신도가 천장이 아니라 벽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내 고구려 벽화묘의 묘실 벽화는 인물 풍속 제재가 점차 상단으로 이동하고 크기는 축소되며, 사신도가 하단으로 이동하고 크기는 확대되는 변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우산리 벽화묘의 시대는 당연히 약수리 벽화묘보다 빠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개마총鎧馬塚의 인물 풍속 벽화는 이미 천장의 고임돌로 옮겨갔고 벽면은 모두 사신도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마총의 시대는 다량의 인물 풍속 제재가 존재하는 봉성리 벽화묘보다 늦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봉성리 벽화묘의 형식과 벽화 제재에서 보이는 시대적 특징은 모두 이 무덤의 연대 상한이 5세기 중엽 말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절대 연대는 6세기 전반일 가능성이 크다.

赵俊杰, 2015, 「高句丽凤城里壁画墓时代刍议」, 『边疆考古研究』18辑, 230–234.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량젠쥔梁建军
길림성 대안시 박물관
연 도 2013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3집
『边疆考古研究』13辑

북한 내 고구려 벽화묘의 분포, 형식 및 벽화의 주제

朝鲜境内高句丽壁画墓的分布、形制与壁画主题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 (11CKG005)
길림대학 기본 업무비 항목 (2011QG006)

북한 내 고구려 벽화묘는 주로 대동강大同江, 재령강載寧江 유역에 분포하는데, 구체적으로 평안남도平安南道 순천시順天市를 중심으로 한 대동강 상류 지역(1구역), 평양시平壤市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평성시平城市를 포함한 대동강 하류 지역(2구역), 남포시南浦市 및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온천군溫泉郡, 평원군平原郡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3구역), 황해남도黃海南道 안악군安岳郡을 중심으로 황해북도黃海北道 은파군銀波郡, 사리원시沙里院市를 포함하는 재령강 하류 지역(4구역), 황해북도 연탄군燕灘郡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지류-황주천黃州川 중류 지역(5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구역에는 4기(발표 3기), 2구역에는 31기(발표 23기), 3구역은 32기(발표 27기), 4구역은 13기(발표 7기), 5구역에는 3기가 있다. 1, 3, 5구역의 벽화묘는 대부분 단독으로 분포하거나 2~3기씩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2구역은 대부분 대규모 고분군 내에 분포하며 4구역은 다수의 벽화묘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분포의 특징을 확정지을 수 없으나 단독 분포 및 고분군 내 분포의 두 양식이 병존하며 그중에서도 단독 분포 양상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벽화묘의 유형은 다실묘, 쌍실묘, 단실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실묘는 중국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고 북한에서도 안악安岳 3호묘와 대성리臺城里 3호묘 2기만 확인되었다. 묘도는 전실 전벽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연결되고 전실, 중실, 후실, 대형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실 좌우에는 각각 측실이 있다.

2실묘는 21기로 편방전실扁方前室(A형), 횡장전실橫長前室(B형), 소전실小前室(C형)로 구분된다. 편방전실 2실묘의 전실은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1/2 이상이고 너비는 후실의 너비보다 작다.

단실묘는 모두 40기이다. 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무덤의 규모와 구조상의 차이를 근거로 대동강 하류 지역의 고구려 봉토석실묘(단실묘)를 네 유형

그 림 1. 북한 내 고구려 벽화묘 분포도
2. 북한 내 고구려 다실벽화묘
3. 북한 내 고구려 편방전실 2실벽화묘
4. 북한 내 고구려 횡장실 2실벽화묘
5. 북한 내 고구려 소전실 2실벽화묘
6. 북한 내 고구려 단실벽화묘 A형
7. 북한 내 고구려 단실벽화묘 B형
8. 북한 내 고구려 단실벽화묘 C형 및 동봉이혈 벽화묘
9. 북한 내 고구려 인물 풍속 주제 벽화묘 주실 후벽 벽화 실례
10. 북한 내 고구려 사신 주제 벽화묘 묘실 후벽 벽화 실례
11. 북한 내 고구려 과도기 주제 벽화묘 주실 후벽 벽화 실례

표 1. 북한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묘
2. 북한 내 고구려 벽화묘의 유형 및 지역 구분 구성

부 표 1. 북한 내 고구려 벽화묘의 벽화 내용

으로 구분했었다. 그 가운데에는 단실벽화묘도 포함된다.

벽화의 제재는 크게 묘주의 가정생활, 차마 행렬, 사냥, 전쟁, 일월성운, 장식 문양, 사신四神, 선인仙人, 기이한 짐승 등이고, 연구자들은 보통 벽화의 주제에 따라 인물 풍속 주제 벽화묘, 사신도 벽화묘, 장식 문양 주제 벽화묘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벽화묘의 더 명확한 시기 구분 그리고 적석묘에서 석실묘로 전환되는 과도기 관련 문제, 북한 내 벽화묘의 형성에 영향을 준 대내외적 요소, 한반도와 집안集安 지역 벽화묘의 상호 영향, 평양 도성 시기 고구려의 '경기' 지역에 대한 탐색 등은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赵俊杰 · 梁建军, 2013, 「朝鲜境内高句丽壁画墓的分布、形制与壁画主题」, 『边疆考古研究』13辑, 228–254.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마젠马健
장춘시 문물관리소
연 도 2013
간행물명 『북방문물』2
『北方文物』2

고구려 귀갑총[龜甲蓮花墓], 미인총美人塚에 대한 단상

高句丽龟甲莲花墓、美人墓拾零

주 제 어 귀갑총
미인총
소형 벽화묘
고구려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항목 (10&ZD085)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귀갑총[龜甲蓮花墓]과 미인총美人塚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두 무덤은 모두 1913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조사하였고, 1991년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조사 당시 각각 산성하山城下 M1304, M1296으로 편호하였다. 원 보고서의 묘사에 따르면, 귀갑총은 봉토 규모가 작은 편이고 조사 당시 묘실 천장은 이미 훼손되었는데, 구조는 삼실총三室塚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묘실 네 모퉁이는 두공斗栱을 모방했고, 벽면에는 귀갑형龜甲形 도안이 있으며, 그 안에 산연화총散蓮花塚과 매우 유사한 연화문蓮花紋이 있다. 묘실 문틀 주변으로는 반규문蟠虬紋처럼 보이는 당초문唐草紋이 있는데, 이 문양은 북위北魏 시기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이상에 근거하면 귀갑총은 천장이 평행고임과 모줄임 구조의 봉토단실벽화묘로 보이고, 벽화 모사도는 묘실 전벽 좌측의 그림으로 판단된다. 미인총 역시 봉토의 규모는 크지 않다. 조사 당시에 천장은 이미 무너졌고 벽화의 박락도 심하여 벽면 상부에 두 부인의 형상만 분명하다. 미인총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기인했다. 세키노 다다시는 이 그림을 모사했으나 중간에 유실되었다가 후에 다시 발견되었다. 이 모사도의 우상방에는 '산성자총 실대약육척방山城子塚 室大約六尺方'이라는 메모가 있어, 무덤이 방형 묘실의 봉토단실벽화묘임을 알려주고 있다. 고구려 단실벽화묘의 일반적인 배치를 고려하면 이 모사도는 묘실 정벽 상부에 그려진 묘주 부부의 입상으로 보인다. 화면 좌측에 위치한 크기가 작은 여자는 시녀이고 크기가 큰 2명은 묘주 부부이며, 묘주 부인과 시녀는 모두 묘주를 바라보고 있다.

귀갑총 벽화 모사도에서는 귀갑연화龜甲蓮花, 두공, 문미門楣의 당초문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그중 반규형 당초문 장식은 여러 벽화묘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그 변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귀갑문은 '귀배문龜背紋'이라고도 불린다. 평행육각형을 기본 구도로 한 연

그 림 1. 귀갑총과 미인총 벽화 모사도
2. 귀갑총과 천왕지신총의 귀갑 연화문 비교
3. 고구려 벽화묘의 목조 건축물 모방 구조 중 기둥머리 명판 비교
1) 감신총(Ⅰ식)
2) 각저총(Ⅱ식)
3) 무용총(Ⅲ식)
4) 쌍영총(Ⅲ식)
5) 귀갑총(Ⅳ식)

속 문양으로, 서역에서 기원했고, 동한東漢 만기 이전에 중국에 전래되었으며, 북조北朝 시기에 유행하여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해졌다.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 주실 정벽 상부 정중앙에 묘주 좌상이 있고, 그 외 부분에는 귀갑연화문이 가득 차 있다. 두 무덤의 귀갑연화문은 형태와 전체 구도가 매우 유사한데, 후자의 귀갑문이 전자에 비해 좀 더 정연하여 시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귀갑총의 두공은 1두 3승이고 노두櫨斗 아래 명판皿板은 기둥머리보다 넓으며 두께도 상당하다. 이 유형의 명판은 형태에 따라 4식으로 구분되고 전체적으로 점차 두꺼워지는 추세를 보인다. 감신총龕神塚의 명판은 얇은 편이고(Ⅰ식), 각저총角觝塚부터 두꺼워지기 시작하며(Ⅱ식), 무용총舞踊塚과 쌍영총雙楹塚의 명판 두께는 더욱 두꺼워지고(Ⅲ식), 귀갑총 기둥머리의 명판은 훨씬 더 넓고 두꺼워져(Ⅳ식), 쌍영총보다 늦은 시대적 특징을 보인다.

무덤 형식과 벽화 제재에 근거하면, 무용총은 5세기 후반 만기~5세기 말에 해당한다. 각저총에는 사신이 보이지 않아 그 연대가 약간 이르며, 2실 벽화묘 형식과 주실 정벽 벽화의 변화에 근거하면 감신총, 천왕지신총, 쌍영총은 각각 5세기 중엽, 5세기 후반 만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된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면 귀갑총의 시대는 대략 6세기 전엽에 해당할 것이다.

미인총은 방형단실묘이고, 묘주 그림은 고구려 복식을 입은 부부 입상으로 묘실 정벽 상부에 위치한다. 이런 종류의 무덤 형태는 6세기 전후에 처음으로 고구려 왕릉에 등장하고, 최종적으로 무덤 형태의 정형화가 완성되는 과정은 6세기 전엽 이후이다. 또한 고구려 벽화묘 묘주 그림은 부부 좌상에서 부부 입상으로 변화하고 위치는 계속 상부로 이동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소실되는 과정을 겪는다. 삼실총 제1실, 수산리水山里 벽화묘에 등장하는 묘주 좌상과 입상이 공존하는 모습은 묘주 그림의 과도기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자의 시대는 약 5세기 말, 6세기 초로 보이고, 후자의 시대는 대략 6세기 초로 보고 있어, 묘주 그림이 좌상에서 입상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은 6세기 전엽으로 보아야 한다. 6세기 전엽 만기로 편년되는 덕화리德花里 2호묘 속 묘주 부부 입상이 묘실 정벽 상부에 위치하는데 위치상으로 미인총과 동일하고, 6세기 중엽의 노산리魯山里 개마총鎧馬塚에서는 묘주 그림이 묘실 정벽에서 사라져 천장 제1층 평행고임돌로 올라간 점을 고려하면, 미인총의 시대는 대략 6세기 전엽~6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두 무덤의 시대는 고구려 만기의 조기 단계에 속하고, 집안集安 지역 사신총四神塚, 오회분五盔墳 4호, 5호묘보다 빠르다.

赵俊杰 · 马健, 2013, 「高句丽龟甲莲花墓、美人墓拾零」, 『北方文物』2, 22–25.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마젠马健
장춘시 문물보호연구소

연 도 2013
간행물명 『고고』4
『考古』4

평양平壤 및 주변 지역 고구려 중기 벽화묘의 변화

平壤及周边地区 高句丽中期壁画墓的演变

주 제 어 평양
벽화묘
묘주도상
사신도상
고구려 시기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11CKG005)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길림대학 기본 업무비 항목(2011QG006)

약수리藥水里 벽화묘에 등장하는 초거軺車(한대漢代에 등장하는 사면이 터져 있는 작은 마차로 앉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으며 말이나 소가 끌었다)를, 안악安岳 3호묘, 덕흥리德興里 벽화묘, 통구通溝 12호묘(마조총馬槽塚), 평양平壤 고산동高山洞 7호묘(식물원植物園 9호묘), 함양咸陽 평릉平陵 1호묘, 대동大同 안북사원雁北師院 송소조묘宋紹祖墓에 있는 동일 유형 벽화 내용이나 출토유물을 비교해보면, 수레 양측면의 높이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약수리 벽화묘와 마찬가지로 묘주와 사신도四神圖가 공존하고 있는 팔청리八清里 벽화묘, 쌍영총雙楹塚, 매산리梅山里 사신총四神塚, 대안리大安里 1호묘, 덕화리德花里 1, 2호묘, 요동성총遼東城塚의 벽화를 비교한 결과, 묘주 그림의 크기가 점차 축소되고 위치는 점차 위쪽으로 이동하며, 사신도의 위치는 점차 아래로 이동하고 크기는 확대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추세와 비교 대상 무덤에서 확인되는 기년에 근거하면 약수리 벽화묘는 5세기 후반 말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시기 고구려 고분에는 벽화의 제재와 형식뿐만 아니라 평면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약수리 벽화묘와 마찬가지로 전실의 너비가 후실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전실이 방형인 이실묘二室墓로는 덕흥리 벽화묘, 평양역전平壤驛前 이실묘, 감신총龕神塚, 팔청리 벽화묘, 동암리東巖里 벽화묘, 쌍영총 등이 있고, 이 무덤들은 묘실 벽면이 점진적으로 수직화되고, 천장 형식은 우진각식에 평행고임의 복합 구조에서 평행고임과 모줄임 구조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5세기 후반 말기에서 6세기 초엽 평양平壤 및 주변 지역의 고구려 상장喪葬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첫째 고구려의 현지 통치가 점차 안정화되고 강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둘째 중원의 종교 건축 예술과 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보

그 림 1. 초거의 형식
2. 통구12호묘 평·단면도
3. 산성하 332호묘 평·단면도
4. 고구려 벽화묘 주실 정벽 묘주와 현무도의 변화
5. 고구려 방형 전실 2실묘 형식 변화
6. 관련 벽화묘의 전체 편년

표 1. 관련 무덤의 전체 편년

여주는 것이다. 6세기 전엽 이후 이실묘는 완전히 밀려나고 고구려 통치구역 내에서는 단실묘 유형만 조성되었다. 이는 고구려 정권의 제도화가 완성된 것을 상징하고, 고구려 사회질서의 안정이 확립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赵俊杰 · 马健, 2013, 「平壤及周边地区高句丽中期壁画墓的演变」, 『考古』4, 83–95.

저 자 자오쥔제赵俊杰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마젠马健
장춘시 문물보호연구소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여문물』1
『考古与文物』1

집안集安 우산禹山 41호 고구려 벽화묘의 시대

集安禹山41号 高句丽壁画墓的时代

주 제 어 고구려
우산 41호묘(JYM1041)
시대
적석묘
과도기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항목 (10&ZD085)

우산禹山 41호묘(JYM1041)는 집안集安 지역의 몇 안 되는 고구려 적석석실 벽화묘 중 하나이다. 1974년 길림성吉林省 박물관 문물공작대의 조사가 있었고, 2008년에는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에서 묘도 부분을 조사했다. 우산 41호묘의 시대 비정은 고구려 적석묘의 하한 연대 및 적석묘에서 봉토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우산 41호묘의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4세기 후반, 5세기, 5세기 중반, 5세기 후반 등의 네 가지 견해가 제기되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산 41호묘는 한 변의 길이가 약 20m인 계단적석석실벽화묘階壇積石石室壁畫墓로 묘실은 기단 중앙에 위치하고 동서 길이는 3.15m, 남북 너비는 2m, 높이는 2.32m이다.

집안 지역 고구려 시기 무덤은 적석묘가 봉토묘보다 시기가 이르고, 적석묘는 다시 무단無壇-유단有壇-계단階壇(방단계제方壇階梯)의 3단계를 거친다. 내부 구조는 석광묘가 석실묘보다 이르다. 따라서 계단적석석실묘인 우산 41호묘는 내외부의 구조면에서 모두 적석묘 발전의 가장 늦은 단계로 볼 수 있다. 묘실의 경우 장군총將軍塚 및 배장묘는 지표 위에 높게 솟은 기단 상부에 위치하는데 반해, 우산 41호묘의 묘실은 높이가 당시 지면보다 약간 낮아 오히려 봉토석실묘의 묘실 위치와 유사하다. 따라서 우산 41호묘는 장군총 및 배장묘보다 늦게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장군총의 묘주에 대해서는 광개토왕廣開土王(391~412)과 장수왕長壽王(413~491)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근거하면 우산 41호묘의 상한 연대가 5세기보다 빠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 적석석실묘의 하한 연대는 대략 5세기 말까지로 보고 있다.

우산 41호묘의 벽화 제재는 인물, 풍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74년의 발굴 보고서에서는 벽화의 배치, 이미지, 스타일이 동구洞溝 12호묘(마조총馬槽塚),

그 림 1. 우산 41호묘와 장군총 1호 배장묘의 형식 비교
1) 우산 41호묘 평·단면도
2) 장군총 1호 배장묘 입면도
2. B형 포식 형식 변화
3. 고구려 목심포금속 직병횡천형 마등
1) 태왕릉 출토
2) 칠성산 96호묘 출토
3) 우산 41호묘 출토
4) 만보정 78호묘 출토
5) 지경동 1호묘 출토
4. 사이전연호의 변화

표 1. 고구려 목심포금속 직병횡천형 마등

마선구麻線溝 1호묘와 유사하여 시기를 5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묘실 동벽에는 묘주 부부의 위쪽으로 청회색 지붕이 있고 처마 아래로 휘장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묘주 부부가 위치한 장면에 있는 휘장은 5세기 후반 말~6세기 초에 목조 건축물 내부의 휘장으로 변한다. 따라서 벽화의 시대적 특징에 근거하면 우산 41호묘의 연대는 5세기 후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유물 가운데 시유된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 마등馬鐙, 그리고 포식泡飾(운주雲珠가 딸린 보요步搖)을 통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먼저 포식의 경우 우산 41호묘에서는 포관泡管과 포좌泡座 사이에 꽃 모양 받침이 있고 포좌는 골제의 원형 박편으로 퇴화되어 동일 유형 가운데 그 시대가 가장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우산 41호묘에서는 목심木芯에 철편을 싼 등자도 발견되었다. 등자 자루가 굵고 짧으며 자루 상부에 장방형의 가로방향 구멍이 있고 발판에는 6개의 답정踏釘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상한이 5세기 전반기 이후이고 하한은 5세기 후반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나, 지경동地境洞 1호묘 및 신라 천마총天馬塚 출토 등자의 형식도 이와 유사하여 하한이 5세기 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세기 이후에는 목심에 금속을 싼 등자는 사라지고, 금속 등자가 고구려 전 지역에 걸쳐 전면적으로 유행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사이전연호는 복부가 얇고 길며 경부는 짧아, 웨이춘청魏存成의 분류 기준에 근거했을 때 5세기 후반 말단에서 5세기 말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우산 41호묘의 무덤 형식, 구조, 벽화, 출토유물의 시대적 특징 등에 대한 종합 분석에 근거하면, 이 무덤의 조성 연대는 5세기 후반기 말단으로 판단된다.

우산 41호묘의 시대 추정은 고구려 적석묘가 쇠퇴하는 하한연대 추정에 새로운 근거를 제공한다. 적석계단석실묘인 우산 41호묘는 무덤 내외 구조가 모두 고구려 적석묘의 만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적석석실묘의 하한은 약 5세기 후엽 만기에서 5세기 말로 추정된다.

赵俊杰 · 马健, 2014, 「集安禹山41号高句丽壁画墓的时代」, 『考古与文物』1, 70–75.

저 자 장비보张碧波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연 도 2005
간행물명 『북방문물』1
『北方文物』1

고구려 벽화묘 사신도상四神圖像과 중국의 천문학, 신화학神話學

高句丽壁画墓四神图像与中国的天文学、神话学

주 제 어 사신도상
천문학
신화학
문화 귀속

고구려 벽화묘는 고구려 역사 문화의 중요 구성 부분이고, 그중 사신도四神圖는 중국 고대 천문학 및 신화학神話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 벽화묘의 문화 성격을 판단하고 나아가 고구려 문화의 귀속을 판단하는 실마리가 된다.

고구려 벽화묘에 사신도가 등장하는 것은 5세기 전후이다. 사신도는 고구려 중, 후기 벽화묘의 중심 내용이 되었고, 고구려 전성기와 역사 문화의 성숙기에 사신도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했다. 현실 생활 제재의 벽화는 사후에도 생전의 생활을 영위할 것을 기원하는 주제였으나 중, 후기에 사신도와 서수도瑞獸圖가 등장하고 후에 예불도와 비천도飛天圖가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인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지하 왕국의 관념이 천상 왕국의 관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사신은 사풍四風, 사기四氣, 사방四方, 사시四時로 중국 고대의 천문 역법 관념이다. 고대 문헌기록과 유적에 따르면 사신도는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중국의 문화 전통으로 전승되어 왔고 기원전 3세기 중엽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현무玄武가 영귀靈龜의 모습으로 정형화 되면서 최종적으로 형태가 갖추어졌다. 이런 역법을 관장하는 자는 천의天意와 신의神意를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왕권신수 관념과 왕이 하늘 및 신과 통하는 특권을 갖는다는 중국 문화의 본질이다. 이처럼 고구려 벽화묘 속 사신도 문화는 중국의 천문학에 근원한 것이다.

사신의 신성神性은 천문과 인문을 겸비한 이중성을 갖고 있고 신성과 사회성社會性이라는 이중의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창룡蒼龍은 춘신春神이고 동방의 신이며 태호太昊, 구망句芒과 관련되어 있다. 주작朱雀은 하신夏神이고 남방의 신이며 염제炎帝, 축융祝融과 관련되어 있다. 백호白虎는 추신秋神이고 서방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의 신이며 소호少昊, 욕수蓐收 및 서왕모西王母와 관련되어 있다. 현무는 동신冬神이고 북방의 신이며 전욱顓頊, 현명玄冥과 관련되어 있다.

사신은 각각 사방, 사시를 주관하고 절기와 물후物候의 변화를 관장하여 국가 사직, 사회 생활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고구려 벽화묘의 사신도는 서한西漢 이래 벽화묘의 영향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이는 사신 신화, 복희伏羲와 여와女媧 신화,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 신화,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신화 그리고 옥녀玉女, 비천, 학을 탄 선인, 일월성신日月星辰 등 중국 고대 신화의 종합체이다. 그 문화의 모체는 한대漢代 벽화묘와 마찬가지로 승천도升天圖, 승선도升仙圖이다. 고구려 중, 만기의 망자가 승천하고 신선이 되는 의식을 표현한 벽화는 고구려 민족의 생명, 사망 의식이 지하 왕국에서 천상 왕국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서한의 벽화묘에서 고구려 벽화묘까지 모두가 동일한 역사 문화 체계에 속하고, 동일한 계통의 인문 관념과 동일한 문화 심리를 보여주며, 동일한 전통 문화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张碧波, 2005,「高句丽壁画墓四神图像与中国的天文学.神话学」,『北方文物』1, 60-67.

저 자 정위안위안郑媛媛
길림성 동북아연구중심
신항欣杭
연 도 2015
간행물명 『동북사지』6
『东北史地』6

집안集安 고구려묘 벽화의 국제화 연구 및 보호성 개발 논의

浅议集安高句丽墓壁画的国际化研究与保护性开发

주 제 어 고구려묘 벽화
국제화
보호

집안集安 고구려 유적과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국제 학술지에 고구려 무덤 벽화에 관한 영문 논문을 발표하여 고구려 무덤 벽화의 세계화에 공헌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국제학계의 고구려 벽화 무덤에 대한 연구열은 점차 상승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집안 지역의 관광 산업도 흥기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 산업은 그 자체로 벽화 무덤에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광객과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서방의 문화재 보호, 관리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의 주도 하에 관리, 보호,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고, 관광 자원 개발에도 과학적인 평가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郑媛媛 · 欣杭, 2015, 「浅议集安高句丽墓壁画的国际化研究与保护性开发」, 『东北史地』6, 68–71.

저 자 정춘잉郑春颖
장춘사범대학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

연 도 2017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2
『社会科学战线』2

고구려 벽화묘의 연구 역정, 반성과 전망

高句丽壁画墓的研究历程、反思与展望

주 제 어 고구려
벽화묘
고구려 고고
고대 동아시아사
석각문헌
도상학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항목(14BZS059)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고구려 벽화묘의 연구는 맹아기, 탐색기, 발전기, 흥성기 등 네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맹아기는 19세기 말에서 194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해당하여 고구려 유적의 조사, 기록, 초보 연구 등이 모두 일본 학계에 의해 진행되었다. 20세기 초부터 1930년대 중후기까지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등을 포함한 다수 연구자들의 논문 속에 새롭게 발견된 고구려 벽화묘가 소개되었고,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1940년대에는 중국 연구자 라오간勞干과 퉁수예童書業, 북한 연구자 도유호都宥浩, 이요성李耀聲 등도 고구려 벽화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탐색기는 1950~1970년대이다. 이 시기 중국은 사회 정치적 문제로 인한 학술 분야의 정체기였다. 그런 이유로 고구려 벽화묘에 관한 연구 역시 큰 진전을 볼 수 없었고, 50년대 초부터 60년까지 관련 논문 일부만이 발표되었다. 일본의 5~60년대 역시 큰 연구 성과는 없었고, 안악安岳 3호묘 및 벽화 문양, 행렬도 등을 주제로 몇 편의 글이 발표되었을 뿐이었다. 1970년대 초기에는 '다카마쓰 무덤高松冢'과 고구려 벽화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해 새로운 연구의 붐이 일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구려 벽화묘 개설 및 종합성 연구 논문 다수가 발표되었다. 한국의 경우, 70년대에 고구려 연구의 전문화가 시작되어 김원룡金元龍 등의 연구 논문과 저작이 발표되었다. 북한에서는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다수의 무덤이 발견, 발굴되어 관련 논문 역시 다수 발표되었으나, 발굴 및 연구의 중점이 대성산성大城山城과 안학궁安鶴宮으로 옮겨가면서 벽화묘 연구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게 되었고, 70년대 중기 이후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김용준金瑢俊, 주영헌朱榮憲, 전주농田疇農 등이 있다.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안악 3호묘의 묘주에 대해 50년

표 1. 중국 내 고구려 벽화묘 통계표
2. 북한 내 고구려 벽화묘 통계표

대에는 주로 '동수설冬壽說'이 대세였으나 70년대에 들어서는 '미천왕설美川王說'로 대체된다.

발전기는 1980~1990년대이다. 개혁개방의 시기를 맞은 중국에서는 벽화묘의 발굴, 정리를 통해 새로운 자료가 넘쳐났고, 이는 고구려 벽화묘 연구의 심화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당시의 연구 논문은 100여 편에 달하고, 주요 연구 주제는 벽화묘의 시기 구분과 편년, 고구려 벽화묘의 연원과 영향 등 두 분야였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 벽화묘의 시기 구분, 연원과 영향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웨이춘청魏存成 등은 대상을 북한 내 고구려 벽화까지 확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아즈마 우시오東潮가 고구려 벽화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를 진행했다. 그 외에 다무라 코이치田村晃一는 적석묘 연구사를 정리하여 고구려 무덤 형식의 변화 체계를 밝혔고, 오가타 이즈미緒方泉는 사이호四耳壺와 공반 유물의 연대 추정을 근거로 집안集安 고구려 무덤을 총 6기로 구분했다. 이들 외에도 나카무라 쥰코中村潤子는 안악 3호묘를, 마치다 아키라町田章는 안악 3호묘와 덕흥리德興里 벽화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980년대 한국의 대표작은 김원룡의 『한국벽화고분』을 들 수 있고, 전호태全虎兌의 박사논문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내세관 표현을 중심으로」 역시 고구려 벽화묘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안악 3호묘의 묘주와 관련해서는, 공석구孔錫龜, 최무장崔武藏, 임연철林然哲 등이 미천왕 혹은 고국원왕故國原王이 아니라 동수라는 견해를 발표했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벽화묘 연구가 여전히 중요 연구 대상이었다. 박진욱朴晉煜은 벽화의 제재가 인물풍속도에서 인물풍속과 사신도四神圖 및 장식문양의 병존 단계를 거쳐 다시 사신도로 변화하며, 벽화묘의 시기는 3세기에 시작되어 7세기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1977년에 발굴된 덕흥리 벽화묘는 80~90년대 북한 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박진욱, 손영종孫永鍾, 최택선崔澤宣, 박용서朴容緖 등이 모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흥성기는 2000년대 이후이다. 특히 2004년 7월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무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고구려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되었고, 벽화묘 연구 역시 풍성한 성과를 보게 되었다. 중국 학계의 고구려 벽화묘 종합 연구 분야에서는, 정톄화耿鐵華가 『고구려 고분 벽화 연구高句麗古墳壁畵硏究』를 통해 비교적 전면적으로 중국과 북한 두 나라 고구려 벽화묘의 조사, 발굴, 연구 성과, 연대 및 시기 구분, 문화 연원, 명문 기록, 그리고 벽화묘가 반영하는 사회생활, 신령 세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연구를 진행했다. 또 안악 3호묘와 덕흥리 벽화묘를 중심으로 4세기와 5세기 평양平壤 지역 벽화묘의 족속族屬에 관한 연구, 삼릉둔三陵屯 2호 벽화묘에서 보이는 고구려 무덤 제도의 영향, 고구려 벽화묘에서 확인되는 요동遼東과 요서遼西 지역 한위진漢魏晉 시기 벽화묘의 영향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다. 개별 주제로

는 안악 3호묘와 덕흥리가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복식, 무도, 미술, 건축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도 다수의 연구자가 많은 결과물을 발표했고, 종교, 천문, 음식, 민속, 체육, 무기, 상장喪葬 제도,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호 등 분야에서도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 주제의 다양화와 수량의 증가는 일본 학계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일본 학계의 대표는 몬다 세이치門田誠一인데, 고구려 불교 신앙, 상장 의례, 벽화 제재 및 문양이 일본 고분 벽화에 끼친 영향 등과 관련한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고구려 벽화고분과 동아시아[高句麗壁畫古墳と東アシア]』라는 저작으로 정리하였다. 그 밖에 벽화의 도안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이 성립되면서 연구 분야의 세분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북한의 경우, 2001년에 손수호孫壽浩가 『고구려 고분 연구』를 발표했고, 김인철金仁哲은 대성리臺城里 3호묘를 4세기 미천왕의 무덤으로 보았다. 김광철金光哲과 김성철金成哲은 송죽리松竹里 고분 벽화 도안의 특성을 연구했고, 천석근泉錫根, 김동일金東日, 최성철崔聖哲, 손수호는 각각 동암리東巖里 벽화 속 남자의 머리 양식, 성상도星象圖, 사신 신앙과 음양 사상 등 사회생활 및 종교 신앙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시기 서방의 고구려 벽화묘 연구 성과로는 Steinhardt의 「장천 1호묘와 그 북아시아 배경[Chanchuan Tomb No.1 and It's North Asian Context]」, Daniel Kane의 「벽화 잔편[Daniel Mural Flap]」, R. Mazzeo 등의 「북한의 고구려 시기 덕흥리 고분 벽화에 대한 과학적 고찰[Scientific Investigation of the Tokhung-Ri Tomb Mural Paintings(408A.D.) of the Koguryo Era]」 등이 있다. 이들 이외에도 Mark Byington, Heather Sutherland, Ton Baker, Angela Jean Haugen 등도 고구려 벽화묘를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상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고구려 벽화묘 연구는 매우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시각, 예를 들면 고고학과 역사학의 시야 속 고구려 벽화묘 연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고구려 고분 벽화의 도상학圖像學 연구, 그리고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시야 속 고구려 벽화묘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郑春颖, 2017, 「高句丽壁画墓的研究历程、反思与展望」, 『社会科学战线』2, 80-101.

저 자 캉제康捷
연 도 198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북한 덕흥리德興里 벽화묘 및 관련 문제

朝鲜德兴里壁画墓及其有关问题

주 제 어 고구려묘 벽화
국제화
보호

1976년 12월 북한 평안남도平安南道 대안시大安市 덕흥리德興里에서 호태왕好太王 영락永樂 18년(408)의 기년이 기록된 벽화묘가 발견되었다. 이는 안악安岳의 동진東晉 영화永和 13년(즉 승평升平 원년, 357)의 기년이 기록된 벽화묘가 발견된 이후 또 한 차례의 중요한 발견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40여 기의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이 두 무덤에서만 명확한 기년이 확인되었다.

덕흥리 벽화묘는 남북방향의 석실봉토묘石室封土墓이고 묘실은 반지하식이며, 석실 상부에 봉토를 얹어 지면 위에 방형 단의 형태로 솟아 있다. 묘실은 전실과 후실의 2실이고, 묘실 네 벽과 천장에 모두 백회를 발랐다.

묵서는 전실 북벽, 용도甬道 상부에 위치한다. 세로로 14행, 각 행에 7~14자, 총 154자가 기록되어 있다. 묵서명의 기년은 영락 18년(408)으로 고구려 호태왕의 연호이다. 그 외에 묘실 벽화에도 다수의 묵서 방제榜題가 있어, 묵서명과 합치면 총 600여 자가 된다.

벽화는 묘도 양쪽 벽부터 전실, 용도, 후실에서 모두 확인된다. 묘도 동벽에는 3인이 묘문을 향해 걷는 모습이 있고, 앞에는 연꽃이 있으며 창을 든 수문장이 있다. 묘도 서벽 북단에는 아이를 데리고 걷는 인물이 있고 남단에는 두 개의 창을 교차시켜 들고 있는 수문장이 있다. 땅에 엎드린 모양의 괴수도 있다. 이곳의 방제에 따르면 묘문은 무덤을 조성한 이듬해(409) 2월 2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된다.

묘실 네 모퉁이에는 모두 기둥이 그려져 있고 기둥 위에는 두공斗拱이 있으며 그 위에 들보도 있다. 들보는 묘벽과 천장의 경계선이다. 들보와 기둥에는 권운문卷雲紋이 있다. 이는 목조 건축물을 모방한 그림이다.

전실 북벽 동쪽은 후실로 통하는 용도甬道이고, 그 위로 전술한 묵서명이 있다. 서쪽에는 묘주의 좌상이 있다. 묘주가 앉아있는 침대 뒤쪽에는 부채와

그 림 1. 덕흥리 벽화묘 외관
2. 묘실 평면 및 벽화 위치도

우산을 든 시종과 기악伎樂이 있다. 묘주는 서벽에 2열로 늘어선 13군 태수를 마주보고 있다. 두 벽의 벽화는 손님을 맞는 주인의 모습을 그렸다. 서벽에 2열로 늘어선 사람들은 화면에 상하로 배치되어 있다. 위가 6명, 아래가 7명이고 각 인물의 우측 앞에 방제가 있다. 전실 동벽에는 유주자사幽州刺史 출행도가 3열로 그려져 있고, 전실 천장에는 일월성신日月星辰, 신화 인물, 기이한 동물, 수렵도 등이 있다. 별은 모두 60개가 있는데, 북극성과 북두칠성 등도 있다. 천장 남쪽 상단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히 은하수도 있고, 은하수 동쪽에는 남자가 소를 끌고 있다.

전후실을 연결하는 용도 서벽에는 뚜껑이 있는 마차가 있고 앞뒤로 기마무사가 호위한다. 동벽에는 우차가 있고 앞에 2명의 시동, 뒤에는 2명의 시녀가 있으며 한 남자 아이가 우산을 들고 따라간다. 이는 남녀 주인이 수레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실에는 대형 석축 시상이 있다. 시상에는 백회를 발랐다. 후실 네 모퉁이에 기둥과 들보를 그렸고, 천장에는 운문이 있다. 북벽에는 휘장이 있고 묘주는 서벽 침대 위에 앉아있다. 관례대로라면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어야 하나 이곳에는 남자만 있고 여자 쪽은 공백으로 두었다. 혹 나중에 어떤 연유로 합장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후실의 벽화는 전체적으로 묘주 가정의 일상생활을 그리고 있다.

묵서명에 따르면 묘주의 성씨는 불분명하나 이름은 진鎭이고 77세에 사망했다. 유주자사를 역임했고 역대 관직은 기본적으로 위진魏晉 시기의 제도와 부합한다. 묵서명과 방제에 기록된 다수의 관직명은 위진 시기의 전통 제도로, 고구려와는 공통점이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국소대형國小大兄' 과 '중리도독中里都督'은 고구려 관직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직 명칭에 근거하면 묘주는 후연後燕의 관리였을 것이고 고구려에 망명했기 때문에 '소대형'이라는 관직을 제수 받아, 사후에 이를 모두 써넣으면서 중원의 관직과 고구려의 관직이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묵서명의 체제가 유사한 동수묘冬壽墓의 묘주 동수 역시 전연前燕 모용황慕容皝의 사마司馬였다가 고구려에 망명했다. 덕흥리 벽화묘의 묘주 역시 동수와 같은 경우였을 것이다.

덕흥리 벽화묘는 안악 동수묘보다 약 50년이 더 늦다. 그러나 묘실의 구조와 벽화 제재 등에서는 동일한 특징이 보이고, 위진 시기 무덤과 유사하다. 묘실 천장을 고임 방식을 통해 줄여나가는 구조와 벽면에 공포가 있는 기둥을 그린 점 등은 과거의 위진 시기 스타일을 계승했한 것이다. 벽화 제재인 일월성신, 차마 출행, 연회, 놀이, 누각, 주방 등은 동한東漢 이래 화상석묘畫像石墓와 벽화묘에서 매우 성행했다. 덕흥리 벽화묘의 묘주 초상은 바로 위진 시기의 전통적인 벽화 속 초상화를 계승한 것이다. 묘주의 의상과 모자 역시 진

晉나라 양식이다. 이 무덤의 벽화 속에서는 집안集安 지역 고구려 조기 벽화묘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고구려 민족의 복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놀이[馬射戲]는 보기 드문 벽화 제재인데, 『위서魏書』에는 황제와 제후들이 이러한 놀이를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놀이가 위진 이래 유행한 풍속임을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의 무덤은 조기에는 묘실이 지상에 있는 석묘였고, 중기 이후 묘실을 지하에 두는 석묘가 등장했으며,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후에는 벽화석묘로 바뀌었다. 이는 한위漢魏 묘장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현재까지의 고고자료에 따르면, 시기가 비교적 이른 벽화석묘는 대부분 평양 일대에서 발견되고, 집안 지역의 벽화석묘는 연대가 비교적 늦다. 따라서 기년이 명확하면서 위진 시기의 스타일까지 보이는 덕흥리 벽화석묘는 고구려 벽화석묘의 연원과 발전 및 고구려와 위진 문화의 연계성을 연구하는데 모두 매우 중요한 고고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康捷, 1986, 「朝鲜德兴里壁画墓及其有关问题」, 『博物馆研究』1, 70–77.

저 자 팡치둥方起东
길림성 고고연구실

연 도 1980
간행물명 『문물』7
『文物』7

집안集安 고구려묘 벽화 속의 무악舞樂

集安高句丽墓壁画中的舞乐

그 림
1. 4세기 고구려의 군무(집안 고구려 고분 묘실 남벽 벽화)
2. 고구려 5세기의 군무 (장천 1호묘 전실 남벽 벽화)
3. 고구려 5세기의 남자 2인무 (마선구 1호묘 묘실 남벽 동단 벽화)
4. 고구려 5세기 남녀 2인무 속 남자의 자세(통구 12호묘 남실 서벽 좌측 벽화)
5. 고구려 5세기 남자 1인무와 무대 등장을 준비하는 남녀 2인(장천 1호묘 전실 북벽 중부 벽화)
6. 고구려 5세기 남자 1인무 (통구 12호묘 남실 서벽 우측 벽화)
7. 고구려 5세기 '비천'과 '기악천' 중의 무도 형상 (장천 1호묘 전실 천장 남부 제2단 뚜껑돌의 벽화)
8. 장천 1호묘 고구려 벽화
   1) 전실 좌벽 벽화(부분)
   2) 전실 우벽 벽화(부분)
9. 당唐 주방周昉 《환선사녀도 紈扇仕女圖》(부분)

고구려의 가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집안集安 고구려 고분의 벽화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묘사된 가무의 형상은 대부분 매우 간결하나 사실적이고 옷깃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모두 동작과 맞아떨어져 특정한 자세나 구체적인 동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고구려의 가무는 10인 이상의 군무도 있고 1인무, 2인무도 있으며, 군무 속에는 모두가 동일한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 1명만 나머지와 다른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명확한 2인무는 5세기 중엽인 마선구麻線溝 1호묘 묘실 남벽 동단에서 확인된다. 두 무용수는 서로 상이한 자세를 취하며 상호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5세기의 무덤인 통구通溝 12호묘에서는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 2인무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 장천長川 1호묘에서는 볼에 연지를 찍고 이마에 작은 붉은색 점을 찍은 여성이 있다. 이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가무 장면에 등장하는 무용수 가운데 유일하게 화장을 한 인물이다.

고구려 고분의 천장에는 긴 옷깃을 날리며 춤을 추는 '비천飛天', 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춤을 추는 '기악천伎樂天'도 있다. 이는 불교와 불교 미술이 함께 고구려에 전해진 것을 반영하는 제재이다.

4~5세기 고구려의 민간에서는 일반 오락성의 가무도 있었고, 장례 행사 등 특정 상황에 공연된 가무도 있었다. 가무의 형식에는 남자 혹은 여자의 1인무, 남자 2인무, 남녀 2인무, 남녀의 군무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했고, 맨손으로 추는 가무와 도구를 이용한 가무도 있었다. 벽화를 보면 고구려의 무용수는 모두 소매가 긴 옷을 입었고, 소매가 흩날리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벽화 속 무용수의 손은 모두 앞으로 뻗거나 뒤로 들어 올리거나 혹은 한 손은 옆으로 뻗고 한 손은 가슴 앞으로 굽히는 등의 모습을 하고 있다.

4~5세기 벽화 속 가무와 『수서隋書』, 『신구당서新舊唐書』에 기록된 7~9세기 고구려 기악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대부분 반주용 악기가 하나이고 주요한 음악은 노래였으나, 후자는 이미 방대한 악단을 갖추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 전문적으로 공연을 위해 설계된 규격화된 양식, 특정 색상의 복식 등이 있어, 소매가 긴 옷이면 충분했던 전자와는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후자의 무용수는 장신구도 패용하고 화장도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7~9세기 고구려의 가무는 이미 4~5세기 고구려의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을 벗어나 화려하고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方起东, 1980, 「集安高句丽墓壁画中的舞乐」, 『文物』7, 33–38.

저 자 팡치둥方起东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류쉬안탕刘萱堂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2
간행물명 『북방문물』3
『北方文物』3

집안集安 하해방下解放 제31호 고구려 벽화묘

集安下解放第31号高句丽壁画墓

주 제 어 집안 하해방
고구려
31호 벽화묘
쌍실묘

1966년 길림성吉林省 박물관과 집안集安 문보소文保所에서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실측 조사를 진행하며 이 무덤을 하해방下解放 31호묘로 편호했다.

이 무덤은 봉토석실벽화묘封土石室壁畫墓로 둘레는 50여m에 높이는 약 6m이고 방향은 남동쪽 30°이다. 묘도, 전실, 용도甬道,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문은 이미 파괴되었다. 벽화는 먼저 백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렸는데, 무덤 발견 당시 벽면의 백회가 거의 박락된 상태여서 벽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잔존 벽화는 모두 묘실에서 확인되었다. 동벽 북부 상단의 천장 바로 아래에는 묵선으로 그린 보주화염문寶珠火焰紋이 있고, 천장 하부 3단의 평행고임돌 측면에는 측면의 연화蓮花가 있다. 천장 상부 2단의 모줄임돌 가운데 서북쪽 모서리 제1단 모줄임돌 하부에는 별을 그렸다. 북면 제2단 모줄임돌 측면에는 회색의 원이 있고, 내부에 흑색 그림이 있는데, 이는 달과 두꺼비로 추정된다. 그 동쪽에는 회백색의 새 한 마리가 있다.

하해방 31호묘의 연대는 전체 집안 벽화묘 시기 구분의 배경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 집안에서 확인된 벽화묘는 모두 29기이고, 그 시기는 총 4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단실묘이고 용도 양측면에 이실耳室이 있다. 묘실 천장은 궁륭정이거나 우진각식 혹은 네 모퉁이에서 다층 평행고임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모줄임이 더해진다. 벽화 내용은 두 종류로 하나는 묘주의 생전 생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연화 혹은 왕王자 운문雲紋이 조합된 도안이다. 묘실 네 모퉁이는 목조 건축물을 모방한 형태이고 능형菱形 운문이나 이운문螭雲紋이 많다. 천장은 연화, 운문이 주를 이룬다. 연대는 4세기 중엽에서 4세기 말까지이다. 제2기는 단실묘 앞 용도에 이어진 전면의 반실半室을 특징으로 한다. 전면의 반실은 제1기의 두 이실 천장이 이어진 결과이다. 묘실 천장은 궁륭식 혹은 다층

그 림 1. 하해방 31호묘 평·단면도
2. 1) 보주화염문
2) 연화문
3) 새
4) 성신도
5) 월륜과 두꺼비

평행고임이거나 모줄임이 더해진다. 벽화 내용은 묘주의 생전 생활이 주를 이루나 천장에 일월성신日月星辰, 신선, 불완전한 사신四神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도안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연대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이다. 제3기는 전후 2실이 주를 이루고 일부 단실 혹은 3실도 있다. 천장은 대부분 평행고임과 복두형覆斗形이고 모줄임의 폭이 커진다. 방향은 다수가 서향이다. 벽화 내용은 묘주의 생전 생활 장면과 도안 두 종류이며, 개별 도안의 크기가 커졌다. 이 시기의 사신도四神圖는 완형을 갖추어 가면서 점차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며 신선과 불교 제재도 증가한다. 연대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까지이다. 제4기는 방형 단실묘로 중원 북조北朝 후기의 묘제와 동일하다. 천장은 간결하면서 폭이 큰 모줄임 구조이다. 방향은 남향이다. 벽화는 백회를 바르지 않고 직접 석벽 위에 그렸다. 사신도가 주를 이루어 네 벽을 다 차지했고, 네 모퉁이와 천장에는 괴수, 반룡盤龍, 일월신日月神, 기악선인伎樂仙人, 일월성신 등으로 채워졌다. 연대는 6세기에서 7세기 초까지이다.

하해방 31호묘는 짧은 용도를 갖춘 쌍실 구조로 제3기에 속한다. 그러나 짧은 용도가 있는 쌍실묘는 전후 두 묘실의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31호묘의 전실은 후실에 비해 작고 낮다. 이는 전실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묘실을 축조한 재료로 정연하게 가공된 석재를 사용했는데, 이는 제4기 벽화묘 묘실을 평평하고 정연한 석재로 쌓은 기법과 유사하다. 무덤 방향도 남쪽을 향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하해방 31호묘는 제3기 중에서도 늦은 시기, 즉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까지의 후기에 속하여 장천長川 1호묘와 삼실총三室塚보다 약간 늦는 것으로 판단된다.

方起东 · 刘萱堂, 2002, 「集安下解放第31号高句丽壁画墓」, 『北方文物』3, 29–32.

저 자 홍청옥洪晴玉
연 도 1959
간행물명 『고고』1
『考古』1

동수묘冬壽墓의 발견과 연구에 관하여

关于冬寿墓的发现和研究

그 림
1. 동수묘 평·단면도
2. 동수묘 구조 약도
3. 호각 부는 인물
4. 북 치는 인물
5. 동수 부인상
6. 동수상
7. 마구간
8. 육고
9. 주방
10. 급수도(우물)
11. 동수 출행도
12. 출행도
13. 무악도
14. 동수묘 묵서
15. 인물도

1949년 봄, 북한 황해북도黃海北道 안악安岳에서 일부 벽화가 있는 고구려 고분이 발견되었고, 3호묘에서는 '동수冬壽'라는 이름이 언급된 묵서와 다수의 채색 벽화가 확인되었다.

동수묘冬壽墓는 묘도 대신 연실羨室이 있고, 전실과 전실 좌우의 측실, 후실로 구성되어 있다. 후실과 전실 사이에는 팔각형 석주가 3개, 사각형 석주가 1개 있고, 후벽에도 팔각형 석주 3개, 사각형 석주 2개가 있다. 후실 동벽은 담장이고 담장 바깥으로 회랑이 있다. 회랑은 곡척형曲尺形으로 후실의 동, 북쪽을 휘감고 있다.

동수묘는 다양한 크기의 판석을 쌓아서 조성했다. 이 판석들은 석회질이 많아 그 위에 직접 벽화를 그릴 수 있었다. 벽화의 제재는 동수 부부 초상화, 주방, 우물, 방앗간, 외양간, 마구간, 출행도 등이다.

무덤에서는 4개의 대형 칠관漆棺 조각, 토기와 인골 일부가 발견되었다.

동수묘의 석실은 중국 화상석묘畫像石墓 조성 방식에 영향을 받았는데, 효당산孝堂山의 석실 및 내부의 팔각형 석주 제작 방식과 매우 유사하고, 연실은 기남沂南의 한묘漢墓와 유사하며, 모줄임천장 역시 중국 북조北朝에서 유행한 것이다. 동수묘의 평면은 전후실과 측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한위漢魏 시기 이래 중국 북부 지역에서 유행한 형식과 동일한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요양遼陽의 한묘가 있다.

벽화의 형식과 내용 모두 한대漢代 이래 중국의 형식과 동일하다. 또한 묘주 옆에 시립한 인물들의 관직 역시 태수太守 아래의 관직으로 동수의 신분과 부합하여, 고국원왕故國原王의 신하로 볼 수가 없다. 벽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중국 위진魏晉 시기 벽화와 근접해 있다. 출행도의 모습과 복식은 모두 중국 위진 시기 양식으로 고구려 후기 벽화 속 복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 이 무덤이 발견된 후, 묘주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첫째로는 묘주가 고국원왕이라는 의견이다. 이 설의 근거는 대형 묘실과 호화로운 벽화이다. 동수는 다만 고국원왕이 총애하였기 때문에 순장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고국원왕의 부친인 미천왕美川王의 유골을 매장했다는 견해이다. 모용황慕容皝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미천왕의 유골을 빼앗겼고, 12년 이후 고국원왕이 유해를 되찾아, 안악에 매장했다는 것이다. 동수는 다만 묘를 만드는데 공적이 있어 묘벽에 기록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묘실 구조, 벽화 내용과 작풍, 묵서명기의 내용,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각지의 고고자료를 결합하여 묘주가 동수일 것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

필자는 이상 세 견해 가운데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묵서의 내용은 동수묘 묘주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수는 69세에 벼슬을 하다가 죽었고, 연대는 동진東晉 영화永和 13년 즉 개평開平 원년(357)이다. 동진東晉 목제穆帝의 연호를 사용했고, 그의 관직은 '사지절도독제군사평동장군호무이교위낙랑□창려현토대방태수도향□使持節都督諸軍事平東將軍護撫夷校尉樂浪□昌黎玄菟帶方太守都鄉□'이다. 이 관직명은 고구려나 전연前燕의 관직명이 아니라, 동진에서 흔히 보이는 관직명으로 동수의 신분에 완전히 부합한다. 동진은 전연을 견제하기 위해 동수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후侯로 봉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는 동진의 연호를 쓴 것이다.

洪晴玉, 1959, 「关于冬寿墓的发现和研究」, 『考古』1, 27–35.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부록 III

[고분] 수록 논문 목록(간행물별)

1.『考古』

洪晴玉	1959	「关于冬寿墓的发现和研究」	『考古』1
赵俊杰·马健	2012	「集安禹山两座高句丽时期积石墓的时代及相关问题」	『考古』5
赵俊杰·马健	2013	「平壤及周边地区高句丽中期壁画墓的演变」	『考古』4

2.『考古与文物』

李殿福	1981	「集安洞沟三室墓壁画著录补正」	『考古与文物』3
赵俊杰·马健	2014	「集安禹山41号高句丽壁画墓的时代」	『考古与文物』1
赵俊杰·马健	2015	「高句丽太王陵墓主“广开土王”说的反思—出土铭文铜铃再研究」	『考古与文物』3

3.『考古学报』

李殿福	1980	「集安高句丽墓研究」	『考古学报』2
魏存成	1987	「高句丽积石墓的类型和演变」	『考古学报』3

4.『东北史地』

郑媛媛·欣杭	2015	「浅议集安高句丽墓壁画的国际化研究与保护性开发」	『东北史地』6
*孙仁杰	2004	「洞沟高句丽墓地的分布与排列研究」	『东北史地』9
*宁会学	2004	「桓仁米仓沟将军墓所葬何人」	『东北史地』4
*孙仁杰	2005	「从泉氏墓志墓地看高句丽的回葬」	『东北史地』4
*李殿福	2005	「高句丽贵族有回葬旧茔之习俗, 集安五盔坟应为王陵」	『东北史地』4
*张福有·孙仁杰·迟勇	2006	「朱蒙所葬之“龙山”及太王陵铜铃“崚”字考」	『东北史地』1
*张福有·孙仁杰·迟勇	2006	「集安蒿子沟墓地调查与东川王陵考」	『东北史地』3
*张福有·孙仁杰·迟勇	2007	「高句丽王陵通考要报」	『东北史地』4
*梁志龙	2007	「“斩俘图”小议」	『东北史地』1
*王绵厚	2009	「试论桓仁“望江楼积石墓”与“卒本夫余”—兼论高句丽起源和早期文化的内涵与分布」	『东北史地』6
*李新全	2009	「辽东地区积石墓的演变」	『东北史地』1
*华阳	2010	「浅谈高句丽民族的厚葬习俗」	『东北史地』5

5.『辽海文物学刊』

耿铁华	1987	「高句丽贵族冉牟墓及墓志考释」	『辽海文物学刊』2
耿铁华	1988	「高句丽壁画中的宗教与祭祀」	『辽海文物学刊』2
武家昌	1994	「桓仁米仓沟将军墓壁画初探」	『辽海文物学刊』2
方起东	1996	「高句丽墓葬研究中的几个问题」	『辽海文物学刊』2

6.『文物参考资料』

宿白	1952	「朝鲜安岳所发现的冬寿墓」	『文物参考资料』1
杨泓	1958	「高句丽壁画石墓」	『文物参考资料』4
方起东	1980	「集安高句丽墓壁画中的舞乐」	『文物』7

7.『博物馆研究』

方起东	1985	「高句丽石墓的演进」	『博物馆研究』2
方起东	1986	「千秋墓、太王陵和将军坟墓主人的推定」	『博物馆研究』2
康捷	1986	「朝鲜德兴里壁画墓及其有关问题」	『博物馆研究』1
耿铁华·李淑英	1987	「高句丽壁画中的贵族生活」	『博物馆研究』2
梁志龙·王军辉	1994	「辽宁桓仁出土青铜遗物墓葬及相关问题」	『博物馆研究』2
魏存成	1994	「再谈高句丽积石墓的类型和演变」	『博物馆研究』1
董峰	2001	「集安高句丽壁画墓中的四神图」	『博物馆研究』1
宁会学	2002	「高句丽始祖王朱蒙墓何在」	『博物馆研究』2
武家昌	2002	「关于集安高句丽王陵的看法」	『博物馆研究』4
孙仁杰	2002	「高句丽石室墓起源的再探讨」	『博物馆研究』4
刘萱堂	2003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	『博物馆研究』1
刘萱堂	2003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续编一)」	『博物馆研究』2
宁会学	2004	「桓仁米仓沟将军墓墓主考」	『博物馆研究』3
柳岚	2004	「高句丽积石墓串墓研究」	『博物馆研究』4
刘萱堂	2004	「集安高句丽壁画墓与辽东、辽西汉魏晋壁画墓比较研究(续编之二)」	『博物馆研究』3
武家昌	2005	「本溪小市墓及相关问题」	『博物馆研究』2
柳岚·张雪岩	2005	「高句丽封土墓研究」	『博物馆研究』3
张桂元·邵春华	2006	「高句丽太王陵立置石板作用再探讨」	『博物馆研究』2
云丽	2012	「集安高句丽“折天井”墓的时代」	『博物馆研究』1
马健	2013	「集安七星山96号高句丽积石墓时代小议」	『博物馆研究』3

8.『边疆考古研究』

王培新	2005	「高句丽封土石室墓文化渊源之乐浪因素初探」	『边疆考古研究』3辑
赵俊杰	2009	「大同江下游高句丽封土石室墓的等级」	『边疆考古研究』8辑
赵俊杰	2010	「高句丽平壤期王陵考略」	『边疆考古研究』9辑
王飞峰	2011	「关于千秋墓、太王陵和将军坟的几个问题」	『边疆考古研究』10辑
赵俊杰	2012	「再论高句丽“冉牟墓”的若干问题」	『边疆考古研究』11辑
林世香	2012	「吉林集安高句丽散莲花墓年代探讨」	『边疆考古研究』12辑
赵俊杰·梁建军	2013	「朝鲜境内高句丽壁画墓的分布、形制与壁画主题」	『边疆考古研究』13辑
王飞峰	2013	「冬寿墓莲花纹研究」	『边疆考古研究』14辑
赵俊杰·金愉	2014	「5～6世纪朝鲜半岛西北部地区封土石室墓的单室化进程—以平壤长山洞1、2号壁画墓为中心」	『边疆考古研究』16辑
赵俊杰	2015	「高句丽凤城里壁画墓时代刍议」	『边疆考古研究』18辑

9.『北方文物』

孙仁杰	1986	「谈高句丽壁画墓中的莲花图案」	『北方文物』4
耿铁华	1986	「高句丽壁画中的社会经济」	『北方文物』3
耿铁华·阿英	1987	「从高句丽壁画中的战争题材看高句丽军队与战争」	『北方文物』3
耿铁华	1993	「集安五盔坟五号墓藻井壁画新解」	『北方文物』3
王侠	1994	「高句丽抹角叠涩墓初论」	『北方文物』1
赵东艳	1995	「试论集安高句丽壁画墓的分期」	『北方文物』3
刘萱堂	1998	「集安高句丽壁画墓研究概述」	『北方文物』1
李殿福	2001	「高句丽古墓壁画反映高句丽社会生活习俗的研究」	『北方文物』3
温玉成	2001	「集安长川一号高句丽墓佛教壁画研究」	『北方文物』2
方起东·刘萱堂	2002	「集安下解放第31号高句丽壁画墓」	『北方文物』3
孙进己·孙泓	2004	「公元3～7世纪集安与平壤地区壁画墓的族属与分期」	『北方文物』2
张碧波	2005	「高句丽壁画墓四神图像与中国的天文学、神话学」	『北方文物』1
武家昌	2005	「集安两座高句丽墓上的石碑为“通天柱”说」	『北方文物』3
刘萱堂·刘迎九	2006	「集安高句丽古墓壁画的装饰特色、纹样演变及与汉文化的联系」	『北方文物』2
张明皓	2007	「论安岳三号墓的建筑渊源」	『北方文物』4
宋娟·耿铁华	2008	「高句丽将军坟的陪葬墓」	『北方文物』4

宋娟·耿铁华	2009	「高句丽殉葬习俗初探」	『北方文物』3
王春燕·孙仁杰	2011	「集安高句丽千秋墓墓室形制新论」	『北方文物』3
赵俊杰	2012	「从壁画中轺车图像的演变看三座高句丽壁画墓的编年」	『北方文物』2
王元林	2012	「高句丽壁画墓的特质及其文化遗产价值评估」	『北方文物』2
赵俊杰·马健	2013	「高句丽龟甲莲花墓、美人墓拾零」	『北方文物』2
徐曼	2014	「新发现的平壤东山洞高句丽壁画墓」	『北方文物』1
*张明皓	2010	「浅析高句丽古坟壁画中的建筑形象」	『北方文物』3

10.『社会科学战线』

李树林	2002	「吉林集安高句丽3319墓日月神阙考释及相关重大课题研究」	『社会科学战线』3
李淑英·耿铁华	2003	「高句丽王陵及相关问题研究」	『社会科学战线』2
魏存成	2007	「集安高句丽大型积石墓王陵研究」	『社会科学战线』4
郑春颖	2017	「高句丽壁画墓的研究历程、反思与展望」	『社会科学战线』2

11.『通化师范学院学报』

尹国有	1997	「高句丽汤谷扶桑图及汤谷扶桑观念播迁考略」	『通化师范学院学报』2
尹国有	1997	「高句丽墓室壁画中的尚鸟艺术」	『通化师范学院学报』3
李歆	2001	「高句丽冬寿夫妇像」	『通化师范学院学报』3

12. 기타

李殿福	1980	「集安高句丽壁画初探」	『社会科学辑刊』4
温玉成	2001	「集安长川高句丽一号墓的佛教壁画」	『敦煌研究』1
王子林·祁慧琳·王思博	2008	「关于集安高句丽古墓壁画造型艺术的探讨」	『长春师范学院学报』11
赵俊杰·马健	2012	「试论集安地区高句丽新旧墓制的过渡时段」	『东南文化』1
赵俊杰	2015	「集安地区高句丽晚期积石墓的探索–以两座积石壁画墓的时代为中心」	『华夏考古』2
魏存成	2016	「我国东北地区的高句丽封土石室墓」	『东南文化』4
魏存成	2016	「好太王的陵墓再确认及相关问题」	『史学集刊』1

*표시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2008~2011년 『한 · 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에 수록되어 있어, 이 책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II

고분

총괄	이주헌(국립문화재연구소)
	임승경(現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재윤(現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김혜정(現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 · 관리사업추진단)
번역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해제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감수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편집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교정	홍밝음(국립문화재연구소)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발행일	2019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www.nrich.go.kr
	T. 042. 860. 9285 / F. 042. 861. 4924
디자인	지그래픽
	34566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03번길 3
	T. 042. 256. 5055 / F. 042. 625. 6882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927-01
ISBN	978-89-299-1707-4 94910 978-89-299-1705-0 (전3권)

© 2019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내용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고분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SBN 978-89-299-1707-4 94910
978-89-299-1705-0 (전3권)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928-01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유물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유물

발 간 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역사문화 관련 유적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 · 중 철기자료집 Ⅰ~Ⅵ』(2013), 『북방지역 고구려 · 발해 유적 지도집』(2014), 『고구려의 토기』(2016), 『고구려의 철기』(2017), 『고대국가 부여』(2018), 『중국 동북지역 고고조사현황-길림성 · 요녕성 · 흑룡강성 · 내몽고자치구편-1985~2015-(2012 · 2013 · 2017 · 2019)』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발간』 사업은 국내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중국의 우리 역사문화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중국의 고구려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가운데,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간행물은 총 11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일부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보 등에도 소량의 고구려 고고학 관련 연구논문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정기간행물에 보고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 총 248편을 수록하였으며, 도서의 구성은 Ⅰ. 성곽 및 고고일반, Ⅱ. 고분, Ⅲ. 유물로 나누어집니다. Ⅰ권에서는 고구려의 도성 및 산성 그리고 고고일반에

대한 논문 총 87편을 해제하여 수록하였으며, 대체로 고구려 도성의 위치비정 문제, 산성의 축성시기 및 유형 그리고 구조와 관련한 내용이 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Ⅱ권에는 고구려 고분 및 고분벽화와 관련한 논문 총 82편이 수록되었으며, 고분의 구조 및 형식, 고구려 고분벽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내용이 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Ⅲ권에는 고구려 유물에 대한 논문 79편을 담았으며, 특히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연구현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은 현재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현황 및 연구경향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책자를 통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 관련 발굴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구려 연구경향을 심도 깊게 파악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수집과 논문번역을 담당한 직원분들과 이를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9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 종 덕

일러두기

1. 이 책은 중국 주요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학술논문 총 248편을 주제별로 해제하여 수록한 도서입니다.

2. 논문의 제목, 간행물명, 소속은 중국어 간체자를 따랐으며, 필자의 소속은 논문이 게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간행물의 해제는 논문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책의 객관성 및 서술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용어 등은 수정하였습니다.

4. 책에 수록된 모든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하였습니다.

5. 본고에 실린 논고의 용어 등은 저자의 의견이므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발간사 ····· 002

일러두기 ····· 004

Ⅰ. 머리말 ····· 007

Ⅱ. 유물 ····· 011

1) 금석류 ····· 012

2) 금속류 ····· 105

3) 기와류 ····· 127

4) 토기류 ····· 149

5) 기 타 ····· 169

Ⅲ. 부록 ····· 195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머리말 I

머 리 말

이번『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발간사업은 중국 내 고구려 고고학에 대한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방지역 우리 역사문화 관련 유적에 대한 고대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고고학 관련 정기간행물은 약 37종이 있으며, 이 중 고구려 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간행물은 중앙의『고고考古』,『고고학보考古學報』,『문물文物』등 3종과 동북 지역의『고고여문물考古與文物』,『박물관연구博物館研究』,『변강고고연구邊疆考古研究』,『북방문물北方文物』,『요해문물학간遼海文物學刊』등 총 8종이다. 또한 고고학 관련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다수 수록된 정기간행물로 길림성에서 발간하는『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戰線』,『학문學問』(『동북사지東北史地』)과 통화사범학원에서 발간하는『통화사범학원학보通化師範學院學報』가 있다.

이번 책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정기간행물에 보고된 고구려 관련 논문 총 248편을 수록하였으며, 오른쪽의 표는 중국 주요 정기간행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본 도서의 구성은 Ⅰ. 성곽 및 고고일반, Ⅱ. 고분, Ⅲ. 유물로 나누어지며, Ⅰ권은 다시 도성, 산성, 고고일반으로 구분된다. 도성과 관련한 논문은 18편으로 주로 오녀산성과 국내성 등의 위치 비정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산성과 관련한 논문은 42편으로 성곽의 축성 시기 및 유형 그리고 구조와 관련한 해제이다. 고고일반은 27-편으로 고구려 문화 및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Ⅱ권에서는 고구려 고분과 고분벽화에 대한 논문 82편을 담았다. 고분과 관련한 논문은 40편으로 주로 고분의 구조 및 형식, 그리고 변화 과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실렸다. 고분벽화에 관련한 논문은 42편으로 고분벽화 제제의 표현 내용 및 변천과정에 대한 해제가 대체로 수록되었다. Ⅲ권에서는 고구려 유물에 대한 논문 79편을 실었으며, 각각 금석류 41편, 금속류 11편, 기와류 8편, 토기류 8편, 기타 11편이다. 특히 금석류에서는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연구현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해제되어 있다.

이번 도서는 지리적 · 언어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중국의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해제함으로써 고구려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고구려 및 발해 관련 연구도서를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아갈 예정이다.

본 책자에 소개된 주요 정기 간행물 2018년 12월 기준

연번	간행물명	발간기관	유형	발간 권수	수록 편수*	개 요	비 고
1	고 고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월간	621	8	· 1955년 : 창간(매년 6집씩 출판) · 1958년 : 월간으로 발행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매년 6집씩 출판) · 1983년 : 월간으로 변경	
2	고고학보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계간	212	2	· 1936년 : 『전야고고보고田野考古報告』로 출판 · 1947년 : 『중국고고학보』로 개칭 · 1953년 : 현재 명칭으로 개칭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	
3	문 물	국가문물국	월간	741	8	· 1950년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문물국 자료실 내부자료로 발간 · 1951년 : 부정기 간행물로 공개 발행 · 1953년 : 월간으로 발행 · 1959년 : 『문물』로 개칭 · 1966년 : 발행 중단 · 1972년 : 발행 복간	
4	고고여문물	섬서성문물국 섬서성고고연구원	격월간	228	9	· 1980년 : 창간(4집만 출판) · 1985년 : 5집만 출판 ※ 1980년 1985년 이외에는 격월간으로 출판	동북 지역 관련 논문과 보고서 다수 수록
5	박물관연구	길림성박물원	계간	144	75	· 1982년 : 창간	
6	변강고고연구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간	23	21	· 2002년 : 창간(매년 1~2집씩 출판)	
7	북방문물	북방문물잡지사	계간	149	37	· 1981년 : 『흑룡강문물총간黑龍江文物叢刊』으로 창간 (2집만 출판) · 1982년 : 3집만 출판 · 1985년 : 현재 명칭으로 개칭	
8	요해문물학간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반년	21	21	· 1986년 : 창간(1집만 출판) · 1987년 : 매년 2집씩 출판 · 1998년 : 정간	
9	사회과학전선	길림성 사회과학원	월간	283	20	· 1978년 : 창간(초기에는 계간으로 출발) · 2003년 : 월간으로 발행	철학, 경제학, 역사학 등 인문사회과학의 각 학문 분야를 모두 망라한 정기간행물
10	통화사범 학원학보	통화사범학원	월간	223	25	· 1980년 : 창간(부정기 출판으로 출발) · 1988년 : 계간으로 변경 · 1999년 : 격월간으로 발행 · 2007년 : 월간으로 발행	
11	학 문	길림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고구려연구중심	격월간	79	21	· 1982년 : 창간(『동북사지東北史地』로 출발) · 2016년 : 『학문』으로 개칭 · 2017년 : 정간	

* 11종 정기간행물 이외에 『내몽고문물고고內蒙古文物考古』(1편), 『농업고고農業考古』(1편), 『돈황연구敦煌研究』(1편), 『동남문화東南文化』(3편), 『요령대학학보遼寧大學學報』(1편), 『문물춘추文物春秋』(1편), 『사지학간史志學刊』(1편), 『사학집간史學集刊』(1편), 『사회과학집간社會科學集刊』(1편), 『연변대학학보延邊大學學報』(1편), 『장춘사범학원학보長春師範學院學報』(2편), 『중국역사지리논총中國歷史地理論叢』(1편), 『중국사연구中國史研究』(1편), 『화하고고華夏考古』(2편), 『흑하학간黑河學刊』(1편) 등에 게재된 고구려 고고학 관련 논문도 본 책자에 수록하였다.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유물 II

1) 금석류

2) 금속류

3) 기와류

4) 토기류

5) 기타

01

경리	호태왕비好太王碑 발견 시기 및 관련 문제 연구	014-015
경리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발견 5주년 연구 성과 평가	016-017
경톄화	호태왕비好太王碑는 불 처리 전의 온전한 탁본이 없다	018-018
경톄화	호태왕비好太王碑 '신묘년辛卯年' 구절 고증, 해석	019-020
경톄화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수장 기록 및 그 연대	021-022
경톄화	호태왕비好太王碑 판독문 보충 글자에 관한 약설	023-024
경톄화	호태왕비好太王碑 신묘년辛卯年 구절과 관련 문제	025-026
경톄화	집안集安에서 새로 출토된 고구려비의 중요한 가치	027-029
경톄화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고증, 해석	030-032
경톄화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의 연대와 성격	033-035
경톄화	호태왕비好太王碑와 동북아 고대국가의 관계	036-038
경톄화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2종	039-039
경톄화 · 둥펑	새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초보 연구	040-041
경톄화 · 양춘지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해석	042-044
경톄화 · 좡펑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에서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및 그 연대(상)	045-046
경톄화 · 좡펑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에서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및 그 연대(중)	047-048
경톄화 · 좡펑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에서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및 그 연대(하)	049-050
량즈룽 · 진쥔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 시독	051-053
루리화	호태왕비好太王碑의 역사 사실 증명과 보충 기능	054-055
뤄지쭈 · 충원쥔	호태왕비好太王碑 글자체에 대한 간략한 견해	056-057
리더산	호태왕비好太王碑의 '왜'에 대한 재론	058-059

금석류

광개토대왕릉비 3면 탁본 ©국립문화재연구소

리뎬푸	고구려高句驪 금동, 석조불상 및 중원군비中原郡碑— 고구려高句驪 국명이 고려高麗로 바뀐 시기 논의	060-061
리둥	길림吉林 집안集安에서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	062-062
리러잉 · 경톄화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에 관한 몇 가지 문제—호태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063-064
리신취안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에 대한 나의 견해	065-067
린윈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에 대한 견해	068-069
쉬더위안	호태왕비好太王碑 일부 비문 해석, 고증	070-071
쉬젠신	새로 발견된 고구려 호태왕비好太王碑 조기 묵본墨本— 1884년 판쭈인潘祖蔭 소장본에 대한 초보 조사	072-074
쉬젠신	중국 출토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분석	075-077
쑨런제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비문 판독	078-080
쑨웨이란	호태왕비好太王碑 속 '연호烟戶', '압로鴨盧'의 어의語義 연구	081-083
왕젠췬	호태왕비好太王碑 을미년乙未年 기사 해석	084-086
왕젠췬	호태왕비好太王碑의 발견과 탁본	087-088
왕젠췬	호태왕비好太王碑 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089-090
왕중수	호태왕비好太王碑 비문 신묘년辛卯年 구절 해석	091-092
왕중수	호태왕비好太王碑 비문 신묘년辛卯年 구절 해석 재론	093-094
웨이춘청	새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에 관한 몇 가지 생각	095-096
장푸유	호태왕비好太王碑 속의 '평양성平壤城' 고증	097-098
장푸유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 비문 보충 및 판독, 해석	099-100
장푸유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 탐구	101-101
천중위안 · 왕위	호태왕비好太王碑 을미년乙未年 구절 문단 보충	102-102

저 자 경리耿黎
동북사범대학
연 도 2014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9
『通化师范学院学报』9

호태왕비好太王碑 발견 시기 및 관련 문제 연구

好太王碑发现时间及相关问题研究

주 제 어 호태왕비
발견
시간

호태왕비好太王碑 발견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견이 있다. 하나는 동치同治 말년설이다. 대표자는 류청간劉承干으로, 1922년 『해동금석원보유海東金石苑補遺』에 판독문을 실으면서 이 비석의 탁본이 동치 말년에 북경에 전해졌다고 기록했다. 또 광서光緖 원년설은 구시에광顧燮光이 1918년 발표한 『몽벽이석언夢碧簃石言』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광서 초년설도 있는데, 이는 탄궈환談國桓의 『수찰手札』, 1925년 장옌허우張延厚의 『발어跋語』에서 제기되었다. 1930년 발간된 『집안현지輯安縣志』에서는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서 6년설도 있다. 이는 1909년 예창츠葉昌熾의 『어석語石』, 1923년 어우양푸歐陽輔의 『집고구진集古求眞』에서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동치 말년설은 학계에서 이미 부정되었고, 광서 초년설이 주로 부각되었는데, 원년, 2년, 3년, 6년 등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고, 필자는 그 가운데 광서 3년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왕즈슈王志修의 「고구려영락태왕고비가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이다. 이 시에는 비석 발견 시기가 광서 3년(1877)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그는 호태왕비가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두 번째 근거 역시 왕즈슈의 작품으로, 그는 위 시 이외에 「고구려영락태왕비고高句麗永樂太王碑考」를 써서 위 시와 함께 묶어 『고구려영락태왕고비가고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考』를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비석이 광서 3년에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는 회인현懷仁縣 설치 시기이다. 탄궈환은 『수찰』에서 회인현을 설치한 후 회인현 서계書啟 관웨산關月山이 비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 뒤 왕젠췬王建群 등 여러 연구자들도 이 견해에 동의했는데, 『봉천통지奉天通志』에 따르면 광서 3년에 관전寬甸, 회인懷仁, 통화通化 등의 현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비석이 광서 3년 관웨산에 의해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태왕비 발견 당시 비면에는 이끼가 많아 탁본의 편의를 위해 불을 붙여 이끼를 태웠다. 1909년 예창츠는 『어석』에서 비석을 불태웠다고 했고, 역시 1909년 양서우징楊守敬의 『환우정석도寰宇貞石圖』에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 1914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만주 집안과 평양 부근의 고구려 유적[滿洲輯安和平壤鄰付近的高句麗遺迹]」, 1915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광개토경호태왕비에 관하여[關于廣開土境好太王碑]」, 1918년 구시에광의 『몽벽이석언』, 1925년 장옌허우의 『발언』, 1930년 『집안현지』, 1983년 왕젠췬의 「호태왕비의 발견과 탁본[好太王碑的發現與捶拓]」에도 모두 이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 이 가운데 장옌허우만이 인묘寅卯 연간에 불태웠다고 그 시기를 명기했다. 광서 연간의 인寅, 묘卯년은 4년 무인년(1878), 5년 기묘년(1879), 16년 경인년(1890), 17년 신묘년(1891), 28년 임인년(1902), 29년 계묘년(1903)이 있다. 근데 룽시榮禧는 『고구려영락태왕묘비난언高句麗永樂太王墓碑讕言』에서 광서 8년(1882)에 산동山東의 치단산亓丹山에게 부탁하여 완전한 탁본을 구했다고 밝혔다. 광서 8년에 완전한 탁본을 구했다는 말은 이끼를 불태운 것이 그 이전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위의 인년, 묘년 가운데 해당되는 해는 광서 4년, 5년이 있다. 이상 자료에 근거하면, 관웨산이 이 비석을 발견한 것은 분명 이끼를 불태운 광서 4, 5년 이전이고, 그중에서도 광서 3년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일본 연구자들은 여전히 이 비석이 광서 6년에 발견되었다고 주장 한다. 그들은 예창츠의 『어석』에 수록된 「봉천일칙奉天一則」에 기록된 광서 6년에 주민이 발견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 발견했다는 것은 비석의 발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탁본이 등장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 학자들의 중국 문헌 독해와 이해 능력에는 분명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는 일본 학자들이 염모총冉牟塚의 묘주가 염모임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작성한 모두루牟頭婁를 묘주로 잘못 이해하여, 이 무덤을 모두루총牟頭婁塚이라 이름 붙인 것에서도 확인된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이와 유사한 착오를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다.

耿黎, 2014, 「好太王碑发现时间及相关问题研究」, 『通化师范学院学报』9, 31–34.

저 자 경리耿黎
통화사범학원 국제교육학원
연 도 2017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4
『通化师范学院学报』4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발견 5주년 연구 성과 평가

集安高句丽碑发现五周年研究成果评述

주 제 어 집안고구려비
발견
5주년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항목
'고구려 비각 연구高句麗碑刻研究'
(15@ZH007)

5년 전 7월 하순, 집안시集安市 마선향麻線鄉에서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가 발견되었다. 비석 전후 양면과 좌우를 모두 가공했고, 비수碑首는 삼각형으로 비신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측 위쪽 모서리가 약간 훼손되었다. 비신 하부는 장부 구조이다. 이 비석은 중원의 영향을 받은 규형비圭形碑이다. 정면의 비문은 10행에 각 행마다 22자씩이고 제10행만 20자를 새겼다. 서체는 예서체이다. 비석 발견 이후 연구자들의 판독 결과 156자가 발표되었다.

문자 판독을 위해 2012년 8월 14일 집안集安박물관의 저우룽순周榮順이 처음 이 비석의 탁본 작업을 실시했고, 그 뒤로 쑨런제孫仁傑, 장화궈江化國와 리광푸李光夫, 위리췬于麗群 등도 탁본 작업을 하여 총 4종이 제작되었다. 이 4종 탁본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어 문자 판독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중 위리췬 탁본은 시기가 조금 늦어 연구자들의 판독 작업은 주로 앞의 3종과 비석 자체에 의존했다. 전체적으로 제1~8행의 제1~4자는 거의 판독되지 않았고, 제3~7행 제5~8자 대부분도 판독이 불가능했다.

비문에 대한 연구 작업도 진행되었다. 중국 내에서 2부의 연구 저작이 발표되었는데, 집안박물관에서 편찬한 『집안고구려비』가 2013년에 출판되었고, 장푸유張福有는 2014년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를 출판했다. 전자는 비석 출토기, 조사, 판독, 서체 비교, 연구, 가치, 보호 조치 보고서, 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비석을 호태왕好太王이 부친 고국양왕故國壤王을 위해 세운 비석으로 판단했다. 후자는 발견 경과, 연구 성과, 비석의 주변 환경과 비석의 상태, 판독문 보충과 수정, 주석, 해석, 비석 명칭 등을 싣고 있다.

연구 논문은 모두 76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비문을 판독하고 고증한 논문이 린윈林澐의 논문 등 11편이고, 조사 보고서 성격의 논문이 7편이며, 그 외에 고구려 왕릉 제도와 수묘연호守墓烟戶 제도 및 관련 법조문 정리, 해석을 담

그 림 1. 집안고구려비
2. 저우룽순 탁본
3. 쑨런제 탁본
4. 장화궈, 리광푸 탁본
5. 위리췬 탁본

은 역사 문화 연구 분야 논문, 또 총평과 신문 기사 등도 있다.

한국 학자는 모두 44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북한에서 1편, 일본에서는 2편이 발표되었다.

비석의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상이한 견해도 계속 발표되었다. 현재 이 비석과 관련된 문제로는 먼저 비석 명칭 명명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에서는 대부분 '집안고구려비'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집안마선고구려비'라는 이름을 제기하고 있다. 또 비석을 세운 연대 역시 의견이 나뉘는데, 호태왕이 부친 고국원왕을 위해 세운 수묘연호비로, 호태왕 재위 시기라는 주장이 있고, 장수왕長壽王이 평양 천도 이전에 세운 비석이라는 주장과 천도 이후에 세운 비석이라는 주장도 있다.

끝으로 비석의 성격과 판독문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이 비석이 수묘연호비, 혹은 수묘 제도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한 왕을 위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여러 왕들을 대상으로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또한 판독문 역시 모두 17종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耿黎, 2017, 「集安高句丽碑发现五周年研究成果评述」, 『通化师范学院学报』4, 8–15.

저 자 경톄화耿铁华
길림성 집안현 박물관
연 도 1988
간행물명 『고고여문물』1
『考古与文物』1

호태왕비好太王碑는 불 처리 전의 온전한 탁본이 없다

好太王碑火前无完整拓本

20세기 초 호태왕비好太王碑를 연구했던 다수의 중국 연구자들이 제발題跋이나 찰기札記 속에 비석 발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에 태운 사실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장옌허우張延厚만이 불태우기 전 탁본과 불태운 후의 탁본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1922년에 심양瀋陽에서 불에 태우기 전 탁본을 구해 보았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필자는 불태우기 전 탁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1877년(광서光緖 3년, 정축丁丑) 전후로 관웨산關月山은 호태왕비를 발견하고 그중 몇 글자를 탁본했다. 회인현懷仁縣의 일부 관원들도 호태왕비 발견 소식을 듣고 이를 보러 왔고, 왕즈슈王志修 등도 이 즈음에 비석을 찾아와 비면에 낀 이끼의 극히 일부를 걷어낸 후 비문을 확인했다. 1878~1879년(광서 4, 5년, 무인戊寅, 기묘己卯)에는 회인현 지현知縣의 명에 따라 추톈푸初天富가 비문의 탁본을 시도했다. 당시 비면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 처음에는 도구를 통해 제거를 시도했으나 불가능했고, 결국 소똥(말똥)을 비면에 바르고 이것이 마른 후에 불을 붙여 이끼를 제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면이 갈라지고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그 후로는 비석 주위로 틀을 짜고 그 위에 올라가 비문을 탁본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이른 시기의 온전한 탁본이다. 이처럼 이끼를 제거한 이후에야 비로소 호태왕비의 온전한 탁본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니, 장옌허우가 밝혔던 것처럼 1922년에 심양에서 불에 태우기 전의 호태왕비 탁본을 구했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가 구한 탁본은 다만 탁본 상태가 양호했던 것일 뿐, 결코 이끼를 소각하기 전의 탁본일 수는 없다. 이끼를 소각하기 전에는 온전하게 탁본을 뜰 수 없었기 때문이다.

耿铁华, 1988, 「好太王碑火前无完整拓本」, 『考古与文物』1.

저 자 경테화耿铁华
연 도 1992
간행물명 『고고여문물』4
『考古与文物』4

호태왕비好太王碑 '신묘년辛卯年' 구절 고증, 해석

好太王碑 "辛卯年" 句考释

호태왕비好太王碑 '신묘년辛卯年' 구절은 비문 제1면 제8행의 제34자부터 제9행의 제24자까지 총 32자를 가리킨다. 국내외 학자들의 전통적인 판독문은 "백잔신라구시속민유래조공이왜이신묘년래도해파백잔□□□라이위신민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이다. 그중 판독이 불가능한 3자는 당초 비면의 이끼를 태울 때 훼손된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중국 길림성吉林省 문물고고연구소 왕젠췬王健群의 견해로, "백잔, 신라, 구시속민, 유래조공, 이왜이신묘년래, 도해파백잔, □□[신]라, 이위신민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殘, □□[新]羅, 以爲臣民." 즉 '백제와 신라는 원래 고구려의 속민으로 계속 우리에게 조공해왔는데, 신묘년 이래로 왜인이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쳐 그들을 굴복시켰다'로 해석한다.

둘째는 한국학자 정인보鄭寅普의 견해로, "백잔신라, 구시속민, 유래조공. 이왜이신묘년래, 도해파. 백잔□□신라. 이위신민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 百殘□□新羅. 以爲臣民." 즉 '백제와 신라는 과거에 모두 호태왕의 속민이었고 계속 고구려에 조공해왔다. 왜가 신묘년에 와서 (고구려를 침략한 일이 있다). (고구려 역시) 바다를 건너 (왜를) 공격했다. 백제가 (왜와 연계하여) 신라를 침략했다. (신라가 호태왕의) 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북한의 박시형朴時亨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1963년 중조연합고고대中朝聯合考古隊의 일원으로 집안集安의 호태왕비 현장 조사와 연구에 참여했다. 그는 "백잔신라, 구시속민, 유래조공. 이왜이신묘년래, 도해파. 백잔초왜침라, 이위신민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 百殘招倭侵羅, 以爲臣民." 즉 '백제와 신라는 오랫동안 우리 고구려의 속민이었고 일찍부터 계속 조공해왔다. 왜가 신묘년에 침략해 오자 우리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그들을 쳤다. 그

러나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를 침략하여 그들을 신하로 삼았다'라고 해석했다.

셋째는 일본학자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견해로, "백잔, 신라, 구시속민, 유래조공. 이왜이신묘년래도해파백잔□□신라이위신민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 즉 '백제와 신라는 과거에 고구려의 속민이었고 원래부터 고구려에 조공해왔다. 그러나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치고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았다'고 해석했다.

필자는 최근 호태왕비를 직접 관찰하고 또 여러 탁본의 글자를 비교한 결과, 비문 가운데 '해海'자가 원래 '매每'자였으며, 불확실한 세 글자 가운데 마지막 글자는 '신新'으로 보아도 무방함을 확인했다. 전체 구절은 "백잔, 신라, 구시속민, 유래조공. 이왜이신묘년래도, 매파백잔, □□[신]라, 이위신민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 每破百殘, □□[新]羅, 以爲臣民."이고 그 뜻은 '백제, 신라가 과거에 고구려의 속민이었고 원래 조공해왔다. 그러나 왜가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도渡에는 원래 바다, 강을 건넌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매번 백제와 신라를 치고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았다'라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당시 한반도를 침략한 왜의 세력은 침략의 빈번함이나 군사의 규모로 보았을 때, 상당한 경제, 군사적 능력을 갖춘 부락 국가이거나 최소한 하나의 연맹 성격의 집단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왕젠췬이 밝힌 '북구주北九州 일대 약탈자들이 무리를 지어 해적처럼 한반도 남부로 건너와 살인, 절도를 했을 뿐이다'라는 견해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耿铁华, 1992, 「好太王碑"辛卯年"句考释」, 『考古与文物』4, 107–111.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소
연 도 2002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1
『社会科学战线』1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수장 기록 및 그 연대

好太王碑拓本收藏著录及其年代

주 제 어 호태왕비 탁본
수장
저록
연대

현재 중국 내에 있는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은 총 17점으로 각각 뤼야오둥呂耀東 기증본(집안시集安市 박물관 소장, 1928년 전후 탁본), 장밍산張明善 탁본A(집안시 박물관 소장, 1963년 탁본), 장밍산 탁본B(길림성吉林省 박물원 소장, 1963년 탁본), 장밍산 탁본C(중국 문물국 문박연구소 소장, A, B본과 동시 탁본), 저우윈타이周雲臺 탁본A(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소장, 1981년 탁본), 저우윈타이 탁본B(집안시 박물관 소장, 1981년 탁본), 왕사오전王少箴 소장본(북경시北京市 왕사오전 친지 집에 보관), 북경도서관 소장본,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A,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B,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C,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D, 푸쓰녠傅斯年 도서관 소장본A(대만臺灣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푸쓰녠 도서관 소장), 푸쓰녠 도서관 소장본B(비문 제3면만 남아있다. A본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탁본했고, A와 B 모두 석회 도포 이전 판본), 중앙도서관 소장본A(대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좡옌莊嚴 소장본(집에 소장) 등이 있다.

중국 이외 지역의 경우, 일본에 12점, 한국에 5점, 북한에 1점, 프랑스에 1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사코 가게노부酒匂景信의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1883년에 통구通溝에서 취득), 미즈타니 데지로水谷悌二郎 소장본(일본 미즈타니 데지로의 옛 집에 보관), 미즈타니 데지로 소장 전장본剪裝本(미즈타니 데지로의 옛 집에 보관), 나이토 도라지로內藤虎次郎 구舊 소장본(경도京都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동양문화東洋文化 소장본(동경東京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가네코 오테이金子鷗亭 소장본(가네코 오테이 옛 집에 보관), 구주九州대학 소장본(구주대학 도서관 소장, 1927년 탁본),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소장본(집에 보관), 천리天理대학 소장본(천리대학 도서관 소장), 아다치 고이치足立幸一 소장본(아다치 고이치 집에 보관), 목흑구目黑區 소장본(동경 목흑구 수옥守屋 교육회관

향토자료실 소장), 요미우리방송국 소장본(요미우리TV방송주식회사 소장, 일부 연구자는 이 탁본이 1920년 작품이라 보고 있음) 등이 있다. 프랑스에 있는 1점은 샤반느Edouard Chavannes 소장본으로 1907년에 집안에서 취득했다. 현재 프랑스의 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북한에 있는 1점은 장밍산 탁본D로 현재 사회과학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1963년에 탁본한 것으로 중국에 소장된 장밍산 탁본A, B, C와 종이, 기법이 동일하다. 한국에는 임창순任昌淳 소장본(경기도 양주군 지곡서당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원 조선총독부 도서관 1933년 4월 10일 소장본),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서울대학 도서관 규장각 소장), 서울대학교 박물관 구舊 소장본(원 모리타 요시오森田方夫 1936년 소장본), 서울대학교 박물관 신 소장본(구 소장본과 큰 차이는 없고 소장 일시만 늦다) 등이 있다. 이상의 탁본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등지에 일부 탁본의 소장 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 유실된 것도 있고, 또 목록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의 조사,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 탁본 가운데 제작 연대가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4종이 있는데, 사코 가게노부의 쌍구가묵본이 1883년, 임창순 소장본이 1889년, 북경대학 소장본A 역시 1889년, 샤반느 소장본은 1907년 등이다. 이 탁본 4점의 연대와 특징을 기준으로 기타 탁본의 연대를 판단했을 때, 비교적 이른 시기 탁본으로는 먼저 미즈타니 데지로의 탁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끼를 태우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1887~1889)에 탁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태왕비에 석회를 바른 시기는 대략 1900~1930년이다. 현존 자료와 사진, 탁본 등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석회를 바른 해는 1907, 1913, 1918년이고, 1925년 이후로는 석회가 점차 탈락되기 시작했으며, 그 뒤로는 석회를 바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耿铁华, 2002, 「好太王碑拓本收藏著录及其年代」, 『社会科学战线』1, 172-183.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연 도 2008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9
『通化师范学院学报』9

호태왕비好太王碑 판독문 보충 글자에 관한 약설

好太王碑释文补字略说

주 제 어 호태왕비
글자 보충
설명

1877년 호태왕비好太王碑가 발견된 후 20여 명의 연구자가 판독문을 발표했다. 비석 제작 시기가 오래되어 자연적, 인위적 훼손으로 인해 다수 글자의 판독이 불가능했고, 연구자들의 판독문에도 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공란이 존재했다. 여러 연구자 가운데 룽시榮禧, 진위푸金毓黻의 판독문은 결손 글자에 대한 보충이 가장 많고, 양보신楊伯馨의 판독문에도 보충한 글자가 적지 않다. 비문은 각 행에 41자씩이고, 총 44행으로 원래는 1,775자였으나 결손으로 인해 현재는 1,600자가 되지 않는다. 주요 결손 부위는 제2면 제9, 10행과 제3면 제1~7행으로, 다른 연구자들은 모두 공란으로 비워 두었으나, 룽시, 진위푸, 양보신 등은 이 부분에 글자를 보충하였다.

룽시는 1903년 『고고구려영락태왕묘비문고古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考』를 펴내 비석의 판독문을 소개했고, 진위푸의 비석 판독문은 1925년에 발표된 『요동문헌정략遼東文獻征略』에 수록되어 있으며, 양보신은 1933년에 발표한 『심고瀋故』에 판독문을 소개했다.

이전까지는 룽시 등의 보충 문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속아서 만들어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태왕비 연구가 심화되고 특히 진위푸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그들이 보충해 넣은 문자에 대해 경솔하게 부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사실 위 3인은 모두 청말淸末에서 민국民國 시기의 유명한 학자들로 금석문의 고증, 해석에 일가견이 있어 아무런 근거 없이 결손 부위에 마음대로 글자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룽시의 판독문이 가장 빠른 1903년에 발표되었는데, 그는 1899년에서 1906년 사이에 호태왕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가 소개한 비석 관련 정황은 대체적으로 정확하다. 그는 치단산亓丹山을 통해 완벽한 탁본을 구했다고 했는데, 그가 구한 탁본이 어떤 것인지는 아

무도 보지 못했으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 쌍구가묵본이었을 것이다. 현재 확인되는 탁본은 광서光緖 8년 이래의 조기 탁본에서도 모두 결손 부위가 나타난다. 특히 제3면 제1행은 기본적으로 아예 먹을 묻히지 않았다. 그러나 왕젠췬王健群은 '룽시는 치단산이 전체를 탁본했다'고 소개했고,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왕젠췬의 분석에 근거하면 치단산의 탁본에는 제3면 제1행도 있었을 것이고, 이는 룽시의 판독문이 근거를 갖고 있는 판독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는 치단산의 탁본을 통해 이 행을 판독했고, 물론 그 가운데 오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완전히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증거가 왕즈슈王志修의 「고구려영락태왕고비가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이다. 이 시는 총 84행에 588자로, 호태왕비의 위치, 문자, 내용, 발견 시간 및 그 가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 광서 3년(1877)에 발견되었다는 부분이나, 내용 가운데 추모왕鄒牟王의 모친이 하백河伯의 딸이고 비류곡沸流谷을 지나 홀본忽本에서 건국했다는 부분 등 다수의 내용이 비문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 시에는 또한 룽시가 보충한 제3면 제1행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다. 왕즈슈는 호태왕비가 발견된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비석을 찾아 탁본을 한 학자로, 당연히 비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 것이고, 비문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시에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위푸의 보충 글자도 룽시와 큰 차이는 없고, 다른 글자 역시 그 모양이 비슷한 문자로 룽시의 '복復'을 진위푸는 '후後'로, '토土'는 '산山'으로, '개皆'는 '수首'로 보충했다. 이상 글자는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만약 진위푸가 룽시의 판독문에 근거해서 글자를 보충했다면, 이러한 차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 역시 치단산의 탁본을 확인했거나 혹은 유사한 조기 탁본을 보고 룽시의 판독문과 비교한 후 판단한 결과였을 것이다.

양보신의 보충 글자는 룽시와 더 유사하다. 그의 『심고』에 수록된 판독문은 1902년 이전에 완성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보충 글자 가운데 룽시와 다른 부분은 역시 진위푸와 마찬가지로 이른 시기의 탁본을 보고 판독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룽시, 진위푸, 양보신의 판독문 보충 글자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경솔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나아가 이를 '자기 기만'이나 '누군가에게 속아서 나온' 판독문으로 보아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치단산이 작업한 호태왕비 탁본이 발견된다면 더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耿铁华, 2008, 「好太王碑释文补字略说」, 『通化师范学院学报』9, 1–3, 13.

저 자 경테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11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11
『社会科学战线』11

호태왕비好太王碑 신묘년辛卯年 구절과 관련 문제

好太王碑辛卯年条与相关问题

주 제 어 호태왕비
신묘년 구절
왜
동아시아 고대 국가
고구려

호태왕비好太王碑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경평안호태왕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묘비로, 고구려의 건국 설화, 전기 3왕의 전승 관계, 호태왕好太王 통치 시기의 문치와 무공, 호태왕 수묘연호守墓烟戶의 출신지와 숫자 및 관련 제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제1면 제8, 9행에는 고구려와 신라, 백제, 왜 사이의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왜이신묘년래도倭以辛卯年來渡" 이하 구절을 국내외 학자들은 '신묘년조辛卯年條'라고 부르는데, 이 문단의 끊어 읽기, 해석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 구절 속 왜의 실체, 또 고구려, 신라, 백제와 왜 사이의 관계 역시 중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신묘년조 문단은 총 32자로 "백잔신라구시속민유래조공이왜이신묘년래도해파백잔□□□라이위신민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이다. 그러나 필자가 각종 탁본, 사진 및 호태왕비 실물을 비교한 결과 '래도해來渡海'의 '해海'자는 원래 '매每'자이고 옆의 삼수변은 세로방향 경계선을 오독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문장은, "백잔, 신라, 구시속민, 유래조공. 이왜이신묘년래도, 매파백잔, □□신라, 이위신민百殘, 新羅, 舊時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 每破百殘, □□新羅, 以爲臣民"으로 끊어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속민으로 계속 고구려에 조공을 왔다. 왜가 신묘년에(혹은 부터) 바다를 건너와 매번 백제, 신라를 치고, 이들을 왜의 신민으로 삼았다'로 해석된다.

그리고 판독이 안 되는 두 글자는 '임나任那'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매번 공격하는[每破]' 대상이 백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임나와 신라까지 포함되게 된다. 이는 뒤에서 임나가라任那加羅가 언급되는 상황과도 연결된다.

전체 비문에 왜倭는 모두 12차례 등장하는데, 신묘년(391)부터 호태왕 14년(404)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하거나 현재의 평양平壤 일대를 공격한 왜를

고구려가 토벌하는 내용이다. 이 시기 한반도를 침략한 왜는 당시 왜국倭國의 이익을 대표하는 군대였다. 그들이 백제, 신라, 대방帶方 등을 침입하여 고구려 군대와 교전하고 또 패퇴한 일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사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관계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당시 한반도에 침입했던 왜가 결코 일본 열도 한 지역에만 근거지를 둔 '해적' 수준은 아니었다.

호태왕 시기 고구려는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라에 원병을 파견하기도 했다. 호태왕비에는 신라를 그대로 신라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백제와 왜는 '백잔百殘, 왜구倭寇, 왜적倭賊' 등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보이듯이 고구려는 백제, 왜에 적대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다. 백제와 왜 사이의 연맹 관계는 매우 명확하다. 백제는 왜의 역량을 빌어 신라와 고구려의 연합을 위협하고, 함께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에 대항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통치를 기도했을 것이다.

耿铁华, 2011, 「好太王碑辛卯年条与相关问题」, 『社会科学战线』11, 216–225.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3
『东北史地』3

집안集安에서 새로 출토된 고구려비의 중요한 가치

集安新出土高句丽碑的重要价值

주 제 어 집안
고구려비
가치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는 호태왕비好太王碑가 발견된 이후 135년 만에 발견된 또 하나의 고구려 문자비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고구려 문자 자료는 주로 비석, 묵서묘지, 전와의 명문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태왕비이다. 4면에 모두 글자를 새긴 이 비석의 내용은 총 44행에 각 행 당 41자씩 모두 1,775자였으나 현재까지 판독된 것은 1,600자 정도이다. 다음으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가 있다. 1979년에 발견되었고, 예서체 한자로 4면에 모두 글자를 새겼다. 전면은 10행, 좌측면은 7행, 뒷면은 9행, 우측면은 6행에 각 행 당 23자로 원래 730자 정도이나 판독된 것은 360자 정도이다. 집안고구려비는 2012년 7월에 발견되었다. 비의 형태는 규형圭形으로, 위는 좁고, 아래는 넓다. 원래 비좌碑座가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정면과 뒷면에만 예서체 한자를 새겼다. 전면은 총 10행, 각 행 당 22자로 220자였으나 현재 판독된 것은 156자이다. 뒷면은 한 행의 글자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모호하다.

집안고구려비는 호태왕비와 내용, 서체 등이 유사하다. 형태면에서는 호태왕비와 중원고구려비가 방형 기둥 모양이고, 집안고구려비는 규형으로 모양이 독특한 편이다. 크기는 집안고구려비가 중원고구려비보다 약 30㎝ 더 크지만, 문자는 중원고구려비보다 적다. 내용은 호태왕비와 비슷하여, 추모왕鄒牟王의 창건 상황을 기록했고, 호태왕 시기의 수묘연호守墓烟戶 제도를 분명히 했다.

집안고구려비의 역사적 가치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역사 문헌의 보충이다. 집안고구려비는 문자가 많지 않지만, 고구려 왕계와 상장 제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호烟戶의 매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조문은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로 다시 한번 검증과 보충이 필요한 내용이다.

둘째는 호태왕비와의 상호 검증이다. 호태왕비에 따르면 선왕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를 기록했다고 하나, 현재까지 집안 지역 고구려 무덤 고고조사에서 확인된 비석은 무자비無字碑 3기뿐이다. 게다가 고구려 왕릉에서는 이러한 비석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집안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호태왕비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셋째, 고구려 역사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 점이다. 역사 문헌 속 수묘인의 칭호는 '수총守塚', '원읍園邑', '능호陵戶' 등이다. 고구려 문헌 속 수묘인은 '수묘守墓'이고 집이나 호를 단위로 했다. 오직 호태왕비에만 '수묘연호', '국연國烟', '간연看烟'이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이를 총칭해서 '연호'라 불렀다. 집안고구려비에는 연호 외에 '연호두烟戶頭'라는 새로운 명칭이 등장한다. 이는 고구려 수묘연호에 대한 새로운 증거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문 속의 '연호'가 '수묘지민守墓之民'이라는 것이고, 이는 고구려 왕릉 수묘연호의 신분과 지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무□정률戊□定律' 역시 문헌이나 고고자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무□'이 무자戊子이든 무오戊午이든 모두 고구려에서 율령을 정해 반포한 시간을 말한다. 이 율령은 수묘연호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이고, 이를 공포한 동시에 비석에 새겼다는 사실은 의의가 크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는 소수림왕小獸林王 3년에 처음 율령을 반포했다. 이 해는 373년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마 수묘연호와 관련된 조문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연호를 매매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집안고구려비에 처음 수묘연호에 관한 법률 조문을 공포한 것은 당연히 소수림왕 이후가 될 것이고, 앞에서 추정한 것처럼 집안고구려비의 '무□'이 만약 '무자'라면 고국양왕故國壤王 5년(388)이 비교적 합리적이며, '무오'라면 장수왕長壽王 6년(418)이 적절하다.

그 밖에 집안고구려비의 제1행 '시조추모왕지창기야始祖鄒牟王之創基也'는 호태왕비의 시작 부분과 완전히 일치하며, 『삼국사기』의 내용까지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호태왕의 공적 일부를 누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안고구려비가 증명해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천추총千秋塚은 고구려 제18대 고국양왕故國壤王의 능묘이고, 태왕릉太王陵은 호태왕릉이며, 장군총將軍塚이 장수왕릉이라고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정률戊□定律'이 무자년이면 고국양왕 5년(388)이고, 무오년이면 장수왕 6년(418)인데, 호태왕 시기에 선대왕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겼다면, 이 시기에는 이미 수묘연호의 법률 조문이 제정되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장수왕 6년은 약간 늦은 감이 있고, 고국양왕 5년이 맞을 것이다. 즉 고국양왕 시기에 이미 왕릉의 수묘연호를 매매하는 일이 벌어져 관련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뒤 고국양왕이 사망했고, 호태왕이 즉위 후 부친을 위해 비석을 세우면서 다시 부친이 제정한 법

률 조문을 비석에 새겨 이를 기념한 것이다. 게다가 이 비석은 천추총에서 서북쪽으로 458m 떨어진 수묘연호의 거주 지역에 세워졌다. 이는 천추총이 광개토대왕의 부친인 고국양왕의 무덤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다.

이 비석은 고구려 도성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집안은 고구려의 두 번째 도성이고, 존속기간도 가장 길었던 도성이다. 새로 출토된 집안고구려비는 고구려 왕릉과 수묘연호 제도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고구려 도성 연구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집안고구려비의 예술적 가치는 비석의 조형과 서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안고구려비의 조형은 규형비圭形碑에 속한다. 비수碑首는 규형이고 비신碑身은 평평한 방형이며, 상부가 하부보다 좁고 비수와 일체로, 동한東漢 이래 규형비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인다. 출토 당시 비좌는 보이지 않았으나 장방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상부에 순두榫頭와 결합하는 오목한 홈이 있었을 것이다. 이 역시 동한 이래의 비좌와 동일하다. 방형 기둥 모양인 호태왕비, 중원고구려비와는 다른 형식으로 매우 높은 조형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집안고구려비의 서체는 기타 두 비석과 마찬가지로 예서체에 속한다. 이는 예서체가 고구려에서 당국의 정식 서체였고 정령, 포고문, 중원과의 교류에 모두 채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안고구려비는 고구려 서예 연구에 새로운 자료로서, 호태왕비, 염모총冉牟塚 묘지, 전와 명문 등과의 비교 연구가 가능해졌고, 또 고구려인이 남긴 재질별 서체의 연구 및 시기별 서예의 발전 변화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耿铁华, 2013,「集安新出土高句丽碑的重要价值」,『东北史地』3, 54–61.

저 자 경톄화耿铁华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13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3
『通化师范学院学报』3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고증, 해석

集安高句丽碑考释

주 제 어 집안
새로운 발견
고구려비

2012년 7월 29일 집안시集安市 서남쪽 마선하麻線河 우안에서 고구려 시기 비석 1점이 출토되었다. 비석은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로 명명되었다. 기존에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나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는 모두 방형 기둥 모양이나 집안고구려비는 규형圭形으로 상단이 하단보다 약간 좁으며 비수碑首가 비신碑身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동한東漢 시기 이래 규형 비석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우측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었고 하단에는 장부가 있어 원래 비좌碑座에 꽂아두는 형식으로 보이나 비좌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3년 천추총千秋塚에서 장부 구멍 4개가 있는 판석이 발견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도 국내성國內城 유적 공원 동북쪽 모서리에서 장부 구멍이 있는 비좌가 발견된 일이 있다. 이상은 고구려에도 장부 구조의 비석이 존재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집안시 마선향麻線鄉 홍성촌紅星村 2조組에서는 고구려 시기 채석장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의 석재는 화강암이고 색상은 분황색粉黃色으로 집안고구려비의 석재, 색상과 동일하다.

비석 정면에는 예서체 한자가 음각되어 있다. 모두 10행이고 글자 칸은 없다. 앞의 9행에는 각각 22자, 마지막 1행에는 20자가 있어 원래 총 218자였으나, 우측 상단의 훼손된 부분에 10여 자가 결손되었고 또 비면의 마모로 인해 현재 판독 가능한 글자는 156자이다.

뒷면은 1행만 있는데 판독이 불가능하다. 좌측에도 글자가 있으나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연호두烟戶頭의 이름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행과 제2행은 고구려의 기원, 건국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으로, 비문의 '시조추모왕지창기야始祖鄒牟王之創基也'는 호태왕비의 '유석시조, 추모왕지창기야惟昔始祖, 鄒牟王之創基也'에서 '유석惟昔'만 빠지고 동일하다. 또 '일월지자, 하

그 림 1. 집안고구려비 정면
2. 측면도(왕평융 실측)

백지손回月囚子, 河伯之孫'은 염모총冉牟塚 묘지의 '하백지손, 일월지자, 추모성왕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에 근거하면 '일월지자日月之子'로 추정된다. '신령우호폐음, 개국벽토, 계윤상승神靈祐護蔽蔭, 開國辟土, 繼胤相承' 중 신령이 보우했다는 내용은 추모왕鄒牟王이 엄리수奄利水를 건널 때 거북이 다리를 놓았다는 전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홀본忽本에 도착하여 국가를 세운 후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국토를 개척한 것이 '개국벽토開國辟土'이고, '계윤상승繼胤相承'은 호태왕비에 나오는 2대 유류왕儒留王, 3대 대주류왕大朱留王에게 왕위를 계승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집안고구려비와 호태왕비에 기록된 추모왕의 건국 정황과 3대까지의 계승 관련 내용은 문헌기록과 거의 동일하여, 중국 정사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관련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비문 가운데 '이차하류, 사시제사以此河流 四時祭祀'라는 구절은 즉 이 비석을 세운 강변에서 사계절에 맞춰 제사를 모신다는 뜻이다. 고구려는 제사 활동을 매우 중시하여 중원과 마찬가지로 제사와 전쟁을 국가 정치의 가장 큰 일로 여겼다. 비석이 세워진 곳은 현재 인가가 들어섰고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 북쪽은 고구려 고분군이 있고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약 350m 떨어진 곳에 천추총이 있다. 비석이 세워진 곳은 분명 수묘연호守墓烟戶의 주거 구역이었을 것이다. 이는 수묘연호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제사 활동까지 제도화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제5행에는 '국강상태왕國罡上太王'이 나오는데 '국國'자는 모호하고 '상上'자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염모총 묘지에도 '체지국강상태왕逮至國罡上太王'이라는 문구가 있어, 이 비석의 위 글자 역시 같은 '국강상태왕'일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문장은 앞뒤의 문자가 훼손이 심하여 판독이 곤란하다. 그러나 호태왕 시기 사회가 안정되고 강역을 개척했다는 점에 근거하면, 선왕을 위해 비석을 세워 그들의 공적을 추술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3, 4, 8행은 모두 고구려 수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고구려 수묘연호 제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고 이는 고구려가 중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서한西漢 시기 이래 봉건제왕의 능원 제도가 형성되면서 왕족과 귀족의 능원 부근에는 모두 수묘인이 있어 관리, 청소를 담당했다. 수묘인은 대부분 가家, 호戶를 단위로 했고 '수총守冢', '원읍園邑', '능호陵戶' 등으로 불렸다. 고구려의 수묘 제도 관련 기록은 많지 않지만, 집안고구려비는 수묘 제도를 일부 보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수묘연호가 책임지는 일 중에 제사가 포함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연호두라 불리는 수묘연호 중의 책임자가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비석에는 총 20명의 연호두 이름을 기록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수묘연호의 매매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도 기록하여 고구려 수묘 제도를 더욱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보완하였다.

필자는 수묘연호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최소한 농노 혹은 그 보다 더 높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비석의 제10행에는 수묘연호를 매매하는 자는 물론 그 후손까지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수묘연호가 얼마나 중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신분과 지위가 절대 임의 매매나 살해가 가능한 노예일 수는 없다. 또한 비문에는 '수묘지민守墓之民'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이는 연호를 서민, 즉 고구려의 보통 백성으로 간주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밖에 제7행의 '자무□정률自戊□定律'에서 간지가 나오는데, 이는 비석을 세운 연대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무'자 뒤의 글자가 불분명하다. 글자 형태와 필획을 기초로 추정하면 '자子', '오午', '신申'이 비교적 근접해 보이는데, 호태왕 재위 시기와 인접한 무자년戊子年으로는 고국양왕故國壤王 5년(388), 무신년戊申年은 호태왕 18년(408), 무오년戊午年은 장수왕長壽王 6년(418)이 있다. 무오년이라면 장수왕 시기인데, 그 전에 호태왕이 이미 선왕 무덤에 비석을 세웠기 때문에, 더 늦은 장수왕대에 와서 새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만약 무자년이라면, 고국양왕이 391년에 사망했으므로, 사망하기 3년 전에 아들 호태왕과 선왕 무덤의 수묘연호 문제를 논의하며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무신년 즉 408년은 호태왕비의 기록과도 부합하고, 또 비석의 형식, 서체와도 일치한다. 즉 호태왕 18년에 수묘연호 관련 법률 제도를 제정하고 동시에 선왕을 위해 비석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호태왕비에 기록된 '선왕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烟戶를 새겨, 착오가 없게 한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집안고구려비에는 연호두의 이름이 있고, 또 수묘연호 제도 및 처벌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호태왕이 선왕을 위해 세운 비석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비석을 세운 연대는 호태왕 시기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耿铁华, 2013,「集安高句丽碑考释」,『通化师范学院学报』3, 1–5.

저 자 경톄화耿铁华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15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5
『通化师范学院学报』5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의 연대와 성격

集安高句丽碑的年代与性质

주 제 어 집안고구려비
연대
성격
호태왕비

지원사업 교육부 항목 '고구려 석각, 벽화 및 관련 전적 수집 정리와 연구[高句麗傳世碑碣銘刻, 壁畫及相關典籍搜集整理與研究](14YJA770005)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의 연대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호태왕비好太王碑에 나오는 '선왕 무덤에 비석이 없어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에 착오가 생겼고, 호태왕好太王이 이를 위해 선왕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를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했다[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는 내용이다. 즉 추모왕鄒牟王부터 고국양왕故國壤王까지 그 무덤에 비석이 없어 호태왕이 선왕의 묘역과 수묘연호守墓烟戶의 거주 지역에 비석을 세워 수묘연호들이 그들의 출신, 숫자, 책임, 법칙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이 구절에 나오는 '유唯'자와 '진盡'자는 오직 호태왕만이 선왕 무덤에 비석을 세웠음을 강조하고 있다. 장수왕長壽王이 부친을 위해 비석을 세울 때, 그의 부친은 이미 모든 선왕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둘째로 집안고구려비에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있기는 하다. 비문 제7행 제9~13자는 '자무□정률自戊□定律'이다. 현재 이 간지에 대해서는 '무자戊子, 무오戊午, 무신戊申'의 세 견해가 제기되었다. 다수 연구자들이 추정하는 해는 고국양왕 5년(388)의 무자년, 고국원왕故國原王 18년(348)의 무신년, 호태왕 18년(408)의 무신년, 장수왕 6년(418)의 무오년이다. 무자 혹은 무신에 율령을 정한 것으로 보면 이는 호태왕이 선왕을 위해 세운 비석이 되고, 무오년이면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 된다.

셋째로 비석의 형태도 그 연대를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비석은 전형적인 규형비圭形碑이다. 규형비는 한대漢代부터 등장하는데, 집안고구려비와 동일한 형태의 규형비 가운데 고구려인이 그 생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었던 비석으로 현재 발견된 것은 관구검기공비毋丘儉紀功碑뿐이다. 이 비석은 부서진 형태를 보면 완형은 규형비였다. 호태왕이 재위 당시에 선왕을 위해 비

그 림
1. 집안고구려비 정면, 측면도
2. 집안고구려비 정면
3. 선우황비 정면
4. 선우황비 뒷면
5. 등태위비
6. 관구검기공비
7. 관구검기공비 복원도
8. 고구려 비좌 평 · 단면도
9. 호태왕비
10. 중원고구려비
11. JSM1411호 고분 석비
12. JYM1080호 고분 석비
13. 마선묘구 내 집안고구려비 위치도
14. 태왕릉과 호태왕비
15. 호태왕비와 태왕릉

석을 세웠다면 아마도 관구검기공비와 유사한 형태의 규형비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집안고구려비가 이러한 판단을 증명하고 있다.

집안고구려비는 하부가 장부 구조이나 비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구려인이 이미 장부 구조와 비좌를 사용했음은 고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천추총千秋塚 남쪽에 위치한 판석에는 4개의 방형 구멍이 있는데 이는 나무 기둥의 장부를 끼우는 구멍이다. 또 1980년대 중반 국내성國內城 내에서 대형 비좌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비좌는 장방형이고 중앙에 장부 구멍이 있다.

호태왕은 업적이 커서 이를 기리는 비석은 일반적인 규형비로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호태왕비는 방형 기둥 형태의 대형 석비로 제작되었고, 그 뒤로 제작된 고구려 비석은 모두 방형 기둥 혹은 능주형棱柱形으로 제작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원고구려비이다. 그 뒤로 등장하는 고구려 귀족 무덤의 글자가 없는 비석 역시 그 형태는 방형 기둥 혹은 능주형이다. 산성하묘구山城下墓區 M1411호에 있는 비석은 팔각기둥 형태이고, 우산묘구禹山墓區 M1080의 비석 역시 상단은 원형에 하단은 방형의 기둥 형태이다. 이처럼 집안고구려비는 형태면에서나 크기 면에서나 모두 호태왕비보다 일찍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호태왕 시기 선왕을 위해 비석을 세운 정황에 부합되는 것이다.

넷째로 집안고구려비의 성격 역시 그 제작 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비석이 세워진 위치, 자연 환경, 부근 고구려 왕릉과의 관계, 비문 속 수묘연호 및 그 제도 등에 근거하면, 이 비석은 호태왕 이전의 왕들 무덤에 세워진 묘비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네 가지 측면의 분석에 근거하면, 집안고구려비는 호태왕 재위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사의 대상은 바로 이 강과 비석에서 가장 가까운 왕릉이었을 것이다.

이 비석 출토지 부근에는 다수의 고구려 시기 무덤이 있고, 2003년 세계문화유산 신청 당시 확정된 고구려 왕릉으로는 4기가 있다. 그 가운데 비석에서 가장 가까운 왕릉은 천추총이다. 비석은 원래 마선하麻線河 강변 대지에 위치했을 것인데, 이곳은 원래 고구려 수묘연호의 주거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 비석과 천추총의 위치 및 자연 환경은 태왕릉太王陵과 호태왕비의 위치 및 자연 환경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태왕릉이 위치한 곳의 경사지 아래로는 속칭 마련하馬蓮河라는 작은 개울이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鴨綠江으로 들어가고, 동북쪽으로 360m 떨어진 곳에 호태왕비가 위치한다. 비석 부근에는 원래 110여 민가가 있었고 이곳을 대비촌大碑村이라 불렀다. 이곳은 원래 태왕릉 수묘연호의 주거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자연 환경과 왕릉, 비석의 관계가 집안고구려비, 천추총과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천추총과 집안고구려비 사이에는 하천이 흐른다는 점이 다르지만, 이는 오히려 비문에 보이는 '이 하천에서 사

계절마다 제사를 모신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천추총 묘주는 고구려 제18대 고국양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자는 비문 속 '□강□태왕□罡□太王'을 '국강상태왕國罡上太王'이라고 판독했다. 호태왕비에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 등장하고 이를 줄이면 '국강상태왕'이라 부를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집안고구려비 속 '국강상태왕'을 비정하는 견해에 차이가 발생한다. 필자는 비문 속 국강상태왕이 고국원왕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호태왕 재위 시기에 세운 비석에 자신의 이름(국강상태왕)을 썼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석이 장수왕 시기에 세워진 비석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같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즉 국강상태왕이 호태왕의 시호인데 호태왕 재위 시기에 세워진 비석에 사후에 붙이는 자신의 시호를 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사실 고구려왕의 이름이 중원 제왕처럼 사후의 그런 시호인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이다. 호태왕만 보아도, 그의 이름을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광개토왕廣開土王이라 하였고, 호태왕비에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태왕太王', '영락태왕永樂太王',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 등으로 등장한다. 또 태왕릉에서 출토된 명문 전돌에는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라 기록되어 있고, 역시 태왕릉에서 출토된 동령에는 '신묘년호태왕□조령구십육辛卯年好太王□造鈴九十六', 호우명 그릇에는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동호우십乙卯年國罡上廣開土地銅壺杅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명문 전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호태왕 사후의 기록이지만 명문 전돌의 신묘년辛卯年은 391년, 즉 호태왕이 막 즉위했을 당시로, 호태왕이 즉위해서 바로 호태왕이라는 이름을 썼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 사후의 네 가지 이름 역시 통일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시호의 규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호태왕비에는 그가 즉위했을 때 '영락태왕'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원래 시호가 아닌 것이다. 고구려의 여러 왕들은 대부분 출신 지역명 혹은 사후의 장지로 이름을 지었다. 물론 만기의 여러 왕들은 또 변화가 있었지만 중원 제왕의 시호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고구려왕들에게 시호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집안고구려비가 호태왕이 부친인 고국양왕을 위해 세운 묘비이고, 목적은 연호를 기록하여 착오를 막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국양왕의 무덤은 당연히 천추총이고, 비석을 세운 시기는 호태왕 후기일 것이다.

耿铁华, 2015, 「集安高句丽碑的年代与性质」, 『通化师范学院学报』5, 1–7.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15
간행물명 『동북사지』4
『东北史地』4

호태왕비好太王碑와 동북아 고대국가의 관계

好太王碑与东北亚古代国家关系

주 제 어 호태왕비
동북아
국가 관계

호태왕비好太王碑는 고구려 제20대 장수왕長壽王이 부친 제19대 호태왕好太王을 위해 세운 묘비이다. 이 비석에는 모두 1,775자가 새겨져 있고, 그 가운데 약 1,600자가 판독되었다. 전체 내용 가운데 고대 동북아시아 민족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기록한 부분은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의 학자들이 매우 주목하는 부분이다. 호태왕비의 전쟁 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신묘년조辛卯年條' 혹은 '신묘년구辛卯年句'라 불리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필자는 이 구절의 원문을 "이왜이신묘년래도, 매파백잔, □□신라, 이위신민而倭以辛卯年來渡, 每破百殘, □□新羅, 以爲臣民"으로 판독했다. 신묘년은 동진東晉 무제武帝 태원太元 16년(391)으로 호태왕이 막 즉위했던 때이다. 당시 왜구가 한반도 남부를 침략하고 북으로 고구려까지 치려 하자, 5년 후 호태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쳤다. 그 뒤로 14년 갑진甲辰, 17년 정미丁未, 19년 경자庚子에도 몇 차례 큰 전쟁이 있었고, 결국 호태왕의 군대는 백제를 치고, 신라를 구원했으며 왜구를 몰아냈다. 호태왕비에 기록된 4세기 말~5세기 초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 기사는 고구려, 신라, 백제, 왜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당시의 사서에는 빠져있는 부분으로 비문은 역사의 공백을 채우는 중요한 사료이다. 학자들 간에는 비록 '신묘년조'에 대한 판독과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당시 왜구가 수차례에 걸쳐 한반도를 침략한 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와 왜구를 격파하고, 왜구가 한반도에서 쫓겨난 일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구려는 서한西漢 원제元帝 건소建昭 2년부터 '왕'을 칭하고 한漢나라 고구려현高句麗縣 내의 지방 봉국이 되었는데, 한 왕조의 인가를 얻고 또 '조복의책朝服衣幘', '고취기인鼓吹伎人'을 하사받았다가, 왕망王莽이 고구려 등 지방 봉국의 '왕'을 '후侯'로 강등시켰고, 동한東漢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8년에 다시 '왕'으로 복귀

되었다. 그 이후의 고구려왕들도 계속 중원 왕조의 책봉을 받았으며, 중원 왕조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쳤다. 특히 위진魏晉 이후로는 '고구려왕'으로 책봉되는 외에, 직함과 작위가 더 추가되기도 했다.

3세기 중엽 동천왕東川王이 신라 북쪽을 침범했을 당시의 위용에 놀란 신라는 곧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맺었고 그 뒤로 100여 년 동안 이 관계가 지속되었다. 왜구가 신라를 침범했을 때 고구려가 신라로 원군을 보낸 것도 이러한 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양국의 우호 관계는 장수왕 후기까지 이어지다가 고구려의 남하정책이 이어지면서 점차 악화되어 갔다.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북쪽을 침범하자 신라는 백제와 동맹 관계를 맺어 고구려에 대항했고, 당태종唐太宗 시기에 마침내 당唐과 함께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다.

백제는 건국 초기 주로 남쪽을 개척하여 고구려와의 교류는 많지 않았다. 고구려는 고국원왕故國原王 39년(369)에 왕이 직접 백제를 치러 왔다가 백제에게 대패했고, 41년(371)에는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했으며, 고국원왕은 이 때 전사했다. 그 뒤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계속 좋지 않았다. 특히 호태왕 시기에는 수차례에 걸쳐 백제를 정벌하기도 했다. 백제가 왜구와 함께 신라를 침범했을 때도 호태왕은 신라를 도와 백제와 왜구를 쳤다. 양국의 관계는 장수왕 시기에 더욱 심각해졌다. 쌍방은 변경 지역에서 끊임없이 교전했고, 결국 장수왕 63년(475)에는 장수왕이 직접 백제의 도성을 공격하여 백제왕을 사살하기도 했다. 백제는 부득이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대항해야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백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신라, 당의 연합군에 의해 패망했다.

문헌에 따르면, 한무제漢武帝 시기 왜의 30여 국이 한漢과 교류했고, 동한 광무제 시기에는 왜노국倭奴國에서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기도 했다. 고구려와 왜의 교류는 신라, 백제보다 늦다. 호태왕비에 기록된 왜구의 한반도 침입 관련 기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왜의 교류 상황을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고대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관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호태왕비에 기록된 동북아 고대국가 사이의 관계는 왜구의 한반도 침입에서 시작되었다. 왜구가 침입하기 시작한 신묘년(391)부터 17년 정미년(407)까지 이들 사이의 전쟁과 교류가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동북아에 존재했던 고구려, 신라, 백제, 임나가라, 왜까지 모두 그 속에 뒤섞여 있었다. 신라와 백제는 비록 한당의 판도 내에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중원 왕조의 책봉을 받았던 나라였다. 중원 왕조와 그들의 사서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를 모두 동이東夷의 범주 내에 포함시켰다. 왜국은 비록 중원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으나, 일찍이 이미 중원의 책봉을 받았다. 왜의 오왕五王 시기에는 모두 남조南朝 유송劉宋 정권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요구했다.

호태왕비에 기록된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임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 관계였고, 백제와 왜가 동맹 관계였다. 왜구의 부단한 한반도 침범은 고구려 호태왕의 강력한 군사력에 무너져버렸다.

호태왕비 비문 속 왜의 칭호를 보면 그들이 침략자를 대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의 판독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비문에 분명히 '왜적倭賊', '왜구倭寇'라는 폄하하는 칭호가 보인다는 점은 여러 판독문이 모두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왜구를 도왔던 백제 역시 '백잔百殘, 잔국殘國, 잔주殘主, 잔병殘兵' 등으로 폄하해서 표기했다는 점은 고구려가 왜나 백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호태왕비가 발견되고 비문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의 어용학자들은 왜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한반도를 점령하여 식민지를 건설했었고, 이 식민지 회수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침략을 위한 역사적 근거와 핑계를 찾고자 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점령했고 나아가 중국 전체를 침략했다. 그 침략의 핑계가 혹 호태왕비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耿铁华, 2015, 「好太王碑与东北亚古代国家关系」, 『东北史地』4, 45–50.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역사와 지리학원,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17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2
『通化师范学院学报』2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2종

关于新发现的两种好太王碑拓本

주 제 어 새로운 발견
호태왕비
탁본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항목
(15@ZH007)

그 림
1. 호태왕비 탁본 전시 상황, 좌에서 우로 제1, 2, 3, 4면
2. 쉬궈웨이 소장 호태왕비 탁본 제1면
3. 쉬궈웨이 소장 호태왕비 탁본 제2면
4. 쉬궈웨이 소장 호태왕비 탁본 제3면
5. 쉬궈웨이 소장 호태왕비 탁본 제4면
6. 쉬궈웨이 소장 호태왕비 탁본 제1면 부분
7. 쉬궈웨이 소장 호태왕비 탁본 제2면 부분
8. 황양후이 제발
9. 호태왕비 전장 잔본
10. 량잉루 선생이 『호태왕비 일천오백팔십년제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에 쓴 기념 글
11. 량잉루 소장 호태왕비 탁본 4폭 및 제첨
12. 량잉루 소장본 제2면, 제1면(사진 량쥔화 제공)
13. 량잉루 소장본 제4면, 제3면(사진 량쥔화 제공)
14. 량잉루 소장본 제1면
15. 량잉루 소장본 제2면
16. 량잉루 소장본 제3면
17. 량잉루 소장본 제4면
18. 량잉루 소장본 제1면 부분
19. 량잉루 소장본 제4면 부분

표
1. 호태왕비 대표 문자 비교표

2016년 4월 필자는 리러잉李樂營 교수와 함께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2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제남濟南의 쉬궈웨이徐國衛 선생 소장본이다. 쉬 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이 탁본은 20여 년 전 상해上海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탁본은 석회 도포 초기의 탁본으로 판단된다. 시기는 대략 1905년에서 1913년 사이이고, 현지 탁공인 추톈푸初天富와 추쥔더初均德의 작품일 것으로 보인다.

쉬궈웨이 선생은 또 다른 판본의 호태왕비 탁본 일부도 소개했다. 이 판본은 탁본한 종이를 잘라 제본한 것으로 그중의 일부 잔본殘本이었다. 앞에는 쉬베이훙徐悲鴻의 비서 황양후이黃養輝가 쓴 제발題跋도 있다. 연구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앞의 탁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또 다른 탁본은 광주廣州의 량잉루梁英陸 선생 소장본이다. 량잉루 선생의 이 탁본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저명한 고문자학자 룽겅容庚 선생에게서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비석의 깨진 부분에는 먹을 묻히지 않았다. 이는 이 시기 대부분 탁본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탁본 시기는 역시 1905년 혹은 1910년 전후일 것이다.

이번에 제남과 광주에서 확인한 두 탁본은 모두 개인 소장본으로 상태도 양호하고 종이와 먹, 탁본 기법 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모두 석회 도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톈푸, 추쥔더 부자가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글자에서는 석회 도포 이전의 조기 탁본과는 다른 명확한 특징이 확인된다. 석회 도포 전후의 탁본에서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19자를 비교해 보면 위의 두 판본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석회 도포 이후의 탁본과도 거의 동일하다.

耿铁华, 2017, 「关于新发现的两种好太王碑拓本」, 『通化师范学院学报』2, 10–19.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둥펑董峰
집안시 박물관
연 도 2013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5
『社会科学战线』5

새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초보 연구

新发现的集安高句丽碑初步研究

주 제 어 집안
고구려비
호태왕
왕릉

2012년 7월 29일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 마선하麻線河 우안에서 고구려 시기의 비석 하나가 발견되었다. 형태는 전형적인 규형圭形이고, 정면에 예서체의 한자 10행 218자를 새겼다. 그중 현재까지 판독된 글자는 170여 자이다. 비문에는 고구려 민족의 기원, 건국, 호태왕好太王의 통치, 수묘연호守墓烟戶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비문 제1행과 제2행에서는 시조 추모왕鄒牟王의 건국 사실을 간략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강상태왕國罡上太王'이 언급되는데 이는 호태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의 안정된 사회 및 영토 개척을 찬양하고 있다.

비문에는 수묘연호 및 제사 관련 기록이 언급되는데, 고구려 왕공귀족의 무덤에는 수묘연호를 두었고, 또 제사 활동이 제도화되어, 수묘연호는 무덤의 관리뿐만 아니라 제사까지 책임져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비문에서는 수묘연호의 책임자를 '연호두烟戶頭'라 불렀고, 연호두 20명의 이름도 기록했다. 그리고 수묘연호의 매매 현상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죄를 묻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비문에는 비석의 제작 연대를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비석의 형태와 내용 등에 근거하면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규형 비석은 중원의 경우 한대漢代부터 등장하여 명청明清 시기까지 이어진다.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가 규형으로 제작된 점은 최소한 고구려가 아직 자신들만의 비석 형태를 완성하기 전에 제작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호태왕비好太王碑나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가 방형의 기둥 모양인 점을 참고하면, 규형인 이 비석은 호태왕비나 중원고구려비보다 일찍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문에는 호태왕의 정복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역대 고구려 왕릉의 수묘연호 매매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새롭게 율령을 반포하고 수묘연호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구려 수묘연호 관련 기록은 호태왕비문에만 등장한다. 따라서 이 비석의 제작 연대 역시 호태왕비의 제작 연대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 제7행에는 "자무□정률自戊□定律"이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무□戊□'는 간지로 보인다. 판독이 어려운 뒤의 글자는 자형이나 자획으로 볼 때, '자子, 오午, 신申'의 가능성이 있다. 호태왕 재위 시기 전후의 무자년戊子年은 고국양왕故國壤王 5년(388), 무신년戊申年은 호태왕 18년(408), 무오년戊午年은 장수왕長壽王 6년(418)이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호태왕 18년의 무신년(408)으로 판단된다. 즉 호태왕 재위 시기에 수묘연호의 법률을 제정했고, 그 후 법률을 비석에 새긴 것이다. 집안고구려비가 발견된 마선하 주변에는 천추총千秋塚이 있다. 호태왕은 천추총 부근에 비석을 세우고 '무신'년의 법률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선왕의 공덕을 잊지 않으려 한 것이다. 이는 또한 천추총이 고구려 18대 고국양왕의 무덤임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耿铁华 · 董峰, 2013, 「新发现的集安高句丽碑初步研究」, 『社会科学战线』5, 1–11.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양춘지杨春吉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연 도 2001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1
『通化师范学院学报』1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해석

中原高句丽碑考释

주 제 어 중원고구려비
발견
연구
고증과 해석
내용
연대

1979년 4월 8일 한국 단국대학 박물관은 중원군中原郡 가금면加金面 용전리龍田里 입석촌立石村에서 문자가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5세기 무렵 이 지역은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경계 지대였다. 427년 장수왕長壽王이 평양으로 천도한 후 이곳은 고구려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곳이었다. 처음 이 비석은 '고구려 탁경비拓境碑' 혹은 '중원군비'로 불리다가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로 명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석의 형태는 집안集安 호태왕비好太王碑와 매우 유사하나 규모가 약간 작다.

서체는 한예漢隸이고 네 면에 모두 글자가 새겨졌다. 전면에 10행, 각 행에 23자, 좌측면에 7행, 각 행에 23자, 뒷면에 9행, 각 행에 23자, 우측면에 6행, 각 행에 23자씩으로, 원래 총 730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연구자들은 전면과 좌측면 대부분 글자를 판독했으나 뒷면과 우측면 문자는 식별하지 못했다.

비석이 발견된 후 이병도李丙燾, 정영호鄭永鎬, 임창순任昌淳 등 다수 연구자의 판독과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중국에도 비석의 발견 소식과 정영호의 판독문이 전해졌고, 1981년에는 류융즈劉永智가 발견 경위, 비석의 역사 및 이병도, 정영호 등의 판독문, 그리고 한국 학자들의 비석 제작 연대에 대한 3가지 견해(495년설, 장수왕長壽王 시기설, 문자왕文咨王 시기설)를 소개했다. 그 뒤 쉬광후이徐光輝, 리뎬푸李殿福, 웨이춘청魏存成 등도 관련 글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의 글은 주로 한국 연구자들의 비석에 대한 해석과 연구를 소개하는데 그쳤고, 자신들의 판독문과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리뎬푸는 중원고구려비가 559~590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1993년 필자는 한국 문화재연구소의 초청으로 중원고구려비를 직접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기존의 판독문을 확인하고

일부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호태왕비, 염모총冉牟塚 묘지, 중원고구려비 등은 모두 5세기의 작품이고, 모두 한자 예서체이므로, 당연히 당시의 한자 사용 규범에 부합될 것이다. 물론 일부 문자는 현재와 다르게 사용되었을 것이나 큰 틀에서는 대부분 말이 통한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호태왕비와 염모총 묘지 등의 판독과 연구를 진행했다. 중원고구려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물론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고, 비면이 비바람에 훼손되는 등의 원인으로 오독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나, 중국학자로는 최초로 중원고구려비를 판독했다는 점에서 이를 소개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비평을 듣고자 한다.

중원고구려비는 건흥建興 4년 당시 고구려와 신라, 백제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라왕에 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호태왕부터 장수왕까지 신라왕에게 칙령을 내려 대대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길 희망하고, 상하를 융합하여 신라왕으로 하여금 동이東夷의 여러 소국을 관리하게 했다. 고구려는 신라왕을 통해 한반도 남부 지역을 관리하며 고구려의 남하정책을 실시하고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고자 한 것이다. 고구려가 신라왕을 위무하고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사상은 태자가 신라왕과 남방의 여러 나라에 선언했던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태자는 아직 즉위하기 전의 문자왕文咨王을 가리킨다. 그는 조부 장수왕–비문의 조왕祖王–의 명을 받아 전부前部 대사자大使者 다분환노多分桓奴와 주부主簿 추덕酋德 등을 데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지점에 와서 이를 선언하고 비석을 세워 증거로 삼았다. 태자와 수행 인원들은 신라왕과 동이 여러 소국의 왕들에게 의복과 필요한 용품을 상으로 하사하고 모두 이를 따르게 했다. 동시에 현지 민중, 노객奴客, 식개食丐 등을 위무했다.

좌우 측면 내용에는 또 일부 군사 활동과 절제節制, 상사賞賜 등의 내용이 있으나 부식으로 박락된 글자가 많아 다 읽어내기가 어렵다.

필자는 이 비석이 장수왕 시기에 태자와 대신을 보내 신라 변경에서 신라왕과 우호관계를 맺고자 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이에 상도 하사하고 위무도 하고 사람을 모으기도 하여, 그 내용이 비석에 기록되었다. 비문에서는 호태왕을 태왕이라 했고, 조왕은 장수왕을 가리킨다. 이 당시 장수왕은 재위에 있어 아직 장수長壽라는 시호가 없어 그냥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조왕이라 부른 것은 손자의 조부에 대한 존칭이었을 뿐이다. 문자왕은 장수왕을 이었고, 또 장손이었기 때문에, 비문 속 태자가 지칭한 조왕은 당연히 장수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원고구려비의 규모, 크기, 문자 등을 통해 볼 때, 이 비석은 왕자王者의 신분이 아니라 태자의 신분에 적합한 비석이다. 비문에 기록된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관계는 호태왕비 및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과도 부합한다.

중원고구려비의 연대에 관해서는 장수왕 시기, 문자왕 시기, 평원왕平原王 시기라는 세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사실 비문 내용에 이미 비석을 세운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우선 비석 정면에 가로로 새겨진 '고려 건흥 4년'이라는 글자가 이미 이 비석이 고구려 건흥 4년 이래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비문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변경 안정 및 교섭 관련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비석을 세운 지점이 중원군이므로, 이는 장수왕 천도 이후의 일이 된다. 건흥 4년은 장수왕 63년 을묘년乙卯年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비문에 언급된 신라왕과 백제왕 역시 사서에 기록이 있다. 그중 백제왕은 흉사개로凶斯蓋盧인데, 『삼국사기』에는 백제 개로왕蓋鹵王, 혹은 근개루近蓋婁라 했다. 비문 정면 마지막 부분에 개로왕이 신라 하부下部 발위사자拔位使者와 함께 사람을 모으려 하여 신라 변경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일로 인해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그 성을 치고 왕을 사살하는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필자의 비문 해석과 분석은 역사 사실과 부합한다.

물론 비문 속 '12월 23일 갑인甲寅', '신유년辛酉年' 등의 시간은 좀 더 늦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장수왕 말년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외에, 리뎬푸가 주장한 '고구려가 520년에 고려로 국명을 바꾸었다'는 견해는 옳지 않다. 이미 일부 연구자들이 520년 이후에도 여전히 고구려라는 국명이 사용되는 다수의 사례를 문헌 속에서 찾아냈고, 520년 이전에도 중원에서 고구려왕을 고려왕으로 책봉했던 기록이 있다. 이처럼 부정확한 추론을 통해 중원고구려비가 520년 이후, 심지어는 더 늦은 평원왕 시기에 세워졌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耿铁华 · 杨春吉, 2001, 「中原高句丽碑考释」, 『通化师范学院学报』1, 1–5.

저 자 경톄화耿铁华
길림성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동북사범대학

좡펑庄鹏
통화 과학기술문화중심

연 도 2017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에서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및 그 연대(상)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上)

주 제 어 길림성 통화
호태왕비 탁본
연대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항목
(15@ZH007)

필자는 2016년 5월 길림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과학기술중심 좡펑庄鹏 주임이 소장하고 있는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3종을 확인했다. 본문에서는 각 탁본을 A, B, C본으로 구분하여 종이, 먹, 탁본 기법 등에 대한 관찰 결과를 소개하려 한다.

A본은 선지본宣紙本이고 색상은 옅은 황색에 비교적 얇다. 접힌 흔적은 있으나 문자가 훼손되지는 않았다. 먹은 비교적 균일하고 농담도 적절하며 색이 바라지도 않았고 냄새도 없다. 글자는 선명하게 보이는 편이고 비면의 돌무늬와 탁흔도 자연스럽다. 글자 사이 경계선도 선명한데 특히 제1면과 제2면은 경계선이 상하로 이어지고 굵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제1면과 제2면 교접지점의 깨진 부분은 먹을 묻히지 않았다.

B본은 작은 피지皮紙를 연결하여 작업했다. 접힌 흔적이나 찢어진 부분이 많아 손상이 심하다. 제1면 하부의 결손 부위에는 뒷면에 신문지를 발랐다. 신문은 〈문적순간文摘旬刊〉 1993년 9월 8일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당시 요동遼東 지역에서는 아직 비석을 위조하는 일이 없었다. 호태왕비의 위조 탁본은 20세기 말과 21세기에 들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탁본은 A본보다 무겁고 먹도 균일하며 색이 바라지 않았고 이상한 냄새도 없다. 글자는 깨끗하고 정연하며 선명하다. 비면의 돌무늬와 탁흔은 자연스럽다. 글자 사이 경계선은 명확하나 중간 중간에 끊어지기도 한다. 제1면과 제2면 교접지점의 깨진 흔적도 명확하고 먹을 묻히지 않아 가장자리가 선명하다.

C본은 겉모양이 새 것 같아 보인다. 종이도 매우 얇고 접어서 보관했음에도 접힌 흔적이 없다. 종이는 선지 종류 중 일종의 피지로 일반적인 선지보다 얇다. 이 종이는 1980년대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비석 탁본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산된 병에 담긴 먹물을 사용했으나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그 림 1. 좡펑 소장 호태왕비 탁본A
2. 좡펑 소장 호태왕비 탁본B
3. 좡펑 소장 호태왕비 탁본C
4. 좡펑 소장 탁본B 뒷면에 붙은 신문지
5. 탁본A의 먹색과 탁본B의 먹색 비교

탁본 기술이 조잡하여 먹이 균일하지 않고 타원형의 탁흔이 선명하다. 비면의 균열 부위도 대부분 먹을 묻혔다. 각 글자 사이 세로 줄이 선명하고 너비도 일정하다. 일부 글자에서는 경계선도 확인된다. 글자가 지나치게 선명하고 정연하며 필획이 균일하고, 비석 상의 글자 필획보다 얇으며 딱딱하여 생동감이 없다.

호태왕비 탁본의 진위, 질, 연대 등을 판단할 때는 보통 종이, 먹, 기법, 문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종이를 보면, A본은 선지에 약간 황색을 띠며 얇은 편이고 접힌 흔적이 경미하여 글자가 손상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질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용된 종이는 총 62장이다. B본은 피지로 제작되었고, 접힌 흔적이나 결손이 많아 훼손이 심하다. 제1면 하부의 결손 부위는 뒷면에 신문지를 발랐다. 사용된 종이는 총 90장이다. C본은 선지 가운데 일종의 피지로 일반적인 선지보다 얇고, 1980년대에 생산된 탁본 전용 종이이다. 사용된 종이는 총 62장이다.

A본과 B본에 사용된 먹은 모두 석탄 그을음으로 만든 먹으로 색이 바라지 않고 이상한 냄새도 없다. 이는 현지의 추톈푸初天富 부자가 사용했던 먹과는 다르다. 추톈푸 부자가 쓴 먹은 솥바닥의 재와 품질이 떨어지는 묵, 풀을 섞어서 만들어 냄새도 나고 색도 쉽게 바래졌다. 북경北京이나 봉천奉天(심양瀋陽)에서 온 탁공들은 보통 선지에 질 좋은 먹을 사용했는데, A본과 B본에 사용된 먹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A본은 먹이 비교적 옅고 B본은 좀 더 짙다. C본은 먹물을 사용했으나 균일하지 않고 탁흔도 심하게 남아있다.

탁본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A본과 B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종이는 다르지만 비석에 종이를 붙이고 연결하는 방식 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탁본 방망이의 크기도 적절하여 탁흔이 거의 남지 않았고 균일하게 제작되었다. 제1면의 균열 부위에는 먹을 묻히지 않았는데, 이는 균열 부위에 다른 물건을 채워 넣지 않고 작업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3면 우측 하부는 부식이 심한데 전체가 먹이 묻혀있어, 일부 다른 탁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글자 흔적이 있다. 특히 제3면 제1행은 모서리에 위치하여 이끼 제거를 위해 비석을 불에 태울 때 심하게 훼손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탁본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즈타니 데지로水谷悌二郎 소장본에만 제1행 제27자 '사辭'와 가장 아래면 제41자 '궤潰'자가 확인된다. A본과 B본의 하부에서는 3자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제2행과 제3행도 기타 탁본보다 몇 글자 더 많다.(계속)

耿铁华 · 庄鹏, 2017,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上)」, 『博物馆研究』3, 66–72.

저 자 경톄화耿铁华
길림성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동북사범대학

좡펑庄鹏
통화 과학기술문화중심

연 도 2017

간행물명 『박물관연구』4
『博物馆研究』4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에서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및 그 연대(중)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中)

주 제 어 길림성 통화
호태왕비 탁본
연대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항목
(15@ZH007)

C본은 종이가 가볍고 얇다. 투과성도 좋고 질기며 정연하게 이어 붙였다. 그러나 탁본 기술은 매우 조잡하여 탁흔이 크고 명확하게 드러나며 먹색도 균일하지 않아 탁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작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호태왕비好太王碑는 높이가 6.39m이고 각 면의 폭이 상이하다. 각종 탁본 역시 이 크기를 벗어날 수 없다. A본과 B본은 뤼야오둥吕耀东 소장본, 왕사오전王少箴 소장본, 북경대北京大 도서관 소장본A의 크기 범위 이내이나, C본은 이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도 물론 비석 자체의 크기보다는 작으나, 너비 역시 마찬가지로 비석의 문자 부분 너비를 넘어서, 이 탁본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석의 문자는 제1면이 11행인데, 각 행에는 41자씩이 있고, 제6행 하부에는 원문에 2자가 빠져 있어 총 449자이다. 그 가운데 박락, 부식 등으로 26자가 결실되었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글자는 423자 정도이다. 제2면은 10행인데, 각 행에 41자씩이 있고, 제9, 10행의 상부는 비석의 자연 파손으로 원래 글을 새길 때 각각 7자, 16자 정도를 비워두어 총 글자는 387자이다. 그중 16자가 결실되어 현재 남은 문자는 371자 정도이다. 제3면은 14행에 41자씩이 있어 전체 글자 수는 547자이나, 총 90자가 결실되어 현재 확인되는 글자는 484자 정도이다. 제4면은 9행이며 각 행에 41자씩이 있고, 제1행 첫머리 부분은 비석의 자연 훼손으로 4자 정도를 비워두어 총 365자가 새겨졌다. 이 면은 결실된 글자가 없어 현재 365자 전부가 확인된다. A본은 제1면에 11행 총 423자가 확인되고, 제2면은 10행에 371자, 제3면은 14행에 484자, 제4면은 9행에 365자가 확인된다. B본 역시 A본과 거의 동일하다. C본은 문자가 정연하고 선명하나 문자가 전체적으로 좀 크고 필획도 균일하다. 또 각 행의 문자 너비 역시 비석의 문자 너비를 초과했다. 이처럼 C본은 종이, 먹, 문자 상태,

그 림 8. 탁본C의 먹색과 탁흔
9. 탁본A 제3면 제1~6행, 탁본B 제1~9행 하부 문자
10. 1907년 사반느 촬영 호태왕비 사진(석회 도포)
11. 1918년 구로이타 가쯔미 촬영 호태왕비 사진(석회 도포)
12. 북경대 A본 제첨과 제발

표 1. 호태왕비 규격표
2. A본, B본과 석회 도포 전후 탁본의 일부 글자 비교

크기 등에서 모두 최근의 번각본임이 증명되고 있다.

호태왕비 문자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석회 도포 사건이다. 일부 해외 연구자는 이 사건이 일본 참모본부의 위조 사건이라 주장하기도 했으나, 사실은 추톈푸初天富 부자가 탁본의 편의를 위해 벌인 일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왕젠췬王健群은 석회 도포가 광서光緖 28년(1902) 전후부터 1937년 전후까지 이어졌다고 보았다.

A본과 B본의 일부 글자를 석회 도포 전후 탁본과 비교해 보면 대표적인 20자 가운데 16자는 석회 도포 전의 미즈타니水谷 소장본과 동일하고 4자는 도포 이후의 나이토內藤 소장본과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종이, 먹, 기술, 크기, 문자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면 A, B본 모두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석회 도포 전후 탁본의 문자와 비교했을 때 이 두 탁본은 모두 석회 도포 이전의 탁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본과 B본은 종이, 먹, 기법, 크기, 문자 상태 등에서 그 제작 시기가 매우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비록 A본의 먹색이 더 옅고 색상도 약간 황색인데 비해 B본은 먹색이 더 짙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제작 시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종이, 먹, 기술 등은 탁본의 진위와 연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호태왕비 발견 초기 현지인들이 사용한 탁본 용지는 피지皮紙였다. 그 후 북경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윈충李雲從 등은 북경에서 선지宣紙와 고급 먹을 공수하여 탁본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북경대 소장본A의 제첨題簽에서 확인된다. 북경, 봉천奉天 등지에서 탁공들이 유입되면서 탁본 기술도 점차 현지에 퍼졌고, 종이와 먹에도 변화가 생겼다. A본은 종이 제작 과정에 자리 흔적이 남은 선지로 제작되었는데, 이 종이는 얇고 질기며 먹이 잘 먹는 좋은 종이이다. B본은 작은 피지로 약간 두꺼워 접힌 흔적이 명확하다. 피지가 호태왕비 탁본에 사용된 것은 광서 초년부터 민국民國 시기까지이고 선지는 약간 늦게 사용되었는데 대체적으로 1885년 전후부터 1945년까지이다.

양질의 먹을 적절하게 물에 풀고, 탁본 방망이는 크기가 적당한 것을 골라 균일하게 탁본을 뜨면 비석 문자 사이의 경계선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미즈타니 소장본, 북경대 도서관 소장본A는 먹색이 옅고 균일하여 경계선이 기본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1902년 추톈푸 부자가 석회를 도포한 후 문자 사이의 돌무늬와 경계선 대부분이 다 덮여버렸다. 그래서 문자 사이의 돌무늬와 경계선은 석회 도포 전후 탁본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되었다.(계속)

耿铁华 · 庄鹏, 2017,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中)」, 『博物馆研究』4, 64–70.

저 자 경톄화耿铁华
길림성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동북사범대학

좡펑庄鹏
통화 과학기술문화중심

연 도 2018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길림성吉林省 통화通化에서 새로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 및 그 연대(하)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下)

주 제 어 길림성 통화
호태왕비 탁본
연대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항목
(15@ZH007)

A본과 B본의 글자 사이 경계선은 대부분 선명하게 보이며 부분적으로 중간 중간에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두 판본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상태가 양호하고 종이도 비교적 두꺼운 탁본과는 차이를 보인다. 두꺼운 종이는 글자가 더 홀쭉해지고 경계선도 얇다. A본과 B본은 종이가 얇아 글자의 필획이 더욱 비석 상의 글자에 가깝다. 또한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석회 도포 후의 탁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두 판본에 경계선이 중간중간 사라졌다 이어지는 이유는 먼저 탁공이 글자를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반복해서 방망이를 두드려 먹색이 짙어지면서 경계선에 먹이 묻었을 수도 있고, 먹의 품질이 좋지 않고 석탄재가 많아서 물에 녹을 때 쉽게 번져 경계선이 끊어졌을 수도 있다. 혹은 탁공이 이 경계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계선의 유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문자 사이의 돌무늬가 매우 자연스러우나 부분적으로 글자를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먹을 더 보탠 관계로 경계선이 끊어진 경우도 있다.

제1면과 제2면 모서리의 큰 결손 부분이 석회 도포 이전 탁본에서는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1면은 제11행부터 제1행까지 벌어진 틈이 비스듬히 계속 이어지고, 제2면은 제1행에서 제8행까지 이어지는데, 제4행의 제14자 '남男'자만 보이고 그 우측 위쪽 모서리로는 작은 틈이 있다. 미즈타니水谷 소장본은 결손부의 가장자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탁본 방망이를 세게 두드리지 않은 까닭이다. A본과 B본은 가장자리가 선명하다. 이는 즉 파손 현상이 나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그 틈에 이물질을 채워 넣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석회 도포 이후의 탁본에서는 결손 부위가 짧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물질을 채워 보수한 흔적이다.

이상 여러 측면의 고려를 종합해볼 때, 좡펑庄鹏 소장 호태왕비好太王碑 A본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그 림 13. A본과 B본 제2면, 제1면의 경계선
14. A본 제2면과 제1면 모서리 결손 흔적
15. 샤반느 소장본의 결손 흔적
16. 동양문화 소장본 결손 흔적
17. B본의 '홀본동강리'
18. A본의 '도□파백잔'
19. A본 제3면 하부 제1~3행 문자
20. 북경대 소장본A 제3면 우측 하단 모서리
21. 사코 소장본 제3면 우측 하단 모서리
22. 샤반느 소장본 제3면 우측 하단 모서리와 동양문화 소장본 제3면 우측 하단 모서리
23. A본 제3면 우측 하단 모서리의 문자
24. A본 제4면 '부득천매' 및 그 위치
25. 각종 탁본 제4면 '천'자 비교
1) 사코 소장 쌍구본
2) 왕씨 소장본
3)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본
4) A본
5) 동경대학 소장본
6) 상해 유정서국 인쇄본
26. C본 제4면

과 B본은 제작 연대가 비교적 가까우며, 구체적으로는 1890~1895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탁본 기술의 측면에서는 북경北京의 탁공 리다룽李大龍 등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종이나 먹도 좋은 것은 아니며, 글자를 선명하게 하려다보니 색이 너무 짙어져 글자의 필획에 생동감이 결여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C본은 처음부터 현대의 번각본임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남부 지역의 서예 애호가들에게 팔려나간다. 그것이 번각본임을 알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호태왕비 탁본이 세상에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집안集安까지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목판에 글을 새긴 후 쌍구가묵본雙勾加墨本을 만들어 유통시키기도 했고, 그 뒤로 번각본도 등장했다. 북경北京대학 도서관, 요령성遼寧省 박물관도 번각본을 소장하고 있고, 한국 충주박물관, 미국 하버드대학에도 번각본이 있다.

耿铁华 · 庄鹏, 2018,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下)」, 『博物馆研究』1, 81–86.

저 자 량즈룽梁志龙
본계 박물관
진쥔靳军
본계 박물관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6
『东北史地』6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 시독

集安麻线高句丽碑试读

주 제 어 집안마선고구려비

2012년 7월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가 발견된 후 여러 학자들이 비문을 판독하고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비석의 첫 구절은 '□□□□세, 필수천도, 자승원왕□□□□世, 必授天道, 自承元王'이다. 비석 우상방의 첫 4자는 유실되었는데, 필자는 이 4자 중에 어느 국왕을 지칭하는 문자가 있었고, 그는 호태왕好太王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문 제3구절과 제4구절을 다수 연구자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보아 '자승원왕시조추모왕지창기야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로 보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의 '□□□자, 하백지손□□□子, 河伯之孫'과 연결될 때 주어가 모호해져, '필수천도必授天道'의 '태왕太王'인지 '□□□자, 하백지손□□□子, 河伯之孫'의 '시조始祖'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이곳의 원왕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호태왕의 선왕 즉, 고국양왕故國壤王이다. 그래야만 '자승원왕自承元王'도 앞뒤로 문장이 이어지고, 그 뒤의 '시조추모왕始祖鄒牟王'도 그 뒤 서술문의 주어로 맥락이 이어진다. 비석 첫 구절의 유실된 문자가 호태왕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비문에 '국강□태왕國罡□太王'이 등장하고 또 '개국벽토, 계윤상승開國辟土, 繼胤相承'도 호태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윤繼胤'은 주몽의 뒤를 이은 국왕들에 대한 총칭으로 보이나, '벽토辟土'를 생각하면 이는 호태왕 1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벽토는 즉 '광개토경廣開土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개국벽토開國辟土'는 주몽朱蒙의 개국과 호태왕의 벽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문 두 번째 부분의 '□□□□각가연호, 이차하류, 사시제사□□□□各家烟戶, 以此河流, 四時祭祀, 연호들이 이 하천에서 사계절 제사를 지낸다'는 새롭게 확인된 사료이다. 이곳의 하류는 비석이 발견된 마선하麻線河일 것이다. 다수의 고구려 왕릉 부근에서 제사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구려가 국왕에 대한 일상적인 제사를 능원 내에서 거행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선하

에서 사계절에 지낸 제사는 국왕에 대한 또 다른 형식의 제사이거나 야외에서 올리는 망제望祭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당연히 국왕이거나 국왕을 대표하는 자 혹은 관원이었을 것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가 비문 속의 '연호두烟戶頭'였을 것이다. 연호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앞 문장에 이어지는 '연만세유장, 연□□□□연호□□□□부□□전매□□수묘자, 이명□□然萬歲悠長, 烟□□□□烟戶□□□□富□□轉賣□□守墓者, 以銘□□' 구절에는 판독되지 않은 글자가 많으나, 주요 내용은 수묘연호守墓烟戶가 매매되고 있는 현상을 기술한 것이다.

그 뒤의 문장은 호태왕이 가마를 타고 고국故國을 둘러보며 선왕의 공적을 추술追述했고, '고인지강개古人之慷慨'를 이어 계묘년癸卯年에 비석을 새겼다는 내용이다. '계묘세간석癸卯歲刊石'의 계묘년은 마선비를 세운 해가 아니라 호태왕이 '계고인지강개繼古人之慷慨'의 결과로 '조선왕祖先王'의 무덤에 비석을 세운 연대를 말한다. 호태왕비에 따르면, 역대로 왕릉에 비석을 세우지 않아 수묘연호에 착오가 생겼는데, 호태왕이 '조祖, 선왕先王 묘상墓上에 입비立碑하고' 연호를 새겼다고 한다. '계묘세간석'에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조, 선왕 묘상에 입비'한 행동이다.

사실 호태왕이 입비한 무덤은 아무리 많아도 3기뿐일 것이다. 하나는 조부인 고국원왕故國原王의 무덤이고, 다른 2기는 부친인 고국양왕과 백부인 소수림왕小獸林王의 무덤에 세웠을 것이다. 소수림왕은 그의 백부이니 역시 선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가 바로 마선비에 보이는 계묘년 즉 호태왕 12년(403)이다.

비문의 다음은 '자무신정□교□, 발령기수, 복각어□□□□입비, 명기연호두입인명, □시후세自戊申定□敎□, 發令其修, 復各於□□□□立碑, 銘其烟戶頭卄人名, □示後世'로, 이 구절은 호태왕이 무신년戊申年에 왕릉의 보호를 위해 실시한 세 가지 조치이다.

첫째가 '정□교□定□敎□'이다. 장푸유張福有는 이를 '정률교언定律敎言'으로 판독했는데, 정률定律이란 법률문서를 만든다는 것으로, 현대의 용어로 풀자면 〈고구려 왕릉 수묘연호 관리법〉이 되겠다. 교언敎言은 호태왕비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교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제정한 법률이 바로 '자금이후, 수묘지민, 부득천자갱상전매, 수부족지자, 역부득기매매自今以後, 守墓之民, 不得擅自更相轉賣, 雖富足之者, 亦不得其買賣'이다.

둘째는 '발령기수發令其修'이다. 발령發令은 율령을 공포했다는 말이고, '기수其修'는 왕릉을 보수했다는 뜻이다.

셋째는 재차 비석을 세운 일이다. 비문은 '복각어□□□□입비, 명기연호두입인명, □시후세復各於□□□□立碑, 銘其烟戶頭卄人名, □示後世'인데 즉, 호태왕은 계

묘년에 조부와 선왕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를 새겼고, 이번에 다시 연호두 20명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연호두는 연호(국연國烟과 간연看烟)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0명 중에는 호태왕 이전의 18기 왕릉을 각각 하나씩 맡아서 관리하는 18명이 있고, 나머지 2명은 총책임자와 부총책임자일 것이다. 이러한 연호두는 고구려 왕릉 관리체계 속 상층 집단을 구성했다. 이들의 권한은 비교적 컸고, 그래서 수묘인 사이의 상호 매매 및 부자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 모두 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비문에 나오는 '국강상태왕國罡上太王'은 호태왕비好太王碑, 염모총冉牟塚 묘지, 신라 호우총壺衍塚 출토 동제 호우의 명문, 태왕릉太王陵 출토 동령의 명문 등에 근거하면 호태왕의 시호가 분명하고 이는 마선비麻線碑의 제작 연대가 호태왕 시기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집안마선고구려비의 연대는 장수왕長壽王 즉위 초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수왕은 부왕의 유지를 받들어 수묘연호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호의 주거 지역에 이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비문에서는 호태왕이 왕릉을 위해 실시한 관리 조치를 기록했고, 호태왕 시기에 금지했던 연호 매매의 법률조문도 다시 밝혔다.

비문의 마지막 '간기비문, 여기죄과看其碑文, 與其罪過'에 나오는 '비문碑文'은 호태왕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태왕비에 연호 매매에 대한 징벌 규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점도 있는데, 호태왕비의 징벌 규칙에는 마선고구려비에 언급된 '계사자繼嗣者'라는 법률 조문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문'은 무신년에 연호두 20명의 이름을 새기고 세운 비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석에는 아마도 연호두 20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연호 매매자 및 그 후손에 대한 징벌 규칙까지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

마선고구려비는 호태왕비와 서두, 결말 부분이 거의 동일하며, 간결하게 작성되어, 호태왕비 제작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梁志龙 · 靳军,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试读」, 『东北史地』6, 21–26.

저 자 루리화陆丽华
통화사범학원 역사지리학과
연 도 2010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11
『通化师范学院学报』11

호태왕비好太王碑의 역사 사실 증명과 보충 기능

好太王碑证史与补史作用

주 제 어 호태왕비
사실 증명
사실 보충
기능

호태왕비好太王碑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경평안호태왕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묘비로 414년에 고구려 도성 국내성國內城 동쪽 언덕에 세워졌다. 비석에는 모두 44행, 1,775자가 새겨져 있으나 현재 판독 가능한 글자는 약 1,600자 정도이다. 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시작 부분에는 고구려 건국 전설과 첫 세 왕의 전승 관계, 호태왕 시기의 사회 상황을 기록했고, 중간 부분에는 호태왕의 정벌 전쟁을 기록했다. 마지막 부분은 호태왕을 지키는 연호烟戶의 숫자와 그들의 출신 그리고 관련 제도를 기록했다.

비문에 따르면 수묘守墓 제도와 연호는 호태왕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않고, 수묘연호를 기록하지 않아 수묘인 연호에 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호태왕은 생전에 먼저 선왕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동시에 자신의 무덤을 위해서도 준비를 했다. 호태왕 사망 이후 아들 장수왕長壽王은 부친의 유언에 따라 비석을 세우고 그 공적을 기록했으며 수묘연호도 명확히 기록했다. 이것이 비석을 세운 주요한 목적이었다. 비문은 호태왕 생전의 교시에 따라 작성되었고 장수왕의 인정을 받은 내용이다. 따라서 호태왕비에 기록된 역사는 고구려 왕족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 국가의 역사로 신뢰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문이 첫 번째로 증명하고 있는 역사 사실은 고구려 건국 전설이다. 호태왕비에서는 매우 정제된 언어로 고구려왕이 북부여 출신이라는 역사 사실을 정리하고 있다. 즉 비석보다 늦게 편찬된 문헌기록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록임을 이 비석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증명 내용은 여러 왕들의 계승 관계이다. 비문에는 초기 세 왕을 추모왕鄒牟王, 유류왕儒留王, 대주류왕大朱留王으로 기록했다. 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동명성왕東明聖王 혹은 추모왕, 유리명왕琉璃明王 혹은 유류왕, 대무

신왕大武神王 혹은 대주류왕, 대해주류왕大解朱留王과 일치하고 있다. 그 뒤로 17세손까지 각 왕을 1세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호태왕에 이른다. 호태왕비는 이처럼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왕들의 전승 관계가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비문은 역사 사실을 많이 보충한다. 예를 들어 호태왕 시기의 통치 상황, 군사 활동, 고구려 수묘연호 및 그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 왜와의 관계이다. 특히 '신묘년조辛卯年條' 혹은 '신묘년구辛卯年句'라 지칭되는 비문 내용은 중국, 북한, 한국, 일본 학계에서 극렬한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내용이다. 신묘년은 391년으로 호태왕이 즉위한 해이다. 이 당시 왜의 군대는 한반도를 부단히 침략하여 신라, 백제를 협박하고 고구려의 안전을 위협했다. 호태왕은 신라왕의 구원 요청에 군사를 보내어 왜와 전투를 벌였고 동시에 백제 군대를 격파했다. 호태왕 재위 시기 비교적 큰 규모의 군사 활동 중 몇 차례는 모두 신라를 구원하고 백제를 치며, 왜를 한반도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이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동북아 지역 여러 국가 사이의 전쟁 기록이고, 또 동북아 지역 여러 국가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 및 상호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다. 비문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국내외 사서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고, 따라서 호태왕비는 이와 관련된 역사를 보충해주고 있는 것이다. 비문에는 이처럼 역사 사실을 보충하는 다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陆丽华, 2010, 「好太王碑证史与补史作用」, 『通化师范学院学报』11, 5–6, 14.

저 자 뤄지쭈罗继祖
충원쥔丛文俊

연 도 198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호태왕비好太王碑 글자체에 대한 간략한 견해

简谈好太王碑字体

호태왕비好太王碑의 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견해가 제기되었다. 장산궈蒋善國는 이를 서한西漢 상림정上林鼎 글자체와 동일한 고예古隸로 보았고, 정원줘鄭文焯는 팔분한예八分漢隸, 왕즈슈王志修는 한예漢隸, 왕젠췬王健群은 동진東晉 예서隸書, 룽시榮禧는 예서와 해서楷書의 중간 형태, 어우양푸歐陽輔는 진서眞書라고 보았다.

호태왕비는 고구려가 건국하고 450여 년이 지난 후에 세워진 것으로, 그 사이 고구려는 중원의 한漢, 삼국三國, 서진西晉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한족漢族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 비석의 문자와 서체가 고구려 민족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한족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글자 형태, 서체 스타일에 근거하면 글을 쓴 사람이나 새긴 장인이나 모두 수준이 높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석의 글자체는 하북성河北省 정현定縣의 동한東漢 시기 무덤 묘석墓石의 글자처럼 단선식單線式이고 필획에 파도波挑나 잠두연미蠶頭燕尾 등 분명한 경중의 변화가 없다. 비석의 석재 선택이나 비면 가공 측면에서 보아도 기록에만 주의를 기울였을 뿐 훗날의 탁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서예 기교 역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글자 구조에서도 글을 쓴 사람의 문화 수준이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읍邑자 편방이 한 비석 내에 모두 4종의 상이한 서체로 새겨졌고, 그 형태는 한대漢代 청동기 명문이나 도장에 새겨진 글자와 비슷하다. 누婁자는 동일 행에 2자가 있으나 필획에 차이가 있고, 엽獵자는 행이 다르지만 역시 구조가 다르다. 이처럼 글자가 제멋대로이면서 구조도 다른 현상은, 진한秦漢 조기 간백서簡帛書의 고예와 비교될 수 있을 뿐, 성숙된 비각, 묘지墓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이 비석의 글자에는 오류도 많다. 부수 책받침辵의 표기 방식은 양한兩漢 시기 청동기 명문의 지나치게 간소화된 스타일을 이

어받았고, '왕往'자를 '주住'자로 쓴 것은 '사람인 변亻'과 '두인 변彳'을 잘 못 쓴 것이다. 사실 예서隸書부터 민간에는 다량의 속자, 약자가 유행했고, 또 끊임없이 변화, 발전했다. 또한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문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글자체의 진화, 글자 사용의 숙련도 역시 차이가 난다. 비문 속 '사십四十'을 의미하는 글자는 육국六國의 고분에서 기원했다. 추鄒자 좌측 부분의 필기 방식 역시 조기 진한의 간소화된 고예와 일부 한나라 인장에서 나온 것이다. '문門'자를 'ㄱ'으로 표기한 방식은 고구려인이 한자를 받아들인 후 마음대로 억측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양한, 위진魏晉, 남북조南北朝, 수당隋唐의 비각에서는 이런 표기 방식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즉 이 비석의 민족성, 지역적 특징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다.

호태왕비의 글자체는 전체적으로 청동기 명문에 사용된 예서 형식에 가까운 종류라 할 수 있다.

罗继祖 · 丛文俊, 1986, 「简谈好太王碑字体」, 『博物馆研究』1.

저 자 리더산李德山
동북사범대학 고적정리연구소

연 도 2011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5
『社会科学战线』5

호태왕비好太王碑의 '왜'에 대한 재론

再论好太王碑之 "倭"

주 제 어 호태왕비
왜
군대
한반도

호태왕비好太王碑에 등장하는 '왜'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크게 4가지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통일 이후 천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대화大和 조정에서 파견한 군대라는 견해이고, 둘째는 해적 집단이라는 견해이다. 셋째는 북구주北九州의 왜 왕조라는 견해이고, 마지막은 왜국 혹은 왜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정치 세력이 파견했고 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군대라는 주장이다.

비문 내용에 근거하면, 호태왕에 대적했던 왜는 연전연패하는 오합지졸로 나온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언급된 왜 역시 신라의 군대에 대적할 수 없는 약한 세력이었다. 즉 당시의 왜는 군대도 아니었고, 어느 국가의 대표자도 아니었으며 누군가의 이익을 대표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비문에 언급된 왜가 해적이라는 견해 역시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에 찬동하는 연구자는 거의 찾기 힘든 상황이다.

비문에 나오는 '왜'의 실체는 사실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이주해온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아마도 당시 일본열도 내부의 전쟁 속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호태왕 재위 당시 일본은 대규모의 겸병 전쟁이 발생하여 사회가 혼란했고, 그 지속 시간도 길었다. 이러한 겸병 전쟁에 패한 세력은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모두 실패자였고, 이들은 새로운 생존 공간을 찾기 위해 무리를 지어 한반도로 이주했다. 호태왕비에 언급된 왜가 바로 이들이었다. 조직적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그들은 군대도 아니었고 또 해적도 아니었다. 그들은 일본 열도에서 생존 조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2세기 중엽에서 2세기 말에 발생한 '왜국대란倭國大亂'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동이열전東夷列傳 · 왜전倭傳」에는 당시 왜국에 대란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마

대국邪馬臺國을 맹주로 하는 소국 연합의 새로운 정권이 형성되었고, 이 대란의 피해자들 다수가 중국 동북 지역은 물론 심지어 안휘성安徽省 지역까지 이주했다. 이러한 모습은 호태왕 시기 한반도로 이주한 왜인이 등장하는 모습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이주는 대다수가 소위 정치나 군사적 목적과는 관련이 없었고, 순수하게 생존 공간을 찾는 행위였으며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이들은 대마도對馬島를 중간 기착지로 삼았고 그 후 다시 한반도로 이동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이 말하는 한반도 내의 '왜지倭地' 혹은 왜가 한반도에 일종의 군사 기지(백제나 임나가라)를 가졌다는 주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왜인들이 중간 기착지로 삼았던 대마도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위 한반도 내의 왜지는 단지 이주한 왜인들이 거주하던 구역이었을 뿐이었다.

李德山, 2011, 「再论好太王碑之"倭"」, 『社会科学战线』5, 110–116.

저 자 리뎬푸李殿福
연 도 1993
간행물명 『고고』8
『考古』8

고구려高句驪 금동, 석조불상 및 중원군비中原郡碑—고구려高句驪 국명이 고려高麗로 바뀐 시기 논의

高句骊金铜、石雕佛造像及中原郡碑—兼谈高句骊易名高丽之始

그 림 1. 경사년명금동불조상
2. 연가칠년명금동여래불입상

표 1. 중원 왕조의 고구려왕 책봉 명칭 일람표

한국에는 현재 고구려 시기 금동불상과 석조불상이 일부 남아있다. 그중 기년이 새겨져 있는 금동불상으로는 건흥建興 5년명 금동석가불광배金銅釋迦佛光背, 경景 4년명 금동불상, 연가延嘉 7년명 금동여래불입상金銅如來佛立像이 있고, 석조불상으로는 청원군淸源郡의 반부조 석불좌상, 입체 석조여래불좌상, 그리고 중원군中原郡의 마애불상군이 있다. 또 1979년 8월에는 충청북도 중원군에서 고구려비가 발견되었다. 이 비석은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 호태왕비好太王碑보다 크기는 작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매우 유사하다.

이상 문자가 남아있는 고구려 시기 자료 가운데, 금동불상에는 '고려국高麗國'이,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에는 '고려대왕高麗大王, 조왕祖王' 등의 국명이 남아있다.

학계에서는 '고려'가 '고구려'의 약칭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연가7년명'과 중원고구려비에 등장하는 고려는 '고구려'의 약칭이 아니라 '고구려高句驪'에서 바뀐 국명일 가능성이 있다. 금석문자는 매우 권위 있는 것으로 절대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원고구려비 제작 당시의 고구려왕은 국명을 약칭으로 새기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역대 정사에 기록된 고구려에 대한 표기를 비교해보면 남조南朝 양梁나라 시기 이전에는 고구려를 고구려高句驪와 약칭 구려句驪로 표기했고, 그 이후에는 고려高麗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梁 무제武帝 보통普通 원년(520)에는 안장왕安藏王을 책봉하면서 '고려왕高麗王'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모두 '고구려왕高句驪王'으로 표기했고, 그 후로는 모두 '고려왕'을 사용했다. 즉 '고구려高句驪'의 약칭은 '구려句驪'이고 '고려'는 고구려에서 국명이 바뀐 것이다. 고구려는 건국부터 520년 이

전까지 고구려高句麗였고, 520년부터 멸망할 때까지는 고려국이었던 것이다.

기년 가운데 '연가7년 기미년己未年'은 539년 안원왕安原王 10년일 것으로 추정되고, '경4년 신묘년辛卯年'은 평원왕平原王 13년으로 추정된다. '건흥5년 병진년丙辰年'은 536년, 596년, 625년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중 어느 해인지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중원고구려비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비문의 내용에 근거하면, 평원왕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원왕의 선왕과 조왕 시기에는 신라, 백제와 전란이 많았으나 평원왕 시기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또 그 후대에는 수隋, 당唐과의 전쟁이 지속되어 비석을 세워 선대의 공적을 기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李殿福, 1993, 「高句骊金铜,石雕佛造像及中原郡碑—兼谈高句骊易名高丽之始」, 『考古』8, 751–757.

저 자 리둥李东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14
간행물명 『문물』10
『文物』10

길림吉林 집안集安에서 새로 발견된 고구려비

吉林集安新发现的高句丽碑

그 림 1. 집안고구려비 탁본(약 1/10)

2012년 7월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 마선향麻線鄕 마선촌麻線村의 마선하麻線河 우안에서 고구려 시기 석비가 발견되었다. 동남쪽으로는 천추총千秋塚이 있고, 서남쪽으로는 서대총西大塚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고구려 무덤이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이다. 비석 전체는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들었으며, 석비의 외형은 규형圭形이고, 오른쪽 윗부분은 파손되었다. 뒷면은 훼손이 심하여 글자를 확인할 수 없고, 정면에서는 음각으로 새겨진 예서체 한자가 확인되었다. 모두 10행으로 앞의 9행에는 각 행마다 22자가, 마지막 1행에는 20자가 새겨져 총 218자이다.

비문은 네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제1부분은 추모왕鄒牟王의 고구려 건국을 기술했다. 제2부분은 현재의 왕이 연호烟戶의 관리와 관련한 명을 내렸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제3부분은 호태왕好太王의 위업을 기리는 내용이다. 제4부분은 이제부터 연호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죄를 묻는다는 수묘연호守墓烟戶 제도를 기술했다.

비문의 내용에 근거하면 이 비석은 호태왕 시기 연호 매매의 금지를 공표하기 위해 세운 석비로 보인다.

이는 호태왕비好太王碑,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이후 발견된 세 번째 고구려 비석으로, 이를 통해 고구려가 예서체를 공식적인 서체로 채택하여 국내에 정령, 법률 등을 반포하거나 대외 교류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의 형태가 호태왕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문자 내용 및 비의 형태로 보아 연대가 호태왕비보다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형이 규형인 점 및 저부의 장부 구조는 고구려의 중원 문화 계승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비석의 발견은 고구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李东, 2014, 「吉林集安新发现的高句丽碑」, 『文物』10, 66–67, 73.

저 자 리러잉李乐营
통화사범학원 교수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교수

연 도 2014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3
『通化师范学院学报』3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에 관한 몇 가지 문제–호태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关于好太王碑拓本的几个问题—纪念好太王碑建立1600年

주 제 어 호태왕비
탁본
문제

지원사업 길림성 사회과학 '십이오十二五' 계획 항목(2011A10)

현재까지 발견된 호태왕비好太王碑 탁본은 다음의 몇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쌍구본雙鉤本이다. 이는 쌍구본雙勾本이라고도 불린다. 금석문 탁본의 일종으로 비석에 종이를 붙이고 붓으로 문자 윤곽을 그려내는 방식이다. 양서우징楊守敬이 일찍이 호태왕비 쌍구본을 제작하여 1909년에 「고려호태왕비高麗好太王碑」를 발간한 일이 있다. 양서우징이 모본으로 삼은 것은 1902년 차오팅제曹廷傑가 보내온 비교적 이른 시기의 탁본이다. 둘째는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으로 묵수곽전본墨水廓填本이라고도 불린다. 종이를 비석에 붙이고 글자를 그려내거나 살짝 두드려서 글자 윤곽을 드러낸 후 먹물로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다. 또 기존의 탁본 위에 종이를 올려 글자를 그린 후 먹물을 채우는 방식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쌍구가묵본이 사코 가게아키酒匂景信가 일본으로 가져간 판본이다. 이는 총 132장으로 제작되었고, 후에 4폭으로 이어 붙였으나 부분적으로 순서를 잘못 붙이기도 했다. 이 탁본은 글자를 제외한 공백에 먹물을 채워 글자 부분이 흰색이다. 대만박물관 소장본은 반대로 글자 부분에 먹물을 채웠다. 종이를 비석에 붙여 가볍게 두드린 관계로 종이에 석화石花가 남아있다. 셋째는 탁본으로, 먹을 묻힌 방망이로 두드려 글자를 떠낸 묵본墨本이다. 탁본은 조, 중, 만기의 세 시기 탁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 탁본은 비면에 석회를 도포하기 전의 탁본이다. 시기는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해당한다. 미즈타니 데지로水谷悌二郎 소장본, 푸쓰녠傅斯年 소장본, 북경대학 소장본 A, 왕사오전王少箴 소장본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가운데 미즈타니 소장본이 가장 대표적이다. 중기 탁본은 석회 도포 이후의 탁본으로 시기는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에 해당한다. 양서우징 소장본, 샤반느Edouard Chavannes 소장본, 나이토 도라지로內藤虎次郎 소장본, 조선총독부 소장본,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본, 뤼야오둥呂耀東 소장본 등이 있다. 샤반느 소장본은 그가 1907년 통구通溝 조사 당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그 림 1. 양서우징의 「고려호태왕비」
2. 사코 가게노부 소장 호태왕비 쌍구가묵본
3. 대만박물관 소장 쌍구가묵본
4. 미즈타니 데지로 소장본
5. 샤반느 소장 호태왕비 탁본
6. 저우윈타이 탁본
7. 구로이타 가쓰미의 1918년 촬영 호태왕비

시 구한 것이다. 만기 탁본은 석회가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의 탁본으로 시기는 1920년 이후이다. 1927년에서 1928년 사이에 비정碑亭이 세워져 보호가 강화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탁본이 점차 감소했으며 석회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로는 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허가를 받아야만 탁본이 가능해졌다. 1963년 장밍산張明善은 중조연합고고대中朝聯合考古隊의 요청으로 저우윈타이周雲臺와 함께 탁본 4점을 떴다. 1981년 7월에는 저우윈타이가 왕젠췬王健群의 『호태왕비연구好太王碑研究』를 위해 새로 1점을 탁본했다.

석회 도포 문제는 일본의 이진희李進熙가 제기했다. 그는 『광개토왕릉비연구廣開土王陵碑研究』에서 사코가 쌍구가묵본을 구한 후 비문 16곳의 25자를 고쳤고, 1900년 전후로 참모본부에서 사코의 비문 수정을 은폐하기 위해 비면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고쳤으며, 또 참모본부에서는 훗날 사코의 쌍구가묵본과 석회 도포 후의 비문에 차이가 나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 재차 현장으로 사람을 보내 비문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 후로 다년간의 학술 대토론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4년 왕젠췬은 『호태왕비연구』에서 이진희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비석에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수정, 보완한 것은 중국의 탁공인 추톈푸初天富 부자가 한 일로, 재료와 힘을 아끼고, 문자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며, 금석학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석회를 바른 후 전체 비면에 방형의 격자가 만들어졌다.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찍은 사진에서 방형 격자가 선명하게 확인된다. 그의 사진에 따르면 석회를 비면 전체에 바른 것이 아니라 비면의 빈 공간에만 도포한 것으로 보인다. 제1면은 많은 부분에 석회를 발랐고, 표면이 비교적 평평한 제2면 하부, 제3면과 제4면은 석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석회 도포 이후 비면에는 세로 선이 사라졌다. 세로 선이 없는 탁본은 바로 이 시기에 제작된 탁본이다. 석회는 백색이라 탁본을 뜨고 나면 흑색으로 변한다. 그러나 사진에는 백색의 글자 테두리가 선명하게 확인된다. 이는 구로이타가 석회를 바른 직후, 탁본을 뜨기 전에 사진을 찍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필자는 구로이타가 도착한 이후에 석회를 발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호태왕비에 백회를 바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시기는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이다. 또한 매년 발랐거나 혹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백회를 발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석회로 인해 변화된 글자는 몇 되지 않고, 호태왕비의 성격을 바꾸지도 못한다. 따라서 석회 도포 이후의 탁본 역시 어느 정도의 연구 가치는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석회 도포 및 그 전후에 나타나는 탁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李乐营 · 耿铁华, 2014, 「关于好太王碑拓本的几个问题—纪念好太王碑建立1600年」, 『通化师范学院学报』3, 12–15.

저 자 리신취안李新全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6
『东北史地』6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에 대한 나의 견해

集安麻线高句丽碑之我见

주 제 어 집안마선고구려비
판독
연대
성격

지원사업 길림성 사회과학기금 항목
(2011B411)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에는 예서체 한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미 린윈林澐, 웨이춘청魏存成, 장푸유張福有, 쉬젠신徐建新, 겅톄화耿鐵華, 쑨런제孫仁杰 등이 비문을 판독하여 발표했다. 필자는 여러 연구자들의 판독문을 종합하여 188자를 정리했다.

현재 이 비석은 호태왕好太王이 선왕을 위해 세운 비석(린윈, 겅톄화)이라는 주장과 장수왕長壽王이 천도 이전에 선왕을 위해 세운 비석(쉬젠신, 웨이춘청, 장푸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필자는 비문에 나오는 '국강상태왕國罡上太王'이 호태왕 사후의 시호라는 점에서 장수왕 시기에 세운 것이지만, 천도한 이후에 세운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비문에 '순고국巡故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구려 관련 문헌에서는 장수왕 천도 이전에 '고국'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는다. '고국'의 개념은 분명 장수왕이 천도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것으로, 새로운 도읍인 평양平壤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옛 도읍인 국내성國內城 지역을 '고국'이라 부른 것이다. 어떤 연구자는 '고국'이 고구려가 집안集安을 도성으로 할 당시의 지명이라고 보고, 또 제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을 '국강상왕國罡上王'이라고도 불렀던 점에 근거하여 '국강상'이 바로 고국원故國原 혹은 고국지원故國之原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두 명칭이 가리키는 지역만 놓고 본다면 양자 사이에는 결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이 모두 집안 국내성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국'자 앞에 '고'자가 있고 없고는 시간상의 선후 문제와 관련된다. 바꿔 말하면,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에 '국'자 앞에는 '고'자가 없었고, '국'자 앞에 '고'자가 더해진다면 이는 분명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 되는 것이다. '고국'은 고구려가 국내國內 지역을 도성으로 삼고 있을 당시의 지명이 아니다. 호태왕비好太王碑, 염모총冉牟塚 묘지, 호우명 그릇 등 집안이 도성이었던 시기의 사람들이 쓴 당시의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그 림 1. 필자 및 여러 연구자의 판독문 쉬젠신(160자), 린윈(172자), 『중국문물보』(140자), 리신취안(188자), 장푸유(217자), 쑨런제(188자)

문자 자료에는 '고국'이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고국'은 모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호태왕은 생전에 '영락대왕永樂大王'이라 불렸고, 사후에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 '광개토경호태왕'(이상 호태왕비), '국강상광개토지호태성왕國罡上廣開土地好太聖王(염모총 묘지)',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國罡上廣開土地好太王(호우명 그릇)' 등으로 불렸는데, 이상의 문자 기록에 나오는 '국'자 앞에 모두 '고'자를 더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자 앞에 '고'자를 더한 고구려 문헌기록을 찾아보면, 새로 발견된 집안마선고구려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출간 연대가 늦다. 『삼국사기三國史記』만 해도 완성 연대가 1145년이다.

또한 『삼국사기』에 나오는 왕 이름 앞에 '고'자가 붙은 경우는 모두 이 왕의 주요 이름을 앞에 두었다. 이는 훗날 획일적으로 정리한 후 다시 명명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일운一云', '혹운或云'으로 나오는 명칭이 바로 당시의 이름인데, 예를 들어 제9대 고국천왕故國川王은 '국양왕國壤王'으로 불렸고, 이는 18대 고국양왕故國壤王의 명칭과 유사하다. 16대 고국원왕은 또 '국강상왕'이라 불렸고, 이는 19대 호태왕의 시호와 혼동되기 쉽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9대 왕의 사망 후 최초 명칭이었던 '국양왕'을 후대에 다시 정리하여 '고국천왕'으로 추기追記했고, 마찬가지로 제16대 왕을 처음 사망한 후에 '국강상왕'으로 부르다가 다시 후대에 '고국원왕'으로 추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고구려왕 가운데 이름에 '고국'이 있는 왕은 모두 고구려 천도 이전의 왕이고, 천도 이후의 왕들에는 '고'자가 없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국'이 분명 장수왕 천도 이후의 일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필자는 입비 연대를 '정묘세丁卯歲' 즉 장수왕 75년(487)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글자 형태에서도 확인되고, 사물의 발전이라는 논리 관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글자 형태와 관련해서는 장푸유의 논문(「집안마선고구려비 비문 보충 해석과 판독 해석[集安麻線高句麗碑碑文補釋與識讀解析]」, 『동북사지』 2013년 3기)에 잘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고국'이 장수왕 천도 이후에 등장한 명칭이라는 점이 바로 사물의 발전이라는 논리 관계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호태왕비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이 비석에는 등장하는 '연호두烟戶頭'라는 새로운 칭호 역시 이 비석이 호태왕비보다 늦게 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간기비문여기죄과看其碑文與其罪過'도 이 비석에 호태왕비보다 늦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호태왕비에 나오는 수묘연호守墓烟戶의 매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실시되고 몇 십 년이 흐른 뒤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밝히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 비석은 호태왕비,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와 마찬가지로 예서체이고 모두 장수왕 시기에 세워졌다. 다만 일부 연구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호태왕비의 서체는 예서가 주를 이루나, 전서篆書

와 진서眞書의 필법도 흡수하여 일종의 전서와 예서, 예서와 해서 사이에 위치하는 과도기의 서체이고, 집안마선고구려비의 약간 네모반듯하게 보이는 서체는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기 북조北朝 비석의 예서체에 더 가깝다. 이는 서체의 측면에서도 집안마선고구려비가 호태왕비보다 시기적으로 더 늦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석의 성격은 비문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문 제1부분에서는 추모왕鄒牟王의 건국과 각 선대왕들의 계승, 그리고 연호들이 하천에서 제사를 올린다는 내용을 기술했고, 제2부분에서는 호태왕의 업적과 수묘연호 관련 법규 제정을 기록하였으며, 제3부분에서는 비석을 세우는 목적이 수묘연호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며, 20명의 연호두 이름을 새겨 위반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비석은 어떤 한 왕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마선하麻線河 유역의 몇몇 고구려 왕릉을 책임지는 수묘연호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비석이 일종의 경고비라고 생각한다.

李新全, 2013,「集安麻线高句丽碑之我见」,『东北史地』6, 27–29.

저 자 린윈林沄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3
『东北史地』3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에 대한 견해

集安麻线高句丽碑小识

주 제 어 계묘
연호두
고국원왕

2012년 7월 집안시集安市 마선하麻線河에서 고구려비가 새로 발견되었다. 2012년 11월 집안시 문물국에서는 여러 전문가를 초청하여 비석의 글자를 판독했는데 총 156자를 확인했고, 2013년 1월 『중국문물보中國文物報』에서 이를 교정하여 다시 140자를 발표했다. 필자는 위리췬于麗群의 탁본을 근거로 하고 기타 각종 탁본 및 위진魏晉 시기 다른 비각의 글자 등을 참조하여, 확인되지 않았던 글자 20자를 더 확인했고, 4자는 수정했으며 기존에 판독된 글자 4자는 판독불가로 판단했다. 판독한 글자 수는 총 172자이다.

비석 뒷면의 문자는 훼손이 더 심하다. 정면 비문에 연호두烟戶頭 20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아 뒷면에는 그들의 이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일부 글자 흔적만 확인되고, 정 중앙에서는 '……수묘연호합입가……(……守墓烟戶合廿家……)'만 확인된다.

414년 장수왕長壽王이 부친을 위해 세운 호태왕비好太王碑에는 호태왕이 조상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의 이름을 새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마선고구려비麻線高句麗碑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판독된 비문에 따르면 마선고구려비는 분명 어느 선왕의 무덤에 연호를 새겨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분명하다. 그 선왕은 비문 제5항 '유국강□태왕□호□, 태왕신무唯國罡□太王□乎□, 太王神武'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태왕'이 결코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루총牟頭婁塚 묘지 제10~11행에도 '국강상성태왕國罡上聖太王'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본의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는 묘지명 제23행에 등장하는 모용선비慕容鮮卑를 근거로 국강상성태왕이 4세기 초 모용선비와 전쟁을 벌인 고국원왕故國原王이라고 보았다. 그는 고구려의 '태왕'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왕'을 다르게 부른 것이라고 보았다. 자오쥔제趙俊杰 역시 「고구려 '염모총'의 일부 문제 재론[再論高句麗'冉牟墓'的若干

問題」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마선고구려비 속 '국강□태왕國罡□太王'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혹 국강상왕國岡上王으로도 불렸다'고 소개된 고국원왕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비문 '계묘세간석癸卯歲刊石'의 계묘년癸卯年이 정확한 판독이라면 이 계묘년은 『삼국사기』 고구려 기년의 광개토왕 13년(403) 간지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비석은 광개토왕이 '선대왕의 무덤에 세운 비석'의 한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광개토왕은 선대왕의 사적과 공덕을 묘비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연호도 기록하였다. 현재 발견된 마선고구려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비록 마선고구려비가 상당 규모의 왕릉급 무덤 옆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굳이 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비석이 원래 어느 선왕의 수묘연호守墓烟戶가 거주하던 구역에 세워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무덤 옆에 세우는 것보다 '연호를 새겨서 착오가 없게 하는' 기능을 더 잘 발휘했을 것이다. 물론 수묘연호가 무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비석이 고국원왕의 수묘연호를 위해 세운 것이라면 고국원왕의 무덤은 비석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천추총千秋塚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비문 제7행의 '자무신정□교□自戊申定□教□'이라는 구절은 비록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무신戊申' 만큼은 고국원왕 18년(348)의 간지와 일치하기까지 한다.

이 비문은 고구려인이 한자 고문으로 쓴 문장이다. 따라서 일부 문장은 중국어의 일반적인 규칙에 어긋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족지자富足之者'의 '지之'는 불필요한 것으로 '부족자富足者'라고만 써도 충분하다. 또 '부득기매매不得其買賣'의 '기其' 역시 해석이 불가능하다. '부득매매不得買賣'가 올바른 중국어 표현이다.

비석의 보존과 보호가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영원히 가둬놓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비석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는 비문의 판독과 해석이 더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林沄,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小识」, 『东北史地』3, 7–16.

저 자 쉬더위안徐德源
요령대학 역사학원

연 도 2008
간행물명 『요령대학학보』1
『辽宁大学学报』1

호태왕비好太王碑 일부 비문 해석, 고증

好太王碑铭文选释选考

주 제 어 미추성
압로
계수

호태왕비好太王碑에는 총 1,775자가 있으나 그중 판독된 글자는 1,622자로 153자가 아직까지 판독되지 않았다.

비문 제1면 제10행 제2자 '공攻'에서 제2면 제3행 제9~11자인 '구천성仇天城' 및 판독이 불가능한 그 아래 4자까지 총 177자는 호태왕好太王이 영락永樂 6년 백제를 공격하여 얻은 성의 이름이다.

비문 1,775자의 대부분은 한자의 뜻에 따라 쓴 것이나, 일부 고구려 민족 및 그 왕국 이외의 지명, 인명 등은 발음 부호로만 기록되었다. 지명은 한반도 남부로 진군하여 공격한 성의 명칭과 포로로 잡아온 한예韓濊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의 출신지 명칭으로, 신라와 백제의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인명은 사실 추모왕鄒牟王, 유류왕儒留王, 광개토경평안호태왕光開土境平安好太王 등 3명의 왕명밖에 없다. 그러나 정톄화耿鐵華는 제3면 제7행 하부 및 제8행 상부의 '기모와수관래자其慕化隨官來者' 뒤의 한자를 부여족 귀족으로 판단했다. 그는 "압로鴨盧는 부여 귀족의 관작으로 보인다. 이는 고구려의 가加, 대가大加와 같은 것으로, 여기에는 모두 5명의 인명이 나온다"고 보았다. 필자도 이를 인명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나, 그 부족 및 '압로'의 뜻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인명 뒤에 모두 '압로'가 중첩된 점에 근거하면 '압로'는 신분, 칭호, 혹은 관직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들 5명이 부여족도 아니고 신라인도 아니며 백제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화慕化'라는 단어에 방점을 둔다면, 이들은 호태왕이 한반도 남부에 침입한 왜인을 정벌할 때 호태왕을 따라 온 왜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압로'는 일본어 속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압로'를 『만엽집萬葉集』의 가나를 이용하여 현대 일본어와 대조해서 해독하면 일본어 'yalou'를 표기한 것으로 그 뜻은 '놈'이 된다. 이는 일본인들이 남자

에게 욕을 할 때 쓰는 말이다. 만약 이 해독이 성립된다면, 모화되어 따라온 5명이 일본인임이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인은 왜인에게 심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어의 욕을 사용하여 이 5인을 어떤 '놈'이라 표현했던 것이다.

제3면에는 '범소공파성육십사凡所攻破城六十四'가 나온다. 호태왕이 정벌한 성이 모두 64기라는 말인데, 그중 58기는 6년 병신년丙申年에 백제 공격에서 정벌한 성이다. 나머지 6기 성은 그 뒤 몇 차례 정벌의 성과이다. 제3면 제4행의 17년 정미년丁未年조에는 '환파사구성, 누성, □성, □□□□□□성還破沙溝城, 婁城, □城, □□□□□城'이 나온다. 마지막의 '□□□□□□성'은 분명 2기 성의 명칭일 것으로 보인다. 이 5기 성 이외에 그 윗문장에 나오는 종발성從拔城까지 합치면 모두 6기가 된다. 이 6기 성은 모두 신라를 도와 왜와 전투를 벌일 때 공격한 성으로 본래는 신라의 성이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은 신라 발음을 한자로 따와서 붙이게 된 것이다.

제1면 제9행 끝에서 세 번째 글자인 '군軍'자 아래 두 글자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필자는 '지계至界'라고 생각한다. 이를 그 다음 행의 첫 글자인 '수首'자와 연결시키면 '군지계수軍至界首'가 된다. 이렇게 되면 상하 문장이 서로 연결되고 뜻도 통하게 된다. 즉 호태왕의 군대가 백제의 변경에 이르러 먼저 백제의 '일팔성壹八城(혹은 영팔성寧八城)'을 공격한 후 순차적으로 57기 성을 공격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徐德源, 2008, 「好太王碑铭文选释选考」, 『辽宁大学学报』1, 86–88.

저 자 쉬젠신徐建新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연 도 2005
간행물명 『중국사연구』1
『中国史研究』1

새로 발견된 고구려 호태왕비好太王碑 조기 묵본墨本-1884년 판쭈인潘祖蔭 소장본에 대한 초보 조사

高句丽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发现-对1884年潘祖荫藏本的初步调查

주 제 어 고구려 호태왕비
새로운 발견
리훙이가 보낸 판쭈인 소장본
가장 이른 묵본

고구려 호태왕비好太王碑는 높이가 6.39m이고 방형 기둥 형태이며 사면에 총 1,775자를 새겼다. 이 비석은 고구려 20대 장수왕長壽王이 부친 호태왕好太王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414년에 세운 것이다. 비석은 대략 청淸 광서光緖 6년(1880)에 발견되었다. 비석의 발견과 조기 묵본墨本 제작 및 유전流傳 과정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많고, 또한 1890년대 중기에 이후로는 비면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보정하거나 새로 채워 넣은 일이 있어 일부 문자는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두고 고의로 비문 내용을 바꾼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학계에서는 다년간 이 비석의 조기 묵본 및 비석 발견과 유전에 관한 조기 기록을 찾고 있었다.

필자는 얼마 전 북경北京에서 진행된 경매에 나온 이 비문 묵본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한 결과 120년 전 비석 발견 초기에 제작된 조기 묵본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묵본은 호태왕비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묵본은 잘라서 제본한 판본이다. 음각인 글자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 흔적이 없이 평평한 점으로 보아, 묵구법墨鉤法으로 모탁摹拓해 낸 것으로 판단되며, 본문에서 이를 탁본이라 안 부르고 묵본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글자 양쪽으로 붉은 색으로 쓴 숫자 기호가 있는데, 이는 작은 종이로 모탁할 당시 글자의 순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붙인 번호로 보인다. 이처럼 작은 종이에 번호를 붙인 방식은 현재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사코 가게노부酒匂景信 판본의 제작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본에는 문자가 잘못 배치된 것이 있다. 일부 글자는 제본 당시의 착오로 위치가 바뀌어 문장 해석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 묵본에는 4종의 제발題跋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 묵본에 원래 광서 연간의 판쭈인潘祖陰이 쓴 발문이 있었으나 유전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판쭈인의 발문에는 분명

그 림 1. 새로 발견된 묵본
2. 제발1(우측)과 제발2(좌측)
3. 예창츠의 『고구려왕묘비발高句麗王墓碑跋』 좌측은 예창츠 발문 뒤의 네 번째 제발
4. 제발4
5. 1883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 스파이 사코 가게노부가 회인현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할 당시 구한 호태왕비 조기 묵본
6. 새로 발견된 판본(좌)과 사코 판본(우)의 비문 글자 비교 (괄호 안은 현대인의 판독문)

비문에 대한 고증이 있었을 것이나 현재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제발1에 따르면, 이는 판쭈인이 리훙이李鴻裔(1831~1885)에게 1883년 4월에서 1885년 5월 사이에 보낸 묵본임을 알 수 있다.

제발2와 제발4는 리차오충李超瓊이 쓴 것으로 그는 일찍이 회인현懷仁縣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 호태왕비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그의 발문에 따르면 친구 장웨章樾가 1877년에서 1882년 사이에 회인현의 첫 번째 현령으로 근무했고, 1881년에 최소 2부의 묵본을 리차오충에게 보냈다고 한다. 리차오충은 다시 이 2부를 각각 리훙이와 판쭈인에게 보냈다고 한다. 리훙이와 판쭈인이 광서 연간에 묵본을 구했다는 일은 예창츠葉昌熾의 『어석語石』에도 나온다. 이전까지는 예창츠의 기록에 근거하여 리훙이가 1884년 가장 먼저 묵본 2부를 구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을 뿐, 그 묵본을 구하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묵본을 통해 그 경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제발4는 예창츠가 쓴 제발3의 여백 부분에 작성되었다. 이는 그 작성 시기가 예창츠의 발문 이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창츠의 발문에는 갑신년(1884) 중추仲秋에 작성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제발4의 연대도 이 시기보다 이를 수는 없다. 제발2에는 판쭈인을 언급하며 그의 사후에 붙여진 문근文勤이라는 휘가 등장한다. 따라서 제발2는 판쭈인이 사망한 1890년 10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갑오년(1894)에 판쭈인의 제발이 유실된 일도 기록되어 있어, 제발2의 작성 시기는 1894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제발3은 예창츠가 작성한 것으로 총 1,000여 자를 통해 비문 내용을 고증하고 있다. 판쭈인이 예창츠에게 비문 고증을 맡긴 일은 예창츠의 『연독려일기緣督廬日記』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상 발문3과 예창츠의 책에 따르면, 판쭈인이 예창츠에게 묵본을 보여주고 고증시킨 구체적인 시기는 광서 10년(1884) 7월 22일이고, 예창츠가 발문을 쓴 시기는 같은 해 8월 2일임이 확인된다.

이상 4종 발문과 예창츠의 책에 근거하면, 새로 발견된 묵본은 1881년 리차오충이 친구 장웨에게서 받았고(최소 2부), 1883년 리차오충은 이를 소주蘇州에서 4책으로 제본했으며, 1883년에서 1884년 사이에 그중 1부를 리훙이에게 보냈다. 그는 또 리훙이를 통해 다른 1부를 판쭈인에게 보냈는데 그 시기는 1884년 8월 이전이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새로 발견된 묵본이 바로 이 판본이다. 판쭈인은 이 묵본을 읽고 수 백 자의 발문을 써 묵본과 함께 리훙이에게 보냈다. 1884년 7, 8월에 판쭈인은 이 묵본을 예창츠에게 고증하게 했고, 예창츠는 1,300여 자의 긴 발문을 통해 이 비석의 고증 내용을 기록했다. 예창츠의 발문 뒤쪽에 리차오충은 다시 발문 하나를 더하여, 이 묵본의 유래를 기록했다(제발4). 1894년 이후, 리차오충은 다시 또 발문을 써서 이 묵본의 유전 경위를 기록했다(제발2). 동시에 그는 리훙이가 일찍이 자신에게 보낸

서찰(제발1)을 묵본에 붙여, 4책을 1책으로 합쳤다.

새로 발견된 묵본과 제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필자는 아래의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먼저 학계에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 묵본은 사코가 일본에 가져간 판본(1883년 회인현에서 구한 판본)이었다. 새로 발견된 묵본은 사코의 판본보다 더 이른 시기 판본으로, 즉 현존하는 호태왕비 묵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또한 비석 발견 이후 표면의 이끼를 불태운 일이 있는데, 새로 발견된 묵본은 이끼를 태운 후에 제작된 것이므로, 이끼를 불태운 시기 역시 그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끼를 불태우고 묵본을 제작하기 시작한 해는 1881년 이전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 묵본은 호태왕비 발견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된다. 이 묵본은 즉 예창츠가 주장한 광서 6년(1880)설이 결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상이 아니라, 장웨의 증언에 근거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 묵본이 유전된 1881년은 장웨가 회인현 현령으로 있을 당시이다. 따라서 장웨, 관웨산關月山, 그리고 회인현의 하급 관리들이 모두 이 묵본(사코 판본 포함)의 제작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창츠의 발문을 통해 중국학자의 조기 연구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다. 끝으로 이 묵본은 사코 판본을 통해 야기된 비문 조작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된다. 두 묵본이 모두 모탁 방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이므로, 이를 비교하면 비문 조작설의 진위 여부가 판명날 것이다.

필자가 이번에 새로 발견된 묵본과 사코 판본의 복사본을 직접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묵본의 묵색에 차이가 있다. 사코 판본은 일본에서 제본할 때 최소 한 차례 이상 먹을 더하여 글자 주위의 묵색이 더 검다. 그에 반해 새로 발견된 묵본은 비록 소량의 먹이 더해진 흔적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두 묵본 모두 모탁한 것이라 동일한 글자도 미세하게 상이한 점이 있다.

이상 두 묵본의 비교 결과, 대부분 글자가 동일하고, 아주 일부 글자에서만 필획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모탁 과정에서 묵본 제작자가 글자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던 까닭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묵본의 글자 형태에 근거하여 필자는 사코 판본이 고의로 수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코 판본의 비문 조작설은 확실히 근거가 빈약하다.

경매 이후 이 묵본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묵본 소장자가 빠른 시간 내로 이 묵본의 영인본을 출판하여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徐建新, 2005,「高句丽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发现–对1884年潘祖荫藏本的初步调查」,『中国史研究』1, 159–172.

저 자 쉬젠신徐建新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3
『东北史地』3

중국 출토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분석

中国出土集安高句丽碑试析

주 제 어 집안고구려비
호태왕비
비문 고증
입비 연대
새로 발견된 비석의 내용과 성격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는 2012년 7월 29일 발견되었다. 2013년 1월 4일 『중국문물보中國文物報』에 처음으로 비문의 판독문이 소개되었으며, 같은 달 『집안고구려비』라는 이름으로 연구보고서가 출판되었다.

문물보에 소개된 판독문은 총 140자이고, 보고서에서는 총 156자를 소개했다. 그러나 두 판독문 모두 비석 뒷면의 글자는 판독이 불가능했다고만 소개했다. 그 후 장푸유張福有와 쑨런제孫仁杰는 공동으로 비석 뒷면 중앙의 한 행을 판독했고, 뜻은 최소한 비석 배면의 내용이 수묘연호守墓烟戶 및 석공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다음으로 이 비석을 세운 연대를 추정해보면, 먼저 비문 속에 나오는 간지로 제7행 제10~11자인 '무신戊申'이 있는데, 이는 앞뒤의 글자가 '자무신정𦍒自戊申定𠗋'인 점을 고려하면 이 비석을 세운 해가 아니라 법률을 제정한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비문 중에 '무신'을 제외하면 다른 간지는 언급되는 것이 없어, 나머지 비문에서 비석을 세운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데, 비문에 나오는 왕의 시호가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비문의 '국강상태왕國罡上太王'은 호태왕好太王을 가리킨다. 호태왕비에 따르면 호태왕의 생전 존호는 영락태왕永樂太王이고, 사망한 후의 시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다. 시호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붙여지는 이름으로, 집안고구려비에 '국강상태왕'이라는 시호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비석을 세운 시기가 호태왕이 사망한 412년 이후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 해가 집안고구려비 설립의 상한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호태왕은 재위에 있는 동안 선대왕들에 대한 수묘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본인 사망 후의 수묘연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령을 내렸다. 호태왕의 사망 이후 장수왕長壽王은 선왕의 명을 받들어 이를 충실히 따랐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平壤으로 천도했다. 따라서 장수왕은 천도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그 림 1. 집안고구려비 비문 (쉬젠신 모사)
2. 제1행 제7자 '수'자
3. 한예기비
4. 북위중악숭고령묘비의 '수'자
5~9. 제2행 제10~14자 '□□□가음'자
10. 1) 현대 한자
2) 집안고구려비
3) 한 사신비
4) 한 화산비
5) 한 경군비
6) 북위 원습묘
7) 북위 구진묘지
8) 북위 부평백우찬묘지
11. 제2행 제20자 '윤'자
12. 1) 현대 한자
2) 집안고구려비
3) 한 장표비
4) 북위 원역묘지
5) 북위 구진묘지
6) 북위 비토곡혼씨묘지
7) 북위 부평백우찬묘지
8) 북위 사마경화묘지
9) 동위 이희종조상
13~14. 제3행 5~6자 '각가' 2자
15. 제3행 제10자 '囧'자
16. 제3행 제17자 '연'자
17. 제3행 제20자 '유'자
18. 제4행 제6자 '호'자
19. 제4행 제12자, 판독 불가
20~24. 제5행 제7~11자, '국강상태왕' 5자
25~26. 제5행 제13~14자 '평□' 2자
27. 제5행 제18자, 판독불가
28. 제5행 제20자 '여'자
29~31. 제6행 제4~6자 '□□국' 3자
32. 위리친 담묵정탁본의 '국'자
33. 제6행 제15자 '□'자
34~38. 제7행 제4~8자 '□□□□석' 5자
39~40. 제7행 제10~11자 '무신' 2자
41. 좌: 원 비석 사진, 중: 네거티브 모드로 전환, 우: 글자 형태 모사
42. 제7행 제13자 '皇'자
43. 제7행 제17자 '영'자
44. 제7행 제15자 '대'자
45. 제7행 제18자 '기'자
46. 제8행 제15자 '이'자
47~48. 제9행 제7~8자 '천매' 2자
49. 제9행 제11자 '천'자
50. 제10행 제1자 '매'자

이전에 선대왕들의 수묘와 관련한 일을 명확하게 정리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면 집안고구려비의 설치는 호태왕이 사망한 412년부터 장수왕이 천도한 42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집안고구려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1행 제1자에서 제3행 제16자까지로, 고구려의 건국과 수묘연호 제도를 지켜야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제3행 제17자에서 제8행 제18자까지로, 고구려 사회에 수묘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을 소개하고, 호태왕 시기에 수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각종 조치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은 제8행 제19자에서 제10행 제20자까지로, 이 구절은 수묘연호 제도 위반에 대한 징벌성 법률 조문이다. 이상과 같이 비문의 중심 내용은 수묘연호 제도를 설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이는 집안고구려비의 성격이 일종의 경고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안고구려비의 서체는 예서이다. 예서체는 진대秦代에 기원하여 한대漢代에 성행했다. 집안고구려비의 서체는 기본적으로 한위漢魏 시기 성숙된 형태의 예서체로, 고구려의 문자 문화가 중원 한자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인의 한자 서체에는 또 자신들만의 특색도 많은 부분에서 드러난 집안고구려비 제5행 제8자 '강岡'자를 비문에서는 '罒'자 아래 '止'자를 더해서 표현했다. 박진석朴眞奭은 이 글자를 고구려에만 있는 이체자라고 추정했으나, 사실 중국의 금석문에서도 사용된 사례가 있다. 다만 독립된 한 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와 합쳐진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글자가 남북조南北朝 시기 이전의 예서체 금석문이나 기타 공문서에서 독립된 하나의 글자로 사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 유물에서는 호태왕비, 염모총冉牟塚 묵서제기, 집안集安 상하활룡촌上下活龍村 고구려 고분 출토 토기편, 한국 경주에서 출토된 호우명 그릇의 명문에서 모두 이 글자가 발견되고 있다.

'연烟'자는 모두 4개가 등장한다. 이 자는 호태왕비에서 모두 70차례나 등장하기도 한다. 박진석은 이 자의 정자체가 '연煙'이라고 소개했다. 한~남북조 시기의 금석문에는 '연煙'자의 이체자가 다수 등장하는데 '연烟' 이외에도, '화火'와 '회回'를 붙인 경우, '화火' 옆의 '큰 입구口' 안에 '공工'을 넣은 경우, '토土'를 넣은 경우 등이 있다. 고구려에서 '연烟'을 이처럼 다량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이 글자가 임의로 고쳐 쓴 이체자가 아니라 당시에 이미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정형화된 글자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끝으로 집안고구려비와 호태왕비의 서체를 비교해보면, 글자의 배치는 두 비석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각 글자별 크기 변화도 크지 않고, 상하좌우 사이의 간격도 비교적 일치한다. 그러나 서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51~52. 제10행 제2~3자 '□약' 2자
53. 호태왕비 '유'자
54. 호태왕비 '유'자의 모사 글자
55. 호태왕비 '약'자
56. 제10행 제4자 '回'자
57. 제10행 제11자 '囚'자
58. 〈염모총 묵서제기〉 제42~43행 '국강상태왕성지 호태성왕'(경태화 판독문)
59. 필
60. 사
61. 장
62. 태
63. 고
64. 무
65. 교
66. 수
67. 복
68. 각
69~73. '강'자 하부의 '지'자 구조: 집안고구려비, 호태왕비, 호태왕 호우, 염모총 묵서제기, 집안 상하활룡촌 고구려 고분 출토 토기편
74~77. '연'자: 집안고구려비, 호태왕비, 위 수선표비, 북위 황보린묘지
78~81. '수'자: 집안고구려비, 호태왕비, 호태왕비 '수'자 모사, 북위 황보린묘지

있다. 호태왕비의 서체는 예서가 중심이나 전서篆書와 진서眞書가 섞여있어 전서와 예서, 예서와 해서 사이의 과도기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집안고구려비의 네모반듯한 서체는 중국 남북조 시기 북조北朝 비석의 예서체에 더 가깝다.

徐建新, 2013, 「中国出土集安高句丽碑试析」, 『东北史地』3, 17–31.

저 자 쑨런제孙仁杰
집안 박물관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3
『东北史地』3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 비문 판독

集安高句丽碑文识读

주 제 어 집안
고구려비
판독
장수왕 시기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가 발견된 후 비문 연구와 문자 판독을 위해 집안集安박물관 저우룽순周榮順이 비석의 탁본을 진행했다. 그는 상이한 방식으로 2, 3, 4, 6, 7호 탁본을 떴고, 쑨런제孫仁杰도 직접 탁본을 떴다(5호 탁본), 또한 집안박물관에서는 낙양洛陽 문물고고연구소의 탁본 전문가인 장화궈江化國, 리광푸李光夫를 초청하여 각각 탁본을 부탁했고, 또 길림성吉林省 문물고고연구소의 위리췬于麗群에게도 탁본을 부탁했다.

집안박물관에서는 비석의 보호 연구와 문자 판독을 위해 탁본 이외에도 사진, 동영상, 3D 기술 등도 이용했다.

집안박물관에서 조직한 전문가팀은 탁본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모두 170여 자를 판독했고, 그중 이견이 많았던 20자를 제외한 156자를 발표했으며, 2013년 1월 4일 『중국문물보中國文物報』에서는 그 보다 적은 140자를 소개했다.

필자는 상술한 156자에 다시 32자를 더 확인하여 총 188자를 판독했다. 그중 18자는 추정자로 전체는 다음과 같다.

1.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邹牟王之创基也
2. □□□子河伯之孙神灵祐护假荫开国辟土継胤相承
3. □□□□各家烟戸以此河流四时祭祀然万世悠长㒳
4. □□□□烟戸□㒳禁㒳富足㒳转卖转买守墓者以铭
5. □□□□□□国罡上太王㒳平安太王㒳武乘舆东西
6. □□□□□国追述先圣功勋弥高悠烈継古人之慷慨
7. □□□丁卯㒳刊石自戊㒳定律教㒳发令其修复各於
8. 㒳王墓上立碑铭其烟戸头廿人名㒳示后世自今以后
9. 守墓之民不得擅㒳更相转卖虽富足之者亦不得其买
10. 卖㒳有违令者后世継嗣之㒳看其碑文与其罪过

그 림 1. 2012년 11월 쑨런제의 156자 모사본
2. 2013년 4월 쑨런제의 판독 모사 원고

집안고구려비는 수묘연호守墓烟戶 제도를 기록한 율령비이다. 비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1부분은 1행에서 4행까지이고 제2부분은 5행에 10행까지이다.

제1부분은 비석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제1단락은 고구려 건국 사실과 추모왕鄒牟王의 건국, 왕권의 전승 내력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제2단락에는 제사의 시기, 위치, 대상, 내용, 제사를 지내는 사람 등을 기록했다. 시기는 춘, 하, 추, 동 사계절이고 위치는 '이차하류以此河流' 즉 마선하麻線河이다. 제사의 대상은 시조 추모왕과 '계윤상승繼胤相承'한 각 왕들이며, 제사는 '각가연호各家烟戶'가 실시한다. 제3단락은 시간이 오래 되면서 수묘연호가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비석을 세워 기록한다는 내용이다.

제2부분은 선왕의 공적을 추술하고, 비석을 새겨 세우며, 율령을 다시 밝히고, 연호두烟戶頭와 위반자의 처벌을 기록하였다. 크게 5단락으로 구분된다. 제1단락은 호태왕의 영토 개척을 찬양하고 공적이 위대하여, 우리가 '선성先聖(호태왕)'의 위대한 업적을 추술하고 계승한다는 기록이다. 선성을 추술하는 자는 비석을 세운 자이고, 선성은 호태왕이므로 추술자는 장수왕長壽王일 수밖에 없다. 제2단락은 집안고구려비를 새기고 세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의 정묘년丁卯年은 장수왕 15년(427)으로 보인다. 제3단락 무자년戊子年의 '무戊'자는 분명히 확인되며 그 아래 자는 형태나 새긴 흔적이 '자子'자로 보인다. 이 무자년은 고국양왕故國壤王 5년(388)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부친 고국양왕이 사망하기 전에 호태왕이 수묘연호의 법률 제정을 건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자정률戊子定律'의 해당 법률은 수묘연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조문으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무자정률'의 법률 조문을 강조하여 수묘 제도를 더욱 규범화하고, 율령을 다시 밝혀 수묘연호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바로 집안고구려비인 것이다. 제4단락의 내용은 수묘연호 중의 책임자 즉 '연호두烟戶頭'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연호두는 여러 연호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이지 한 가정의 호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연호두는 국연國烟이었을 것이고, 국연 중에서 뽑은 책임자였을 것이다. 비석 뒷면에는 '후세에 알리는' '연호두'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나, 이것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후대인들이 못 보게 하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제5단락에서는 수묘인들을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함을 다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집안고구려비에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이, '간기비문看其碑文, 여기죄과与其罪过'라고만 했는데, 이는 호태왕비에 처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어 위반자를 처벌할 때 호태왕비의 비문을 보라는 뜻이다.

집안고구려비는 호태왕비,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에 이은 세 번째 고구려 문자비이다. 비문은 길지 않으나, 고구려의 창건, 왕위 계승, 선왕의 공적 추

술, 사시 제사, 수묘 제도 등의 전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새로운 고고학 자료로, 고구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비석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어,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孙仁杰, 2013,「集安高句丽碑文识读」,『东北史地』3, 50–53.

저 자 쑨웨이란孙炜冉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17
간행물명 『학문』1
『学问』1

호태왕비好太王碑 속 '연호烟戶', '압로鴨盧'의 어의語義 연구

好太王碑中"烟户"、"鸭卢"词义考

주 제 어 고구려
호태왕비
연호
압로
압록강

지원사업 2016년도 길림성 사회과학기금 항목(2016JD68)
길림성 고구려연구중심 위탁 항목(JG2014W006)

호태왕비好太王碑는 일종의 기공비이면서 수묘연호守墓烟戶 제도를 기록한 비석이기도 하다. 전체 비문 가운데 제3면 제8행부터 끝까지 총 637자가 수묘연호에 관한 내용이다. 그중에는 3개의 중요한 명칭, 즉 연호烟戶, 국연國烟, 간연看烟이 등장한다. 비문 내용에 근거하면 연호는 국연과 간연 2종으로 나뉜다. 정톄화耿鐵華는 '연호'가 밥을 지을 때 나오는 연기를 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수묘연호'는 관청에서 무덤을 관리하도록 파견한 사람이며, 이 명칭은 고대 호적 등기 등 관청 문서에 다수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대淸代에 와서야 호적 등기와 관청 문서에 '연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호태왕비가 건립된 동진東晉 시기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연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는 종종 '수묘연호'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수묘'는 '연호'의 직무를 표시한 것이다. '수묘'라는 단어는 호태왕비 제작 시기와 동일한 남북조南北朝 시기 문헌에도 다수 등장한다. 비록 호태왕비처럼 직접적으로 '수묘인'이라 표현하지는 않고 '수묘오호守墓五戶', '수묘삼십가守墓三十家' 등으로 표현했으나, '수묘' 자체가 '묘를 지키는 사람[守墓人家]'이라는 뜻이고 '호戶, 가家'는 '민호民戶', '인가人家'를 줄인 말로 호태왕비의 '연호'와 같은 것이다.

비록 남북조 시기에 '수묘'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고대 호적 등기와 문서 속 '연호'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등장하여, 고구려 시기의 '연호'와는 직접적인 연속성을 찾을 수 없다. 문헌기록에 근거하면 '연호'는 정톄화의 주장처럼 '사람'과 '호구戶口'의 뜻이 맞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고구려에서 청나라까지 1천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단어가 사라졌다는 점으로, 두 단어를 갑자기 연결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른다. 시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와 종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고구려는 예맥족穢貊族 계열이고, 청나라는 숙신족肅愼族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계열로 상이한 민족과 언어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연호'를 유효하게 하나로 연결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송서宋書』와 『위서魏書』의 내용을 보면, '수묘' 자체가 '수묘민호守墓民戶'의 약칭임을 알 수 있는데, 왜 호태왕비에는 번잡하게 이를 '수묘인연호'라고 했을까? 게다가 또 더 세밀하게 '국연'과 '간연'으로 나누고, 또 양자의 신분과 직무도 구분했다.

원래 '연煙'은 '연烟'으로도 쓰고 통용된다. 그래서 호태왕비의 '연호烟戶'는 '연호煙戶'의 또 다른 표기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연煙'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제사 명칭으로, 연기를 올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복을 기원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연천煙天'이라고 하면, '사천祀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사煙祀'는 고대에 하늘에 제를 올리는 일종의 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먼저 장작을 태워 연기를 올리고, 다시 희생犧牲이나 옥백玉帛을 장작 위에 놓고 태웠다. '연시煙柴' 역시 장작을 태워 연기를 하늘에 올려서 하늘에 제를 드린다는 뜻이다. '연례煙禮'는 연기를 올려 하늘에 제를 드리는 의례를 말한다. 셋째는 제사에 대한 범칭이다. 예를 들어, '연종煙宗'은 육종六宗에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하고, '연준煙樽'은 연사煙祀에 사용되는 술잔을 말하며, '연사煙祠'는 제사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연煙'자는 '제사' 행위와 동작을 가리키는 글자이다. 따라서 '연호烟戶'는 전문적으로 제사 활동에 종사하는 민호를 말하는 것이고, 호태왕비의 '수묘인연호'는 수묘인 가운데 전문적으로 왕릉에 제사 지내는 민호를 강조하여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수묘인'과 '연호' 사이에 중복이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이 호태왕비의 '연호'는 수묘의 책임뿐만 아니라 왕릉의 제사 활동을 책임진다는 더 중요한 임무를 갖는다. 이렇게 제사를 책임지는 수묘인을 다시 '국연'과 '간연'으로 구분한 점은 신분과 출신지의 차이도 있지만, 그 책무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압로鴨盧'는 제3면 제7행 3~41자와 제8행 첫머리에 등장한다. 이 압로에 대해 연구자들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궁톄화는 이를 부여 귀족의 관작으로 보았다. 왕젠췬王健群은 동부여 귀족이나 작은 마을이라고 보았다. 박시형 역시 이 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가 이와 다른 견해를 제기했다. 대표자는 쉬더위안徐德源과 양쥔楊軍이다. 쉬더위안은 "이 다섯 '압로' 앞의 판독 가능한 4개 한자 표음 인명은 일본인 성씨이다"라고 주장했다. 양쥔은 '압로'와 '구루溝婁'의 발음이 비교적 가까워 '압로'는 성城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 새로운 견해가 기존의 견해를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에는 민족의 언어로 명명된 다수의 관직명이 있으나, '압로' 혹은 음이 '압로'에 가까운 관직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

부여 및 주변 민족에서도 이 음에 가까운 관직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작은 마을의 칭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고구려는 초기에 다수의 '나부那部'를 겸병했고, 이것이 정돈되어 5부를 형성했다. 계루부桂婁部 이외의 4부는 모두 '노부奴部', '나부那部'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이다. '나'는 '노奴', '내內'로도 표기하고 원래 뜻은 땅, 혹은 강안 평원을 말하다가 후에 강안과 산곡에 위치한 지역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이처럼 '압로'도 고구려 초기 점령한 작은 마을을 부르는 명칭인 '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발음상으로도 '압로'는 '나', '노'를 천천히 읽는 소리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때, 호태왕비 제3면 제7행은, 호태왕을 흠모하여 찾아온 5개 마을의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압로'라는 명칭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에 고구려의 어떤 행정 구역을 가리키는 별칭이 되었다. 그리고 압록강鴨綠江이라는 명칭 역시 여기에서 기원한 것이다. 압록강이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나, 사실 '압록'이라는 명칭은 이 지역을 지배했던 고구려인의 언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상은 압록강 주변의 일부 마을이나 행정 구역을 가리키는 별칭인 '압로'였던 것이다.

孙炜冉, 2017, 「好太王碑中"烟户"、"鸭卢"词义考」, 『学问』1, 36–40.

저 자 왕젠췬王健群
연 도 1982
간행물명 『박물관연구』창간호
『博物馆研究』创刊号

호태왕비好太王碑 을미년乙未年 기사 해석

好太王碑乙未年纪事考释

호태왕비好太王碑는 장수왕長壽王이 부친의 공적을 기념하고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를 기록하기 위해 414년에 태왕릉太王陵 동쪽에 세운 대형 묘비이다. 비석 높이는 6.39m이고 비문은 총 1,775자이다.

비문 내용은 대략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분은 고구려 건국 신화와 추모왕鄒牟王, 유류왕儒留王, 대주류왕大朱留王 3대의 계승 및 호태왕의 행적을 간략히 서술했다. 제2부분은 호태왕이 비려碑麗, 백제를 치고 신라를 구원하며 왜구를 물리치고 동부여를 정벌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차지한 성, 마을 그리고 포로 등등의 공적을 기록했다. 제3부분은 호태왕 생전의 유훈을 따라 무덤을 지킬 수묘인연호의 출신, 가구 수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호태왕이 선왕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를 기록했으며, 수묘연호의 매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제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을미년乙未年 기사는 제2부분 제1문단으로 호태왕이 비려를 정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판독문에 오류가 많아 해석이 어려웠다. 1981년 필자는 재차 각종 탁본과 원 비석을 비교하여 새롭게 판독문을 작성했다. 그 중 을미년 기사는 다음과 같다.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碑麗不歸□人, 躬率住(住)討, 過富山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洛(落)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還,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豐. 王備獵, 游觀土境, 田獵而還."

영락永樂 5년은 동진東晉 효무제孝武帝 태원太元 20년으로 서기 395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영락은 고구려 연호가 아니다. 고구려는 중원의 연호를 썼고 칭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영락 5년'은 영락태왕永樂太王 제5년이라는 뜻이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광개토왕廣開土王 5년'과 같은 의미이지 정식 연호는 아니다. 동시대 사서에도 고구려가 연호를 썼다는 기록은 없다. 호태왕뿐만 아

니라 기타 왕들 역시 이와 같다.

영락 5년은 호태왕이 22세인 해로, 그는 이 해에 처음 군사를 이끌고 정벌을 나서 비려와 전투를 벌였다. 비문 기록에 따르면, 호태왕의 대외 원정에는 모두 명분이 있었다. 영락 5년에는 비려가 '불귀□인不歸□人'했기 때문에 친히 군사를 이끌고 토벌에 나섰다. 『진서晉書』, 『요사遼史』 등에 따르면 비려는 거란契丹 부족의 한 집단으로 근세 이후의 '국가' 개념은 아니었다. 『삼국사기』권18에는 광개토왕 원년 9월에 북으로 거란을 쳤다는 기록이 있다. 비록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사건 자체는 비문과 유사하다. 비문에 따르면 비려가 '불귀□인不歸□人'한 것이 직접 토벌을 간 이유인데, 이는 아마도 모반하고 도망간 사람이거나 혹은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간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진서晉書』「동이전」, 『요사遼史』「지리지」 등에 근거하면 비려는 선비鮮卑의 옛 땅 남단에 위치했고, 고구려와 접해있어 자주 고구려를 침략했다. 호태왕은 남하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은 배후의 위협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전쟁 대상을 비려로 삼았던 것이다.

호태왕의 군대의 진군 경로는 '과부산부산지염수상過富山負山至鹽水上'이다. 즉 염수鹽水에서 비려의 세 마을과 6~700개 영을 격파했다는 말인데, 이는 비려가 염수에 살았다는 말이고, 호태왕의 군대가 진군한 마지막 지역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부산富山'은 현도군玄菟郡 내 동쪽 끝으로 고구려와 인접한 곳이었고, 당시 고구려 영토의 서쪽 경계는 혼강渾江 라인이었다. 그렇다면 부산은 혼강 서쪽에서 멀지 않은 곳이 되고, 지세를 고려하면 환인桓仁 서쪽의 우모대산牛毛大山이 될 것이다.

'부산지염수상負山至鹽水上'의 '부산負山'은 지명이 아니라 산을 등지고 있다는 뜻으로 즉 산 아래 멀지 않은 곳을 말한다. 염수는 염난수鹽難水 즉 혼강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은 연수衍水로 태자하太子河라고도 불린다. 우모대산을 넘어 태자하 상류에 비려 부족의 마을이 있었던 것이다. 그곳은 현재의 청하성淸河城과 감창城廠 사이이다.

'인과양평도, 동래□성, 역성, 북풍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豐'의 양평도襄平道를 이전에는 가평도駕平道로 판독했으나 이는 쌍구가묵본의 오류이자 훗날 석회를 바르면서 발생한 착오이다.

당시 고구려는 집안集安 서쪽으로 북도와 남도 두 길이 있었다. 북도는 노령산老嶺山을 넘어 서쪽으로 꺾어 환인에 이르는 길로 비교적 평탄하여 왕래하기가 쉽다. 남도는 판차령板岔嶺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 패왕조산성覇王朝山城을 넘어 환인에 이르는 길로 산이 높아 다니기 어렵다. 두 길은 환인에서 다시 남북으로 나뉜다. 북도는 현 무순撫順까지 이어지고, 남도는 요양遼陽까지 이어진다. 북도를 현도도玄菟道라 부르는데, 수隋나라의 고구려 정벌 당시 좌

12군이 진군한 노선 중 하나이다. 요양은 고대에 양평襄平이라 불렀다. 그래서 남도를 양평도襄平道라 부른다. 이는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 당시 우12군이 진군한 노선 중 하나이다. 호태왕이 비려와 태자하 상류에서 전쟁한 곳은 바로 두 도로의 중간이고 양평도까지는 몇 십 리 거리에 불과하다. 양평도는 비교적 평탄하여, 전쟁이 끝난 후 고구려 군대가 포로와 가축을 이끌고 가기에 유리했다.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가지 않고 양평도를 선택한 것이다.

『진서』「지리지」에는 요동군遼東郡에 양평, 역성力城 등 9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순서상으로 군치가 위치한 양평이 가장 앞에 있고 역성현은 9현 가운데 가장 끝에 위치하여, 요동군의 변경지역으로 판단된다. 즉 이 현은 고구려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후에 고구려가 차지한 곳이다.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가다가 다시 또 역성과 북풍北豐을 언급했다는 것은 즉 역성이 현재의 집안 서쪽 혹은 서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임을 말해준다.

북풍은 발해 풍주豐州의 소재지로 현재의 통화通化 일대이며 집안에서 그리 멀지 않다.

고구려가 요동遼東 지역을 차지한 것은 장수왕대이다. 시기는 대략 5세기 30년대이고, 호태왕 시기의 서쪽 영토는 혼강 라인에 불과하다. 호태왕이 비려를 정벌한 곳은 요동, 현도의 동쪽 변경 지대이고, 역성, 북풍은 혼강의 동쪽이다. 비문에 기록된 진군 노선과 귀환 길을 고려해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는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성, 역성, 북풍을 거친 후 비로소 '사냥 준비를 시키고, 국토를 즐기며 구경도 하고 사냥도 하면서 돌아'온 것이다. 이는 즉 양평도를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영토에 도착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부산, 역성, 북풍을 서쪽에서 찾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전쟁을 끝내고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호태왕이 사냥도 하고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며 돌아왔다는 것은, 첫 번째 원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비석이 원래 호태왕의 공적을 기리는 내용이므로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뒤로 진행되었던 다수의 원정과 승전에도 더 이상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왕비렵, 유관토경, 전렵이환王備獵, 游觀土境, 田獵而還'이라는 이 구절 역시 사실의 기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王健群, 1982, 「好太王碑乙未年纪事考释」, 『博物馆研究』创刊号, 20–26.

저 자 왕젠췬王健群
연 도 1983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4
『社会科学战线』4

호태왕비好太王碑의 발견과 탁본

好太王碑的发现和捶拓

호태왕비好太王碑는 장수왕長壽王이 부친의 공적을 기리고 수묘연호守墓烟戶를 기록하기 위해 414년에 호태왕릉好太王陵 동쪽에 세운 대형 묘비이다.

이 비석의 존재가 새롭게 알려진 것은 광서光緖 초년(원년이나 2년)으로 보인다. 비석을 발견한 자는 관웨산關月山이다. 관웨산은 호태왕비를 처음 발견했고 또 처음으로 탁본을 뜬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비석 가운데 일부 글자만 탁본을 떴고, 전체를 탁본한 사람은 리다룽李大龍, 탄광칭談廣慶, 왕사오루王少廬, 치단산亓丹山, 추펑두初鵬度 등으로 알려져 있다. 비석 전체를 탁본한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추펑두인데, 사실 그의 이름은 추톈푸初天富이다.

비석이 발견되고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비문의 많은 부분에서 해석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일부 글자의 탈락도 그 원인이기는 하나, 쌍구본雙鉤本의 글자 및 실제 탁본한 판본의 글자 일부가 원래 비문의 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기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은 먼저 종이를 비석에 붙이고 가볍게 두드려 글자의 윤곽을 그려낸 후 종이를 떼어내고 글자 이외의 빈 공간과 글자가 없는 곳에 먹을 바른 것으로 실제 탁본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글자를 잘못 그려 넣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1900년대 초기, 대략 1903년 전후로는 탁본자가 비석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보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획이 부족한 글자에 획을 더하고, 모호한 글자를 선명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수한 글자의 근거가 된 것이 쌍구본이었다. 그런 이유로 탁본한 판본에서 나타나는 오자가 쌍구본과 동일한 경우가 생겼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오류에 속아 국제적으로 근 20여 년에 걸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한편 일본 명치明治대학 강사인 이진희李進熙 선생은 일본이 임나일본부설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도 판 1. 추쥔더가 남긴 비문 필사본
2. 추쥔더과 일본인 모씨의 사진
3. 필자의 추원타이씨 방문 당시 사진

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1884년 비석에 석회를 발라 비문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상 이러한 일본의 위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일본에서 집안현輯安縣 지사 우광궈吳光國에게 비석의 판매를 요청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호태왕비에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수정하거나 보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탁본자 구체적으로는 추톈푸 부자가 한 일이다. 그들이 보수, 수정한 글자 가운데에는 상당수의 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들에게 역사 지식이 없었던 까닭이지 역사를 위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글은 다만 사건의 진상을 밝혀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또 호태왕비 연구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자는데 그 뜻이 있음을 밝힌다.

王健群, 1983, 「好太王碑的发现和捶拓」, 『社会科学战线』4, 171–180.

저 자 왕젠췬王健群
연 도 1985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호태왕비好太王碑 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和好太王碑研究有关的几个问题

호태왕비好太王碑는 글자 부분과 글자가 없는 부분이 모두 옅은 회색이고 비면이 평평하지 않으며, 문자는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일부 필획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며, 특히 비면의 탈락으로 부분적으로 남은 필획을 잘못 해독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부 글자는 비면의 훼손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일부 부분적 탈락이 생긴 글자는 탁본 작업을 할 때 솜방망이에 주는 힘의 경중이나 세밀함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탁본마다 상이한 글자로 보이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탁본에서 보이는 비석의 파손된 부분이 크기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 파손된 부분의 크기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일부 작업자들이 탁본 작업의 편의를 위해 파손 부위 주위로 회를 너무 많이 발랐던 까닭이었다.

이 비석은 크기가 크고 글자도 크며 글자가 새겨진 깊이도 깊다.

그 밖에 비면이 평평하지 않고, 돌가루, 공기구멍 등이 비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원래 글자가 없던 일부 공백 부분이 글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사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하다.

탁본은 원래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 없다. 동일한 탁공이 동일 시간에 동일 종이와 먹으로 작업을 해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결과물에서 완전히 다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수작업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호태왕비는 자연 풍화나 이끼 제거를 위해 비면을 불에 태우면서 생긴 훼손 이외에는 원래 글자를 지운 일이 없었다. 다만 석회를 발라 글자를 보정한 것은 추톈푸初天富 부자의 전무후무한 재주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오늘날 학계 연구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추씨 부자가 석회를 바른 것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된 일이었다. 처음에는 탁본 작업의 편의와 글자를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점토를 작은 구멍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이나 오목한 곳에 채워 넣었다. 그러나 점토는 건조되면 수축되거나 탈락되었고 작은 구멍에 들어간 점토가 굳은 후에는 점토 주위로 속이 빈 작은 원이 나타났다. 그러자 작업이 더 번잡해졌고, 작은 원은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석회로 바꾼 것이다. 석회는 점토보다 더 편리했다. 물론 여전히 자주 보수를 해야 했지만, 작은 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점토보다 더 오래갔다. 그래서 현재 비면에 석회를 제거한 작은 구멍 속에서는 황토도 보인다.

석회를 문자 주위의 틈에 바르자 탁본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다. 또 먹의 색상도 진해져 비문이 더욱 선명해졌다. 이런 탁본이 중국내에서는 조기 탁본으로 알려져 가격이 급등했다. 추씨 부자는 이를 보고 다시 석회로 글자를 보정하기 시작했다. 필획이 빈 글자가 완전한 글자가 되었고 깨진 흔적이 진짜 글자로 변했다. 그들은 일부 모호한 글자를 깨진 흔적, 반점 등과 연결시켜 과거 일부 금석학자들이 추정했던 글자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뜻이 통하지 않는 가짜 글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당시 대부분은 쌍구본의 잘못된 획을 근거로 글자를 만들었다).

필자는 만약 우리가 호태왕비의 비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전면적인 분석, 연구를 진행하며, 거기에 역사 전적, 유물까지 결합하여 당시 역사의 객관적 실제를 분석한다면 현재보다는 더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王健群, 1985, 「和好太王碑研究有关的几个问题」, 『博物馆研究』1, 49–54.

저 자 왕중수王仲殊
연 도 1990
간행물명 『고고』11
『考古』11

호태왕비好太王碑 비문 신묘년辛卯年 구절 해석

关于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호태왕비好太王碑에 언급된 왜인이 한반도에 침입했다는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신묘년辛卯年 구절이다. 신묘년은 호태왕이 즉위한 해, 즉 영락永樂 원년(391)이다.

신묘년 구절을 현대 중국어의 문장 부호로 구분하면 앞 · 뒤 두 문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백잔, 신라구시속민, 유래조공百殘, 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이왜이신묘년래도해파백잔□□[신]라이위신민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인데, 신新자는 훼손이 심하여 우측의 '근斤'자만 남았으나, 그 뒤에 '나羅'자가 있어 '신라'로 판독할 수 있다.

앞 문장은 글자도 분명하고 뜻도 명확하여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뒤 문장은 두 글자가 판독되지 않았고, '이以'자와 '래도해來渡海'가 해석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문장을 끊어 읽을 것인가 하는 점이 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비문 전체에 등장하는 '이以'자는 총 10여 곳이고 그중 연도, 날짜와 관련된 '이'자는 모두 세 곳이다. 신묘년 구절 외에 갑인년甲寅年 구절과 병신년丙申年 구절 두 곳이 더 있는데, 신묘년 구절의 '이'자와 '이갑인년구월입구일을유천취산릉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및 '이육년병신왕궁솔수군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 두 곳의 '이'자는 그 쓰임새가 완전히 동일하다. 즉 세 문장의 '이'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시간의 소재를 표시하는 '우于(~에)'자를 강조하는 뜻이다. 또한 '천취遷就'와 '(궁)솔(躬)率'은 모두 동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신묘년 구절의 '래(도해)來(渡海)' 역시 동사로 보아야 한다. '래'자는 원래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래도해' 세 글자가 비록 문법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먼 곳에 있던 왜인이 바다를 건너 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신묘년 구절에서 확인되지 않은 두 글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비면에 원래 틈이 있어 글자를 새길 수 없었다는 설인데, 사실은 원래 글자가 있었으나 후대에 훼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둘째는 동사설로, '격擊', '갱토更討', '우벌又伐', '겸벌兼伐', '우복又服', '겸복兼服', '협항脇降', '수파隨破' 등의 글자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비문의 저자는 전체적으로 고구려를 높이고 다른 국가는 폄하하는 단어를 선택했다. 따라서 '토討, 벌伐, 복服' 등 왜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의미의 단어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가능성이 큰 것은 '수파隨破'일 것이다. 그런데 '수파'는 또 '우파又破'와 차이가 없어, "(왜)파백제, 우파(수파)신라, 이위신민(倭)破百濟, 又破(隨破)新羅, 以爲臣民"이라는 문장이 되며, 여기서 뒤의 '우파(수파)'는 동일한 동사의 반복이 되어 필요가 없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사설 역시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마지막은 명사설로, '임나任那(혹은 가라加羅)'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왜)파백제, 임나(가라), 신라이위신민(倭)破百濟, 任那(加羅), 新羅以爲臣民"이 되는데, 이는 문장 구조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당시 한반도 남부에 존재한 국가의 상황과도 부합하여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신묘년 구절 후반부의 비면 훼손으로 인해 판독이 불가능한 두 글자가 명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만일 이 두 글자가 명사라면, 분명 임나 혹은 가라일 것이다.

王仲殊, 1990, 「关于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考古』11, 1037–1044.

저 자 왕중수王仲殊
연 도 1991
간행물명 『고고』12
『考古』12

호태왕비好太王碑 비문 신묘년辛卯年 구절 해석 재론

再论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호태왕비好太王碑 신묘년辛卯年 구절은 "이왜이신묘년래도해파백잔□□(신)라이위신민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으로 '백잔百殘' 뒤의 두 글자는 비면이 훼손되어 판독되지 않았고, 신新자는 훼손이 심하여 우측의 '근斤'자만 남았는데, 그 뒤에 '라羅'자가 있어 '신라'로 판독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이以'자는 비문 중의 갑인년甲寅年 구절과 병신년丙申年 구절에 나오는 '이'자와 그 쓰임새가 완전히 일치한다. 즉 '이갑인년구월입구일을유천취산릉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및 '이육년병신왕궁솔수군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 두 문장의 '이以'자와 신묘년 구절의 '이以'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시간의 소재를 표시하는 '우于 혹은 재在'자를 강조하는 뜻이다. 이러한 사례는 도홍경陶弘景의 『진고眞誥』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진고』에 보이는 "이대호란중국시以大胡亂中國時", "이중평이년을축세以中平二年乙丑歲"에서 '이'자는 모두 신묘년 구절 '이신묘년以辛卯年'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소재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또한 이 두 문장에서 '천(취)遷(就)'와 '(궁)솔(躬)率'은 모두 동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신묘년 구절의 '내도來渡' 역시 동사로 보아야 한다. 이는 『진고』 외에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두 문헌에는 '내도강來渡江'이라는 표현이 다섯 차례 확인된다. 이는 '강을 건너 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내도해' 역시 '바다를 건너 왔다'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 『고고』 11기에 발표했던 필자의 「호태왕비 비문 신묘년 구설의 해석[關于好太王碑文辛卯年條的釋讀]」에서는 '내도해'라는 표현이 문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나, 위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묘년 구절에서 확인되지 않은 두 글자는, 원래 비면에 틈이 있어 글자를 새길 수 없었다는 설도 있으나, 원래 글자가 있었지만 후대에 훼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1950년대에 등장한 '동사설'은 비문의 저자

가 그 동사의 주체가 되는 왜倭를 좋게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같은 의미의 단어를 중복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역시 성립되기 어려운 견해로 보인다.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글자는 명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의 '백잔百殘', 뒤의 '신라'와 마찬가지로 '임나任那' 혹은 '가라加羅' 등 국명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왜인이 백제와 신라를 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 남쪽의 임나, 가라도 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문에는 영락永樂 10년(400)에 호태왕의 군대가 신라를 구원하러 가서 "왜를 쫓아 임나任那 가라加羅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신묘년(391)에 왜인들이 백제, 신라를 친 이후 임나와 가라도 쳤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王仲殊, 1991, 「再论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考古』12, 1125–1131.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및 문학원 고고학과, 길림대학 동북역사와 강역연구중심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3
『东北史地』3

새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에 관한 몇 가지 생각

关于新出集安高句丽碑的几点思考

주 제 어 집안고구려비
판독문 비교
입비 연대와 입비인
비석의 성격과 대상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길림대학 '985공정' 항목

2012년 7월 29일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에서 새로 발견된 고구려 비석의 판독문은 2013년 1월 4일 『중국문물보中國文物報』에 처음 게재되었고, 최근에는 그 비석의 연구 보고서인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가 출판되었다. 그 뒤 쉬젠신徐建新과 장푸유張福有 두 연구자가 본인들이 연구한 판독문을 필자에게 보내와, 이상 4편의 판독문과 필자의 판독문을 비교해 보았다.

전체 문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1부분은 추모왕鄒牟王이 고구려 정권을 세운 역사 공적과 각 연호烟戶의 사시제사四時祭祀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제3부분은 수묘인守墓人의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했다. 제2부분은 대체적으로 비석을 세운 이유, 과정, 어느 왕이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 등을 기록했으나 빠진 글자가 많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은 국강상태왕國罡上太王이 어느 왕인지, 또 '무□정률戊□定律'이 어느 해인지, '□묘卯 간석□卯國刊石'이 맞다면 이 해는 또 언제인지로 정리된다. 정률定律 연대와 입비 연대의 추정은 먼저 '국강상'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어야 가능해진다.

이 비석의 성격에 대해서, 『집안고구려비』에서는 수묘연호守墓烟戶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제도를 공포한 비석이라고 정의했고, 장푸유는 연호두烟戶頭를 위해 세운 '정률비定律碑'라고 보았으며, 쉬젠신은 수묘연호 제도의 위반을 경고하는 일종의 '경고비'라고 보았다.

여러 연구자의 분석처럼, 이 비석은 일종의 정률, 경고를 위한 비석인 동시에 '이차하류사시제사以此河流四時祭祀'라는 구절에서 보이듯 구체적인 관리 대상도 설정한 비석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집안고구려비』에서는 발견 지점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천추총千秋塚이 그 관리 대상이고, 천추총은 호태왕의 부친 고국양왕故國壤王의 무덤이므로, 호태왕이 부친의 무덤 관리를 위해 세운 비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비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필자는 오히려 관리 대상이 추모왕일 것으로 추정한다. 우선은 비문에 추모왕의 공적을 기리는 내용이 많고, 당시 추모왕을 제외한 선대왕들의 무덤은 집안集安 지역에 위치하여 제사 활동에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추모왕의 무덤은 졸본卒本에 위치하여 매번 이곳을 찾아 제사를 올리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집안 인근 지역에 장소를 정해 제사를 올리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선대왕들의 무덤 관리를 위한 비석은 이미 호태왕 시기에 모두 세웠으나 추모왕을 위한 비석은 예외였고, 호태왕이 사망한 후에는 장수왕長壽王이 부친을 위해 호태왕비를 세웠다. 그 뒤 평양平壤으로 천도를 결정한 장수왕은 유일하게 빠져있던 추모왕을 위한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집안고구려비는 비문이 호태왕비만큼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아 다수 연구자의 판독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 이는 비문의 판독과 고증에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문에 담은 것은 다만 그간의 연구 혹은 기타 연구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고민한 몇 가지 생각 혹은 몇 가지 가능성의 제기일 뿐으로, 여러 연구자의 더 심도 깊은 연구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魏存成, 2013, 「关于新出集安高句丽碑的几点思考」, 『东北史地』3, 32–39.

저 자 장푸유张福有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 도 2007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4
『社会科学战线』4

호태왕비好太王碑 속의 '평양성平壤城' 고증

好太王碑中的 "平壤城" 考实

주 제 어 호태왕비
하평양
평양성
나라 동북쪽 큰 도시 신성
양민

호태왕비好太王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평양平壤'은 '하평양下平壤'으로 전체 구절은 "구년기해, 백잔위서, 여왜화통, 왕순하평양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壤"이다. 비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평양'은 백제, 신라와 인접한 평양을 지칭한다. '하평양'의 '하'는 방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上'에 대응한다. 이는 '하평양'의 북쪽에 먼저 '평양성'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3면 시작 부분의 수묘연호守墓烟戶가 기록된 구절에는 "우성, 일가위간연, 비리성, 이가위국연. 평양성민, 국연일, 간연십于城, 一家爲看烟, 碑利城, 二家爲國烟, 平壤城民, 國烟一, 看烟十"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에 언급된 수묘연호는 모두 '구민舊民'에 속한다. 그 뒤로는 새롭게 데려온 한예韓穢 수묘연호를 기록하고 있다. 비문에서는 호태왕이 구민들만으로 수묘연호를 채우기에는 안정적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새롭게 데려온 한예 및 '백잔남거한百殘南居韓' 등을 수묘연호로 채웠고, 이들이 수묘의 법도를 잘 모를 것을 걱정하여 구민과 이들을 섞어 배치하게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상 기사의 '평양성'은 분명 '하평양'과는 다른 곳으로 보인다. 비문에 따르면 태왕릉太王陵의 수묘연호는 총 330가家로 모두 50개 지역에서 선발되었는데, 그 가운데 구민은 14개 지역에서 선발되었고, 새로 데려온 한예와 백잔남거한은 36개 지역에서 선발되었다. 그 14개 지역의 구민 가운데에 '평양성민, 국연일, 간연십平壤城民, 國烟一, 看烟十'이 있는데, 여기의 평양성은 '하평양'이 아니라 압록강鴨綠江 우안의 원 평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이 평양성이 현 북한의 평양이 아님은 학계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 곳을 현 집안시集安市 국내성國內城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즉 247년 동천왕東川王이 축성한 평양성이 국내성이라는 학설이 현재까지의 통설이다. 그러나 '평양'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지명이 아니라 평원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의 땅이라는 뜻이다. 고구려의 도성인 국내성 동북쪽에 '평원의 땅'이라는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는 양민고성良民古城이 있다. 그리고 집안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호자구蒿子溝 JHM1호묘는 그 규모 및 시기상의 특징, 지리적 특징 등에서 볼 때 동천왕의 무덤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동천왕은 바로 평양성을 축성한 인물로 평양성을 완공한 이듬해에 사망했다. 그의 무덤이 국내성과 새로 축성한 평양성(양민고성) 사이인 호자구에 위치했다는 점 역시 양민고성이 평양성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천왕이 21년(247)에 축성한 이 평양성은 사실 평원성이라는 뜻이었고 이를 신성新城이라고 불렀다. 즉 고구려의 첫 번째 평양성은 현 북한의 평양도 집안의 국내성도 아니라 집안 지역의 동북쪽인 '양민'에 위치한 고구려의 고성으로 판단되며, 14대 봉상왕烽上王이 모용외慕容廆를 피해 피신한 곳도 이 신성이었다.

张福有, 2007, 「好太王碑中的"平壤城"考实」, 『社会科学战线』4, 161-164.

저 자 장푸유张福有
길림성 문사관文史館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3
『东北史地』3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 비문 보충 및 판독, 해석

集安麻线高句丽碑碑文补释与识读解析

주 제 어 집안 마선
고구려비
호태왕 무신정률
장수왕 정묘세간석
연호두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는 2012년 7월 29일 집안시 마선하麻線河 천변에서 발견되었다. 외형은 규형圭形이고 양 측면에는 글자가 없다. 전면은 예서체 한자가 음각되어 있다. 우에서 좌로 총 10행이고, 원래는 총 218자가 있어야 하나, 탁본을 살펴보면 217자일 가능성도 있다.

아래는 필자가 각종 탁본, 사진을 근거로 린윈林澐, 웨이춘칭魏存成, 장리화蒋力華, 쑨런제孫仁杰, 쉬젠신徐建新 등과 의견을 교류하고, 또 호태왕비, 『신당서新唐書』 등 관련 사료 및 금석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추정, 확인한 비문의 판독문이다.

1행: 惟雄才不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
2행: 天帝之子河伯之孫神靈祐護假蔭開國辟土継胤相承
3행: 遠近舊民各家烟戶以此河流四時祭祀然萬世悠長烟
4행: 戶亦轉賣烟戶为禁舊民富庶擅轉賣韓穢守墓者以銘
5행: 守墓人摽然唯國罡上太王號平安太王神武乘輿東西
6행: 廿家巡故國追述先聖功勳弥高烋烈継古人之慷慨
7행: 此河流丁卯歲刊石自戊申定律教言發令並修復各於
8행: 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宣示後世自金以後
9행: 守墓之民不得擅買更相擅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10행: 賣向若違令者後世継嗣之者看其碑文与其罪過

제6행 앞의 2자를 린윈은 글자 크기가 큰 '입가廿家'로 보았으나, 쑨런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글자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마선고구려비는 어느 한 왕릉의 연호烟戶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마선하 양안에 위치한 모든 왕릉의 수묘연호守墓烟戶를 위해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고

구려 28대 왕 가운데 18명의 왕호에 장지 명칭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마선고구려비에 나오는 '국강國罡', '고국故國'이라는 지명은 졸본卒本과 국내성國內城 주위 역사 지명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 마선고구려비 속 '구민舊民'과 호태왕비好太王碑 속 '평양성平壤城' 구민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대상이다. 고구려의 첫 번째 평양은 현재의 북한 평양이 아니다. 통설은 현 집안의 국내성國內城이라 하나, 필자는 고구려의 첫 번째 평양성이 집안 양민고성良民古城이라 생각한다. 당시에는 이곳을 신성新城이라 불렀다. 호태왕비에 나오는 구민 가운데 '평양성민'은 바로 이 양민고성에서 온 주민을 말한다. 마선고구려비의 연호두烟戶頭는 바로 이 구민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마선고구려비는 고구려 문화와 중원 문화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다수의 문구에서 중국 고문헌을 이용한 흔적이 보이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자를 썼으며, 동일한 예서체를 썼다. 이 모든 것이 고구려와 중원 문화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张福有,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碑文补释与识读解析」, 『东北史地』3, 40–49.

저 자 장푸유张福有
길림성 문사관文史館

연 도 2013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5
『社会科学战线』5

집안마선고구려비集安麻線高句麗碑 탐구

集安麻线高句丽碑探综

주 제 어 정묘세
비각
장수왕
고구려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 마선하麻線河 주변에서 고구려 석비 하나가 발견되었다. 원래 약 217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석은 호태왕好太王의 가르침과 묘를 관리하는 연호두烟戶頭 20가家를 기록한 정률비定律碑이다.

비문 제7행에는 비석의 제작 연대에 대한 기록이 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구는 '정묘세간석丁卯歲刊石'으로 확인되는데, 정묘년丁卯年은 고구려 제20대 장수왕長壽王 55년(427)으로 장수왕이 도성을 평양平壤으로 옮긴 해이다.

이 비석은 호태왕비好太王碑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어느 한 왕릉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선 일대 왕릉을 관리하는 '연호두'를 위해 세운 비석일 가능성이 높다. 이 비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천추총千秋塚이 있으나 천추총과 비석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 강 건너에 왕릉의 묘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비석 서쪽으로 JMM626호묘와 서대총西大塚이 있는데, 일단 거리가 멀고, 무덤의 조성 연대도 비석보다 이르며 비석과 왕릉 사이에 일반 무덤이 밀집 분포하고 있어 역시 이 두 무덤의 묘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비문에 나오는 '고국故國', '국강상國罡上'이라는 문구는 고구려 지명 연구에 큰 가치를 지니는데 '국강상'은 바로 '고국원故國原' 혹은 '고국의 원原'을 말하는 것이고, '고국'은 또 환도산성丸都山城을 포함한 국내성國內城 일대를 가리킨다.

이상과 같이 이 비석은 호태왕비, 역사 문헌, 고구려 고지명, 왕릉, 고성 등의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던 일련의 중요 문제 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어, 1877년 호태왕비가 발견된 이래로 집안 지역의 고구려 고고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张福有,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探综」, 『社会科学战线』5, 12–26.

저 자 천중위안陈钟远
대련시 여순박물관
왕위王宇
대련시 여순박물관

연 도 2001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호태왕비好太王碑 을미년乙未年 구절 문단 보충

好太王碑乙未岁镌文补识

호태왕비好太王碑 을미년乙未年 구절은 비문에서 처음 간지 기년이 등장하는 문단이다. 제1면 제7행 첫 글자부터 제8행 제33자까지 모두 74자로 대부분 이미 판독되었고 일부 글자에만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필자는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및 다수의 탁본을 토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碑麗不息出沒, 躬率住(往)討回富山, 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洛(落)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于是旋駕, 因過㪷平道, 東來汶城, 力城, 北豐. 王備獵, 游(遊)觀土境, 田獵而還.'

이 문단은 호태왕好太王이 영락永樂 5년에 '비려碑麗'를 친히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악평도㪷平道를 지나 곳곳에서 사냥을 하고 순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비려'를 기존에는 거란契丹의 한 부족인 '비리裨璃', '비리碑璃'로 보아왔다. 비려가 비리와 음은 비슷하나 사실 역사 연대나 지역적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비碑'자에는 원래 상대 국가를 무시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예를 들면 백제를 백잔百殘, 잔국殘國이라 표기하고 왜를 왜적倭賊, 왜구倭寇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비문의 비려는 사서에 나오는 맥인貊人 '구려句麗'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 두 갈래의 맥인 '구려'가 등장한다. 하나는 대수大水를 따라 거주하던 대수맥大水貊으로 훗날 고구려를 건국한 주력이고, 다른 하나는 '구려' 별종別種으로 소수小水에서 나라를 세운 소수맥小水貊이다.

비문 속 '비려'는 소수맥 구려句麗를 비하하여 부른 명칭이고, 호태왕은 그들을 토벌한 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동쪽으로 요동遼東의 문성汶城, 역성力城, 북풍北豐 세 성을 순시하고 귀환하는 길에 사냥까지 즐겼다. 이는 고구려가 이미 상당한 세력을 갖추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구려왕이 요동의 세 성을 순시한 일 자체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요동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陈钟远 · 王宇, 2001, 「好太王碑乙未岁镌文补识」, 『博物馆研究』1, 23–28, 18.

무용총 벽화(수렵도)
©池内宏 外, 1940, 『通溝』, 下.

02 금속류

경태화 고구려 병기兵器 연구 ····· 106-107

경태화 고구려 마구馬具 기생寄生 연구 ····· 108-109

둥가오 기원3~6세기 모용선비慕容鮮卑, 고구려, 조선, 일본의 마구馬具 비교연구 ····· 110-111

왕펑융 고구려의 정리釘履 ····· 112-112

웨이춘청 고구려 마구馬具의 발견과 연구 ····· 113-115

위안성 고구려의 금동정혜金銅釘鞋 ····· 116-116

자오수친 복원한 금도금 장신구 1점 ····· 117-118

장쉐옌 집안集安 청동단검 및 관련 문제 ····· 119-120

장쉐옌 집안集安 출토 고구려 금속 대식帶飾의 유형 및 관련 문제 ····· 121-121

정춘잉 고구려의 정혜釘鞋 ····· 122-123

판리 고구려 선조는 청동기 시대를 거쳤다 ····· 124-125

저 자 경톄화耿铁华
연 도 1993
간행물명 『요해문물학간』2
『辽海文物学刊』2

고구려 병기兵器 연구

高句丽兵器初论

그 림
1. 청동 병기
   1)~3) 동모
   4) 청동단검
   5)~7) 월형부
   (4. 3/20, 나머지 3/10)
2. 철모
3. 집안 삼실총 벽화
4. 집안 삼실총 벽화
5. 철제 병기
   1)~4) 철도
   5)~9) 환두도
6. 철제 병기
   1) 사치기
   2) 삼릉철자
   3) 삼구기 (모두 1/4)
7. 동철촉
   1) 금동촉
   2) 철정동촉
   3) 명적
   4)~29) 철촉
8. 철갑편
9. 철정리
10. 금도금한 철정리

현재까지 집안集安 일대 유적과 무덤에서만 수 백 점에 달하는 금속 무기가 출토되었다. 철기가 가장 많고 청동기도 적지 않다. 물론 분명 고구려인이 제조한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일부 무기도 있기는 하나 그들이 사용했던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무기는 일반적으로 장병기長兵器, 단병기短兵器, 포사병기抛射兵器, 방어무기 등으로 구분된다.

장병기로는 동모銅矛, 철모鐵矛, 사치기四齒器, 삼치기三齒器, 장도長刀 등이 발견되었고, 단병기로는 청동단검, 검표劍鏢, 동부銅斧, 철도鐵刀, 환두도環頭刀 등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인은 활에 능하여서 집안 일대에서는 다량의 화살촉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방어용 무기로는 갑주와 방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부 유적과 무덤에서 철갑편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완형의 고구려 갑옷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 철정리鐵釘履와 금도금한 정혜釘鞋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유물 역시 방어용 무기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의 주요 금속 무기는 철기가 다수이고 동기는 아주 소량이었다.

고구려의 동제 무기는 주로 현지인들이 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원의 청동 제련 기술은 그보다 이른 전국戰國시대 말기에 이미 고구려의 활동 지역에 전래되었다. 그리고 진秦의 통일 전쟁 과정에 다량의 유민이 북방으로 유입되었고 이를 통한 제련 기술의 전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구려의 청동 제품은 이러한 중원의 영향 하에서 고구려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건국 이전 즉 전국에서 진한秦漢 시기까지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청동기 시대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고구려의 철제 병기가 한대漢代에 고구려로 유입된 것이고 고구

려인의 제철업은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다. 물론 아직도 고구려 시기의 제철 유적이나 철제 도구 생산 유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출토 유물과 고구려 지역의 철광산 분포 상황을 고려하면, 고구려에도 당연히 제철업이 존재했고, 그 수준도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증거가 삼치기, 사치기, 맥도貊刀, 삼릉형철자三棱形鐵刺, 삼구기三鉤器 등으로 이는 중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기종이다. 이러한 무기들은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 외에 다양한 양식의 고구려 철촉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 철촉 중에는 중원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양식이 많다. 이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철촉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끝으로 고구려 병기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무기는 당연히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다. 국내성國內城에 도읍했을 시기의 고구려는 100여 차례가 넘는 전쟁을 치뤘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인들은 그들의 무기를 부단히 개조, 개선하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고구려인에게 있어 무기는 수렵 생산을 위한 주요 도구이기도 했다. 산간계곡이 많고 평지가 적어 농업 생산에 제한을 받았던 고구려는 수렵이 경제생활의 중요 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집안의 20여 기 고분 벽화 가운데 10여 폭에 산림 수렵 장면이 나온다. 사냥꾼이 손에 든 무기 대부분이 위에서 소개했던 무기들이고, 일부 실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병기의 종류, 형식, 특징,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의 위치와 기능을 연구할 때, 그 무기가 수렵 생산 과정에서 발휘하는 기능과 지위 역시도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할 것이다.

耿铁华, 1993,「高句丽兵器初论」,『辽海文物学刊』2, 240-246.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원
동북사범대학

연 도 2017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5
『社会科学战线』5

고구려 마구馬具 기생寄生 연구

高句丽马具寄生研究

주 제 어 고구려
마구
기생
고구려 벽화
삼연

마구馬具 중 기생寄生은 다른 물건 위에 붙어서 그에 의지하는 물건으로 공작의 깃털이나 대나무 가지로 만들었고, 그 모양은 긴 부채나 빗자루 모양이며, 말 엉덩이 부분의 마구 위에 세워 말을 탄 사람의 등을 가려 화살을 피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마구이다.

마구 기생은 고분 벽화와 화상석畫像石, 화상전畫像磚 등에서 다수 확인된다. 기생은 동한東漢 이후에 등장하고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 유행하다가 당唐나라 초기에 퇴화되기 시작했다. 재료는 대나무, 깃털, 금속 등이고, 형태는 긴 부채 모양, 꽃잎 모양, 나뭇가지 모양, 영기纓旗 모양, 끈 모양, 고리 모양, 十자 모양 등으로 다양하다.

과거 집안集安 박물관에서 참가한 몇 차례 발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철기가 출토된 일이 있다. 형태는 마구 기생과 유사한 부품이었으나 훼손과 변형이 심하고, 또 기생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아 판단이 어려웠다.

2001~2003년 환도산성丸都山城에 대한 전면 조사 당시 궁전 유적에서 철기 2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형태로 보아 고구려 마구 기생의 일부분이 분명해 보인다. 원 보고서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철기 2점으로 표현했으나, 이를 세워놓고 보면 안장 뒷부분에 세워져 있는 기생과 매우 유사하다. 전체 길이는 42㎝ 전후인데, 이 정도 길이면 기생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틀리지 않다면, 한국에서 출토된 '뱀 모양 철기' 및 공반된 띠 모양 철편과 함께 그 원형을 복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경기도京畿道 연천군漣川郡의 무등리無等里 2호 보루에서는 집안 환도산성 궁전지에서 출토된 철기와 같은 모양의 철기 2점이 출토되었다. 한국 학자들은 이를 '뱀 모양 철기'라 명명했다. 무등리 2호 보루는 1호 보루와 함께 무등리에 축성된 고구려 보루로 임진강 서안에 위치한다. 2012년 4월 남성

그 림 1. 마구 장식 각 부분 장비도
2. 마구 장식 측면도
3. 덕양 화상전묘 벽화
4. 소통 곽승사묘 동벽 하층 벽화
5. 등현 채색 화상전
6. 단양 남조 화상전 모사도
7. 돈황 제285굴 벽화
8. 돈황 벽화(서위西魏)
9. 돈황 벽화(당초唐初)
10. 맥적산 맥찰 127굴 벽화
11. 수나라 초기 화상전
12. 북표 출토 기생과 모사도
13. 북표 출토 기생 전후면 모사도
14. 중원 마구 기생 모사도
15. 덕흥리 고분 벽화 차마출행도
16. 기생이 딸린 개마무사도 부분
17. 쌍영총 개마도
18. 개마총 벽화
19. 팔청리 고분 벽화
20. 마조총 벽화 개마도
21. 삼실총 개마교전도
22. 마선 1호묘(좌), 장천 1호묘(우) 벽화의 개마 모사도
23. 고구려 벽화 속 기생 모사도
24. 환도산성 출토 기생
25. 기생 모사도
26. 기생 복원 모사도
27. 한국 무등리 2호 보루 출토 고구려 기생
28. 한국 출토 기생 복원 모사도
29. 기생 상부
30. 기생 복원 모사도
31. 봉황산성 출토 기생과 모사도
32. 마권산성 출토 기생과 모사도
33. 봉황산성, 마권산성 출토 기생 복원 모사도
34. 삼연, 고구려, 신라 기생 비교

표 1. 고구려 기생의 유형
2. 고구려 기생의 연대

벽 부근과 북성벽 치 부근에서 각각 철제 기생 1점이 출토된 것이다. 이는 한국 고구려 보루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철제 기생이다. 여기서 발견된 기생은 환도산성의 기생보다 그 부속품이 더 온전하게 발견되었다. 이는 위쪽에 연결되는 '十'자 모양의 길고 폭이 좁은 철편 4~5점으로 아마도 평행하게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 발굴을 중국에 소개한 왕페이펑王飛峰 역시 이를 고구려 개마介馬장구 중의 기생으로 보았다.

1997~2006년 심양瀋陽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에서 진행된 3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성내 S1구역 건물지에서 반원형의 얇은 철제 장식품 1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기생의 상부일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요령성遼寧省 영구시營口市에서는 철제 기생(굽은 자루와 궁형弓形의 부속품)이 발견되었고, 또 몇 년 전 봉성시鳳城市 봉황산성鳳凰山城에서도 굽은 자루와 궁형 부속품이 발견되었다. 2015년에는 마권산성馬圈山城에서 활 모양으로 굽은 자루 1점이 수습되었는데 이 역시 기생이다.

고구려 마구는 중원에서 요서遼西의 삼연三燕을 통해 전래되었고, 기생 역시 마구의 일부분으로 그 발전과 전파 궤적은 기타 마구와 동일하거나 혹은 약간 더 늦을 것이다.

고구려에 전래된 기생은 마구와 함께 한반도 남부로 전해졌고 다시 일본까지 전해졌다. 삼연의 기생, 고구려의 기생과 유사한 기생이 한국 신라 천마총天馬塚에서도 출토되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환도산성, 봉황산성, 마권산성, 무등리 2호 보루 출토 기생의 하부는 모두 철제이고 공부銎部가 있는 굽은 갈고리 모양이며, 일부는 궁형기弓形器와 함께 출토되었다. 한국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晋州 수정봉水精峰 2호묘, 옥봉玉峰 7호묘, 양산梁山 부부총夫婦塚에서도 기생 하부의 금속 부재가 출토되었다. 어떤 것은 '굽은 갈고리 모양 철기'라 불리고, 어떤 것은 '뱀 모양 철기'라고 불리는데, 그 형식은 봉황산성, 무등리 2호 보루 출토 기생의 하부와 매우 유사하다. 게다가 모두 궁형기 혹은 유사한 궁형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궁형기는 이 유형 기생의 상반부 부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상의 자료는 모두 고구려 기생이 신라 기생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삼연 지역 출토 기생은 많지 않으나 특징이 강하고, 고구려 기생은 중원 기생의 특징도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양식 즉 고구려 민족의 특징이 더해졌다. 마찬가지로 신라, 일본에 유입되면서 일부 신라의 특징도 더해졌다. 중원 마구 기생의 전파 경로에서 고구려는 중원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했다.

耿铁华, 2017, 「高句丽马具寄生研究」, 『社会科学战线』5, 101–120.

저 자 동가오董高
연 도 1995
간행물명 『문물』10
『文物』10

기원3~6세기 모용선비慕容鮮卑, 고구려, 조선, 일본의 마구馬具 비교연구

公元3至6世纪慕容鲜卑、高句丽、朝鲜、日本马具之比较研究

그 림 1. 모용선비 마구 시기 구분도
2. 집안 출토 고구려 마구 시기 구분도
3. 한반도 삼국시대 마구(『조선고고학개요』 그림102, 104, 105, 106, 107에서 인용)
4. 일본 마구 시기 구분도

모용선비慕容鮮卑, 고구려, 한반도 삼국, 일본 고분시대 만기의 무덤에서는 마구馬具가 흔히 발견되고 있다. 이들 마구는 시기상으로 3~6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이고 지역적으로도 근접해 있어 다수의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모용선비의 마구는 주로 요령성遼寧省 조양시朝陽市 및 인근 지역, 하남성河南省 안양시安陽市와 요령성 본계시本溪市에서도 소량 발견되었다. 마구의 조합과 형태의 변화에 근거하면 모용선비의 마구는 3기로 구분된다. 1기는 3세기 중엽 이후에서 4세기 중엽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모용선비 마구의 시작 단계로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중원 선진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가죽 위주의 마구에서 금속 마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기는 4세기 중엽에서 4세기 말까지이다. 이 시기는 마구의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 모두 전성기에 들어선 모습을 보인다. 마구의 종류가 증가하고, 제작 기술의 수준도 비교적 높아졌다. 3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엽 이전까지이다. 장신구가 크게 감소하고 실용성 위주로 제작하였다. 이때는 모용선비의 마구가 쇠락의 길을 접어드는데, 모용선비 정권의 쇠락 및 선비족의 한화漢化에 기인한 결과이다.

고구려의 마구는 집안集安 출토품이 가장 대표적이나 그 외에 환인桓仁, 무순撫順, 심양瀋陽, 철령鐵嶺 등지에서도 일부 발견되었다. 고구려의 마구는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마구의 종류가 적은 편으로 안교鞍橋, 함銜, 표鑣, 고리, 동령 등이 있다. 그러나 세트를 갖추어 출토된 사례는 없다. 시기는 약 3세기 말에서 4세기 중엽 전후이다. 2기는 마구의 종류가 완전히 갖춰지는 모습을 보이며 등자 등도 나타난다. 시기는 4세기 중엽 전후에서 4세기 말까지이다. 3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철제 마구가 증가하여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게 된다. 시기는 5세기 초부터 5세기 중엽까지이다. 4기는 집안, 환인 등지에서 고루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세트를 갖춘 보고는 없었다. 재료는 다수

가 단조한 철제로 실용성을 강조했다. 시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말엽까지이다.

한반도 삼국시대의 마구는 대부분 안鞍, 등鐙, 함銜, 표鑣 등 세트를 갖추어 출토되었고, 마구 장식품도 함께 확인되었다. 5세기 중엽 전후를 기준으로 조기의 마구는 가죽 말안장이나 나무 등자를 청동으로 감싸는 등 동제 마구가 많았고, 만기의 마구는 전기보다 형태가 발전한 철제 등자나 물고기 꼬리 모양 장식품 등 철제가 많다. 한반도는 북부와 남부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용선비와 고구려의 마구 생산이 비교적 이르고 발전 수준도 높다. 고구려에서 세트를 다 갖춘 마구가 사용된 시기는 선비보다 약간 늦고, 등자, 안장, 타원형 마표 등은 선비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마구 중 쌍절곤식 철함과 S형 마표는 선비의 마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고구려 마구의 특징이며 아마도 흉노匈奴 등 북방 기타 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북반부는 고구려 마구를 이어서 발전시킨 것이고, 남반부의 마구는 고구려와 요서遼西 지역 선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고분시대 후기의 마구는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반도의 영향도 있었지만 주요 계보는 선비의 마구에서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선명한 지방색과 민족색을 지닌 요서 지역 모용선비의 마구는 16국 시기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고구려, 한반도,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각지의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전파 루트는 세 갈래로 구분된다. 하나는 중국 조양–집안–한반도–일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조양–한반도–일본이며, 중국 조양–(한반도 경유)–일본의 루트가 세 번째이다. 이는 3~6세기 동북아시아 선비계 마구로 총칭할 수 있을 것이다.

董高, 1995, 「公元3至6世纪慕容鲜卑、高句丽、朝鲜、日本马具之比较研究」, 『文物』10, 34–42.

저 자 왕펑융王鵬勇
집안시 박물관

연 도 2000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고구려의 정리釘履

高句丽之钉履

그 림 1. 철정리
2. 금동정리
3. 삼실총 수문 무사도

최근 집안集安 지역에서는 일부 철정리鐵釘履와 금동정리金銅釘履가 출토되었다. 무덤에서 출토된 것도 있고 환도산성丸都山城에서 출토되기도 했다. 보통은 이런 철정리는 말굽에 묶어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 혹은 병사들이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라는 견해도 있고, 금동정리는 고구려의 군사 수장 등이 겨울에 신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철제 혹은 금동 못신발의 용도는 마조총馬槽塚, 삼실총三室塚, 장천長川 2호묘 벽화에서 확인된다. 이상 벽화에서는 모두 고구려 장수와 무사가 못신발을 신은 모습이 나온다. 출토된 철정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착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마찰에 의해 못이 짧아졌다는 것은 철정리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용도 혹은 산을 오르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철정리는 현재 발견된 사례가 몇 점에 불과한데, 당시 고구려 도성에 병사가 수십 만에 달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못신발은 귀족이나 장수들만 착용할 수 있었고, 일반 병사들 혹은 일반 백성들이 착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동정리는 얇은 동판을 두드려 제작했다. 사용된 흔적은 없고, 구조상으로 착용했을 때 인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바닥면이 평평하고 굴곡이 없어 걷기에 불편한 형태이다. 금동정리는 대부분 무덤에서 출토되어, 부장용 명기로 제작된 것이지 실제 사용하는 용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이후 무덤에서 부장된 명기가 다량 증가하고, 실제 사용했던 물건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금동정리도 대부분 5세기 전후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이 철정리는 실제 사용한 것이고, 못 길이가 긴 것은 산에 오르는 용도이자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 짧은 것은 겨울철 미끄럼 방지용이었고 금동정리는 부장용 명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王鵬勇, 2000, 「高句丽之钉履」, 『博物馆研究』1, 71–72.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길림대학 고고학과

연 도 1991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고구려 마구馬具의 발견과 연구

高句丽马具的发现与研究

그 림 1. 1) 호현 출토(춘추)
2) 유수 노하심 한대 무덤 출토
3) 하북 양원 한묘 출토
4) 안양 효민둔 출토
5) 조양 원대자 동진 벽화묘 출토
6) 본계 소시 진묘 출토
7) 환인 M19 출토
8) 집안 만보정 M242 출토
9), 11) 집안 만보정 M79 출토
10) 집안 칠성산 M96 출토
12)~14) 신라 '천마총' 출토
2. 1) 안양 효민둔 M154 출토
2) 조양 원대자 동진 벽화묘 출토
3) 집안 칠성산 M96 출토
4) 집안 우산하 M41 출토
5), 6) 집안 만보정 M78 출토
7)~10) 신라 '천마총' 출토 (7, 9는 전륜; 8, 10은 후륜)
11) 일본 등지목 고분 출토
3. 1) 안양 효민둔 M154 출토
2) 영하 고원 북위묘 출토
3) 원대자 동진 벽화묘 출토
4) 북표 풍소불묘 출토
5) 집안 칠성산 M96 출토
6) 집안 만보정 M78 출토
7) 집안 우산하 M41 출토
8), 9) 신라 '천마총' 출토
10) 한반도 남부 복천동 M10 출토
11) 일본 자하현 신개 고분 출토

고구려의 마구馬具는 대부분이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부식과 교란으로 인해 마구의 가죽, 천, 목재 부분은 모두 사라졌고, 현재 확인되는 것은 대부분 금속 부재이다.

금속 마구가 발견된 고구려 무덤으로는 마선구麻線溝 M1, 우산하禹山下 M41, 장천長川 M2가 있다. 이 3기 무덤은 연대가 5세기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무덤은 도굴되어 남아있는 마구의 수량이 매우 적다. 만보정萬寶汀 M78과 칠성산七星山 M96은 모두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 적석묘로 비록 도굴되기는 했으나 봉분의 돌이 뒤섞여 부장품이 쉽게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남겨진 마구의 수량도 많은 편이다. 특히 만보정 M78에서는 2세트의 마구가 출토되었다. 이 두 무덤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인桓仁 M14, M19, 집안集安 만보정 M242, 우산禹山 Ⅱ식 적석묘는 무덤 유형이 비교적 원시적이고 출토된 마구 역시 간단한 것들이며 일부 무덤에서는 재갈[銜鑣]만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무덤의 조성 연대가 비교적 이른 시기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양진남북조兩晉南北朝 시기는 마구의 각 구성 부분이 기본적으로 완비된 시기인데, 위의 마구가 출토된 무덤들은 바로 이 시기에 조성된 무덤들이다. 고구려 마구의 특징 분석을 위해서는 고구려 이외의 몇몇 중요 무덤 출토 마구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시대가 비교적 이른 무덤으로는 안양安陽 효민둔孝民屯 M154가 있다. 단등單鐙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의 말등자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말, 개의 머리와 개의 발톱도 출토되었는데 원 보고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이 무덤이 선비족鮮卑族 무덤이거나, 혹은 최소한 선비의 영향을 받았거나 선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덤이라고 보았다. 조성 시기는 약 4세기 중엽

12) 일본 등지목 고분 출토
4. 1) 일본 등지목 고분 출토 마구 복원도
5. 1) 안양 효민둔 M154 출토
2) 조양 원대자 동진 벽화묘 출토
3) 본계 소시 진묘 출토
4), 14) 집안 마선구 M1 출토
5) 집안 장천 M2 출토
6), 7) 집안 만보정 M78 출토
8) 집안 패왕조산성 출토
9), 15) 집안 칠성산 M96 출토
10), 12), 13), 16) 신라 '천마총' 출토
11) 신라 '금령총' 출토
6. 1), 2) 안양 수습
3), 5), 6), 8), 10) 조양 원대자 동진 벽화묘 출토
4) 유수 노하심 무덤 출토
7) 안양 효민둔 M154 출토
9) 집안 만보정 M242 출토
11) 집안 M195 출토
7. 1)~3) 본계 소시 진묘 출토
4) 집안 마선구 M1 출토
5) 집안 장천 M2 출토
6) 집안 우산하 M41 출토
7), 8) 집안 만보정 M78 출토
9) 집안 M160 출토
10), 11), 14) 신라 '천마총' 출토
12), 13) 일본 복강 충지도 출토
8. 1) 안양 효민둔 M154 출토 마면(당로)
9. 1) 하북 양원 한묘 출토
2) 신라 '천마총' 출토

표
1.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금속류 마구 표
2. 안교 테두리 크기 비교표

전후로 당시에는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세력이 황하 하류까지 발전했던 시기이다.

조양朝陽 원대자袁臺子 동진東晉 벽화묘에서는 쌍등雙鐙이 출토되었다. 그 외에 벽화 내용도 안악安岳 3호묘, 덕흥리德興里 벽화묘 등 4세기 후반의 무덤 벽화와 유사한 점이 있어, 4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조양 지역을 점령한 것은 바로 모용선비이다.

일본 등지목藤之木 고분의 연대는 6세기 후반인데, 출토 마구가 매우 정교하여 일본 고분시대 마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고분에서 마구가 등장하는 것은 대략 5세기 중엽부터 시작되고, 5, 6세기에는 급격히 증가한다.

마구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은 고삐[轡]이다. 고삐를 구성하는 부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갈[銜鑣]이고 그 외에 액대額帶, 비대鼻帶, 협대頰帶, 인대咽帶, 금속 재질의 마면馬面(당로當盧) 등이 있다. 조기의 표鑣는 각형角形과 'S'형 모양이다. 그중 'S'형 표는 한대漢代에 유행했고 위진魏晉 시기에도 사용되었다. 만보정 M242 출토 표가 바로 이 유형이다. 물론 만보정 M242 출토품의 시기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3세기 말~4세기 초로 판단된다. 환인 M19는 만보정 M242보다 빨라서 함銜과 끈을 묶는 용도의 길이가 긴 투환套環(인수引手)만 출토되었는데, 함과 함께 조합을 이루는 표는 'S'형 혹은 각형이었을 것이다. 만보정 M79와 칠성산 M96에서 출토된 마표馬鑣는 모두 타원형이고 일부는 위쪽에 협대를 통과시키는 용도의 장방형 구멍이 있다. 표는 표면이 민무늬인 것과 십자의 돌대가 더해진 것도 있으며, 투공으로 문양을 낸 것도 있다. 이러한 차이와 문양은 안양 효민둔 M154, 조양 원대자 동진 벽화묘, 본계本溪 소시小市 진묘晉墓에서 출토된 마표에서 대부분 확인되고, 또 신라 천마총天馬塚 시기에도 여전히 유행한 동일 유형에 속한다. 이런 유형은 이 시기 중국 북방, 한반도,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다.

마구의 두 번째 부분은 안구鞍具로, 전후의 안교鞍橋, 천韉, 장니障泥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전후 안교 표면을 장식한 안교금구鞍橋金具(일부 가죽편)뿐이다. 고구려의 안교금구는 만보정 M78, 칠성산 M96, 우산하 M41에서 발견되었고, 일부 무덤에서는 잔편이나 가장자리를 덮은 조각 등만 확인되었다. 외형이 둥근 아치형인 점으로 볼 때, 안양 효민둔 M154, 원대자 동진 벽화묘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양진兩晉 시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안교에 속한다. 신라 천마총과 일본 등지목 고분 출토품도 이 유형이다.

세 번째 부분은 말등자[馬鐙]이다. 이는 마구 발전 역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등자가 등장하면서 말 위에서의 행동이 편리해졌다. 한위漢魏 시기 이전 유적에서는 아직까지 등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기 등자는 본체를 나무로 제작하고 외부를 금속판이나 가죽으로 덮는 형태였고, 등병鐙柄은 긴 편이며 등환鐙環은 둥근 삼각형이나 타원형이다. 발이 닿는 부분의 단면은 상부와 마찬가지로 좁다. 이러한 모습은 고구려 및 고구려 이외 유적의 등자

에서 모두 확인된다.

마구의 네 번째 부분은 흉대胸帶, 추대鞦帶이다. 흉대, 추대에서 흔히 보이는 대식帶飾으로는 행엽杏葉, 난령鑾鈴, 보요활엽대식步搖活葉帶飾이 있다.

행엽은 추대와 흉대에 거는 장식이다. 안양 효민둔 M154, 조양 원대자 동진 벽화묘, 본계 소시 진묘 출토품은 기본적으로 동일 유형이다. 형태는 허리가 잘록한 나뭇잎 모양이거나 규형圭形이다. 이 유형은 집안 고구려 무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와 일본에서는 다수가 확인되었다. 집안 고구려 마구 중 행엽은 모두 도형桃形이다.

난령은 크게 2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원추형에 속은 비었고 내부에 동구銅球가 있으며 상부에 끈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다른 1종은 상부가 뚜껑이고 하부가 몸체이다. 뚜껑은 둥근 모자 형태이고 가장자리를 평평하게 편 것도 있다. 몸체는 원구형이나 원추형이고, 투공되어 있으며 내부에 작은 동구銅球나 석구石球가 있다. 이 유형의 방울은 출토량이 많다. 소량은 흉대에 걸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종횡으로 교차하는 추대에 건다.

보요활엽대식은 끈이 교차하는 곳에 묶은 장식이다. 천마총에서는 수 십 점이 출토되었는데 주로 추대에 사용되었다. 또 추대가 교차하는 십자형 사엽대식四葉帶飾과 하나로 합쳐져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십자형 사엽대식은 추대와 고삐 끝에 흔히 보이는 대식 중 하나로 칠성산 M96에서 32점이 출토되었다. 주로 혁대의 교차 지점을 견고하게 묶어주는 용도이면서 미관까지 고려한 장식이다.

난령은 보요활엽보다 먼저 등장했다. 즉 금속 장식품으로 먼저 난령을 사용하다가 후에 보요활엽대식으로 바뀐 것이다. 흉대의 금속 장식품도 먼저 난령을 사용했고, 후에 보요활엽대식이나 행엽으로 바뀌었다. 보요활엽대식은 모용선비 보요관步搖冠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다.

이상 마구의 양식을 볼 때, 고구려에서 출토된 것은 대부분 중원, 요서遼西 지역에서 먼저 발견되고 그 후에 고구려를 통해 한반도 남부와 일본에 전해졌다. 또한 마구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전파 과정에서 고구려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직접적인 창조자가 되기도 했다. 고구려 마구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은 주로 선비족이었다. 이는 중국의 중원, 북방 지역이 16국 북조北朝 시기였을 당시가 선비족이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선비족은 마구의 발전, 완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술한 안양, 원대자에서 마구가 출토된 무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위진魏晉 시기부터 고구려는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선비와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두 지역의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도 빈번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류 속에서 선비의 마구 공예와 스타일이 고구려에 전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魏存成, 1991, 「高句丽马具的发现与研究」, 『北方文物』4, 18–27.

저 자 위안성远生
연 도 1983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고구려의 금동정혜金銅釘鞋

高句丽的鎏金铜钉鞋

길림성吉林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의 금동신발은 집안 마선구麻線溝에서 출토되었다.

이 금동신발은 무덤에 부장하는 명기로, 다수의 고구려 금동 제품 가운데 금동신발은 이 유물이 유일하다. 비록 명기이기는 하나 고구려 민족은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착용했다. 고대 민족들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몇 가지 물건을 부장하는 매장 풍속이 있었으므로, 못 달린 금동신발 역시 고구려 민족의 생활용품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구려 무덤의 벽화에서도 확인되는데, 집안集安 삼실총三室塚 제2실 서벽 벽화에는 창을 들고 칼을 찬 무사가 못 달린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 있다. 벽화에 따르면 이 신발은 가죽 끈으로 묶은 것처럼 보인다.

못 달린 신발이 고구려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고구려 민족이 거주하던 자연 환경, 기후, 민족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집안 지역은 한온대寒溫帶 지역이고, 고구려인은 산과 계곡이 많은 곳에서 살았으며 산성을 많이 쌓았다. 겨울이면 산은 눈으로 덮여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산을 오르고 내릴 때 못 달린 신발을 신으면 안정되고 또 힘도 덜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못 달린 신발을 신었던 것이다. 그리고 험준하고 높은 산에서 수렵과 전투를 빈번하게 벌일 때 못 달린 신발이 훨씬 더 유리했던 것이다.

금동 재질의 못 달린 신발은 소모성이 매우 큰 생활용품으로 금동 제품이 광범위하게 응용됐던 시기에야 등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금동신발은 이미 1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당시 고구려인들의 금동 기물 제조와 사용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알 수 있고, 고구려 민족의 자연 정복 능력도 엿볼 수 있다.

远生, 1983, 「高句丽的鎏金铜钉鞋」, 『博物馆研究』1, 32.

저 자 자오수친赵书勤
연 도 1998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복원한 금도금 장신구 1점

一件复原的鎏金饰

그 림 1. 금도금 장신구 평면도 (비율 1:1)
2. 금도금 장신구 평 · 측면도 (비율 1:1)

소장 번호 94호의 금도금 장신구 1점은 1962년 4월 18일 집안集安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 상해방묘구上解放墓區의 고구려 시기 무덤(구체적으로 어떤 무덤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에서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9조각으로 깨져 있었다.

이 장신구의 제조 공예는 비교적 단순한 단조 기법이다. 상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질은 청동이며 가공 후에 금으로 도금했다. 상부는 한 덩어리의 금동편을 조각달 모양(세 조각으로 부러져 있다)으로 제작했다. 앞쪽 끝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갔으나 반원형과 삼각형 투공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무늬는 없다. 조각달 모양 금동편 하단은 둥근 삼각형으로 단조했고, 중간에 리벳못으로 하부와 연결, 고정시켰다.

금도금 장신구의 하부는 너비 1㎝의 금동편으로 제작했다. 세로로 3개, 가로로 3개의 리벳못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가로방향의 3개가 세로방향의 3개 윗면에 올라와 있어 전체적으로 길이가 21㎝, 너비는 15㎝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조각달 모양 금동편 하단부 장방형 투공 아래는 둥근 삼각 모양으로 단조되어 있고 중간에 리벳못이 있어 장신구 하부의 가로방향 금동편에 연결, 고정되어 있다. 이 장신구의 상하 두 부분은 평행하지 않다. 즉 상부 조각달 모양이 평면이 되면 하부 장방형 금동편은 입면이 되고, 장방형 금동편이 평면이 되면 상부 조각달 모양 금동편이 입면이 된다.

소장품 가운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금도금 장신구 1점이 더 있다. 소장 번호는 703호로 1964년 8월 4일 장군총將軍塚 외측 남벽 하부 흙 둔덕에서 출토되었다. 『집안현 문물지集安縣文物志』에서는 이를 금동채金銅釵로 명명했다. 전체 형태는 늘어진 갈고리 모양으로 상술한 장신구의 조각달 모양 금동편과 유사하나 갈고리 부분의 굽은 정도가 다르고, 하단이 비스듬하고 뾰족하게 성형되었다. 또 양면 가장자리에는 2줄로 바느질 땀 모양이 장식되어 있다. 이 장

신구도 1점밖에 발견되지 않았고, 하단이 파손된 까닭에 다른 장신구의 장식품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赵书勤, 1998, 「一件复原的鎏金饰」, 『博物馆研究』1, 88–89.

저 자 장쉐옌张雪岩
연 도 1995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집안集安 청동단검 및 관련 문제

集安青铜短剑及相关问题

1978년 4월 집안集安 태평향太平鄉 오도령구문五道嶺溝門에서 청동단검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동단검 1점, 검표劍鏢 1점, 동경 1점, 산형鏟形 철촉 2점, 동모銅矛 3점, 동월형부銅鉞形斧 4점, 동부銅斧 1점 등도 출토되었다. 원 보고서에서는 이 무덤이 심하게 파괴된 정방형 방단계제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로 시간이 오래되면서, 산에서 흘러내린 쇄석이 그 위를 덮었다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은 이를 창석류淌石流라고 부른다. 동북면은 산세를 따라 돌이 쌓여 계단이 없고 서남면은 심하게 파괴되어 3단의 불규칙한 계단이 남아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이 계단은 무덤 위의 쇄석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라고 하였다. 문제는 무덤 형식에 대한 명명에서 발생했다. 한쪽 면에 명확하지 않은 계단 형식을 두고 방단계제적석묘로 명명한 것은 타당하지 않았고, 이는 무덤의 연대를 오인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창석류는 산기슭이나 바위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돌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점점 쌓여간 것을 말한다. 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채석 작업을 하면서 생긴 쇄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적석묘의 가장 이른 형태 중 하나이다. 창석류를 무덤으로 쓸 때 돌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쪽에는 큰 돌을 놓았는데, 이것은 또 가장 이르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계장階墻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창석류식 적석묘는 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하면 대체적으로 고구려 건국 이전 무덤 형식 중 하나이며, 건국 전후 일정 기간까지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원 보고서에서는 이 무덤의 연대를 진한秦漢 시기로 보았다. 그 근거는 출토 유물에 있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발표된 이런 종류의 청동단검은 대부분 곡인검曲刃劍이고, 『고고考古』 1978년 5기에 발표된 「중국 북방 청동단검에 관하여[關于我國北方青銅短劍]」에서는 이런 곡인검을 ⅠA, ⅢB, ⅢC식으로 구분했다.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그중 ⅢC식의 연대가 가장 늦어 전국戰國 중만기로 비정된다. 집안의 청동단검은 검신이 얇고 길며, 인부가 비교적 똑바른 편이고, 근부根部에 호곡弧曲이 없어 ⅢC식 단검이 발전된 형태로 보이며 시기는 전국 만기 혹은 그 이후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볼 때 이 무덤의 하한은 대략 한무제漢武帝가 4군을 설치한 이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동기는 지방 특색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백두산 서쪽의 혼강渾江, 압록강鴨綠江 유역 일대 유물에서 모두 발견되는 특징이고, 또 여러 동범銅范이 출토된 점은 이 동기가 현지에서 생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검이나 검표의 제작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고구려 건국 이전 동기 제작 공예가 최고에 달했던 시기의 작품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물이 대부분 무기이고 생활용구가 적어, 동기 생산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나라의 선진 철기 생산기술이 들어와 이를 대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도령구문 무덤의 연대 하한이 바로 이 시기, 즉 무제가 4군을 설치한 이후인 대략 기원전 1세기 초라고 생각된다.

张雪岩, 1995, 「集安青铜短剑及相关问题」, 『博物馆研究』1, 32–36.

저 자 장쉐옌张雪岩
집안시 박물관

연 도 2004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2집
『边疆考古研究』2辑

집안集安 출토 고구려 금속 대식帶飾의 유형 및 관련 문제

集安出土高句丽金属带饰的类型及相关问题

주 제 어 고구려
대식
유형
공예

표 1. 진식 대환 발견 지점

고구려 도성 집안集安에서는 다수의 금속기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마구馬具에 집중되었고 대식帶飾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집안에서 출토된 대구帶扣는 다수가 금으로 도금한 것이고, 소량의 동, 철제품도 있다. 철제 대구는 앞쪽 끝이 약간 둥글고 뒤쪽은 평평한 직선이며 비고정식 걸쇠를 걸었다. 금도금한 대구는 비교적 큰 편으로 방형이거나 장방형 그리고 앞쪽 반은 원형에 뒤쪽은 평평한 직선인 것으로 나뉘고 비고정식 걸쇠가 있는 것도 있고 걸쇠가 없는 것도 있다.

금으로 도금한 대구는 총 7식으로 구분된다. 고구려는 동제 대구의 출토 수량이 적은 편이고 철제 대구가 많은 편이다. 모두 6식으로 구분된다. 대과帶銙는 다수가 금동 제품이고, 6식으로 구분된다. 사미鉈尾는 8식으로 구분된다. 금으로 도금한 기물은 대략 3~4세기에 고구려에 유입되었다.

서진西晉은 초기에 민생에 주의했고, 북방의 농업 생산 발전에 힘썼다. 또한 학교를 세우는 등 중원 지역 선진 문화의 전파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 도금 기술 역시 이 시기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서진이 팔왕의 난으로 혼란해지면서 중원 지역의 일부 유민들이 동북 지역으로 이주했고, 그 속에 도금 기술자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동북 지역 선비족鮮卑族과 고구려족의 도금 기술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 고구려는 또한 삼연三燕 지역의 도금 기술도 받아들였다.

张雪岩, 2004, 「集安出土高句丽金属带饰的类型及相关问题」, 『边疆考古研究』2辑, 1–9.

저 자 정춘잉郑春颖
장춘사범대학 동북아연구소

연 도 2013
간행물명 『동북사지』5
『东北史地』5

고구려의 정혜釘鞋

高句丽的钉鞋

주 제 어 고구려
철정혜
금동정혜

지원사업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 청년기금 항목(11YJC780006)
길림성 사회과학기금 항목(2012B289)
길림성 교육청 '십이오十二五' 사회과학연구 항목(길교과문합자吉教科文合字[2012]제533호)
장춘사범학원 인문사회과학기금 항목(장사원사과합자長師院社科合字[2010]정政17호)

정혜釘鞋는 바닥에 못이 달린 신발이다. 최근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 마선구묘구麻線溝墓區, 우산묘구禹山墓區, 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 환도산성丸都山城 등지에서 못이 달린 신발이 일부 발견되었다. 이 신발은 주로 철제와 금동제 2종으로 나뉜다.

철제 정혜는 말굽 편자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답면踏面과 못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제 정혜는 '귀족 혹은 장군들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출토 지점을 근거로 보면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5점은 궁성벽, 배수 시설, 건축물 기단, 건물지, 문지, 중심 광장 및 궁전 부속 시설이 있는 대형 궁전지에서 발견되었다. 만보정묘구萬寶汀墓區 M151 역시 일반 평민의 무덤은 아니다.

고구려는 영토 내에 산이 많고, 겨울이 추워 눈과 얼음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일반 사병과 평민들도 이를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형식이 더 간단하고 재료의 질도 나쁘며 가공 기술 수준이 떨어져 지금까지 보존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단순히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금동정혜는 신발 바닥과 못만 발견되었다. 바닥면 가장자리는 대부분 위쪽으로 꺾여있고 일부는 신발 끝부분이 위로 솟아 있으며, 가장자리 사방으로 대부분 원형 혹은 장방형의 구멍이 있다. 이 구멍에 대해 발굴자들은 대부분 신발의 상부와 끈으로 연결하여 봉합하는 용도로 보고 있고, 상부의 재질은 천, 가죽이거나 동일 재질의 금속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천으로 본다면 금동정혜는 신발 바닥만 금속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바닥면의 구멍을 보면 금속 재질의 상부와 작은 리벳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이고, 백제나 신라, 일본 등지에서 신발 바닥면과 상부 전체가 금동으로 제작된 신발이 발견된 점을 고려했을 때, 상술했던 금동정혜 역시 전체가 금속으로 제작

그 림 1. 철정혜
2. 금동정혜
3. 신발 못, 정혜를 신은 인물상

된 신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금동정혜는 제작 기술이 뛰어나고 유물이 출토된 고분 역시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착용 혹은 소유한 자의 신분이 철제 정혜를 착용했던 사람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신발이 실제 사용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명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는 고구려의 금동정혜가 최소 두 종류였을 것으로 본다. 하나는 전체가 금속으로 제작된 금동정혜로 전문적으로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제작한 명기이고, 다른 하나는 왕족이나 상층 귀족이 실제 사용했던 신발이다.

시간상으로 볼 때, 고구려의 금동정혜는 대부분 5세기 전후의 규모가 큰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신발 전체가 금동으로 제작된 정혜가 출토된 무령왕릉武寧王陵은 525년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금동신발이 출토된 일본의 고분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 혹은 6세기 중엽이나 중후반에 조성되었다. 가공 기술의 측면에서도 백제, 신라, 가야, 일본의 금동신발이 확실히 고구려의 금동신발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점을 볼 때, 금동신발의 전파 경로는 고구려에서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郑春颖, 2013,「高句丽的钉鞋」,『东北史地』5, 26–30.

저 자 판리范犁
연 도 1997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고구려 선조는 청동기 시대를 거쳤다

高句丽先人经历过铜器时代

고구려의 원시 문화는 중원 및 북방 각 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발전 속도는 중원보다 많이 늦는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원시 문화 유적의 대부분은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 혼강渾江, 압록강鴨綠江 중류 일대에서 청동단검과 함께 출토되는 청동기 유물은 현지의 고구려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고구려 5개 원시 부족의 활동 지역과도 일치하고 있다.

고구려에서 생산한 청동기는 대부분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초창기의 질 나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동일 기종이 고구려인의 활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요동遼東, 길림吉林, 한반도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고구려의 청동 제조가 중원과 북방 민족의 영향 하에 등장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시기 삼진三晉과 연燕나라 주변 사람들의 도래로 북방의 청동기 제조 및 기타 산업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구려인은 인접한 기타 민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청동기 제조업을 발전시켰고, 북방의 특징을 보이는 청동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중 일부 기종에는 중원 문화의 특징도 남아있었다.

고구려 선조들의 청동기는 주로 월鉞과 모矛가 많고 경鏡, 검劍, 부斧가 그 다음으로, 무기가 대부분이며 생산, 생활 도구는 적다. 고구려 선조들의 경제 유형은 농업과 어업, 수렵을 겸했는데, 청동 농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청동기가 귀중한 금속이라 먼저 군사와 수렵에 사용되었고 농업 생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까닭일 것이다. 동광의 채굴이 주변에 널린 석재의 이용보다는 힘들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건국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여전히 석제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다. 비록 청동기를 제조, 생산할 수 있었지만 다량의 석기를 사용한 것은 고구려인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다.

고구려인의 청동 제조업은 사회의 진보에 따라 느리지만 그래도 부단히

발전했다. 그러나 한漢의 제철 기술과 철기가 전래되면서 청동 제조는 급속히 도태되고 그 자리는 철기로 대체되었다.

진秦나라 말기 농민전쟁 과정에 옛 연燕, 조趙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漢人들이 대규모로 동북으로 이주하면서 선진 제철 기술과 철기가 동북에 전해지고, 이는 동북 지역 소수민족의 생산 도구 변혁에 촉진제가 된다. 한무제漢武帝 시기 4군이 동북 지역에 설치되면서 고구려와 한나라 정권의 교류는 더욱 증대되었고 한나라의 철기 및 제조 기술도 고구려에 전래되었다.

집안에서는 한대漢代 철화鐵鏵, 삼각형 철리鐵犁, 철삽鐵鍤, 철곽鐵钁, 철겸鐵鎌 등 생산 도구가 수차례 출토되었고, 환인桓仁에서도 한대 철곽, 철겸 등이 여러 차례 출토되었다. 통화通化, 유하柳河, 관전寬甸 등지에서도 상당 수량의 한대 철기가 확인되었다.

철제 공구는 점차 여러 영역에서 청동기를 대체했고, 고구려인의 청동기 시대는 충분한 발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철기 시대로 대체된다. 그리고 한대의 선진 경제 문화에 포위된 가운데 고구려족과 부여족의 정치, 경제가 결합하면서 기원전 37년 고구려 국가가 건립된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다량의 철기를 사용한다. 그중에는 농업, 수공업, 어업, 수렵, 생활, 전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철기가 두루 포함되어 있다. 많은 수량과 종류, 그리고 독특한 스타일의 철촉 등은 고구려인이 직접 각종 철기를 생산하여 전쟁, 생산, 생활의 수요를 충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건국 이전, 기원전 1세기에 고구려인의 청동기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고 말할 수 있겠다.

范犁, 1997, 「高句丽先人经历过铜器时代」, 『博物馆研究』2, 67–72.

안악 3호묘 벽화(부엌, 푸줏간) ⓒ김광섭

03 기와류

경테화	고구려 문물 유적의 4가지 문제	128-130
경테화	집안集安에서 새로 출토된 문자 와당 및 해석	131-133
리뎬푸	집안集安 권운문卷雲紋 명문 와당 고증	134-135
린즈더 · 경테화	집안集安 출토 고구려 와당 및 그 연대	136-138
옌창루 · 양짜이린	연변延邊 지역 고구려–발해 시기 암키와 문양 첫 검토	139-140
왕페이펑	한당漢唐 시기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인면문人面紋 기와를 중심으로	141-142
장춘옌 · 리잉루이	고구려 와당 연화문蓮花紋의 구성 연구	143-144
장푸유	집안集安 우산禹山 3319호묘 권운문卷雲紋 와당 명문 고증과 초보 연구	145-146

저 자 경톄화耿铁华
연 도 1989
간행물명 『문물춘추』4
『文物春秋』4

고구려 문물 유적의 4가지 문제

高句丽文物古迹四题

그 림
1. 호태왕릉 출토 명문전
2. 태왕릉 외형 실측도
3. 태왕릉 석실 실측도
(출전: 『통구』권상 도2, 3)
4. 태왕릉 묘실 북벽
5. 태왕릉 묘실 남벽 도굴 구멍
6. 장군총 배장묘
7. 장군총 묘역도
(출전: 『통구』권상 도18)
8. 금동정혜
9. 금동정혜
10~14. 금동정혜
15. 무술년 기년명 와당
16. 기축년 기년명 와당

집안集安은 고구려의 고도로 호태왕비好太王碑, 고분 벽화 및 다량의 진귀한 고구려 문물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한 일부 연구 내용에 오류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첫째는 태왕릉太王陵의 방향이다. 태왕릉의 방향과 관련하여, 1936년 일본의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등은 실측 후 도면을 작성하며 능의 기초는 방형이고 정방향이라고 기록했다. 훗날 묘실 도굴자가 남벽을 파고 들어간 것을 보고, 입구 쪽이 묘도라 생각했고, '정방향'을 남향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묘실 내부에 퇴적된 흙이 너무 두꺼웠고, 도굴 구멍에 쌓은 돌이 너무 정연하여 사람들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태왕릉의 방향을 180°(정남) 방향, 혹은 남에서 동쪽으로 7° 틀어져 있다고 오해했다. 1985년 일본 동경대학의 미카미 쓰기오三上次男는 태왕릉을 참관하고 현재의 입구는 묘도가 아니라 묘실 남벽이고 원래 묘도는 서쪽이라고 밝혔다. 그 뒤 이케우치의 『통구通溝』에 실린 실측도를 재검토한 결과, 이케우치가 기록한 '정방향'이 정서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측도 상의 방향에 근거하면 265°로 확인되었다. 그 뒤 필자는 재차 태왕릉 묘실을 실측했다.

둘째는 장군총將軍塚의 배장묘이다. 장군총은 그 뒤쪽 50m 지점에 원래 배장묘가 1열로 늘어서 있었으나 현재는 동남쪽에 1기만 남아있다. 배장묘 숫자에 대해서는 5기라는 주장과 4기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통구』에 남아있는 이케우치의 실측도에 근거하면 장군총 배장묘는 원래 4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고구려왕 혹은 귀족 무덤에 배장묘가 4기인 사례도 이미 발견되었다. 그리고 1986년 장군총의 원 배장묘의 기초 라인에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정리할 때, 제3배장묘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석재 및 양쪽으로 뒤집힌 쇄석이 발견되었다. 이는 당시의 배장묘가 파괴된 흔적이 분명했다. 이상 자료에

근거하면 장군총에는 원래 4기의 배장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셋째는 금동정혜金銅釘鞋이다. 금동정혜는 현재까지 최소 7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집안시 동구고분군洞溝古墳群에서 출토되었다. 형태는 7점이 모두 대동소이하다. 완형의 5점은 각각 1959년 마선구묘구麻線溝墓區, 1959년 승리촌勝利村 북쪽 우산하묘구禹山下墓區, 1960년 마선저장麻線猪場 부근 고분, 1983년 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 M1223, 1986년 우산묘구禹山墓區 M3109에서 출토되었다. 금동정혜는 모두 묘실 내 사자의 발아래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동구洞溝 12호묘, 삼실총三室塚, 장천長川 2호묘 벽화에도 금동정혜를 신은 모습이 있다. 벽화 속 정혜와 실물 정혜는 모양이 동일하고, 일반 사병들이 착용하는 앞뒤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집안시 박물관에 정혜가 소장되어 있다. 금동정혜가 출토된 무덤의 형식, 벽화묘의 연대를 근거로 하면 이 금동정혜는 대략 4~5세기에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무술戊戌'년 기년명 와당이다. 필자는 1984년 동구고분군 JYM992에서 2점의 와당 잔편을 수습했다. 문양은 권운문卷雲紋이고 내부에 양각으로 문자가 있는데, 1점은 '무술년조와戊戌年造瓦'이고 다른 1점은 '기축己丑조와□□팔己丑造瓦□□八'이다. 1949년 이전 집안에서는 '태泰'자 와당이 발견되었는데 가장자리에 '세□술년조와계기歲□戌年造瓦啓記'라는 명문이 있다. 이는 현재 요령성遼寧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의 다무라 고이치田村晃一는 이를 위병사僞兵舍, (현 이수원자남梨樹園子南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1979년 12월 JYM992에서는 또 와당 잔편 3점이 확인되었는데, 문자는 각각 '세歲', '술戌', '년조年造'였다. 이 3점은 집안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초 요령성 박물관 소장 와당의 불명 문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새로 발견된 '무술년조와' 명문 와당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이 와당 잔편은 요령성 박물관 및 집안시 박물관에 소장된 '□술□戌'명 와당과 형식, 문양, 서체가 같은, 동일한 종류의 와당에 속한다. 이 3점을 종합해 보면, 이 와당은 중간의 원형 유돌에 양각으로 '태泰'자가 있고, 가장자리의 문자는 '세무술년조와계기歲戊戌年造瓦啓記'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와당은 집안에서 출토된 '태녕사년太寧四年'명 와당과 매우 유사하여 제작 연대 역시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술'명 와당의 연대는 동진東晉 성제成帝 함강咸康 4년(무술년, 338)일 것으로 판단된다.

집안에서 출토된 이런 명문 와당은 대부분 왕릉 위 건축물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1979년과 1984년에 출토된 두 '무술'명 와당 잔편은 모두 대형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인 JYM992에서 발견되었다. 요령성 박물관 소장 와당은 출토 시기가 빠르고, '위병사'에서 출토되었다. 이곳이 원래 고구려 시기의 건축물 유적이기는 하지만, 보통 무덤에 쓰는 기와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는 건축물에 쓰는 기와는 절대 혼용할 수 없다. 필자는 요령성 박물관 소장 '무

술'명 와당의 출토지에 착오가 있었거나, 혹은 이곳에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남겨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나, 어떤 결론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다.

JYM992에서는 '기축己丑'명 와당도 출토되었는데, 기축년은 동진 성제 함화咸和 4년(329)일 것이다. 이는 동일 무덤 상부의 건축물에 한 종류의 기와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같은 해에 제작된 것만 사용한 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耿铁华, 1989, 「高句丽文物古迹四题」, 『文物春秋』4, 47–52.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소

연 도 2006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집안集安에서 새로 출토된 문자 와당 및 해석

集安新出土文字瓦当及释读

주 제 어 집안
문자 와당
해석

2004년 6월 문물출판사에서 출판한 『국내성國內城』, 『집안고구려왕릉集安高句麗王陵』 등 보고서에는 권운문卷雲紋 문자 와당 몇 점이 소개되었다.

'대길大吉'명 와당은 2001년 집안시集安市 제2소학교 확장 공사 현장에서 출토되었다. 정면 중앙에 반구형 유돌문乳突紋이 있고 그 위에 '대길'로 보이는 양각 문자가 있다. 이 와당에서는 또 '대세□□년조와구大歲□□年造瓦九'라는 명문도 확인되었다. 또 다른 1점은 절반만 남아있다.

'태泰'자 와당은 2003년 집안시 체육장 발굴 현장에서 출토되었고, 형식이 '대길' 와당과 동일하다. 가장자리에 반대 방향으로 '□□년조와고기세□□年造瓦故記歲'라는 양각 명문이 확인되었다. 2003년 우산묘구禹山墓區 992호묘에서는 짙은 회색의 권운문 문자 와당 24점이 출토되었다. 원 보고서에서는 이를 A, B형으로 구분했고, 그중 A형 '태'자 와당은 모두 23점이다.

'대大'자 와당은 2003년 집안 서대총西大塚에서 출토되었는데, 중앙 유돌 위에 '대'자가 있다. 가장자리에는 또 '□세재□□년조□□歲在□□年造□'라는 문자도 있다.

'기己'자 와당은 2003년 집안 서대총에서 출토되었으며, 중앙 유돌에 '기'자로 보이는 명문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기축년□□우리己丑年□□于利'라는 문자가 있다.

그 외에 우산禹山 992호묘에서 출토된 B형 와당에는 잔존 부분에서 '축丑'자만 확인되었는데, 이는 원래 '기축己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길'명 와당은 집안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문자 와당이다. 이 와당은 유돌 부분의 '대길'이 중심이 된다. 원 보고서에서는 가장자리의 글자를 오른쪽 상부에서 시계방향으로 '대세□□년조와구'로 보았다. 여기서 '대세□□大歲□□'는 정상 형태이고 '년조와구年造瓦九'는 뒤집어져 있다. 그러나 '년年'자의

그 림 1. 1) '대길' 와당
2) '태'자 와당
3) '대'자 와당
4) '길'자 와당
2. 1) '태'자 와당
3. 1) '월조기' 와당
2) '대길' 와당
3) '태'자 와당
4) '태'자 와당
5) '이작' 와당
6) '기축' 와당

잔존 부분 우측은 '작作'자의 우측 부분처럼 보인다. 와당 탁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와당은 '대길'을 중심으로 우측과 좌측을 각각 '태세갑술太歲甲戌', '구월조작九月造作'으로 확인된다. 연속해서 읽으면 '태세갑술구월조작太歲甲戌, 九月造作'인 것이다. 그중 간지 '술戌'은 명확하나 '갑甲'의 잔존 부분은 '전田'처럼 보인다. '조작造作'은 각각 우측의 반만 남아있다. '구월九月'의 '월月'자는 '와瓦'자와 매우 유사하다. 1963년 국내성 남쪽에서 권운문 와당 1점이 출토되었는데 잔존 문자가 '월조기月造記'였다. 1987년 국내성 남문에서는 '태세□신사월조작太歲□申四月造作'이 가장자리에 있는 와당이 출토되었다. 이상은 '구월조작九月造作'으로 볼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이 와당은 형식, 문양에 근거하면 4세기 조기로 보이고, 갑술년甲戌年은 314년, 고구려 미천왕美川王 15년에 해당한다.

'태'자 와당은 이전에도 발견된 사례가 많았다. 2003년 국내성 체육장 발굴 현장 출토 '태'자 와당과 우산묘구 992호묘에서 출토된 23점의 '태'자 와당은 모두 동일 유형의 권운문 문자 와당이다. 원 보고서에서는 가장자리 문자를 '□□년조와고기세', '무술년조와고기세戊戌年造瓦故記歲'라고 판독했다. 그러나 여기서 '세歲'는 '태세太歲'의 의미로 기년 앞에 와야 하고, '고故'는 '계啟'로 보는 것이 맞다. '계'는 원래 열다, 인도하다, 개척하다, 그리고 진술, 기록하다의 뜻에 공경의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와당의 문자는 '세무술년조와계기歲戊戌年造瓦啟記'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무술년戊戌年은 338년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 8년에 해당한다.

'대'자 와당은 서대총에서 출토되었다. 집안 지역 최초의 발견인데, 원 보고서에서는 유돌 상의 문자를 '대大'로 보았고, 가장자리는 '□세□□년조□□歲□□年造□'로 파악하였다. 원 탁본을 살펴보면, 중앙의 '대'자 우상방 첫째 글자는 '세歲'이고 좌상방 두 번째 자는 '재在'이며 네 번째 글자는 '조造'이다. 중심선 상부에서 양쪽으로 읽어나가면 즉, '세□□년□재□조歲□□年□在□造'가 된다. 그중 '세歲' 다음의 글자는 '무자戊子'로 추정되고, '재在' 다음의 글자는 '모牟'로 추정된다. 만약 무자년戊子年이면 328년, 미천왕 29년에 해당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모용황慕容皝이 미천왕묘를 파헤쳤다는 기록이 있다. 서대총의 현재 상태 및 방위는 미천왕릉의 조건에 부합한다. 와당의 기년은 미천왕 29년에 제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서대총이 미천왕릉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게다가 문자 가운데 '재모在牟'라는 인명이 나오는데, 미천왕은 동촌東村 사람 재모再牟와 소금을 팔았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재在'와 '재再'는 음이 같다. 이것은 일찍이 미천왕과 함께 소금을 판 그 '재모再牟'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천왕이 즉위한 후 함께 소금을 팔았던 재모가 그를 위해 기와를 제작했다는 것은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이다.

'기'자 와당은 원 보고서에서는 유돌 상부 문자를 '기'로 보았으나 자세히 관찰한 결과 '길吉'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길'자 와당이라 불러야

하다. '대'자 와당과 같은 무덤에서 출토되어, 이를 합쳐 '대길'로 보면 고구려 문자 와당의 중심 유돌 상부의 길상어吉祥語 규칙과 부합한다. 서대총 서쪽 계단석階壇石에서도 '대길'이라는 글자가 발견된 바 있다. 원 보고서에서는 가장자리의 글자를 '기축년□□우리작己丑年□□于利作'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와당의 문자는 상술한 기타 와당의 판독 순서에 맞추어 판독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기년에서 시작하여 판독한다면 '기축년우리황작와己丑年于利皝作瓦'로 보는 것이 비교적 말이 된다. '우리于利'는 인명이고 '황작皝作'의 '황皝'자는 중국어 발음이 'Yi' 즉, 이頤자이다. 이는 영원한 세월이라는 뜻이 있다. 1957년 집안 승리촌勝利村 소방대 부근에서 '황작皝作'명 권운문 와당 잔편이 발견된 일이 있고, 1971년 가을, 마선麻線 중학 부근에서는 '기축'명 와당 다수가 발견되었는데 역시 문자나 문양이 동일하다. 기축년己丑年은 329년 미천왕 30년에 해당한다.

이상 '대'자 와당과 '길'자 와당은 모두 서대총에서 출토되었고, 기년은 무자, 기축 즉 328~329년, 미천왕 29~30년에 해당한다. 미천왕의 재위 기간은 32년이니 이 두 문자 와당은 그 만년에 제작된 것이다. 와당 제작을 담당한 사람은 재모와 우리이다. 이상의 자료는 고구려 왕릉의 연대, 묘주 그리고 관련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耿铁华, 2006, 「集安新出土文字瓦当及释读」, 『北方文物』4, 28-31.

저 자 리뎬푸李殿福
연 도 1984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4
『社会科学战线』4

집안集安 권운문卷雲紋 명문 와당 고증

集安卷云纹铭文瓦当考辨

그 림 1. 권운문 와당 탁본편
2. 반호
3. 화상석각
4. 백옥이배
5. 금동 화살촉
6. 고구려 와당
7. 권운문 와당
1)~3) 한대 권운문 와당
4) 진대 권운문 명문 와당

표 1. 권운문 와당 통계표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의 흑회색 권운문卷雲紋 명문 와당은 1949년 이전에 발견된 2점과 그 이후 발견된 8점 등 총 10점으로 문양, 형식, 명문의 위치에 따라 총 5식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Ⅰ식의 '세□술년조와계기歲□戌年造瓦攺記' 명문 와당은 원래 '세무술년조와계기歲戊戌年造瓦啓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년이 가장 확실한 와당은 '태녕 4년太寧四年'명 와당이다. 역대로 '태녕'의 기년을 사용한 경우는, 동진東晉 명제明帝 시기 3년(323~325), 후조後趙 석호石虎 시기 1년(349), 그리고 북제北齊 무제武帝 시기 1년(516)이 있다. 그중 동진 명제 3년에는 8월이 윤달이며 6일이 또 기사己巳로 와당의 명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태녕 4년'은 '태녕 3년'의 오기로 판단되며 이 해는 325년으로 고구려 제15대 미천왕(미천왕26년)에 해당한다. Ⅰ식의 '세□□년□월조기歲□□年□月造記' 명문 와당은 '태녕 3년'명 와당과 함께 출토되어, 그 연대 역시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Ⅲ식 2점은 3319호 무덤 부근에서 출토되었고 형식이 동일하여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형식이 '태녕 3년'명 와당과 유사하여 역시 동진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에는 '정사丁巳' 기년이 나오는데 진晉과 동진 시기에 기년이 '정사'인 해는 진 혜제惠帝 원강元康 7년(297), 진 목제穆帝 승평昇平 원년(357), 진 안제安帝 의희義熙 13년(417) 등이 있다. 이 와당의 제작 시기는 그 가운데 357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명문이 '세무술년조와계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Ⅰ식 '세□술년조와계기' 명문 와당의 무술년戊戌年은, 진과 동진 시기의 경우 진 무제武帝 함녕咸寧 4년(278), 진 성제成帝 함강咸康 4년(338), 진 안제 융안隆安 2년(398)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와당의 형식과 문양이 '태녕 3년'명 와당과 함께 출토된 '세□□

년□월조기'명 와당과 동일하다. 따라서 태녕 3년이 325년이므로 필자는 이에 가장 가까운 338년이 이 와당의 제작 시기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338년은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 8년에 해당한다.

Ⅱ식 '십곡민조十谷民造'명 와당은 Ⅰ식 '세□술년조와계기'명 와당과 함께 출토되었다. 따라서 두 와당의 제작 시기는 비슷하거나 동일 시기였을 것이다.

이상 5종 권운문 와당의 편년은 Ⅳ식 태녕 연호의 와당이 가장 이르고(325), Ⅰ식과 Ⅱ식, Ⅴ식이 그 다음이며(338), Ⅲ식이 가장 늦다(357). 또 문양은 간략한 것에서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흑회색 권운문 명문 와당에는 모두 고구려왕의 연호를 쓰지 않고 중원 왕조의 연호와 한족漢族이 사용하는 기년을 사용했다. 또한 문양과 형식 역시 전통 고구려 와당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기존에 발견된 고구려 와당에 사용된 문양은 다수가 연판문蓮瓣紋, 인동문忍冬紋, 수면문獸面紋 등이고 권운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연판문, 인동문, 수면문 와당은 모두 홍색이며 소성 온도 역시 흑회색 권운문 명문 와당보다 낮고, 단단하지도 않다. 물론 장군총將軍塚 등의 무덤에서 회색 연판문 와당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다수가 옅은 회색으로 권운문 명문 와당의 흑회색과는 다르다. 또한 연판문, 인동문, 수면문 홍색 와당은 가장자리가 높게 올라와 와당 정면보다 높으나 흑회색 권운문 명문 와당은 가장자리와 와당 정면의 높이가 동일하다. 이는 중원 지역 와당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문양의 선이 가늘고 배치가 풍성하며 대칭을 중시하는 문양 역시 중원 와당의 특징이다.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이러한 권운문 명문 와당은 위진魏晉 시기 중원의 권운문 와당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와당은 고구려의 국내성에서 생활한 한족 와공이 제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李殿福, 1984, 「集安卷云纹铭文瓦当考辨」, 『社会科学战线』4, 67–75.

저 자 린즈더林至德
경톄화耿铁华
연 도 1985
간행물명 『고고』7
『考古』7

집안集安 출토 고구려 와당 및 그 연대

集安出土的高句丽瓦当及其年代

그 림
1. 와당 탁본
   1) '태녕사년' 와당
   2) '태'자 와당
   3) '십곡민조' 와당
   4) '정사' 와당
   5) '정사' 와당
   6) '기축' 와당
   7) '이작' 와당
   8) 권운문 와당
   9) '월조기' 와당
   10) Ⅰ식 연화문 와당
   11) Ⅳ식 연화문 와당
2. 와당
   1) '태녕사년' 와당
   2) '태'자 와당
   3) '이작' 와당
   4) '기축' 와당
   5) 권운문 와당
   6) Ⅰ식 연화문 와당
   7) Ⅲ식 연화문 와당
   8) Ⅱ식 연화문 와당
   9) Ⅴ식 연화문 와당
   10) Ⅵ식 연화문 와당
   11) Ⅵ식 연화문 와당
3. 와당
   1) Ⅶ식 연화문 와당
   2) Ⅶ식 연화문 와당
   3) Ⅶ식 연화문 와당
   4) Ⅷ식 연화문 와당
   5) Ⅷ식 연화문 와당
   6) Ⅸ식 연화문 와당
   7) Ⅸ식 연화문 와당
   8) Ⅹ식 연화문 와당
   9) Ⅺ식 연화문 와당
   10) Ⅰ식 수면문 와당
   11) Ⅱ식 수면문 와당

집안集安 지역 출토 고구려 명문 와당은 총 7종 10점이다. 모두 흑회색으로 소성 온도가 높은 편이며 권운문卷雲紋이 시문되었는데 문양의 형태가 유사하여 제작 연대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태녕 4년太寧四年' 와당이 2점, '태泰'자 와당이 2점, '정사丁巳' 와당이 2점, '십곡민조十谷民造' 와당 1점, '기축己丑' 와당 1점, '이작頣作' 와당 1점, '월조기月造記' 와당 1점 등이 있다. 이 문자 와당의 연대는 대체적으로 진晉 민제愍帝 건흥建興 2년(314)에서 진 목제穆帝 승평昇平 원년(357) 사이로 보인다.

연화문蓮花紋 와당은 고구려 와당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고, 양식도 다양하여 총 11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팔판八瓣 연화문으로 흑회색이고 장군총將軍塚 출토 와당이 가장 많다. 연대는 5세기 전반이다. Ⅱ식은 육판六瓣 연화문으로 흑회색이고, 태왕릉太王陵에서 1점이 발견되었다. 연대 하한은 412년이다. Ⅲ식도 육판 연화문으로 흑회색이고 천추총千秋塚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연대는 5세기이다. Ⅳ식은 팔판 연화문이고 흑회색으로 장군총의 와당과 동일하나 크기만 작다. 장천長川 2호묘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연대는 5세기 말이다. Ⅴ식은 감꼭지 모양의 연화문와당으로 홍색이며, 환도산성丸都山城 내 궁전 유구와 동대자東臺子 유적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Ⅵ식은 구판九瓣 연화문으로 홍색이고, 동대자 유적, 이수원자남梨樹園子南 유적, 국내성國內城 부근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Ⅶ식은 팔판 연화문에 홍색이고, 동대자 유적, 이수원자남 유적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Ⅷ식은 큰 팔판 연화문에 홍색이고 이수원자남 유적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Ⅸ식은 육판에 방사상의 경계선이 있는 연화문 와당이다. 수량은 많지 않으며, 완형에 가까운 2점은 모두 회색이다. 국내성 북벽 외측에서 1점, 이수원자남 유적에서 1점이 발견되었다. Ⅹ식은 육판 연화문으로 홍색이고 이수원

4. 와당
1) Ⅲ식 수면문 와당
2) Ⅳ식 수면문 와당
3) Ⅰ식 인동문 와당
4) Ⅱ식 인동문 와당
5) Ⅲ식 인동문 와당
6) Ⅳ식 인동문 와당

자남 유적, 교구향郊區鄕 승리촌勝利村 일대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XI식은 입연판문立蓮瓣紋 와당으로 홍색 니질도이고 수량도 많다. 동대자 유적에서도 1점이 출토되었다. Ⅴ, Ⅵ, Ⅶ, XI식의 연대는 392년 전후이고, Ⅷ, Ⅹ식은 5세기 초이며 Ⅸ식은 조금 더 늦을 것이다. 연화문 와당의 제작과 사용 연대는 대략 4세기 말에서 5세기 말까지로 이 시기는 고구려 왕조의 정치,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수면문獸面紋 와당은 4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치아가 13개인 대수면문大獸面紋 와당으로 동대자 유적에서 수습되었다. 수량은 많지 않다. Ⅱ식은 치아가 12개인 수면문 와당으로 동대자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수량은 역시 많지 않다. Ⅲ식은 치아 12개에 혀가 있는 수면문 와당으로 수량이 상당히 많으며 동대자 유적에서도 일부 출토되었다. Ⅳ식은 치아가 10개에 혀가 있는 수면문 와당이다. 역시 수량이 많다.

인동문忍冬紋 와당도 4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얕은 부조의 인동문 와당으로 수량이 많지 않다. Ⅱ식은 선이 가는 인동문 와당으로 수량이 많다. Ⅲ식은 선의 굵기가 중간 정도인 인동문 와당으로 역시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Ⅳ식은 선이 굵은 인동문 와당이다. 출토 수량은 많은 편이다.

수면문 와당과 인동문 와당의 제작 연대는 비슷하다. Ⅰ, Ⅱ, Ⅲ, Ⅳ식 수면문 와당과 Ⅰ, Ⅲ, Ⅳ식 인동문 와당은 동대자 유적에서 다량 출토되어 그 연대가 대략 392년 전후로 보인다. Ⅱ, Ⅲ식 수면문 와당과 Ⅳ식 인동문 와당은 제작 상태가 조잡하여 시기적으로 약간 더 이를 것으로 보이며, 그중 Ⅱ식 인동문 와당은 국내성 내에서 출토되었고, 도안과 제작 공예가 정교하여 시기적으로 약간 더 늦은 5세기 초로 보인다.

5세기 전반기에는 오직 능묘 건축에만 쓰이는 와당이 출현하는데, 태왕릉, 장군총, 천추총, 장천 2호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왕릉이고, 귀족 무덤도 있다. 능묘 형태는 높고, 큰 방단계제석실묘方壇階梯石室墓 또는 봉토석실벽화묘封土石室壁畫墓이다. 와당의 색은 흑회색이고, 문양이 깔끔하며 위엄이 있다. 도안은 정교하고 아름답다. 게다가 소성온도도 높고, 기술이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이 종류의 와당은 전부 명문이 없는데, 동시기 능묘 건축에 사용된 전塼의 측면에서는 명문이 발견된다.

고구려에서 기와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부터이다. 당시에는 권운문 와당과 문자 와당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4세기 말이 되면 고구려 특유의 와당이 등장한다. 주요 문양은 연화문, 인동문, 수면문이다. 명문 와당을 근거로 보면 고구려에는 관영과 사영 기와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토 지점을 근거로 도성 내 왕실 건축, 교외의 관청이나 왕공王公 귀족의 저택 그리고 대형 고분

으로 사용처가 구분되며 일반 민가에서는 기와를 쓸 수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기와 사용에 매우 엄격한 등급의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林至德 · 耿铁华, 1985, 「集安出土的高句丽瓦当及其年代」, 『考古』7, 644-653.

저 자 옌창루严长录
양짜이린杨再林
연 도 1988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연변延邊 지역 고구려–발해 시기 암키와 문양 첫 검토

延边地区高句丽—渤海时期纹饰板瓦初探

연변延邊 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와 발해 시기 고성지, 사찰지 및 기타 유적과 고분에서는 문양이 있는 암키와가 다수 발견되었다.

문양은 주로 배면과 와연에 나타난다. 배면의 주요 문양은 그물 문양[網紋], 석문席紋, 승문繩紋이고, 그 외에 남문籃紋, 능형회자문菱形回字紋, 조합문組合紋 등도 있다. 와연에는 주로 압인파랑문壓印波浪紋(지압문指壓紋으로도 부른다), 압인거치문壓印鋸齒紋과 연권즐치문連圈櫛齒紋(권선문圈線紋, 필관문筆管紋, 공작문孔雀紋이라고도 부른다)이 있다. 연권즐치문은 원 안의 문양이 '十'자, '국화', '미米'자 등이다. 와연 문양 중에는 일부 그물 문양, 평행사선 문양 등도 있다. 내면은 모두 포문布紋이다.

와연의 문양 가운데 압인파랑문은 앞쪽에 나타난다. 원주형 공구로 비스듬히 찍었고, 형태가 물결 문양이다. 문양이 있는 암키와가 출토된 유적에서는 모두 발견되고 있다.

압인거치문 역시 앞쪽에 나타난다. 방형 기둥 모양의 도구로 비스듬히 압인했고, 형태가 톱니모양이다. 연권즐치문도 앞쪽에 나타난다. 그 외에 또 평행사선문, 그물 문양 등도 있으나 현재까지 각 1점씩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발해 고성에서 사용된 기와는 모두 소면素面이다. 물론 팔련성八連城에서는 소량의 승문 암키와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외 동경성東京城, 서고성西古城, 소밀성蘇密城, 대성자고성大成子古城 등지에서는 모두 승문, 석문, 그물 문양 등의 암키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연변 지역의 발해 유적에서도 승문, 그물 문양, 석문 암키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배면에 문양이 있는 암키와가 발견되지 않은 발해 유적은 대부분 발해 후기의 유적으로 보고 있다.

연변 지역에는 승문이 가장 많고, 그물 문양이 그 다음이며 석문은 적은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편이다. 이는 연변 지역의 특징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회자문回字紋과 전자문田字紋은 환도산성丸都山城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자문은 집안현集安縣의 기타 고구려 유적 출토 전돌에서 확인되고, 전자문은 평양平壤 부근의 고구려 유적에서도 보인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면, 문양이 있는 암키와는 서쪽으로 요령성遼寧省, 북쪽으로 길림시吉林市, 동쪽으로 연변 지역, 남쪽으로 한반도 북부(남부 지역은 확인하지 못했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즉 고구려 전성기의 통치 영역과 일치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부터 계속 중원 문화를 흡수했다. 도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문양이 있는 암키와가 다수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발해 초기의 일부 성지, 사찰지, 유적, 무덤 등에서 문양이 있는 암키와가 등장하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은 아니다. 발해는 당대唐代 중기 속말말갈粟末靺鞨의 귀족이 고구려 귀족과 연합하여 세운 정권으로 건국 이전에 속말말갈은 고구려의 통제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 문화를 받아들이고 계속 이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변 지역의 일부 초기 발해 유적에서 문양이 있는 암키와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양이 있는 암키와는 고구려인이 애용한 건축부재이고, 그 연원은 중원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원에서는 서주西周에서 한위漢魏 시기까지 문양이 있는 암키와를 계속 사용해왔다.

연변 지역의 유적 가운데 승문, 석문, 그물 문양 암키와가 출토되는 곳은 당연히 고구려 유적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일부 발해 유물도 공반된다면 이는 고구려 시기에 시축되었고, 발해 시기에도 계속 이용한 유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해 왕실 귀족 무덤이라고 확정된 두 고분군에서도 문양이 있는 암키와가 발견되었는데, 필자는 오히려 이 점이 발해 초기에도 이러한 건축부재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묘지에서도 사용했으니, 기타 성지나 유적에서도 당연히 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문양이 있는 암키와만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완벽한 방안이 아니며, 앞으로의 고고 조사와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严长录 · 杨再林, 1988, 「延边地区高句丽—渤海时期纹饰板瓦初探」, 『博物馆研究』2, 55–62.

저 자 왕페이펑王飞峰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

연 도 2008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7집
『边疆考古研究』7辑

한당漢唐 시기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 –인면문人面紋 기와를 중심으로

汉唐时期东亚文化的交流—以人面纹瓦为中心

주 제 어 한당 시기
동아시아 지역
인면문 기와

본문에서 언급하는 인면문人面紋 기와는 주로 반원형 인면문 와당, 원형 인면문 와당, 반원형 인면문 기와(착고[當溝]) 3종이다. 인면문 기와는 매우 특색 있는 건축 재료로 전국戰國시대 제齊, 한漢, 남조南朝, 16국, 삼연三燕, 북위北魏, 고구려, 신라, 백제,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반원형 인면문 와당은 시기가 이른 편으로 전국시대 제나라 임치성臨淄城, 연하도燕下都 유적에서 이미 발견되었다.

원형 인면문 와당은 장구章丘 동평릉고성東平陵故城의 서한西漢 시기 인면문 와당 1점이 있고, 남경南京 지역에서는 육조六朝 시기 인면문 와당 다수가 출토되었으며, 신라와 백제, 고구려에서도 발견되었다. 신라의 원형 인면문 와당은 흥륜사興輪寺(진흥왕眞興王 5년[544] 축조)에서 출토되었다는 설도 있고, 영묘사靈妙寺에서 출토되었다는 설도 있다. 백제의 인면문 와당은 왕흥사지王興寺址(『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미륵사彌勒寺라 지칭했고, 건축 시기는 600~634년이다)에서 출토되었다. 고구려 봉황산산성鳳凰山山城에서도 인면문 와당이 발견되었다.

반원형 인면문 기와는 한漢 장안성長安城, 한위漢魏의 허도許都, 16국 시기 업성鄴城, 삼연三燕, 전진前秦, 북위北魏 석자만고성石子灣古城, 평성平城 조장성操場城 건축지, 서책전西册田 유적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고구려 평양平壤 동명왕릉東明王陵 앞 정릉사지定陵寺址에서도 1점이 확인되었다. 중간이 오목하게 들어간 코에 눈은 북[梭] 모양이며 눈자위는 연잎 모양에 눈썹은 길다. 또한 평양 토성리土城里에서는 고구려 시기 반원형의 수면문獸面紋 기와가 발견되기도 했다.

착고[當溝]는 용마루 아래 두 개의 수키와 사이 고랑을 매우는 기와이다. 고구려의 착고는 환도산성丸都山城과 천추총千秋塚에서 발견되었다. 이외에 발해서고성西古城에서도 착고가 확인되었다.

그 림 1. 반원형 인면문 와당
2. 원형 인면문 와당
3. 반원형 인면문 기와
4. 착고
5. 고구려, 발해 착고
6. 중, 일, 베트남 원형 인면문 와당
7. 북위 인물 와당
8. 중국 및 한반도 수면 전돌
9. 일본 수면 전돌 및 착고
10. 일본 수면 전돌(귀와) 위치도
11. 착고 위치도(청대 건축)

인면문은 주로 화재와 재난의 예방 및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출토 유적으로 볼 때 황실과 관련된 건축물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이전의 인면문 와당은 연하도와 임치성에서 발견되었는데, 양식이 상이하여 상호간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한당 시기 인면문 와당과의 연관성 역시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반도 신라와 백제의 인면문 와당은 남조로 대표되는 대륙 문화가 해로를 따라 전파된 결과로 판단되는데, 먼저 백제가 손오孫吳~동진東晋에서 받아들인 후 이를 신라가 배워간 것으로 보이며, 고구려 역시 백제와 신라의 영향을 받아 인면문 와당을 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면문 기와는 이처럼 특징적인 건축부재로 한당 시기에 이미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었다. 그중 인면문 와당은 처마 끝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국시대에 이미 등장했고 당대唐代 이후로 사라진다. 인면문 착고는 용마루에 사용되는 것으로 춘추春秋 시기 수면문 착고가 발견된 일이 있으며, 그 뒤로는 인면문과 소면素面 착고가 계속 사용된다. 인면문 기와의 등장은 건축사, 미학사, 수공업 기술사의 연구 영역을 크게 확대시켰고 또 그 전파 노선은 한당 시기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궤적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다.

王飞峰, 2008, 「汉唐时期东亚文化的交流—以人面纹瓦为中心」, 『边疆考古研究』7辑, 1–17.

저 자 장춘옌张春艳
통화사범학원 미술학원 강사
리잉루이李英睿
연 도 2016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7
『通化师范学院学报』7

고구려 와당 연화문蓮花紋의 구성 연구

高句丽瓦当莲花纹饰的构成研究

주 제 어 와당
연화문
특징
형식

지원사업 길림성 교육청 '십이오十二五' 사회과학연구계획 항목(길교과문합자吉教科文合字[2015]제414호)

연화문양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특히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후 연화문양은 고구려 건축, 벽화 및 기타 예술품에 등장하기 시작하며 건축 예술과 일상용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장식의 소재가 되었다.

집안시集安市와 평양시平壤市에 위치한 고구려 도성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은 그 양식에 따라 단독 연화문 와당, 복합 연화문 와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화문양의 구성 형식은 각각의 연화문양을 하나씩 떼어놓고 분석할 수도 있고 전체를 대상으로 그 구성 형식을 분석할 수도 있다. 하나씩 떼어놓은 상태의 연화문은 몇 개의 연화 화판과 중심의 원형 유돌乳突로 구성되어 있다. 화판을 기본형으로 보았을 때 연화문은 화판의 연속과 정연한 중복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판은 또 상하 대칭과 좌우 대칭, 회전 대칭의 3종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의 연화문은 화판이 중심 유돌에서 사방으로 곧게 뻗어나가는 복사식輻射式이고, 또 철현문凸弦紋, 연주문聯珠紋은 중심의 원형 유돌과 동심원 형식으로 배치되며, 감잎 문양이 합쳐진 연화문은 회전식 구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도안은 여러 종류의 구성 형식이 병존하는 다층식 구도이다.

고구려 연화문의 형태는 사실적 유형과 추상적 유형의 두 종류로 구분되나 와당의 연화문은 다수가 추상적 유형이다. 이러한 추상적 문양은 장식성을 더욱 잘 보여주고, 기능성, 부호적 의미, 심미감審美感을 갖추게 된다.

와당의 연화문은 그 기능이 건축물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고구려인은 연화의 복잡한 구조에서 취사선택을 하고, 화판 모양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와당을 적절하게 장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연화문은 이러한 장식 기능 이외에 역사 문화 기록의 기능도 있다. 즉 조, 중, 만기 연화문은 간단하

1. 성곽 및 고고일반 · 2. 고분 · 3. 유물

고 소박하고 단일한 형태에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며 풍부한 형태로 변화했다. 이는 연화문양의 성숙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구려 민족의 성장과 사회의 번영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구려 와당의 연화문은 특유의 지역성과 민족성 위에 불교문화, 유학의 정수, 중원의 민간 풍속 등 중원 문화까지 융합했다. 그래서 고구려 와당의 연화문은 다민족 융합성, 문화의 다원적 시공간성을 갖추고 있다. 고구려 와당의 연화문이 상징하는 의미는 신神, 생식, 천수天水, 불교, 유학 등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张春艳 · 李英睿, 2016, 「高句丽瓦当莲花纹饰的构成研究」, 『通化师范学院学报』7, 13–17.

저 자 장푸유张福有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 도 2004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3
『社会科学战线』3

집안集安 우산禹山 3319호묘 권운문卷雲紋 와당 명문 고증과 초보 연구

集安禹山3319号墓卷云纹瓦当 铭文考证与初步研究

주 제 어 고구려
JYM3319호묘
권운문 와당
중랑

1962년 상반기에 JYM3319호묘에서 권운문卷雲紋 와당 잔편 1점이 발견되었고, 같은 해 하반기에도 잔편 1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2점은 원래 하나가 부서진 것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약 1/8 정도가 파손되었다.

1983년 8월에도 이 무덤에서 권운문 와당 1점이 수습되었다. 파손된 부분은 약 2/5이다. 2003년에도 이 무덤에서 발견된 권운문 와당 1점을 인근 주민에게서 기증받았다.

이 와당 3점의 명문 가운데 중복되는 글자가 있어 이를 조합해보니, 전체 명문은 '태세재정사오월입일, 위중랑□부인조개묘와, 우작민사천, 체암□용, □시흥예, 득□만세太歲在丁巳五月廿日, 爲中郎□夫人造蓋墓瓦, 又作民四千, 餟盦□用, □時興詣, 得□萬世.'로 확인되었다.

명문의 내용은 '정사년丁巳年 5월 20일(357년 6월 23일, 하지)에 중랑中郎과 부인을 위해 개묘와蓋墓瓦를 만들고, 또 4천명의 백성을 동원해서 제사, 공양, 제례용 각종 기물, 용품 등을 제공하여 각각의 시기별 제사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게 하니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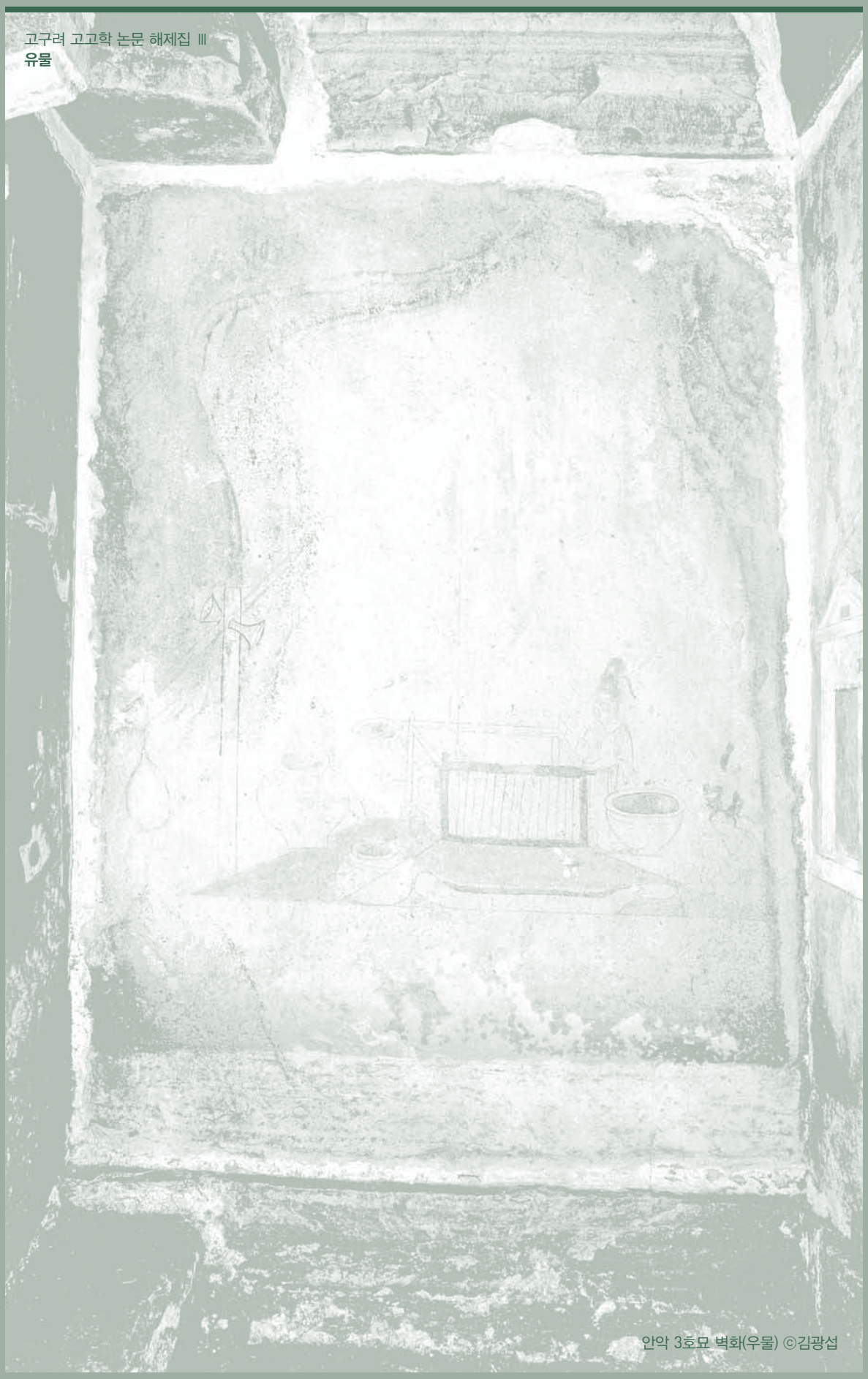
상술한 내용에 근거하면, JYM3319호묘는 고구려왕의 무덤이 아니라 고구려에서 관직에 종사하도록 진晉나라가 봉한 한족漢族 '중랑 및 부인'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또 이전까지는 '을묘乙卯'와 '정사丁巳'명 와당에 근거하여 묘주는 355년에 사망했고 무덤은 357년에 조성한 것으로 보았는데, 사실 이 무덤이 '중랑과 부인'의 합장묘이므로 이 두 기년은 중랑과 부인을 매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1인은 을묘년에, 다른 1인은 정사년에 사망하여 각각 그 해에 매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묘(355년, 고국원왕故國原王 25년)와 정사(357년, 고국원왕 27년)라는 두 기년, 그리고 국내성國內城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우산禹山의 높은 위치에 자리 잡

그 림 1. 권운문 와당 탁본 (1962년 출토)
2. 권운문 와당 탁본 (1983년 수습)
3. 권운문 와당 탁본 (2003년 발견)
4. 권운문 와당 3점 복원도
5. JYM3319호묘 동남쪽 석각 (인면상)
6. 인장

은 점 등에 근거하면, 이 무덤은 고국원왕의 허가와 지원 하에서 조성된 무덤으로 당연히 고국원왕이나 소수림왕小獸林王의 무덤은 아니다. 다만 묘주인 중랑과 그 부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张福有, 2004, 「集安禹山3319号墓卷云纹瓦当铭文考证与初步研究」, 『社会科学战线』3, 143–148.



안악 3호묘 벽화(우물) ⓒ김광섭

04 토기류

경테화	집안시集安市에서 새로 출토된 고구려 유물 몇 점	150-151
경테화	고구려 시유도기施釉陶器의 유형과 시기 구분	152-153
경테화 · 린즈더	집안集安 고구려 토기에 대한 초보 연구	154-155
마젠	집안集安 국내성國內城 유적 출토 청자의 시대와 가마에 대한 재론	156-157
쑨하오	집안集安 지역 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	158-159
왕페이펑	고구려 유적 출토 청자 연구	160-161
웨이춘청	고구려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의 변화 및 관련 문제	162-163
차오량	고구려 토기의 편년과 시기 구분	164-166

저 자 경톄화耿鐵華
연 도 1998
간행물명 『박물관연구』2
『博物馆研究』2

집안시集安市에서 새로 출토된 고구려 유물 몇 점

集安市新出土的几件高句丽文物

그 림 1. 방패형 수면문 와당
2. 토기
1) 뚜껑 달린 관
2) 관
3) 절구

사 진 1. 절구

최근 집안시集安市의 도시개발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중 몇 점은 기존 고구려 유물에서 보이지 않던 기종이다.

첫째는 방패형 수면문獸面紋 와당이다. 모두 2점으로 1992년 7월 상무가商貿街 건축현장 북쪽에서 출토되었다. 두 와당의 출토 지점은 서로 인접해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처음 발견된 고구려의 방패형 수면문 와당으로 과거에는 주로 원형 와당만 발견되었다. 이 와당은 기타 원형 수면문 혹은 연화문蓮花紋 와당 및 기타 잔편과 함께 출토되었다.

둘째는 뚜껑이 있는 관罐이다. 1992년 5월에 역시 상무가 건축현장 북쪽에서 위 와당과 함께 출토되었다. 홍갈색의 사질이 섞인 토기로 경부는 직선이고 고복이며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부분에 덧띠무늬 한 줄이 둘러있다. 덧띠무늬 하부는 물결문이고 상부는 삼각형 문양이 압인되어 있다. 원형 뚜껑에는 삼각형 문양이 세 줄로 압인되어 있고 제일 위에 원주형 꼭지가 있다.

셋째는 관罐으로 역시 동일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홍갈색의 사질이 섞인 토기로 표면은 마연했다. 구연이 크고 목은 직선이며 목 아래로 이중의 철현문凸弦紋이 있다. 상부에는 삼각문과 원형 점 문양이 압인되어 있다.

넷째는 절구로 1992년 6월 3일 문화광장 화단 서쪽 공사현장에서 출토되었다. 홍색에 니질로 현대의 약절구나 마늘 절구와 모양이 비슷하다. 벽과 저부 모두 두껍다. 바깥에 절선문折線紋이 있고, 구연에 삼각문 한 줄이 압인되어 있다.

이상 토기 3점 역시 고구려 토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종이다. 태토의 재질, 색상으로 볼 때 3점 모두 동일 시기의 유물로 보인다. 관과 와당의 연대는 5세기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략 호태왕好太王에서 장수왕長壽王 시기 유물로 판단된다.

과거 집안에서는 일부 토기 뚜껑이 출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원 기

물과 분리되었거나 기물 자체가 훼손되고 뚜껑만 남은 경우였다. 토기 절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종의 발견이다. 방패형 수면문 와당은 한국 경주에서 출토된 일이 있는데, 형식은 동일하나 크기가 좀 더 크고,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표면에 유약을 바른 것으로 보아 연대가 많이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耿铁华, 1998, 「集安市新出土的几件高句丽文物」, 『博物馆研究』2, 64–65.

저 자 경톄화耿铁华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연 도 2001
간행물명 『고고여문물』3
『考古与文物』3

고구려 시유도기施釉陶器의 유형과 시기 구분

高句丽釉陶器的类型与分期

그 림
1. A형 시유도호
2. B형 시유도호
3. 시유도조
4. 시유도분, 증, 부, 이배
5. 시유도발, 시유도관, 시유도병
6. 조
7. 고구려 시유도기 시기별 변화 순서
8. 조
9. 사이동호(경주 금관총)

표
1. 중국 고구려 고분 출토 시유도기 통계표

고구려의 시유도기施釉陶器는 고구려 민족의 도기 제작 기술 발전 과정에서 한漢나라의 저온 시유도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이다. 고구려의 시유도기는 대부분 중국 집안集安 지역에 분포한 고구려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무순시撫順市와 환인현桓仁縣, 북한 평안남도平安南道에서도 소량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시유도기가 출토된 고구려 고분은 모두 16기이다. 16기 가운데 8기는 벽화묘이고, 8기는 벽화가 없는 무덤이며,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는 10기이고 기단基壇 혹은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가 6기이다. 전체 시유도기 중 호壺가 가장 많고, 조竈, 분盆, 증甑, 부釜, 발鉢, 병瓶, 이배耳杯, 관罐 등이 있다. 출토 당시 도기의 조합은 호와 조가 다수이고, 호와 조, 분의 조합도 있으며 호, 조, 발, 이배의 조합도 있다.

고구려 시유도기는 대부분 중원의 도기 양식을 모방했으나 일부 고구려 민족 특유의 기종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6세기에 유행한 사이유도호四耳釉陶壺와 유도조釉陶竈이다. 시유도호는 파수의 유무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는데, A형이 사이유도호로 견부나 복부 상단에 4개의 교상횡이橋狀橫耳가 있다. 이는 다시 5식으로 구분된다. B형은 파수가 없고 2식으로 구분된다. 유도조는 4식으로 구분되고, 유도분은 5식, 유도증은 2식, 유도부는 2식, 유도발은 2식, 유도이배는 2식, 유도관은 3식으로 구분된다. 유도관은 JSM365에서 출토된 1점뿐이다. 이상의 고구려 시유도기는 모두 800℃ 전후의 저온에서 소성된 것으로, 견고하지 않다. 유약에 다량의 산화연이 함유되어 '연유鉛釉' 혹은 '연유軟釉'라고도 부른다. 도기의 유색은 크게 황색과 녹색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황유의 연대가 약간 더 이르다. 또 대부분 내외에 모두 시유를 했지만, 시기가 이른 일부는 내측을 시유하지 않았다.

시유도기 가운데 사이유도호의 수량이 가장 많고 기형의 변화도 시대의 특

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 도기의 연대 확정에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구려 시유도기는 4세기 초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시유도기가 출토된 고구려 고분의 형식 변화와도 일치하고 있다. 보통 고구려 고분은 석분石墳과 토분土墳으로 구분되는데 석분의 연대가 빠르고 토분은 약간 늦다. 4~5세기에는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 적석석실묘積石石室墓, 봉토석실묘가 병행 · 교차되던 시기이고, 6세기 이후에는 적석류 무덤이 점차 봉토석실묘로 대체된다. 고구려 시유도기는 주로 적석석광묘, 적석석실묘(두 종류 모두 기단[基壇]이나 계단[階壇]이 있다), 봉토석실묘에서 출토되었다.

중원에서는 황유의 출현이 비교적 이르고, 녹유는 늦은 편이다. 동한東漢 시기에는 후자가 크게 유행했고, 전자에 비해 보편화되기도 했다. 이를 보통 '북방유도北方釉陶'라 부르는데 고구려 시유도기는 동한 시기 이래 유행한 '북방유도'에 속한다.

고구려 시유도기는 주로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주거 유적에서 발견된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 무덤 부장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시유도기는 벽화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신분과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구려 벽화묘는 다수가 고구려 왕실귀족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벽화가 없는 무덤에서도 시유도기가 출토되기는 했지만, 공반되는 금동기, 청동기, 철기 및 무덤의 구조 등을 통해 볼 때 묘주는 고구려 귀족층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집안에서 출토된 고구려 시유도기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6세기 중만기에 이르러 고구려의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자연히 시유도기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고구려의 시유도기는 그 생산과 발전, 변화의 과정을 통해 고구려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을 말해주고 있다.

耿铁华, 2001, 「高句丽釉陶器的类型与分期」, 『考古与文物』3, 71–80.

저 자 경톄화耿铁华
린즈더林至德
연 도 1984
간행물명 『문물』1
『文物』1

집안集安 고구려 토기에 대한 초보 연구

集安高句丽陶器的初步研究

그 림
1. 1) Ⅰ식 호(JXM8)
2) Ⅱ식 호(JSM196)
3) Ⅱ식 호(JSM196)
4) Ⅰ식 관(JSM196)
5) Ⅱ식 관(JSM195)
6) Ⅲ식 관(JSM)
7) 배(JSM356)
8) Ⅰ식 관(JQM1196)
9) Ⅱ식 관(JMM940)
10) 병(JMM832)
11) 발(삼실총)
12) Ⅰ식 관(JWM172)
13) 개완(JMM940)
14) Ⅳ식 관(JYM1815)
15) 유이배(삼실총)
16) Ⅰ식 분(JYM1815)
17) 부(JYM1815)
18) 발(JSM321)
19) 반(JSM250)
20) 유도증(JYM3317)
21) 유백자호(JYM2208)
22) Ⅱ식 관(JMM118)
23) Ⅳ식 관(JSM250)
24) Ⅲ식 호(JMM117)
2. 1) 옹(JYM2325)
2) Ⅲ식 호(삼실총)
3) Ⅲ식 호(JSM332)
4) 반구청자호(JYM3319)
5) Ⅲ식 관(기상참 유적)
6) 창(JYM2325)
7) Ⅳ식 호(JQM1196)
8) Ⅱ식 도분(JYM2321)
9) Ⅱ식 호자(JSM345)
10) Ⅴ식 관(양차촌 남대자)
11) 발(민주대대)
12) Ⅰ식 호자(JYM2321)

이전까지 고구려의 토기 제작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없었다. 이는 출토된 수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집안현集安縣에서 계속해서 고구려 시기 토기와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고분과 유적에서 출토되어 명확하게 출토 지점을 알 수 있다.

현재 고구려 무덤의 편년은 대체로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고구려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를 무덤의 유형 차이에 근거하여 몇 그룹으로 나누고, 다시 각 그룹의 토기를 유형, 토질, 형식적 특징 등에 기초하여, 고구려 무덤 편년과 상응하는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그룹의 토기는 고구려 토기 제작 기술의 변화 순서와 상이한 3개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형식의 변화가 풍부한 토기로는 호壺와 관罐으로 각각 5식으로 구분된다.

제1그룹의 토기는 적석묘와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에서 출토되었다. 시기 상한은 고구려 건국 이전까지 올라가고, 하한은 3세기 말이다. 이는 고구려 전기 토기라 부를 수 있다. 이 시기 토기의 특징은 수제이고 소성온도가 높지 않으며 토질은 협사조도夾砂粗陶가 많고 일부 협세사도夾細砂陶도 있으며 니질도泥質陶는 매우 적다. 색상은 기본적으로 황갈, 홍갈, 회갈 등이나 균일하지는 않다. 주요 기종으로는 호(Ⅰ, Ⅱ식), 관(Ⅰ, Ⅱ, Ⅲ식), 배杯가 있다.

제2그룹은 방단계제적석묘方壇階梯積石墓, 방단적석동실벽화묘方壇積石洞室壁畫墓, 봉토석실묘封土石室墓, 봉토석실벽화묘封土石室壁畫墓에서 출토되었다. 시기는 대략 4세기 초에서 5세기 말까지이다. 이 시기 토기는 고구려 중기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윤제이나 수제도 소량 있다. 소성온도는 점차 높아지고 다수가 니질도이나 소량의 협사도도 있다. 색상은 회색, 흑색 혹은 토황색이고 균일하며 단단하다. 이 시기에는 저온의 시유도기施釉陶器도 등장하는데 태질은 홍갈색이고 소성온도는 낮은 편이다. 기종은 주로 호(Ⅲ식, Ⅳ식), 관(Ⅰ, Ⅱ, Ⅳ

13) 합식연(기상참 유적)
14) Ⅴ식 호(통구하구 유적)
15) 장경병(집안 JSM365)
16) 장경병(돈화IM9)
17) 벽옹연(동대자 유적)
18) 도침(JMM117)
3. Ⅰ식 대구관(JSM196 출토)
4. 도옹(JYM2325 출토)
5. 유도발(삼실총 출토)
6. 유도분(JYM1815 출토)
7. Ⅱ식 고복관(JMM940 출토)
8. Ⅱ식 고복관(JMM118 출토)
9. 유이배(삼실총 출토)
10. 벽옹연(동대자 유적 출토)
11. 개완(JMM940 출토)
12. 유도부(JYM1815 출토)
13. 합식연(기상참 유적 출토)
14. 유도조(삼실총 출토)
15. Ⅰ식 호자(JSM345 출토)
16. Ⅱ식 호자(JSM345 출토)
17. 고구려 토기 변화도

도 판 7. 길림 집안 출토 고구려 토기
1) 도창(우산 M2325 출토)
2) Ⅴ식 사이도호
(통구하구 유적 출토)
3) Ⅱ식 고복도관
(산성하 M195 출토)
4) Ⅰ식 대구도관
(칠성산 M1196 출토)
5) Ⅲ식 사이유도호
(삼실총 출토)
6) Ⅱ식 사이도호
(산성하 M196 출토)

표 1. 집안 출토 고구려 토기
통계표

식), 병瓶, 발鉢, 개완蓋碗, 증甑, 창倉, 옹甕, 분盆, 시유이배施釉耳杯, 시유도부施釉陶釜, 조(Ⅰ, Ⅱ식) 등이 있다.

제2그룹 토기가 출토된 방단계제적석묘와 봉토석실묘에서는 반구청자호盤口靑瓷壺, 유백자호乳白瓷壺 등 소량의 자기도 출토되었다. 기형은 동진東晉 자기와 동일하여 중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3그룹은 봉토동실묘封土洞室墓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고구려 만기에 속하는 것으로 대략 6세기 이후의 제품이다. 다수가 니질도이고 색상은 회색, 흑색, 황색이 많다. 소성온도가 높고 단단하다. 기본적으로 윤제이나 소량의 수제도 있다. 주요 기종으로는 호(Ⅲ, Ⅴ식), 관(Ⅰ, Ⅱ, Ⅲ, Ⅳ, Ⅴ식), 반盤, 발, 분(Ⅱ식), 조(Ⅰ식), 침枕, 호자虎子(Ⅰ, Ⅱ식), 연硯 등이 있다.

고구려 전기는 기종이 많지 않고, 수제 성형을 하며 무문이 다수이다. 중기에는 점차 복잡해지며, 새로운 기형이 출현한다. 제작 기술의 측면에서는 저온시유도가 증가한다. 윤제 성형을 시작하였고, 단순한 요현문凹弦紋, 각획파랑문刻劃波浪紋 등 문양이 출현한다. 고구려 만기에는 윤제 성형을 하며 고온소성을 하여 토기를 제작한다. 암문暗紋이 출현하며, 형태가 사용에 적합하게 변화한다.

고구려 토기 가운데 사이호四耳壺(Ⅱ, Ⅲ, Ⅴ식 호), 대구관大口罐(Ⅰ식 관), 고복관鼓腹罐(Ⅱ식 관)은 세 그룹에 모두 등장하여 고구려 토기 중 가장 전형적인 기종으로 볼 수 있다. 그중 대구관은 기형의 변화가 크지 않고 다만 태질, 제작 기법, 소성 기술과 온도의 측면에서만 발전의 추세를 보였다. 고복관의 변화는 비교적 명확하다. 경부가 점차 짧아지고 최대동체경이 점차 위쪽으로 이동하며, 기고와 너비의 비율이 점점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기고가 낮고 넓어지는 변화의 추세를 보인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기종은 사이호로 경부가 계속 짧아지고, 경부 위에서 외측으로 벌어지는 각도도 커지며, 동체부는 짧고 둥근 형태에서 높은 고복으로 변화한다. 4개의 교상횡이橋狀橫耳는 견부에서 견부와 동체부 접합지점으로 점차 내려가다가 동체부까지 내려간다. 표면은 소면에서 현문弦紋, 파랑문波浪紋, 수장문垂幛紋으로 변화하다가 만기에는 암문이 등장한다. 사이호는 고구려 무덤과 유적에서 다량 출토되어, 고구려인의 일상생활, 풍속,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그룹의 시유도기는 명기이고, 아직까지 실제 일상생활에 쓰인 시유도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와 창의 출토는 고구려인의 생활과 재산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는 것이고, 양한兩漢 시기 이래 조와 창을 매장하던 풍속이 북방의 변경 지역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진의 청자는 고구려와 중원의 경제, 문화 교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耿铁华 · 林至德, 1984, 「集安高句丽陶器的初步研究」, 『文物』1, 55–63.

저 자 마젠马健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10
간행물명 『고고여문물』3
『考古与文物』3

집안集安 국내성國內城 유적 출토 청자의 시대와 가마에 대한 재론

再论集安国内城 遗址出土青瓷器的时代与窑口

주 제 어 국내성 유적
청자
시대
요구(자기 생산지)

2003년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 국내성國內城 유적 내 체육장體育場 지점의 수혈군에서 청자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는 우산禹山 3319호묘 이후 고구려 시기 유적 내에서 발견된 청자 중 최대 규모이다.

출토된 청자 가운데 복원이 가능하거나 기형 판단이 가능한 것은 총 8점이고, 보고서에서는 그중 7점을 관罐, 1점은 제량기提梁器로 명명했다. 그러나 학계의 일반적인 기종 명칭에 근거하면, 7점의 관 가운데 반구사계관盤口四系罐 1점은 고복사계반구호鼓腹四系盤口壺, 절견관折肩罐 2점은 절견사계반구호折肩四系盤口壺로 판단되고, 쌍계관雙系罐 1점과 관罐 1점은 반구호盤口壺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량기는 매우 드문 기형으로 기개器蓋일 가능성도 있다.

『국내성』 보고서에서는 유구의 층위 관계, 제작 기법, 기형 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이를 동진東晉 시기 절강浙江 지역에서 생산한 청자로 보았다. 그러나 청자가 출토된 수혈은 모두 제4층 아래에서 시작하여 제5층을 뚫고 있어 제3층 아래에서 시작하여 제4층 표면에 자리 잡은 4기의 건축물 기초보다는 상대적으로 연대가 이르다. 4기의 건축물 기초 가운데 F2의 퇴적에서는 권운문卷雲紋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이 와당의 문양, 형식 및 문자('태泰'와 '□□년조와고기세□□年造瓦故記歲)'를 우산 992호묘 출토 명문 와당과 비교하면 F2의 권운문 와당은 338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곳의 청자는 4기 건축물이 조성되기 시작한 338년보다 훨씬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구사계관直口四系罐의 구연과 사계四系 상부에는 모두 갈유褐釉로 찍은 4개의 점이 있다. 자기에 사용되는 갈채褐彩는 삼국三國 시기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직구사계관의 갈채처럼 십자형으로 대칭되는 갈채 장식은 서진西晉 후기에 등장한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면 이곳의 청자는 대체적으로 서진 후기부터 동진 조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림 1. 체육장 지점 출토 청자(『국내성』 그림81)
1) 육계쌍구관
2)~5) 반구호 잔편
6) 고복반구호
7) 사계관
8), 11) 절견반구호
9) 쌍계관?
10) 관?
12) 제량기?
2. 체육장 지점 토층 층위 관계도(『국내성』 p.112)
3. 권운문 와당 형식 비교
1) 체육장 지점 출토 (2003JGTYCF2:1)
2) 우산 992호묘 출토 (03JYM992:45)
4. 주요 청자 형식 비교(1~3. 고복반구호 4~8. 절견반구호 9~13. 직구고복관)
1) 장사 금분령 영녕 2년(302)묘 출토
2), 6), 7), 11) 집안 국내성 유적 체육장 지점 출토
3) 집안 우산 3319호묘(4세기 중엽) 출토
4) 악성 M2087:9
5) 1995년 남경 판교 양가산 M1 출토
8) 악성 M2143:2
9) 남경 상방 79M1(275) 출토
10) 악성 M2087:3
12) 마안산 임리 동진 건원 2년(334)묘
13) 남경 곽가산 M4 출토

보고서에서는 이곳의 청자가 절강 지역 자기 가마(서진 말에서 동진 초까지 절강 지역의 주요 자기 가마로는 월요越窯, 구요甌窯, 무주요婺州窯 등이 있다)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기종의 조합(반구호, 관), 태토의 색상(회색, 회백색), 착유 상태 및 옅은 유색(청, 갈, 황색), 비교적 간단한 문양 장식(요현문凹弦紋, 십자형 갈채)과 가로방향 파수의 모양 등에 근거하면, 체육장 지점 출토 청자는 월요 유형의 자기 가마에서 생산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부 청자에서는 강서성江西省 및 장강長江 중류의 요지에서 생산된 악성鄂城 육조묘六朝墓 출토 청자에서 보이는 특징과 유사한 점도 보인다.

이상과 같이 체육장 지점 출토 청자는 서진 말에서 동진 초기에 생산되었으며, 생산지는 월요 유형의 절강 지역 자기 가마일 수도 있고, 장강 중류의 자기 가마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직구사계고복관直口四系鼓腹罐과 절견사계반구호로 대표되는 높은 수준의 제품과 고복사계반구호와 쌍구육계고복관雙口六系鼓腹罐으로 대표되는 낮은 수준의 제품이 각각 월요 유형 가마와 장강 중류의 가마 생산품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马健, 2010, 「再论集安国内城遗址出土青瓷器的时代与窑口」, 『考古与文物』3, 87–91.

저 자 쑨하오孙颢
북화北華대학 역사문화학원
연 도 2013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4집
『边疆考古研究』14辑

집안集安 지역 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

集安地区遗址出土高句丽陶器研究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청년 항목 (11CKG005)

집안集安 지역 성지, 건물지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총 280점으로 일반 토기가 263점, 시유도기施釉陶器가 17점이다. 그중 완형이거나 복원이 가능한 토기는 64점이고 관罐, 호壺, 반盤, 분盆, 옹甕의 수량이 많은 편이다.

이 지역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 및 기존에 시기가 분명하게 알려진 토기와의 비교, 그리고 토기와 공반 출토된 유물의 시대적 특징 등을 기초로 한 이 지역 유적 출토 토기의 시기와 편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1기 토기의 연대는 고구려 건국 전후부터 3세기 말 전후까지로 보이고, 제2기 토기의 연대는 4세기 초에서 5세기 말, 제3기 토기의 연대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말, 7세기 초로 판단된다.

제1기 유적 내 출토 토기는 관이 주를 이루고, 모두 협사도夾砂陶이며 경도는 무르다. 대부분은 수제이나 일부 만륜慢輪으로 정면한 것도 있다. 표면은 소면素面이 다수이나 역시 일부 현문弦紋이 시문된 것도 있다. 이 시기에는 유적과 무덤 출토 토기의 기형에 큰 차이가 없다.

제2기 유적 내 출토 토기는 관, 반, 분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에는 니질도泥質陶도 등장하나 여전히 협사도의 수량이 니질도보다는 많았다. 수제 제작 기법도 공존했으나 수량은 점차 감소한다. 문양 역시 소면이 다수이나, 현문 이외에 복합문양, 비점문篦點紋, 철릉문凸楞紋 등도 등장한다. 그 외에 이 시기에는 시유도기도 등장한다.

제3기 유적 내 출토 토기는 니질이 주를 이루고 협사는 드물다. 윤제 토기가 다수를 점하며 수제는 극소량만 발견되었다. 또한 시유도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무덤 출토 토기를 대표하는 부釜, 조竈 등이 이 시기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집안 지역 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는 전체적으로는 재질이 무른 협사에서

그 림 1. 집안 지역 유적 출토 토기의 시기 구분도
2. 집안 지역 무덤과 유적 출토 토기의 기형 비교도

표 1. 집안 지역 유적 출토 토기 통계표

니질로, 수제에서 만륜을 거쳐 윤제로 발전했으며, 작고 옆으로 넓으며 투박한 모양에서 크고 날씬하며 수려한 모양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과정은 무덤 출토 토기와도 동일한데 이는 고구려 토기 발전의 전체적인 추세였다. 그러나 유적 출토 토기와 무덤 출토 토기 사이에는 기종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적에서는 관, 반, 분, 옹이 다수를 점했고 호는 수량이 적었다. 무덤의 경우는 관, 호가 주를 이루었고 옹은 2점에 불과했다. 또 무덤에서 흔히 발견된 조, 부 등이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배耳杯, 전연호展沿壺, 증甑 등도 유적에서는 극히 소량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무덤과 유적의 성격이 다른 점과 관련되어 있다. 시기상으로는 제2기 유적 출토 토기가 수량도 가장 많고 종류도 풍부했다. 이는 즉 4세기 초에서 5세기 말이 고구려 정권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200년이었고 또 고구려 세력이 가장 강성했던 200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중엽은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였다.

孙颢, 2013, 「集安地区遗址出土高句丽陶器研究」, 『边疆考古研究』14辑, 230–245.

저 자 왕페이펑王飞峰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연 도 2017
간행물명 『화하고고』2
『华夏考古』2

고구려 유적 출토 청자 연구

高句丽遗迹出土青瓷器研究

주 제 어 고구려
청자
육조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2010년도 중대 과제(10&ZD085)
국가사회과학기금 2016년도 중대 과제(16ZDA149)

현재까지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된 청자는 20여 점으로 집안集安과 평양平壤에서 확인되었다. 그중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청자는 생활 유적인 국내성國內城 체육장體育場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무덤(우산禹山 M3319, 칠성산七星山 M211, 마선麻線 M2100)이다. 2003년 체육장 지점에서 출토된 청자는 모두 12점으로 육계쌍구고복관六系雙口鼓腹罐 1점, 반구호盤口壺 반구부盤口部 잔편 3점, 기종 불명의 경견부頸肩部 잔편, 사계고복반구호四系鼓腹盤口壺, 사계직구고복관四系直口鼓腹罐, 절견반구호折肩盤口壺, 쌍계고복기雙系鼓腹器, 고복기鼓腹器, 사계절견반구호四系折肩盤口壺, 기종 불명의 손잡이 각 1점씩이다. 우산 M3319에서는 5점의 반구호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3점은 1979년 무덤 위의 교란 구덩이에서 수습된 것이고 나머지는 1997년 발굴에서 확인되었다. 2003년 칠성산 M211, 마선 M2100 발굴 시에는 각각 청자편 몇 점과 청자 뚜껑 각 1점이 출토되었다. 북한에서는 평양시 낙랑구역樂浪區域 동산동東山洞 벽화묘에서 사자모양 청자 촉대燭臺 잔편 1점이 출토되었고, 개성시開城市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호자虎子 1점도 있다.

고구려에는 청자 제조 기술이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된 청자는 모두 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장 지점의 발굴 보고서에서는 청자가 동진東晉 시기 절강浙江 지역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보았고, 일부 연구자는 이 12점이 동일 가마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며 시기는 서진西晉 말에서 동진 초 장강長江 중류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자는 당시의 역사 상황과 청자의 특징을 고려하면 모두 장강 이남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 이런 청자가 유입된 경로는 인근 지역이나 북방 혹은 남방 지역 국가와의 공식적인 교류 과정에서 교환이나 선물 등의 방식으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고, 또 민간 무

그 림 1. 체육장 지점 출토 청자
2. 사계직구고복관
3. 사계절견반구호
4. 청자반구호
5. 뚜껑이 있는 청자
6. 청자
7. 동수묘 벽화 및 서진의 삼족훈로

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

고구려는 실제 강남의 손오孫吳, 동진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반면에 북방의 전연前燕, 후연後燕과는 서로 대치 관계였고, 당시의 삼연三燕 지역 역시 청자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고고자료에도 삼연 지역에서 발견된 청자는 소개된 실례가 없다. 따라서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된 청자가 북방 삼연 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게다가 당시 북방 지역의 자기 제조는 정체 상태이거나 심지어는 소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고구려가 북방 각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청자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해로를 통해 강남 지역 국가와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교류를 진행하며 청자를 구했을 것이다. 물론 고구려나 강남 지역 상인들이 직접 청자를 국내성이나 평양으로 가져가 교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외에 동수묘冬壽墓 벽화 속에도 청자로 보이는 기물이 등장한다. 동수는 고구려에 망명한 후 고구려에서 중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고구려와 동진의 관계가 밀접하여, 고구려 왕실에서는 강남에서 온 청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왕실에서 중용한 동수가 왕실에서 하사한 청자 등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된 청자는 당시 강남 지역에서 유행한 청자의 주요 기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시기는 서진과 동진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동진 시기 월요越窯 생산품이고 일부 구요甌窯 제품도 있기는 하다. 대부분 청자의 제작 시기는 거의 확인되었으나, 생산지 문제는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한 부분이다. 이는 아직까지 청자의 태토와 유약 원료 등에 대한 과학적인 성분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성분 분석 연구가 진행되면 생산지 문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와 육조六朝 사이의 공식적인 교류는 손오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또 현재 고구려 지역에서는 일부 서진 시기 청자도 발견되었다. 고구려와 손오 사이의 교류를 고려하면, 손오 시기에 강남에서 생산된 청자 역시 고구려 지역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앞으로의 고고 발견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王飞峰, 2017, 「高句丽遗迹出土青瓷器研究」, 『华夏考古』2, 102–109.

저 자 웨이춘청魏存成
연 도 1985
간행물명 『문물』5
『文物』5

고구려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의 변화 및 관련 문제

高句丽四耳展沿壶的演变及有关的几个问题

그 림
1. 고구려 봉토석실벽화묘 형식 구조 변화도
   1) 각저총
   2) 마선구 1호묘
   3) 장천 2호묘
   4) 산성하 983호묘
   5) 오회분 4호묘
2. 사이전연호, 조 변화도
   1), 6) 마선구 1호묘 출토
   2) 산성하 332호묘 출토
   3) 우산하 41호묘 출토
   4), 7) 장천 2호묘 출토
   5), 8) 삼실총 출토 (1:1/24, 2:1/21, 3·4·7:1/36, 5:1/27, 6:사진에서 모사, 8:1/54)
3. 협사황갈호 (산성하 196호묘 출토)
4. 니질황갈색 사이전연호 (마선구 117호묘 출토)
5. 유도호 잔편(칠성산 96호묘 출토, 모두 1/2)
6. 말등자 형식 비교도
   1) 장사 서진 영녕 2년묘 출토
   2) 남경 상산 7호 동진묘 출토
   3) 조양 원대자 동진 벽화묘 출토
   4) 북표 북연 풍소불묘 출토
   5) 안양 효민둔 154호 진묘 출토
   6) 칠성산 96호 고구려묘 출토
   7) 만보정 78호 고구려묘 출토
   8) 우산하 41호 고구려묘 출토 (1 · 2 · 8:사진에서 모사)

고구려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사이전연호四耳展沿壺는 기형 특징이 비교적 명확하고 절대다수가 시유도기施釉陶器에 속한다.

사이전연호는 경부의 특징에 따라 2형으로 구분된다. Ⅰ형은 경부가 견부에서 직접 비스듬히 구연까지 이어져 경부와 구연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Ⅱ형은 견부 위에서 먼저 직경直頸이 약간 이어지다가 다시 비스듬하게 구연으로 이어진다. 경부 높이와 복부 높이의 비율로 보면, Ⅰ형은 비율이 작아지고 Ⅱ형은 비율이 커진다. Ⅰ형은 경부가 짧아지고 Ⅱ형은 경부가 길어지는 것이다. 복부의 변화를 보면, Ⅰ형에서 Ⅱ형으로 가면서 복부 높이와 복경의 비율이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즉 복신腹身이 점차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핵심은 복신 제작 방면에서 발생한 변화이다. 복신은 먼저 원구형에 최대 직경은 중앙에 근접했는데, 차츰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복부 하단이 비스듬히 안으로 좁아지고 동시에 복신의 견부도 명확해지는데, 이는 또 원형 견부에서 꺾인 견부로 발전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복신 조형의 변화로 인해 기형이 전체적으로 낮고 둥근 형태에서 길고 좁은 형태로 발전하는 인상을 준다.

사이전연호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변화는 문양이다. 견부에 2줄의 호선문弧線紋을 압인한 기물이 나타나고, 동시에 현문弦紋, 비스듬한 방격문方格紋, 파랑문波浪紋(연호문連弧紋), 수만문垂幔紋이 등장한다. 문양은 무에서 유로, 간단한 문양에서 복잡한 문양으로 발전한다.

고구려의 사이전연호는 5세기 및 그 전후에 유행하였는데, 이는 소성기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사이전연호는 대부분 시유도기에 속하는데, 고구려 시유도기는 4세기 초 고구려가 평양平壤을 점령한 이후에 등장하고, 낙랑樂浪의 시유도기 기술을 흡수하였다. 또 4세기 말~5세기 초, 고구려의 세력이 요

하遼河 유역으로 넓어지고, 중원 지역과 접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시유도기는 중원의 시유도기에 직접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세기 이전의 무덤에서는 고구려의 시유도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시유도기가 출토된 고구려 무덤은 왕실 귀족묘에 속한다. 이는 시유도기가 고구려 통치 집단 상층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魏存成, 1985, 「高句丽四耳展沿壶的演变及有关的几个问题」, 『文物』5, 79–84.

저 자 차오량乔梁
중국문물연구소
연 도 1999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고구려 토기의 편년과 시기 구분

高句丽陶器的编年与分期

그 림
1. 초두 형태 비교도
2. 말 재갈 형태 비교도
3. 철기 형태 비교도
4. 장경호 형태 비교도
5. A형 치구관
6. B형 치구관
7. Ca형 치구관
8. Cb형 치구관
9. A형 소구관
10. B형 소구관
11. A형 횡이호
12. B형 횡이호
13. 횡이옹
14. 반, 증
15. 조

표
1. 전형적인 고구려 유적 출토 토기의 형식 통계표
2. 고구려 토기의 유적별 구분

토기는 현재까지 발견된 수량이 가장 많은 고구려 유물로 본문에서는 고구려 무덤 출토 토기에 대한 편년과 시기 구분의 표준을 세워보고자 한다.

수량이 많은 토기로는 치구관侈口罐, 소구관小口罐, 횡이호橫耳壺, 횡이옹橫耳甕, 부釜, 증甑, 발鉢, 조竈 등이 있다.

치구관은 고구려 토기 가운데 수량이 가장 많다. 협사夾砂와 니질泥質의 구분이 있고 일부 수이竪耳나 유이瘤耳가 붙은 관罐도 있는데 파수를 제외한 전체 형태는 치구관과 차이가 없다. 치구관의 형식은 대체적으로 유견有肩, 속경束頸, 대구大口의 3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별로 또 일부 변화가 있다.

A형은 견부가 있다. 기신의 최대경이 견부에 위치한다. 이 유형은 목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넓은 견부에서 흘러내리는 견부로 변화한다. 이 변화 순서에 따르면 우산禹山 M3560 출토 관은 양자 사이에 위치한다. 모두 4식으로 구분된다.

B형은 속경에 기신이 얇고 심복深腹이다. 이 유형은 경부와 복부 사이의 각도가 점차 작아지는 형태에서 견부가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고복의 정도가 증대되는 형태로 변화한다. 역시 4식으로 구분된다.

C형은 구경과 복경의 비율에 따라 다시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Ca형은 구경이 최대 복경과 비슷하다. 변화 양상은 복경과 비교할 때 구경이 점차 커지고, 최대 복경의 위치가 점차 위로 올라오며, 복부 하단의 좁아지는 양상이 둥근 형태에서 사선 형태로 변화한다. 이 유형은 이상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다시 5식으로 구분된다. Cb형은 구경이 복경보다 작다. Ca형 관의 변화 규칙을 참조하면 2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구관은 호壺로도 부른다. 전체 형태면에서 한위漢魏 시기 이래 동북의 기타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동일 유형 기형과 관련 있어 보인다. 형태의 변화는

많은 편이고,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대 복경이 점차 위쪽으로 이동하는 변화 추세를 보인다.

A형은 권연卷沿이고, 경부가 있다. 두 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Aa형은 아가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구연의 면적이 넓은 편이다. 다시 4식으로 구분된다. Ab형은 아가리가 약간 작고, 구연 면적이 좁은 편이다. 3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 M19 출토품, Ⅱ식은 우산 M3161:2, Ⅲ식은 안악安岳 3호묘 출토품이다.

B형은 영부領部가 낮고 경부는 없다.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Ba형은 견부가 가까이서 꺾이고, 심복이며 복부 하단은 비스듬한 직선이다. Bb형은 둥근 견부이고 복부는 납작하게 둥글다.

횡이호의 가로방향 파수 제작 기법은 동북 동부 지역의 비교적 오래된 전통으로, 고구려 토기 가운데 가로방향 파수가 있는 기종은 세로방향 파수가 있는 기종보다 확실히 발달되어 있다. 이 유형의 토기는 습관적으로 '호'라고 부르지만 형태 변화가 다양하고, 유도釉陶도 있다.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횡이호는 최대 복경이 점차 위쪽으로 올라가는 변화 추세를 보인다.

A형의 전체적인 형태는 관과 유사하다. 원복圓腹, 단경短頸이고 모두 4개의 파수가 있다. 다시 3식으로 구분된다.

B형은 호형壺形이고 다시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Ba형은 나팔 모양 구연이 비스듬히 벌어졌고 경부가 높다. 다시 6식으로 구분된다. Bb형은 모두 유도로 구연의 면적이 넓고 곡선으로 꺾이면서 경부를 형성한다. 다시 3식으로 구분된다.

횡이옹은 '관'으로도 불린다. 보통 크기가 크고 모두 두 개의 파수가 있다. 무덤 출토품은 적은 편이고 모두 도질이다. 3식으로 구분된다.

반盤은 일부 보고서에서 '분盆'으로 본 경우도 있다. 모두 유도이고 창구敞口이며 복부는 얕다. 3식으로 구분된다.

증은 분형盆形으로 부와 함께 사용되었다. 다수가 유도이고 3식으로 구분된다.

조는 출토 수량이 많지 않고 모두 유도이며, 유도 횡이호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다. 중원 지역 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이 측면에 있다는 점이다. 마선구麻線溝 M1과 삼실총三室塚의 연대 순서에 근거하면 문의 위치가 점차 높은 쪽으로 올라가고, 구멍이 방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를 근거로 4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 토기가 단계별 유적 속에 공반되는 관계를 살펴보면 시기별 고구려 토기의 조합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기 구분 연구도 가능해진다.

전체적인 토기 스타일의 연속성, 단계성 변화에 근거하면 아홉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그룹은 늦어도 동한東漢 조기 단계일 것으로 보이며, 제9그룹의 시기는 고구려 후기에 해당한다. 즉 제1, 2그룹은 1기, 제3, 4그룹이 2기, 제5, 6그룹이 3기, 제7, 8, 9그룹이 제4기이다.

유물에서 반영되는 특징에 근거하면 각 시기의 연대는 다음과 같다.

제1기는 치구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토기 형태가 비교적 소박하고 정교하지 않으며, 협사도가 일정 비율을 점하고 있다. 중원 북방 지역에서 위진魏晉 시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소구광견관小口廣肩罐이 발견되지 않았고, 공반 금속기는 기타 지역에서 모두 양한兩漢 시기에 유행했다. 따라서 연대는 양한 시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에 일부는 고구려 건국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기는 역시 치구관이 주를 이루나 소구관의 수량도 상당 비율을 점한다. 중원 북방 지역에서 위진 시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소구광견관이 이미 다수 확인되었다. 추릉리楸陵里 전실묘의 기년 등에 근거하면 그 연대는 조위曹魏에서 서진西晉 시기까지로 보인다.

제3기는 유도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사횡이호四橫耳壺가 주요 기종이 되었다. 또한 조竈 및 부속된 부, 증이 함께 부장되기 시작했다. 안악安岳 3호묘의 기년 등에 근거하면 연대는 대략 동진東晉 시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4기에는 유도가 이미 주도적 지위를 점했고, 치구관과 소구관은 수량이 적어졌으며 사횡이호의 형태 변화가 복잡하며 일부 유도도 새로 등장했다. 신라 호우총壺衧塚, 금관총金冠塚의 연대에 근거하면 제4기의 연대는 북조北朝 시기에 상응할 것이고 하한은 고구려 말기까지 갈 것이다.

2기와 3기 사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도기의 광범위한 유행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도기는 대부분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따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단계별 유적 사이에는 등급과 성격 차이에 따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차이에 따른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시간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차이는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乔梁, 1999, 「高句丽陶器的编年与分期」, 『北方文物』4, 22–34.

안악 3호묘 벽화(묘주) ⓒ김광섭

05 기타

리러잉	고대 고구려 인장印章 문화 탐구—중원 인장 문화와의 비교	170-171
쉬더위안	집안集安 박물관 소장 고구려 인장印章 및 문자 해석	172-173
쑤펑리	고고학의 시각으로 본 고구려 복식	174-175
쑨진화	고구려인의 복식용 옷감을 통해 본 백두산 지역 자연 자원의 개발과 이용	176-177
왕춘신	고구려 복식 고찰	178-179
우자창	동수묘冬壽墓 벽화 속 악기 및 관련 문제	180-181
정춘잉	장천長川 1호 벽화에서 보이는 고구려 복식 연구	182-183
정춘잉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두발 양식 연구	184-186
정춘잉	고구려 벽화묘에 보이는 관모冠帽 연구	187-187
정춘잉	고구려 '절풍折風' 연구	188-189
판펑	고구려 벽화 인물 관모[首服]의 식별과 연구	190-192

저 자 리러잉李乐莹
통화사범학원 역사학과
연 도 2001
간행물명 『장춘사범학원학보』1
『长春师范学院学报』1

고대 고구려 인장印章 문화 탐구 –중원 인장 문화와의 비교

古代高句丽印章文化探析 —兼与中原印章文化比较

주 제 어 인장 문화
관인 제도
사인
문화 내용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인장印章은 총 5개로, 1962년 집안현輯安縣 대상향臺上鄉 동명촌東明村에서 출토된 쌍면인雙面印('□천여랑고인椄天如郎古印–계해년정월중癸亥年正月中'인)이 있고, 1949년 이전 집안에서 출토된 '진고구려솔선읍장晉高句麗率善邑長'인, 1940년 전후 집안에서 출토된 '진고구려솔선백장晉高句麗率善佰長'인, 또 『집고관인고증集古官印考證』에 실린 '진고구려솔선천장晉高句麗率善仟長'인과 '진고구려솔선백장'인 등이 있다.

인장은 상주商周 시기에 등장하여 춘추전국春秋戰國 이후로 널리 유행했다. 고구려의 이런 장방형에 구멍이 뚫린 사인私印은 전국戰國, 진한秦漢 시기에 유행했다. 전국, 진秦 시기 쌍면인의 구멍은 다수가 방형이나, 고구려 사인은 작은 원형이다. 대부분 쌍면인의 한쪽은 이름, 다른 한 쪽은 자字, 길상어, 혹은 형상을 새긴다. 양면에 모두 길상어나 형상을 새긴 경우도 있다. 고구려 쌍면인은 한쪽에 이름과 호, 반대쪽에 연월을 새긴 비교적 특수한 형태로, 부장용 인장일 가능성도 있다. 전국, 진의 인장에는 인면에 경계선이 있으나 서한西漢 문경文景 시기 이후 점차 사라진다. 대부분 '전田', '일日' 모양의 경계선이나, 고구려 인장은 좌우에 세 칸씩 총 6칸의 경계선이 있다. 고구려 호태왕비好太王碑와 염모총冉牟塚 묘지, 또 일부 명문 전돌에도 모두 경계선이 있다. 이처럼 인장에 경계선을 긋는 것은 당시 일종의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크기 면에서 전국, 진한의 사인은 보통 모두 작고, 관인官印도 그다지 크지 않다가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오면 약간 커지는 모습이 보인다. 4㎝가 넘어가는 고구려의 이런 사인은 분명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 사인의 서체는 예서에 가깝다.

관인은 정권의 권리를 상징하고 이 권리의 행사를 의미한다. 또 등급의 차이에 따라 관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먼저 사용된 재료에 차이가 있었다. 이전에는 사실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

나 한漢 이후로 옥은 황제의 전용품이 되었다. 금인金印은 황실, 귀족, 고위 관리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은인銀印은 양한兩漢 시기 관질官秩이 2천석 이상인 관리만 쓸 수 있었다. 동인銅印은 중하급 관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고구려 관인은 모두 동인으로 역시 중하급 관리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장을 묶는 끈을 수綬라고 한다. 상이한 재질의 관인에 상이한 색상의 수가 결합되면 관직의 고하, 지위의 차이가 드러난다. '인수印綬'는 보통 견직물이라 쉽게 부패되어 실물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고구려 관인에도 분명 '인수'가 있었을 것이다.

인장의 형태를 보면, 사인은 엄격한 규정이 없어 각종 형태가 다 등장하나, 관인은 대부분 방형이고, 크기도 규정되어 있었다.

진대秦代 인장의 서체는 소전小篆 위주였고, 양한 이후 남북조까지는 소전의 기초 위에 굵기의 변화 및 모가 나거나 둥글어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모두 음각으로 새겼다. 고구려 관인은 음각의 전서체이다. 한위漢魏 이래 중앙 왕조에서 하사하는 인장에는 먼저 중앙 왕조의 명칭을 쓰고, 그 뒤에 명칭과 '귀의歸義', '솔선率善' 등을 썼다. 진晉에서 고구려에 하사한 관인 역시 이와 동일하다.

인장은 정보의 전달과 교류를 위한 특수 부호를 기록한 물건으로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의 감정, 사상이 스며들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상 관념이 축적되게 되었다.

관인은 그 자체로 권력 획득과 행사의 정당성, 신성성을 보장하는 근거였다. 어떤 관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인장에 표시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구려 입장에서 관인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인장의 일부 장식은 또 상당한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의 신분,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특히 덕행 등의 다양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인장 문화로 대표되는 중화 문화는 주변 민족에게 광범위하면서도 깊은 영향을 주었고, 고구려 역시 중원 문화를 주동적, 피동적으로 흡수했다.

李乐莹, 2001, 「古代高句丽印章文化探析—兼与中原印章文化比较」, 『长春师范学院学报』1, 31–33.

저 자 쉬더위안徐德源
요령대학

연 도 2004
간행물명 『박물관연구』3
『博物馆研究』3

집안集安 박물관 소장 고구려 인장印章 및 문자 해석

集安博物馆藏高句丽印及印文考释

그 림
1. 집안 박물관 소장 고구려 인장 정면 탁본
2. 집안 박물관 소장 고구려 인장 배면 탁본
3. 호태왕비 제1면 제1행 소장처별 탁본(상단)
4. 호태왕비 제1면 제1, 2행 소장처별 탁본(하단)

집안集安 박물관 '고구려 인장印章'의 문자는 좌우 두 줄에 각각 3자씩이고 학계에서는 그중 3자가 '천여랑天如郎'이라 밝혔다. 그러나 고구려 지명 가운데 '부여군夫如郡'이라는 곳이 있어 그 연관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37 잡지雜志제6 지리4의 '고구려'조에는 부여군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47에는 금화현金化縣이 고구려의 부여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길림성지吉林省志』권43 '문물지'에서는 "잔천여랑인栈天如郎印이 1962년 집안현輯安縣 대상향臺上鄕 동명촌東明村에서 출토되었고 4~5세기 고구려인의 개인 도장이며, 양쪽으로 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양면에 글자를 새겼다. 각 면에는 모두 6자씩 새겼는데, 정면은 '栈天如郎固甲'이고 배면은 '癸亥(필자는 미未로 판독)年正月中'이다. 서체는 호태왕비好太王碑의 서체와 유사하다. 이 인장은 크기가 큰 편이고 주조 공예가 조잡하여 기공도 많다. 또한 각공 기술도 투박하고 중원 인장의 글자 순서와도 다르다. 이는 고구려인이 주조한 것으로 '잔천여랑栈天如郎'은 고구려 지방관직 명칭으로 보인다. 마지막 두 글자는 '고인古印'으로 추정된다. 이런 방식은 무덤 부장용 인장으로 적합하며, 363~433년 사이의 고구려인이 제조한 부장용 청동 인장일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길림현 문물지吉林縣文物志』(1984년판)에도 『길림성지』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 '계해년'의 실제 시기에 대해서는 동진東晉 흥녕興寧 원년(363), 유송劉宋 경평景平 원년(423), 남제南齊 영명永明 원년(483)이 비교적 근사치에 가깝다고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이 설명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정면 제2자가 '천天'자인가, '부夫'자인가 이다. 호태왕비好太王碑 제1면 '출자부여천제지자出自夫餘天帝之子'의 '천天', '부夫'와 인장의 제2자를 비교하면, 인장의 제2자는 상단의 두 가로 획

위로 약간 획이 올라온 모습이 보여 '천'자보다는 샤반느Edouard Chavannes 소장본의 '부'자와 더 비슷해 보인다. 또 호태왕비의 '모하백녀낭母河泊女郎'의 '낭郎'자와 인장 좌측 제1자를 비교하면 우부방의 필획과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좌측의 '양良' 역시 하단부 모양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필자는 좌측 제1자 역시 '낭'이 아니라 '군郡'으로 추정한다. 즉 '천여랑天如郎'이 아니라 '부여군夫如郡'인 것이다. 둘째, 『길림성지』에서는 '잔천여랑'을 고구려 지방관 직명이라 추정했으나, 고구려 관련 사서에 등장하는 관직 중 끝에 '랑'이 붙는 관직은 없다. 셋째, 같은 책에서 인장 좌측 제2, 3자를 '고인古印'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인장에는 제2자가 'ㄴ' 위에 '고古'가 있는 모양이라 이를 '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는 배면의 좌측 제3자와 거의 동일하다. 필자는 이 두 글자를 '고중固中'으로 보아야 하고, '안에 봉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인장의 좌측 2자가 '고固'자보다 필획이 부족한 것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누군가 봉인을 위조하여 창고 문을 봉인했을 때 진품 봉인과의 차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고의로 필획을 생략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 인장을 고구려인의 개인 인장이라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덤 부장용으로 제작했다는 결론 역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위의 두 책에서는 이 인장이 발견된 곳에 고구려 무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무덤이 없다면, 이를 부장품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 인장이 봉인하는 용도의 도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정면 우측 제1자는 '잔棧'자의 약자이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뜻이 '붕棚'이라 했다. 원래 고구려의 창고는 몇 개의 '잔'(붕)이 나뉘어 있어 각 군에서 바친 공납물품을 나누어 보관했고, 숫자가 다 차면 봉니封泥로 문을 봉하고 각 군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으로 봉인했다. 집안 박물관에 소장된 고구려 인장의 용도가 바로 이것이다.

부여군이 존재했던 시기의 계해년癸亥年은 바로 소수림왕小獸林王 13년(383)이다. 당시 고구려는 국가 창고를 다시 국내성에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선왕인 고국원왕故國原王은 41년(371)에 백제의 평양성平壤城 공격 당시 화살에 맞아 사망했다. 그 뒤 재위에 오른 소수림왕이 계속 평양에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다시 국내성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연히 국가 창고 역시 왕을 따라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인장을 주조해서 창고 속 부여군의 '잔'을 봉인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徐德源, 2004, 「集安博物馆藏高句丽印及印文考释」, 『博物馆研究』3, 65–70.

저 자 쑤펑리苏鹏力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12
간행물명 『동북사지』4
『东北史地』4

고고학의 시각으로 본 고구려 복식

考古学视角下的高句丽服装

주 제 어 고고학의 시각
고구려
복식

집안시集安市와 북한 평안남도平安南道 및 황해남북도黃海南北道에서는 현재까지 약 80여 기의 고구려 벽화묘가 발견되었다. 벽화의 주제는 현실 생활을 반영하는 것과 신령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중 현실 생활을 반영하는 벽화는 고구려 토착민의 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4세기 중기에서 5세기 말기의 고구려 벽화묘로는 각저총角觝塚, 무용총舞踊塚, 삼실총三室塚, 장천長川 1호묘, 안악安岳 3호묘, 덕흥리德興里 벽화묘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집안 지역 벽화묘 속 인물의 복식은 남자의 경우 신분, 직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위에는 앞섶이 교차되고 비스듬한 옷깃으로 몸을 가린 짧은 옷을 입고, 옷섶은 가슴 앞에 위치한다. 옷소매는 좁고, 허리에는 요대를 묶었으며 하반신에는 위는 넓고 발목은 딱 붙는 바지를 입었다. 여성은 일부 남성과 동일한 복식도 있으나 대부분은 긴 상의와 긴 치마를 입고 있다. 긴 상의는 옷섶이 교차되며 비스듬한 옷깃은 가슴 앞에 위치한다. 허리에는 천 허리띠를 둘러 바람을 따라 펄럭인다. 여성 복식의 옷섶 위치는 남성 복식과 동일하나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 치마의 반을 덮고 남성의 복식은 짧아서 엉덩이 부분까지만 내려온다. 남녀를 불문하고 소매 끝, 옷섶, 밑단에는 옷의 주요 색상과 다른 색깔로 장식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평양 지역 고구려 벽화묘의 상황은 집안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안악 3호묘 묘주 부부의 복식은 완전히 한족화되어 있어, 넉넉한 크기의 옷에 큰 띠를 두르고 있다. 이는 요양遼陽 지역 위진魏晉 시기 벽화묘 속 묘주의 복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종의 복식은 집안 지역과 동일하다. 덕흥리 벽화묘 역시 마찬가지다.

각저총, 무용총, 삼실총, 안악 3호묘에 비해서 4세기에서 5세기 말의 고구려 복식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벽화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장천 1호묘이다.

그 림 1. 고구려 복식 관련 벽화

장천 1호묘에서는 일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예불도, 수렵도, 씨름도 등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은 대부분 짧은 상의, 긴 바지에 허리띠를 둘렀고, 여성은 긴 상의에 긴 치마, 그리고 천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남자와 같은 옷의 여성도 있다.

그러나 평양 부근에서 발견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수산리水山里 벽화묘 속 인물의 복식은 전술한 시기 집안 지역 벽화묘 속 인물 복식과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묘주 복식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시종의 복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 시기 여성의 상의는 더 짧아졌다. 이는 수산리 벽화묘 출행도에서 확인된다. 묘주 복식의 변화는 중원 문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동시기 중원 왕조 귀족의 복식과 완전히 동일하다. 여성 시종의 상의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정도로 짧아져 남성 상의의 길이와 비슷해졌고, 화려한 긴 치마가 돋보인다. 그러나 여성 복식에 길이의 변화는 있지만,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여전히 교차되는 옷섶에, 옷깃은 정면 앞에 놓여있고 천으로 된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소매 끝과 옷섶은 역시 다른 색깔로 장식했다. 남성의 복식은 이전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

벽화 속 인물의 복식은 문헌 속에서 '여성은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고, 옷 가장자리에 상이한 색상을 장식했다'는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귀족의 복식은 나날이 한족화되어갔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시기 복식은 크게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상층 귀족에서 유행한 복식으로 한漢 문화에서 기원했고, 한나라 시기부터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전통 복식으로 고구려 복식의 주체이다. 전통 복식은 또 상의와 바지의 조합, 상의와 치마의 조합으로 구분된다. 고구려 전통 복식의 탄생과 발전은 그들이 거주하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한 결과이다.

苏鹏力, 2012,「考古学视角下的高句丽服装」,『东北史地』4, 18–20.

저 자 쑨진화孙金花
통화사범학원 역사지리학과
연 도 2007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9
『通化师范学院学报』9

고구려인의 복식용 옷감을 통해 본 백두산 지역 자연 자원의 개발과 이용

从高句丽人服饰面料看其对长白山区自然资源的开发与利用

주 제 어 고구려
복식용 옷감
백두산
자연자원

지원사업 길림성 교육청 과학연구 항목 '고구려인의 백두산 지역 자연 자원 개발과 이용 상황[高句麗人對長白山區自然資源的開發與利用情況]'(2004027)

문헌기록을 종합하면, 고구려인이 복식에 사용한 옷감은 비단[錦], 수繡, 포布, 백帛, 피皮, 혁革, 라羅 등이고, 또 금金, 은銀, 새 깃털 등은 장식용으로 사용했다. 이상 기록은 고고 발견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고구려 벽화의 주요 제재는 사회생활, 장식도안, 사신으로 구분된다. 북한 황해남도黃海南道 안악군安岳郡 오국리五局里에 위치한 안악安岳 3호묘의 육고도肉庫圖에는 털과 가죽이 벗겨진 가축이 걸려있다. 한국의 박선희朴仙姬는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복식 문화」에서 '부위별로 해체하기 전에 동물의 털과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 털과 가죽을 옷감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안악 3호묘 전실 서측실 서벽과 덕흥리德興里 벽화묘 전실 북벽 서측에는 모두 가장자리에 견직물이 더해진 모자를 쓴 묘주 인물상이 있다.

1970년 장천長川 1호묘에서는 목관 잔편이 발견되었는데, 표면에 삼베를 덮고 겉에 칠을 바른 후 문양을 그렸다. 장천 2호묘 남쪽 관상棺床 서북쪽 모서리에서는 길이 23㎝의 비단[錦] 잔편도 발견되었다. 그 외에 기타 방직과 관련된 출토 유물 역시 고구려에 방직업이 존재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중 하나는 토제 방추차로 집안集安, 통화通化, 백산白山 등 압록강鴨綠江 연안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토제 방추차의 보편적인 사용은 고구려 민족의 선조들이 이미 원시적인 방직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문전와布紋塼瓦 역시 방직과 관련된 증거물이다. 고구려의 전돌과 기와는 집안의 여러 건축물 유적과 무덤 구역에서 모두 발견되었는데, 기와편 내측에 포문이 있고 전돌도 한쪽 면에 포문이 있다. 이런 포문은 삼베의 흔적이다.

이상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종합하고, 또 장식용 금, 은, 깃털까지 옷감으로 포함시킨다면 고구려인이 복식에 사용한 재료는 모피, 사絲, 마麻, 면棉, 광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려기高麗記』에는 고구려인이 면직물인 '백첩포

白疊布'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고구려 시기에는 아직 면화가 고구려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 외에 그들이 옷감으로 사용한 기타 모피, 실, 삼베, 광물 등은 고구려인의 백두산 지역 동식물 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구려인 복식의 특징 중 하나로 사람들이 모두 가죽 모자를 썼고 가죽 신발을 신었으며 새 깃털을 꽂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원의 복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 민족이 거주한 지역의 자연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백두산 노령산맥老嶺山脈 및 압록강 연안에 위치한 고구려는 겨울이 길고 추우며 눈바람이 심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생산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죽 모자, 가죽 옷으로 추위에 대항해야 했다. 게다가 백두산 지역은 이런 가죽 자원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여 고구려인들은 이를 옷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주로 수렵을 통해 가죽을 공급했다. 사냥한 동물은 식용으로 쓰고 가죽은 옷감으로 사용했다. 후에 농업이 발전하면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도 많아져 말, 소, 양, 돼지, 개, 닭 등도 역시 옷감의 공급처가 되었다.

백두산 지역에는 작목柞木과 뽕나무가 많아 양잠에 유리했으며, 이는 고구려인의 견직물 생산에 기초가 되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저마苧麻를 심어 삼베천을 짜는데도 사용했다. 고구려의 곡민谷民은 이렇게 생산한 견직물과 삼베를 직접 사용하는 동시에 세금으로 냈다. 『수서隋書』에는 고구려인들이 포布 5필과 식량 5석을 세금으로 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직까지 고구려인의 야금冶金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철촉과 정교하고 특색 있는 금 장식, 금으로 도금된 화려한 마구馬具 및 벽화에서 보이는 여러 관련 정보에 근거하면 고구려는 이미 자체적인 야금과 금속 공구 제조업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인의 복식에 장식된 금은 장식물은 바로 이러한 고구려인의 야금 기술을 통해 제작되었을 것이다.

孙金花, 2007, 「从高句丽人服饰面料看其对长白山区自然资源的开发与利用」, 『通化师范学院学报』9, 7–9.

저 자 왕춘신王純信
연 도 1997
간행물명 『통화사범학원학보』3
『通化师范学院学报』3

고구려 복식 고찰

高句丽服饰考略

그 림 1. 국왕의 복식
2. 모자 위에 꽂은 깃털, 소매가 넓은 저고리
3. 가선한 의복
4. 자수를 놓은 복식
5. 금동정혜

『위서魏書』「고구려전」에 따르면 고구려인은 포백布帛과 피皮로 옷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에 이미 방직업이 존재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하지만 당시의 방직품은 남아있는 실물이 없어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출토된 기타 유물 중에서 이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다. 첫째는 집안集安, 통화通化, 혼강渾江 등 압록강鴨綠江 연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 혹은 조기철기 시대의 토제 방추차이다. 이는 고구려 민족의 선인들이 이미 원시적인 방직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포문布紋전와塼瓦이다. 전돌과 기와에서 확인되는 포문은 마포麻布를 붙인 흔적으로, 당시 마포가 이미 의복뿐만 아니라 수공업 생산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구려의 복식은 사서의 기록과 묘실 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신분에 따라 상이한 의복을 입었다. 『신당서新唐書』에 따르면, 국왕의 복식은 다섯 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었고, 모자는 백라白纚, 대구帶扣는 금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관리는 등급에 따라 복식이 달랐고, 모자도 색상이 달랐으며 깃털을 꽂았다. 또 화려한 자수가 들어간 옷을 입었으며 소매와 바지통이 넓고, 겨울에는 가죽옷을 입었다. 신발도 가죽으로 만들었고, 옷, 모자, 요대 등에 모두 금은으로 제작한 장식을 달았다. 일반 백성은 동물의 털이나 가죽 혹은 거친 마포로 만든 옷을 입었고, 자수 장식은 없다. 상의는 소매가 넓고, 모자를 썼으며 역시 가죽으로 제작한 신발을 신었다. 부녀자의 복식은 짧은 상의에 긴 치마이고 색은 넣지 않았으나 깃, 섶, 끝동, 소매 등 옷의 가장자리에 가선加襈한 특징이 있다.

고구려 의복의 색상, 장식, 양식 등을 보면 그 제작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 제작에 사용되는 도구인 가위와 바늘을 통해서 확인된다.

고구려 무덤 벽화에는 또 다양한 종류의 복식이 등장한다. 이런 벽화 속 계층별, 성별 인물의 복식은 사서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왕의 복식은 다섯 가지 색상이고, 의복에 모두 금수錦繡를 했다는 기록에서 고구려 복식의 자수 수준 역시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중원은 은상殷商 시기에 이미 비단이 생산되었다. 은상의 문화는 기자箕子를 통해 고조선에 전해졌고 자연히 당시의 방직기술도 전래되어 고구려 방직의 기초가 되었다. 게다가 고구려는 중원 여러 왕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왕래도 빈번했다. 그래서 중원의 복식은 쉽게 고구려에 전해질 수 있었다. 특히 수隋나라의 복식은 고구려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고구려 복식의 소매가 넓은 저고리, 통이 넓은 바지통 가죽 요대와 가죽 신발, 그리고 부녀자 복식의 가선과 같은 특징은 수대隋代 복식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다. 당대唐代는 호복胡服이 한족漢族 복식에 큰 영향을 주던 시기였다. 이는 고구려에도 영향을 주어, 관리와 평민들이 이를 모방했다.

고구려 복식은 중원 문화의 영향을 계승한 동시에 확실한 민족적, 풍속적, 지역적 특색도 형성하였다. 산간계곡이 많은 곳에서 거주했던 고구려인들은 겨울철이 길고 추웠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환경적 조건 하에서 생존해야 했던 고구려인들은 자연히 겨울철에는 가죽 모자에 가죽 옷을 입어야 했다. 이 지역에는 야생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죽을 구하는 것이 용이했고, 그래서 내구성, 내한성이 좋은 가죽 신발까지 만들어 신었다. 모자에 깃털을 다는 것은 미적 감각을 뽐내는 장식인 동시에 분명한 민족적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고구려의 수렵과 농경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 민족의 복식 문화는 찬란한 고구려 문화의 중요 구성 부분이고, 주변 여러 민족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특색이 드러나고 있다.

王纯信, 1997,「高句丽服饰考略」,『通化师范学院学报』3, 72–76.

저 자 우자창武家昌
요령성遼寧省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06
간행물명 『박물관연구』1
『博物馆研究』1

동수묘冬壽墓 벽화 속 악기 및 관련 문제

冬寿墓壁画中的乐器及相关问题

그 림 1. 동수묘 벽화 속 악기
1) 호각 부는 인물(『문화유산』 1957년 제1기, 49쪽)
2) 북 치는 인물(『문화유산』 1957년 제1기, 49쪽)
3) 출행도(『문화유산』 1957년 제1기, 58쪽)
4) 무악도(『문화유산』 1957년 제1기, 49쪽)
2. 동수 출행도(『문화유산』 1957년 제1기, 53쪽)

동수묘冬壽墓는 1949년 북한의 황해북도黃海北道 안악安岳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기 대형 벽화묘이다.

동수묘 벽화의 다양한 내용 가운데에는 악기 도안이 있는데, 먼저 출행도(『문화유산』 1957년 제1기 53쪽)에는 향도의 뒤로 종고鍾鼓를 들고 있는 악대가 이어진다. 악대는 모두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중 두 그룹은 서로 유사하여 2인이 큰 북을 들고 있고, 북 위로 우산이 있으며 한 사람이 옆에서 북채를 들고 북을 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우측의 다른 도안은 2인이 종을 들고 종 위에는 역시 우산이 있으며 옆에 있는 1인이 종을 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세 그룹은 대열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출행도 뒤쪽 호위무사와 의장대 후면 좌측 아래에는 말을 탄 악대가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사람이 말을 타고 있고 말 앞에는 말을 끄는 1인이 있으며 말 머리 뒤편 위쪽으로 건고建鼓가 놓여 있다. 건고 위로 우보羽葆가 있 있고 이 건고 아래로 소고小鼓 하나가 있다. 말을 탄 사람은 손에 북채를 들고 열심히 북을 치는 모습이다. 좌측의 두 번째 사람도 말을 타고 있고, 두 손으로 배소排簫을 잡아 입가에 대고 있는데 얼굴에서 열심히 불어대는 모습이 보인다. 좌측 세 번째 사람 역시 말을 타고 있고, 두 손으로는 횡적橫笛을 들고 부는 모습이다. 횡적 위에 2개의 꿩 깃털이 있다. 좌측 네 번째 사람도 말을 타고 있고 우측 손엔 동요銅鐃 좌측 손엔 채를 들고 두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출행도(『문화유산』 1957년 제1기 58쪽)에는 두 사람이 악기를 들고 있다. 그 중 앞쪽 1인은 허리에 북을 찬 채 왼 손으로 북을 치고 있다. 그 뒤의 1인은 두 손으로 호각胡角을 들고 걸어가며 불고 있다.

다른 무악도에서는 더 많은 악기를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악대로 무희의 춤에 반주를 하고 있다. 좌측 첫 번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슬

瑟을 다리 위에 얹었다. 두 번째 사람도 무릎을 꿇고 가슴 앞에 완함阮咸을 놓았다. 세 번째 사람은 장수적長竪笛을 들고 있다.

또 다른 그림은 북 치는 사람이라 불리는 그림이다. 4인이 나란히 서 있고 전면에 건고가 서 있다. 이 북 아래에는 작은 구형 물체가 있는데 이는 소고로 응고應鼓라 불린다.

이상과 같이 동수묘 벽화 속에 등장하는 악기는 대체적으로 고鼓, 종鍾, 적笛, 요鐃, 슬瑟, 완함阮咸, 배소排簫, 호각胡角 등 몇 종류이고, 이는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고고자료를 통해서도 일찍부터 중원에서 유행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동수묘 벽화에 그려진 악기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고대 악기를 계승한 것으로 이는 동수묘의 묘주 확인에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수묘 벽화 속의 대고大鼓에 딸린 소고(즉 응고)는 중원의 진대晉代에 유행하기 시작한 형식이고, 소簫, 적 등도 한위漢魏 시기 이래 중원 지역 악대에서 빠질 수 없는 악기였다. 또한 슬은 칠현금七絃琴이라고도 부르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칠현금은 진晉 이후에 고구려에 전해졌다. 그리고 벽화에 나오는 악기는 모두 중국 고대 관리들이 사용하던 악기인데, 이는 벽화를 그린 화가가 중국의 고대 악기에 익숙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는 동수를 따라 함께 고구려에 정착한 중국의 화가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수는 생전에 연燕나라의 관리였다가 후에 고구려에 투항하여 고구려 땅에 거주했다. 따라서 동수의 생활 습관과 오락 방식은 당연히 중원의 형식을 유지했을 것이고, 벽화 속에 표현된 내용도 그 현실 생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출행도에 보이는 향도, 의장, 악대 등이 모두 한위 시기 관리의 출행 규모와 유사하여, 이 무덤의 주인이 생전에 중원 왕조의 관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벽면의 묵서는 더욱이 이 무덤이 동수의 무덤임을 증명하고 있다.

비록 동수묘의 발견 이후 학계에서는 묘주를 둘러싼 여러 이견들이 있었으나 필자는 벽화에 등장하는 악기, 벽화의 제재, 묵서의 내용 등에 근거했을 때 안악 3호묘의 묘주가 동수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武家昌, 2006, 「冬寿墓壁画中的乐器及相关问题」, 『博物馆研究』1, 41–52.

저 자 정춘잉郑春颖
장춘사범학원
연 도 2009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8집
『边疆考古研究』8辑

장천長川 1호 벽화에서 보이는 고구려 복식 연구

长川一号壁画中所见高句丽服饰研究

그 림 1. 두발 모양
2. 두부 복식
3. 짧은 저고리에 바지, 긴 저고리에 치마, 신발

장천長川 1호묘는 봉토석축쌍실묘封土石築雙室墓로 전실과 후실의 네 벽, 천장, 용도甬道 양쪽 벽, 석문 정면, 관상棺床 표면에 모두 채색된 벽화가 있다. 벽화 속 인물은 10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두발 모양, 모자, 옷, 장식 등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복식의 양식, 형태, 도안, 색상 등은 계층에 따른 차별성이 있으나 매우 엄격한 상황은 아니었다. 남자 묘주는 벽화에 모두 3차례 등장하는데, 북벽에 원숭이 곡예도에서는 백색 바탕에 흑색 십자 문양이 있는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고, 남벽의 가무도에서는 머리는 훼손되었고 흑색에 가선加襈을 두른 짧은 저고리, 백색 바탕에 흑색 점이 있는 통이 넓은 바지를 입었으며, 동벽의 예불도에서는 상투, 흑색 바탕에 홍색 점이 있는 짧은 저고리, 백색 바탕에 흑색 십자가 있는 통이 넓은 바지, 높이가 낮고 전면이 방형인 신발을 신었다. 남벽과 동벽 묘주인상의 복식 조합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다. 흰색 바탕에 십자 문양이 있는 통이 넓은 바지는 남벽의 음식을 올리는 남자 시종, 북벽 좌측 중앙의 기마인, 동벽의 공양인 등도 동일하게 입었고, 흑색의 짧은 저고리는 동벽의 공양인도 입고 있으며, 백색 바탕에 흑색 점이 있는 통이 넓은 바지는 시립한 남자 시종, 음식을 올리는 남자 시종, 무용수 등도 입고 있다. 그리고 높이가 낮고 전면이 방형인 신발은 당시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유행하던 양식이다.

여자 묘주는 2차례 등장하는데, 남벽 가무도에서 확인되는 묘주는 백색에 좌측으로 옷깃을 여민 긴 저고리에 흑색 견피肩帔를 입고 있다. 이 복장은 북벽에 무릎을 꿇은 탄금녀彈琴女와 동일하다. 동벽의 예불도 속 여주인은 평평하게 쪽진 머리[平髻]에 좌측으로 옷깃을 여민 백색의 짧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흑색의 견피를 두르고 있다. 이러한 조합은 벽화 속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그러

나 평평하게 쪽진 두발 모양은 남벽에 시립한 시녀, 용도 북벽의 시녀, 여성 공양인 등도 동일하다. 백색의 긴 저고리를 입은 여성은 남벽에 시립한 시녀가 있고, 흑색 견피를 두른 여성은 북벽의 여자 연기자, 동벽의 여성 공양인도 있다.

장천 1호묘는 무덤의 규모와 격식으로 볼 때 묘주의 품계가 최소 고구려 '대형大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 남녀 묘주의 복식은 고구려 고급 귀족계층의 복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벽화 속 인물들의 두발 양식이나 복식이 묘주와 동일하다는 점은, 이 시기 고구려의 복식에 아직은 엄격한 정치적 등급제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장천 1호묘에 묘사된 여성의 복식에는 한漢 문화 영향이 깊게 스며있다. 여성의 두발 양식 가운데 뒤에서 묶어 늘어뜨린 양식[垂髻], 귀밑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린 양식[鬏鬢] 등은 모두 한나라 부녀의 두발 양식과 유사하며, 긴 저고리는 한나라의 직거포直裾袍와 비슷하다. 남성 복식은 여성 복식에 비해 한나라의 영향이 적은 편이다. 남성의 관모 중 절풍折風과 골소骨蘇는 비록 사료 상에서는 이를 변弁, 책幘과 함께 거론했지만 그 차이는 명확하다. 남성이 착용한 짧은 저고리와 바지는 한나라 남성의 전통 포복袍服,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 유행한 고습褲褶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남녀의 복식이 외래 문화의 복식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고구려 복식에 '남존여비' 현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존 현상으로 인해 남성 복식은 정치적 등급성이 중시되었고, 또한 복식 제도 규정이 엄격하여, 외래 문화 요소의 영향을 적게 받았지만, 여성은 여비 현상으로 인해 형식면에서 강제성이 약해져 다른 문화의 요소를 더 많이 받게 되었거나 혹은 외래 환경의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벽화의 주제는 가무, 연회, 곡예, 사냥, 예불 등으로 다양하고 이는 묘주의 현실 생활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사회 활동 속에 등장하는 묘주를 포함한 각 유형의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이, 남성은 모두 짧은 저고리에 바지, 여성은 짧은 저고리에 바지나 긴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있다. 이는 고구려 복식 양식에 의례에 따른 차별성이 없어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일상복의 구분이 크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벽화에 묘사된 두발 양식, 두부頭部 복식, 복장, 신발은 독립된 개체로 볼 때 한족漢族, 선비족鮮卑族 등의 복식과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들의 조합 면에서는 선명한 고구려 민족의 풍모도 보여주고 있다.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드러나는 유사성은, 일부는 각 민족 복식 문화가 교류를 가졌던 결과일 것이고, 또 일부는 우연 속의 필연일 것이다. 복식의 기능은 고정되어 있고, 제작 공예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상이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형식면에서 유사한 점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郑春颖, 2009, 「长川一号壁画中所见高句丽服饰研究」, 『边疆考古研究』8辑, 164–175.

저 자 정춘잉郑春颖
장춘사범대학 동북민족역사
및 문화연구중심

연 도 2013

간행물명 『변강고고연구』14집
『边疆考古研究』14辑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두발 양식 연구

高句丽壁画所见发式研究

지원사업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공모 항목(10&ZD085)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 청년 기금 항목(11YJC780006)
길림성 사회과학기금 항목 (2012B289)
길림성 교육청 '십이오十二五' 사회과학연구 항목(길교과문합자吉教科文合字[2012]제533호)
장춘사범학원 인문사회과학기금 항목(장사원사과합자長師院社科合字[2010]정政17호)

이 글에서는 자료가 공개된 117기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두발 형식이 명확한 인물 총 215명을 확정하여 이들 인물의 두발 형식 명칭을 확인하고 그 두발 형식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기초 위에 각 두발 형식의 사회문화 속성을 탐구하고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두발 형식의 전체 모습을 밝히려고 한다.

1. 피발披髮: 이는 피발被髮, 타발拖髮이라고도 부른다. 머리를 묶지도 않고 상투도 틀지 않은 채 뒤로 늘어뜨린 산발 형태이다.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앞머리, 윗머리, 일부 귀밑머리까지 뒤쪽으로 목 뒤와 어깨까지 늘어뜨린 두발 형식은 모두 산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2. 단발斷髮: 짧게 자른 머리이다.
3. 변발辮髮: 편발編髮이라고도 한다. 머리를 몇몇 묶음으로 나누어 땋거나 묶어 말꼬리처럼 뒤로 늘어뜨린 두발 형식이다.
4. 정계頂髻: 머리를 정수리 위로 모아 하나로 틀어 감아 맨 형태이다. 형태에 따라 2형으로 구분된다. A형은 전체적으로 원구형이고, 정수리 위나 혹은 이마 쪽, 정수리 뒤쪽으로 묶었다. B형은 상투 모양이 구형이 아니다.
5. 곤발髡髮: 머리의 일부분을 삭발하는 형태로, 삭발하는 위치에 따라 4형으로 나뉜다. A형은 정수리만 삭발한다. B형은 정수리만 남기고 주변은 삭발한다. C형은 정수리 중앙과 머리 좌측, 우측만 남기고 다른 부분은 삭발한다. D형은 이마부터 정수리 중앙까지를 삭발한다.
6. 수계垂髻: 머리를 뒤로 넘겨 끝부분을 묶는 형식이다.
7. 힐자계擷子髻: 힐자계纈子髻, 힐자계頡子紒라고도 부른다. 머리를 정수리에 모아 크게 쪽을 지고 그 양쪽으로 나머지 머리를 감아서 고리를 만든

후 쪽 지은 부분과 고리 모양 부분을 끈으로 묶는 형태이다.

8. 환계鬟髻: 계환髻鬟, 환계環髻라고도 부른다. 머리를 둥근 고리 모양으로 정리하는 형태이다. 고구려 벽화 속에는 고리가 하나인 것도 있고 많은 경우는 4~5개인 경우도 있다. 또한 고리가 정수리 중앙에 있기도 하고, 정수리 양쪽이나 뒤쪽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9. 반계盤髻: 머리를 묶어나 땋은 후 감아서 평평한 모양을 만든 후 두부에 바짝 붙이는 형태이다. 정수리에 평평하게 올려붙이는 형태는 반환계盤桓髻와 뒤쪽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붙이는 반관계反綰髻가 있다.
10. 쌍계雙髻: 정수리에 머리를 모아 양쪽으로 묶는 형태이다.
11. 운계雲髻: 정수리 위로 마치 구름처럼 높게 말아 올린 형태이다.
12. 화채대계花釵大髻: 본인의 머리나 가발을 섞어 정수리 위로 머리를 쌓아 올린 후 여러 개의 비녀를 꼽는 형태이다.
13. 불료생계不聊生髻: 산만하게 흐트러진 모양으로 쪽을 지은 형태이다.

이상 고구려 벽화 속 인물의 두발 형식에서 보이는 문화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성별의 차이성이다. 피발, 곤발, 정계 3종은 남녀 모두에서 보이나 남성이 더 많고, 단발과 변발은 모두 남성이다. 그 외의 두발 형식은 모두 여성이다. 둘째, 여성의 두발 형식에서 보이는 계급 차이는 남성에 비해 더 명확하다. 묘주는 두발을 노출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은 각종 관모冠帽를 썼다. 피발, 곤발, 정계, 변발한 남자는 다수가 시종이거나 공연을 하는 기인伎人들이다. 묘주 부인은 두 고리의 힐자계, 반계(반환계), 운계, 화채대계의 4종 두발 형식으로 확인되었고, 수계, 네 고리의 힐자계, 환계, 반계(반관계), 쌍계, 불료생계는 대부분 여관女官, 시녀 등이다. 남성은 관모로 신분 등급을 표시했고, 여성은 두발 형식이 어느 정도 신분 등급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셋째, 고구려 민족의 전통 두발 형식과 선비계鮮卑系, 한족계漢族系의 두발 형식이 공존했다. 남성 두발 형식 가운데 피발, 여성 두발 형식 가운데 반계, 수계는 고구려의 전통 형식이다. 곤발은 북방 유목민족에게서 흔히 보이는 형식이다. 힐자계, 쌍계, 환계, 운계, 화채대계, 불료생계는 한위육조漢魏六朝 시기 한족 여성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형식이다. 넷째, 집안集安과 평양平壤 두 지역 사이에 지역적 차별성이 드러난다. 집안 지역 고구려 벽화 속 두발 형식은 남자가 피발, 단발, 정계, 변발이고 여자는 주로 수계, 반계였다. 평양 지역 고구려 벽화 속 두발 형식은 남자가 곤발, 피발, 정계이고 여자는 힐자계, 운계, 화채대계, 환계, 쌍계, 불료생계이며 또 수계, 반계도 보인다. 집안 지역은 고구려 민족 전통 두발 형식이 시종 중심을 이루었는데 반해, 평양 지역은 한족계 두발 형식이 중심이었다가 여러 민족적 요소가 혼합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고구려 전통 형식이 중심이 되는 변화 과정을 거쳤다. 두 지역 두

그 림 1. 피발, 단발, 변발
1) 무용총 주실 좌벽 하부 좌측 7번 인물
2)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중부 방응인
3), 4) 무용총 주실 후벽 좌우 두 남자
5) 각저총 주실 후벽 좌측 1번 인물
6) 산성하 332호묘 용도 서벽 말 타는 사냥꾼
2. 정계
1)~4) A형(장천 1호묘 전실 동벽 천장 절하는 인물, 안악 3호묘 전실 동벽 좌측 씨름꾼, 덕흥리 벽화묘 후실 북벽 물건을 든 시녀, 약수리 벽화묘 전실 남벽 좌측 수문장)
5), 6) B형(각저총 주실 좌벽 씨름꾼, 무용총 주실 후벽 천장 좌측 씨름꾼)
3. 곤발
1), 2) A형(덕흥리 벽화묘 중간 통로 동벽 수레 옆 인물, 중간 통로 동벽 우측 소 끄는 인물)
3), 4) B형(덕흥리 벽화묘 중간 통로 동벽 좌측 소 끄는 인물, 후실 북벽 하부 4번 수건 든 인물)
5), 6) C형(덕흥리 벽화묘 전실 남벽 좌측 번을 든 인물, 후실 북벽 하부 수건 든 인물)
7) D형(덕흥리 벽화묘 후실 북벽 중부 소 끄는 인물)
4. 수계
1) 무용총 주실 좌벽 음식 올리는 시녀
2) 동암리 벽화묘 전실 시녀
3) 장천 1호묘 전실 북벽 수건 든 인물
4) 수산리 벽화묘 서벽 우산 든 시녀
5) 장천 1호묘 전실 천장 시녀
6) 장천 1호묘 북벽 화장한 여인
5. 힐자계, 환계
1) 안악 3호묘 서측실 동수 부인
2) 덕흥리 벽화묘 전실 북벽 탄금 시녀
3) 안악 3호묘 북측실 아광
4) 안악 3호묘 동측실 서벽 우측 시녀
5) 안악 3호묘 서측실 서벽

중앙 소사
6. 반계, 쌍계
1) 감숙 돈황 막고굴 390굴 수대 벽화
2) 강소 양주성 동림장 당묘 출토 도용
3) 장천 1호묘 전실 천장 절하는 여자
4) 통구 12호묘 남실 좌벽 수레 뒤 시녀
5) 덕흥리 벽화묘 전실 천장 번을 든 선녀
6) 감신총 전실 북벽 꿇어앉은 여자
7) 감신총 전실 서벽 좌측 시립한 여자
8) 수산리 벽화묘 주실 서벽 출행도 시립한 여자
7. 운계, 화채대계, 불료생계
1) 염립 본 〈북제교서도〉의 시녀
2) 수산리 벽화묘 주실 서벽 묘주 부인
3) 쌍영총 묘도 동벽 팔짱끼고 시립한 여자
4) 산동 금향 주유 무덤 화상석의 여자
5) 약수리 벽화묘 후실 북벽 상부 묘주 부인
6) 감숙 주천 정가갑 5호묘의 무릎 꿇은 악기
7) 약수리 벽화묘 방앗간 그림 속 여자

발 양식의 차이 및 유형의 변화는 두 지역 무덤 묘주의 족속 차이 및 그 정치 관념과 민족 관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郑春颖, 2013, 「高句丽壁画所见发式研究」, 『边疆考古研究』14辑, 248-261.

저 자 정춘잉郑春颖
장춘사범대학 동북아연구소

연 도 2014
간행물명 『사회과학전선』2
『社会科学战线』2

고구려 벽화묘에 보이는 관모冠帽 연구

高句丽壁画墓所绘冠帽研究

주 제 어 고구려
벽화
관모
복식 문화

지원사업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 항목(11YJC780006)
길림성 사회과학기금 항목(2012B289)
길림성 교육청 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기금 항목(길교과문합자吉教科文合字[2012] 제533호)

그 림
1. 면
2. 진현관
3. 농관
4. 평건책
5. 풍모
6. 원정교각모 및 복두
7. 첨정모와 평정모
8. 첨모, 두건, 연화관, 왕관

고구려 벽화묘에는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다량의 관모가 등장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117기의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확실하게 확인되는 관모는 총 417개이다.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면冕, 진현관進賢冠, 농관籠冠, 평건책平巾幘, 모자帽子, 두건頭巾, 연화관蓮花冠, 왕관王冠 등 8종이다.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관모의 특징은 총 네 가지이다. 첫째, 관모는 주로 남자가 썼고, 여자는 보통 관모를 쓰지 않았다. 둘째, 신분에 따른 관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묘주는 주로 농관을 썼고, 속관屬官은 진현관, 보리補吏는 평건책을 쓰는 등 신분에 따른 차이가 보인다. 셋째, 여러 민족의 복식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면관, 진현관, 농관, 평건책 등은 한족漢族 남자 복식의 중요 구성 부분이고, 풍모風帽와 원정교각모圓頂翹脚帽는 탁발선비拓跋鮮卑와 모용선비慕容鮮卑가 주로 사용하던 것이다. '절풍折風'이나 '골소骨蘇'는 고구려의 전통 관모이다. 넷째, 지역적 차이가 보인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벽화묘는 주로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와 한반도 평양平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집안의 벽화묘에는 주로 고구려 전통 관모인 절풍과 골소가 주를 이루고 풍모, 원정교각모, 농관 등은 드물게 확인된다. 그러나 평양의 경우, 5세기 후반기 이전은 면관, 진현관, 농관, 평건책이 주를 이루고,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에는 절풍, 골소가 등장하며, 면관, 진현관, 농관, 평건책 등은 수량이 줄어든다. 6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까지는 면관, 진현관, 농관, 평건책 등이 점차 쇠퇴하고 절풍과 골소가 주류를 형성한다. 두 지역 관모의 차이는 묘주의 족속族屬 차이 및 정치 관념과 민족 관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郑春颖, 2014, 「高句丽壁画墓所绘冠帽研究」, 『社会科学战线』2, 109–122.

저 자 정춘잉郑春颖
장춘사범대학 동북민족역사
및 문화연구중심

연 도 2014
간행물명 『고고여문물』4
『考古与文物』4

고구려 '절풍折風' 연구

高句丽 "折风" 考

주 제 어 고구려
절풍
고찰 증명

지원사업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 청년기금 항목(11YJC780006)
길림성 사회과학기금 항목(2012B289)
길림성 교육청 '십이오十二五' 사회과학연구 항목(길교과문합자吉教科文合字[2012]제533호)
장춘사범대학 인문사회과학기금 항목(장사원사과합자長師院社科合字[2010]정政17호)

'절풍折風'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의 전통 모자로 형태, 사용 방법, 사용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어왔다.

문헌기록을 정리해보면, '절풍', '피관皮冠', '변弁'은 동일한 관모에 대한 시대별 명칭으로, 절풍은 고구려인의 발음에 대한 음역이고 피관은 재료를 근거로 붙인 이름이며, 변은 모양이 유사한 한족의 관모 명칭을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한兩漢, 삼국三國 시기에는 절풍이 고구려 귀족의 전용 관모였으나 남북조南北朝 시기에는 점차 보급되어 '천자賤者'까지 사용할 수 있었고 다만 깃털로 귀천을 구분하였다. 수당隋唐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이 관모를 착용하였다.

'피변皮弁, 위변韋弁'과 유사한 관모는 무용총舞踊塚, 삼실총三室塚, 쌍영총雙楹塚 등 고구려 벽화묘에서 흔히 확인된다. 이런 관모는 상부가 좁고 하부는 넓으며 끝부분은 원추형으로, 피변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구려 벽화묘 가운데 무용총, 마선구麻線溝 1호묘, 통구通溝 12호묘, 우산하禹山下 41호묘, 장천長川 1호묘, 삼실총, 동암리東巖里 벽화묘, 쌍영총, 대안리大安里 1호묘, 개마총鎧馬塚 등 10기의 벽화에 모두 44개의 절풍이 등장한다. 그 외에 당唐 장회태자묘章懷太子墓 동벽의 '객사도客使圖' 중 고구려 사신의 머리에도 두 개의 깃털이 꼽힌 절풍이 보인다.

위 사례를 포함한 45개의 절풍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A형은 전체적으로 원추형에 끝부분은 뾰족하고 바닥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 B형 역시 원추형이나 끝 부분이 둥근 편이고 바닥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수량 면에서 A형이 더 많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B형은 주로 집안시集安市의 일부 무덤에서만 등장한다. A형의 사용자는 칼을 든 남자 시종, 무용수와 가수, 사냥꾼, 출행하는 관리, 의위儀衛, 사신 등 신분이 복잡하고, B형은 사냥

그 림 1. 각종 변, 나제립, 두무와 절풍
2. 절풍 유형 분류
3. 절풍의 장식

표 1. 절풍 통계표

꾼, 우산을 든 남자 시종 등 A형에 비해 단순하며 신분 역시 A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절풍의 장식은 깃털 하나, 둘, 다수, 꿩 꽁지 둘, 영식纓飾 등 5종이다. 이 가운데 깃털 두 개 장식이 가장 많다. 또한 벽화에서 깃털 두 개 장식을 한 인물 형상은 다수가 대열의 첫 번째나 화면의 가장 주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매우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신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절풍이 등장하는 고구려 벽화묘는 주로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후반 사이에 조성되었다. A형 절풍은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등장하고, B형 절풍은 주로 5세기~6세기 중엽의 집안 지역 고구려 벽화묘에만 등장한다.

고구려 벽화묘에 보이는 절풍의 첫 등장 시기는 4세기 중엽~5세기 초이고 한반도의 고구려 벽화묘에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이다. 그 이전인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전반의 한반도 고구려 벽화묘에 그려진 복식은 대부분 한족漢族 복식이거나 선비족鮮卑族 복식이 중심이 된 호복胡服으로 절풍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후 6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기까지는 절풍이 점차 증가하다가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사이에 집안 지역과 마찬가지로 벽화 제재가 세속 생활에서 선불사상仙佛四象으로 변화하면서 절풍이 사라지게 된다.

절풍은 고구려 민족 전통 복식의 중요 구성 부분이고 고구려 민족 문화의 상징이다. 집안 고구려 벽화에서는 절풍이 복식의 주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등장하고, 한반도 고구려 벽화의 절풍은 무에서 유로, 유에서 주류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시공간의 변화는 두 지역 묘주 족속族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치 관념과 민족 관념이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고구려 정권이 4~6세기에 끊임없이 강화되고, 민족의 응집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며, 국가의 일체화 과정이 부단히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郑春颖, 2014, 「高句丽"折风"考」, 『考古与文物』4, 89–94, 100.

저 자 판펑范鵬
중경시 문물고고연구소
연 도 2011
간행물명 『북방문물』4
『北方文物』4

고구려 벽화 인물 관모[首服]의 식별과 연구

高句丽壁画人物首服的辨识与研究

그 림 1. 반원형관
2. 위모관(고개지顧愷之의 〈열녀인지도列女仁智圖〉)
3. 방형관
4. 무관
5. 진현관
6. 평건책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인물의 관모冠帽는 반원형관, 방형관, 무관武冠, 진현관進賢冠, 평건책平巾幘 등 5종이다. 반원형관과 방형관은 관모의 형태에 따라 명명한 것이고, 나머지 3종은 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문헌 속의 명칭으로 명명했다.

반원형관은 고구려 벽화 인물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무용총舞踊塚, 마선구麻線溝 1호, 통구通溝 12호, 장천長川 1호, 쌍영총雙楹塚 등의 벽화에 모두 이 유형이 보이며, 그 형태가 반원형으로 표현되어 반원형관으로 명명했다. 『후한서後漢書』에 따르면, 반원형관은 모양이 복배覆杯와 유사한 한漢 위모관委貌冠과 비슷하다. 또한 『삼국지三國志』에서는 고구려의 모자 가운데 절풍折風이 '변弁'과 유사하다고 했다. 문헌기록에는 위모관과 피변관皮弁冠이 동일하게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절풍의 모양이 변과 같다는 말은 위모관과 같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면 반원형관은 바로 고구려의 절풍에 해당한다.

방형관은 무용총, 장천 1호, 마선구 1호, 장천 2호 등에 등장한다. 상반부가 비교적 크고, 측면은 방형 혹은 제형梯形이며 하반부는 작은 편이다. 『삼국지』와 『후한서』, 『양서梁書』에 따르면 고구려의 대가大加, 주부主簿가 머리에 책幘을 썼는데 중국의 책과 유사하나 뒷부분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벽화 속 인물이 쓰고 있는 방형관은 하부가 작아 인물의 정수리 부위에만 올라와 있어 문헌기록 속의 뒷부분이 없다는 묘사와 일치한다. 즉 방형관은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책으로 판단된다.

무관은 한나라 시기 무관武官이 착용하던 관모로 쌍영총, 약수리藥水里, 팔청리八淸里, 안악安岳 3호, 덕흥리德興里 등에서 확인되었다. 그 모양은 중원의 무관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진현관은 고구려 관련 문헌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벽화에는 다수가 등장한다. 특히 덕흥리와 안악 3호의 진현관이 가장 두드러진다. 중원에서 진현관은 한나라 시기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평건책은 수산리修山里, 약수리, 안악 3호, 덕흥리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중원 지역 한나라 시기 책幘의 일종으로 동한東漢 중기 이후 평상책平上幘의 뒷부분이 점차 높아진 것이다. 고구려 벽화 속 평건책은 전면이 높고 후면이 낮아 평건책을 설명한 『후한서』의 '안단이장顔短耳長'이라는 표현과 일치한다.

반원형관(절풍)이 나오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삼국지』이고 이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해당한다. 고고자료로는 무용총에 이미 등장했다. 즉 절풍이 유행한 시기는 늦어도 4세기 중엽 이전이 된다. 또 당唐나라 장회태자묘章懷太子墓 벽화 속에 등장하는 절풍을 쓴 사신의 모습과 『구당서舊唐書』 및 『신당서新唐書』의 기록에 근거하면 고구려 정권의 멸망 혹은 더 늦은 시기까지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방형관(책)도 『삼국지』에 처음 등장하고 무용총에도 등장하여 4세기 중엽 이전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며, 마선구 1호, 장천 2호, 장천 1호에도 등장하여 6세기 중엽에도 여전히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관, 진현관, 평건책은 동일 무덤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3종 관모의 유행 시기가 서로 인접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장 이른 시기는 안악 3호(336년)이고 덕흥리, 쌍영총, 약수리, 팔청리 등 벽화묘에서도 모두 다수가 확인된다. 따라서 위 3종 관모는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엽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벽화 속 무관을 착용한 인물은 모두 묘주이다. 중원에서는 황제부터 신하까지 무관을 착용했다. 고구려 역시 왕과 귀족이 전용한 관모로 판단된다.

문헌에서는 책을 대가와 주부가 착용한다고 했다. 대가와 주부는 고구려 관명으로 귀족계층이다. 그러나 고구려 벽화의 경우 무용총에서는 묘주가 책을 쓰고 있고, 장천 1호 전실 동벽과 마선구 1호 묘실 좌벽에서는 신분이 비교적 낮은 사람도 책을 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절풍 역시 책과 유사하다. 문헌에서는 소가小加가 절풍을 쓴다고 했고, 무용총 주실 동벽과 서벽에서는 신분이 비교적 높은 인물이 절풍을 쓰고 있다. 그러나 마선구 1호 북측실 동벽에서는 신분이 낮은 편인 시종도 절풍을 쓰고 있다.

진현관과 평건책을 쓴 인물의 신분은 벽화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진현관을 쓴 사람은 관리이다. 덕흥리 벽화묘 속 문관이 쓰고 있는 것이 모두 진현관이다. 안악 3호의 출행도 속 평건책을 쓴 인물들은 갑주를 입지 않은 시위가 대부분으로 평건책을 쓴 사람은 신분이 비교적 낮았던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면, 등급이 가장 높은 자는 무관을 쓰는데 주로 왕과 상측 귀족들이고, 그 다음은 진현관으로 관리들이 착용했으며, 평건책은

주로 시위들이 착용했다. 책과 절풍은 귀족부터 평민까지 모두 사용한 관모로 보인다. 이 밖에 새의 깃털은 문헌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관모에 꼽았다고 하나, 벽화에서는 깃털과 신분이 엄격하게 상응하지 않는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한사군漢四郡 시기부터 고구려 민족은 중원 복식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다루는 5종 관모 가운데 책은 문헌 속에서 중원의 책과 유사하나 뒷부분이 없다고 기록한 점에서 볼 때, 고구려 민족 자체 문화의 산물로 보인다.

절풍은 고구려 관련 기록에서만 등장하여 명칭은 고구려 민족에서 나온 것이지만, 형태는 중원의 변과 유사하여서 그 원형이 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관과 진현관, 평건책의 모양은 중원 지역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고구려 벽화 속에서 모두 4세기 중엽에 등장한다. 그런데 진현관, 평건책은 모두 한나라 시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관모로 고구려 민족의 사용 시기가 중원보다 늦다. 따라서 고구려 민족이 사용한 무관, 진현관, 평건책은 모두 중원 지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范鹏, 2011, 「高句丽壁画人物首服的辨识与研究」, 『北方文物』4, 41–44.

高句麗考古學 論文解題集

부록 III

[유물] 수록 논문 목록(간행물별)

1.『考古』

林至德·耿铁华	1985	「集安出土的高句丽瓦当及其年代」	『考古』7
王仲殊	1990	「关于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考古』11
王仲殊	1991	「再论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考古』12
李殿福	1993	「高句骊金铜、石雕佛造像及中原郡碑-兼谈高句骊易名高丽之始」	『考古』8

2.『考古与文物』

耿铁华	1988	「好太王碑火前无完整拓本」	『考古与文物』1
耿铁华	1992	「好太王碑 “辛卯年” 句考释」	『考古与文物』4
耿铁华	2001	「高句丽釉陶器的类型与分期」	『考古与文物』3
马健	2010	「再论集安国内城遗址出土青瓷器的时代与窑口」	『考古与文物』3
郑春颖	2014	「高句丽 “折风” 考」	『考古与文物』4

3.『辽海文物学刊』

耿铁华	1993	「高句丽兵器初论」	『辽海文物学刊』2

4.『东北史地』(『学问』)

苏鹏力	2012	「考古学视角下的高句丽服装」	『东北史地』4
张福有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碑文补释与识读解析」	『东北史地』3
魏存成	2013	「关于新出集安高句丽碑的几点思考」	『东北史地』3
林沄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小识」	『东北史地』3
徐建新	2013	「中国出土集安高句丽碑试析」	『东北史地』3
孙仁杰	2013	「集安高句丽碑文识读」	『东北史地』3
耿铁华	2013	「集安新出土高句丽碑的重要价值」	『东北史地』3
李新全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之我见」	『东北史地』6
郑春颖	2013	「高句丽的钉鞋」	『东北史地』5
梁志龙·靳军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试读 」	『东北史地』6
耿铁华	2015	「好太王碑与东北亚古代国家关系」	『东北史地』4
孙炜冉	2017	「好太王碑中 “烟户”、“鸭卢” 词义考」	『学问』1

*张福有	2004	「集安禹山3319号墓卷云纹瓦当铭文识读」	『东北史地』1
*黄岚	2004	「从考古学看高句丽民族的饮食习俗」	『东北史地』9
*方起东	2004	「好太王碑碑文解说」	『东北史地』1
*方起东	2004	「好太王碑释读一见」	『东北史地』2
*徐德源	2004	「好太王碑铭文三个地名今址考析」	『东北史地』3
*王纪·王纯信	2004	「高句丽鎏金镂空马饰图案艺术解析」	『东北史地』1
*卑琳	2004	「高句丽城址出土陶器研究」	『东北史地』12
*耿铁华	2006	「潘祖荫藏好太王碑早期拓本刍议」	『东北史地』4
*王昭	2006	「集安出土青铜车辖的初步讨论」	『东北史地』5
*耿铁华	2007	「集安出土卷云纹瓦当研究」	『东北史地』4
*王飞峰·夏增威	2008	「高句丽丸都山城瓦当研究」	『东北史地』2
*崔龙国	2010	「集安高句丽壁画的服饰审美剖析」	『东北史地』2

5.『文物』

耿铁华·林至德	1984	「集安高句丽陶器的初步研究」	『文物』1
魏存成	1985	「高句丽四耳展沿壶的演变及有关的几个问题」	『文物』5
董高	1995	「公元3至6世纪慕容鲜卑、高句丽、朝鲜、日本马具之比较研究」	『文物』10
李东	2014	「吉林集安新发现的高句丽碑」	『文物』10

6.『博物馆研究』

王健群	1982	「好太王碑乙未年纪事考释」	『博物馆研究』创刊号
远生	1983	「高句丽的鎏金铜钉鞋」	『博物馆研究』1
王健群	1985	「和好太王碑研究有关的几个问题」	『博物馆研究』1
罗继祖·丛文俊	1986	「简谈好太王碑字体」	『博物馆研究』1
严长录·杨再林	1988	「延边地区高句丽一渤海时期纹饰板瓦初探」	『博物馆研究』2
张雪岩	1995	「集安青铜短剑及相关问题」	『博物馆研究』1
范犁	1997	「高句丽先人经历过铜器时代」	『博物馆研究』2
耿铁华	1998	「集安市新出土的几件高句丽文物」	『博物馆研究』2
王鹏勇	2000	「高句丽之钉履」	『博物馆研究』1
陈钟远·王宇	2001	「好太王碑乙未岁镌文补识」	『博物馆研究』1
徐德源	2004	「集安博物馆藏高句丽印及印文考释」	『博物馆研究』3

武家昌	2006	「冬寿墓壁画中的乐器及相关问题」	『博物馆研究』1
耿铁华, 庄鹏	2017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上)」	『博物馆研究』3
耿铁华, 庄鹏	2017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中)」	『博物馆研究』4
耿铁华·庄鹏	2018	「吉林省通化新发现的好太王碑拓本及其年代(下)」	『博物馆研究』1

7.『边疆考古研究』

张雪岩	2004	「集安出土高句丽金属带饰的类型及相关问题」	『边疆考古研究』2辑
王飞峰	2008	「汉唐时期东亚文化的交流一以人面纹瓦为中心」	『边疆考古研究』7辑
郑春颖	2009	「长川一号壁画中所见高句丽服饰研究」	『边疆考古研究』8辑
郑春颖	2013	「高句丽壁画所见发式研究」	『边疆考古研究』14辑
孙颢	2013	「集安地区遗址出土高句丽陶器研究」	『边疆考古研究』14辑

8.『北方文物』

魏存成	1991	「高句丽马具的发现与研究」	『北方文物』4
乔梁	1999	「高句丽陶器的编年与分期」	『北方文物』4
耿铁华	2006	「集安新出土文字瓦当及释读」	『北方文物』4
范鹏	2011	「高句丽壁画人物首服的辨识与研究」	『北方文物』4

9.『社会科学战线』

王健群	1983	「好太王碑的发现和捶拓」	『社会科学战线』4
李殿福	1984	「集安卷云纹铭文瓦当考辨」	『社会科学战线』4
耿铁华	2002	「好太王碑拓本收藏著录及其年代」	『社会科学战线』1
张福有	2004	「集安禹山3319号墓卷云纹瓦当铭文考证与初步研究」	『社会科学战线』3
张福有	2007	「好太王碑中的 “平壤城” 考实」	『社会科学战线』4
李德山	2011	「再论好太王碑之 “倭”」	『社会科学战线』5
耿铁华	2011	「好太王碑辛卯年条与相关问题」	『社会科学战线』11
张福有	2013	「集安麻线高句丽碑探综」	『社会科学战线』5
耿铁华·董峰	2013	「新发现的集安高句丽碑初步研究」	『社会科学战线』5
郑春颖	2014	「高句丽壁画墓所绘冠帽研究」	『社会科学战线』2
耿铁华	2017	「高句丽马具寄生研究」	『社会科学战线』5

10.『通化师范学院学』

王纯信	1997	「高句丽服饰考略」	『通化师范学院学报』3
耿铁华·杨春吉	2001	「中原高句丽碑考释」	『通化师范学院学报』1
孙金花	2007	「从高句丽人服饰面料看其对长白山区自然资源的开发与利用」	『通化师范学院学报』9
耿铁华	2008	「好太王碑释文补字略说」	『通化师范学院学报』9
陆丽华	2010	「好太王碑证史与补史作用」	『通化师范学院学报』11
耿铁华	2013	「集安高句丽碑考释」	『通化师范学院学报』3
李乐营·耿铁华	2014	「关于好太王碑拓本的几个问题一纪念好太王碑建立1600年」	『通化师范学院学报』3
耿黎	2014	「好太王碑发现时间及相关问题研究」	『通化师范学院学报』9
耿铁华	2015	「集安高句丽碑的年代与性质」	『通化师范学院学报』5
张春艳·李英睿	2016	「高句丽瓦当莲花纹饰的构成研究」	『通化师范学院学报』7
耿铁华	2017	「关于新发现的两种好太王碑拓本」	『通化师范学院学报』2
耿黎	2017	「集安高句丽碑发现五周年研究成果评述」	『通化师范学院学报』4

11. 기타

耿铁华	1989	「高句丽文物古迹四题」	『文物春秋』4
李乐莹	2001	「古代高句丽印章文化探析一兼与中原印章文化比较」	『长春师范学院学报』1
徐建新	2005	「高句丽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发现一对1884年潘祖荫藏本的初步调查」	『中国史研究』1
徐德源	2008	「好太王碑铭文选释选考」	『辽宁大学学报』1
王飞峰	2017	「高句丽遗迹出土青瓷器研究」	『华夏考古』2

*표시 논문은 2008년~2011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한 · 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에 수록되어 있어, 이 책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Ⅲ

유물

총괄	이주헌(국립문화재연구소)
	임승경(現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재윤(現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김혜정(現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 · 관리사업추진단)
번역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해제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감수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편집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교정	홍밝음(국립문화재연구소)
	김홍수(국립문화재연구소)
	김보람(국립문화재연구소)
발행일	2019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www.nrich.go.kr
	T. 042. 860. 9285 / F. 042. 861. 4924
디자인	지그래픽
	34566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03번길 3
	T. 042. 256. 5055 / F. 042. 625. 6882
발간등록번호	11-1550011-000928-01
ISBN	978-89-299-1708-1 94910 978-89-299-1705-0 (전3권)

© 2019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내용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기간행물 수록

고구려 고고학

논문 해제집

高句麗考古學論文解題集

유물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SBN 978-89-299-1708-1 94910
978-89-299-1705-0 (전3권)